북한산성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
분야별 전공자가 집필한 기획논문집

北漢山城 연구 논문집

경기학연구센터 기획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2016

북한산성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

분야별 전공자가 집필한 기획논문집

北漢山城 연구 논문집

경기학연구센터 기획

2016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北漢山城 연구 논문집

발행일 | 2016년 12월 31일

발행처 |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78
대표전화 _ 031-231-8576
팩스번호 _ 031-231-8588
우편번호 _ 16488

ISBN 979-11-85593-15-9

〈비매품〉

* 이 책은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가 사업을 담당한
'전통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발간사

북한산성北漢山城은 성곽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유산 등재를 시도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축성되었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또 우리나라 명승 제10호인 삼각산에 자리하고 있어, 자연경관도 빼어나다. 아울러 북한산국립공원지구 내에 포함되어 보존환경도 특별나다.

그런데 북한산성의 문화유산적 가치는 이상과 같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 이상으로 다양하고 풍부하다. 구체적으로 북한산성은 도성의 진산鎭山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풍수지리상의 명당이었고, 국가제사와 신앙의 대상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산성의 축성과 운영에 관한 문헌기록도 풍부하고 북한산성의 종합인문지리지인 『북한지北漢誌』가 있어 북한산성의 실체를 종합적·구체적·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북한산성의 축성·수비·관리의 한 축을 의승병이 맡았고, 이들이 주둔하는 승영사찰 13곳이 산성 내부에 있었기에 조선시대 불교문화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책은 지금까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북한산성의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선별하고, 그것을 학계와 일반대중에게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현재까지 북한산성과 관련된 주제 중에서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분야를 선정하고, 전문연구자에게 집필을 의뢰하여 연구의 수준을 높이고자 의도했다. 아울러 현재 그 가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북한산성이 제대로 평가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되었다.

아무쪼록 북한산성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연구·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이 한 권의 연구논문집이, 북한산성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고 북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데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2016년 12월

경기학연구센터장 **윤 여 빈**

북한산성 관리 체계 - 총융청 관리 체제를 중심으로 • 1

이근호

1. 머리말 • 3
2. 총융청 이전의 관리 체계 • 3
3. 총융청 관리 체계로 전환과 내용 • 12
4. 맺음말 • 23

참고문헌 • 24

조선후기 북한산성의 창고와 운영 • 25

임성수

1. 머리말 • 27
2. 북한산성 내 창고 설치와 규모 • 28
3. 군향(軍餉)의 저장과 운영 • 34
4. 군기(軍器)의 마련과 수보(修報) • 39
5. 맺음말 • 45

참고문헌 • 46

『북한지(北漢誌)』의 문헌적 검토 • 51

이왕무

1. 머리말 • 53
2. 저자와 편찬배경 • 56
3. 구성과 내용 • 62
4. 맺음말 • 73

참고문헌 • 74

조선후기 의승군과 북한산성 승영사찰 • 75
황인규

1. 들어가는 말 • 77
2. 양란시 의승군의 봉기와 남한산성 축성 • 78
3. 조선후기 승군의 북한산성 축성과 승영사찰 • 87
4. 나가는 말 • 94
참고문헌 • 97

태고 보우와 북한산 중흥사의 불교사적 위상 • 101
김상영

1. 머리말 • 103
2. 보우의 임제법통 계승과 그 의미 • 105
3. 보우와 북한산 중흥사 • 113
4. 맺음말 – 보우와 중흥사의 불교사적 위상 • 123
참고문헌 • 126

한국의 산악숭배와 고대의 북한산 • 129
신종원

1. 머리말 • 131
2. 사료상으로 본 산악숭배 • 132
3. 산신의 여러 모습 • 153
4. 고대의 북한산 • 158
5. 산신 연구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 163
6. 맺음말 • 172
참고문헌 • 174

문헌에 나타난 삼각산의 산신과 기우제 • 179
채미하

1. 머리말 • 181
2. 산천제사의 정비와 삼각산 • 182
3. 삼각산 산신과 산천신 • 191
4. 기우제와 삼각산 • 202
5. 맺음말 • 213
참고문헌 • 215

경기도 도당굿과 삼각산 도당굿 • 217
김형근

1. 들어가며 • 219
2. 도당굿의 지역적 분포 • 221
3. 경기도 도당굿의 양상 • 224
4. 삼각산 도당굿의 양상 • 232
5. 삼각산 도당굿의 무형유산적 가치 • 238
참고문헌 • 241

북한동의 민속과 산신제 • 243
김준기

1. 머리말 • 245
2. 북한동 생활의 변모 양상 • 246
3. 북한동의 민속 • 250
4. 북한동의 마을제사 • 257
5. 맺음말 • 270
참고문헌 • 272

삼각산의 지리와 풍수 • 273
최원석

1. 지리지로 본 삼각산 • 275
2. 고지도로 본 삼각산 • 281
3. 풍수도참으로 본 삼각산 • 287

참고문헌 • 297

북한산성 지명의 분포와 의미 • 299
김순배

1. 서론 • 301
2. 지명의 분포 • 305
3. 주요 지명의 의미 및 변천 • 339
4. 결론 • 349

참고문헌 • 353

북한산성의 불교문화재 • 357
임남수

1. 머리말 • 359
2. 불상 • 360
3. 석탑과 부도 • 375
4. 공예 • 385
5. 맺음말 • 387

참고문헌 • 389

선정비 아래의 그늘 - 조선후기 사회와 북한산성 • 391
조윤민

1. 선정(善政)과 악정(惡政) • 393
2. 북한산성 군량미, 환곡, 국가의 고리대 • 395
3. 주관부처와 고위관료의 축재 • 400
4. 의승(義僧)과 총섭(總攝)의 폐단 • 403
5. 성곽관리의 문란과 군사훈련 부실 • 409
6. 선비의 풍류, 백성의 눈물 • 412

참고문헌 • 414

『三國史記』의 北漢山城에 대한 역사고고학적 고찰 • 415
김성태

1. 머리말 • 417
2. 백제본기의 북한성, 북한산성 등 검토 • 418
3. 신라본기와 고구려본기의 북한산성 전투 • 427
4. 하북위례성과 북한성의 비정 • 430
5. 맺음말 • 439

참고문헌 • 441

부록 | 북한산성 관련 참고문헌 • 445

- 사료 • 447
- 보고서 • 447
- 저서 및 학술발표 논문집 • 449
- 논문 • 450

北漢山城 연구 논문집 1

북한산성 관리 체계

총융청 관리 체제를 중심으로

이근호*

1. 머리말 • 3

2. 총융청 이전의 관리 체계 • 3

3. 총융청 관리 체계로 전환과 내용 • 12

4. 맺음말 • 23

참고문헌 • 24

* 명지대학교

1. 머리말

북한산성은 1711년(숙종 37) 도성 방어를 목적으로 축성된 성곽이다. 당시까지 주로 남한산성과 강화도에 의지하여 도성을 방어하는데서, 새롭게 북한산성을 축성하고 이를 새로운 전략적 거점기지로 삼아 도성민들과 함께 도성을 방어하고자 한 것이다. 국왕 등은 이를 "여민공수(與民共守, 백성과 함께 지킨다)"라 표현하거나 "여민동입(與民同入, 백성과 함께 (성으로) 들어간다)" 등으로 표현하였다. 북한산성 축성의 군사전략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산성은 축성 이후 여러 차례 관리 체계가 변화하였다. 그 과정은 도성 수비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이자, 변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산성에 대해서는 기존에 축성 과정 등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축성 이후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검토된 바 없다.[1] 아래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면서 축성 이후 관리 체계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총융청 이전의 관리 체계

북한산성 축성은 1711년(숙종 37) 4월 공사가 시작되어 같은 해 10월에 일단락되었다. 축성 역사(役事)는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 등 삼군문이 구역을 분담해서 주관하여 축성하였는데, 이때 기술자인 모군(募軍)과 도성민, 군영 소속 군인이 동원되었다. 축성이 완료된 직후부터 산성의 관리를 위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기존에 남한산성은 수어청, 강화도는 진무영이 주관하던 전례에 비추어 새로운 관청을

1) 북한산성의 관리 체계에 대해서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이근호, 2014,「조선후기 사회와 북한산성의 운영」,『북한산성의 역사와 문화유적』(경기문화재단)이 유일한 연구가 아닌가 한다. 아래에서는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하면서 서술하고자 한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자료의 전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만들어 관리하자는 안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산성은 "마치 왕도(王都) 안에 있는 것"과 같아서 남한산성과 강화도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새롭게 관청을 둘 필요가 없이 1인을 정하여 주관하게 하고, 삼군문의 장수가 각자 분담한 구역을 주관하면서 함께 의논하며 관리하자는 안이 제출되었다. 이 안이 대부분의 동의를 얻어 축성 직후에는 1인의 주관대신과 삼군문이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되었다.

북한산성의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는 1712년(숙종 38) 4월 10일 숙종이 북한산성에 행행(行幸)하여 산성을 돌아보는 자리에서 다시 제기되었다.[2] 호조판서 김우항(金宇杭)은 축성 역사가 마무리되었는데 주관자가 없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면서, 양주 부근의 4~5면(面)과 고양의 1~2면을 성에 소속시켜 고을을 만들고, 장관에게 북한부사(北漢府使) 또는 중흥부사(重興府使)·수비사(守備使) 등의 직함을 주어 산성의 관리를 총괄하게 하자고 건의하였다. 김우항의 안은 결국 별도의 군영을 설치하자는 것이었다.

김우항의 의견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먼저 판중추부사 이유(李濡)는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 기존처럼 삼군문에서 주관하되 시임대신(時任大臣)이 이를 통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다. 이유가 이 같은 안을 제시한 것은 앞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북한산성이 남한산성이나 강화도와는 다르며 "마치 도성의 내성과 같은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유는 이런 체계를 통해 유사시에는 시임대신에게 체찰사(體察使)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판중추부사 이이명(李頤命) 역시 김우항이 제기했던 읍을 설치하자는 제안에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 수어청과 같이 별도의 군문을 설치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국력이 감당할 수 없다며 반대하였다. 그러면서 여전히 삼군문이 각자의 분담 구역을 주관하는 한편 "북한모사

2) 이에 대해서는『숙종실록』권51, 숙종 38년 4월 10일(임술) 및『승정원일기』467책, 숙종 38년 4월 10일(임술)을 참조하였다.

(北漢某司)"라 하여 별도의 이름을 갖는 관사를 두고 대신이 도제조로, 삼군문대장이 당상이 되어 착실히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몇 가지 안이 제기되었으나 당일에는 결정되지 못하고 묘당(廟堂)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로부터 1달 정도 지난 1712년(숙종 38) 5월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는 자리에서 영의정 서종태(徐宗泰), 병조판서 최석항(崔錫恒) 등이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개 앞서 제기되었던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읍의 설치에 대해서 조태구는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표시하여 적성과 교하를 이속하자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일부는 총융사에게 소속시키자는 안도 제기되었다. 당일 논의 끝에 숙종은 산성의 관리를 관장할 독립 관부의 설치가 타당하다고 말하며, 신하들에게 이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숙종의 발언이 있은 후 같은 해 8월 영의정 서종태의 건의에 따라 북한구관당상(北漢句管堂上)을 설치하였는데, 이때 서종태가 추천한 민진후(閔鎭厚) 대신 숙종은 판중추부사 이유를 주관으로, 병조판서 조태채를 당상으로 임명하였다.[3] 이어서 9월에는 약방도제조 이이명의 건의에 따라 경리청(經理廳)을 북한산성의 명호를 정하고, 주관대신은 도제조로 당상은 제조로 하며, 삼군문의 대장은 예겸제조를 겸임하도록 하는 편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로써 축성 이후 주관 부서가 없이 운영되던 북한산성은 1712년(숙종 38) 9월 경리청이란 하나의 관서 명칭을 띠면서 그 운영의 체계화가 추진되었다.[4]

경리청은 설치 이후 「북한산성절목」을 비롯해 의승(義僧)의 관리와 관련한 「북한산성도총섭절목(北漢山城都摠攝節目)」 등을 마련하면서 북한산성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갔다. 또한 산성 운영에 절대

3) 『숙종실록』 권52, 38년 8월 23일(갑술).

4) 경리청에 대해서는 이태진, 1996, 「숙종대 북한산성의 축조와 그 의의」, 『북한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서울대박물관·고양시 및 이현수, 1991, 앞의 논문 등 참고.

적으로 필요한 군량의 마련에도 주력하여, 선혜청이나 호조에서 일부 곡식을 가져오거나 둔전(屯田)의 설치 등을 통해 충당하려고 하였다. 군량의 보관을 위한 창고도 설치하였다.

경리청의 본사는 도성의 향교동(鄕校洞)에 두었으며, 북한산성의 수비를 위해 별도의 예하부서인 관성소(管城所)를 두었다.[5] 이 같은 체계가 경리청 설치 초기부터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6] 성능이 지은 『북한지』에 따르면, 관성소는 병사와 수사를 역임한 무신 가운데 선임하는 관성장(管城將)이 주관하는데, 관성장 예하에 약 1,106명이 배속되어 산성 내 군량의 관리 및 수비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경리청은 북한산성 운영의 전반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던 곳으로 보이며, 북한산성 내에서 실질적인 군사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에 대한 관리를 전적으로 주관하던 곳은 관성소였다. 관성소는 경리청의 산성내 분소와 같은 기관으로[7], 산성 내의 군사와 재정을 실질적으로 주관하였다.

삼군문에서는 북한산성 내에 유영(留營)을 설치하였다. 삼군문은 북한산성 축성을 전적으로 주관하였을 뿐 아니라 축성 직후 관리 주체의 하나였다. 따라서 서울에 본영과는 별도로 산성에 일종의 분소를 두었던 것이다. 각 군문의 유영에는 유영감관(留營監官) 1인의 감독하에 서원(書員) 등이 배속되었는데, 훈련도감 유영은 10명, 어영청 유영은 12명, 금위영 유영은 9명이 각각 배치되었다. 그 직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5) 성능, 『북한지』, 관원조.

6) 지금 현단계에서 관성소가 경리청 설치 초기부터 운영되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 관성소와 관련해서, 관성소를 주관하는 管城將이란 명칭은 1721년(경종 1) 3월 18일 북한산성 별장을 개칭하면서 등장하며(『승정원일기』 530책, 경종 1년 3월 18일(기묘)), 관성소라는 명칭도 각종 자료에는 1730년(영조 6) 이후 등장한다. 이러한 사례로 보아 관성소의 설치 시기는 대략 1721년 이후라고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는 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7) 이태진, 1996, 앞의 논문, 38~39쪽.

〈표 1〉 북한산성 내 삼군문 유영의 직제[8)]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직제	인원	직제	인원	직제	인원
留營監官	1	留營監官	1	留營監官	1
書員	1	書員	1	書員	1
庫直	2	庫直	2	庫直	2
守直軍	1	守直軍	1	守直軍	1
使喚軍	2	使喚軍	2	使喚軍	2
北門直	2	西門直	2	大城門直	2
水口門直	1	中城門直	2		
		文殊門直	1		
計	10	計	12	計	9

유영감관은 당상관급의 무신으로 차출하였다. 각 군영에 따라 배속 인원이 차이가 있는 것은 각 군영에서 관장하는 성문의 다소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각 군문의 유영은 성곽의 수비를 비롯해 산성 수축, 군량 출납과 무기 관리 등 북한산성 내에서 해당 군영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였다.

유영은 상황에 따라 산성 내에서 그 위치가 이동을 하였다. 이는 현재 남아 있는 '북한산성금위영이건기(北漢山城禁衛營移建記)'를 통해서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1711년(숙종 37) 10월에 북한산성 축성이 완료된 뒤 소동문(후에 대성문으로 개칭)에 금위영 유영을 두었으며, 군대의 영사와 창고는 모두 90칸이었다. 그런데 그 지세가 높고 비바람이 거셀 뿐 아니라 모퉁이에 물길이 나서 무너지기 쉬워 1715년에 보국사 아래로 이전했던 것이다. 금위영을 이건한 지 2년 뒤에 이곳을 방문한 송상기는 그 규모가 어영청의 유영보다 작았다고 기록하고 있다.[9)] 어영청 유영의 경우도 1729년(영조 5) 9월 산사태로 이

8) 성능, 『북한지』, 관원조.

설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단, 실제 이전하였는지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하다. 삼군문의 유영은 1747년(영조 23) 총융청이 북한산성을 주관하게 되면서 총융청으로 이속되었다가 1766년(영조 42) 총융청의 군기 보수 등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삼군문으로 옮겨 속하게 되었다.[10]

관성소와 함께 북한산성 수비를 담당하던 곳으로 산성 내 승영(僧營)이 있었다. 북한산성 축성 이전 산성 내에는 중흥사(重興寺)가 유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며,[11] 축성 이후에는 다수의 사찰이 조성되었다. 성능의 『북한지』에 따르면, 중흥사·용암사(龍巖寺)·보국사(輔國寺)·보광사(普光寺)·부왕사(扶旺寺)·원각사(元覺寺)·국녕사(國寧寺)·상운사(祥雲寺)·서암사(西巖寺)·태고사(太古寺)·진국사(鎭國寺) 등과 봉성암(奉聖菴)·원효암(元曉菴) 등을 제시하였다.

승영의 설치는 북한산성 내 사찰과 승려, 그리고 의승(義僧)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의승이란 각도에서 차출된 승려들로, 교대로 상번하여 수직하였다. 승영은 승대장(僧大將) 1인의 주관하에 중군·좌우별장·천총·파총·좌우병방(左右兵房) 각 1인, 교련관(敎鍊官)·기패관(旗牌官)·중군병방 각 2인, 5기차지(五旗次知) 1인, 도훈도(都訓導)·별고감관 각 1인, 사료군관(射料軍官) 10인, 서기 2인, 통인(通人) 2인, 고직 3인, 책장무(冊掌務)·판장무(板掌務) 각 1인, 취수(吹手) 1인, 각사승장(各寺僧將) 11인, 수승(首僧) 11인, 의승(義僧) 350인 등 전국의 승려 중에서 372인을 번상시켜 승영에 예속시켰다.[12]

승영 소속 인원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편제를 갖게 된 것은, 1714년(숙종 40) 이유(李濡)가 산성 수비에 중요한 존재로 거론하면

9) 송상기, 『옥오재집』, 「유북한산기」.

10) 『승정원일기』 1260책, 영조 42년 10월 30일(병인)

11) 『승정원일기』 461책, 숙종 37년 7월 5일(임진), "戶曹判書金宇杭曰 北漢只有重興一寺 不可不多置寺刹".

12) 성능, 『북한지』, 관원조.

서, 남한산성 200여 명을 이속하여 정원을 350여 명으로 한 데서 비롯되었다.[13] 북한산성 수비에는 이같이 관성소 인원과 승영이 주로 동원되었으며, 여기에 더하여 남한산성의 사례를 원용하여 전가사변(全家徙邊)에 해당되는 죄인의 경우도 북한산성에 속하여 수비를 담당하기도 하였다.[14]

숙종대 후반부터 경리청의 혁파 문제가 거론되었다. 경리청을 혁파하자고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리청의 요판(料辦) 행위이다. 즉 경리청에서 행하고 있던 식리(殖利) 활동이 문제된 것이다. 경리청의 요판 행위는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었다. 경리청의 요판 행위는 경리청 본래의 역할을 벗어난 것으로, 심지어 경리청의 차인(差人)을 거간꾼이나 간사한 소인 무리로 묘사하였다.

당시 경리청에서 행하던 식리 행위는 각 아문에 남아 있는 전포(錢布)를 대출하거나 지방에서 보관하고 있던 미곡을 취하여 이를 자본으로 해서 지방에서 교역을 한 뒤 본전은 도로 돌려주고 나머지로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었다. 이런 행위를 경리청에서는 공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백성들에게도 해가 될 것이 없는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차인들이 지방에서 교역을 하는 과정에서 물가를 낮추거나 높이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관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고 백성들의 업을 빼앗는 폐해가 있다는 것이다.

경리청의 혁파 문제는 몇몇 관원들에 의해 지적되었는데, 1719년(숙종 45) 헌납 이봉익(李鳳翼)이 대리청정을 하고 있던 세자에게 상서하여 역시 경리청을 혁파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계속 유지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예를 들어 이건명의 경우 북한산성을 축성하려고 하였을 때 삼군문에 나누어 맡겨 서로 통섭(統攝)이 되지 않았으므로 경리청을 설치하여 대신(大臣)으로 겸대(兼帶)하게 한 것

13) 『숙종실록』 권55, 40년 9월 25일(계해) 및 『승정원일기』 제485책, 숙종 40년 9월 25일.
14) 『비변사등록』 65책, 숙종 39년 2월 23일.

으로, 아문이 존엄하지 못하면 세 군문을 호령할 수 없으므로 경리청을 혁파하기 어렵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다만, 봉료(俸料)를 판비(辦備)한다는 조항은 혁파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을 맡았던 사람을 만약 갑자기 가두어 죄를 다스린다면 이미 흩어진 재물을 수습(收拾)할 수 없을 것이니, 본청(本廳)에서 기한을 정하여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마도 무방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결국 이런 비판 속에서 경리청의 요판 행위는 결국 혁파되었다.

그럼에도 이후 경리청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1721년(경종 1) 4월 경리청 당상직을 겸하던 호조판서 민진원은 당상직을 사직하면서 북한산성 축성 당시 경비 마련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경리청을 혁파하고 둔전 등을 하나의 군영에 소속시켜 비변사에서 산성을 총괄하게 하자고 하였다. 민진원의 안은 일단 경리청 혁파가 전제된 것으로, 경리청에서 관장하는 곡식과 둔전을 한 군문에 귀속시키고, 산성 사무는 비변사에서 관장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민진원이 지적한 문제는 다음 해 우의정 최석항이 다시 지적한 바 있다. 즉 최석항은 "경리청은 북한산성을 구관(句管)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인데, 재물을 소모시키고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폐단이 많으니, 청(廳)의 이름을 없애고 요리(料理)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되, 비국의 유사당상(有司堂上) 한 사람으로 하여금 북한산성의 일을 겸하여 관장하"자고 건의하였다. 결국 1722년(경종 2) 1월 최석항의 논의를 계기로 경리청 역시 혁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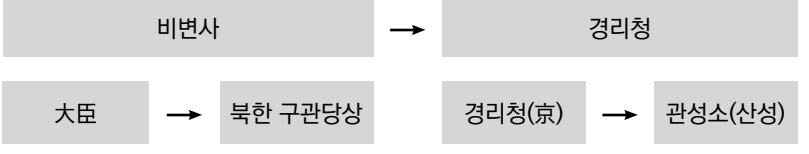
그리고 대신 비변사의 유사당상(有司堂上) 중 1인을 선정해 북한구관당상(北漢句管堂上)으로 차출하여 북한산성을 전관하도록 하고, 상위에 영의정으로 하여금 예겸(例兼)으로 총괄하도록 하였다. 업무의 처리를 위해 절목은 주관당상이 대신과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15] 이후 북한구관당상은 경리청당상 혹은 경리당상 등의 이름으로

15) 『승정원일기』 536책, 경종 2년 1월 10일(병신), "(崔錫恒曰)…**經理廳稱號 旣已革罷** 則本

차출되기도 하였다.

경종 연간에 폐지되었던 경리청은 영조 연간에 다시 복설되었다. 즉 1730년(영조 6) 8월 5일 국왕이 대신과 비변사당상 등을 인견하는 자리에서 윤순(尹淳)은 경리청의 이름을 다시 복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경리청당상을 비변사의 당상으로 차출하여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관인(官印)이 없어 관성장이 인신을 사용하는 것에도 미치지 못하니 예전처럼 관인을 복구해서 일을 처리하자고 한 것이다. 계통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해 영조는 당초에 경리청의 명호를 혁파한 것은 차인의 폐단 때문으로 일이 구차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인신을 복구해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경리청이라는 이름이 폐지된 지 8년만에 복구되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선혜청의 예에 따라 계속해서 비변사 당상을 차출해서 주관하게 점이다.[16] 즉 비변사에 구관당상을 두어 통할권을 강화한 것이다. 경리청[17]이 복구되고 비변사가 구관당상에 관할하는 체계에서 여전히 산성 내에서 관리는 주로 관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표 2〉 1730년 경리청 복구 후 북한산성 관리 체계



司有司堂上中一人 以北漢主管堂上啓下 使之專管 大臣中 首相例兼摠察…與凡干區處之事 主管堂上 議于大臣 作爲節目 別單啓下 以爲永久遵行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
한편 다음 해인 1723년(경종 3) 10월 16일에는 경리청의 인신(印信) 역시 폐기하였다(『승정원일기』 559책, 경종 3년 10월 16일(임술)).

16) 『승정원일기』 708책, 영조 6년 8월 5일(신축), "上曰 北漢事 李判府事 用盡心力 而末梢不能善爲之 多生弊端 故局外之人 皆以北漢爲咎 竝與經理廳而罷之矣 先朝亦有御製詩 旣不可棄之 則當更爲收拾 此則不出擧條 當初罷廳 雖由於差人之貽弊 而屬之備局 終涉苟且矣 今則復其廳號 用其本印 而堂上主管 一如惠廳例 可也".

17) 경리청은 經理衙門으로도 불렸다(『승정원일기』 887책, 영조 15년 3월 8일(갑인)).

이 점은 숙종대 이후 비변사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의 연장선상이었다. 비변사는 숙종대 이후 이전 시기에 비해 재정 관련 기능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방도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였다. 이런 가운데 1713년(숙종 39)부터는 지방 수령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팔도구관당상제가 시행되었다. 이 시기 비변사의 직무나 혹은 기능이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결국 "비국은 본래 정부의 한 부속 관서였는데 도리어 정부가 되고, 정작 정부는 이름만 있을 뿐 아무런 실권이 없다"라는 이단하의 지적처럼 의정부의 부실화와 비변사의 위상 확대로 이어졌다.[18] 1730년 경리청을 복구하면서 비변사 당상을 통해 통할권을 부여한 것은 비변사의 권한이 강화되는 과정의 연장선상이라고 하겠다.

3. 총융청 관리 체계로 전환과 내용

1) 총융청 관리 체계로의 전환과 의미

북한산성 관리 체계의 정비가 논의되는 와중에서도 산성 운영의 부실화 문제가 제기되었다. 북한산성 관리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1721년(경종 1) 9월 22일 장령 이기헌은 관리 체계의 문제와 총섭승(總攝僧)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즉 이기헌은 먼저 국가에서 북한산성을 축성한 이유는 도성 수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급할 때에 믿을 곳으로 삼기 위함이라고 전제하고는 관리의 부실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비록 관장하는 당상이 있지만 끝내 남한산성처럼 수어사(守禦使)가 마음을 다해 보장(保障)하는 것만 못합니다. 비록 관성장을 두긴 했지만 신망이 중한 광주부윤(廣州府尹)이 감독하는 것만

18) 이근호, 2008,「비변사등록의 서술체계와 내용」,『사학연구』91을 참조.

못하"다고 하면서 관성장을 제대로 차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성장이 성에 도착해서 한다는 일이 그저 환곡에 손을 대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의 집안 좋은 집안 사대부 중 가난한 자에서 생색내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관성장은 병사(兵使)나 수사(水使) 역임자 중에서 재주와 인망이 훌륭한 사람을 각별히 차출하자고 제안하였다.

이기헌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또 다른 것은 총섭승의 문제였다. 당시 북한산성의 총섭승은 『북한지』의 찬자로 알려진 성능이었다. 이기헌은 성능을 간사한 승려로 표현하면서, 15년 동안 직임을 맡아오면서 간사하고 참람됨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기헌의 표현에 따르면 성능은 8도 의승의 제번전(除番錢)과 가자공명첩(加資空名帖)을 판매한 값을 공사에 보태지 않고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충당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능을 엄하게 죄줄 것을 건의하였다.[19]

운영상의 문제점과 함께 북한산성이 폐기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즉 1729년(영조 5) 국왕은 "신축년(辛丑年, 1721년 경종 1년) 이후 산성이 거의 폐기되었다"[20]고 한 바 있다. 1734년(영조 10) 1월 중부참봉 백규창은 북한산성이 쓸데없다고 하여 폐지하자고 주장하였다. 영조대 중반인 1746년(영조 22)까지도 "근래 북한산성이 폐기되었다"[21]고 하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이다.

이렇게 북한산성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실화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경종을 이어 왕위에 오른 영조에게 북한산성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바로 선왕인 숙종을 추억하고 회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예를 들어 1725년(영조 1) 5월 민진원이 유사시 완급에 따라 강화도와 북한산성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때 영조는 북한산성을 개창하게 된 것은 실로 선왕인 숙종의 신념에서 나

19) 『비변사등록』 영조 7년 9월 22일.

20) 『승정원일기』 695책, 영조 5년 10월 26일(정묘).

21) 『승정원일기』 999책, 영조 22년 3월 27일(계사).

온 것이라고 하면서, 급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므로 폐할 수 없으니 서서히 수습하자고 하였다. 영조는 북한산성을 통해서 선왕인 숙종을 회상하고 있고, 나아가 서서히 수습할 뜻을 비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산성은 쉽게 폐기될 수 없었다. 오히려 영조는 측근들을 북한산성에 보내 그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였다.

1728년(영조 4) 10월 3일 탕평파의 일원인 송인명은 직접 북한산성을 다녀와서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송인명은, 북한산성은 물 걱정도 없고 또 험준하여 도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당히 유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퇴락한 사찰들을 복구해서 북한산성을 지키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송인명의 보고를 접한 당시 조정에서는 상당수가 송인명의 견해에 동조하였다. 같은 자리에서 영조는 북한산성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북한은 전에 보았다. 대개 그곳은 행궁과 공해(公廨) 이외에는 평탄한 곳이 없었는데 지금 듣건대 임진년(1712, 숙종 38)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한다. 축성의 의논을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헐뜯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미 축성한 후에는 갑자기 버려서는 안 되는데 경리청(經理廳)을 혁파하고 비변사에 소속시킨 후로는 버린 땅처럼 보고 있다. 북한에 들어간 우리나라 물력(物力)이 얼마인데 이제 공공연히 버리겠는가? 선조(先朝) 때 하룻밤 머무르신 곳도 이제 들으니 무너졌다고 하니 마음이 매우 슬프다. 공명첩에 이르러서는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지금 경비가 탕갈되어 달리 조치해 줄 방도가 없다. 남한(南漢)에도 이미 허락하였으니 묘당에 분부하여 일체로 내주도록 하라. 행궁은 호조에서 대략 보수하라고 분부하도록 하라[22]

위에서 영조는 북한산성의 쇠락이 비변사에 소속된 이후부터라고 하면서 공명첩의 발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서 보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렇게 재정비의 기회를 맞이한 북한산성은 행궁의 보수와 함께

22) 『비변사등록』 영조 4년 10월 3일.

의승의 복설이 논의되는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제도 정비가 추진되었다. 아울러 새로운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1734년(영조 10) 11월 장령 윤지원(尹志遠)은 경기감영을 북한산성으로 옮겨 내실화를 기하자고 주장하였다.[23] 또한 같은 달에 훈련대장 장붕익은 남한산성을 수어청에 소속시킨 예에 따라 북한산성을 총융청에 소속시키고 관리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24] 이렇게 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는 등 북한산성을 새롭게 주목한 견해들이 제시되면서, 북한산성을 일컬어 금성탕지(金城湯池)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였다.[25]

이후 1746년(영조 22) 정언 안식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총융청이 관할하는 체계가 제기되었는데, 이 안은 점차 조정 내에서 상당한 공감을 얻어갔다. 그리하여 1747년(영조 23) 1월 북한산성 문제가 논의될 때 정석오를 비롯해 조현명 등이 이를 지지하고 나왔다. 대세는 총융청으로 이관으로 하는 안으로 모아져갔다. 민응수(閔應洙) 같은 이는 수어청이 남한산성을 관장하는 것처럼 한 다음에야 북한산성도 두서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영조의 하명으로 비변사 당상인 김시형·김상성·정익하·김상로가 구관당상이 되어 본격적으로 총융청으로 이관하는 문제가 검토되었다. 결국 1747년 5월 6일 총융청을 탕춘대로 옮기되 종사관 1원을 차출하고 총융사는 훈련도감과 어영청 예(例)에 따라 겸하도록 결정되었다.[26]

유명무실해진 경리청을 혁파하고 오군영 중 하나인 총융청으로 북한산성을 이관함으로써 북한산성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총융청은 1704년(숙종 30) 「양역변통절목」이 제정되면서 수어청과 함께 경기 지역을 관장하는 군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수어청은 그 중

23) 『영조실록』 권39, 10년 11월 5일(병자).
24) 『영조실록』 권39, 10년 11월 25일(병신).
25) 『영조실록』 권61, 21년 4월 25일(정묘).
26) 『영조실록』 권65, 23년 5월 6일(을미).

심이 남한산성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경기 동남부를 관장하던 것과는 달리 총융청은 별도의 중심이 없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와서 북한산성을 관장하게 됨으로써 도성의 수비를 위한 외곽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한편 주목되는 것은 왜 이 시기에 북한산성을 총융청으로 이관하게 되었을 까 하는 점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은 이 시기가 「수성윤음(守城綸音)」과 「수성절목(守城節目)」이 만들어지던 시기라는 점이다. 「수성윤음」과 「수성절목」은 이른바 도성사수론(都城死守論)을 제도화한 것으로, 영조대 도성 수비 체제의 확립과 관련된 것이었다. 영조대는 재위 초반부터 도성 수비와 관련된 논의가 제기되었다. 특히 국왕 영조는 도성사수론을 내세우며 초반부터 도성 수비를 강조하였다.

영조대 도성 수비 논의는 특히 1743년(영조 19) 이후에 증폭되었는데, 이는 조선과 청 양국의 접경 지역에 소요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정세로 인한 것이었다. 특히 청조의 영고탑회귀설(寧古塔回歸說)이 주목되는데, 영고탑회귀설이란 당시 청나라 황제의 북방 순행을 두고 이를 청국이 자신들의 고향인 영고탑으로 회귀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이다. 영조는 이에 대비한 자강(自强) 대책을 강구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성사수론과 강화외성축성론으로 나뉘어져 논란이 있었다. 다만, 양자의 논의는 도성을 수비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동의하면서 제기된 것이고, 양측 모두 도성과 강화도의 방위 시설 강화가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 결과 강화외성 축성이 결정되어 추진되었고, 이후 도성 수축이 진행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성 수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성사수론은 더욱 탄력을 받아 제기되었으며, 그것이 결국 「수성절목」의 제정으로 이어졌던 것이다.[27]

따라서 영조대 전반은 대개 도성수비체제를 확립을 위해 다양한

27) 영조대 전반기 도성 수비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이근호, 2013, 「영조대 도성 수비 논란의 검토」, 『향토서울』 83.을 참고 바람.

논란과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던 시기였다. 그리고 이것이 일단락되는 상징이 「수성윤음」과 「수성절목」의 반포였던 것이다. 이 시기 북한산성과 관련해서 절목이 제정되고 총융청으로 이관하는 조치들이 취해진 것은 이처럼 확립된 도성수비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이로써 북한산성은 명실상부하게 도성 수비를 외곽에서 보완하는 장치로 그 위상이 정립되었다. 즉 총융청으로 이관된 뒤 북한산성에 대해서는 "연융대(鍊戎臺)와 더불어 국도(國都)의 후관(後關)이 되며 하늘이 만든 금성탕지(金城湯池)로서 도성의 등을 옹위"[28]하는 위상을 갖게 되었다.

2) 총융청 관리 체계하의 북한산성

1747년 5월 7일 「총융청주관북한탕춘대절목(摠戎廳主管北漢蕩春臺節目)」이 제정되었다. 북한산성의 관리 주체로 총융청이 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정한 것이다. 해당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① 경리청의 호칭은 오늘부터 폐지하고 총융청에 이속하여, 총융사로 하여금 북한산성과 탕춘대를 전담하여 주관하게 한다.
>
> ② 총융청은 탕춘대에 옮겨 짓게 한다.
>
> ③ 총융청의 중군(中軍)은 북한산성의 관성장(管城將)을 겸찰하되, 전과 같이 북한산성에 머무른다.
>
> ④ 총융사가 북한산성을 구관하게 되어 있어 사체는 전과 다르다. 수어청의 예에 따라 종사관 1원을 가려서 차출한다.
>
> ⑤ 북한산성 및 탕춘대 수성군(守城軍)은 경리청에 당초 정한 수첩군관(守堞軍官) 2백66인, 별파진(別破陣) 2백인, 아병(牙兵) 6백35인, 의승(義僧) 3백50인, 총융청 7색 표하군(標下軍) 8백52명, 장초(壯抄) 10초(哨), 아병(牙兵) 60초, 둔장초(屯壯抄) 3초, 아병(牙兵) 3초, 군수

28) 『영조실록』 권121, 49년 10월 27일(임자).

보(軍需保) 6천5백명, 취철아병(取鐵牙兵) 80명, 모두 합하여 1만 2천 1백 30여 병(兵)이다. 이밖에 총융청과 경리청의 각색 장교·두목·기수(旗手) 원역(員役)등 6백여 인이 못되지 않는다. 이 수로 돌아가며 성첩을 지킬 수 있다. 이와 같이 거행한다.

⑥ 총융청에 소속된 3영 중 수원진(水原鎭)은 설치목적이 중요하므로 군병을 옮겨 성을 지킴은 거론할 바 못 된다. 장단(長湍)·남양(南陽) 2진(鎭)은 수원진과 좀 다르다. 북한산성 및 탕춘대를 수성하는 군정이 부족할 경우에, 양진 중에서 어느 군병이든지 때에 임하여 뜻을 품하고 보충하여 수성한다. 비록 양진 외의 다른 군병일지라도 조가에서 상황을 보아가며 지휘한다.

⑦ 북한산성에 소재한 경리청의 상·중·하 3창과 3군문의 유영(留營)에 있는 군향·군기 및 탕춘대에 소재한 경리청의 평창(平倉)군향은 아울러 총융청에 소속된다. 군향의 출납과 군기의 수보는 남한산성의 예에 따라 총융청에서 전담 구관하여 거행하게 한다.

⑧ 북한산성의 행궁(行宮) 및 호조창(戶曹倉)의 어공미(御供米)는 사체가 특별하여 변통하려 해도 어려운 점이 있다. 그대로 호조에 소속시켜 전과 같이 거행하게 한다.

⑨ 당초 북한산성을 쌓은 뒤 탕춘대에 선혜청의 창고를 짓고 식량을 비축한 것은 뜻하는 바가 있다. 지금 가벼이 폐지를 논할 수는 없으나 경리청 평창의 상창(上倉)은 전에 선혜청이 빌려 쓰도록 허용된 것이므로 그대로 선혜청에 획속(劃屬)하게 하고 본청의 탕춘창(蕩春倉)의 곡물을 이 창고에 옮겨 두고 전과 같이 선혜청에서 구관하게 한다. 선혜청의 탕춘창사는 총융청으로 소속을 바꾸고 총융청의 강창(江倉) 곡물도 옮겨 두게 한다.

⑩ 성첩·성랑(城廊)의 수보 및 북한산성과 탕춘대의 수목을 금하여 기르는 등의 일도 총융청에서 거행하게 한다.

⑪ 의승(義僧)·산직(山直) 및 모집해 들이는 일 등 기타 시행할 모든 일은 앞서의 북한산성절목에 따라 총융청에서 구관하게 한다.

⑫ 경리청 및 3군문의 유영(留營)은 이미 폐지되었다. 이에 있는 군수(軍需)·군향·군기 등 물품의 수량을 비변사에서 별단으로 계하하여 총융청에 붙이되, 남한산성의 예에 따라 연말에 비변사에 마감(磨勘: 심사하여 종결지음)한다.

⑬ 군향의 원수자 중에 3분의 1씩을 돌려가며 출납한다. 부근 기읍

(畿邑)에 나누어주되, 전에 받은 백성·군병 등에게는 본소로 모두 납부하게 하되 고을에 받아 두지 못한다. 별도의 환곡에 있어서는 특별히 엄금하고 위반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무거운 벌로 논죄한다.

⑭ 경리청의 원역 및 3군문 각창의 원역은 아울러 그대로 총융청에 옮겨 속하게 하되, 그중 긴요하지 않은 인원은 궐원이 생겨도 보충하지 말고 차차 줄이도록 한다.

⑮ 미진한 조항은 추후하여 마련한다.

모두 1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절목은 크게 관리 체제 및 인원, 군사, 창고 및 군량, 기타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먼저 관리 체제 및 인원과 관련한 조항을 보면 경리청이라는 칭호를 혁파함과 동시에 총융청으로 이관하면서 총융청의 장관인 총융사는 북한산성과 탕춘대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총융청의 관사를 탕춘대로 옮겨 짓도록 하였다. 또한 총융청의 중군이 관성장을 겸하도록 하면서 북한산성에 주둔하게 하였고, 수어청의 예에 따라 종사관 1원을 추가로 차출하게 하였다. 그리고 원역(員役)은 기존 삼군문 각창의 원역을 그대로 수용하되 긴요하지 않은 인원은 궐원이 생겨도 보충하지 않도록 하였다.

군사와 관련된 규정으로, 종전 경리청 체제하에서 정해진 인원인 1만2천1백 30명을 그대로 승계하는 한편 경리청 각색의 장교나 두목 등 6백명 정도의 인원까지 아울러 승계해서 산성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당초 총융청에 소속되었던 수원과 장단, 남양 중 수원진은 일단 제외하고 장단과 남양에서 필요한 인원을 충당하도록 하였다.

군량과 관련되어서는 기존 북한산성에 있던 경리청상창을 비롯해 상·중·하창과 삼군문의 유영, 평창 등의 창고를 모두 총융청으로 이관하고 전담해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대부분의 창고를 총융청으로 이관하였으나 몇몇 창고만은 별도로 호조와 선혜청의 관리에 두었다. 어공미를 관장하는 호조창의 경우는 다른 창고와 차별화해서 계속해 호조에서 관장하게 하였다. 그리고 탕춘대에 있는 선혜청 창

고의 경우도 계속해 선혜청에서 관장하게 하였다. 총융청의 강창 곡물도 탕춘대로 옮기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총융청에서는 성첩이나 성랑의 보수를 비롯해 수목을 기르거나 금지하는 일, 의승이나 산지기를 모집하는 일 등 모두 역시 총융청에서 관장하게 하였다.

북한산성이 총융청으로 이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747년 10월 1일 국왕 영조가 탕춘대에 거둥하였다.[29] 영조의 탕춘대 거둥은 이후 1751년(영조 27) 7월 17일에도 이루어졌다.[30] 영조는 탕춘대뿐만 아니고 북한산성에 거둥하기도 하였는데, 1760년(영조 36) 8월 20일[31]과 1772년(영조 48) 4월 10일[32] 등에 이루어졌다. 1760년의 거둥은 영조가 마음먹고 시행한 것으로, "도성을 지키기로 계획을 정한 뒤에는 북한산성이 긴요하기 때문"에 추진된 것이었다.

거둥 당일에는 중군 이하 표하군(標下軍)과 승장(僧將)을 대상으로 총융청이 주관해서 사방(射放)을 시험하여 시상하게 하였다. 1772년의 거둥은 선왕인 숙종에 대한 추모의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즉 1712년(숙종 38) 국왕이 시단봉에 오른 적이 있는데, 영조는 이를 추모하는 뜻에서 이 시기 북한산성에 거둥하여 시단봉에 올랐다. 후일 정조도 시단봉에 올랐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때 「시단봉주필(柴丹峰走筆)」이라는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33]

북한산성의 관리 권한을 총융청으로 이관하게 되면서, 북한산성에 소재한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삼군문의 각종 군량과 군기 역시 총융청으로 이관되었다.[34] 이에 따라 관리 인원이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총융청 소속의 교련관으로 하여금 산성 내 유영감관을 겸

29) 『승정원일기』 1022책, 영조 23년 10월 1일(무오).
30) 『승정원일기』 1071책, 영조 27년 7월 17일(신사).
31) 『승정원일기』 1084책, 영조 36년 8월 20일(신묘).
32) 『승정원일기』 1327책, 영조 48년 4월 10일(병술).
33) 『홍재전서』 권2, 춘저록 2, 시
34) 『승정원일기』 1019책, 영조 23년 8월 4일(임술).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액수가 적었기에 3과(窠)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여 인가를 받았다. 조선후기 총융청 소속의 북한산성 내 군관 편제는 다음과 같다.

〈표 3〉 총융청 관리하 북한산성의 군관 편제와 인원수

직책	인원수
파총	1명
초관	5명
별파진초관	1명
수첩총(守堞摠)	2명
교련관	4명
기패관	5명
군기감관	1명
군관	3명
부료군관	20명
문부장(門部將)	3명
수첩군관	200명

이 밖에도 원역과 군사 등으로 원역 46명, 서원 5명, 고지기 11명, 대청지기 2명, 사령 5명, 군사 12명, 문군사 11명 등이 편제되었다.[35]

한편 북한산성의 군사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것은 역시 무기를 배치하는 것이었다. 이에 1773년(영조 49) 구선행(具善行)은 허물어져 가고 있는 형제봉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산책(山柵)을 만들었다. 아울러 구선행은 자신이 제작한 조화순환포(造花循環砲)와 일와봉전(一窩蜂箭)을 배치하여 적을 대적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35) 『만기요람』 군정편 3, 총융청

북한산성에 비치된 무기의 대부분은 총포류(銃砲類)이었다. 조총을 비롯해 대장총·나팔별총·삼혈총 등과 수철대포·위원포·쌍문포·불랑기포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무기의 실상은 당시 서울을 수비하던 훈련도감을 비롯해 금위영·어영청·수어청 등도 동일한 양상이었다.[36] 조선에서 무기 중 총포류의 비중이 증대되기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 때부터로, 당시 명나라의 절강병법 도입이 그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군대 편제도 삼수병제(三手兵制)인 포수, 살수, 사수 등의 편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포수가 군대 편성의 중심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로써 무기 체계도 총포류의 비중이 더욱 증대하였다.[37]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전통 병기인 궁시(弓矢)를 배제할 수 없었다. 여전히 교자궁이나 장전, 편전 등이 구비되었다.

북한산성이 총융청으로 이관된 뒤 의승 운영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1723년(경종 3) 최석항의 요청에 따라 의승번전제(義僧番錢制)가 혁파되었다. 그러다가 1729년(영조 5)에 들어서 의승입번제(義僧入番制)가 정착되었다. 의승입번제는 의승이 직접 번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승역(僧役)은 고역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1756년(영조 32)에 다시 의승번전제로 변화되었다.[38] 의승번전제는 각 지역에 의승을 배정하고, 이들로부터 번전을 징수, 북한산성에 보내면 그것으로 산성 내 사찰에 원래 거주하던 승려가 입번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규정된 북한산성 의승의 정원은 모두 351명으로 남한산성의 정원인 356명에 비해 차이가 있다. 1756년 1월 12일에 「남북한의승방번변통절목(南北漢義僧防番變通節目)」이 만들어져 북한산성에 소속된 의승과 배정 인원, 그리고 부담 액수 등을 정하였다. 전체 351명

---

36) 오종록, 1988, 「조선후기 수도방위체제에 대한 일고찰 – 오군영의 삼수병제와 수성전」, 『사총』 33.

37) 육군본부, 2012, 「조선시대의 무기」, 『한국군사사 13 – 군사통신, 무기』, 445~457쪽.

38) 김갑주, 1988, 「남북한산성 의승번전의 종합적 고찰」, 『불교학보』 25.

에 6,874냥을 조달하였다. 이렇게 징수된 방번전은 북한산성에 상주하면서 조직적으로 훈련된 의승군에게 지급되어 산성의 방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4. 맺음말

이상에서 북한산성 관리 체계가 축성 이후 경리청 체계로 운영되다가 총융청으로 이관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과정은 영조대 도성 수비 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 훈련도감과 어영청, 금위영을 중심으로 삼군문 중심의 도성 수비 체제를 갖추면서, 수어청이 남한산성을 관장하듯이 총융청에서 북한산성을 주관하게 하였다. 이후 고종 연간에 북한산성의 관리 체계가 다시 한 번 변화가 되어 무위소(武衛所) 관리 체계로 변화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만기요람』
『북한지』
『비변사등록』
『숙종실록』
『승정원일기』
『영조실록』
『옥오재집』
『홍재전서』

김갑주, 1988,「남북한산성 의승번전의 종합적 고찰」,『불교학보』25.

오종록, 1988,「조선후기 수도방위체제에 대한 일고찰 - 오군영의 삼수병제와 수성전」,『사총』33.

육군본부, 2012,「조선시대의 무기」,『한국군사사 13 - 군사통신, 무기』.

이근호, 2008,「비변사등록의 서술체계와 내용」,『사학연구』91.

이근호, 2013,「영조대 도성 수비 논란의 검토」,『향토서울』83.

이근호, 2014,「조선후기 사회와 북한산성의 운영」,『북한산성의 역사와 문화유적』, 경기문화재단.

이태진, 1996,「숙종대 북한산성의 축조와 그 의의」,『북한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조선후기 북한산성의 창고와 운영

임성수*

1. 머리말 • 27

2. 북한산성 내 창고 설치와 규모 • 28

3. 군향(軍餉)의 저장과 운영 • 34

4. 군기(軍器)의 마련과 수보(修報) • 39

5. 맺음말 • 45

참고문헌 • 46

* 고려대학교

1. 머리말

조선시대 서울은 한 나라의 수도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지리적 조건들을 충족하는 곳이었다. 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가 유리하도록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지방에서 징수되는 부세가 원활히 운송될 수 있도록 수로가 발달하였다. 사방으로 연결된 편리한 육로교통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조건이었다. 그중에서도 국왕과 조정의 안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어적 이점은 수도의 입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였다.

도성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던 서울의 방어체제는 17세기 이후 대내외적인 변란을 겪으면서 도성 주변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도성을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는 산간 지대를 중심으로 산성 방어체제를 강화하여 적 침입에 대비한 1차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북한산 내 축성된 북한산성은 평시에는 도성의 북쪽을 방어하고, 유사시에는 국왕의 대피공간으로 사용하는 방어시설이었다.[1)]

북한산성이 방어시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했다. 방어에 투입된 군병들이 사용할 무기와 식량을 비치해야 할 뿐 아니라, 유사시 장기간 농성을 대비하여 다량의 식량과 재물을 비축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 북한산성에는 다수의 창고가 설치되었다.[2)]

북한산성에는 1747년(영조 23) 이후 관리를 책임졌던 총융청 외에도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 등의 군문이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군문마다 무기와 군량을 보관할 창고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

1) 북한산성 축성과 수도 방어체제 정비에 대해서는 김용국, 1960, 「肅宗朝 北漢山城考」, 『鄕土서울』 8, 서울시사편찬위원회; 김준석, 1996, 「조선후기 국방의식의 전환과 도성방위책」, 『전농사론』 2,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이근호, 1998, 「18세기 전반의 首都防衛論」, 『군사』 3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근호, 2012, 「도성수비체제의 확립과 지휘체계의 조정」, 『한국군사사 7 – 조선후기』, 육군본부 참조.

2) 북한산성의 재정운영과 창고에 대해서는 이현수, 1986, 「北漢山城 築造와 經理廳의 置廢」, 『육사논문집』 31, 육군사관학교; 이근호, 2014, 「조선후기 사회와 북한산성의 운영」, 『북한산성의 역사와 문화유적 – 북한산성 문화유적 학술조사』, 경기문화재연구원 참조.

국가재정을 총괄하던 호조가 관할하는 창고도 설치되어 유사시 사용할 미곡을 저장하였다. 이 밖에도 북한산성에 위치한 크고 작은 사찰에는 승군(僧軍)들을 위한 창고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같은 창고들의 운영 상황과 보유 물품은 조선후기 북한산성의 기능과 성격, 군사적·재정적 위상을 검토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산성의 창고 현황을 검토하여 조선후기 도성방어체제에서 북한산성의 역할과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성내에 설치된 창고의 종류와 각 창고별 물품 보유 현황을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산성 창고의 가장 중요한 저장 물품이라 할 수 있는 군기(軍器)와 군향미(軍餉米)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북한산성 내 창고 설치와 규모

17세기 조선왕조는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드러난 도성방어체제의 약점을 보완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군제 변통을 추진하였다. 왜란 기간 임시적으로 설치했던 훈련도감을 정규군으로 편성하는 한편, 어영청·총융청·수어청·금위영 등의 군문을 신설하여 도성 주변을 수비하는 오군영(五軍營) 체제를 완비하였다.[3] 오군영은 각각 담당구역을 할당받아 도성과 주변 지역 방어를 책임졌다. 도성방어체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도성 주변의 산성방어체제도 정비가 시작되었다. 1626년(인조 4) 남한산성의 축성이 완료되면서 기존에 강화도를 중심으로 조성되었던 보장처와 피난처가 도성 인근에 새로 마련되었다. 남한산성은 경기와 하삼도에서 도성으로 향하는 적들을

3) 오종록, 1988,「朝鮮後期 首都防衛體制에 대한 一考察; 五軍營의 三手兵制와 守城戰」,『사총』33, 고대사학회; 이근호, 1998,「숙종대 중앙군영의 변화와 수도방위체제의 성립」,『조선후기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노영구, 2012,「효종대 수도권 방어체제 개편,『한국군사사 7 – 조선후기』, 육군본부.

방어하는 시설이었다. 뒤이어 도성 북쪽에서 침입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되어 북한산성의 개축도 진행되었다. 효종대 한차례 개축이 이루어진 북한산성은 1711년(숙종 37)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유(李濡)의 건의에 따라 대대적인 축성공사를 진행하여 성벽을 구축하고, 성안에 각종 부속 건물을 완성하였다.

1808년(순조 8) 간행된『만기요람』군정편에 따르면 새롭게 조성된 북한산성의 둘레는 총 7,620보(步)였으며, 산성 안에는 성랑(城廊) 121개소, 장대(將臺) 3개소, 못[池] 26개, 우물[井] 99개, 대문(大門) 4개, 암문(暗門) 10개, 창고 7개, 큰 절[大寺] 11개, 작은 절[小寺] 3개 등이 소재하였고, 산성 방어와 관리를 담당할 관성소(管城所)가 설치되었다.[4] 이 같은 현황은『북한지(北漢誌)』에서도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다. 다만『북한지(北漢誌)』에서는 성랑의 수가 143개소로서 42개소를 훈련도감에서 관리하고, 41개소는 어영청, 60개소는 금위영이 관리한다고 기록하여『만기요람』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창고의 개수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수축과 정비가 완료된 북한산성은 이전보다 크게 향상된 방어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설치 초기 경리청이 관리하던 북한산성은 1747년(영조 23)부터 경리청이 총융청으로 이속되면서 총융사의 관리를 받기 시작하였다. 중앙 오군영 중 하나인 총융청이 관리를 전담하면서 북한산성의 군사적 기능은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성안에는 총융청 외에도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등 삼군문의 유영지가 조성되면서 도성 주변 군사력이 집결된 전략적 요충지로 거듭났다.

여러 군영이 집결하면서 방어에 필요한 무기와 군량미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 북한산성 안에는 각 군영마다 창고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창고의 설치 현황과 보관하는 물품의 규모를 살펴보면 북한산성의 군사적 위상과 규모

4)『萬機要覽』軍政篇3, 摠戎廳, 北漢山城.

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또한 북한산성에는 군영 창고 외에도 호조의 창고가 설치되어 유사시를 대비한 곡물을 보관하였다. 다음은 1711년(숙종 37) 북한산성에 창고를 설치하는 문제로 총융사(摠戎使) 김중기(金重器)와 우부승지(右副承旨) 한배주(韓配周)가 발언한 내용이다.

> (총융사) 김중기가 아뢰기를, "산성에 곡물을 저축하는 일은 진실로 급무(急務)라 하겠습니다. 조적(糶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장차 논의하여 정하면 되겠지만, 다만 각종 창고가 성안에 다 들어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형이 험하기는 성 밖도 마찬가지이니 성 안팎을 막론하고 적(賊)이 다니지 못할 곳에는 형편이 되는대로 창고를 설치하여 조적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중략) 한배주가 아뢰기를, "산성에 창고를 짓기로 계획을 확정한다면 각사(各司)마다 으레 관장하는 창고가 있어야 할 터이니 영건(營建)하는 물력은 조정에서 일일이 지급할 것이 아니라, 각기 해사(該司)에서 자체로 요리하여 맡아서 짓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5]

북한산성을 수축하는 시기부터 급선무는 곡물을 저축하는 일이었다. 총융사 김중기는 곡물을 조적하는 방법은 추후에 논의해서 처리하더라도 창고를 설치하는 일은 늦출 수 없다면서 성 안팎에 창고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우부승지 한배주는 북한산성 내 창고가 필요한 각사(各司)에서 건축에 소요되는 물력을 조달하고 공사를 주관하여 창고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숙종도 승인하였다. 결국 북한산성 내 여러 창고들은 산성에 소속되었던 각사에서 자체적으로 물력과 인력을 동원하여 설치된 것이었다. 한편 창고의 건축에 소요되는 재목(材木)은 삼천동(三千洞)에서 벌목하여 조달하였고,[6] 부족한 물력은 공명첩을 발행하여 보충하기도 하였다.[7]

---

5) 『備邊司謄錄』 63책, 숙종 37년 7월 26일.

6) 『承政院日記』 462책, 숙종 37년 7월 24일(신해); 『備邊司謄錄』 63책, 숙종 37년 9월 13일.

몇 가지 사료를 통해 북한산성에 설치되었던 창고의 현황을 알아보자. 북한산성의 창고에 대해서는 1745년(영조 21) 편찬된『북한지(北漢誌)』와『만기요람(萬機要覽)』재용편(財用篇)·군정편(軍政篇)에 기록이 남아 있다. 각 사료마다 기술된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1745년(영조 21) 편찬된『북한지(北漢誌)』창름(倉廩)조에 따르면 당시 북한산성에는 경리청(經理廳) 관할의 상창(上倉)·중창(中倉)·하창(下倉)·평창(平倉)과 호조에서 관할하는 호조창(戶曹倉), 훈련도감유영(訓鍊都監留營)·금위영유영(禁衛營留營)·어영청유영(御營廳留營) 등 군문에서 사용하는 창고가 설치되어 있었다. 상창은 행궁(行宮) 오른쪽에 있었으며, 중창은 중흥사(重興寺) 앞, 하창은 서문(西門) 안, 평창은 탕춘대(蕩春臺), 호조창은 행궁 앞, 훈련도감유영은 노적봉(露積峯) 아래, 금위영유영은 보광사(普光寺) 아래, 어영청유영은 대성문(大成門) 안에 각각 위치하였다.[8] 각각의 창고에는 기본적으로 군사들이 사용하는 무기와 군량 등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호조창에는 국왕을 위한 어공미(御供米)를 보관하였다. 북한산성에는 적이 침입하거나 특별한 일로 국왕이 행차했을 때에 임시로 국왕이 거주할 수 있는 행궁이 설치되어 있었기 호조창을 행궁 앞에 설치하여 곡식을 보관하였던 것이다.

『만기요람』재용편 제창(諸倉)조에서는 관성소(管城所) 내에 있는 각 창고의 종류와 규모,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종류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관성소는 북한산성 운영을 총괄하였던 경리청(經理廳)의 산성 내 분소(分所)와 같은 기관으로서 북한산성의 군사와 재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산성에는 관성소에서 관할하는 창고가 수적으로나 규모 면에서 가장 우위에 있었다.

---

7)『備邊司謄錄』64책, 숙종 38년 4월 13일.

8)『北漢誌』(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2107-191).

관성소는 1711년(숙종 37)에 건립하였으며, 중창(中倉) 이하 승창(僧倉)까지 모두 같은 시기에 설치되었다. 상창고(上倉庫)의 규모는 총 11문(門)이었는데, 그중 2문에는 군향(軍餉), 2문에는 군기(軍器), 1문에는 군향과 은화(銀貨), 1문에는 잡물(雜物)이 저장되었고, 나머지 5문은 비어 있었다. 중창고(中倉庫)는 총 7문이었으며, 4문에는 군향, 1문에는 잡물이 있었고, 2문은 비어 있었다. 하창고(下倉庫)는 총 4문으로 2문에는 군향, 1문에는 잡물이 있고, 1문은 비어 있었다. 별고(別庫)의 규모는 3문이었으며, 1문에는 군향, 1문에는 잡물이 있었고, 1문은 비어 있었다. 훈련도감 창고(訓倉庫)는 총 12문이었으며 4문에는 군향, 3문에는 군기, 1문에는 소금과 가마솥[釜鼎], 1문에는 잡물이 저장되었으며, 나머지 3문은 비어 있었다. 금위영 창고(禁倉庫)는 총 14문으로 2문에는 군향, 6문에는 군기, 1문에는 잡물이 있었으며, 나머지 5문은 비어 있었다. 어영청 창고(御倉庫)는 총 10문이었으며, 4문에는 군향, 2문에는 군기, 1문에는 잡물이 있었으며, 나머지 3문은 비어 있었다. 승창(僧倉)의 각고(各庫)는 총 28문이었으며, 각 사찰마다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중흥사(重興寺)·진국사(鎭國寺)·상운사(祥雲寺)·서암사(西巖寺) 등 4개 사찰에는 각각 총 3문이 설치된 가운데 1문에 군기가 있었으며, 국녕사(國寧寺)·원각사(圓覺寺)·부왕사(扶旺寺)·보광사(普光寺)·보국사(輔國寺)·용암사(龍巖寺)·태고사(太古寺) 등 7개 사찰에는 각각 총 2문이 설치된 가운데 1문에 군기를 저장하고 있었다. 군기를 보관하지 않았던 나머지 15문과 별고(別庫)의 2문은 비어 있었다.[9]

한편, 『만기요람』 군정편에는 재용편과 다른 유형의 서술이 전개되고 있다. 군정편에는 각 창고들의 규모를 문(門)이 아닌 칸(間)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 창고들의 세부적인 구성과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종류, 수량까지도 상세히 기록하였다. 같은 책이면서도 서술 방식

9) 『萬機要覽』 財用篇6, 諸倉, 摠戎廳各倉庫.

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만기요람』의 재용편과 군정편을 작성한 관원이 달랐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군정편에 기록된 창고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관성소는 상창(上倉)에 있었으며, 대청(大廳) 18칸, 내아(內面) 12칸, 향미고(餉米庫) 63칸, 군기고(軍器庫) 3칸, 집사청(執事廳) 3칸, 군관청(軍官廳) 4칸, 서원청(書員廳) 4칸, 고지기 집[庫直家] 5칸, 월랑(月廊) 2칸, 각문(各門) 7개의 규모였다. 중창(中倉)은 대청 6칸, 향미고 78칸, 고지기 집 5칸, 대문 2칸으로 구성되었고, 하창(下倉)에는 대청 6칸, 향미고 34칸, 고지기 집 8칸, 대문 2칸이 있었다. 별고(別庫)는 대청 3칸, 향미고 12칸, 고지기 집 5칸, 대문 2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상의 상창·중창·하창·별고 등 4개 창고를 '관성 4창(管城四倉)'이라 하였다.[10]

훈련도감창[訓倉]은 대청 18칸, 내아 8칸, 향미고 60칸, 군기고 16칸, 중군소(中軍所) 4칸, 낭청소(郎廳所) 5칸, 서원청(書員廳) 5칸, 구류간(拘留間) 3칸, 행각(行閣) 11칸으로 구성되었고, 금위영창[禁倉]은 대청 18칸, 내아 6칸, 향미고 54칸, 군기고 13칸, 중군소 5칸, 서원청 4칸, 월랑 8칸이었으며, 어영청창[御倉]은 대청 18칸, 내아 7칸, 향미고 48칸, 군기고 10칸, 중군소 4칸, 서원청 2칸, 월랑 12칸이 있었다.[11]

한편 산성 인근의 토지는 구역을 나누어 각각 군문 창고에 획정하였다. 신둔(新屯)·청담(淸潭)·서문하(西門下)·교현하(橋峴下) 등 4개 지역은 훈련도감창의 구역이며, 미아리(彌阿里)·청수동(靑水洞)·가오리(加五里)·우이동(牛耳洞) 등 4개 지역은 금위영창의 구역, 진관리(津寬里)·소흥동(小興洞)·여기소(女妓所)·삼천동(三千洞) 등 4개 지역은 어영청의 구역이었다.[12] 이들 지역은 북한산성 내 각 군문이 창고를 유지하는데 인적·물적으로 기여하고 있었다. 창고에 저장된 군향을

10) 『萬機要覽』 軍政篇3, 摠戎廳, 北漢山城.

11) 『萬機要覽』 軍政篇3, 摠戎廳, 北漢山城.

12) 『萬機要覽』 軍政篇3, 摠戎廳, 北漢山城.

개색(改色)한다거나, 군기(軍器)를 보수하고, 각종 물품을 운송할 때 지역민들이 동원되었다.

재용편과 군정편의 기록이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산성의 창고는 군향(軍餉)과 군기(軍器)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이를 관리하는 인력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창고는 북한산성을 방어하던 주요 군문인 총융청과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등 4개 군영과 승군(僧軍)들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었다. 군문의 창고는 규모가 비교적 컸으며, 승창(僧倉)은 작은 규모이고 여러 사찰에 분산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군문의 창고에는 창고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도 별도로 마련되었지만, 승창의 경우에는 각각 소속 사찰에서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순수한 저장 공간만 마련되었다.

3. 군향(軍餉)의 저장과 운영

북한산성 창고에서 저장하는 주요 품목은 군향(軍餉)과 군기(軍器)였다. 북한산성이 방어를 위해 설치된 만큼 두 물종의 비축과 안정적인 운영은 산성의 설치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북한산성의 개축 단계에서부터 군향과 군기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다음은 1711년(숙종 37) 북한산성 성곽 공사가 한창이던 시기에 총융사(摠戎使) 김중기(金重器)가 군향 마련 방안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다.

> “산성을 다 쌓은 뒤에는 의당 군향(軍餉)을 시급히 조비(措備)해야 하겠는데 신의 얕은 생각으로는 각도(各道)의 저치미(儲置米) 30만 석을 내년부터 북한산성으로 실어 들여 묵은 것은 쓰고 새것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항상 그 수량을 유지하여 불의의 사태에 대비한다면 국가의 원대한 계획이 이보다 더 나을 것이 없기에 소회를 감히 진달하옵니다.”[13]

김중기는 북한산성 군향을 마련하기 위해 각도의 저치미 30만 석을 1712년(숙종 38)부터 북한산성으로 운송하여 묵은 것은 사용하고, 새것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항상 그 수량을 유지시켜 유사시를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의 저치미를 통해 군향을 마련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저치미는 통상 대동법 시행 이후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대동세의 일부를 지방에 배정하여 저치해 둔 것을 말한다.

이듬해 실제 하삼도 지역에 북한산성 군향곡을 배정하는 별단을 마련하여 시행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군향곡 10만 석과 콩 2만 석을 선혜청과 호조에 배정하여 쌀은 금년과 명년에 차례로 실어다 바치고, 콩은 금년에 전량을 수송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군향곡인 쌀은 전량 선혜청이 부담하고, 콩은 모두 호조에서 부담하였다. 군향곡의 배정 규모와 납부 시한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군향곡 10만 석 중 4만 석은 호서청(湖西廳)에 배정되었는데 2만 석은 금년에 상납하고, 2만 석은 다음 해 봄에 저치미(儲置米)로 상납하게 하였다. 호남청(湖南廳)은 2만5천 석이 배정되었으며 1만 석은 금년에 상납하고 1만5천 석은 다음 해 봄에 저치미로 상납하게 하였다. 영남청(嶺南廳)에는 1만 석이 배정되었으며, 5천 석은 금년에 상납하고, 5천 석은 다음해 봄 저치미로 상납하게 하였다. 진휼청[14]은 2만5천 석이 배정되어 금년에 모두 상납하게 하였다.[15] 요컨대 초기 북한산성 군향곡은 모두 선혜청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대동저치미와 진휼곡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저치미는 본래 대동세 일부를 지방재정에 활용하도록 배분해 준 것이기 때문에 북한산성의 군향미는 결국 지방재정을 통해 채워진 셈이었다.

한편 곡물류는 쉽게 변질되었기 때문에 군향곡은 장기간 보관이

13) 『備邊司謄錄』 63책, 숙종 37년 7월 26일.

14) 진휼청은 숙종 12년(1686)부터 선혜청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承政院日記』 317책, 숙종 12년 7월 26일(무신).

15) 『備邊司謄錄』 64책, 숙종 38년 2월 15일.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창고에 저장된 군향곡은 해마다 개색(改色)을 통해 새 곡식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개색이란 묵은 곡식을 백성들에게 분출하고, 대신 햇곡식을 받아 채우는 과정을 의미한다. 개색은 주로 봄에 곡식을 분급했다가 가을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조적(糶糴)의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대부분 창고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분급이 이루어졌다. 북한산성의 군향곡도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1712년(숙종 38) 북한산성이 완공된 후 숙종이 북한장대(北漢將臺)에 직접 방문하였을 때 군향곡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호조판서 김우항(金宇杭)은 양주목(楊州牧)에는 능침(陵寢)이 있기 때문에 북한산성에는 편입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양주 접경에 있는 적성(積城)은 4개 면밖에 없는 가난한 고을이기 때문에 역시 편입시키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적성의 한 고을을 폐지하여 양주에 소속시키고, 북한산성 부근에 있는 양주의 4~5개 면과 고양(高陽)의 1~2개 면을 북한산성에 소속시켜 한 고을을 설치하고, 명호(名號)를 북한부사(北漢府使)나 중흥부사(重興府使), 혹은 남한산성 수어사(守禦使)의 예에 따라 수비사(守備使) 등으로 정하여 산성을 통찰(統察)하게 하면 보장(保障)에 관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반면 행판중충부사 이유(李濡)는 고을을 새로 설치하자는 김수항의 방안에 반대하였다. 북한산성은 남한산성·강도(江都)와 달리 도성(都城)의 내성(內城)이기 때문에 새로 고을을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북한산성을 삼군문에 그대로 속하게 하여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군향곡의 경우 매년 징수하는 호조의 세미(稅米)와 선혜청의 수미(收米), 각 군문(軍門)의 보미(保米) 등을 활용하여 개색(改色)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1년에 상납되는 곡물이 대략 3~40만 석이 되기 때문에 새로이 수봉한 것으로 바꾸어 넣으면 5~6년에 모두 개색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고을을 새로 설치해 군향곡을 조적(糶糴)하는 것은 폐단이 발생할 수 있기에 결코 불가하다고 주

장하였다. 행판중추부사 이이명(李頤命)도 군향곡의 개색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기 백성들에게 조적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보았다.[16]

결국 새로 고을을 설치하는 방안은 채택되지 못하였고, 북한산성의 군향곡은 삼군문과 인근 고을에 분급하여 조적(糶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승창(僧倉)의 군향곡의 경우, 산성 안에 8개의 사찰을 창립하여 승도(僧徒)를 모집한 다음 승군(僧軍)을 조직하고, 그 승군을 통해 조적(糶糴)하도록 했다.[17]

각 창고별로 군향곡의 보유 현황과 조적 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1749년(영조 25) 반포된 「북한군향조적절목(北漢軍餉糶糴節目)」에는 관련한 규정이 상세히 마련되어 있다. 북한산성 군향미는 원칙적으로 민호(民戶)의 다과와 도로의 원근을 계산하여 수량을 정해 분배하도록 하였다. 모곡(耗穀)을 거두는 규정은 매석(每石)마다 1두 5승으로 정하였다. 각 읍은 모두 석수를 분배하되 매년 풍흉을 막론하고 받아가야 했으며, 만약 수량대로 받아가지 않으면 해당 수령을 논죄하도록 하였다. 또한 군향곡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추수가 끝나는 즉시 빠짐없이 봉납(捧納)하게 하였다. 다음은 각 창고별 군향곡의 규모와 분급 규정을 정리한 것이다.[18]

1. 관성소(管城所)의 원향미(元餉米)는 9천8백 53석 영(零). 그 절반 4천 9백 26석 영 내에서, 양주(楊州)는 1천6백 20석, 마전(麻田)은 2백석, 연천(漣川)은 2백 50석, 그 나머지 2천9백 1석은 각 능(陵)과 각 묘(墓)의 수호군(守護軍) 및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준다.
1. 평창(平倉)의 원향미는 4천8백 16석 영. 그 절반 2천4백 8석 영 내에서, 인천(仁川)은 5백 10석, 통진(通津)은 4백 50석, 교하(交河)는 3백 70석, 안산(安山)은 3백 70석, 그 나머지 7백 8석은 각 능과 각 묘소의 수호군 및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준다.

16) 『備邊司謄錄』 64책, 숙종 38년 4월 13일.
17) 『承政院日記』 468책, 숙종 38년 5월 5일(정해).
18) 『備邊司謄錄』 119책, 영조 25년 4월 10일.

1. 훈련도감 창고의 원향미는 4천8백 70석 영. 그 절반 2천4백 35석 영 내에서, 파주(坡州)는 5백 35석, 부평(富平)은 4백 80석, 그 나머지 1천4백 20석은 각 능과 각 묘의 수호군 및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준다.
1. 금위영 창고(禁營倉)의 원향미는 4천8백 77석 영. 그 절반 2천4백 38석 영 내에서, 포천(抱川)은 4백 석, 금천(衿川)은 2백 90석, 적성(積城)은 1백 60석, 양천(陽川)은 1백 20석, 그 나머지 1천4백 68석은 각 능과 각 묘의 수호군 및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준다.
1. 어영청 창고(御營倉)의 원향미는 5천 13석 영. 그 절반 2천5백 6석 영 내에서, 고양(高陽)은 5백 10석, 과천(果川)은 4백 90석, 김포(金浦)는 3백 석, 그 나머지 2천2백 6석은 각 능과 각 묘의 수호군 및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준다.

대체적으로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등 삼군문의 창고에는 각각 5천여 석의 군향곡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중 절반은 산성 내 창고에 보유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인근 고을에 조적하고 있었다. 군향곡을 분급받는 고을은 주로 도성과 인접한 경기 지역이었다. 그리고 고을에 분급하고 남은 군향곡은 각 능묘(陵墓)의 수호군(守護軍) 및 백성들에게 원하는 대로 분급 받도록 하였다.

한편 절목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만기요람』군정편의 총융청 군저(軍儲)조에 따르면 승창(僧倉)에는 군향미 4,674석과 군향콩 111석가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부 환곡으로 운영하였다. 이 밖에도 장(醬) 973석가량 중 165석가량은 상창·하창·평창에 저장하고, 287석가량은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등 세 창고, 519석가량은 승창에 저장하였다. 소금 50석은 구워서 100덩이로 만들어 훈련도감 창고의 군기고에 봉해 두었다. 숯은 모두 2,120석으로 1,100석은 동문(東門) 안에 묻어 두고, 1,020석은 용암사(龍巖寺) 앞에 묻어 두었다. 초기에 마련된 군향곡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규모가 증가하였다. 여기에 환곡과 관할하는 둔전 수입 등을 포함하면 19세기 초반을 기준으로

북한산성에는 대략 56,858석가량의 미곡이 저장돼 있었으며, 분급한 것을 제외하고 상시 보유한 군향곡은 쌀이 25,174석가량이며, 콩이 287석, 조(租)가 2,691석가량 되었다.[19]

요컨대, 북한산성에는 방어적 기능을 항시 유지하고, 유사시 장기간의 농성을 대비하여 많은 양의 군향곡을 각 창고에 비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곡물은 장기간 보관할 경우 부패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곡식을 교체하는 개색(改色)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에 각 창고에서는 북한산성에 인접한 경기 고을에 군향곡을 조적(糶糴)하여 품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군향곡을 운영하였다. 북한산성의 군향곡은 일반 환곡과 달리 풍흉에 상관없이 반드시 받아가야 했으며, 납부 규정도 철저했기 때문에 인근 백성들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었다.

4. 군기(軍器)의 마련과 수보(修報)

북한산성은 기본적으로 군사시설이었기 때문에 창고의 보유물품에서도 군기(軍器)는 가장 중요한 품목이었다. 각 군문 창고에는 평시에 근무 병력이 사용하는 군기 외에도 유사시를 대비하여 많은 규모의 예비 군기를 보유해야만 했다. 따라서 북한산성을 개축하는 과정에서 군기 조달 방안은 군향과 마찬가지로 주요 논의사항이었다.

1713년(숙종 39) 특진관(特進官) 윤지인(尹趾仁)이 북한산성 군기 조달 방식을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군기들은 모두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등 북한산성에 소속된 삼군문에서 마련하여 채워졌다. 무기류 외에도 부정(釜鼎)·동로구(銅鑪口) 등의 취사(炊事)기구도 다수 비치해야 했으나 물력(物力)이 달리 나올 곳이 없고, 동철(銅鐵)도 무역이 어렵게 되자 호조에서 연례적으로 거두는 생동(生銅) 1만 근을 가져다가 제조하게 하였다.[20] 또한 전부터 강화도에 있었던 총융청 군기고

19) 『萬機要覽』 軍政篇3, 摠戎廳, 軍儲.

(軍器庫)의 군기들을 모두 북한산성에 옮기도록 조치하였다.[21]

1715년(숙종 41)에는 조태채(趙泰采)의 건의에 따라 궁노(弓弩)를 다수 제작하여 북한산성에 비치해 두도록 하였다. 궁노는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에서 각각 수백 좌씩 나누어 만들었다.[22] 북한산성 내 삼군문의 군기는 1747년(영조 23) 북한산성을 총융사에게 관장하게 하면서 모두 총융청의 관할로 이속되었다. 이로 인해 군향의 출납과 군기의 수보(修補)도 남한산성의 예에 따라 총융청이 전담하여 거행하게 되었다.[23]

북한산성 내 군기는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수리가 필요했다. 조정에서는 군기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종종 삼군문의 창고를 점검하기도 하였다.[24] 군기를 수보하는 데는 매년 큰 비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총융청의 재정만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특히 이전까지는 각종 군사시설과 군기를 보수하는 일을 삼군문이 나누어 맡았으나 1747년(영조 23)부터 총융청에 이속된 이후로는 총융청이 전담하였기 때문에 비용 마련이 더욱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조정에서는 총융청에 주전(鑄錢)을 허락하여 관련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1756년(영조 32) 총융사 이장오(李章吾)의 건의에 따라 주전이 시행되었으며,[25] 정조와 순조 연간에도 계속해서 주전을 시행하였다. 또한 군향곡의 모조(耗條)도 군기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활용되었으며,[26] 공명첩(空名帖)을 발행한 수익으로 비용을 마련하기도 하였다.[27]

---

20)『備邊司謄錄』65책, 숙종 39년 5월 16일.

21)『備邊司謄錄』65책, 숙종 39년 5월 22일.

22)『備邊司謄錄』68책, 숙종 41년 3월 3일.

23)『備邊司謄錄』117책, 영조 23년 5월 1일;『備邊司謄錄』117책, 영조 23년 5월 7일;『備邊司謄錄』151책, 영조 44년 1월 10일.

24)『備邊司謄錄』105책, 영조 15년 2월 7일.

25)『備邊司謄錄』131책, 영조 32년 7월 19일;『備邊司謄錄』132책, 영조 33년 3월 21일.

26)『備邊司謄錄』150책, 영조 43년 10월 7일.

군기는 오랜 시간에 걸쳐 비축되었는데, 『만기요람』에는 19세기 초반 북한산성에서 보유 중인 군문 창고별 군기 수량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28]

〈표 1〉 북한산성 소재 창고의 군기 보유 현황

군기 종류	훈련도감창	금위영창	어영청창	승창	합계
조총(鳥銃)	3,000柄	1,207병	1,783병	2,276병	8,266병
대장총(大長銃)		300병			300병
나팔별총(喇叭別銃)			10병		10병
중총(中銃)	17병	20병	17병		54병
삼혈총(三穴銃)			15병		15병
수철대포(水鐵大砲)	19坐	18좌	18좌	12좌	67좌
위원포(威遠砲)				87좌	87좌
쌍문포(雙門砲)		1좌			1좌
동포(銅砲)		10좌			10좌
목모포(木母砲)	40좌	101좌	195좌	290좌	626좌
철불량기모포 (鐵佛狼機母砲)				60좌	60좌
철자포(鐵字砲)	400좌	966좌	550좌	2066좌	3,982좌
단가포(單家砲)		54좌			54좌
수철단가포체철 (水鐵單家砲體鐵)		179좌			179좌
유불랑기(鍮佛狼機)	80좌	120좌	105좌	110좌	415좌
화약(火藥)	24,929斤 8兩	19,894斤 11兩 4錢	9,925근 9냥 5전		54,749근 12냥 9전
연환(鉛丸)	503,100箇	506,806개	325,310개		1,335,216개
수철환(水鐵丸)	4,538개	4,908개			9,446개
화약통(火藥桶)		500개	1,000개	7,825개	9,325개

27) 『備邊司謄錄』 198책, 순조 7년 5월 19일; 『備邊司謄錄』 248책, 철종 12년 10월 18일.

28) 『萬機要覽』, 軍政篇3, 摠戎廳, 軍器.

군기 종류	훈련도감창	금위영창	어영청창	승창	합계
이약승(耳藥升)	220개	1,767개	1,000개	1,947개	4,934개
화승(火繩)	700臺乃	6,069대내	1,767대내	840대내	9,376대내
화전(火箭)	1,498枝		966지		2,494지
화전죽(火箭竹)	1,498개				1,498개
화전촉(火箭鏃)	1,500개				1,500개
약선(藥線)	700條				700조
교자궁(交子弓)		1,000張	1,500장	3,054장	5,554장
공궁현(空弓弦)			500개		500개
장전(長箭)		500浮	1,000부	1,875부	3,375부
편전(片箭)		500부	500부	1,575부	2,575부
통아(筒兒)		500개	500개	1,125개	2,125개
환도(環刀)		694병	200병	157병	1,051병
호검(胡劍)		100병			100병
장창(長槍)		300병		596병	896병
천리경(千里鏡)	1部				1부
황촉(黃燭)		30,000병	15,247병		45,247병
철룡(鐵籠)		100개	300개		400개
수자기(帥字旗)			1面		1면
이광단대기치 (二廣緞大旗幟)	38면				38면
북(鼓)	18좌				18좌
대고(大鼓)	4좌				4좌
나팔(喇叭)	11雙				11쌍
징(鉦)	22좌				22좌
목대각(木大角)	10쌍				10쌍
동노구(銅爐口)	130좌				130좌
아리금(阿里金)	100쌍				100쌍
밥솥(食鼎)	51좌	65좌		1,386좌	1,402좌
가시목철장 (加時木鐵杖)	220개				220개

군기 종류	훈련도감창	금위영창	어영청창	승창	합계
잠철(簪鐵)		329개	210개		539개
철요심(鐵凹心)			25개		25개
동거(童車)		32좌			32좌
사슬차정(絲娄釵丁)			215개		215개

각 군문과 승창에서 보유하는 군기의 종류는 군문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훈련도감은 조총을 다수 보유하였고, 금위영과 어영청은 주로 대포와 활 종류의 무기들을 보유하였다. 승창에는 활과 칼 종류의 무기가 주를 이루었다. 각 부대의 전술적인 특성에 따라 비축 무기의 종류가 달랐던 것으로 이해된다. 군기는 대체로 산성 위에서 올라오는 적을 격퇴하기 위한 원거리 공격용 무기가 중심이 되었다. 무기류 외에는 명령을 전달하는 다양한 군기(軍旗)와 악기류, 조리를 위한 취사도구들을 비축하였다.

19세기 이후 점차 총융청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창고에 보관된 군기의 상태도 나빠지기 시작하였다. 다음은 1819년(순조 19) 총융사 서춘보(徐春輔)가 창고의 군기를 수보할 방안에 대해 보고한 내용이다.

> "신이 외람되이 이 직임을 맡은 지 겨우 두어 달이 지났습니다. 본청의 사무를 비록 두루 살피지 못하였으나 영(營)의 모양이 본래 조잔하여 거듭 흉년을 겪고부터는 둔전의 세금이 크게 줄어들어 군교(軍校)의 접제(接濟)에 부족한 것이 걱정입니다. 금년의 큰 장맛비는 근래에 드문 일로서, 북한산성의 행궁 및 각처의 관사가 곳곳이 무너져 한시가 걱정이요, 기타 기치(旗幟)와 장막(帳幕) 등 군물(軍物)이 거의 모두 손상되었으니 이것 역시 지금 수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청의 형편이 손을 쓸 수 없어 매번 이러한 사역(事役)을 만날 때마다 번번이 별달리 조처하기를 요청하였는데 나라의 저축이 텅 비어 있는 이러한 때를 만나 다른 데에서 조처하는 것은 비록 바랄 수 없지만, 오직 신의 청(총융청)에서 변통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삼남(三南)으로 내려 보내는 월과(月課) 총과 화약, 연환(鉛丸)은 바로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

> 으로, 화약과 연환은 어영청(御營廳)에서 10년 한도로 이획(移劃)하였으니 화약과 연환이 없는 약간의 조총을 고을마다 받아가는 것은 그다지 관계가 없고 또 종전에 군수(軍需)가 부족한 때에 월과의 물력(物力)을 청해 얻어 사용한 전례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10년 한도로 월과 조총의 물력을 특별히 가져다 사용하게 하면 지방(支放)의 부족에 보충해서 쓸 수 있고 관사와 군물(軍物)도 점차 수선될 수 있겠는데 일이 변통에 관계되니 대신에게 하순(下詢)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29]

서춘보에 따르면 총융청은 매우 조잔(凋殘)한데 연속된 흉년으로 둔전 수입까지 줄면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총융청은 이전에도 군기를 수리할 일이 있으면 조정에서 별도로 조치해주어 비용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에는 중앙재정도 크게 어려워지면서 비용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10년 한도로 지방의 월과(月課) 물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국왕이 이를 허용하면서 군기 수보가 진행되었다. 이 논의를 통해 보면 19세기 이후 총융청과 중앙정부의 재정상태가 모두 악화되면서 북한산성 내 창고의 군기를 보수하는 일도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지방의 월과 군기를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재정상태가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실제로 1834년(순조 34) 조정의 논의를 살펴보면 이 시기에는 산성의 군기를 보수하기 위해 환곡의 모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30]

북한산성 창고의 군기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군기 마련과 보수 책임이 전적으로 총융청에게 맡겨졌다는데 있었다. 군향의 경우 인근 경기 고을에 조적(糶糴)하여 개색함과 동시에 모곡(耗穀) 수입도 얻고 있었지만, 군기는 특별한 비용 대책 없이 총융청에서 책임지는 실정이었다. 특히 삼군문의 북한산성 창고가 총융청에 이속된 이후에는 그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이후 국가재정이 전반적

29) 『備邊司謄錄』 208책, 순조 19년 9월 11일.

30) 『備邊司謄錄』 222책, 순조 34년 9월 10일.

으로 악화되면서 북한산성 창고의 운영은 더욱 힘들어졌다. 그러나 대대적인 변통 없이는 해결 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군기 수보의 부실은 결국 북한산성의 군사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5. 맺음말

북한산성은 도성 북쪽을 방어하고 유사시 국왕이 대피하는 핵심적인 군사시설이었다. 1711년(숙종 37) 대대적인 개축을 통해 성곽과 부속시설들의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군향과 군기가 마련되며 그 위상이 크게 격상되었다. 산성이 군사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향과 군기를 저장하고 운영할 창고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북한산성은 개축 과정에서부터 창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관리를 맡은 경리청 외에도 산성 내에 유영(留營)을 조성한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등 삼군문과 승군이 각각 창고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창고에는 군향과 군기를 주로 저장하였고, 물품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시설도 갖추어졌다. 군향과 군기는 시간이 지나면 손실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했다. 미곡이 중심이 되었던 군향곡은 북한산성 인근 경기 지역에 조적(糶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군기는 관리를 책임진 군문에서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수보(修補)하여 상태를 유지하였다. 군기 수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주전(鑄錢)을 시행하기도 하였으며, 공명첩을 발행하거나 환곡 모곡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북한산성의 창고들은 다량의 군향과 군기를 비축하여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지만, 18세기 이후에는 북한산성을 활용할 만한 큰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비축된 군향은 점차 중앙정부의 재정이 부족할 때마다 끌어다 사용되었으며, 군기는 규정대로 수리되지 않아 사용하기 힘든 것들이 늘어만 갔다. 18세기

후반, 19세기 이후가 되면 북한산성의 군향곡을 조적하는 일은 경기 지역 뿐 아니라 도성에 거주하는 백성에게도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북한산성 창고의 종류와 규모, 보유 물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앞으로 연구에서는 국내외적 안정기가 지속되며 나타나는 창고 운영의 전반적인 변화와 인근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사료〉

『朝鮮王朝實錄』.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北漢誌』(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2107-191).
『萬機要覽』.

〈저서 및 논문〉

김용국, 1960,「肅宗朝 北漢山城考」,『鄕土서울』8, 서울시사편찬위원회.

김준석, 1996,「조선후기 국방의식의 전환과 도성방위책」,『전농사론』2,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노영구, 2012,「효종대 수도권 방어체제 개편,『한국군사사 7 - 조선후기』, 육군본부.

오종록, 1988,「朝鮮後期 首都防衛體制에 대한 一考察; 五軍營의 三手兵制와 守城戰」,『사총』33, 고대사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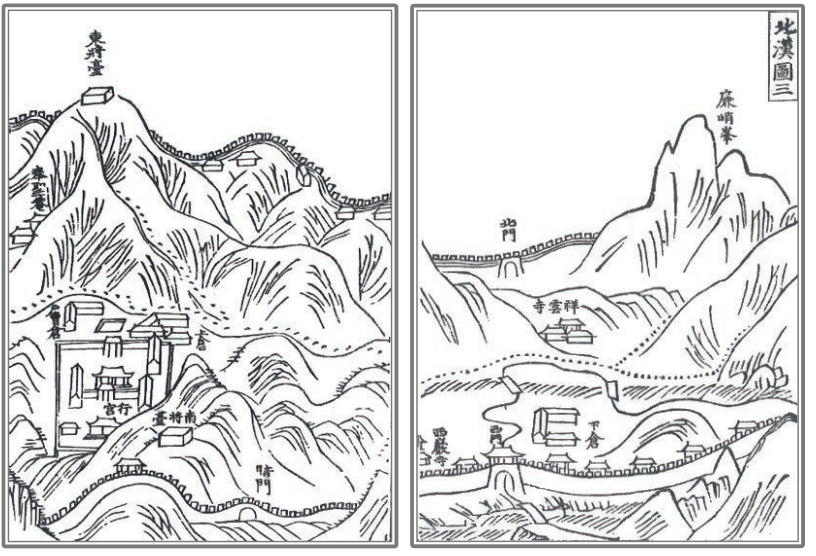
이근호, 1998,「18세기 전반의 首都防衛論」,『군사』3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_____, 1998,「숙종대 중앙군영의 변화와 수도방위체제의 성립」,『조선후기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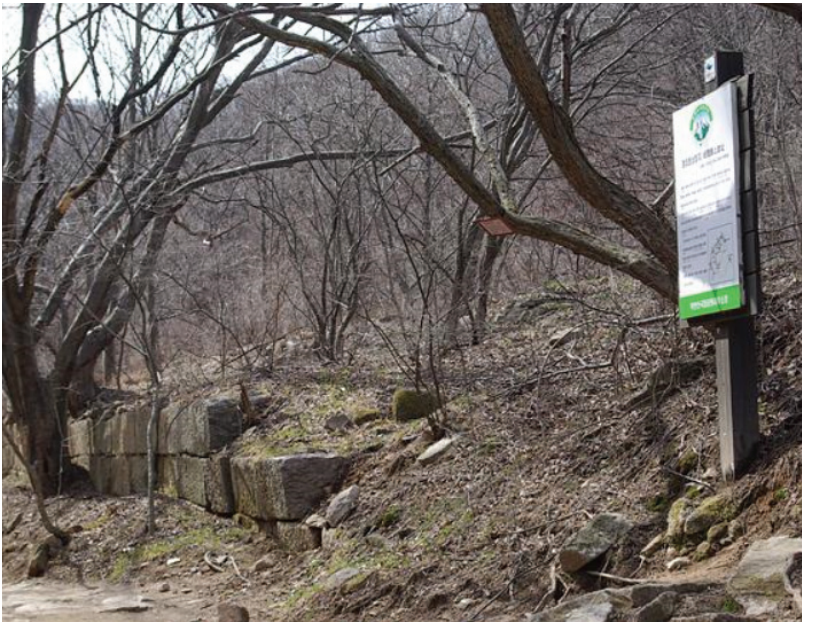
_____, 2012,「도성수비체제의 확립과 지휘체계의 조정」,『한국군사사 7 - 조선후기』, 육군본부.

_____, 2014,「조선후기 사회와 북한산성의 운영」,『북한산성의 역사와 문화유적 - 북한산성 문화유적 학술조사』, 경기문화재연구원.

이현수, 1986,「北漢山城 築造와 經理廳의 置廢」,『육사논문집』31, 육군사관학교.



[그림 1] 북한도의 상창, 호조창, 하창



[그림 2] 경리청 상창지의 잔존 축대



[그림 3] 경리청 상창지 터



[그림 4] 일제강점기에 촬영한 금위영의 (추정) 창고 건물



[그림 5] 평창터 표석

『북한지(北漢誌)』의 문헌적 검토

이왕무*

1. 머리말 • 53

2. 저자와 편찬배경 • 56

3. 구성과 내용 • 62

4. 맺음말 • 73

참고문헌 • 74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 머리말

『북한지』는 조선후기 도성 북쪽 북한산에 축조된 북한산성의 연혁과 운영, 기능 등을 정리한 책이다. 북한산성은 고구려시대부터 남평양(南平壤)이라 불렸으며, 남평양성이 북한산성이었다. 백제 온조왕 시기에는 성을 쌓았고, 개루왕이 재차 축성을 한 뒤 근초고왕은 이곳을 도읍으로 삼았다. 고구려 장수왕이 개로왕을 이곳에서 죽이면서 성이 폐기되었다. 신라와 고려시대에도 성이 증축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다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왜란과 호란을 치른 뒤의 일이었다. 따라서 북한산성은 한국사에서 왕조의 흥망이 조명되던 유서 깊은 장소이다.[1] 현재에도 북한산성은 인수(仁壽), 백운(白雲), 만경(萬景)의 세 개의 뿔처럼 솟아 삼각산이라 일컬어지는 삼각산이 주변을 감싸고 있어서 서울의 대표적 풍경을 제공하고 있는 명소이기도 하다.

조선후기에 북한산성이 재차 중요한 요해지로 주목되기 시작한 것은 도성 인근의 보장처(堡障處)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거론되었다. 양차의 호란 이후 수도가 외적에 함락되고 국왕이 항복하던 치욕적인 사건을 예방하려는 전략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보장처 확보가 진행되었다. 예컨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송시열이 효종의 유고(諭告)라며 밀물(密勿)했던 교시라고 소개한 내용을 보면, 인조가 외적을 대비하여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을 도성의 보장처로 기획하였으며, 방어만이 아닌 적을 공격하는 장소로도 생각했다고 하였다. 외적에게 도성이 손쉽게 함락되는 것을 고려한 결과였다.[2] 무엇보다 외적이 도성까지 쉽게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국왕을 비롯한 지배층에게 큰 부담이었다. 더욱이 도성의 백성을 저버리고 남한산성을 비롯한 방어처에서 적군을 상대하였던 사실들도 조선왕조 국가의 지배층에게는 큰 부담이었다.[3]

---

1)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광주목; 『북한지』 연혁(沿革).

2) 『숙종실록』 권26, 숙종 20년 윤5월 11일(정축).

이와 함께 도성 인근 방어처의 구축은, 인구 증가와 유통경제의 발달 등으로 인한 필요성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1704년(숙종 30)을 전후하여 도성수축론(都城修築論)이 강화되었으며,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계기로 도성방어체제의 재정비가 새롭게 부각된다.[4] 그렇지만 도성을 중심으로 한 방어체제는 도성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지형적으로 문제가 많았다. 무엇보다 한양은 한반도의 어떤 도회지보다 넓고 인구가 많아서 성곽을 유지하거나 방어군을 동원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도성 방어의 문제점은 임진왜란시 파견 온 명나라 장수 마귀(麻貴)와 양호(楊鎬)도 동일하게 지적한 사안이었다.[5]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북한산에 산성을 구축하는 역사(役事)였다. 1659년(효종 10)에 효종이 임란이어처(臨亂移御處)로 북한산성을 구축하라고 하교(下敎)한 것을 시작으로 축성 논의가 이어졌다. 그런데 북한산성 이외의 보장처가 같이 논의되면서 도성 수비를 위한 최적지 선정에 논란이 발생했다. 결국 숙종대에 이르러 1702년(숙종 28) 우의정 신완(申玩)이 강화도와 남한산성은 비상시에 의지할 지대가 아님을 지적하였고, 1704년(숙종 30) 훈련대장 이기하(李基夏)와 어영대장 김석연(金錫衍)이 북한산성의 축성 가부를 답사한 뒤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이때 북한산성이 남한산성보다 보장처로 적합하며 도성에 근접하면서도 요해처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총융사(摠戎使) 김중기(金重器)와 사직(司直) 이우항(李宇恒)도 북한산을 답사한 뒤 동일한 내용으로 보고하였다. 실제로 북한산성은 남한산성과 강도(江都)와는 달리 도성의 내성(內城)이라고 하였으므로 위상에 차이가 있었다.[6]

---

3) 『영조실록』 권56, 영조 18년, 10월 14일(기해).

4) 서태원, 2006, 「조선후기 광주의 군사지휘체제의 변천」, 『실학사상연구』 29, 80~81쪽.

5) 『숙종실록』 권38, 숙종 29년, 1월 20일(병인).

6) 『비변사등록』 64책, 숙종 38년, 4월 13일; 『임하필기』 권13, 文獻指掌編.

결국 1711년(숙종 37) 3월에 축성 지시가 내려졌다. 4월부터 축성이 시작되어 9월에 완료되었다. 6월 전후의 장마 기간이 없었으면 더 짧은 공기에 축성을 완성했을 것이다.[7] 1712년 숙종이 행행을 하여 행궁과 산성의 기능을 시험하면서 도성 보장처 및 임난이어처로의 지위를 대외적으로 조명시켰다.[8]

『북한지』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지닌 북한산성의 시작과 준비과정, 완성과 유지를 주제별로 구별하여 연대기별로 기술한 것이다. 북한산성의 축성에 대해 수십 년간 논의가 이어지면서 국왕을 기점으로 수많은 관료들이 연관된 것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축성에 연관된 의궤 내지는 등록이 남아 있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지』 이외에 축성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과정, 시설물의 내역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전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동시에 『북한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산성을 비롯하여 조선후기 도성의 방어 전략을 설명한 연구도 미약한 실정이다.

『북한지』의 중심 주제인 북한산성에 관련된 연구는 상당수 진행되었다.[9] 다만 이 연구들이 북한산성이 지니는 시대상과 역사적 의미를 밝히는 것에는 큰 일조를 하였으나, 『북한지』를 중심 사료로 연구한 결과가 아닌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물론 『북한지』만을 이용하여 북한산성의 축성 배경과 진행과정, 운영실태 등을 정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군사적 전략 차원에서 구축한 산성임에도 군사(軍事)에 대한 내용이 소략한 것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또한 서문이나

---

7) 『비변사등록』 62책, 숙종 37년, 6월 10일.

8) 『북한지』 사실(事實).

9) 김용국, 1960, 「肅宗朝北漢築城考」, 『향토서울』 8; 김갑주, 1988, 「南北漢山城 義僧番錢의 綜合的 考察」, 『불교학보』 25; 민덕식, 1995, 「北漢山城을 쌓게 된 경위에 관한 考察; 성곽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45; 박정해, 2015, 「북한산성과 행궁입지의 역사적 전개와 풍수논리」, 『향토서울』 90; 백종오, 2013, 「조선후기 북한산성의 축성과 운영체계」, 『韓國史學報』 50; 윤기엽, 2014, 「북한산성의 승영사찰僧營寺刹 – 사찰의 역할과 운영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25; 이현수, 1991, 「18세기 北漢山城의 축조와 經理廳」, 『청계사학』 8; 이근호, 1998, 「18세기 전반의 首都防衛論」, 『군사』 37.

발문이 없어서 이 자료의 생성 소종래를 추정하기 어려운 것도 관찬 사료가 아닌 『북한지』의 한계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 자료가 지니는 의미는 자못 크다는 점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연대기 자료나 개인 기록에서는 북한산성의 축성을 시기별로 정리한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지』의 서두에 북한산성 전모를 보여주는 도판을 3장 게재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북한산성 관련 기록보다도 『북한지』가 지니는 우월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며 『북한지』가 지닌 문헌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해제 형식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기존의 『북한지』 해제로는 간략한 내용들이 간간이 있으며, 그중에서 1994년도에 게재된 해제가 대표적이다.[10] 기존 해제들은 『북한지』의 전반적인 성격과 특징을 간략하게나마 해설하여 이 자료의 중요성을 학계에 소개하였다. 따라서 『북한지』에 소개된 목차별 상세 내용은 대부분 누락된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지』 편찬의 소종래를 찾아본 뒤, 내용은 목차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2. 저자와 편찬배경

『북한지』는 1745년(영조 21)에 편찬된 북한산성에 대한 내용이다. 조선후기 북한산성은 숙종대 축성되었다. 축성의 책임자는 왕조정부에서 파견하였던 인물들이 있다. 실록과 등록 등의 연대기 자료에서는 북한산성의 축성 책임자를 호조판서였던 김우항(金宇杭) 등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산성 전체를 주관한 인물이 누구인지 명확하지가 않다.[11] 반면 북한산성 축성에 큰 역할을 담

1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4, 해제, 『국역 북한지』.

11) 『비변사등록』, 64책, 숙종 38년, 4월 13일.

당한 승려들의 대표는 총섭이었던 성능(聖能)이 분명하다. 축성에 동원된 승려, 승군(僧軍)들은 그의 통솔 하에 조직적으로 운영되어 단기간에 축성은 물론 성내에 다수의 사찰을 설치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성능이 『북한지』를 편찬한 것이 그가 축성의 한 책임자였음을 보여주는 전거라고 할 수 있다.

성능의 호는 계파(桂坡)이며, 경상북도 학가산(鶴駕山)의 승려였다. 이후 화엄사(華嚴寺) 각성(覺性)의 문하에서 3년 동안 수행하였다. 화엄사의 장륙전(丈六殿)은 그의 원력(願力)에 의하여 1699년(숙종 25)에 공사를 시작하여 3년 만에 완공을 보았다. 성능이 화엄사의 불사를 담당했던 것이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각성의 문하에 있어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이를 통해 전국적인 대표 승려가 되었다고 본다. 그는 북한산성 축성을 마친 뒤 다시 화엄사로 돌아와 산성기사(山城紀事)를 집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지』를 편찬하여 1745년(영조 21) 신임 도총섭인 서봉(瑞鳳)에게 인계하였다.[12]

성능이 북한산성을 축성하기 위해 전국의 승려들을 동원하고 감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국왕이 임명한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이었기 때문이다. 팔도도총섭은 임진왜란시 만들어진 임시 직책이었다. 임진왜란 초기에 왜군과의 전투가 한창일 때 승군(僧軍)을 초적(抄籍)하여 임시로 부렸으나 주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팔도 각처의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에 각각 판사(判事) 1명씩을 임명하여 모두 16명을 주관자로 삼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판사라는 이름이 마치 선종과 교종을 설립(設立)하는 것 같다는 지배층의 인식에 따라 총섭이란 호칭으로 각도마다 2명씩을 차송(差送)하게 한 것에서 총섭 제도가 마련되었다.[13]

선조는 휴정(休靜)을 팔도십육종선교도총섭(八道十六宗禪敎都摠攝)으로 임명하여 왜적을 방어하는데 전국의 승려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자 하였다.[14] 팔도십육종이란 도총섭 휘하에 각 도마다 2명씩 총

12)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능(http://encykorea.aks.ac.kr).

13) 『선조실록』, 권41, 선조 26년 8월 7일(무자).

16명의 총섭을 두었기 때문에 붙은 명칭이다. 휴정의 뒤를 이어서도 총섭이 계속 유지되었다. 팔도도총섭이 된 승려는 유정(惟政)-각성(覺性)-성능(聖能)-처능(處能)으로 이어졌다. 유정은 임진왜란 당시에 스승 휴정의 격문을 받고 의승군(義僧軍)을 모아 순안으로 가 휴정과 합류하였다. 그곳에서 의승도대장(義僧都大將)이 되었으며, 4회에 걸쳐 적진으로 가서 회담을 하였으며, 전국의 여러 성을 쌓고 방비하는 등의 활약을 하였다.[15]

1624년(인조 2)에는 각성을 팔도도총섭으로 임명하고, 전국의 승군을 불러 모아 남한산성을 축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때를 필두로 승군제도가 정비되었다.[16] 인조가 총섭 제도를 활용한 것은 전란과 반정 이후 국가의 재정이 산성을 새로 축성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승려들은 급료 없이 동원할 수 있는 신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도 한 요인이었다. 더욱이 총섭을 이용하여 전란시 대규모의 인원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총섭을 통한 승려들의 동원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이에 남한산성을 쌓을 때 팔도도총섭은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6개의 도에서 동원된 승려를 통해서 그 소속 사찰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북한산성도 승려들을 동원하여 쌓게 되었는데, 공사를 담당한 성능이 팔도도총섭으로서 북한산성의 승군대장을 겸하였다. 그 역시 스승이자 남한산성의 총섭이었던 각성과 함께 전국의 사찰과 승려를 장악하였던 것이다.

숙종대에도 총섭을 이용하였던 남한산성 축성시의 사례를 활용하였다. 예컨대 당시와 관련된 기록에도, '남한(南漢)의 성을 축조할 때에는 승도(僧徒)만 쓰고 민정(民丁)은 일체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승도(僧徒)의 수효가 남한산성을 축조할 때보다 배나 됩니다.'라고 하

14) 『선조실록』, 권26, 정조 12년 7월 5일(을축).

15) 조선왕조실록사전, 도총섭(http://encysillok.aks.ac.kr).

16) 『정조실록』, 권8, 3년 8월 3일(갑인).
(전략) 上曰仁廟甲子築城時以僧覺性爲名者, 爲八道都摠攝, 召募八道僧軍赴役, 仍命居此城, 蓋僧軍之制, 始於此時大備云, 卿等亦聞之乎. 命膺曰果於此時, 創設云矣.

였다.[17] 따라서 성능이 총섭의 지위로 북한산성 축성에 적극 간여하게 되었다. 축성 이후에도 성능은 계속 산성의 관리를 맡았다. 산성 축조시 사찰을 세워 그들의 거처로 삼다 보니 이들을 통솔할 사람이 필요하였다. 이에 남한산성의 사례에 따라 비변사가 성능에게 총섭의 지위를 유지하고 통솔하는 정책이 이루어졌다.[18]

이런 배경에서 성능 이후에도 총섭 제도는 계속 유지되었다. 성능은 30년 동안 도총섭의 소임을 맡아보다가, 제자인 서윤(瑞胤)에게 직위를 인계하고 화엄사로 돌아갔다. 각성 역시 그의 문인(門人)인 회은(悔隱)에게 그 소임을 물려주었다. 이와 같이 초기에는 스승이 제자에게 물려주는 형식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산성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승려들에게 인계되는 방식으로 변해갔다.[19]

성능은 북한산성 축성에만 전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유민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연고 없는 시신들을 거두어 매장하는 등 제민(濟民)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였다. 특히 방방곡곡으로 승려들을 보내어 유걸(流乞)들을 설죽소(設粥所)로 데려와 식사를 제공하였다.[20] 물론 이런 성능의 활동에 대해 관료들 간에는 이견이 있었다. 간관들은 성능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성능이 축성에 전력을 다하는 와중이었음에도, 장령(掌令) 이기헌(李箕獻)은, "총섭승(總攝僧) 성능이란 자는 본디 간사한 승려로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 직임을 전적으로 관장해오고 있어 간사하고 참람함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8도 의승(義僧)의 제번전(除番錢)과 가자공명첩(加資空名帖)을 판 값으로 전후하여 받아들인 숫자가 여러 만금인데 공사에 보태지 않고 오로지 자신을 이롭게 하기만 했으며 기타 지은 폐단도 한둘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21] 국가의 기민

17) 『숙종실록』, 권26, 숙종 20년 윤5월 11일(정축).

18) 『비변사등록』, 64책, 숙종 38년, 4월 13일.

19) 조선왕조실록사전, 팔도도총섭(http://encysillok.aks.ac.kr).

20) 『비변사등록』, 92책, 영조 8년, 12월 22일.

정책을 대신하거나, 도성 방비의 중축인 북한산성 축성을 승려가 담당하는 것 자체가 주자학적 지식을 존재 이유로 내세우던 간관들에게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된 내용이라고 해석된다. 반면 『북한지』의 사찰조에서 인용한 시문 중에는 근왕(勤王)의 색채가 짙게 배여 있는 것이 있다. 예컨대 "군왕의 조칙이 반포되면 그것이 바로 선약[曾演綸言直丹液]"이라고[22] 하였다. 따라서 숙종이 성능을 바라본 시각이나, 성능의 국왕에 대한 태도도 근왕적인 부분에서 떠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능이 국왕의 처벌 없이 축성을 완성할 수 있었고 말년까지 승려의 신분을 유지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북한지』의 저자 혹은 편찬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연대기 자료 중에 성능이 『북한지』를 저술하고 간행했다는 정확한 기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760년(영조 36) 영조가 북한산성에 행행하면서, 『북한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홍계희(洪啓禧)가 이 책을 만들었다는 것과 함께 그가 소시부터 북한산성 내의 사찰 등에서 고적을 조사해 책자를 만들어 사찰에 보관해 두었다는 내용이다.[23]

『북한지』에서도 성능이 과연 저자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내용들이 나타난다. 본문 중의 산계(山谿)에서 북한산을 설명할 때 고려시대부터의 시인 묵객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성능의 시문을 인용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전적에서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자료와 설명

---

21) 『비변사등록』, 90책, 영조 7년, 9월 22일.

22) 『북한지』, 사찰(寺刹).

23) 『승정원일기』, 1184책, 영조 36년 8월 20일(신묘).
庚辰八月二十日卯時, 上幸北漢, 擧動入侍時, (중략) 尙魯曰, 兵判嘗撰北漢誌一冊云矣, 上曰, 然乎, 可謂勤矣, 啓禧曰, 臣少時, 嘗讀書北漢諸寺, 採其古蹟, 成一冊子, 留置寺中矣, 上曰, 持入可也, 訓鍊大將具善行曰, 大城門之路, 自鍊戎臺, 曲曲相望矣, 上曰, 山城之路, 不當若是淺露矣, 啓禧曰, 北漢, 比若人家壁藏, 壁藏守然後, 可守房中之物, 旣以守都城爲言, 則北漢似不可棄置也, 設畿營於鍊戎臺之論, 誠好矣, 尙魯曰, 旣置摠戎廳則更設畿營, 似不緊矣, 故判尹具聖任, 於守城之論, 可謂至誠矣, 每言築土城之便而未果矣, 上曰, 相臣將臣, 相與消詳, 後日入侍陳之, 可也, 諸臣退出, 上曰, 敦寧府郎廳入侍 (후략).

에는 저자 혹은 편찬자의 사적인 글을 인용한 경우가 매우 드물다. 더욱이 성능의 시는 두 개가 인용되어 백운봉과 원효대를 설명하였다. 이런 경우는 사찰 항목에서도 나타난다. 태고사(太古寺), 진국사(鎭國寺), 봉성암(奉聖庵), 원효암(元曉庵)은 성능소창(聖能所刱)이라고 하여 그가 창건하였다고 하였다. 누관(樓觀)에서도 항해루(沆瀣樓)를 그가 창건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조선시대 인물이 공적인 사실에 대해 자신의 공적을 표현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라고 사료된다. 물론 사실관계를 편찬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논란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비슷한 사례가 드문 상황에서 성능이 과연 편찬자였다고 보아야할 것인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책이 성능이 편찬하고 간행할 때의 것인지의 여부를 고려한다면, 앞선 의문이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성능은 산성 내의 사찰 중에 태고사에 전적(典籍)을 간행하기 위한 각종 기기들을 갖추었다.[24] 태고사에는 『북한지』를 비롯한 다양한 전적과 책판이 소장되어 있었다.[25] 따라서 성능 이후에 새로 판각을 하면서 내용을 첨부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점에 있어서도 새로 간행시 그 시점이나 사연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다. 더욱이 현전하는 『북한지』의 판본들이 대부분 동일한 것이라는 것도 한 시기에 간행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성능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저자가 성능이라고 학술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책 말미에 '성능지(聖能識)'라는 기록 때문이다. 성능이 기록했다는 이 내용보다 더 확실한 편찬 근거는 없을 것이다. 성능은 자신의 후계자에게 북한산성의 중요성과 함께 산성 내 사찰들의 운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 책을 편찬했다고 본다. 성능이 주도한 승려들이 북한산성을 축성했다는 것

24) 『북한지』 사찰(寺刹).

25) 남권희, 권옥덕, 2014, 「북한산 태고사 수장 책과 관련 기록 연구」, 『서지학연구』 54, 322~323쪽.

은 역으로 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공적으로 남기기 어렵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숙종을 지나 영조대에는 억불(抑佛) 정책이 사회적 통념으로 정착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조선왕조 정부가 국가의 통치이념에 반하는 불교 세력에 의지하여 산성을 축성했다고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인시키기에는 곤란한 부분이다. 이런 배경에서 성능이 이 책을 편찬하여 후대에 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3. 구성과 내용

『북한지』는 단책으로 서문, 목차, 발문이 없고 삽도와 본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북한지(北漢誌)』 혹은 『북한지(北漢志)』의 두 개의 제목으로 된 판본들이 있다. 발문에 해당하는 책 말미에 성능이 이 책의 제목을 『북한지(北漢志)』로 지어 서윤에게 준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책의 시작은 『북한지(北漢誌)』로 되어 있으므로 두 개의 제목이 혼용되었다고 본다. 책의 제목에서 한자 1개가 다르다고는 하나 그 내용은 목차상이나 내용상에서 동일하다. 판본도 목판과 필사본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별도로 서문이 첨가되어 새로 간행된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관청에서 주도하여 편찬한 것이 아닌 사찬(私撰)인 이유로 인해 다양한 판본이 존재한다. 소장처도 개인부터 기관, 국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수장하고 있다. 목판의 경우 판심에 '북한지(北漢誌)'와 쪽수를 표식한 것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내용상에서 도판인 북한도는 모두 동일한 형태와 내용으로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판본은 대동소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1〉은 『북한지』의 소장처에 따라서 비교한 내용이다.

〈표 1〉은 국내외 국립자료 소장기관과 대학교를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북한지』가 사찬인 것을 고려하면 개인이 소장한 것이 〈표 1〉에 정리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짐

작할 수 있다. 다만 〈표 1〉의 공통된 내용들을 비교하면 『북한지』의 기본적인 서지사항을 판명할 수 있다. 또한 상이한 내용이 거의 없는 것을 볼 때 〈표 1〉에 정리된 『북한지』만으로도 조사하지 못한 소장본까지도 설명할 수 있다.

〈표 1〉 『북한지』의 소장처와 서지사항

소장처	청구기호	편자	간행년	판본	주기사항
국립중앙도서관	BC古朝62-14	聖能		목판	乙丑十一月上澣山人聖能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4508	瑞胤	1745	목판	乙丑十一月上澣山人聖能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 3299	聖能		목판	
고려대학교 도서관	만송B10-A180	聖能		목판	乙丑十一月上澣山人聖能識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911.6-북01	聖能		목판	乙丑十一月上澣山人聖能識
부산대학교 도서관	2-11-35	聖能		목판	乙丑十一月上澣山人聖能識
숭실대학교 도서관	951.1-북9127			목판	
영남대학교 도서관	古南981.16-북한지	聖能	1745	목판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20.5	聖能		목판	乙丑十一月上澣山人聖能識
일본 국회도서관	853-3	聖能	미상		
구주대학교 도서관		聖能	1745		
동경대학교 오구라문고	L174531	聖能		寫本	乙丑十一月上澣山人聖能識

우선 저자 혹은 편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제외하면 모두 성능(聖能)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서지사항에는 개인저자로 서능이라고 하였다. 편저자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논했듯이 성능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북한지』체제와 내용도 다른 판본들과 동일하다. 따라서 서지사항 작성시의 오류라고 보인다.

출판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그 당시에 간행한 것인지, 당시 판각한 것을 후대에 간행했거나 아니면 모각해서 간행한 것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새로 간행할 경우 주재한 인물과 참가자, 새로운 연대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현전하는 목판본의 대부분은 영조대에 간행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보다 정밀한 서지적 사항을 검토한 이후에 결정할 사안이라고 본다.

국내외 소장본이 대부분 목판본인 것에 반해 동경대학교 오구라 문고본은 필사본이다. 판심이 없는 필사본이면서 표제는『북한지(北漢志)』이다. 삽도인 북한도 3장도 목판본 그림들을 세밀하게 모사한 것이다. 전체 윤곽은 유사하나 지형과 건물의 묘사가 좀더 세밀하게 구사되었다. 내용은 붉은 선으로 고유명사를 표식했고, 붉은 점으로 일본어 구두와 방점을 찍었다. 필사한 것이나 목판본의 내용 나열 순서를 그대로 모사하였다. 항목별 구별과 세주, 설명 등이 목판본과 동일하다. 간지별 연대와 국왕별 인물 설명을 일본어 세주로 상단에 기재하였다. 따라서 책의 구성만으로는 혹 일본인이 필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필사본이다. 그러나 현재로는 그 소종래를 알 수 없고 판본의 종이와 선장이 조선식이므로 한국본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는『북한지』의 목차는 15개이며 그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목차는 북한도(北漢圖), 도리(道里), 연혁(沿革), 산계(山谿), 성지(城池), 사실(事實), 관원(官員), 장교이졸부(將校吏卒附), 궁전(宮殿), 사찰(寺刹), 누관(樓觀), 교량(橋梁), 창름(倉廩),

정계(定界), 고적(古蹟)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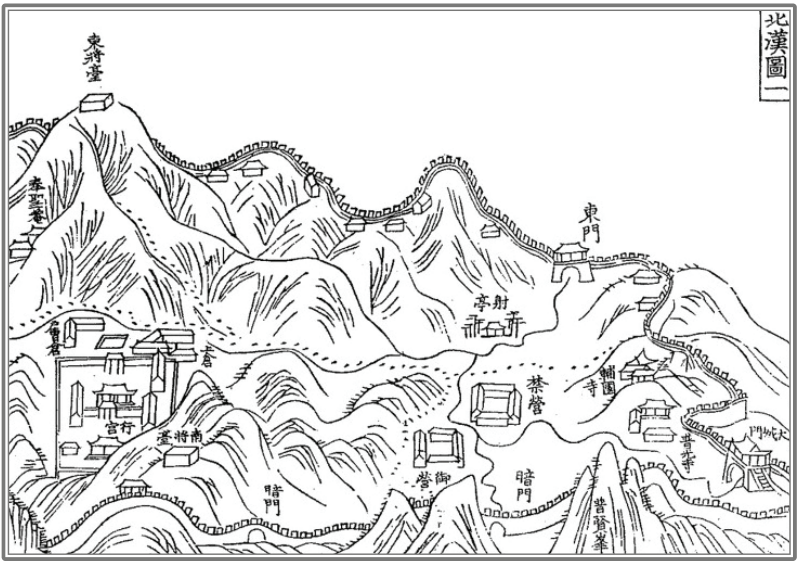
이 중 북한도는 북한산성 전체를 나누어 게재한 그림으로 3개 부분으로 정리되었다. 도면의 북한산성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려졌으며, 북한도 1은 동쪽, 북한도 2는 가운데, 북한도 3은 서쪽을 구분해서 묘사하였다. 북한도 1에는 보현봉(普賢峯)의 안쪽에 북한산성의 동문, 대성문(大成門), 암문(暗門) 2개, 보광사(普光寺), 보국사(輔國寺), 금영(禁營), 어영(御營), 사정(射亭), 행궁(行宮), 동장대(東將臺), 남장대(南將臺), 호조창(戶曹倉), 상창(上倉), 봉성암(奉聖庵) 등 16개의 지명과 건물이 표식되었다. 북한도 2에는 도봉산(道峯山), 만경대(萬景臺), 인수봉(仁壽峯), 백운봉(白雲峯), 노적봉(露積峯), 나한봉(羅漢峯), 나월봉(羅月峯), 서성(西城), 중성문(中城門), 암문 4개, 훈국(訓局), 장대(將臺), 원각사(圓覺寺), 국령사(國寧寺), 부왕사(扶旺寺), 용암사(龍巖寺), 태고사(太古寺), 중흥사(重興寺), 항해루(沆瀣樓), 진국사(鎭國寺) 등 23개의 지명과 건물이 표식되었다. 북한도 3에는 염초봉(廉峭峯), 북문, 서문, 암문, 상운사(祥雲寺), 서암사(西巖寺), 원효암(元曉庵), 하창(下倉) 등 8개의 지명과 건물이 표식되었다.

목차별로 책의 구성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도(北漢圖)는 북한산성 전체의 지형 및 건물군을 정밀하게 묘사한 것으로 현전하는 어떠한 북한산성 관련 지도보다도 산성의 전모를 잘 나타내고 있다. 다음의 그림들은『북한지』의 서두에 삽입된 북한도 1~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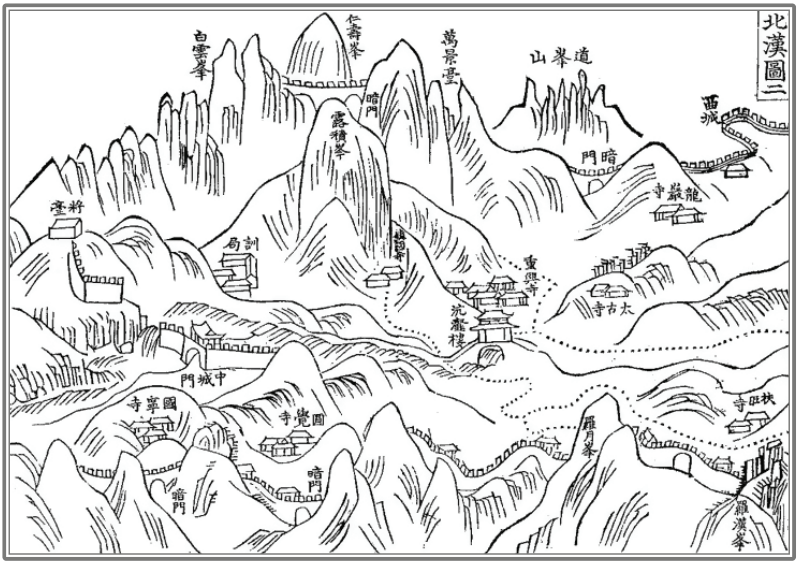
둘째, 도리(道里)는 북한산성이 교통망에서 주변과 연결된 지리적 상태를 설명하였다. 동쪽은 양주목(楊州牧)까지 60리, 서쪽은 고양군(高陽郡)까지 30리, 남쪽은 도성까지 10리, 북쪽은 홍복산(弘福山)까지 20리의 거리를 두고 있다. 행정상으로는 원래 양주목 소속이었으나 영조 당시에는 한성부에 포함되었다고 하였다.

셋째, 연혁(沿革)은 북한산성이 조선후기에 부각된 요해처가 아니라 삼국시대부터 주요 전략 지점으로 사용되었음을 연대기적 서술로 나타내었다. 고구려시대부터 북한이라는 명칭이 있었으며, 백제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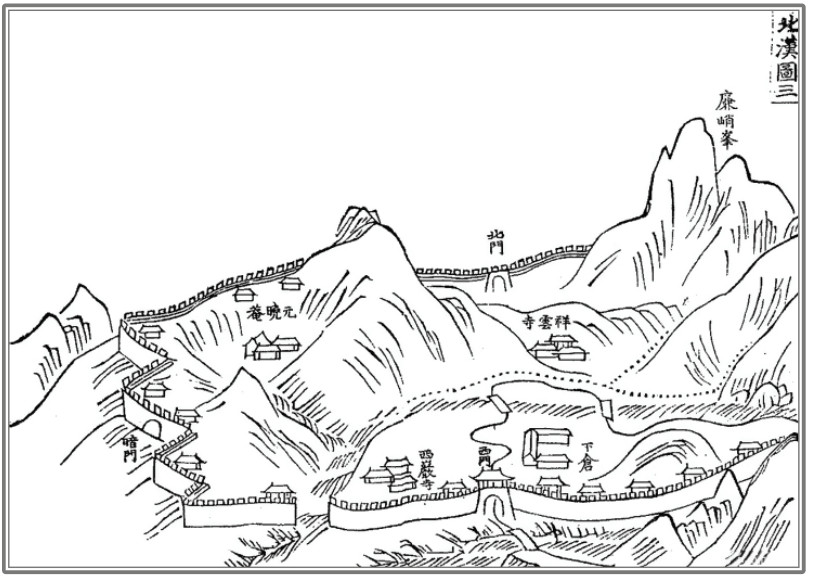
곳에 산성을 구축한 이후로 지속되었음을 역사적 사실로 설명하였다.



[그림 1] 北漢圖 一



[그림 2] 北漢圖 二



[그림 3] 北漢圖 三

넷째, 산계(山谿)는 북한산성이 위치하는 북한산을 비롯한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설명을 고려시대부터 전해지는 문객들이 남긴 시문 등을 통해 시도하였다. 정두경(鄭斗卿), 홍세태(洪世泰), 성능(聖能), 이정귀(李廷龜), 이천보(李天輔) 등의 5명의 글을 인용하였다. 그림이나 도면을 남기기 어려운 시절 글로 남긴 풍경과 그 감상을 이용하여 북한산의 시기별 변화상과 특징을 보여주었다. 북한산성의 주축이기도 한 인수봉, 백운봉, 만경봉의 삼각산을 중심으로 열 봉우리들과 산세를 묘사하였다. 특히 삼각산이 백두산에서 시작된 한국 산세의 한 줄기라는 점과 그러므로 삼각산이 도성의 진산(鎭山)이라고 하여 풍수적 시사점도 보여주었다. 또한 고구려 동명왕의 아들인 비류와 온조가 인수봉에 올라 정착할 곳을 물색했을 정도로 유래가 깊은 곳이면서 지형마다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 유래 다음에는 지리적 설명이 이어진다. 삼각산의 세 개 봉우리를 이어서 노적봉, 용암봉(龍巖峯), 일출봉(日出峯), 월출봉(月出

峯), 기룡봉(起龍峯), 반룡봉(盤龍峯), 시단봉(柴丹峯), 덕장봉(德藏峯), 복덕봉(福德峯), 석가봉(釋伽峰), 성덕봉(聖德峯), 화룡봉(化龍峯), 잠룡봉(潛龍峯), 보현봉(普賢峯), 문수봉(文殊峯), 나월봉(蘿月峯), 증취봉(甑炊峯), 용혈봉(龍穴峯), 용출봉(龍出峯), 미륵봉(彌勒峯), 원효봉(元曉峯), 영취봉(靈鷲峯), 시자봉(侍者峯), 기린봉(麒麟峯), 장군봉(將軍峯), 등편봉(登片峯), 구암봉(龜巖峯), 상원봉(上元峯), 휴암봉(鵂巖峯) 등의 32개 봉우리, 천룡강(天龍岡), 와룡강(臥龍岡), 주마강(走馬岡) 등의 3개 구릉, 의상대(義相臺), 원효대(元曉臺), 태고대(太古臺), 소요대(逍遙臺), 법왕대(法王臺), 유선대(遊仙臺), 곡룡대(曲龍臺), 요초대(瑤草臺) 등의 8개 대, 장춘동(長春洞), 옥류동(玉流洞), 청계동(淸溪洞), 노적동(露積洞), 영천동(靈泉洞), 은선동(隱仙洞), 용계동(龍溪洞), 규룡동(叫龍洞), 잠룡동(潛龍洞), 용류동(龍流洞), 백운동(白雲洞), 자하동(紫霞洞) 등의 12개 동, 여기담(女妓潭), 반룡담(盤龍潭), 월인담(月印潭) 등의 3개 못, 국영폭(國寧瀑), 상운폭(祥雲瀑)의 2개 폭포 등에 대한 지리적 위치를 주변 지형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다섯째, 성지(城池)는 북한산성의 전체 규모와 시설을 설명하였다. 산성 전체 둘레가 21리 60보, 평지의 체성(體城) 높이는 12~14척, 산 위의 체성은 6~10척, 여장(女墻)은 높이가 4척이며 넓이가 3척이다. 성문은 총 14개로서 북문, 대동문, 대서문, 대성문(大成門), 중성문(中城門)의 다섯 개 문에는 홍예(虹蜺)와 초루(譙樓)를 설치하였다. 장대(將臺)는 봉성암(奉聖庵) 뒷 봉우리의 동장대, 나한봉 동북쪽의 남장대, 중성문 서북쪽의 북장대 등의 3개이다. 성랑(城廊)은 143개소이며, 훈련도감 42개, 어영청 41개, 금위영이 60개를 분담해서 관리한다고 하였다. 연못은 26개이며 훈련도감이 11개, 어영청이 12개, 금위영이 3개를 관리하며, 우물은 99개이다.

여섯째, 사실(事實)은 북한산성의 축성을 둘러싼 배경과 시작 시점, 진행과정의 논의, 사건 등을 관련 인물의 기록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축성의 시작점은 1659년(효종 10) 효종이 송시열에게 비밀리

에 내린, 일명 기해년(己亥年) 밀교(密敎)를 기점으로 삼고 있다. 대부분의 내용은 1710년(숙종 36) 이후 축성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장신들과 논의하고 답사를 거행하던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1704년(숙종 30) 청나라에서 해적의 침략을 주의하라는 연락을 해서 도성 인근 보장처 확보가 형안으로 등장했다고 하였다. 즉 북한산성의 축조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 외침에 대한 우려라는 설명이다. 또한 도성민의 일시에 이동하여 방어할 곳은 북한산 외에는 없다는 것과 도성과 기각지세를 이루면 최고의 방어처가 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강화도는 바다를 건너야 하고 남한산성도 도강을 해야 했으므로 일시에 많은 인원이 이동할 수 있는 도성 인근 보장처로는 북한산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1711년 축성이 결정되어 4월에 착공하고 9월에 공사를 마쳤다. 축성에 소요된 비용과 물품도 열거했다. 미(米) 16,281석(石), 포목 767동(同) 12필, 전(錢) 34,799냥(兩), 정철(正鐵) 2,785근, 신철(薪鐵) 229,180근, 석회 9,638석(石), 탄(炭) 14,859석, 생갈(生葛) 2,002동(同), 사승포(四升布) 4동, 소모자(小帽子) 900립(立) 등이다.

특히 1712년 4월에 숙종이 북산성의 축성을 보기 위해 행궁까지 행행한 것과 그 과정을 숙종의 어제시(御製詩) 6수로 설명하였다. 당시 숙종은 북한산성에 행행하여 성첩을 두루 관람하고 천연적인 험준함을 감탄하며 시를 지었다. 숙종은 비를 무릅쓰고 산성에 올랐으며 방어시설인 장대와 자연지형들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1715년 숙종이 산성을 운영하고 유지할 방안으로 21개의 조목을 만들었고, 그중에서 군량의 비축을 주로 설명하였다.

일곱째, 관원(官員)은 북한산성을 운영하기 위해 경리청(經理廳)을 향교동에 두었고, 관원으로 영의정이 겸임하는 도제조 1명, 제조 1명, 비변사 무낭청(武郎廳)에서 차출한 낭청 1명, 병사(兵使)와 수사(水使)를 지낸 무신 출신으로 관성장(管城將) 1명을 두었다. 관성장은 초기에 행궁소(行宮所) 위장(衛將)이라고 하였고 도별장(都別將)이라고 하

였다가 경조대인 1722년(경종 2)에 관성장 직명을 두었다고 하였다.

여덟째, 장교이졸부(將校吏卒附)는 북한산성 운영 실무를 담당한 관원들을 9개 부서별로 설명하였다. 경리청은 호방(戶房) 1명, 군관 3명, 서리 4명, 고직(庫直) 2명, 사령(使令) 5명, 문서직 1명, 군사 2명, 구종(丘從) 2명이다. 평창(平倉)은 고직 1명과 군사 2명이다. 관성소(管城所)는 군관 23명, 집사 2명, 파총(把摠) 1명, 초관(哨官) 5명, 각색차지(各色次知) 5명, 서원(書員) 2명, 고직 3명, 사령 2명, 청직(廳直) 2명, 창군사(倉軍士) 3명, 방직(房直) 2명이다. 수문장으로는 대성문장 1명, 동문장 1명, 서문장 1명, 갑사둔장(甲士屯將) 1명, 흑암둔장(黑岩屯將) 1명이다. 수문장들은 산성의 군관에서 차출되었다. 산성에 소속된 장병으로는 수첩군관(守堞軍官) 266명, 별파진 200명, 아병(牙兵) 635명이었다. 승영(僧營)에는 각도의 사찰에서 차출되어 2개월씩 복무하는 승려들인 의승(義僧)들이 머물렀는데 이들을 지휘할 장졸도 소속되었다. 승대장(僧大將) 1명은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이 겸임하였고, 중군(中軍), 좌우별장, 천총, 파총, 좌우병방(左右兵房)이 각각 1명, 교련관, 기패관, 중군병방이 각각 2명이었다. 오기차지(五旗次知) 1명, 도훈도(道訓導)와 별고감관(別庫監官) 각각 1명, 사료군관(射料軍官) 10명, 서기 2명, 통인(通人) 2명, 고직 3명, 책장무(冊掌務)와 판장무(板掌務) 각각 1명, 취수(吹手) 2명, 각사승장(各寺僧將) 11명, 수승(首僧) 11명, 의승 350명이 있었다.

산성에 배속된 장병 이외에 축성시 동원되었던 군영에서도 장병을 배속시켰다. 훈련도감은 집사에서 차출하던 유영감관(留營監官) 1명, 서원 1명, 고직 2명, 수직군(守直軍) 1명, 사환군(使喚軍) 2명, 북문직(北門直) 2명, 수구문직(水口門直) 1명을 두었다. 어영청은 집사에서 차출하던 유영감관(留營監官) 1명, 서원 1명, 고직 2명, 수직군(守直軍) 1명, 사환군(使喚軍) 2명, 서문직(西門直) 2명, 중성문직(中城門直) 2명, 문수문직(文殊門直) 1명을 두었다. 금위영은 집사에서 차출하던 유영감관(留營監官) 1명, 서원 1명, 고직 2명, 수직군(守直軍) 1명, 사

환군(使喚軍) 2명, 대성문직(大城門直) 2명을 두었다. 또한 호조에서도 산성에 설치된 창고의 관리를 위해 고직 1명과 군사 2명을 파견하였다.

아홉째, 궁전(宮殿)은 상원봉(上元峯) 아래에 위치하던 행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내전(內殿)과 외전을 나누어 기술하였다. 내전은 28칸으로 좌우의 상방(上房) 각각 2칸, 대청 6칸으로 이루어졌다. 좌우의 행각방(行閣房)은 9칸, 청(廳)은 5칸, 중문 1칸, 대문 3칸, 수라소(水剌所) 5칸, 중문 1칸, 측소(厠所) 1칸 등이다. 외전도 내전과 같이 28칸으로 대문 3칸, 북협문(北挾門) 1칸, 외북장중문(外北墻中門) 1칸, 외행각방 12칸, 루(樓) 4칸, 헛간[虛間] 2칸, 중문 2칸, 외대문 3칸, 북변외대문 1칸이다.

열째, 사찰(寺刹)은 향림사(香林寺), 적석사(積石寺), 청량사(淸凉寺), 승가사(僧伽寺), 삼천사(三千寺), 진관사(津寬寺), 도성암(道成庵), 문수사(文殊寺), 중흥사(重興寺), 용암사(龍巖寺), 보국사(輔國寺), 보광사(普光寺), 부왕사(扶旺寺), 원각사(元覺寺), 국영사(國寧寺), 상운사(祥雲寺), 서암사(西巖寺), 태고사(太古寺), 진국사(鎭國寺), 봉성암(奉聖庵), 원효암(元曉庵) 등 21개의 사찰과 암자를 설명하였다. 이 중 향림사, 적석사, 청량사, 승가사, 삼천사, 진관사, 도성암, 문수사 등은 폐지되었다고 하였다. 중흥사와 용암사, 태고사는 산성 축성시 세웠다고 하였다. 또한 태고사, 진국사, 봉성암, 원효암 등은 성능이 세운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적석사는 현재 훈련도감의 창고이며, 도성암은 정의옹주(貞懿翁主)의 원찰이었다는 변하상도 싣고 있다. 승가사, 진관사, 문수사, 서암사, 태고사 등은 관련 시문 등을 통해 주변 풍경과 연혁들을 소개하고 있다. 태고사는 고려시대 보우(普愚)가 '태고' 두 글자를 편액으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성능이 봉우의 유지를 받는 차원에서 축성시 131칸으로 중건했다고 하였다. 특히 사찰에서 주도적으로 사서삼경 언해(諺解), 통감, 십구사략(十九史略), 고문백선(古文百選), 전등신화(剪燈新話) 등을 간행하기 위해 5,700판을 장만했

다고 하였다. 또한 판각을 위한 준비로 주자(鑄字) 틀을 예비로 갖추었다고 하였다.

열한째, 누관(樓觀)은 산성 내 명승에 세워진 누각을 설명한 것이다. 누각은 항해루(沆瀣樓), 산영루(山暎樓), 세심루(洗心樓) 등의 세 개다. 이 중 산영루는 소실되었고, 항해루는 성능이 창건한 것이다. 산영루가 소실되었으나 오원(吳瑗)의 시문을 인용하여 옛 모습을 묘사하였으며, 다른 누각들의 위치도 인근 지형과 건물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열두째, 교량(橋梁)은 환선교(喚仙橋), 언룡교(偃龍橋), 환선교(喚仙橋), 봉황교(봉황교), 청운교(靑雲橋), 백운교(白雲橋) 등의 6개이다. 환선교는 부왕동(扶旺洞)과 자하동(紫霞洞) 입구 두 곳에 있는 동일한 이름의 다리이다. 누관과 같이 모두 그 위치가 설명되었다.

열셋째 창름(倉廩)은 경리청 상창(經理廳 上倉), 중창(中倉), 하창(下倉), 평창(平倉), 호조창(戶曹倉), 훈련도감 유영(留營), 금위영 유영, 어영청 유영 등 8개이다. 상창의 사례를 본다면, 중창과 하창도 경리청 소속임을 알 수 있다.

열넷째, 정계(定界)는 성문과 성벽을 기준으로 담당영역을 나누어서 군영 등에게 소속시킨 것이다. 훈련도감은 북문부터 달현(達峴)까지, 원효봉으로부터 노고산(老姑山) 선봉(蟬峯)까지, 수구문으로부터 지장리(紙匠里)와 노고산 등성까지 표식을 세워 담당하였다. 금위영은 대성문에서 동쪽으로 정능리(貞陵里) 앞까지, 동문으로부터 동쪽 수유현까지, 동장대로부터 장현(嶂峴)까지, 용암봉으로부터 우이천(牛耳川)까지 표식을 세워 담당하였다. 어영청은 여기현(女岐峴)으로부터 지장리 마분(馬墳)까지 표식을 세워 담당하였다.

열다섯째, 고적(古蹟)은 고석성(古石城), 신혈사(神穴寺), 최공전지(崔公戰地)의 세 곳이다. 신혈사는 고려시대 현종이 승려가 된 곳이며, 천추태후가 현종을 죽이려던 사건이 발생한 곳이라고 하였다. 현종이 지은 시문은 훗날 그가 보위에 오를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최공

전지는 장군봉이라고도 부르는 곳이며 최영이 전쟁을 한 곳이라고 한다면서, 근거가 없다면서 이곳을 묘사한 정두경과 홍세태의 시문을 소개하였다.

책의 말미에는 성능이 영조대 북한산성이 처한 문제점을 논하는 글로 마치고 있다. 그는 숙종대 축성을 논의하고 관리하던 재상들의 열의가 사라져서 더 이상 북한산성에 대한 거론이 없는 것을 한탄하였다. 성능은 30여 년간 북한산성의 축성부터 관련된 일을 수행했으며, 1745년 자신이 원래 소속된 사찰로 돌아가는 것을 계기로 후임자이며 신임 총섭인 서윤에게 산성과 관련된 14개 항목을 정리한 '북한지'를 건네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그런 내용을 서윤과 상의한 뒤 책의 말미에 삽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은 '성능지(聖能識)'라고 하여 저자를 밝히고 있다.

4. 맺음말

『북한지』는 숙종대 승려인 성능(聖能)이 편찬하고 간행하였던 사찬지(私撰誌)이다. 조선왕조 정부는 임진왜란 이후 전국 의승병들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승직(僧職)인 총섭을 창설하였다. 성능은 4대 총섭으로 북한산성의 축성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인물이다. 인조대 남한산성을 축성하는 사례와 같이 북한산성도 전국의 승려들을 동원하여 완성하였다. 산성과 같이 험준한 지형에 위험을 동반한 건축 작업은 사회조직이 엄격하고 일사불란하지 않으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왜란과 호란 이후 조선왕조 정부에서는 산성과 같은 국가적 사업에 재정을 투여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았다. 이런 배경에서 승려들이 국가적 사업에 동원되었으며, 이들을 통솔한 총섭 성능이 관련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북한지』이다.

『북한지』에는 북한산성 전체를 조망하는 산성의 규모와 건물, 지형

을 묘사한 도판과 건물군의 설명 및 그에 연관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북한산성의 연혁과 내용에 있어서 『북한지』처럼 완결된 자료는 현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자료는 조선후기 산성 연구는 물론 도성의 방어책 및 불교사 연구에도 필수적인 자료이다. 특히 『북한지』의 편찬자는 승려 성능이었으며, 그가 이 책을 간행한 이유는 북한산성에 대한 국가의 관심을 상기시키고, 그에 따라 성내에 사찰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한 방책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북한산성이 국가기관만이 아니라 승려들에 의해 축성되었다는 사실을 공표하여 조선후기에 퇴색되던 불교의 중흥을 위한 근거로 삼으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남권희, 권옥덕, 2014, 「북한산 태고사 수장 책과 관련기록 연구」, 『서지학연구』 54.

조선후기 의승군과 북한산성 승영사찰

황인규*

1. 들어가는 말 • 77

2. 양란시 의승군의 봉기와 남한산성 축성 • 78

3. 조선후기 승군의 북한산성 축성과 승영사찰 • 87

4. 나가는 말 • 94

참고문헌 • 97

*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1. 들어가는 말

고려말 이후 숭유억불 운동 분위기는 가속화되어 갔다. 조선 건국 초 태종대 역사상 최대 불교계 탄압과 그의 아들 세종의 종단 축소, 연산군대 종단 폐쇄로 인하여 조선후기 불교계는 무종단 산중불교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명종대 걸승 허응보우의 선교양종의 복립이 되었으나 보우의 순교 이후 다시 숭유억불 시책은 가속화되어 갔다. 임진병자의 양란시 승려는 승군과 승역을 담당하게 되면서 불교계의 존재가 부상되기 시작하였으나 신분의 위상이 그리 높아진 것은 아니다.

고대 이래 승려가 전투에 참여한 승군[1]이 있어 왔지만 외침에 거개적으로 정면으로 나선 것은 양란이 처음이다. 남방의 왜군이 일으킨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북방의 여진족이 일으킨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맞이하여 산중에서 내려와 전투에 참전하였으며 양란 이후 산성 축성 등 승역을 담당하였다. 양란시 분연히 참전하고 승역을 담당한 승군을 이전 시기와는 달리 승군으로 義旅軍이라고 사용된 사례도 있지만[2], 義僧軍이라고 높여 부른다.[3] 산성이나 읍성 등에는 의승이 주석한 승영사찰이 만들어졌다.

본 글은 이러한 의승의 임진왜란시 전투, 남한산성 축성과 호란시

---

1) 조선후기 의승군에 관한 연구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정상, 1959,「이조불교의 호국사상에 대하여 – 특히 의승군을 중심으로」『백성욱 박사 송수기념 불교학논문집』, 동국대 기념사업위원회; 김덕수, 1992,「조선시대 의승군 연구」, 원광대 대학원 박사논문; 김덕수, 1993,『임진왜란과 의승군』, 경서원; 박재광, 2006,「임진왜란 초기의 의승군의 활동과 사명당」,『동국사학』42; 윤용출, 2009,「17세기 후반 산릉역의 승군징발」,『역사와 경계』73; 양은용, 2012,「조선시대의 국난과 의승군의 활동」,『한국호국불교의 재조명』; 황인규, 2012,「임진왜란 의승군의 봉기와 전란의 충격」,『한국불교사연구』2; 김용태, 2012,「임진왜란 의승군 활동과 그 불교사적 의미」,『보조사상』37; 이종수, 2012,「조선후기의 승군제도와 그 활동」,『보조사상』37; 이장희, 2013,「조선시대 전란사에서 의승군의 위상과 역할」,『한국호국불교의 재조명』2,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고영섭,「조선후기 승군제도의 불교사적 의의」, 앞의 책; 오경후,「조선후기 의승번전의 징수와 승군」, 앞의 책.

2) 李景奭,「安心寺表訓寺虛白堂大寺碑」,『조선금석총람』하.

3)『일성록』정조 8년 갑진(1784, 건륭 49) 1월 11일(정유).

의승 활동, 북한산성 축성[4]과 산성 내 승영사찰의 운영 등 조선중기 의승군의 전투 참전과 북한산성의 승영사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5]

2. 양란시 의승군의 봉기와 남한산성 축성

1) 승군과 임진왜란 의승군

불교는 국가 왕실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하였는데 승군도 그러한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고대에 해인사 승군의 존재가 확인되며[6] 고려 국초에 수원승도가 중앙과 지방의 사원에 소속되어 군현의 민과 같이 항상 노역을 담당하였으며, 유사시인 전쟁시 군에 징발되는 등 국가에 편제되었다. 즉, 윤관의 여진 정벌시 운영된 별무반 항마군에 수원승도가 동원되기도 하였다.[7]

고려 원 간섭기 천태종승 천책이 지은 『호산록』에 의하면 태조 왕건의 행군법사 能兢이 있었으며,[8] 승장 金允侯는 몽고군이 침입하자

---

4) 북한산성 僧營寺刹에 관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정미, 2006, 「조선후기 산성 승영사찰 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8-3(통권 제27호); 윤기엽, 2014, 「북한산성의 승영사찰 - 사찰의 역할과 운영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25, 연세대 국학연구원; 우정상, 1963, 「남북한산성 의승방번전에 대하여」, 『불교학보』 1; 안계현, 1966, 『한국 승군보』 동국역경원; 안계현, 1972, 「조선전기의 승군」, 『동방학지』 13; 박용숙, 1981, 「조선후기 승역에 관한 고찰」, 『논문집』 31, 부산대; 윤용출, 1984, 「조선후기의 부역승군」, 『인문논총』 26; 여은경, 1987, 「조선후기 산성의 승군총섭」, 『대구사학』 32, 대구사학회; 김갑주, 1984, 「정조대 남북한산성 의승방번전의 반감」, 『소헌 남도영 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5) 필자는 임진난 의승군에 관한 연구와 북한산성 사찰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다. 황인규, 2009, 「서산대사의 승군활동과 조선후기 추념사업」, 『불교사상과 문화』 1,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 황인규, 2013, 「임진왜란 의승군의 봉기와 전란의 충격」, 『한국불교사연구』 2; 황인규, 2011, 「북한산(삼각산)의 사찰과 불교의 전개 - 고·중세 사찰의 존재양상과 그 의의를 중심으로」, 『전법학 연구』 2, 불광학술연구원.

6) 이홍직, 1969, 「라말의 전란과 緇軍」, 『사총』 12·13합.

7) 『고려사』 권81, 병지1 5군 숙종 9년 12월, '國初 內外寺院 皆有隨院僧徒 常執勞役 如郡縣之居民 有産者 多之千百 每國家興師 亦發內外諸隨院僧徒 分屬諸軍.'

하층민인 처인부곡민과 1232년(고종 19) 몽고군의 수장 살레타이를 막아냈으며, 충주로 가서 산성별호방호별감으로 임명되어 충주의 승려 牛本과, 奴軍 令史 池光守와 더불어 몽고군을 방어하였다.[9] 공민왕대 이후 천태종승 神照는 이성계의 군사 핵심참모였으며,[10] 국사와 왕사 다음의 서열에 있었다고 할 內願堂의 승려 玄麟도 군사핵심참모였다.[11]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의 전례에 따라 승도와 승군은 궁궐과 도성 건설에 동원되었다.[12] 특히 을묘왜변시에도 승군이 兩宗이 아닌 수령들로 하여금 뽑게 하였으며,[13] 임진왜란 발발 직후에도 승군을 징집한 사례가 찾아진다. 이는 의승장이 자발적으로 지휘하여 봉기한 의승군이 아닌, 관에서 동원된 승군이다.[14]

임란시 최초의 승군 봉기는 淸虛休靜 제자 騎虛靈圭다. 靈圭는 3백여 명을 불러 모으고서 '우리들이 일어난 것은 조정의 명령이 있어서가 아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나의 군대에 들어오지 말라'[15]고 하며 제1차 금산성 전투에 참전하였으며,[16] 청주성 전

---

8) 眞淨國師 天頙, 「答芸壹亞監閔昊書」, 『湖山錄』; 허흥식, 1995, 『진정국사와 호산록』, 민족사, 310쪽, ' 何者 昔聖祖初刱之際 行營福田能兢 親傳道佌詵 聖訣 以三乘會一乘 三觀在一心 甚深妙法 合我會之三之國 上奏天聰故'; 閔漬, 「國淸寺金堂主佛釋迦如來舍利靈異記」, 『東文選』 卷68, 記.

9) 『고려사』 권103, 김윤후열전; 『고려사』 권129, 최충헌열전.

10) 權近, 「水原萬義寺祝上華嚴法會目記」, 『陽村集』 卷12 記; 『東文選』 卷78, 記; 權近, 「李穡行狀」, 『陽村集』 卷40 行狀.

11) 『고려사』 권113, 최영열전.

12) 『명종실록』 권18, 10년 5월 19일(임자), '前朝之季 調發大軍 亦令僧人 持長斧大挺 以赴戰場; 『태종실록』 권24, 12년 7월 7일(경인), '徵行廊 造成丁匠 議政府啓請 僧軍一千名木工二百名抄送事 移文各道 從之' 『세종실록』 권59, 15년 2월 15일(기해), '徵諸道僧軍一千 赴太平館之役'.

13) 『명종실록』 권18, 10년 5월 19일(임자), '僧軍雖無弓馬之才 而擇其壯建者 則豈無可用者乎 但勿令兩宗抄發 使守令抄發何如'; 『명종실록』 권18, 10년 5월 20일(계축), '且依諫院所啓 全羅淸洪兩道 爲先抄發 他道則徐觀其勢而爲之, 陵寢寺僧則其勿抄出'

14) 『선조실록』 권26, 25년 5월 27일(병술), '備邊司回啓曰 卽與監 兵使同議 各官雜類軍 時方聚會 三四月下番軍士 亦爲知會來赴 諸寺僧軍五六百 守令亦有牙兵二百餘名 元軍四千外 此數亦不下數千矣'

투에서 임진난 첫 승리를 거두었으나 얼마 후 제 2차 금산성 전투에서 순국하였다.[17]

몽진중 의주에서 이러한 소식을 들은 선조는 그와 인연[18]이 있었던 서산대사 청허휴정(1520~1604)을 불러 의승군의 봉기를 요청하였다. 휴정은 전국의 사찰에 격문을 돌리자 전국적으로 일시에 호응하였으며, 의승군으로 참전할 수 없는 승려는 사찰에서 기도하게 하였다.[19] 휴정은 8道16宗 禪敎都摠攝을 임명받고 의승군의 수장이 되었으며, 8도 각처의 선종과 교종에 각각 判事 1인씩을 임명하여 총 16인을 주관자로 삼았으며, 그 후에 摠攝으로 이름을 바꾸었다.[20] 팔도도총섭은 휴정 이후 義嚴과 四溟惟政이 각기 계승하였다.[21]

휴정은 1,500여 명의 의승군을 이끌고 순안 법흥사에서 집결하였고, 그의 문도 四溟惟政(1544~1610)[22], 義嚴[23], 雷默處英[24], 中觀海眼(1567~?)[25], 奇巖法堅(1522~1634)[26], 霽月敬軒(1542~1632)[27],

---

15) 『선조실록』 권29, 25년 8월 26일(계축).

16) 이 전투에 영규와 의승군이 참전하였으나(유팽로, 「임진 7월 초7일 갑자」, 『월파집』 권3) 거의 주목하지 아쉬울 뿐이다. 다만 조원래 교수가 각주에서 이러한 사실을 명기하고 있다. 조원래, 2000, 「임란초기 두 차례의 금산전투와 그 전략적 의의」, 103쪽 각주 64. 그리고 최근에 이철헌도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철헌, 2015, 「Ⅰ. 문헌에 나타난 영규대사의 생애와 활동」, 『갑사 표충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18~54쪽.

17) 『선조실록』 권29, 25년(1592) 8월 26일(계축); 『선조실록』 권30, 25년(1592) 9월 15일(임신); 吳希文(1539~1613), 「壬辰日錄 8월 9일」, 『鎖尾錄』 卷1.

18) 청허휴정은 정여립의 모반사건에 연루되었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 선조에게 불교 고승으로서 부각되었다. 李廷龜(1564~1635), 「有明朝鮮國賜國一都大禪師禪敎都摠攝扶宗樹敎普濟登階尊者西山淸虛堂休靜大師碑銘」, 『月沙集』 卷45, 碑.

19) 徐有隣(1738~1802), 「西山大師表忠祠紀績碑銘」, 『조선불교통사』 상.

20) 『선조실록』 권41, 26년(1593) 8월 7일(무자).

21) 『선조실록』 권155, 35년(1602) 10월 7일(을미).

22) 『선조실록』 권36, 26년 3월 27일(임오); 『선조실록』 권37, 26년 4월 12일(병신); 『선조실록』 권42, 26년 9월 8일(기미); 『松雲大師奮忠紓難錄』.

23) 『선조실록』 권38, 26년 5월 15일(무진); 『선조실록』 권53, 27년 7월 8일(갑신)

24) 李廷龜(1564~1635), 「有明朝鮮國賜國一都大禪師禪敎都摠攝扶宗樹敎普濟登階尊者西山淸虛堂休靜大師碑銘」, 『月沙集』 卷45, 碑.

25) 『中觀大師遺稿』 附錄, '自壬辰至丁丑被緇仗義 摠統僧軍者 非一再 雖非師之所樂爲者 而其

靑梅印悟(1548~1623)[28], 信悅[29], 法正[30] 등과, 휴정의 동문인 부휴선수와 문도 碧巖覺性[31] 등이 전국 각지에서 승군으로 전투에 참여하였다.[32] 1605년(선조 38) 4월 임진왜란 때의 軍功으로 宣武原從功臣으로 공신이 된 영규와 처영을 비롯한 惠根, 宗印, 勝寶, 道奄, 閑右, 思義 승군 34명도 주요 전투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33]

그 가운데 청허휴정이 이끈 의승군은 평양성 전투에 참가하여 임진난에서 처음으로 승리하였다. 휴정의 제자 處英은 權慄 장군과 행주산성 전투에서, 四溟惟政은 노원평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한성수복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34] 청허휴정과 四溟惟政은 선조의 한성還駕를 하거나[35] 3,500명의 포로 송환 등 중요한 외교적 역할도 수행하였다. 명의 장군 李如松(1549~1598)은 이러한 의승군에 대하여 칭찬하면서 두루마리 시첩을 보내왔다.[36] 수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순

忘身爲國之誠 亦釋門之希有事也'; 사명유정, 「甲午九月馳進京師上疏 言訂賊保民事疏曰」, 『松雲大師奮忠紓難錄』, '雲義嚴處英靈圭海眼諸僧 又從雙樹婆羅門 便做箇輪忠盡節報國恩丈夫 所以億萬無疆'

26) 『선조실록』 권48, 27년 2월 27일(병자).

27) 申翊聖, 1999, 「鐵原深源寺霽月堂敬軒大師碑文」,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朝鮮篇 1), 伽山文庫.

28) 靑梅印悟는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 의승장으로 3년 동안 공적을 세웠다. 靑梅印悟, 「丫嵯峯記」, 『靑梅集』 권2,: 『한국불교전서』 8. 『청매집』에 의하면 印悟는 임란시 「法興鎭」, 「僧將」 등의 시를 남겼다.

29) 『선조실록』 권48, 27(1594)년 2월 20일(기사); 『선조실록』 권56, 27년(1594) 10월 11일(을묘)

30) 『선조실록』 권39, 26년(1593) 6월 6일(기축).

31) 李景奭, 「華嚴寺碧岩大師碑」, 『조선금석총람』 하.

32) 청허휴정의 제자 逍遙太能은 승군에 직접 참전하지 않았으나 참전 기도하였다. 「逍遙大禪師行狀」, 『逍遙堂集』,:『한국불교전서』 8.

33) 「宣武原從功臣錄券」 奎章閣 古 4651-13.

34) 이향철, 2002,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점령정책과 한성탈환전투」, 『인문사회과학논문집』, 31; 박재광, 2002, 「임진왜란기 일본군의 한성점령과 노원평전투」, 『인문사회과학논문집』 31.

35) 徐有隣(1738~1802), 「西山大師表忠祠紀績碑銘」, 『조선불교통사』 상; 成海應(1760~1839), 「酬忠祠記」, 『研經齋全集』 卷9, 文1, 記.

36) 成海應(1760~1839), 「酬忠祠記」, 『研經齋全集』 卷9, 文1, 記.

신도 이러한 의승군의 공로가 많았다고 하여 조정에서 상을 내려 표창해야 한다는 狀啓를 올렸다.[37]

이순신 장군이 의승수군으로 동참을 요청하자 800여 명의 전라 좌수영의 수군의승이 봉기하였다. 本營의 豺虎別都將 玉炯義能[38]과, 駐鎭의 順天 송광사 출신으로 수군 의승장 總攝 慈雲 圓正三惠[39]와 遊擊別都將 守仁 의승장을 비롯하여, 수인 예하의 左突擊將 信海, 揚兵勇擊將 智元, 右突擊將 性輝 등이 수전에 참전하였다.[40] 이순신은 남해를 중심으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여기에는 수군의승의 기여가 적지 않았다.

그 외에도 개별적으로 의승군으로 봉기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즉, 승려 天祐와 一諄[41], 淨土寺의 승려들[42], 處一[43], 아산 開玄寺 의승장 一玄[44]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렇듯 의승군은 국가의 위기에 자발적으로 봉기하여 의병처럼 勤王兵의 성격을 지니기도 하였지만 불교 교단을 수호하였다. 의승군은 의병과는 달리 뚜렷한 명령체계를 갖고 있었다. 훈련도감에서 각도의 의승장의 통솔을 청허휴정에게 위임하였으며[45], 의승장은 의승을 이끌고 관군의 元帥에 예속되거나, 의병장과 함께 싸웠다. 8도에 의승군을 총괄하는 1~2인의 총섭은 각기 관할 지역의 의승군을 통솔하였다.[46] 총섭은 '의승군을 이끌고 적을 토벌하는 승려[軍討賊之僧]를 가

37) 『忠武公全書』上, 卷3, 「請賞義兵諸將狀 1593. 3. 10.

38) 『광해군일기』 권51, 4년(1612) 3월 23일(정사).

39) 『광해군일기』 권54, 4년(1612) 6월 16일(기묘).

40) 『李忠武公全書』 上, 卷3, 分送義僧把守要害狀, 1593.

41) 『선조실록』 권40, 26년(1593) 7월 19일(신미).

42) 申炅, 『再造藩邦志』 2; 『대동야승』.

43) 위와 같음.

44) 『선조실록』 권47, 27년(1594) 1월 24일(계묘).

45) 『선조실록』 권49, 27년(1594), 3월, 28일(병오).

46) 불교계는 각 도에 선교종판사 각 1인씩을 배치하고자 하였으나 조정은 선교양종을 부활하는 느낌을 준다고 하여 총섭이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선조실록』 권41, 26년 8월 7일(무자).

리키지만 조정에서 職帖을 받았다. 의병이 임진왜란 발발 1년여 기간에만 존속하였지만 이승군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존속하여 산성을 축조하는 등 승역을 담당하였다.

의승은 스스로 수 개월간의 양식을 가지고 와 火砲, 조총과 刀槍 등의 기예를 습득하여 전투에 나갔다.[47] 예컨대 의승장 청허휴정과 四溟惟政이 이끄는 2,200여 명의 의승군은 승복 위에 戰復으로 갈아입고 창과 검 弓弩, 鐵椎 등으로 무장하고,[48]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의승의 유격전은 평양성을 탈환하기 위해 벌인 모란봉 전투[49]를 비롯하여 행주대첩과 벽제관 전투, 노원평 전투 즈음까지 계속되었던 듯하다. 그 후 명군의 참여와 관군의 정비가 이루어지자 의승군은 전투 참여 대신에 군량 조달이나 산성축성 등 후방을 지원하였다.[50]

2) 남한산성의 축성과 호란 전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승군은 유격전을 중심으로 전투를 전개하였으나 한성수복 이후 전쟁 물자를 운송하거나 산성 축성을 담당하게 된다. 휴정의 제자 義嚴은 총섭에 임명되어 의승군 5백여 명을 이끌고 婆娑山城을 수축하고 둔전을 개척하였으며, 1597년(선조 30)과 1599년(선조 32)에는 宗廟 수축공사와 명의 병부상서 邢玠의 生祠堂과 銅柱, 石碑 등을 건립하였다.[51] 기암법견은 副總攝에 임명되어 전라도 長城의 笠巖山城을, 사명유정은 三嘉의 岳堅과 陜川의 李崇山城 등을,[52] 靈珠는 竹山城과 婆娑城을,[53] 見牛는 月溪山城의 축성하였

47) 『선조실록』 권49, 27년 3월 28일(병오).

48) 이형석, 1998, 『임진전란사』 권상,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650쪽.

49) 申炅, 『再造藩邦志』 2; 『대동야승』; 吳希文(1539~1613), 「送僧義兵八道都大將書」, 『鎖尾錄』 卷上 雜錄; 『선조실록』 권59, 28년(1595) 1월 22일(을미).

50) 『선조실록』 권48, 27년(1594) 2월 20일(기사); 『선조실록』 권48, 27년(1594) 2월 27일(병자).

51) 『선조실록』 권117, 32년 9월 26일(임신).

다.[54] 그리고 궁궐의 담장을 쌓는 일,[55] 오대산 사고의 수비,[56] 산성의 수축과 수비[57] 등을 맡아 수행하였다.

왜란을 겪으면서 산성을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한양 도성의 수비를 강화하기 위한 남한산성의 축성이 제기되었다. 임진왜란시 서애 유성룡은 호남을 방어하기 위해 수원의 禿城, 衿川의 衿之山과 더불어 남한산성 축성을 역설하였으며,[58] 여러 산성을 축성한 경험이 있었던 사명유정의 의승군이 이를 맡았으며,[59] 동문인 雷默處英[60]과 逍遙太能(1562~1649)도 남한산성 축조에 참여하였다.[61]

본격적인 남한산성 축성은 이괄의 난 후 후금의 압박이 커지는 분위기 속에 정묘호란이 일어나기 전해인 1626년 봄에 시작되었다. 李曛가 監築을 맡았으며, 碧巖覺性(1574~1659)은 8道 도총섭의 직첩을 받고 승군을 징발하여 남한산성을 쌓았다.[62] 각성은 청허휴정의 동문 부휴선수의 제자로 임란시 그의 스승과 더불어 의승수군으로 참여한 바 있다. 남한산성의 승장의 추천을 의뢰받자 浮休善修(1543~1615)의 제자 송광사 주지 待價熙玉이 부각되었으나 의승수군 활동을 한 바 있던 벽암각성이 선정되었다.[63] 八道都摠攝으로 임명된 碧巖覺性은 三南의

---

52) 『선조실록』 권48, 27년 2월 27일(병자); 『선조실록』 권80, 29년 9월 12일(을사).

53) 『선조실록』 권189, 38년 7월 11일(계미).

54) 『선조실록』 권64, 28년 6월 12일(계축)

55) 『선조실록』 권163, 36년 6월 5일(경인).

56) 『광해군일기』 권33, 2년 9월 23일(을축).

57) 여은경, 1987, 「조선후기 산성의 승군총섭」, 『대구사학』 제32집, 대구사학회 참조.

58) 『선조실록』 권43, 26년 10월 22일(임인)

59) 『선조실록』 권80, 29년 9월 12일(을사); 사명유정, 「乙未罷兵後備邊司啓」, 『松雲大師奮忠紓難錄』.

60) 『선조실록』 권53, 27년 7월 19일(을미).

61) 태능은 1624년(인조 2) 남한산성의 西城을 보완하였다. 逍遙太能, 「通洲居士 柳士衡題」, 『逍遙堂集』 像贊, '以壬辰亂 爲國祈祝之誠 監築 西城之功'

62) 『重訂 南漢誌』, 「南漢山城記」, '完豊府院君李署 代其任 乃廣召諸名僧覺性應聖等 各摠其徒分地賦功 而牧使文希聖 別將李一元 裨將李光春等 寔監董而'

63) 그 당시 송광사 주지인 待價熙玉은 1621년(광해군 13) 9월 당시 송광사 주지 性言이 호법을

의승을 동원하여 1624년(인조 2)부터 3년간 공사를 시작하여 1626년에 완료하였다. 각성의 문도였던 悔隱應俊(1587~1672)은 입암산성의 축성, 항마군의 참모를 맡는 등 軍務에 30여 년간 종사하였고 1647년(인조 25)에는 스승을 이어 팔도도총섭을 맡았다.[64] 그 후 處能을 거쳐 瑞鳳이 4代 都摠攝으로서 의승군을 이끌고 남한산성을 수비하였다.[65] 남한산성 팔도도총섭은 불교계를 대표하며 三南을 비롯한 전국의 의승군을 통솔하고 조정과도 소통하였다. 이로써 전국의 승려를 총괄하는 의승군의 총섭제의 정착이 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의승군의 산성의 수축과 수성의 표본이 되었다.

각성과 의승군은 남한산성의 도승통으로서 남한산성 내 건립된 9개의 승영사찰에 주둔하면서 방어를 맡았다.[66] 산성뿐만 아니라 읍성 또는 관방이 성에는 승영사찰이 건립되었다. 읍지류인 『여지도서』에 의하면 18세기 전반까지 존재하였던, 약 1,530개소의 사찰은 산성 또는 읍성과 관련이 있으며 그 가운데 의승장 또는 총섭이 임명된 사찰은 102개였다.[67]

당시 대표적인 산성인 남한산성 내에 세워진 9개의 僧營사찰은 '北四寺라 불린 장경사, 망월사, 동림사, 옥정사와 南五寺라 불린 개원사, 한흥사, 남단사, 천주사, 국청사였는데,[68] 개원사가 중심 사찰이었다.[69]

위해 思舜 등에게 16국사의 진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待價, 「十六國師眞影記」, 『송광사지』; 張維(1587~1638), 「贈寫眞僧思舜 寺有牧牛派下十六祖師影子 歲久損晦 師爲新之 且欲爲余寫眞云」, 『谿谷集』 卷26, 七言古詩, 47首; 황인규, 2010, 「수선사 16국사의 위상과 추념: 송광사의 승보종찰 설정과 관련하여 試攷함」, 『보조사상』 34.: 황인규, 2011, 『조선시대 불교계 고승과 비구니』, 혜안.

64) 「正憲大夫八道都摠攝兼僧大將悔隱長老碑銘」, 『대각등계집』 권2,: 『한국불교전서』 8, 333~334쪽.

65) 이장희, 1974, 「정묘 병자호란 의병고」, 『건대사학』 4.

66) 『南漢志』 67, 87쪽.

67) 여은경, 앞의 논문 참조.

68) 『重訂 南漢誌』, 軍器, '按本營 有新舊軍器兩庫儲寺 各頂軍器 亦爲分寺於南北各寺 而北四寺主新軍器 南五寺. 主舊軍器'

남한산성의 의승군은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의 승려들이 교대로 입번하였다. 산성의 승영은 僧軍總攝 1인, 僧中軍 1인, 教鍊官 1인, 哨官 3인, 旗牌官 1인, 寺原居僧軍 138인, 각 도의 番僧 356인으로 편제를 갖추었다.[70]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인조는 虛白明照(1593~1661)를 8道 義僧軍都大將으로 임명하였다. 유정의 문도 松月應祥(1572~1654)은 1624년(인조 2)에 의승군을 이끌고 남한산성을 쌓게 하여 前後兩度八道都摠攝을 제수받았으나 사양하고,[71] 그의 제자 虛白明照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였다. 명조는 1626년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팔도의승도대장으로 청천강을 지키며, 후금이 침략하자 4천여 의승군을 일으켜 안주성의 軍民들과 關西지방 일대에서 항전하였다.[72] 이로써 청천강 이북 지역의 용골산성의 鄭鳳壽와 용천의 李立 부대의 전투를 고무시켜, 후금의 침략군을 물러가게 하였다. 명조는 그 뒤 묘향산에 주석하다가 1636년 병자호란시 관서 안찰사 閔聖徽의 의뢰를 받아 의승병 대장으로서 관서지방의 관민을 동원하고 군량미를 확보하였다.[73]

각성도 병자호란시 구례 화엄사에 주석하다가 1636년 의승군 3천을 이끌고 降魔軍을 조직하여 청에 항전하러 가다가 인조가 항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중지하였다.[74] 또한 청에 포위된 남한산성의 의승

---

69) 숙종대 전라도 임자도에 표류하였던 『가흥대장경』이 개원사에 보관하게 되는 것도 그 위상을 짐작케 하고 있다.

70) 이능화, 1918, 『조선불교통사』 하, 829쪽.

71) 鄭斗卿, 「楡岾寺松月堂大師碑銘」; 「貝葉寺松月堂石鐘碑銘」; 「金剛山松月堂應祥大師碑銘」, 李智冠 편, 2000, 『韓國高僧碑文總集: 朝鮮朝·近現代』,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50~158쪽.

72) 허백명조, 「虛白堂詩集序」 『허백집』,: 『한국불교전서』 8, 379~380쪽; 허백명조, 「盧夢條序文」, 『虛白堂詩集』; 吳竣, 「賜 嘉善大夫 國一都大禪師 扶宗樹教 福國佑世 悲智雙運 義僧都大將 登階 虛白堂大師碑銘 幷序」, 『조선금석총람』 하,

73) 명조는 그 후 1640년 8월에 湖南觀察使 元斗杓의 청으로 糾正都摠攝을 맡아서 무주 赤裳山城에 있는 史庫를 수호하였다.

74) 「賜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行狀」 『大覺登階集』 권2(『한국불교전서』 8, 329~331쪽); 「화엄사벽암당각성대사비명」, 『한국고승비문총집』, 180~184쪽). 1637년 정월에 인조가 항복하여 청나라 군사가 물러간 뒤 조정에서는 그 공을 높이 사서 '嘉善大夫 國一都大禪師

장 希安의 의승군은 항전을 하였으며,[75] 의승 斗淸은 강원·황해의 我軍에 첩보연락을 하기도 하였다.

3. 조선후기 승군의 북한산성 축성과 승영사찰

1) 의승군의 북한산성 축성

양난 이후 남한산성 축조의 예를 좇아 전국 대부분의 성의 축조와 방어에는 의승군이 참여하였다. 그러던 터에 1702년(숙종 28) 신완과 이세백에 의해 북한산성을 축성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76] 1710년(숙종 36) 청에서 온 咨文을 계기로 북한산성의 축성할 명분도 얻게 되었다. 그 이듬해인 1711년 민진후를 북한산 구관당상으로 삼아 북한산성의 축성이 결정되었다.[77]

북한산이 우리의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백제시대부터 이지만 고려 중엽 남경 운영 이후 더욱 부각되었으며, 조선 건국과 더불어 한양 천도가 되면서 북한산은 진산으로서 더욱 중요하게 간주되었다.[78] 예컨대 북한산성의 전신이라고 할 중흥산성에 승도를 징집하여 화포 등의 기술을 터득하며 군을 훈련시키자는 논의[79]가 1596년(선조 29)에만 두 차례 일어났다.[80] 광해군 때에도 중흥산성을 수축하여 도성을 지키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81] 숙종 즉위년에도 마찬가지였다.[82]

扶宗樹敎 福國祐世 悲智雙運 義僧都大將 登階'의 직호와 직첩을 제수하였으나, 국왕이 청나라에 항복한 것이 통분하여 직첩을 받지 않았다. 김용태, 2009, 「조선후기 화엄사의 역사와 부휴계 전통」『지방사와 지방문화』 12-1, 역사문화학회 참조.

75) 『인조실록』 권33, 14년 12월 14일.

76) 『숙종실록』 권38, 29년 3월 15일(경신).

77) 『숙종실록』 권50, 37년 2월 10일(기사),

78) 『증보문헌비고』 권19, 여지고 7 산천 1 산 1 삼각산, '서울[京師]의 鎭山이 된다.'

79) 『선조실록』 권71, 29년 1월 28일(을미).

80) 『선조실록』 권73, 29년 3월 6일(계유).

북한산 축성은 '도성이 四散四戰之地에 있어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지킬 수 없고, 남한산성은 물에 막혀 갑자기 다다를 수 없기 때문'[83] 이었다.

북한산성의 축성에 앞서 1704년(숙종 30) 3월부터 도성의 수축 공사가 시작되어 1710년(숙종 36)에 마무리되었으며, 북한산성은 1711년(숙종 37) 4월에 축성되기 시작하여 그해 10월에 완공되었다. 북한산성이 축성되기 1년 전 전인 1710년에 마무리된 도성 축성공사의 사례를 따른 것이다. 북한산성의 축성에는 3군문이 전체 구역을 분담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훈련도감은 수문북변에서 용암문까지 2,299步, 금위영은 용암남변에서 보현봉까지 2,821步, 어영청은 수문북변에서 보현봉까지 2,507步를 각기 분담하여 축성하였다(총 7,620步). 體城 7,620보, 女墻[城堞] 2,807보, 총 둘레 약 13㎞에 이르는 산성[84]으로 축성을 시작한지 6개월 반(숙종 37년 4월 3일~10월 19일)[85]만이었다.

비변사와 호조, 병조, 진휼청 등에서 산성 축성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하였으며, 삼군문의 물자 일부도 지원되었다. 산성 축성에 참여 인원은 기술자인 모군과 도성의 민, 그리고 각 군문의 군인들이 동원되었으나 의승군의 역할도 매우 컸다.

의승군의 산성 축성 총책임은 華嚴寺 출신 桂坡性能이 8道 都摠攝이 도맡았다. 성능은 남한산성의 축성을 통할한 화엄사 출신 고승 벽암각성의 문도이기도 하지만 숙종과의 인연도 한몫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성능은 임진왜란시 소실된 화엄사 경내 2층 70칸의 丈六殿을 조성하였는데, 이 불사에 숙종과 그의 비 淑嬪崔氏가 후원하였으며, 그의 아들 延齡君(후의 영조)의 원당이 되었다.[86]

---

81) 『광해군일기』 권169, 13년 9월 14일(임자); 『광해군일기』 권171, 13년 11월 9일(병오).

82) 『숙종실록』 권1, 즉위년 11월 26일(을유).

83) 이익, 「游北漢記」, 『星湖先生全集』 卷53 記.

84) 『만기요람』 군정편 3 摠戎廳 北漢山城.

85) 『숙종실록』 권50, 37년 10월 19일, '北漢城役 始自四月初三日 至是訖'



[그림 1] 계파 성능의 『북한지』에 실린 북한산성 지도

성능은 8도 도총섭으로서 북한산성 내 僧營사찰인 重興寺에 머무르며, 의승군을 통할하여 9개월 만에 산성을 축성하였다. 그 후 370여 명의 의승들과 함께 약 30년간 산성을 방어하였다. 승영의 편제는 僧大將 1인, 중군 1인, 좌우별장 각 1인, 각사 승장 11인, 각사 수승 11인, 입번승 350인으로 이루어졌다.[87] 산성을 주관 감독은 經理廳과 그 예하에 管城所에서 산성 내 군사와 재정을 담당하였으며, 관성소와 함께 승영사찰이 산성 방어의 핵심을 이루었다.

성능이 집필한 『北漢誌』(1745)에 의하면, 북한산성의 성문은 대문 5개소, 소문 2개소, 암문 7개소 등 14개소를 두었다. 장대는 동, 남, 북의 3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그 가운데 시단봉에 위치한 동장대는 산성 내 행궁과 성 안을 조망하는 산성의 총지휘소였다. 행궁은 내·외전과 부속건물 등 120여 칸에 달하였으며, 행궁 오른쪽에 上倉, 중흥사 앞에 中倉, 서문 내에 下倉, 행궁 앞에 戶曹倉, 탕춘대에 平倉을 설치하였는데, 총 140여 칸 규모에 달하였으며 2만6천여 석의 군량미를 저장할 수 있었다. 또한 성랑은 훈련도감 구역에 42개소, 금위영 구역에 60개소, 어영청 구역에 41개소 등 총 143개소가 있었다. 유영은 노적봉 암벽 밑에 훈련도감, 보국사에 금위영, 대성암 부근에 어영청에 각기 배치되었다.

---

86) 伽山智冠, 2007, 「禪敎兩宗智利山大華嚴寺事蹟碑銘」, 화엄문도회, 『華嚴寺와 導光大禪師』, 화엄사, 11쪽; 김용태, 2009, 앞의 논문, 387쪽.

87) 계파성능, 『北漢誌』, 「사찰」.

2) 북한산성의 승영사찰의 운용

북한산은 고려 중엽 남경이 설치된 이후 조선왕조 국도의 진산으로 많은 사찰이 창건 운용되었다. 조선 중종대 편찬된『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북한산에는 藏義寺, 香林寺, 石積寺, 淸涼寺, 重興寺, 僧伽寺, 三川寺, 文殊寺, 津寬寺, 道成菴 등이 있었고, 고적조에 神穴寺가 있었다고 한다.[88] 1596년(선조 29)에 지어진 이덕형의 기문에 의하면 中興寺, 雲巖寺의 옛터가 있고 성 밖에 수도암, 도성암 등의 암자와 문수사, 승가사, 향림사 등의 사찰이 있었다.[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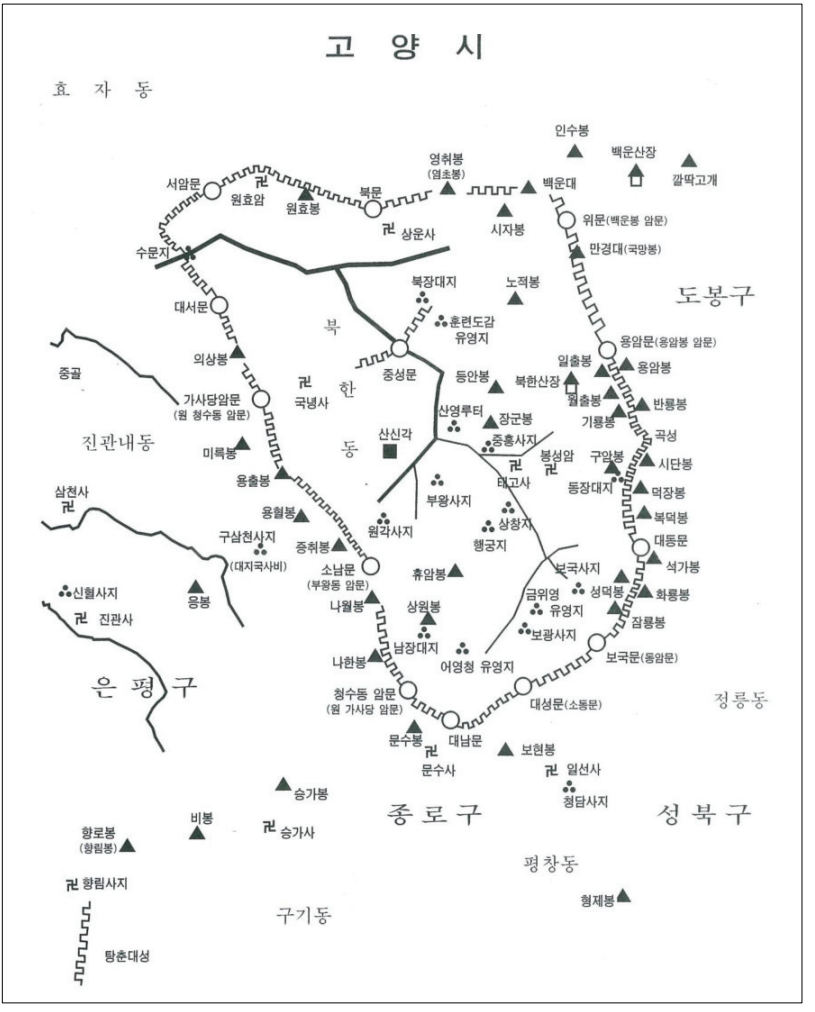
숙종대 북한산성 축성 후 산성 내에 승영사찰은 지휘사찰인 중흥사와 11사 2암이 각기 창건되었다. 즉, 11사 2암은 문수사, 용암사, 보국사, 보광사, 부왕사, 원각사, 국녕사, 상운사, 서암사, 태고사, 진국사, 봉성암, 원효암 등이다. 그 가운데 성능이 창건한 사찰은 龍巖寺, 西岩寺, 鎭國寺, 奉聖庵, 元曉庵이며, 중창한 사찰은 太古寺이다. 그리고 북한산성 밖의 사찰로는 香林寺, 僧伽寺, 文殊寺, 津寬寺, 神穴寺, 三千寺, 淸凉寺, 積石寺 등이 있었다. 성능은 원효암, 중흥사, 태고사 등을 창건 또는 중창하여 불교계의 고승 가운데 신라의 성승 원효, 유가종 자정국존 미수, 여말삼사 태고보우 등을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다. 북한산성 내 승영사찰은 남한산성과 마찬가지로 대개 성 주변인 수구나 암문, 성문 근처에 세워졌다. 西巖寺는 서문과 수구문, 祥雲寺는 북문, 國寧寺와 圓覺寺, 龍巖寺와 夫旺寺는 암문에, 普光寺는 대성문 근처에 위치하여 성의 大門(3개), 小門(3개), 暗門(7개), 中城門(1개)의 인근에서 산성의 선봉에서 방어하도록 하였다.[90]

---

88)『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재된 북한산의 사찰 가운데 태고사 등의 사찰이 누락되었다.

89) 이덕무,「記遊北漢」,『靑莊館全書』卷3, 嬰處文稿 1.

90)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李頤命,「北漢山城禁衛營移建記」,『疎齋集』, 券10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즉 '숙종 37년 10월에 축성을 완료하였는데, 본영(금위영)은 龍巖峯 동남쪽으로부터 普賢峯까지 체성 2,821보와 1,065개의 성첩을 쌓았다. 그 사이에 城門이 둘 있는데 小東門과 大東門으로 그 위에 문루를 두었고, 또 暗門 2개를 두었다. 柴壇峯에는 將臺를



[그림 2 북한산성 사찰(김윤우 편저『북한산 역사지리』소재)

이러한 북한산 승영사찰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알아보면 다음과

만들었다. 城廊은 60채이고 모두 178칸이다. 保國寺 普光寺 龍岩寺 太古寺 네 절이 이 구역에 소속되었다. 영사와 창고 90여 칸은 처음에 소동문 안에 설치하였는데 그 지세가 높아 비바람이 심하고 창고의 모서리가 물길에 닿아 있어 기울어지고 무너지기 쉬운 까닭에 乙未年(숙종 41) 3월에 保國寺 아래로 옮겨 건축하였다.'

같다.[91] 즉, 重興寺는 등안봉 아래 고려말 태고보우가 주석하였던 중흥사 옛터에 136칸의 규모로 산성 승영사찰 가운데 가장 컸으며, 승영사찰의 본부였다. 『소총유고』에 실린 「中興寺重創記」에 의하면 불당, 승당, 선당, 관음전, 종각 등이 있었으며,[92] 문인 이옥이 1793년(정조 17)에 남긴 문집에 의하면 군량과 갑옷, 병기를 보관하였다고 한다.[93]

太古寺는 중흥사 동남쪽으로 약 400m 떨어진 산기슭에 위치한 사찰로 태고보우가 중흥사 주지로 있을 때 창건한 태고암 터[94]에 성능이 131칸 규모로 중창하였다. 성을 수호하면서 『四書三經』 등의 도서를 보관하는 史庫 역할을 하였다.[95]

輔國寺는 산성 내의 사찰 중 177칸 규모로 가장 큰 사찰이며, 금위영창 아래, 東暗門 안쪽에 琢心과 明熙가 창건하여 동암문과 小門인 소동문 일대를 방어하였다. 鎭國寺는 85칸의 규모로 露積峰 아래, 중성문 안에 聖能이 창건하였다. 扶旺寺는 111칸 규모로 僊巖峰 아래 1717년(숙종 43)에 승려 尋雲이 창건하여[96] 산성 내의 승영사찰과는 달리 산성 내의 승영사찰을 수호케 하였다. 國寧寺는 86칸 규모로 의상봉 아래에 승려 淸徽와 徹禪이 창건하여 중성문의 동쪽 편을, 普光寺는 가장 작은 규모인 71칸으로 대성문 아래에 승려 雪輝가 창건하여 대동문 일대를 방어하였다. 圓覺寺는 74칸 규모로 증봉 아래에 승려 信楚가 창건하여 인근 扶旺洞暗門 일대를, 龍巖寺는 87칸의 규모로 용암봉 아래에 창건되어 龍巖暗門의 일대를 방어하였다. 祥雲寺는 133칸 규모로 영취봉 아래에 1722년(경종 2)에 승려 懷秀가 중창하

91) 산성 승영사찰의 상세한 서술 내용은 윤기엽의 앞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92) 洪裕孫, 「中興寺重創記」, 『篠簜遺稿』 上.

93) 李鈺(1760~1813), 「重興遊記」, 『李鈺全集』 1.;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2009, 『완역 이옥전집』 1~5, 휴머니스트.

94) 김상영, 2012, 「한국불교사에서 중흥사의 위상과 역할」, 『전법학연구』 2.

95) 聖能, 『北漢誌』 寺刹太古寺. 태고사에는 板刻이 5,700판, 鑄字11 두였다고 한다.

96) 安震湖, 1927, 『奉恩寺本末寺誌』, 1927.

여[97] 북문 일대를, 西巖寺는 133칸 규모로 수구문 안 閔漬庵 옛터에 산성 축성 후 승려 廣軒이 중창하여 수문 일대의 수호하게 하였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산성 승영사찰의 본영인 重興寺에 僧大將이 주석하며 각 승영사찰의 의승장을 지휘하였으며, 삼군문에 각기 소속되어 통할되었다.[98] 그 외의 사찰은 군기고, 화약고 등 군사시설을 갖추고 화약과 무기를 제조하고, 의승군의 훈련장으로 사용되거나, 암문이나 성문을 지켰다.[99]

승영사찰은 관부의 재정을 지원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관리 감독을 받았다. 병조에서 징수한 번전이 남한산성의 경우에 수어청에서 총섭을 통하였으나, 북한산성은 총융청에서 총섭을 통하여 승영사찰에 전달되었다.

북한산성의 의승군은 남한산성 승영사찰의 경우처럼 의승장 휘하에 의승군으로 편성된 僧作隊로 편성 운영되었다.[100] 1714년(숙종 40) 義僧上番制에 의하여 남한산성과 함께 북한산성 의승의 정원이 정해졌다. 북한산성에는 당초 150여 명의 의승군이 거주하였는데,[101] 1714년(숙종 40) 9월 남한산성의 의승군 400여 명 가운데서 200여 명을 이동시켜 350여 명으로 증원시켰다.[102] 승영사찰의 의승군은 삼남지방에서 교대로 차출되어 승역을 담당하다가 1756년(영조 32) 義僧防

---

97) 元曉峰 남쪽 중턱에 원효가 창건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1722년에 창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祥雲寺極樂殿重創記」(1813); 고양시청,『경기문화재총람 - 도지정편』1.

98)『숙종실록』권50, 37년 10月 23일(무인).

99) 佛舍 12곳을 세워 승려를 모집하여 충당하고 모두 兵籍에 隷屬시켜 창고의 곡식으로 먹이며 활쏘기를 익혔다. 이런 까닭으로 북한산은 북쪽을 막는 金城湯池였다. 이계서,「遊北漢記」, 정민 편, 1996,『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민창문화사.

100) 서치상, 2003,「조선후기 범어사 승인공장의 동래지역 조영활동」,『건축역사연구』12-3, 41쪽, 각주 11 참조.

101)『승정원일기』, 숙종 38년, 11월 26일, '北漢山城都摠攝節目, 別爲磨鍊之意, 旣已擧論於元節目中, 此則事體雖未必煩啓, 而造給印信, 分定義僧等事, 亦係重大'

102)『승정원일기』, 숙종 40년, 9월 25일,

番制로 전환되었으며, 1785년(정조 9) 義僧錢이 반감되었다. 이때 작성된 「義僧番錢半減給代事目에 의하면, 6도 각 읍에 징수하는 防番錢은 의승군과 관에서 각기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였다.

이러한 북한산성의 승영사찰은 남한산성 승영사찰과 더불어 약 270년간 존재하였으나 산성 중심에서 읍성 중심으로 전략이 변화함에 따라 산성 승영사찰도 쇠퇴 일로에 들어섰다. 문인 朴文鎬(1846~1918)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1882년(고종 19년) 북한산 사찰이 도성 유력자에게 침탈당하는 등 승영사찰의 존재가 이미 침체해갔으며,[103] 1894년 갑오개혁시 승군제 및 의승방번제가 혁파되면서 급격히 쇠락해 갔다. 게다가 일제의 군대해산령에 따른 산성의 군기, 화약고 폭파로 인해 승영사찰 대부분이 소실 침체되었다. 즉, 1916년에 작성된 『고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보국사, 원각사, 용암사, 보광사, 국녕사, 서암사 등은 폐사되었다고 한다.[104] 현재 북한산성 내 상운사·태고사·진국사(노적사)·국녕사 등의 사찰만이 존재하고 있으나 승영사찰의 원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105]

4. 나가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승군은 조선후기 임진왜란과 정묘병자호란과 그 이후 산성 축성 등 승역을 담당한 승군을 지칭하는데 국가를 위해 의롭게 일어났다고 하여 이전의 승군과는 차별하여 의승군이라 부른다. 최초의 의승군으로 봉기한 인물은 청허휴정의 고제로

---

103) 朴文鎬(1846~1918), 「遊白雲臺記」, 『壺山集』, '지금은 성 밖의 유력자에게 열세 개의 사찰을 빼앗겨서, 모든 승려들이 서로 더불어 절을 비우고 쏟아져 나와 다투었다.'

104) 今西龍, 1916, 「京畿道高陽郡北漢山遺蹟調査報告書」, 朝鮮總督府編, 『古蹟調査報告』.

105) 중흥사는 1904년 9월에 발생한 화재로 소실되어 폐사하였다. 「皇城新聞」(1750호), 中寺付燼, 1904년 9월 14일; 김상영, 2012, 「한국불교사에서 중흥사의 위상과 역할」, 『전법학연구』 2. 현재 중흥사와 서암사는 복원 중에 있다.

알려진 기허영규였다, 영규가 이끄는 800 의승과 조헌이 이끄는 700 의병이 청주성전투에서 승리하자 선조는 그와 인연이 있던 청허휴정을 불러 승군의 봉기를 주문하자 청허휴정과 그의 문도를 비롯한 전국의 승려들이 의승으로 봉기하였다. 휴정은 1,500여 명의 의승군을 이끌고 순안 법흥사에서 집결하였고, 그의 제자 四溟惟政(1544~1610), 義嚴, 雷默處英, 中觀海眼(1567~?), 奇巖法堅(1522~1634), 霽月敬軒(1542~1632), 靑梅印悟(1548~1623), 信悅, 法正, 그리고 부휴선수와 문도 碧巖覺性 등이 전국 각지에서 의승군으로 활동하였다. 의승군으로 참전할 수 없는 승려는 사찰에서 기도하고 나머지는 의승군으로 편성케 하였으며, 그 외에도 개별적으로 의승군으로 봉기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청허휴정이 이끈 의승군은 평양성 전투에 참가하여 전쟁에서 처음으로 승리하게 하게 하였다. 청허휴정의 제자 處英은 權慄 장군과 행주산성 전투에서, 四溟惟政은 노원평 전투에서 승리하여 한성수복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이순신은 남해를 중심으로 승전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의승수군의 기여가 매우 컸다. 彪虎別都將 慈雲三惠를 비롯해 800여 명의 전라좌수영의 義僧水軍이 여천 興國寺를 중심으로 전투에 참가하였던 것이다. 의승군은 전쟁 중에는 산성 축성과 방수를 하거나 전쟁 물자를 운송하였으며, 이전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史庫와 陵寢· 胎室, 關防을 수호하였다.

왜란을 겪으면서 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한양을 도성의 수비를 강화하고자 남한산성의 축성론이 제기되었다. 이괄의 난 후 후금의 압박이 커지는 분위기 속에 정묘호란이 일어나기 전해인 1626년 봄에 碧巖覺性(1574~1659)은 8道 도총섭의 직첩을 받고 의승군을 징발하여 남한산성을 쌓았으며 12개의 승영사찰을 운영하였다. 즉, 남한산성에는 '北四寺라 불린 장경사, 망월사, 동림사, 옥정사와 南五寺라 불린 개원사, 한흥사, 남단사, 천주사, 국청사가 건립되었는데, 개원사가 중심 사찰이었다.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인조는 虛白明照(1593~1661)를 8道 義僧軍 都大將으로 임명하였으며, 1626년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팔도의승도대장으로서 4천여 의승군을 일으켜 안주성의 軍民들과 關西 일대에서 항전하였다. 벽암각성도 1636년 병자호란시 구례 화엄사에서 머물다가 의승군 3천을 이끌고 降魔軍을 조직하여 청에 항전하러 가다가 인조가 항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중지하였다. 또한 청에 포위된 남한산성의 의승장 希安과 의승군은 항전하였으며, 의승 斗淸은 강원·황해의 我軍에 첩보연락을 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의승군은 1627년 정묘호란과 1636년 병자호란시 전투에 참전한 후 산성 축성과 수비 등 승역을 담당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남·북한산성이다.

북한산성의 축성 논의는 1702년(숙종 28) 신완과 이세백에 의해 본격화되었으며, 1711년(숙종 37) 4월에 수축을 시작하여 그해 10월에 완공되는데 그 주역은 의승군이었다. 숙종은 1711년(숙종 37) 북한산성 축성을 華嚴寺의 고승 桂坡性能에게 위임하고 8道 都摠攝의 직위를 내렸다. 북한산성 축성후 산성내 사찰이 중심이 되어 갔는데, 그 사찰은 바로 지휘사찰인 중흥사와 11사 2암이다. 즉, 중흥사와 문수사, 용암사, 보국사, 보광사, 부왕사, 원각사, 국녕사, 상운사, 서암사, 태고사, 진국사, 봉성암, 원효암 등이다. 그 가운데 성능이 창건한 사찰은 龍巖寺, 西岩寺, 鎭國寺, 奉聖庵, 元曉庵이며, 중창한 사찰은 太古寺이다. 그리고 북한산성 밖의 사찰로는 香林寺, 僧伽寺, 文殊寺, 津寬寺, 神穴寺, 三千寺, 淸凉寺, 積石寺 등이 있었다. 성능은 원효암, 중흥사, 태고사 등을 창건 또는 중창하여 불교계의 고승 가운데 원효, 미수, 태고보우 등을 부각시켰다고 볼 수 있다.

산성 내 승영사찰은 본부인 중흥사 외에 각기 사찰별로 승군이 훈련하는 연습장으로 사용되거나, 화약과 무기를 제조하고, 암문이나 성문을 지켰다. 북한산성에는 150여 명의 승군이 거주하였는데, 1714년(숙종 40) 9월 남한산성에 거주하는 의승 400여 명 중에서 200여 명을 북한산성에 이주시켜 350여 명으로 증원시켰다. 1714년(숙종

40) 義僧上番制에 의하여 남·북한산성의 승영사찰의 의승의 정원이 정하여졌다. 승영사찰은 관의 재정을 지원받거나 통할되었다. 병조에서 징수한 번전은 남한산성의 경우에 수어청에서 총섭처를 통하여 승영사찰에 지급되었으며, 북한산성은 총융청에서 총섭처를 통하여 승영사찰에 급여되었다.

북한산성의 승영사찰은 남한산성 승영사찰과 더불어 약 270년간 존치되었으나, 산성에서 읍성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체제로 전환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며, 1894년 갑오개혁시 승군제도 및 의승방번제가 폐기되면서 더욱 쇠락하여 갔다. 특히 일제의 군대 해산령에 따른 산성내 군기와 화약고 등이 폭파되면서 보국사, 원각사, 용암사, 보광사, 국녕사, 서암사 등은 폐사되었다. 현재 북한산성에는 상운사·태고사·진국사(노적사)·국녕사 등의 사찰만이 존재하고 있으나 승영사찰의 원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참고문헌

〈원전류〉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增補文獻備考』, 『萬機要覽』, 『新增東國輿地勝覽』, 『月沙集』, 『忠武公全書』, 『硏經齋全集』, 『再造藩邦志』. 『鎖尾錄』, 『星湖先生全集』, 『靑莊館全書』, 『疎齋集』, 『篠叢遺稿』, 『大東野乘』, 『重訂 南漢誌』, 『壺山集』, 『中觀大師遺稿』, 『逍遙堂集』, 『靑梅集』, 『大覺登階集』, 『雲谷集』, 『北漢誌』.

「宣武原從功臣錄券」 奎章閣 古 4651-13. 「皇城新聞」.

〈단행본〉

김윤우 편저, 1996, 『북한산 역사지리』, 범우사.
안계현, 1966, 『한국 승군보』, 동국역경원.

安震湖, 1927,『奉恩寺本末寺誌』.
이능화, 1918,『조선불교통사』하.
이형석, 1998,『임진전란사』1~4,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정민 편, 1996,『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민창문화사.
朝鮮總督府編, 1916,『古蹟調査報告』, 大正 5年.
조선총독부, 1919,『조선금석총람』, 일한인쇄소.
智冠 편, 2000,『韓國高僧碑文總集: 朝鮮朝·近現代』, 伽山佛教文化硏究院.
허흥식, 1995,『진정국사와 호산록』, 민족사.
화엄문도회, 2007,『華嚴寺와 導光大禪師』, 화엄사.
황인규, 2011,『조선시대 불교계 고승과 비구니』, 혜안.

〈논문류〉

고영섭, 2013,「조선후기 승군제도의 불교사적 의의」,『한국호국불교의 재조명』2,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김갑주, 1984,「정조대 남북한산성 의승방번전의 반감」,『소헌 남도영 박사 화갑기념 사학논총』.

김덕수, 1993,『임진왜란과 의승군』, 경서원.

김상영, 2012,「한국불교사에서 중흥사의 위상과 역할」,『전법학연구』2.

김용태, 2012,「임진왜란 의승군 활동과 그 불교사적 의미」,『보조사상』37.

박용숙, 1981,「조선후기 승역에 관한 고찰」,『논문집』31, 부산대.

박재광, 2002,「임진왜란기 일본군의 한성점령과 노원평전투」,『인문사회과학논문집』31.

안계현, 1972,「조선전기의 승군」,『동방학지』13.

양은용, 2012,「조선시대의 국난과 의승군의 활동」,『한국호국불교의 재조명.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여은경, 1987,「조선후기 산성의 승군총섭」,『대구사학』32, 대구사학회.

오경후, 2013,「조선후기 의승번전의 징수와 승군」,『한국호국불교의 재조명』2,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우정상, 1959,「이조불교의 호국사상에 대하여 - 특히 의승군을 중심으로」『백성욱 박사 송수기념 불교학논문집』, 동국대 기념사업위원회.

_____, 1963,「남북한산성 의승방번전에 대하여」,『불교학보』1.

윤기엽, 2014,「북한산성의 승영사찰 - 사찰의 역할과 운영을 중심으로」,『국학연구』25, 연세대 국학연구원.

윤용출, 1984,「조선후기의 부역승군」,『인문논총』26.

이장희, 2013,「조선시대 전란사에서 의승군의 위상과 역할」,『한국호국불교의 재조명』2,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이정미, 2006,「조선후기 산성 승영사찰 건축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8-3(통권 제27호).

이종수, 2012,「조선후기의 승군제도와 그 활동」,『보조사상』37.

이향철, 2002,「히데요시의 조선침략·점령정책과 한성탈환전투」,『인문사회과학논문집』31.

이홍직, 1969,「라말의 전란과 緇軍」,『사총』12·13합.

황인규, 2009,「서산대사의 승군활동과 조선후기 추념사업」,『불교사상과 문화』1,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

_____,「수선사 16국사의 위상과 추념: 송광사의 승보종찰 설정과 관련하여 試攷함」,『보조사상』34.

_____, 2011,「북한산(삼각산)의 사찰과 불교의 전개 - 고·중세 사찰의 존재양상과 그 의의를 중심으로」,『전법학연구』2, 불광학술연구원.

_____, 2013,「임진왜란 의승군의 봉기와 전란의 충격」,『한국불교사연구』2.

태고 보우와 북한산 중흥사의 불교사적 위상

김상영*

1. 머리말 • 103

2. 보우의 임제법통 계승과 그 의미 • 105

3. 보우와 북한산 중흥사 • 113
   1) 보우와 중흥사 • 113
   2) 보우 이후의 중흥사 역사 • 117

4. 맺음말 – 보우와 중흥사의 불교사적 위상 • 123

참고문헌 • 126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1. 머리말

태고 보우(太古普愚, 1301~1382)는 한국불교 전체를 통해서도 손꼽히는 고승으로 평가된다. 그는 고려후기 이후 한국 선불교의 중심 수행법으로 자리한 간화선(看話禪) 수행자로 유명하며, 이 시기 불교계와 사회 전반을 개혁하기 위한 개혁운동가로서의 위상도 함께 지니고 있다. 비록 원융부(圓融府) 설치를 통한 불교계 개혁 노력이라든가 한양 천도를 통한 고려사회의 변혁 노력 등은 모두 실패로 귀결되고 말았지만, 보우의 이 같은 노력은 시도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 같은 중요성으로 인하여 태고 보우의 사상과 불교사적 위상을 규명하기 위한 학계의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축적된 보우 관련 연구는 그 성격상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조계종의 종조 법통과 관련한 연구[1], 둘째, 보우의 선사상을 밝히기 위한 연구,[2] 셋째, 보우의 활동과 불교사적 위상을 밝히기 위한 연구[3] 등이 그것이다.

---

1) 조계종 종조 및 법통 연구와 관련한 기존 연구성과는 필자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전근대 조계종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2014, 『한국선학』 39, 한국선학회).

2) 이 주제와 관련하여 2000년대 이후 발표된 주요 연구성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방룡, 2000, 「보조지눌과 태고 보우의 선사상 비교연구」, 『한국종교사연구』 8, 한국종교사학회
_____, 2005, 「여말 三師의 간화선 사상과 그 성격」, 『보조사상』 23, 보조사상연구원
_____, 2006, 「보조지눌과 태고 보우의 선교관」, 『철학연구』 99, 대한철학회
김영욱, 2006, 「한국 간화선의 개화 – 태고와 나옹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34, 한국사상문화학회
박문기(종호), 2002, 「태고 보우의 사상과 현대적 의미」, 『한국불교학』 31, 한국불교학회
인경, 2000, 『蒙山德異와 고려후기 선사상 연구』, 불일출판사
조명제, 2004, 『고려후기 간화선 연구』, 혜안
_____, 2005, 「고려말 元代 간화선 수용과 그 사상적 영향」, 『보조사상』 23, 보조사상연구원

3) 이 주제와 관련한 역사학 분야에서의 주요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강호선, 2001, 「충렬·충선왕대 임제종 수용과 고려불교의 변화」, 『한국사론』 45, 서울대 국사학과
_____, 2012, 「고려말 선승의 入元遊歷과 元 청규의 수용」, 『한국사상사학』 40, 한국사상사학회

북한산 중흥사(重興寺)는 1341년 태고 보우의 주석을 계기로 역사 속에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보우는 중흥사 동봉(東峯)에 자그마한 암자를 짓고 편액을 태고암이라 하였으며, 그곳에서 유명한 「태고암가(太古庵歌)」를 지었다. 보우의 입적 이후 왕은 원증(圓證)이라는 시호를 내리면서 이곳에 탑비(寶月昇空塔과 圓證國師塔碑)를 세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중흥사와 그 동쪽 봉우리에 자리한 태고암은 마치 '태고불교'의 상징과도 같은 도량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능화는 『조선불교통사』에서 중흥사를 조선의 불자들이 제일 기념지로 삼아야 할 장소(朝鮮佛子 第一紀念之地)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보우 관련 연구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우의 일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중흥사와 보우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논문[4]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에 착안하여 이 논문은 태고 보우와 북한산 중흥사의 불교사적 위상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먼저 보우가 임제법통을 계승하는 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어서 보우와 중흥사의 관계 그리고 보우 주석 이후의 중흥사 역사 전개 과정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글을 통해 보우의 「태고암가」를 탄생시킨 곳이자, 또한 일제강점기 조선의 불자들이 제일 기

오경후, 2015, 「여말선초 임제선의 법통형성과 조선후기 논쟁」, 『신라문화』 45,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유영숙, 1990, 「원증국사 보우와 공민왕의 개혁정치」, 『한국사론』 20, 국사편찬위원회
_____, 2001, 『(어둠을 두드리는) 주장자 소리 – 태고 보우의 생애와 사상』, 민족사
이상선, 1990, 「공민왕과 보우 – 공민왕초 왕권안정의 一助를 중심으로」, 『이재룡 박사 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최병헌, 1986, 「태고보우의 불교사적 위치」, 『한국문화』 7,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최연식, 1995, 「공민왕의 정치적 지향과 정치운영」, 『역사와 현실』 15, 한국역사연구회
_____, 2012, 「고려말 간화선 전통의 확립과정에 대한 검토」, 『보조사상』 37, 보조사상연구원
황인규, 2003, 「조계종의 중흥조 태고 보우와 14세기 불교계」, 『고려후기·조선초 불교사 연구』, 혜안
_____, 2003, 「태고 보우의 수제자 환암 혼수」, 『고려후기·조선초 불교사 연구』, 혜안

4) 필자는 최근 중흥사 역사와 관계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한국불교사에서 중흥사의 위상과 역할」, 『전법학연구』 2, 불광연구원, 2012. 7). 여기에서 언급된 중흥사 관련 내용은 대부분 이 논문을 재정리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념지로 삼았던 북한산 중흥사의 역사적 위상이 다소나마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 보우의 임제법통 계승과 그 의미

고려 중기 선종계는 임제선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되어왔다.[5] 혜조 담진(慧照曇眞)은 1076년 송(宋) 유학을 통해 중국 임제선의 새로운 선법을 익혀 국내에 전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고려 중기 선종계는 부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담진의 법은 대감 탄연(大鑑坦然, 1070~1159)으로 이어졌는데, 탄연은 서신을 통해 중국 임제종 선사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였다. 탄연은 그가 지은 「사위의송(四威儀頌)」과 「상당법어(上堂法語)」를 아육왕산 광리사(廣利寺)의 육왕 개심(育王介諶)에게 보내 인가를 청하였는데, 개심은 극구 칭송하는 내용과 함께 4백여 언에 달하는 인가서를 보내면서 탄연의 법을 인가하였다. 비록 서신을 통한 인가이지만, 탄연은 중국 임제종의 법맥을 공식 계승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탄연의 비에는 '임제 9대손'이라는 표현이 실리기도 하였다(以宗派考之 師乃臨濟九代孫也).[6]

---

5) 고려 중기 임제선의 도입과 선종계 변화양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허흥식, 1982, 「고려중기 선종의 부흥과 간화선의 전개」, 『규장각』 6(『고려불교사연구』, 1986)
최병헌, 1983, 「고려중기 이자현의 선과 거사불교의 성격」, 『김철준 박사 화갑기념사학논총』
김상영, 1988, 「고려 예종대 선종의 부흥과 불교계의 변화」, 『청계사학』 5, 청계사학회
_____, 1991, 「고려중기의 선승 혜조국사와 수선사」, 『불교와 역사 – 이기영 박사 고희기념논총』, 한국불교연구원
정수아, 1994, 「혜조국사 담진과 '淨因髓'-북송 선풍의 수용과 고려중기 선종의 부흥을 중심으로」, 『이기백 선생 고희기념 한국사학논총』 상권
한기문, 2005, 「예천 '중수용문사기' 비문으로 본 고려중기 선종계의 동향 – 음기의 소개를 중심으로」, 『문화사학』 24, 한국문화사학회

6) 필자는 2014년 9월 27일 杭州 靈隱寺에서 개최된 '제3회 영은불교문화논단' 세미나에 참석하여 「12세기 고려 선종계의 동향과 남송불교의 영향」이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이 글의 작성 과정에서 필자는 『속전등록』, 『오등회원』, 『속지월록』 등에 전하는 탄연 관련 기록을 검토하였는데, 중국의 불교 전등 자료에서 직접 중국 유학을 하였던 담진보다 오히려 서신으로 인가를 받았던 탄연 관련 내용이 중시된 이유를 나름대로 주목해 보았다. 그 결과 『속전등록』에 전하는 '少嗣王位欽嚮宗乘'이라는 내용, 즉 탄연을 고려 왕자로 인식하고 있는 듯한 중국 자료들

12세기에 이어 14세기 고려 선종계에서는 또다시 중국 임제법통의 전승과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선승 태고 보우와 백운 경한(白雲景閑, 1298~1374)이 석옥 청공(石屋淸珙, 1272~1352)[7]의 법통을 계승해온 것이다.[8] 청공은 1346년 보우를 만났으며, 보우에게 전법의 상징으로 가사를 전해주었다. 또한 보우가 지은 「태고암가」에 "이별할 때에 다다라 전에 지었던 태고가를 내보였다. 나는 그것을 맑은 창 앞에서 펴보고 늙은 눈이 한층 밝아졌다. 그 노래를 외워보면 순박하고 무거우며 그 글귀를 음미해 보면 한가하고 맑았으니, 참으로 공겁(空劫) 이전의 소식을 얻은 것으로써

의 오류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탄연 관련 기록이 더욱 중시된 것이 아닐까 하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7) 청공은 중국 임제종 虎丘派, 祖先系에 속하는 선승이다. 조선계 선사들은 왕실 관료집단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은둔 수행을 주로 하였으며, 대혜 종고(大慧宗杲, 1089~1163)의 간화선을 추종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湖州 霞霧山 天湖庵에서 40여 년간 수행을 한 청공은 이러한 조선계 선풍을 충실히 따랐던 고승으로 평가된다. 석옥 청공에 대한 국내 학계의 주요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태흡, 1929, 「석옥청공선사에 관한 연구」, 『불교』 57, 불교사
남동신, 1989, 「석옥청공」, 『선사신론』, 우리출판사
공종원, 1998, 「석옥청공선사의 선풍과 한국선」, 『태고보우국사』, 불교영상
차차석, 2001, 「석옥청공과 태고 보우의 선사상 비교」, 『한국선학』 3, 한국선학회
김방룡, 2005, 「석옥청공의 선사상」, 『선과 문화』 2, 한국선문화학회
한편, 청공의 어록은 1930년 『福源石屋珙禪師語錄』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으며(『불교』 67~72), 이후 『卍속장경』을 저본으로 한 번역서가 출간되었다(이영무 역, 2000, 『석옥청공선사어록』, 불교춘추사).

8) 경한은 보우보다 5년 뒤인 1351년 청공을 만났으며 그 이듬해 헤어졌다. 경한이 울면서 청공과 헤어진 것은 1352년 정월 보름이고, 청공은 그해 7월 23일 입적하였다. 그런데 1354년 청공의 제자인 法眼禪人이 청공의 「辭世頌」을 가져와 경한에게 직접 전하였다. 학계에서 이러한 사실을 놓고 청공의 嫡嗣가 보우인가 경한인가 하는 논의를 진행한 적이 있다. 물론 경한에게 직접 전달된 「사세송」은 글의 내용이나 성격으로 보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청공의 적통 여부를 거론한다는 것은 자칫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같은 청공의 법을 인가받은 계승자라 하더라도 보우와 경한의 선풍은 충분히 다를 수 있으며, 그러한 현상은 선종사에서 이례적인 일에 속하지도 않는다. 경한 역시 청공과 유사한 선풍을 지닌 듯하지만, 모든 점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동안 청공과 보우, 경한과 관계된 이른바 적통 논란은 실로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이 글의 성격상 경한의 선풍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두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석옥청공과 백운경한의 선풍」, 2006, 『고인쇄문화』 13, 청주 고인쇄박물관 -. 「백운경한의 수행과 선풍」, 2007, 『승가』 23, 중앙승가대학교).

요즈음의 첨신(尖新)하고 퇴정(堆釘)한 것들에 비할 것이 아니었으니 태고라는 이름이 틀리지 않았다"[9]라는 내용의 발문을 직접 써주면서 보우를 칭송하였다. 청공은 "노승이 70여 년 동안 공부한 것을 모두 그대가 빼앗아간다", "노승은 오늘 300근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그대에게 대신 짊어지우게 되었다. 나는 이제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게 되었다"는 말로 전법의 기쁨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청공의 비에는 고려 승려 보우가 그의 제자라는 사실을 특기하고 있어 주목된다.[10]

이색(李穡)은 1385년 『태고화상어록』의 서문을 쓰면서 "이 책을 읽는 이가 태고가 석옥에게서 법을 이어서 임제의 18대 법손이 되었음을 알 것이다. 중국에서 법을 폄에 그의 명성이 천하에 퍼졌었고, 선조의 스승이 되어서 은혜는 온 국민에게 입혔었다"[11]고 하였다. 보우가 청공의 법을 받아 '임제 18대 법손'이 되었으며, 그의 명성이 중국에서도 자자하였음을 강조하는 내용이라 하겠다. 이숭인(李崇仁)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문을 남겼다.

> 배움에는 사우(師友)의 연원이 바른 것이라야 전하게 된다. 비록 석씨라도 그러하다. 구담씨가 몰한 후에 가섭씨가 그 종을 얻어 서로 전하여 달마씨에 이르러 중국에 들어왔다. 그 뒤에 대적씨가 한두 번 전하여 나누어져 5파(派)로 되었다. 대원은 앙종이 되고, 혜조는 임제종이 되고, 광진은 운문종이 되고, 지장은 법안종이 되고, 무제는 동하종이 되었다. 그중에서 혜조의 학(學)이 홀로 전하였다. 지금 세상에서 선학(禪學)을 말하는 이는 첫 번째 사람도 우리 임제라 하고, 두 번째 사람도 우리 임제라 하니 왕성하다고 이를 만하다. 오승(吳僧) 도원의

---

9) 將別前出示向者所作太古歌 余乃淸窓展翫 老眼增明 誦其歌也淨厚 味其句也閑湛 眞得空劫已前消息 非今時尖新堆釘者 而可方比 則太古之名 不謬也
『태고화상어록』 卷上, 『한국불교전서』 제6책, p.683上-中

10) 청공의 비에는 중국의 전법제자조차 별도로 언급된 내용이 없는데, 보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우가 고려에서 국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은 청공의 문도들에게 있어 대단한 자랑거리가 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공비에 보우를 특기해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11) 讀是編者 知太古嗣法石屋 爲臨濟十八代孫 開堂燕京 名動天子 爲師先朝 澤被國人
이색, 「태고화상어록서」, 『한국불교전서』 제6책, p.669上

『전등록』에는 1천7백인이 있고, 그중에는 우리 동인(東人)도 있어서 사우를 분명하게 살필 수 있다. 근세의 태고는 훌륭한 분이었다. 석장을 짚고 강호에 두루 유람하며 오흥(吳興)의 하무산에 이르러서 석옥 청공 선사를 참견(參見)하니 목격하는 순간에 계합하였다. 돌아올 적에 석옥은 가사를 주었으니 이는 마음을 전한 것이다. 석옥은 곧 임제 18세의 적손이다. 태고의 전해 받음은 대종(大宗)이 된다 하겠다.[12]

종범 스님은 이상과 같은 이숭인의 서문을 소개하면서 "이 글 속에서는 고려의 주체성과 전통성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이 서문이 "① 불교 종파의 정통성을 5종에 두고 있다. ② 태고가 석옥의 법을 받았기 때문에 큰 것을 얻은 것이란 견해는 태고를 통해서 태고를 보지 않고 석옥 중심으로 태고를 보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③ 이 같은 견해는 필연적으로 신라불교를 계승한 고려불교의 전통을 소홀히 하고 중국의 선종만을 중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13]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보우가 청공의 법을 계승하여 '임제 18대 법손'이 되었음을 표방하고자 했던 당시 유자들의 인식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는 견해로 생각된다. 결국 이러한 인식은 조선중기의 이른바 '법통복원기'[14]에 이르러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17세기 조선불교는 극적으로 회생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임

---

12) 學有師友淵源之正 乃爲可傳也 雖釋氏亦然 瞿曇氏歿 迦葉氏得其宗 相傳至達磨氏 入中國厥後大寂氏一再傳 分而爲五派 大圓爲潙仰 惠照爲臨濟 匡眞爲雲門 智藏爲法眼 無際爲洞下 而惠照之學獨傳 今天下之言禪學者 一則曰吾臨濟也 二則曰吾臨濟也 可謂盛矣 吳僧道原所錄 凡一千有七百家 間有吾東人 其師友班班可考 近世太古 盖人豪也 橫拈一錫 遊徧江湖 至吳興之霞霧山 叅見 石屋珙禪師 目擊妙契 及其告歸 授以伽黎 所以傳心也 石屋卽臨濟十八世之嫡孫 而太古之傳 得爲大宗焉
이숭인, 「태고어록서」, 『한국불교전서』 제6책, p.669中

13) 종범(서정문), 1994, 「태고 보우의 선풍에 관한 연구」, 『논문집』 3, 중앙승가대학.

14) 필자는 조계종 역사의 시대구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전 근대 조계종 역사의 전개양상과 그 특성」, 『한국선학』 36, 한국선학회, 2013).
제1기 – 선종 성립기: 선교융합시대: 9~10세기
제2기 – 조계종 성립 및 발전기: 9산선문시대: 11세기~1424년(세종 6년)
제3기 – 종명 상실 및 법통 복원기: 선교양종시대: 1424~1941
제4기 – 종단 재건 및 부흥기: 한국불교 대표종단시대: 1941~현재

진왜란, 병자호란 양대 전란을 겪은 이후 의승군의 역할이 커지자, 조선 왕실은 국방 수호를 위해 승려들의 존속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대 전란의 과정에서 승군은 혁혁한 공을 세웠다. 특히 임란 시기의 승군 활동은 전란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때의 승군들이 대부분 자발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참전을 결행했다는 점은[15]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던져준다. 양대 전란을 겪은 이후 조선 왕실은 무엇보다 도성 방어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 결과 1624년부터 3년간 남한산성을 수축하는 역사를 진행하였으며, 1711년에는 북한산성을 수축하는 공사도 진행하였다. 이러한 남 북한산성 수축사업과 방호의 임무가 당시 승단에 부여되었음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17~18세기 조선 불교는 이전 시기와 확연히 달라진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 시기 승단은 그동안 피폐해진 전국의 가람을 중수, 신축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출가 승려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이력과목을 정비해 나갔으며, 그 결과 17세기 말에는 100여 명이 모여 불학을 연찬하는 교육도량이[16] 생겨나기도 하였다. 17~18세기 조선불교는 단절된 조선 선가의 법통을 복원하는 '법통복원시대'로도 주목된다. 조선불교의 중흥조인 청허 휴정(1520~1604)은 「벽송당행적」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 글을 보면 휴정 이전의 전법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그는 벽송 지엄(碧松智嚴, 1464~1534)의 행적을 찬술하면서 "스님(지엄)이 평생에 발휘한 바는 고봉(高峰)과 대혜(大慧)의 종풍이었다. (중략) 스님께서

15) 한 예로 "지금 황해도·평안도·강원도의 승군이 각각 수십 명씩 도착하면서 스스로 수개월의 양식을 가지고 와 조총과 刀槍 등의 기예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들을 만일 점차 교련하여 모두 관군으로 삼는다면 정액 이외에 별도로 一軍을 만들 수 있으니 이익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선조실록』 권49, 선조 27년, 3월 28일)는 기사를 들 수 있다.

16) 정시한이 지은 『산중일기』에 "이 절(雲浮寺)의 학도는 100여 명인데, 지금은 탁발하러 마을로 나갔다고 한다. (중략) 식후에 觀言 종장이 법당에서 불경을 강의하였다. 여러 학도들이 모여 징을 울리니 관언이 자리에 나와 책상 앞에 앉아서 먼저 緇門과 書狀을 강의하고 다음으로 화엄경과 원각경을 강의하였다. 강을 마치고 다들 일어나 절을 올렸는데 그 움직이는 모습이 볼만하였다"는 내용이 있다(『산중일기』 하권, 1688년 5월 29, 5월 30일조).

는 해외의 사람(고봉과 대혜)이면서도 오백 년 전에 있었던 종파를 은밀히 이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휴정은 벽송 지엄 이전의 전법 관계에 대해 애써 표현하지 않았다. 오히려 몰랐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15~16세기의 암울했던 불교 상황을 감안할 때, 조계종 선문(禪門) 중심의 전통은 이미 단절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휴정의 문도들은 '단절'되어 있던 조선 선가의 법통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태고 보우-청허 휴정에 이르는 전법 관계를 일부 작위적으로 만들어 냈다는 점, 그리고 한국 선불교의 전통을 '임제-태고법통' 일변도로 확정시켜 놓고 말았다는 점이다. 600여 년 가까이 '선문 중심'으로 존속되어 오던 조계종의 법통은 이 시기에 이르러 단일화된 '태고법통'으로 새롭게 정비되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른바 '태고법통설'은 이처럼 권력에 의해, 이전 시대 불교 전통과의 '강제적 단절'을 경험해야 했던 조선중기 불교의 가슴 아픈 산물이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근대 이후 한국불교는 종파의 재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17]이 시기의 종파 재건 노력을 일본불교 침투 영향으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재고의 필요를 느낀다.[18] 즉 권력에

---

17)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종파 건설과 관계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상영, 2006,「일제강점기 불교계의 宗名 변화와 宗祖·法統 認識」,『불교근대화의 전개와 성격』, 조계종출판사
_____, 2008,「'정화운동' 시대의 宗祖 갈등 문제와 그 역사적 의의」,『불교정화운동의 재조명』, 조계종출판사
김광식, 2010,「도의국사의 종조론 시말」,『도의국사연구』, 인북스
김용태, 2010,「조선후기·근대의 宗名과 宗祖 인식의 역사적 고찰 – 曹溪宗과 太古法統의 결연」,『선문화연구』 8, 한국불교선리연구원

18) 조계종 총본산 건설이 진행될 때에도 "(일본의) 각종 불교가 도래한 이후에 이르러서는 우리 조선불교 태고법손들도 타종 불교를 대하여 자기 존재를 표시할 무슨 종명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는 식의 견해가 있었던 것 같다. 朴奉石은 이를 비판하면서, "그 이유를 대외적으로 구할 것이 아니라 대내적으로 구하면 어떠할까 한다. 조선불교의 특이성으로 보아 또는 그 종지 종풍으로 보아 훌륭한 일가를 성립할 수 있으니 종명을 새로 제정할 필요를 느꼈다든지 또는 재래에 사용하는 종명을 다시 추심하였다 하든지 하는 것이 정도가 아닐까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조계종의 근본이념」,『불교』新 58, 1944. 3).

의해 상실되었던 종파불교의 전통을 회복하기 위한 일제강점기 불교인들의 자생적 노력이 더욱 중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종파 재건 노력은 1941년 조선불교조계종 성립으로 귀결되지만, 이에 이르기까지 불교계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 시기 불교계는 조선불교를 장악하기 위한 일제의 간섭과 통제에 맞서는 한편, 조선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종명과 종조·법통 등을 정립하기 위해 매우 의미 있는 노력들을 전개해 나갔다.

일제는 1911년 6월 사찰령을 반포하면서 한국불교에 '조선불교선교양종'[19]이라는 종명을 사용하였다. 이 종명은 1941년까지 일제가 인정하는 유일의 공식 종명으로 통용되었다. 일제강점기 불교계는 1937년경부터 총본산 건설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종명의 개정과 총본산 태고사(太古寺) 건립을 성취할 수 있었다. 이때 불교계의 공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명이 1941년의 조선불교조계종이었던 것이다. 조계종은 한국불교 역사를 대표할만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종파였다. 따라서 이 시기 조계종명을 회복하였다는 사실은 한국불교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불교인들의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조계종으로의 종명을 회복한 이후 불교계는 종조와 법통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빠져든다. 물론 나옹법통이나 보조법통을 강조하는 주장은 조선불교조계종 성립 이전 시기에 이미 제시되기도 하였지만, 조선불교조계종이 공식 출범하면서 종조로 태고 보우를 천명하자 이에 대한 이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 종조론은 태고종조론, 도의종조론, 보조종조론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태고종조론과 도의종조론은 태고 보우의 법통을 중시하는 것

19) 일제가 채택한 조선불교선교양종과 관련한 공식 법령인 사찰령과 30본말사법 등에는 종조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일제가 시행한 본말사법 제3조는 '何何寺 本末 一般의 法脈은 太古普愚禪師의 嫡派 芙蓉靈觀禪師의 二大神足 (1)淸虛休靜 (2)浮休善修 兩禪師의 法孫中 行解兼備者를 推하야 主職으로 爲하야 法燈을 傳持하야 此를 寺門相續의 通規로 함'이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시 불교계 전반에 퍼져있던 한국불교의 법통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지만, 종조에 대한 언급은 생략되어 있다.

으로, 거의 유사한 조계종 사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반면 보조종조론은 종조와 법통 모두를 보조지눌 중심으로 보고자 하는 주장이었다.

청허 휴정 이후 조선불교는 태고 보우-청허 휴정의 법통을 정통으로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일제강점기 승단의 법통 현실은 모두 태고의 법손이며, 가지산파의 후손이라는 설명이 가능했던 것이다.[20] 하지만 한국선불교 전통에 대한 학문 연구가 이어지면서 조선중기 이후 새롭게 정비된 법통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갔다. 특히 조계종의 종명을 확정 지은 이후, 이제는 조계종이라는 종명에 명실상부한 종조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현실에 기반한 김영수(包光 金映遂, 1884~1967)의 주장[21]과 역사적 전개 과정에 무게중심을 두고자 했던 여타 종조, 법통론자들과의 괴리감이 더욱 커져가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1962년 대한불교조계종 성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계종은 '종조-도의(道義), 중흥조-태고 보우'로 이어지는 종사관을 표방하고 있는 현실이다.[22]

---

20) 조선중기 이후의 선가 법통은 西山系와 浮休系로 대표된다. 1764년 부휴계 문손인 碧潭幸仁이 전주 송광사 板所에서 『해동불조원류』 목판을 불살라버린 적이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은 해동불조원류의 내용이 지나치게 서산파에 편중되어있는 데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휴계는 송광사를 주요 근거 도량으로 삼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부휴계와 보조법통(종조)설의 상관성을 유추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부휴계 선승들은 보조의 선사상을 중시하면서도 법통만큼은 태고법통을 그대로 유지해왔음이 확인된다. 결국 조선후기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태고법통은 불교계 전반에 확산되어 있던 유일한 법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 김영수와 退耕 權相老(1879~1965)는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불교사학자였다. 이들은 태고법통설을 함께 견지하면서 1941년 '조선불교조계종'을 탄생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조계종으로 종명 개정을 한 이후 종조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둘 사이의 견해는 갈라지기 시작하였으며, 태고 보우를 조계종 종조로 하여야 한다는 김영수의 주장은 점차 논리적 타당성을 잃어가게 되었다. 결국 도의를 종조로 해야 한다는 권상로 등의 주장이 수용되면서 1962년의 대한불교조계종 성립 시에는 도의를 종조로 하는 종헌이 성립되었다.

22) 현행 조계종 종헌의 전문은 "공유(恭惟)컨대 아(我) 종조 도의국사(道義國師)께서 조계의 정통법인(正統法印)을 사승(嗣承)하사 가지영역(迦智靈域)에서 종당(宗幢)을 게양(揭揚)하심으로부터 구산문이 열개(列開)하고 오교파(五敎派)가 병립하여 선풍교학(禪風敎學)이 근역(槿域)에 미만(彌漫)하였더니 여조(麗朝)의 쇠퇴와 함께 교세가 부진하려 할새 태고국사(太古國師)께서 제종(諸宗)을 포할(包轄)하사 조계의 단일종(單一宗)을 공칭(公稱)하시니 이는 아국(我國) 불교의 특색인지라 세계만방에 자랑할 만한 사실이어니와…(이하 생략)"라는 내

최병헌은 이른바 태고법통설이 지니는 문제점에 대하여 “그러나 휴정의 문도들은 성리학적 체제에 그대로 안주하면서 불교수준에서 진전은커녕 그가 이해한 사상체계의 일부만을 빌어 자기 문중의 이데올로기로 삼거나 맹목적으로 고수하려는 경향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와 같이 불교가 발달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토대를 박탈당하고, 보수적 경향에 빠져들고 있는 상태에서 성립된 불교사인식이라는 것이 빈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한 불교사인식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태고법통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불교가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던 조선후기 불교계에서 내세운 법통설이 정확한 것일 수도,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일 수도 없을 것임은 자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불교계나 학계에서 그 법통설을 화석화시켜 맹목적으로 고수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으며,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근거자료로 주로 조선후기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23]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그의 주장처럼, 태고법통설은 한국 선불교의 전통을 ‘임제-태고법통’ 일변도로 확정시켜 놓고 말았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다소 혼란스럽다는 느낌까지 주고 있는 한국 선불교의 법통 논쟁은 이처럼 조선중기의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롯한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3. 보우와 북한산 중흥사

1) 보우와 중흥사

고려시대 ‘중흥사(重興寺)’라는 이름을 지닌 사찰 가운데 서경(西京),

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23) 최병헌, 1986,「태고 보우의 불교사적 위치」,『한국문화』7,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즉 평양에 있던 중흥사가 가장 유명하다. 서경 중흥사에는 유명한 9층 탑이 세워져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곳에서는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가 빈번하게 개최되었다. 서경 중흥사는 고려 중기 이후 유가종 중심 도량으로서의 사격(寺格)을 유지해갔던 것으로 보인다.[24] 반면, 북한산 중흥사는 보우의 주석 이전까지 고려 사회에서 그다지 중시되지 않았던 것 같다. 보우 이전의 중흥사 역사는 '중흥사 반자(鈑子)'(호암미술관 소장)라는 유물의 명문[25]을 통해 단 한 차례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명문을 통해 중흥사는 적어도 1103년 이전에 창건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 반자를 조성하는 불사를 주도했던 승려는 승윤(承鋹)이며 반자를 만든 장인은 노진(盧珍)이라는 인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산 중흥사는 보우의 주석을 계기로 큰 전기를 마련한다. 한국 선불교를 대표하는 고승이 주석하면서 이곳은 선찰(禪刹)로서 뚜렷한 사격[26]을 갖추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시기 진행된 불사로 인해 사찰 전체를 일신할 수 있었다. 보우의 중흥사 주석과 중창 불사에 대해서는 유창(維昌)이 지은 「행장」 자료[27]를 통해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

24) 여러 자료를 통해 智光國師 海麟(984~1067), 弘眞國師 惠永(1228~1294), 慈淨國尊 彌授(1240~1327) 등의 유가종 고승들이 중흥사에 주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정미수의 비문에 있는 "다섯 번째로 중흥사에 주석하면서 정진하다가 太尉大王이 즉위하던 해인 무술년(1298) 5월에 이르러 왕이 교지를 내려 釋敎都僧統과 重興寺住持 行智圓明大師로 추대하였다. …중흥사에서 무릇 18년을 주석하는 동안 초청을 받지 않고는 한 번도 권세가의 대문을 밟지 않았다. 날마다 용궁해장인 내서에 속하는 경론을 연구하며 번역하여 정통하지 않음이 없었다"는 내용에 의해 미수와 중흥사와의 깊은 관계를 잘 살필 수 있다(「보은 법주사 자정국존 보명탑비문」, 『역주역대고승비문』 고려편 4,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7, pp.334~338). 서경 중흥사는 유가사 법주사 금산사 동화사 등과 함께 고려 유가종의 宗刹과도 같은 사격을 지니고 있던 곳이 아닐까 한다.

25) 이 반자의 명문은 총 34자인데, '三角山重興寺鈑子 入重十五斤 棟梁僧承鋹 乾統三年癸未二月·日造大匠盧珍謹記'라는 내용이 그것이다(황수영 편, 『한국금석유문』(제5판), 일지사, 1994, pp.382~383).

26) '三角山重興禪寺' 주지로 두 번째 취임하면서 남긴 보우의 법어 내용이 전하며, 「태고암가」 뒤에 붙어있는 석옥 청공의 발문 문구에서도 '高麗南京重興萬壽禪寺'와 같은 표현이 보인다.

27) 師聞而悅之 越至正元年辛巳 欲往南也 時蔡侯河沖 金侯文貴 欽師風概 邀致于三角山重興寺 玄學雲臻 而寺幾陀然 師乃率籲厥衆 謀諸二公 豊其材 壯其屋 襟磎帶嶽 鬱爲叢林 土田增闢 百廢具興 謂師爲重新祖者是邪 是已 小東而占松巒 結蘭若 扁曰太古 瀟洒邁越 發爲長歌 冷

보우는 1341년 채하중(蔡河中)[28]과 김문귀(金文貴)의 주선으로 삼각산 중흥사에 머물렀다. 「행장」 내용에서 서술하고 있듯이 보우가 중흥사에 머무르자 그에게 지도를 받으려는 학인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고 한다. 그러자 보우는 당시 거의 쓰러질 정도로 퇴락해있던 중흥사를 중창하기 위한 불사를 진행하였으며, 채하중 김문귀 등의 도움으로 상당한 규모에 달하는 중창 불사를 이룰 수 있었다.[29] 당시 사람들이 보우를 중신조(重新祖)라고 불렀다는 점을 보더라도 중흥사 불사에 쏟은 보우의 열정과 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중흥사 중창불사 과정에서 보우는 태고암(太古庵)을 신축하였다. 중흥사 동쪽 소나무 언덕에 암자를 짓고 태고라는 편액을 걸어놓았던 것인데 보우는 이곳에서 5년에 걸친 수행 기간을 보낸다. 그리고 여기서 지은 「태고암가」는 보우의 선사상이 농축되어있는 대표작으로 평

冷然雅調彌高 知音蓋寡 有時松聲 自和而已 如是者霜將五矣
維昌, 「행장」, 『태고화상어록』 권下, 『한국불교전서』 제6책, p.696下

28) 보우는 이미 채하중의 부친 채홍철(蔡洪哲, 1262~1340)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채홍철이 자신의 집 북쪽에 있는 전단원(旃檀園)에 머무르기를 청하자 보우는 1337년 겨울 안거를 그곳에서 지냈으며, 1338년 1월 7일 전단원에서 대오(大悟)를 이루었던 것이다. 「행장」 자료에는 대오 이후 보우가 읊은 게송의 내용과 이 게송을 본 채홍철과의 문답 내용이 상세하게 실려 있기도 하다. 보우와 채홍철 채하중 부자의 관계는 이 시기 불교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29) 이때 진행되었던 불사와 관련한 유물이 유명한 중흥사향로, 즉 '至正四年銘高麗靑銅鏤銀香爐'(보물 제321호)이다. 이 향로는 '향로'라는 명칭이 최초로 사용된 예라는 점에서, 또한 높이 37㎝, 지름 51㎝의 크기로 금강산 표훈사 향완 다음으로 꼽히는 대형 작품이라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크게 주목받는 작품이다. 특히 향로 주둥이에 달린 전의 뒷면에 새겨져 있는 103字의 명문은 1341년부터 진행되었던 중흥사 중창 불사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명문에 의해 이 향로는 至正四年, 즉 1334년에 제작되었으며 시주자는 보우의 중창 불사를 도왔던 채하중과 그의 부인 梁徹明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勸善比丘로 悟如 眞悟 戒瑚 등의 승려 법명이 보이기도 한다. 앞선 행장 자료와 향로의 명문 내용을 종합한다면, 채하중은 1341년부터 시작된 중흥사 중창불사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단월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문화재의 공식 명칭은 '봉은사청동은입사향완'으로 되어 있다. 이 향로가 오랫동안 봉은사에 소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문화재의 본래 성격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또한 명문의 표기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 문화재의 공식 명칭은 '중흥사향로' 또는 '중흥사청동루은향로'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가되고 있다. 이처럼 중흥사와 태고암은 보우 선사상의 결정체를 탄생시킨 소중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보우는 불교계뿐 아니라 고려사회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고승이기도 하다. 그는 왕사에 오른 이후 공민왕이[30] 그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묻자, 먼저 마음을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설하고, 계속해서 '시대의 폐단(時之蔽)'과 '수의 변화(數之變)'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보우의 주장은 9산선문을 혁파하고 이것을 하나로 합쳐야만 나라의 운명이 개척될 수 있다는 것으로 집약된다.[31] 아울러 그는 "이 도읍에 왕의 기운이 있기는 하지만 처음 전성할 때처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남쪽 한양으로 옮겨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행하오면, 교화는 자연히 육합(六合)에 빛나고 은혜는 만령(萬靈)에 입혀질 것입니다"고 하면서 왕에게 한양으로의 천도를 적극 권유하기도 하였다.[32]

보우가 공민왕에게 천도를 권유한 이후 고려는 홍건적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는 등의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능화(李能和)는 보우의 이 같은 성심(誠心)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대개 보우선사가 북한산의 중흥사에 머문 것은 地德을 가려 변란을 억제하려고 했음인가?"라는 견해를 밝혔다. 보우의 중흥사 중창과 주석은 지덕을 가려 취하는(擇取地德) 일과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듯한 이능화의 견해로 생각된다.[33] 또한 보우의 비를 찬술한 이색(李穡)은 비문 끝에 수

---

30) 오재정이 지은 「유삼각산록」에 "中興寺, 옛날에 공민왕이 머물러 화전을 해 먹었던 곳이므로 유숙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보우와 공민왕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공민왕이 이곳에 들렀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31) 雖然今也 九山禪流 各負其門 以爲彼劣我優 鬩鬪滋甚 近者益之以道門 持矛楯作藩籬 繇是傷和敗正 噫 禪是一門 而人自鬪多門 烏在其本師平等無我之道 列祖格外淸歗之風 先王護法安邦之意也 此時之蔽也 而九爲老陽 一爲初陽 老而衰也 理之常而又立都之時 九山之來旣久 不如反其初 爲新陽之爲愈也 此數之變也
維昌, 「행장」, 『태고화상어록』 권下, 『한국불교전서』 제6책, p.698下.

32) 보우의 한양 천도 주장과 관련한 내용은 황인규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황인규, 2012, 「불교계 고승과 국도 천도 – 고려 및 조선의 국도를 중심으로」, 『대각사상』 18, 대각사상연구원).

33) "보우선사가 시대의 폐단을 알고 數의 변화를 살펴서 구산을 통합하여 一門으로 만들고자 함은

록한 명문에서 "惟三角山 翠倚雲端 樹塔其下 與國恒安"이라는 글귀를 남겼다. 보우와 삼각산 중흥사, 보우의 부도탑과 국가의 안녕이라는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중흥사와 태고암은 보우 선사상의 결정체를 탄생시킨 소중한 공간이라는 점과 함께, 보우가 꿈꾸었던 국가의 새로운 운명과 연관된 '항안지지(恒安之地)'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곳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경 중흥사가 수도 개성의 북방을 진호하는 도량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보우는 북한산 중흥사를 천도 대상지인 남경의 북방을 진호하는 도량으로 중시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2) 보우 이후의 중흥사 역사

『세종실록지리지』[34] 『신증동국여지승람』[35] 등의 자료에 의해 중흥사는 조선중기 무렵까지 그 사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건국 직후 田租의 公收를 면제해 주었다는 기사(1398년)[36]와, 중흥사에서 기우제를 지내도록 하였다는 기사(1411년)[37] 등으로 보아 중흥사는 나름대로 일정한 사격을 유지하고 있었

천 년 만 년의 융화를 꾀하려고 한 것이다. 미리 홍건적이 올 것을 알았으므로 천도의 이익을 말한 것이니, 실로 나라를 위한 誠心에서 나온 것이다. 갈댓잎 강가에 가을바람이 부니 붉은 두루미가 일제히 날아가고, 누가 초당의 봄날 졸고 있는 와룡의 뜻을 알리요? 대개 보우선사가 북한산의 중흥사에 머문 것은 地德을 가려 변란을 억제하려고 했음인가? 묘청은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려 하였고, 신돈은 충주로 옮기려 하였으며, 보우는 한양으로 옮기려 하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참설을 믿은즉 한가지인 것 같으나 현명하고 어리석고 사악하고 정의로움에 그 구별이 있다. 이것은 같은 해의 이야기가 아니다"(「우공밀고홍적응기」, 『역주조선불교통사』 5책, 하편 2, pp.234~235).

34) 『세종실록지리지』 경기도 양주도호부조에 "重興寺. 삼각산 아래에 있다. 禪宗에 붙이고 밭 2백 結을 주었다"는 내용이 있다. 한편, 이 자료의 밭 200결 지급 사실을 誤記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3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 한성부조에 "重興寺. 삼각산에 있다. 고려조의 승려 보우가 일찍이 절 동쪽 봉우리에 집 짓고 살며 태고라고 편액하고, 永嘉體를 모방하여 노래 한 편을 지었다. 보우가 죽자 이색이 비명을 지었다"는 내용이 있다.

36) "중흥사와 억정사의 전지에 대한 조세를 면제하다. 임금이 都堂에 명하여 특별히 重興·億正 두 절에 대한 전조의 公收를 면제하였다"(『태조실록』 권13, 7년 1월 24일).

37) "술을 중지하였으니, 가뭄을 근심한 때문이었다. 또 명하여 공사간에 술을 사용하는 것도 금

던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중흥사는 1491년 화재로 인하여 사찰 대부분이 소실되는 화를 입었다. 이때의 화재와 중창 과정은 홍유손(洪裕孫, 1431~1529)이 1498년에 지은 「중흥사중창기」[38]에 의해 비교적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이 글은 중흥사 역사와 관련한 유일한 기문이라는 점에서 소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홍유손은 이 글에서 중흥사를 '나라의 비보가 되는 오래된 절(游邦之裨補 古刹在焉)'이라고 표현하였다. 앞선 시대 보우의 인식과 그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라 하겠다. 또한 그는 중흥사가 삼장선에 합격한 승려 중에서 적임자를 가려내어 주지로 삼을만큼 중요한(蓋其重也) 절이었으며, 그런 까닭에 가까운 모든 삼보(三輔) 명산 가운데 삼각산이 으뜸이고 다른 모든 절들보다 중흥사가 으뜸이라고도 하였다. 이 중창기의 중반 이후는 1491년에 발생한 화재 사건과 이후 진행된 중창 불사의 과정을 정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중창불사를 진행한 주지 지정(地井)에 대해 "지정 스님으로 말하자면 유능하되 힘이 있고 힘이 있되 믿음이 있는 분이었다. 폐허가 된 절을 부흥시켜 새롭게 태어나게 하였으니 지정 스님은 진정한 참 스님이었다(井師者眞浮圖)"고 표현한 부분이 주목된다. 화재 이후 진행된 중창불사는 1492

하였다. 무당 70여 명을 백악산 山堂에 모으고, 또 승려의 무리를 중흥사에 모이게 하여 비를 빌었다"(『태종실록』 권21, 11년 5월 19일).

38) 山之大也而鎭於赤縣之北者 覆鼎是也 西有洞 窈窕而邃 其上游邦之裨補 古刹在焉 卽是寺也 嘗以中三藏選者浮圖 簡而住持之 蓋其重也 是故 近並三輔名山 三角爲大 而中興尤大於諸刹也 辛亥 缺釋之老者失其火 其僧堂 若觀音室 若鍾閣 盡爲風邊冷灰 獨有佛堂禪堂存焉而已 無復見重興之大矣 時桑門地井 住持于此 惜其不能捄火 憫其一朝而敗滅 痛自奮意 不啻己私 減衣食之需 乞檀越之財 重營於壬子 而斷工於戊午 凡若干間 高梵敞社 倍篧於其舊 丹雘堊綠 照耀於其谷 若有神創而鬼構者 昔之來遊者 今而見之 怪其作之神異 咸顧驚歎曰 井師之能幹事也 推此力而雖用於人 亦無所不就者也 於是 又屬其徒靈通住持冏皓 作佛事於丁巳冬 落之 明年春 又令其屬俗離住持性倫 聚緇徒能修淨業者 結夏而又落之 此豈非其道所謂慈悲能立道場者乎 噫 寺之不幸而遇回祿而幾亡 又幸而遇井師而重建 信乎莊周之言其亡也存也 然則焚者 新之之祥也 而不焚則寺之折瓦側柱 漏樑溜壞 誰能更而新之乎 然而其爲新也 非賴于人 則不能也 雖賴于人 而其力弱 則亦不能終也 寺得其人 而人且有健力 卒之於成而不廢于中道 井師乎 有能有力 有力而能信 使亡寺復存于新成 井師者眞浮圖 而有信力於隨喜之功 亦見皓也倫也兩師之善也 豈不佳其 缺 而記之耶 後之覽者 當於井也 信而取之也 皇明弘治戊午夏季念二 點易潛夫 記
洪裕孫, 「中興寺重創記」(『篠叢遺稿』 上, 文)

년 공사를 시작하여 1498년 끝났다. '그 규모가 배로 커졌다'거나 '예전에 이 절에 와보았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 보고는 그 신기한 모습에 경탄하였다'는 표현으로 볼 때, 지정에 의한 중창불사는 상당히 대규모로 진행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자료에 의해 1491년 무렵 중흥사에는 승당, 관음실, 종각, 불당, 선당 등의 당우가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5~16세기 중흥사는 이 시기 지식인들의 독서와 수학 공간으로도 유명하였다.[39] 설잠 김시습(雪岑 金時習, 1435~1493)은 1453년 과거에 응시하였다가 낙방하자 이곳 중흥사로 들어와 공부를 하였으며, 1455년 중흥사에서 독서를 하다가 세조의 왕위 찬탈 소식을 듣고 출가를 결행하였다.[40] 그는 중흥사에서 많은 양의 시를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41], 전하는 것은 거의 없다. 김시습 이후 근대기에 이르기까지 중흥사에서 독서와 수학을 한 유생들은 상당한 수에 달한다. 이것은 중흥사가 한양에 인근한 곳이라는 점과 절경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연유한 결과로 보이지만, 독서처 수학처로서의 명성은 이 시기 중흥사가 꾸준하게 사세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편으로도 작용하였을 것이다.[42]

---

39) 1540년 沈守慶(1516~1599), 尹潔(1517~1548), 許曄(1517~1580) 등이 중흥사에서 함께 공부하였다는 내용이 『遣閑雜錄』(심수경의 문집), 『草堂集』(허엽의 문집) 등에 전한다. 이들 이외에 沈喜壽(1548~1622)의 『一松集』에도 '重興寺裏讀書時'와 같은 표현이 있다.

40) 年二十一 景泰乙亥 讀書于三角山重興寺 人有自京城而還者 先生卽閉戶不出者三日 一夕 忽痛哭 盡焚其書
「梅月堂先生傳」, 『매월당집』

41) 金正國(1485~1541)이 지은 「思齋摭言」에 "평생의 심회를 세상 사람이 엿볼 수 없었다. 시집에 薇字 蕨字를 쓰기를 좋아하였다. 中興寺에 있을 때에 비가 내린 뒤에 시냇물이 불어서 넘쳐흐르는 때를 만나면 종이를 썰어 100여 조각을 만들고 사람을 시켜 붓과 벼루를 가지고 뒤에 따르게 하여 시내를 따라 내려가다가 반드시 물결이 급한 곳을 골라 앉아서 읊조리었다. 혹은 율시 혹은 五言古風을 지어 종이에 써서 물에 띄워 보내고, 멀리 떠내려간 것을 보면, 또 써서 띄워 보내기를 밤이 늦도록 계속하여 종이가 다하면 돌아왔다. 어떤 때는 지은 것이 거의 100여 수 나 되었는데, 이런 것도 또한 그 뜻을 엿보기 어려웠다"는 내용이 있다.
『연려실기술』 권4, 「단종조고사본말」

42) 중흥사는 임진왜란 과정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기록도 있다. 柳成龍(1542~1607)이 1593년 3월 작성한 서장의 "적병들이 이달 22일에 벽제를 멀리 나와 혜음령까지 이르러 昌陵·敬陵·

북한산성 수축 이후 중흥사는 산성 내 모든 사찰을 지휘, 통할하는 수사(首寺)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이 같은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승려는 성능(聖能)으로, 그는 지리산 화엄사에 있다가 1711년 북한산성 수축 시 팔도도총섭의 직책을 맡아 중흥사에 머무르며 370여 명의 승려들과 함께 약 30년간 산성을 지켰던 인물이다. 성능은 1745년 『북한지』[43]를 찬술하여 북한산성 축조와 관계된 일의 전말을 밝혔다. 그는 북한지 발문을 통해 북한산성의 축성은 '만세를 염두에 둔 심원한 계획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지만, 축성 이후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아무도 산성과 관련한 일을 거론하지 않아 안타깝다는 뜻을 표했다. 그래서 '지난날의 공훈도 모두 헛되이 사라질 것'을 염려하여 북한지를 찬술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북한산성 축성 무렵까지만 해도 30여 칸에 불과하던 중흥사는 축성 이후 136칸 또는 149칸에 달하는 거찰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 산성 축성과 방호에 동원된 승군을 통솔하는 총섭은 중흥사에 머물렀으며, 승군 운영과 관계된 각종 시설도 중흥사 경내에 세워졌다. 중흥사는 자연스럽게 북한산성 수사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으며, 성능은 중흥사에 30여 년 이상 머무르다가 『북한지』를 찬술한 이후 1745년 중흥사를 떠났다. 그의 중흥사 주석은 물론 산성 수축을 계기로 마련된 것이었지만, 중흥사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성능은 중흥사 중창주로서의 위상을 함께 간직하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산성 축성 이후 산성 내 수사로서, 치영(緇營)으로서의 위상으로 존속하던 중흥사는 왕실과 유생들에게도 나름대로 그 중요성이 인

孝陵의 주산을 불태우고 날이 저물어서야 성중으로 돌아갔습니다. 24일에도 나와 삼각산의 中興寺 등을 불태웠습니다"(「군량과 백성의 양식을 논하는 서장」, 『서애선생문집』 제6권, 書狀)라는 내용인데, 하지만 이 자료만으로 중흥사가 당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43) 이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조선고서간행회(1916년)와 범우사에서 영인본을 간행하였다. 또한 원영환이 번역한 『국역 북한지』(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사료총서 5, 서울특별시, 1994) 이후 몇 종의 번역본도 간행된 바 있다. 『북한지』는 총 14개 조를 地誌의 형태로 기록한 것인데, 道里·沿革·山谿·城池·事實·官員·將校, 吏卒附·宮殿·寺刹·樓觀·橋梁·倉廩·定界·古蹟 등이 그것이며, 책의 끝에 성능이 지은 발문 형식의 글이 첨가되어 있다.

식되고 있었던 듯하다. 비록 단편적인 자료이지만, 영조는 왕실에 있던 『능엄경』을 중흥사로 옮겨 보관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다.[44] 유생들 또한 중흥사를 수시로 찾아 각종 기문을 남겼는데, 18~19세기 유생들의 문집에는 중흥사와 관계된 다수의 기문과 시문이 전한다. 특히 이옥(李鈺, 1760~1812)은 1793년 8월 26일부터 4일간 북한산성 사찰들을 둘러본 이후 「중흥유기(重興遊記)」라는 기문을 남겼는데, 그의 기문은 18세기 후반 무렵의 중흥사와 북한산성 불교 실태를 다양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19세기 중흥사의 역사에서는 1828년의 중창불사가 주목된다. 이때 진행된 중창불사의 규모와 성격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몇 가지 자료를 통해 그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 박윤묵(朴允默, 1771~1849)이 남긴 「밤에 중흥사 별관에서 묵다(夜宿中興寺別舘)」라는 시[45]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여기서의 '무자(戊子)년에 중수하였다'는 기록은 1828년을 지칭함이 분명하다. 둘째, 신겸(信謙)이 그린 '중흥사 약사회상도'와 '중흥사 아미타회상도'의 화기 내용[46]인데, 이들 두 개의 불화에는 '도광(道光) 8년' 즉 1828년을 지칭하는 화기가 기록되어 있다. 셋째, 효명세자가 쓴 상량문(睿製 漢北中興寺大雄寶殿上樑文) 내용[47]인데, 여기에도 역시 '도광 8년'이라는 시기가 명기되어 있다. 결국 이들 자료에 의해 중흥사는 1828년 무렵 대웅보전을 중창하고 여기에 삼세불도를 조성하여 봉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48]

---

44) "능엄경을 중흥사에 두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지난번 옛 講書院의 서책을 置簿한 것을 보니, 능엄경이 있었다. 이것은 내 손자를 가르치는 도리가 아니니, 북한 중흥사에 보내어 두게 하라' 하였다"(『영조실록』 권80, 29년 9월 3일 을묘).

45) 福地重興不負名 戊子重修 彩樓金殿出崢嶸 葛藤舊劫天時盡 築城時 法堂出於葛藤叢中 樟櫟新工佛力成 鷲嶺元精如復聚 雪山光氣又今淸 時値積雪 此身未了仙邱債 一宿新寮亦有情 「夜宿中興寺別舘」, 『存齋集』 권18

46) 화기 내용은 박옥생, 「퇴운당 신겸의 불화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를 참조하기 바란다.

47) 일본인 關野貞이 1902년 중흥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상량문을 보았다고 한다. 상량문 말미에 "道光八年戊子十二月日嘉善釋八道都摠攝兼僧大將臣啓膽拜手稽首謹書以刻奉安于萬歲樓"라는 내용이 있다.

48) 知濯(1750~1839)의 「漢北重興寺檀越設齋上別文」이라는 글이 전하고 있다(『삼봉집』, 『한국

1828년 중창불사 이후의 중흥사 모습은 여러 기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들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시기 중흥사의 입구에는 만세루가 있었으며 대웅전과 시왕전은 모두 크고 화려하였다. 대웅전에는 편액이 있었으며('漢北重興寺大雄殿'), 절의 서쪽에 전륜전(轉倫殿), 동쪽에 총섭 아문이 각각 세워져 있었다. 동쪽에는 또한 별관이 있었는데, 총섭승이 거처하는 곳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부지런하게 지켰는데 근래에는 창고의 곡식이 모두 관리가 좀 먹어 남아 있는 것이 겨우 백 분의 일이다. 성가퀴는 세월이 오래되어 무너졌는데 수리하지 않고, 활과 쇠노는 모두 아교가 풀어져 쓸 수가 없다. 승려들도 주색에 빠져 기예를 익히지 않는다"(양의영, 「유북한기」)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 산성 주둔군의 기강은 많이 흐트러져 있었던 것 같으며, 승군의 타락상 또한 극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결국 중흥사는 '절은 비었고 승려도 없는' 형국으로 전락해버린 듯하다. 물론 이 같은 중흥사의 퇴락은 19세기 후반 무렵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승단제도에 큰 영향을 받은 때문이기도 하였다.[49]

산성 주둔 승려들의 기강 해이와 함께 승단제도의 변화로 인해 중흥사는 그 사격이 급격하게 하락되고 말았다.[50] 이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중흥사 화재 사건은 중흥사가 폐사(廢寺)로 전락하는 결정적 계

불교전서』 10책, pp.475上~476下), 글의 내용에 들어 있는 '敢效禱聖薦靈之禮'라는 표현으로 보아, 이 글은 중흥사 단월 가운데 왕실 구성원이었던 사람을 위한 재문으로 지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효명세자가 1828년 대웅보전 상량문을 지었고, 그 직후인 1830년 죽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재문은 그를 위한 천도재에서 읽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9) "임오년(1882년, 고종 19년)…마침내 시내를 따라 내려와 중흥사에 이르니, 절은 비었고 승려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물으니, '북한산에 僧大將이 있어, 팔도의 승병을 총섭하였으니, 여기가 그 治所이다. 그러므로 일을 오직 북한성 내의 승려만이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성 밖의 유력자에게 열세 개의 사찰을 빼앗겨서, 모든 승려들이 서로 더불어 절을 비우고 쏟아져 나와 다투었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이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박문호, 「유백운대기」).

50) 김광식은 규정소 제도가 시행되던 시기까지 중흥사는 일정한 사격과 위상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파악하면서 "1894년의 개혁은 이른바 甲午更張이었는바, 여기에서 신분제도 철폐가 가시화되면서 남북한 총섭제도가 혁파되었다. 그리하여 가혹한 신역에 시달리면서 남북한산성에 근무하였던 승군도 자연 해소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곧 승군의 총본부였던 중흥사의 위상 하락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흥사는 1902년의 중법산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이해하고자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근대불교와 중흥사 – 태고의 근대적 계승의식」, 『새 불교운동의 전개』, 도피안사, 2002, pp.105~106).

기가 되었다.[51] 중흥사 화재는 1904년 9월 12일 발생하였으며, 『황성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전한다.

> **再昨夜에 北漢山城 中興寺에셔 失火하야 沒燒하얏다고 北署에셔 警廳에 報하얏더라**[52]

중흥사 화재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이 신문 기사를 중시한다면 이 화재는 일단 실화(失火)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여하튼 중흥사는 1904년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거의 소실되는 참변을 당했다. 이후 중흥사를 재건, 복구하기 위한 움직임은 1905~907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중흥사 터에는 일부 승려가 주거하면서 사찰로서의 일정한 기능이 수행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홍월초(洪月初)는 당시 정부의 동의, 전국 사찰의 후원 등을 받으면서 중흥사 복구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도중에 예기치 못한 일[53]이 발생함으로써 사업을 중단하고 말았다. 결국 중흥사 복원 사업은 홍월초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하겠다.

4. 맺음말 - 보우와 중흥사의 불교사적 위상

이상에서 태고 보우의 임제법통 계승에 담겨 있는 의미와 고려시대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중흥사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본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우와 중흥사가 지니고 있는 불교사적 위상을 몇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면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

51) 중흥사 화재 사건과 이후의 복원 움직임에 대해서는 김광식의 논문(「근대불교와 중흥사 – 태고의 근대적 계승의식」, 앞의 책)에 잘 정리되어 있다.

52) 「中寺付燼」, 『황성신문』 1904년 9월 14일(1750호).

53) 김광식은 홍월초가 1907년 6월 무렵 중앙 불교계에서 이탈, 또는 제거되었다는 점을 주목한 바 있다(앞의 논문, pp.122~123).

첫째, 태고 보우는 일제강점기 이후 조계종의 종조, 또는 중흥조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는 고승이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불교 종단이었던 조계종은 1424년(세종 6) 권력의 강압에 의해 종명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후 500여 년의 역사가 경과한 시점에서 불교계는 조선불교조계종(1941년)과 대한불교조계종(1962년)을 탄생시켰다. 이것은 조계종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태고 보우는 이 과정에서 종조(조선불교조계종)와 중흥조(대한불교조계종)로 명시되었는데, 이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가 지니고 있는 한국불교사적 위상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고 하겠다.

둘째, 조선중기 이후 이른바 '임제-태고법통'은 한국 선불교의 유일한 법통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조선중기까지의 극렬했던 불교 탄압기를 거치면서 선문(禪門) 중심의 한국 선불교 전통은 단절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이후 양대 전란을 거치면서 조선 불교계는 가까스로 소생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청허 휴정의 문도들은 단절되었던 조선불교의 법통을 복원하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이른바 '임제-태고법통'이었다. 이후 석옥 청공-태고 보우-청허 휴정의 전법계통은 한국 선불교의 유일한 법통으로 자리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일제강점기 승단 구성원들은 모두가 '태고의 후손'이라는 단일 법통 인식을 지니기에 이른다. 이것은 태고 보우가 지니고 있는 한국불교사적 위상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 주는 일이라고 하겠다.

셋째, 중흥사는 '태고불교'의 상징과도 같은 위상을 지니고 있는 도량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우는 1341년부터 중흥사 중창 불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태고암을 신축하고 5년에 걸친 수행 기간을 보냈다. 이곳 태고암에서 지은 「태고암가」는 보우 선사상의 백미로 평가될만큼 탁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우의 입적 후 중흥사와 태고암에는 보월승공탑(寶月昇空塔)과 원증국사탑비(圓證國師塔碑)가

세워지기도 하였다. 결국 중흥사는 후대 불교인들에게 '태고불교'의 상징과도 같은 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겠다.

넷째, 중흥사는 일제강점기 조선불교 제일의 기념지(朝鮮佛子 第一紀念之地)라는 위상을 지니고 있던 도량이다.

근대기 이후 한국불교 승단은 종파의 재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조선불교조계종을 거쳐 오늘의 대한불교조계종이 탄생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보우는 이러한 과정에서 종조, 또는 중흥조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으며, 이른바 '임제-태고법통'은 조선중기 이후 한국 선불교의 유일 법통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이능화는 중흥사를 조선불자들이 제일기념지로 삼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능화는 중흥사에 와서 "흰 구름 흩어지고 그림자 저만치 옮겨가니, 고요함이 태고 때와 같아라. 보우스님 여기 와서 시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줄줄이 늘어선 산들이 자손이 되었네."라는 시를 읊기도 하였다. 중흥사의 한국불교사적 위상을 잘 느끼게 해주는 표현이라 하겠다.

다섯째, 중흥사는 북한산성의 으뜸가는 사찰(首寺)이자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진호도량, 비보도량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는 도량이다.

보우의 불교와 중흥사, 보우의 부도탑과 국가의 안녕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보우의 중흥사 중창과 주석은 그가 주창했던 한양천도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보우의 비문을 지은 이색은 보우의 부도탑 아래에서 '항안지지(恒安之地)'가 펼쳐질 수 있기를 기원하기도 하였다. 중흥사는 보우대에 이르러 진호도량, 비보도량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있었으며, 이 같은 위상은 북한산성 수축 후 산성 모든 사찰을 통할하는 수사(首寺)로서의 위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서경 중흥사가 수도 개성의 북방을 진호하는 도량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태고 보우는 북한산 중흥사를 천도 희망지 한양 땅의 북방을 진호하는 도량으로 중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여섯째, 중흥사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선찰(禪刹)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는 도량이다.

한국불교는 조선전기를 지나면서 이른바 '무종파시대'로 접어들고 말았다. 물론 이것은 조선왕실의 극렬한 탄압 속에 빚어진 결과이지만, 이로 인해 조선 중기 이후의 불교는 신앙과 수행의 측면에서 상당 부분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전 시기까지 선, 화엄, 유식 등 뚜렷한 사격을 유지하고 있던 주요 사찰들 역시 대부분 그 전통을 상실하게 되었다. 비록 단편적인 자료이지만 조선시대 중흥사 자료에서 선방이 꾸준하게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병영기지라는 한계 속에서도 태고 보우로 상징되는 선찰의 모습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당시 승려들의 노력은 나름대로 소중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일곱째, 중흥사는 한양의 지식인들이 가장 즐겨 찾던 독서도량이자 수학(修學)도량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는 도량이다.

15세기 김시습을 필두로 하여 이후 조선의 많은 유생들은 중흥사에서 독서를 하거나 수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로 인해 조선 문인들의 문집 속에서는 중흥사를 시제(詩題)로 삼아 남긴 시문과 기문 등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간 제공 이상의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중흥사를 주제로 한 이들의 글에서는 불교에 대한 악의적 비판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중흥사는 조선의 문인들이 불교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해냈던 것으로 보고 싶다.

참고문헌

강호선, 2001,「충렬·충선왕대 임제종 수용과 고려불교의 변화」,『한국사론』45, 서울대 국사학과.

_____, 2012,「고려말 선승의 入元遊歷과 元 청규의 수용」,『한국사상사학』40, 한국사상사학회.

김광식, 2002,「근대불교와 중흥사 - 태고의 근대적 계승의식」,『새 불교운동의 전개』, 도피안사.

_____, 2010,「도의국사의 종조론 시말」,『도의국사연구』, 인북스.

김방룡, 2000,「보조지눌과 태고 보우의 선사상 비교연구」,『한국종교사연구』 8, 한국종교사학회.

_____, 2005,「여말 三師의 간화선 사상과 그 성격」,『보조사상』 23, 보조사상연구원.

_____, 2006,「보조지눌과 태고 보우의 선교관」,『철학연구』 99, 대한철학회.

김상영, 1988,「고려 예종대 선종의 부흥과 불교계의 변화」,『청계사학』 5, 청계사학회.

_____, 1991,「고려중기의 선승 혜조국사와 수선사」,『불교와 역사 - 이기영 박사 고희기념논총』, 한국불교연구원.

_____, 2006,「일제강점기 불교계의 宗名 변화와 宗祖·法統 認識」,『불교근대화의 전개와 성격』, 조계종출판사.

_____, 2008,「'정화운동' 시대의 宗祖 갈등 문제와 그 역사적 의의」,『불교정화운동의 재조명』, 조계종출판사.

_____, 2012,「한국불교사에서 중흥사의 위상과 역할」,『전법학연구』 2, 불광연구원.

_____, 2013,「전 근대 조계종 역사의 전개양상과 그 특성」,『한국선학』 36, 한국선학회.

_____, 2014,「전근대 조계종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한국선학』 39, 한국선학회.

김영욱, 2006,「한국 간화선의 개화 - 태고와 나옹을 중심으로」,『한국사상과 문화』 34, 한국사상문화학회.

김용태, 2010,「조선후기·근대의 宗名과 宗祖 인식의 역사적 고찰」,『선문화연구』 8, 한국불교선리연구원.

박문기(종호), 2002,「태고 보우의 사상과 현대적 의미」,『한국불교학』 31, 한국불교학회.

오경후, 2015,「여말선초 임제선의 법통형성과 조선후기 논쟁」,『신라문화』 45,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유영숙, 1990,「원증국사 보우와 공민왕의 개혁정치」,『한국사론』 20, 국사편찬위원회.

_____, 2001,『(어둠을 두드리는) 주장자 소리 - 태고 보우의 생애와 사상』, 민족사.

이상선, 1990,「공민왕과 보우 - 공민왕초 왕권안정의 一助를 중심으로」,『이재룡 박사 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인경, 2000,『蒙山德異와 고려후기 선사상 연구』, 불일출판사.

정수아, 1994,「혜조국사 담진과 '淨因髓' - 북송 선풍의 수용과 고려중기 선종의 부흥을 중심으로」,『이기백 선생 고희기념 한국사학논총』 상권.

조명제, 2004,『고려후기 간화선 연구』, 혜안.

_____, 2005,「고려말 元代 간화선 수용과 그 사상적 영향」,『보조사상』 23, 보조사상연구원.

종범(서정문), 1994,「태고 보우의 선풍에 관한 연구」,『논문집』 3, 중앙승가대학.

최병헌, 1986,「태고보우의 불교사적 위치」,『한국문화』 7,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최연식, 1995,「공민왕의 정치적 지향과 정치운영」,『역사와 현실』 15, 한국역사연구회.

_____, 2012,「고려말 간화선 전통의 확립과정에 대한 검토」,『보조사상』 37, 보조사상연구원.

한기문, 2005,「예천 '중수용문사기' 비문으로 본 고려중기 선종계의 동향」,『문화사학』 24, 한국문화사학회.

허흥식, 1982,「고려중기 선종의 부흥과 간화선의 전개」,『규장각』 6(『고려불교사연구』, 1986).

황인규, 2003,「조계종의 중흥조 태고 보우와 14세기 불교계」,『고려후기·조선초 불교사 연구』, 혜안.

_____, 2003,「태고 보우의 수제자 환암 혼수」,『고려후기·조선초 불교사 연구』, 혜안.

_____, 2012,「불교계 고승과 국도 천도 - 고려 및 조선의 국도를 중심으로」,『대각사상』 18, 대각사상연구원.

한국의 산악숭배와 고대의 북한산

신종원*

1. 머리말 • 131

2. 사료상으로 본 산악숭배 • 132

3. 산신의 여러 모습 • 153

4. 고대의 북한산 • 158

5. 산신 연구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 163

6. 맺음말 • 172

참고문헌 • 174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1. 머리말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산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고, 산을 등지지 않은 도시나 마을은 없다. 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산과 더불어 살고, 죽어서도 산에 묻히니, 한국인에게 있어 산은 친숙한 대상이다. 이 무정(無情)·무언(無言)의 물상(物象)이 어느새 우리와 감정을 공유하는 대상이 되고, 나아가 어떤 친연 관계도 있다고 하기에 이르렀다. 가깝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대상이기에 그에게 정성을 다하며, 소망을 빌고는 한다. 이렇게 산은 하나의 신(神)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어, 인간들이 숭배하는 산은 '유정(有情)의 산' 곧 산신의 몸체다.

지금은 대다수 국민이 산과 무관하게 생업을 영위하면서도 전통마을에서는 산제(山祭)를 여전히 지내며, 어떤 이유에서건 산을 찾는 빈도는 잦은 편이다. 아마도 산악숭배의 역사가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어떻든 산과 산신에 대한 심성이 여느 민족에 비하여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1)]

이 글은 사료에 나타난 산악숭배의 여러 모습을 시대별로 훑어보고 갈래지어 산신신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 위에서 범위를 좁혀, 초점을 삼각산에 맞추어 삼각산신(앙)의 사료를 더욱 조명해보고자 한다.

종래 이 방면의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중요성에 비하여 소략한 편이었다. 그리고 해당 시대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였는지, 산신신앙의 추이를 다룬 것은 거의 없다.

필자 또한 모든 시대에 대한 소양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테마에 맞추어 최소한 그 윤곽이나마 잡기를 기대해본다.

---

1) 다음 책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데이비드 메이슨(신동욱 옮김), 2003, 『산신, 한국의 산신과 산악숭배의 전통』, 한림출판사.

2. 사료상으로 본 산악숭배

1) 상고시대

(1) 중국 정사 조선전

○ 그 풍속은 산천을 소중히 여긴다. 산천은 각기 관할 구역이 있어서 함부로 서로 드나들 수 없다. …… 언제나 10월이 되면 하늘에 제사 지낸다.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이를 무천(舞天)이라 한다. 또 호랑이를 신(神)이라 하여 제사 지낸다. (『삼국지』, 예(濊))

3세기경의 중국 사람들에게도 오늘날의 함경도 및 강원도 북부에 걸쳐 있었던 예나라 사람들이 산을 소중히 여긴다고 보였다. 지형상 산이 많고 기후 조건에 따라 배산임수 지역에 주거를 정하는 동이족에게 있어 이 점은 공통되겠지만, 예나라를 특기한 것을 보면 그 정도에 차이가 있었던 모양이다. '관할구역'이란 비단 신앙상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정치·경제적으로도 그 귀속권이 분명하다는 의미로 보이며, 역으로 일정 지역 집단의 상징과 경계가 산천으로 정해졌다고 보아도 좋다. 후대의 진산(鎭山) 개념이 여기에 비견된다. 위 인용문에서 산천을 중히 여긴다는 구절과 제사 관련 구절은 떨어져 있다. 이것이 산천 운운 구절을 반드시 신앙상으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호랑이 관련 구절과 산천 관련 구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호랑이가 신이라 한 것은 바로 산을 소중히 여기는 수렵민 문화와 부합되며, 산은 신(호랑이)의 거처이다.[2] 이 때문에 산천을 중시함과 호랑이 숭배는 실은 아래에서 서로 연결되는 기사로 보아도 좋다.[3] 따라서 호랑이를 제사 지내는 장소도 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논리에 입

2) 청도군의 '虎踞山 雲門寺'도 이러한 관념을 잘 보여준다.

3) 위의 『삼국지』 기사와 관련하여 호랑이와 산신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영대, 1992, 「동예 사회의 虎神崇拜에 대하여」 『역사민속학』 2, 이론과 실천사를 볼 것.

각하여, 예나라 사람들은 호랑이를 산신으로 모셨다고 말할 수 있다. 이윽고 중국인들은 우리의 선조들이 산신을 잘 모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 조복(朝服)은 흰색을 숭상하고, 즐겨 산신에 제사 지낸다. (『구당서』·『신당서』, 신라전)

이 기사는 단군신화와 함께 우리나라 산신신앙의 서장을 장식한다.

산신=곰의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토함산[4]·기장산이[5] 그러하다. 선농(先農)을 제사 지낸다는 웅살곡(熊殺谷)이나[6] 뒤에서 볼 웅곡악(熊谷岳)도 무언가 곰숭배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2) 단군신화

桓雄天王은 태백산 꼭대기로 내려왔고, 그의 주거 공간은 산이었다. 환웅의 아들 단군도 종국에는 산신이 되었다. 그러므로 단군은 천신의 아들이자 山神의 아들로서, 당연히 그 자신도 산신이다. 여기에서 天과 山 사이의 같고 다름이나 親緣性을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환웅의 배우자가 된 곰은 자식을 가지고자 신단수 아래에서 기도하였다고 한다. 신단수는 곧 산신당의 당산나무 즉 神木이다.[7] 고조선의 영역이 어느 정도이건, 단군의 자손이 얼마나 번성했건 간에 단군신화는 산신 설화의 한 형태를 띠고 있다.[8] 여기에 더하여 호랑이가 등장하고 있으니, 단군신화에는 우리나라 산신신앙의 여러 요소를

---

4) 『삼국유사』, 효선, 대성효이세부모 神文代條.

5) 『삼국유사』, 신주, 혜통항룡조.

6) 明活城南熊殺谷祭先農 (『삼국사기』 권32, 제사지).

7) 조지훈, 1963, 「累石壇·神樹·堂집 신앙연구 – 서낭考」『文理論集 文學部篇』 7, 4쪽, 고려대학교.

8) 임재해, 2002, 「한국인의 산 숭배 전통과 산신신앙의 전승」『산과 우리 문화』, 숲과 문화 총서 10, 수문출판사. 신종원, 2004, 「단군신화에 보이는 나무신앙 및 역사인식」『삼국유사 새로 읽기 (1)』, 일지사.

갖춘 典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간의 연구는 곰에 너무 치우쳐 산신·호랑이 코드(code)를 놓쳐버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내린 바 있다.

> ○ 단군신화는 적어도 이 단계 이후 묘향산이든 어느 산이든, 그 산신에 대한 본풀이로서 구술되어오지 않았나 추측된다. 단군은 이곳의 산신으로 좌정하여, 주민들의 제사를 받고 있는 살아있는 신이다. 우리나라 성황당의 주신이 산신이자 인물신이듯이, 단군신화도 처음에는 이들 지역의 당신(堂神) 이야기였다.[9]

마치 조선시대에 단종이 돌아가시자 민간에서는 그가 산신이 되었다하여 강원도 태백산 주위 및 영월 일대에서 당신(堂神)으로 모시고, 관련 설화가 생성되는 과정과 흡사하다.[10] 다만 단군신화는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그 현장이라는 곳이 전국에 여럿 있고, 사료도 몇 가지나 되지만, 단종 설화는 애초의 역사 부분이 잘 기록되어 있어서인지 아직 민속신앙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차이를 지적할 수 있겠다.

단군신화는 호랑이·산신의 관계에 대한 중국정사의 소략한 기술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2) 삼국시대

(1) 고구려

건국신화로 볼 때 고구려는 부여의 한 갈래였다. 따라서 많은 부분이 서로 겹치므로 부여에 대한 사료부터 소개하겠다. 부여왕 부루(夫婁)에게 아들이 없어 산천에 제사 지냈더니 금와(金蛙)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11] 고구려의 경우를 보도록하겠다.

---

9) 신종원, 2002,「단군신화에 보이는 곰[熊]의 實體」『한국사연구』118, 30쪽.

10) 신종원, 2002,「대왕신앙으로 본 단종 숭배의 민속」『영월지방 민속신앙과 서낭당 조사』, 47~54쪽, 영월문화원.

○ 고구려는 언제나 3월 3일에 낙랑 언덕에 모여 멧돼지와 사슴을 잡아 하늘 및 산천에 제사 지낸다. (이날에 왕은 사냥을 나가는데 여러 신하와 5부의 병사가 모두 따라나선다 - 원주). (『삼국사기』 32, 제사지)[12]

매년 거행되고, 왕이 행차하는 것으로 보아 정례화된 국가제사이다. 그 제삿날과 희생의 종류를 보면 중국의 그것과는 동떨어진 풍속이다. 다 알다시피 중국에서 손꼽는 희생은 대뢰(大牢, 소)와 소뢰(小牢, 양)다. 이에 비해 멧돼지와 사슴은 고구려에서 중히 여기는 희생이다. 그중에서도 멧돼지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희생(祭天之牲)'·'교시(郊豕)'라 하여 특히 천제에 쓰이는 짐승인데, 위 자료에서 산천제사 때도 쓰임을 보았다. 천신과 산천신 사이에 엄격한 구별은 없었던 모양이다. 제삿날에 대해서는, 신라의 충담사가 매년 '3월 3일, 9월 9일(重三重九日)'에 남산 삼화령의 미륵세존께 차를 올린다 하였듯이, 신라나 고구려 모두 숭상하는 좋은 날(吉日)이다.[13]

아래 사료는 제10대 산상왕 이야기이다.

○ 3월 왕은 아들이 없자 산천(山川)에 기도하였다. 이달 보름 천(신)[天(神)]이 말하였다. "내가 너의 소후(小后)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니 근심 말라." 왕이 깨어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꿈에 천신이 나에게 말했는데, 곡진함이 이러했소. 그런데 소후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을파소(乙巴素)가 아뢰었다. "천명(天命)은 헤아릴 수 없으니, 임금님께서는 기다려보시옵소서." (『삼국사기』 16, 고구려본기 4, 산상왕 7년. 199AD)

---

11) 이규보의 『동명왕편』,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1을 비롯하여 『삼국유사』 남부여조; 이승휴의 『帝王韻紀』 下에 모두 실린 내용이다.

12) 『삼국사기』 45, 溫達傳에는 괄호 속의 문구가 첨가되어 있다.

13) 지금도 음력 3월 3일, 9월 9일에 동제를 지내는 곳이 적지 않다.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용호리 산천제가 그러하다. 신종원, 1995, 「강원도 북부 남북한 접경지역의 향토문화 조사」 『강원민속학』 11을 볼 것. 이곳에서는 '厲神之位'(向右)·'川神之位'(중앙)·'山神之位'(向左)의 세 신위를 모신다.

위 사료에서도 산천에 기도하였는데 '천(명)'이 대응하였다.

(2) 백제

백제의 산악숭배 자료를 보겠다.

○ 또 군(郡)에는 삼산(三山)이 있는데 일산(日山)·오산(吳山)·부산(浮山)이다. 나라의 전성기 때는 각기 신인(神人)이 그 위에 살면서 서로 날아다녀 아침저녁 끊어질 날이 없다. (『삼국유사』 기이제2, 남부여(南扶餘)·전백제(前百濟))

산에 사는 신인은 곧 산신이며, 전체적 분위기는 도교풍이다.[14] 아래 사료에서는 산신제사의 형식과 내용을 알 수 있다.

○ 봄 정월에 큰단[大壇]을 세워 천지산천을 제사 지냈다. (『삼국사기』 24, 백제본기 2, 고이왕 10년. 243CE)

○ 여름에 크게 가물어 벼의 모가 말라 죽었으므로 왕이 친히 횡악(橫岳)에 제사 지냈더니, 그제서야 비가 왔다. (『삼국사기』 25, 백제본기 3, 아신왕 11. 402CE)

횡악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3) 가야

「가락국기」를 보면, 금관국의 수로왕비 허황후는 바다로부터 포구에 상륙하여, 입고 있던 비단바지를 폐백으로 '산령(山靈)'에게 바쳤다.[15] 생각건대 여성의 내밀(內密)한 선물을 받은 신은 남성일 것이다.[16]

---

14) 유원재, 1994,「사비시대의 三山 숭배」『백제의 종교와 사상』, 충청남도.

15) 『삼국유사』 기이 2, 가락국기.

16) 임동권도 "이런 경우는 山靈이 남성신이기 때문에 치마가 효과를 보았을 것이다."라 하였다.

산신이 불교의 천왕이 된 경우는 지리산의 그것을 들 수 있다.

○ 정견천왕사(正見天王祠). 해인사 안에 있다. 속전(俗傳)에 대가야국(大伽倻國) 왕후 정견이 죽어서 산신이 되었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30, 합천, 사묘)

다행히 근대의 천왕사 모습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 이것은 즉 해인사 천왕문 내에 있는 국사단(局司壇)이란 것이 이것인데, 즉 절에서 제사 지내는 의식을 보면 산신제 의식에 꼭 같이 행한다.[17]

부처와 보살을 밖에서 호위하는 위치에 사당을 세웠고, 천왕에게 지내는 제사의 내용은 산신제였다. 산신과 천신과의 관계를 이렇게도 말한다.

○ 최치원이 지은 이정(利貞) 스님 전기에서 말하였다. 가야산신은 정견모주(正見母主)로서 천신 이비가지(夷毗訶之)에게 감응되어 대가야왕 뇌실주일(惱室朱日)과 금관국왕 뇌실청예(惱室靑裔)를 낳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 29, 고령현, 건치연혁)

대가야국 정견왕후가 죽자 산신이 되어 천왕이라 불리었다. 지리산신이 가야 왕조와 연결되어 '왕후'라 불리었지, 그의 본래 모습은 여신인 '모주(어머니)'였다. 한없이 높고 거대한 지리산신은 쉽게 범접하기 어려운, 성스러운 존재이므로 '성모'라고도 불리었다.

1983,「山神考」『한국민속문화론』 327쪽, 집문당. 한편 문경현은 "그 산신은 여신이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여자의 바지를 예물로 받을 수 있는 같은 여자이기 때문이다."(1991,「신라인의 산악숭배와 산신」『신라사상의 재조명 –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2』 29쪽)라고 언급하였다. 고대의 산신이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의 소산으로 보인다.

17) 김영수, 1984,「지리산 성모사에 대하여」『포광 김영수 전집 한국불교사상논고』, 461, 원광대학교.

> ○ 성모사(聖母祠). 사당건물이 둘이다. 하나는 지리산 천왕봉 위에 있고, (또) 하나는 군(郡) 남쪽 엄천리에 있다. 고려 이승휴의 『제왕운기』에, 태조의 어머니는 위숙왕후라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31, 함양군, 사묘조)

『제왕운기』란 그 하권을 말하는데 '성지성모(지리산천왕 - 원주)'라 쓰여 있다. '성지(聖智)'에 대해서는 다소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어떻든 지리산 여신의 이름은 '정견' 또는 '성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여신을 역사상의 인물로 비정하는 데 있어 지역이나 집단 또는 시기에 따라 편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중에는 '팔도무당의 조상'·마야부인·선도성모 등의 설이 생겨났다. 이것은 지리산신을 모시는 장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확인한 바로도 해인사 경내나 천왕봉정상·엄천리 등이 있듯이, 산신을 믿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 중심으로 모시고 있다.[18] 그렇지만 역대 제사법전[祀典]에 보이는 지리산 신사(神祠) 즉 남악사(南岳寺) 터는 전남 구례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지표조사를 하여 신라말부터 조선후기에 이르는 유물이 수습되었다.[19] 천왕봉 꼭대기에 있던 성모상은 법계사 들머리에 옮겨 세웠고, 새로 만든 할머니천왕상은 천왕사에 모셨다고 한다.[20]

(4) 신라

신라의 산악숭배를 보도록 하겠다.

---

18) 지리산 성모가 누구인가에 대한 전설을 소개한 뒤 김영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리산 성모를 싸고 일어난 四種 전설은 다 後人들이 그때그때에 그럴듯한 사실을 가져다가 견강부회하여 만들어낸 臆說에 불과한 전설들이다." 「智異山 성모사에 대하여」, 460쪽. 이 밖에도 지리산신과 태조 이성계의 대결을 다룬 설화 및 그 분석에 대하여는 최래옥, 1978, 「한국산신의 성격변화 - 智異山 산신과 이성계 설화를 중심으로」 『향토문화연구』 1, 원광대학교.

19) 목포대학교, 1992, 『南岳祠址地表調査報告書』, 구례군.

20) 데이비드 메이슨, 앞 책, 40쪽. 이 '마고석상'의 원래 사진은 최화수·김근원, 1993, 『지리산』, 대원사, 14쪽에 실렸다.

○ 8월 낭산(狼山)에 구름이 일었는데 쳐다보면 마치 누각과 같았다. 향기가 그윽하여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왕께서 말하였다. "이것은 반드시 선령(仙靈)이 내려와 노니는 것이며, 이곳은 복된 땅임에 틀림없다." 이후부터 (이곳의) 나무는 베지 못하게 하였다. (『삼국사기』 3, 신라본기 3, 실성이사금 12. 413CE)

'복된 땅'이 된 시점이 굳이 실성이사금 때라 볼 필요는 없지만, 이때 왕이 이곳에 행차하였던 듯하다. 선령은 곧 산신이 될 것이며, 그의 영역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이 잘 나타나 있다. 낭산은 일명 신유림(神遊林)이라고도 하여 신라인들이 도리천으로 여기는 곳이며, 선덕여왕이 묻힌 곳이고, 그 기슭은 사천왕사가 자리 잡고 있는 등 불교 수용 이후 더욱 신성시된 곳이다.[21] 이러한 예는 한때 궁예가 머물렀던 강원도 원주시 '신림(神林)'의 석남사 터에서도 찾아진다.[22]

산신은 때로 의인화되어 나타난다. 신라 진지왕(576~580) 때 진자(眞慈)라는 스님이 미륵을 친견하고자 웅천(熊川) 수원사(水源寺)에 갔을 때의 이야기이다. 한 소년의 영접을 받아 절의 스님[寺僧]에게 찾아온 사유를 들려주었더니, 스님이 말하였다.

○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천산(千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현인·철인(哲人)이 머물렀던 곳이어서 영험이 많다고 하니 그곳에 가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진자는 그 말을 좇아 천산 근처에 이르렀다. 산령(山靈)이 노인으로 변신하고 나와서 그를 맞이하며 물었다. "이곳에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삼국유사』, 탑상, 미륵선화·미시랑·진자사)

---

21) 낭산의 불교성지화에 대하여는 신종원의 다음 글을 볼 것. 1996, 「삼국유사 선덕왕지기삼사조의 몇 가지 문제」『신라와 낭산 –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7』. 1998, 「삼국유사 선덕왕지기삼사조 역주」『월운 스님 고희기념 논총』, 동국역경원; 『삼국유사 새로 읽기(1)』에 다시 실림.

22) 신종원, 1994, 「치악산 石南寺址의 推定과 현존민속」『정신문화연구』17-1(통권 제54호).

당시 웅천의 천산은 백제의 영토에 속하므로, 이것은 오히려 백제의 자료가 되겠다. 영검이[23] 있기로 유명한 천산은 과연 소문대로였다. 산령이 노인으로 변하였다고 하니, 그는 곧 남성이다.

『추동기(錐洞記)』를 쓴 고승 지통(智通)은 문무왕 원년(661)에 출가하였다. 이때 까마귀가 와서 말하기를, 영취산에 사는 낭지(朗智)의 제자가 되라 하였다. 지통이 스승을 잘 만난 것은 까마귀가 일러주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산신령이 도운 것이라 한다. 산령은 산주인[山主]라고도 하며, 또한 변재천녀(辯才天女)라 하였다.[24]

○ 10월에 북방에 순행하여 태백산에 제사 지냈다. (일성이사금 5년. 138CE)

○ 3월에 태백산에 이르러 망제를 지냈다. (기림이사금 3년, 300CE)

당시 태백산을 신라 영토로 보기는 어렵다. 후대의 사실을 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태백산이 국가적 영산(靈山)으로서, 여기에 제사 지냈던 것을 알 수 있다.

신라 시조 혁거세는 나정(蘿井) 곁 숲 속의 알에서 태어났다. 여기에 왕비 알영 및 6 촌장이 등장하는 신라 개국설화는 나름대로 정연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편 혁거세의 출생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니, 서연산(西鳶山) 신모가 그를 낳았다고 한다.[25] 서연산은 서술(西述)·선도산·서악으로도 불린다. 서연산 신모 출산설에 대해서는 『삼국사기』를 엮은 김부식조차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아마도 고려 중기까지도 그리 정착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신모 출산

23) '영검'은 '靈驗'을 일컫는 무속·民俗語.

24) 『삼국유사』 피은, 낭지승운·보현수.

25) 『삼국사기』 12, 신라본기 12, 논찬: 『삼국유사』 감통, 선도성모수희불사.

설에 우리의 관심이 끌리는 것은 기존의 혁거세 출생 설화와는 관계없이 그 태어남을 산신의 은택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난생설화가 생경하든지, 아니면 여타 성씨들과 같은 모습의 출생담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사로 6촌의 시조 탄생지는 다음과 같다.

> ○ 진한 땅에는 옛날에 육촌이 있었다. 첫째가 알천 양산촌으로서 그 남쪽은 오늘날의 담엄사(曇嚴寺)이다. (촌)장은 알평인데 처음에 표암봉(瓢嵓峰)에 내려왔다. 이 사람이 급량부 이씨의 (시)조이다. 두 번째는 … 형산 … 정씨. 세 번째는 … 이산 … . 네 번째는 … 화산 … . 다섯 번째는 … 명활산 … . 여섯 번째는 … 금강산 … 설씨조상 … . 윗글을 보면 6부의 시조는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 (『삼국유사』 기이 1, 신라시조혁거세왕)

이와 같이 마을(村 또는 部)의 시조는 모두 산으로 내려왔다. 물론 당시에 성씨가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후대의 용어를 빌리면 집성촌이요 동족부락이다. 산보다 높은 곳에서 내려왔으니,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평설은 달리 문제삼을 것이 없다.

신라 왕위는 박 → 석씨에서 김씨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정작 가장 오랜 기간 왕위를 차지하였던 김씨의 시조는 어디에서 왔다고 하였을까?

> ○ 15대조 성한왕(星漢王)은 그 바탕이 하늘에서 내리고, 그 신령이 선악(仙岳)에서 나와 …… (문무왕릉비문)[26]

역시 하늘로부터 산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그들의 시조라 일컫는 알지는 시림(始林)의 금궤에서 나왔다고 한다.[27] 이것은 혁거세와 마

---

26) 十五代祖星漢王 降質圓穹 誕靈仙岳肇臨
문무왕릉비문 번역은 1992,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에 의거하였다.

27) 『삼국유사』 기이 제1, 김알지·탈해왕대.

찬가지의 신이한 탄생 이야기이며, 위에서 보았듯이 별도의 산악 강림 이야기가 있다. 석씨의 경우를 보자. 경주의 토함산신은 흙상[塑像]으로 모셔져 있었다.[28] 이것은 조로(調露) 2년(680) 문무왕에게 탈해왕이 현몽하여, 자기를 흙상으로 만들어 토함산에 안치해 달라 하여 조성되었다고 한다. 이 소상에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라제사가 끊이지 않으니 즉 동악신(東岳神)'이라 하였다고 한다.[29] 탈해는 일명 '토해(吐解)'라고도 하니, 토해 = 토함이[30] 되어 탈해왕은 곧 토함산신이기도 하다. 『삼국유사』 왕력편에는 '지금의 동악대왕'이라고 되어 있다. 각 성씨가 특정한 산신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비정하고 현실적인 연고권도 보장받을 즈음, 석씨는 토함산신을 자신들의 시조로 모셨다. 탈해의 경우는 죽은 뒤 600년이 지나서의 일이었다.

산신이 왕에게 나타났다는 기사는 『삼국유사』 기이 2, 처용랑·망해사조에도 보인다. 신라 제49대 헌강왕이 남산과 금강령에 갔을 때 이들 산신이 나타나 왕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산신이 영험하여 나라의 운명도 잘 안다는 사고를 보여준다.

국가 형성의 실질적 내용은 권력의 집중에 의해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정치적 모습은 의례적·관념적으로도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나라의 정체성이 갖추어진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마을 단위, 씨족 단위, 또는 국왕의 일회적 산신 숭배 또한 신라라는 국가의 성립·발전에 따라 권력형 조직으로 편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이들 산신이 자신들 영역 안의 인민을 산신 각자의 처지[등급]에 따라 보호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정 지역의 산신이 촌락의 수호자이듯이 국가 단위의 산신은 나라의 일정 지역을 보호할 의무가 있

---

28) 『삼국유사』 기이, 탈해왕.

29) 같은 條의 잔주.

30) 三品彰英 遺撰, 1975, 『三國遺事考證』上, 486~487쪽.

다. 그러한 예로서 자주 나타나는 것이 3산5악의[31] 신이다. 삼산부터 보기로 하겠다.

○ 대사(大祀) 삼산 1, 나력(습비부). 2, 골화(절야화군). 3, 혈례(대성군)

많은 산 중에서 세 곳이 먼저 뽑혔다. 그러므로 삼산의 등장은 곧 신라 영역 안의 제사를 등급화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곧 사전(祀典)이다.

사전이 처음 성립된 시기는, 시조 탄생지 나을에 신궁을 세웠다는 지증왕(500~515) 때로 보인다.[32] 이미 시조묘가 있는데 다시 신궁을 세우자면 기왕의 모든 제사를 전면 재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삼산은 신라에서 가장 높은 제사를 말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제사이며,[33] 문무왕릉비문에도 두 차례나 보인다.[34]

오악은 삼산과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35] 분리되어서도 나온다.[36] 오악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제사지에 자세하다.

○ 중사(中祀) 오악 동쪽 토함산(대성군), 남쪽 지리산(청주), 서쪽 계룡산(웅천주), 북쪽 태백산(나이군), 중앙 부악(혹은 공산 압독군이라고도 한다)

이들의 위치는 고신라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 예를 들면 위 제사지

---

31) 三山五岳 전체를 고찰한 다음 글이 있다. 홍순창, 1983, 「신라 삼산·오악에 대하여」 『신라 민속의 신연구 –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 논문집 4』, 경주시. 채미하, 2008, 「명산대천제사와 그 특징」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32) 신종원, 1992, 「신라 祀典의 성립과 의의」 『신라초기불교사연구』, 92~95쪽.

33) 與三山同祀而不墜 躋秩五陵之上 稱大廟云(『삼국유사』 기이2, 미추왕죽엽군).

34) 派鯨津氏映三山之闕東拒開梧之境南鄰△桂之(第1石 第3行)
域千枝延照三山表色盛德遙傳(第3石 第16行).

35) 王御國二十四年 五岳三山神等 時或現侍於殿庭(『삼국유사』 기이2, 경덕왕·충담사·표훈대덕)

36) 粧點主尊三像 …… 及諸天神五岳神君(『삼국유사』 감통, 선도성모수희불사).

의 서악은 계룡산인데, 신라에는 원래 서악으로 선도산이 있었다. 따라서 제사지의 오악은 삼국 통일 뒤에 지정된 것이고, 그 호국적·전제왕권적 성격이 지적된 바 있다.[37]

중사에는 4진[四鎭]·4해[四海]·4독[四瀆] 등도 포함되지만, 오악이 그 선두를 차지한다. 그리고 소사의 대상도 대부분이 산악이다.[38] 이렇게 보면 신라는 국가제사를 제도화할 때 고신라의 산신을 가장 중요시하여 3산을 대사에 배당하고, 나머지는 중·소사에 넣었다. 신라는 당나라에서 확립된 5악·4해·4진·4독 개념을 포용하였지만,[39] 산신을 제외하고는 다분히 형식에 그친 듯하다. 과거 마을 단위 또는 지역 단위의 산신은 국가제사의 질서 속에 편입되어 거국적 산신으로 거듭났다.

고유의 산신이 외래종교나 사상과 접했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자. 회경(懷鏡) 대사 등이 신라 애장왕(808~815) 때의 계집종 욱면을 기념하여 법왕사를 지을 때, "옛 신사에 나아가 불교의 이치로 타일러서 신사 곁의 재목을 베었다."고 한다.[40] 숲의 신과 불교가 별개의 것이었고, '타일렀다(諭)'는 말의 이면에는 체제종교의 권력 행사가 엿보인다.

아래 사료도 산신이 불교에 의해 자신의 지위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내용이다.

---

37) 이기백, 1974,「신라 오악의 성립과 그 의의」『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38) 이 가운데 발굴조사된 곳으로는 전남 영암군의 '月奈岳'이 있다. 목포대학교, 1996,『영암 월출산 제사유적』, 영암군. 한편 월광사낭원선사탑비를 보면, 月嶽神은 三韓一統에 공이 있다하여 태종 무열왕으로부터 '別封'된 바 있다. 한국고대사회연구소, 1992,『역주 한국고대금석문』3, 148쪽.

39) 허흥식, 2002,「世宗時 山川壇廟의 分布와 祭儀의 변화」『청계사학』16·17, 806쪽.

40) 이 條의 사료비판 및 해설에 대해서는 신종원의 다음 글이 있다. 1982,「삼국유사 욱면비염불서승조에 대한 일고찰」『사총』26. 1985,「삼국유사 욱면비염불서승조 역해」『신라문화』5: 2011,「계집종 '욱면'의 염불왕생 설화와 역사」『삼국유사 새로 읽기(2)』, 일지사에 다시 실림.

○ 진평왕대에 비구니 지혜(智慧)라는 자는 현행(賢行)이 많았다. 안흥사에 살면서 새로이 불전을 지으려 했으나 힘이 모자랐다. 꿈에 예쁜 선녀 모양을 한 여인이 주옥으로 머리를 장식하고 와서 위로하였다. "나는 선도산 신모인데, 그대가 불전을 지으려 하는 것이 기뻐서 금 10斤을 주어 돕고자한다. 내 자리 밑의 금을 가져다가 주존 삼상을 장식하고, 벽에는 53불·6류성중 및 모든 천신·오악신군을 그려라. 해마다 봄 가을 두 계절의 10일에는 선남선녀를 모아 널리 일체 중생을 위해 점찰법회를 베푸는 것을 변함없는 규칙으로 삼아라." (『삼국유사』 감통, 선도성모수희불사).

서악이란 '서녘 수리산'을 한자로 써서 서술(西述)·서연산(西鳶山)이라 했겠는데, 그것이 '선도산'으로 된 것은 도교의 영향이다.[41] 지혜의 꿈에 보인 산신은 본래 신사에 그려 모셔져 있었다고 생각된다. 신모의 영역인 선도산에 불전을 지으려면 산신과 부처 사이에 새로운 질서가 요구된다. 절을 짓는 데에 신모가 재력을 제공했다는 이야기는 불교가 민간신앙을 적극 흡수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벽화에는 부처·성중(聖衆)·천신·산신의 순서로 서열이 매겨졌다. 산신은 부처와 보살 앞에서 하나의 신중(神衆)으로 만족해야만 되었다.[42]

현풍 포산(包山. 비슬산)의 산신도 같은 운명을 겪었다. 신라 스님 관기(觀機)와 도성(道成)이 이 산에서 수도하여 현신왕생하자 후대 사람들이 그 터를 기념하여 절을 지은 뒤의 이야기이다.

○ 태평흥국 7년(982) 임오년에 성범(成梵) 스님이 처음 이 절에 와서 만일(萬日) 미타도량을 열고 50여 년을 기도드렸는데, 몇 번이나 기이한 상서(祥瑞)가 있었다. 어느 때 현풍의 신도 20여 명이 해마다 結社하여 향나무를 절에 바쳤다. 매번 산에 들어가 향나무를 벌채하여 쪼개고 씻은 다음 발 위에 널어두었다. 나무가 밤에 촛불같

41) 정재서, 2001,「한국도교의 기원론에 대한 검토」『한국종교연구』3, 102~103쪽.

42) 智惠 설화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두었다. 신종원, 1992,「圓光과 진평왕대의 점찰법회」, 앞의 책, 225~227쪽.

> 이 빛을 발했다. … 이것은 두 성인의 신령스런 감응이요, 혹은 산악신[岳神]이 도운 바라고 하였다. 신의 이름은 정성천왕(靜聖天王)이다. 일찍이 가섭불 시절에 분부를 받은 것이다. (『삼국유사』 피은, 포산이성)

산의 나무를 베었으니 그 주인 산신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사(佛事)를 위한 일인지라 오히려 상서로움이 나타났다. 그것은 산신이 도와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산신은 다름 아닌 부처의 권속 (정성)천왕이었다.

3) 고려시대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산악숭배 자료도 실은 고려시대 사람들의 기록에 의한 것이므로 적잖이 고려시대의 모습이 들어 있을 것이다. 고려시대의 산천제사는 잡사(雜祀)에 편제되어 있어 대·중·소사보다 비중이 낮은 듯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잡사'라는 용어가 유교의 길례(吉禮) 체계에 없듯이, '미분등제(未分等第)된 국가제사'이며 대·중·소사의 사례에 따라 거행된 제사였다.[43] 고려의 산천제사는 성종 9년 9월의 "산천의 제사를 산정(刪定)하라."고 한 어명에 따라 완비된 것으로 보고 있다.[44] 이후 고려말에 이르러 『홍무예제(洪武禮制)』의 수용에 따라 산천신과 성황신에 대한 봉작이 삭제되고, 이들 제사가 合祀되었다고 한다.[45]

고려시대는 그 이전의 산악숭배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내용면에서 가장 풍부하고 외형상으로도 화려한 산신관(山神觀)을 가진 시기였다.[46] 이즈음 새로이 나타나는 제사를 중심으로 고려시대의 산악숭배

---

43) 김철웅, 2002, 「고려 국가제사의 체제와 그 특징」『한국사연구』 118.

44) 김철웅, 2001, 『고려시대「雜祀」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4~115쪽.

45) 위 논문, 153·177쪽.

46) 고려시대의 산천신앙과 禮制·불교 사상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있다. 허흥식, 2002,

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팔관회와 산신

팔관회는 스님들의 계율을 본받아 재가신도가 며칠만이라도 8계를 지키는 의식으로서, 이미 신라 진흥왕 때부터 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태조 왕건은 "팔관은 천신과 5악·명산·큰내(大川)·용신(龍神)을 섬기는 것이다."라고[47] 하였다. 그 제삿날은 11월 15일(서경에서는 10월 15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고대의 가을걷이 제사를 이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48] 이때 잡희(雜戱)를 행하는 등의 축제 분위기를 보면 분명히 불교의 계행(戒行)과는 거리가 멀다. 역시 천신과 산천신을 모시는 전통적 축제의 요소가 많았으므로 태조는 위와 같이 말하고, 그 시행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을 것이다. 태조가 산수의 신령스런 감응에 의지하였으며, 산령(山靈)의 도우심에 보답하기 위해 개태사를 세웠다함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49] 팔관회에 대해서는 최승노 등 유신(儒臣)의 반발이 없지 않았지만, 산악숭배는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가장 큰 축제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면 실제 고려에서는 산신이 어떠한 권능을 가졌다고 여겼기에 팔관회와 같은 행사가 이루어졌을까? 산신은 어느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수호신 또는 전쟁의 신으로 신앙되어 고려 전 기간에 걸쳐 중시되었다.[50]

나라 전체가 즐기는 국중대회가 팔관회였다면, 왕실이나 국가에 의해 개별적으로 지내는 산신제 또한 없을 수 없다. 고려 초기에는 왕

「고려사 지리지에 실린 名所와 山川壇廟와의 관계」『한국사연구』 117.

47) 『고려사』 2, 세가 2, 태조 26년 4월.

48) 三品彰英, 1943, 『新羅花郎の研究』; 1974, 『三品彰英全集』 6, 259~271쪽.
팔관회는 고구려의 동맹 의례를 계승한 것이라는 다음 글이 있다. 안지원, 1999, 「고려시대 국가 불교의례 연구 – 연등·팔관회와 제석도량을 중심으로」 147쪽,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49) 『補閑集』 상권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있다. 이병도, 1980, 『고려시대의 연구』 (개정판) 51~55쪽, 아세아문화사.

50) 박호원, 1995, 「고려의 산신신앙」 『민속학연구』 2, 197쪽, 국립민속박물관.

실의 복을 빌기 위해 별례기제(別例祈祭)를 지냈고, 봄·가을로 외산제고사(外山祭告使)를 파견하여 산천제를 지냈다.[51] 군주에 의한 나라 산신의 장악은 존호내림[加號]을 통해서도 구현된다. 그것은 관념적으로 공신에 대한 작호(爵號)의 행위나 같기 때문이다.

고려 태조의 선조 호경(虎景)은 평나산 대왕이 되어달라는 호랑이 과부 산신의 요청을 받아 평나산(구룡산으로 고침) 산신이 되었다.[52] 여기에서 (산)신은 호랑이·남·녀로 서로 바뀔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난다.[53]

(2) 성황신

앞에서 보았듯이 포산(包山)의 산신은 정성천왕이 되었다. 이 천왕이 다시 '정성대왕'이 되어 비슬산(포산)의 성황사에 모셔졌다.[54] 산신이 그대로 성황신이 된 경우이다. 성황신 가운데는 역사상의 특정 인물이 비정된 경우도 적지 않다. 고려 초기에 지방세력에 의해 건립된 성황사는 자신들의 조상을 성황신으로 배향함으로써 지역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복종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려말, 조선 초기까지 계속되었다.[55] 산신이 산성신(山城神)으로, 이것이 다시 성황신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는 순창성황대신사적기(淳昌城隍大神事跡記)가 있다.[56] 고려 후기의 산신·성황신을 둘러싼 지역민의 관심은 고을의 선정이나 읍격(邑格)의 문제 등 상당히 실리적인 것이었다.[57]

---

51) 이것은 유교풍이라고 한다. 안지원, 앞 논문, 217~218쪽.

52) 『고려사』 1, 高麗世系.

53) 신종원, 2002, 「단군신화에 보이는 곰(熊)의 실체」 『한국사연구』 118, 8쪽.

54) 城隍祠 在琵瑟山 俗傳 靜聖大王之神(『신증동국여지승람』 27, 현풍, 사묘).

55) 김갑동, 1991, 「고려시대의 성황신앙과 지방통치」 『한국사연구』 74, 17~20쪽.

56) 신종원, 1998, 「성황대신사적기와 대왕신앙」 『성황당과 성황제』, 민속원.

57) 변동명의 일련의 연구가 있다. 2000, 「고려후기의 무등산신앙과 광주」 『동아연구』 38, 서강대학교: 2001, 「고려 후기의 금성산신과 무등산신」 『남도문화연구』 7: 2001, 「高麗時期의

산신·성황신·인물신이라는 세 신격과 관련하여 흥미 있는 자료가 있다.

○ 최문한(崔文漢)의 처음 벼슬길은 판군기시사(判軍器寺事)였다. 일찍이 영남 고을에 한 성황신이 있었는데 매우 포악하여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의 뒤를 따르다 말과 사람을 함께 살해하였다. 문한이 말을 타고 내리지 않고 그곳을 지나가자 우편물을 돌리는 사람이 길에서 그 같은 내력을 자세히 알려주었으나 문한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대로 1리쯤 갔다. 과연 말이 죽자 문한이 크게 노하여 성황으로 되돌아가 죽은 말의 창자와 피를 성황신의 몸에 마구 뿌리고 성황당을 불 지르고 돌아오니, 그의 강직하고 흔들리지 않는 정신이 이와 같았다. 후에 읍 사람들이 집을 다시 지었으나 신이 두려워하여 들어가지 않으려 하자 성황당에다 문한의 상을 흙으로 만들어 세워놓자 성황신은 그제야 집으로 들어가 앉으며 반드시 제사도 문한에게 먼저 흠향하였다. 문한이 노년에 고향에 있을 때의 일이다. 매년 봄·가을로 제사를 지낼 때 읍 사람들이 응당 같이 받들며 지낼 것이라 하니 고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가보니 과연 말 그대로였다. 지금은 문한대왕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증수임영지』 향평)[58]

최문한은 강릉 최씨 문한공파의 시조이다. 충숙왕의 부마라고 하나 고려사에서 그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족보에 의하면, 그의 무덤은 강릉시 북쪽 마명산 자좌(子座)에 있다. 이 산신 제문은 다음과 같다.

○ 산신축제문 마명산 (山神祭祝文 馬鳴山)
土地之神今爲先祖考高麗國駙馬都尉府君之墓 / 禮勤省掃恭修歲事 / 神其保佑俾無後艱 以淸酌脯牲祇薦于 神尙饗(『강릉최씨세보』 1)[59]

羅州 錦城山信仰」『전남사학』 16: 2002 「고려시기 순천의 산신·성황신」『역사학보』 174.

58) 정항교 역, 『완역 증수임영지』 113쪽, 1997. 『임영지』는 강릉의 私撰 지리지로서 光海朝의 '前誌' 이후 後·續誌가 덧붙여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편찬자는 東湖老人 孟至大이며, 그는 1787~1788년 동안 江陵府使를 지냈다. 박영완, 1992, 「강릉 임영지 연구」『강원민속학』 9.

산신이란 다름 아닌 성황신 최문한을 일컫고, 산신제는 곧 그를 제사 지내는 내용이다. 최문한이 마명산신이 된 것은 거기에 그가 묻혔기 때문이다. 한편 생시의 그를 기리는 신성한 장소는 성황당이다.[60] 신격화된 인물신은 그 삶과 죽음을 통해서 산신과 성황신으로 각각 위함을 받는다.

이러한 설명은『증수 임영지』및『강릉최씨세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나온 것이다. 그러나『증수 임영지』의 내용은 설화에 지나지 않고,『강릉최씨세보』또한 가문에서 후대에 작성한 것으로서 실은 산신(제)의 두 가지 성격이 종합·발전된 것이다. 산신제의 양면성이란 "산신제는 죽은 사람을 이장하기 전에 토지신에게 개토제(開土祭)의 의식으로 행하는 것과 산신당이나 성황당의 산신에게 마을 공동으로 행하는 것"을[61] 말한다. 역사상에 보이는 인물성황신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3) 선불적(仙佛的) 산신

산신과 불교, 나아가 도교까지 아우른 신앙 형태로서 묘청이 세운 팔성당(八聖堂)을 들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이므로 그 세목은 인용하지 않겠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신앙이 존재했을까 궁금한데, 비슷한 형태의 자료를 하나 소개하려 한다. 설악산 한계산성을 지나 산꼭대기에 오르면 제단이 세 군데 차려져 있고, 신위를 새겨놓은 1미터 남짓 되는 돌이 놓여 있다. 어느 시대 누구의 것인지 현재로서는 아는 바 없다. 명문은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다.

---

59) 1994,『강릉최씨세보』1, 191쪽, 회상사.

60) 성황당의 實在에 대해서는 현재 알려진 바 없다. 강릉시 옥천동에는 최문한의 전설이 얽힌 龍池閣(강원도 기념물 제3호)이 있는데, 성황당과의 동일 여부 등 앞으로 조사·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61) 한상복, 1965,「한국 산촌주민의 의식과 신앙」『한국사회학』2; 김택규 편, 1982,『한국민속연구논문선』1, 390쪽, 일조각.

(빗돌 1)
仙上帝 / 再山壇 / ? 隱師 / 義仙雲侍 / ? 金成鎭

(빗돌 2)
時國大東壇昭金山 / 道尹 誠山榻 / 戊申上?石山壇南隱師 /
附仙天主申光澤 / 辛未八月十五日

(빗돌 3)
一坤武誠山榻 / 昭金工山佛者上帝天容仙玉隱師 /
庚午十二月二十七日午時貞仙陽日星 /
金世震

(4) 산천비보도감(山川裨補都監)

최충헌이 풍수지리사상을 명분으로 내세워 남의 토지를 탈취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산천비보도감이다. 12년 동안(신종 원년~ 희종 5년)이라는 존속 기간이 말해주듯이, 이 기구는 고려시대의 산악숭배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62]

4) 조선시대

내용과 형식면에서 가장 다양하고 번성하였던 고려시대의 산악숭배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군살을 빼게 되었다. 법령상의 문제라고도 하겠지만, 실제로 성리학에 가치체계를 둔 사대부들의 산신관도 불교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금압적(禁壓的)이었다. 조선시대의 산신은 그 중요도에 따라 중·소사로 나누어 편제하였으며, 일체의 신상이나 봉작을 없애고 산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놓았다.[63] 이와 같이 유교의 귀신관과 예제를 준수하려는 시책에도 산신의 영검을 믿

62) 이재범, 1989,「최씨정권의 성립과 산천비보도감」『成大史林』5.

63) 이욱, 2002,「조선 전기의 산천제」『종교학연구』17,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소, 1998:「조선 전기 유교국가의 성립과 국가제사의 변화」『한국사연구』118, 181쪽.

어 지역 단위로 기우제를 지내는 등 산신에 대한 믿음은 결코 식지 않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산신사(山神祠)를 찾으면 47곳이나 되는데,[64] 이들 대부분이 신라·고려시대 이래의 유명 산신사당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산신신앙도 앞 시대의 전통을 많은 부분 이어받았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나타나는 산신 숭배의 모습으로는 사찰 안의 산신각을 들 수 있다. 산신각은 칠성각 등과 마찬가지로 불교의 전래와 함께 재래신앙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 종래의 설명이었다. 조선 초기 산천단묘(山川壇廟)의 기록에 묘향산·금강산·오대산·태백산·월출산·소백산 등의 명산에 단묘가 수록되지 않은 것은, 이들 명산에는 유명사찰이 있어서 단묘가 이들 사찰의 산신각으로 흡수되어 소멸된 것이라 한다.[65] 그러나 기록과 산신 그림 등을 통한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17세기 이전에 산신각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66] 이 문제와 관련하여, 건물과는 별도로 사찰에서 산신을 모신 장소가 있었음에 유의해야 한다.

강원도 고성군 건봉사의 보림암 터 암벽에는 '南無山王大神位'라 음각되어 있고, 제단이 남아 있다.[67] 경북 상주시 화북면 하송1리의 청계사 터에도 3미터 정도 되는 바위에 '南無山王之位'라고 새겨놓았다.[68] 이들 산신 제단은 아마도 산신각이[69] 건립되기 전에 제사 지내

---

64) 김갑동, 1993,「고려시대의 산신신앙」『진산 한기두 기념 한국종교사상의 재조명』45~46쪽.

65) 허흥식, 2002,「世宗時 山川壇廟의 분포와 祭儀의 변화」『청계사학』16·17합, 808쪽.

66) 김형우, 1996,『한국사찰의 산신신앙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David A. Mason, 1997, *A Study of Korea's Mountain Spirit(San-sin) and Its Relationship with Korean Buddhism,*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열수, 1998,『산신도』, 대원사.

67)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 강원도편』, 343~344쪽, 가심기획. 황재연, 2001,『조선후기의 佛事와 그 배경 - 건봉사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68) 2002년 2월 26일 필자 답사. 윤열수(앞 책, 23쪽)도 다음과 같이 암각 신위 몇 예를 보고하고 있다. "정릉 삼각산 약사암 산신각 뒤편 자연석에 '나무산왕대신지위', 전남 나주군 남평면 죽림사 비석형의 자연석에 '산왕지위', 하남시 교산동 선법사 자연석에 '나무산왕대신위',

던 곳으로 여겨진다.

조선시대 산악숭배의 또 하나 특징으로서, 우리 국토의 우두머리 산[宗山]으로서 백두산을 확고히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전국의 산천을 체계화하였다는[70] 점을 빼놓을 수 없다.

3. 산신의 여러 모습

산신에 대한 종합적 고찰로는 요다치요코(依田千百子)의 삼부작 연구를 들 수 있다.[71] 그 Ⅰ편은 「수렵민의 산신 및 수렵민 문화」, Ⅱ편은 「산삼 채취와 임업자(林業者)의 산신신앙」이다. 그 요지는 '동물의 주인'으로서의 산신은 한국 산신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러한 잔재는 오늘날의 산삼 채취 풍속에 잘 남아 있다는 내용이다. Ⅲ은 「농업민의 산신신앙」인데, 여기에서 산신의 유형을 크게 둘로 나누어 다시 각각 세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하였다.

A. 마을 수호신 … (a) 산림의 주인, (b) 마을의 수호신, 강림한 천신 (c) 개척선조

B. 농업신 … (a) 농경의례의 대상, (b) 비를 내려주는 자, (c) 아들을 점지해주는 신

그의 연구는 선구 업적을 충실히 섭렵하였고,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예리한 분석 등 내세울 만한 것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몇 가지 애

관악산 연주암 뒤편 자연석 '산왕대신위', 강원 태백시 태백산 입구 자연석에 '산왕지위' 등의 명문을 볼 수 있다."

69) 한용운, 1928, 『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의 '건봉사 건물'조를 보면 "산신각 1間 … 城隍堂 2間"이 적혀 있다.

70) 양보경, 2002, 「우리 민족의 전통적 山地觀과 백두대간」 『백두대간의 자연과 인간』, 산악문화.

71) 依田千百子, 1985, 「朝鮮の山神信仰」 『朝鮮民族文化の研究』, 琉璃書房.

매하거나 아쉬운 점 또한 없지 않다.

첫째, 그는 많은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한반도를 남방과 북방 문화로 무리하게 둘로 나누고 있다. 둘째, 예맥의 종족 성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三上次男의 설에 입각하고 있다. 셋째, 백산·'밝'으로 대표되는 불함문화론을 수용하여 논리를 전개시켰다. 이러한 이론은 각각 당대의 학문적 유행이거나 당시로서는 최신의 학설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여러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72] 다만 산신의 유형에 대하여 그가 제시한 갈래는 산신을 이해하는 유용한 기준이 되므로 취사선택할 만하다.

'마을 수호신'의 경우, 마을은 농촌·산촌·어촌으로 나눌 수 있다. 어촌은 오히려 바다와 더 관계가 깊으므로 산악숭배를 논하는 이 글에서는 일단 제외된다. 농촌과 산촌의 대비도, 국토의 7할을 산이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큰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평지 마을에서도 조산(造山)이나[73] 당산을[74] 둠으로써 산과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마을 수호신으로서의 산신'과 '농경신으로서의 산신'을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다. 생산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아들을 낳는 것이 농업신에 해당될 지 모르겠으나, '아들을 점지해주는 신'은 마을의 구성원을 유지시켜주는 신이므로 '마을 수호신'의 유형에 넣어도 그리 문제는 없다. '비를 내려주는 자'의 역할도 굳이 산신의 유형에 넣어서 좋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기우의 장소로는 물가나 못 등도 선호되기 때문이다.

---

72) 남방문화론에 대한 반성으로는 다음 글이 있다. 김정배, 1972,「濊貊과 濊와 貊」·「한국에 있어서의 南方文化論」『한국민족문화의 기원』, 고려대학교 출판부. 이청규, 2002,「한국의 원시·고대 남방문화론에 대하여」『강좌 한국고대사』 9, 가락국사적개발원.

73) 조지훈은 조산을 가리켜 '天神의 出張守護'라 하였다. 1963,「累石壇·神樹·堂집 신앙연구 - 서낭考 」『문리논집 문학부편』 7, 고려대학교. 조산 발굴보고서로는 윤용진, 1992,「義城 花田洞 造山遺蹟」『고문화』 40·41, 한국박물관협회가 있다.

74) 나무를 심거나 돌탑을 조성하여 산신을 모시는 것이다. 이필영, 1994,『마을 신앙의 사회사』 16쪽, 웅진출판.

'농경의례의 대상'은, 해당 지역이 마을이라면 '마을 수호신'의 범주에 넣어도 좋다. 이제 산신의 유형은 (1) 산림의 주인, (2) 지역 수호신(천신), (3) 祖上神으로 압축된다. 이것은 자연 그대로의 산으로부터 神 → 인간으로 그 관념이 발전·확산되어 간 것이다. 다만 수렵·채취 시대 '산짐승의 주인'으로서의 성격이 위의 세 범주에서 벗어날 우려가 없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요다 자신이 "이와 같이 '산림의 주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산신에는 수렵민의 '산짐승의 주인'으로서의 수렵신에 가까운 발상법이 보이고, 또한 그 관념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은 분명하다."고[75] 하였듯이 兩者는 같은 범주에 넣어도 무방하다. 아래 그 하나하나의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산림의 주인

'산림의 주인'이란 산 그 자체를 믿고 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은 신성한 공간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낭산은 선령(仙靈)이 머무는 곳이므로 나무를 베지 못하게 했다는 사료가 여기에 해당된다. 수렵시대 '산림의 주인'은 '산짐승의 주인'으로서 야생동물을 소유하고 수호하며, 인간에게 사냥의 운을 가져다주는 신으로서 '산신'이라 부른다. 산신은 '하늘제사 올리는 짐승'으로서의 사슴 및 범·곰·여우 등 동물의 형태로 나타난다. 범은 산신과 가장 관계가 깊은 짐승으로서 산신·산군(山君) 등으로 불리며, 산신도에 잘 나타나 있다. 범에게 물려 죽는 것을 운명으로 돌리는[76] 데에서 그러한 관념을 잘 볼 수 있다. 사슴이나 여우가 사냥군에게 은혜를 갚아 입신출세하게 되었다는 민담이나, 사방이 막막한 산에서 노인이나 까마귀가 나타나 길을 안내하는[77] 등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산신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

---

75) 依田千百子, 앞 책, 424쪽.

76) 김강산, 1988,『虎食葬』, 33쪽, 태백문화원.

77)『삼국유사』, 기이편, 射琴匣條.

농경사회에 들어와서도 함부로 나무를 벤다든지 하면 산신령은 반드시 경고를 하였다는 이야기에서, 산신은 산 그 자체의 수호신 또는 지배자라는 관념을 읽을 수 있다.

2) 지역 수호신(천신)

사람들은 산신이 산자락에 사는 인간을 보호해준다고 믿기 때문에 산신을 극진히 위한다. 하나의 마을은 하나의 산신에 의하여 보호와 축복을 받는 개별적이며 독립적인 신성구역으로서, 산신은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내적인 결속을 다지게 하는 정신적 구심점이다.[78] 그런데 그들이 모시는 산신의 거처를 보면 산신당·산제당도 있지만, 성황당·국사당 등의 이름도 적지 않다. 이들 당의 제문을 보면 천우신조를 비는 등 산신은 천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마을마다 자신들의 산신이 있으므로 이들끼리 서로 우열을 다투기도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위하여는 협력도 한다. 그 가운데 군·현 단위를 대표하는 산이 '진산(鎭山)'으로서, 그것은 '수호산(守護山)이라는 고유의 관념을 중국식으로 표현한 것'이다.[79] 때로는 그들 사이에 인간과 흡사한 가족 관계를 설정해놓기도 한다.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군자봉의 서낭당은 남자신(대왕신)을 모신 당이고, 안산시 성곡동의 성황당은 그 짝이 되는 여신당이라고 한다.[80] 이들 성황당은 『신증동국여지승람』 9, 안산군, 사묘조에도 "城隍祠 有二祠 一在 … 一在 …"라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 예부터 전해오는 것이며, 여느 지역과 달리 두 곳이 실린 점이 특이하다. 충청남도 계룡산은 그 높이와 규모에서 넓은 지역을 대표하는 산이며, 이 때문에 여러 마을 산신을 거느리는 어르신으로서 그 지위는 확고하다. 점차 범

78) 이필영, 1994, 『마을 신앙의 사회사』 31쪽, 웅진출판.

79) 손진태, 「산천신의 신성과 그 기원」, 앞 책, 112쪽.

80) 『시흥군지』 상, 597쪽, 1988.

위를 확대해나가면 관념적으로 나라의 산신이 생기고, 이들 산신은 마을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수호자가 된다. 제사법전[祀典]에 오른 산신에 대하여는 제사의 주체가 관청위주가 되므로 개인이나 마을 단위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음사(淫祀)라 하여 금지시켰다.

다종교 사회인 지금이야 산신 사이의 우열이나 서열 같은 것은 무속 취향인의 별스런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계급사회에서 자기 마을 또는 지역 산신의 서열은 곧 읍격(邑格)의 차이를 말해준다. 여기에서 소박한 심성에서 출발한 산악숭배는 점차 정치이념화해갔다.

3) 조상신

산신의 실체는 산 그 자체에서 점차 인간세상으로 내려온다. 산은 무정물(無情物)로서 스스로를 지키거나 누구를 보호하지도 않는다. 모두가 인간 위주,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관념들이다. 이미 산신과 촌락공동체와의 관계가 설정되어 산신은 '마을의 수호자'가 되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산신이 어느 집안과 관련이 있는 인격신이라는 관념도 있다. 동족부락의 형성, 씨족 관념의 강화로 인하여 마을을 지켜주는 산신은 공동의 산신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선조라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개척선조[開拓祖先]'·'입향시조신(入鄕始祖神)'이라 풀어쓰기도 하고, 민속용어로는 '골맥이'·'산맥이' 또는 대왕신앙이다.[81] 왕이나 왕비가 돌아가신 뒤 어느 산의 신이 되었다는 사료도 결국 골맥이와 같은 현상이다.[82]

골맥이는 '고을+막이'의 복합명사로서 '마을을 막아주는 사람' '마을을 지키는 자'의 뜻이라 한다.[83] '산맥이'도 기본적으로는 골맥이와

---

81) 조상신을 모시는 대왕신앙에 대하여는 신종원, 2001,「襄陽郡 현남면 웃달내 마을 大王祭參觀記」『강원지역문화연구』1, ; 2008,『한국 대왕신앙의 역사와 현장』, 일지사가 있다.

82) 이필영, 앞 책, 262쪽.

83) 장주근, 1979,「영남의 골맥이 동제당」『한국의 향토신앙』, 을유문고 190.

다를 바 없다고 보기도 하고,[84] 산신을 위시하여 여러 신을 먹인다는 뜻으로 '산멕이'라 하기도 하는데,[85] 산이 많은 강원도 지역에서 쓰이는 말이다. 산신이 이렇게 발전하기에 이른 것은 그 산이 곧 자신들 조상의 묘지라는 사실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은[86] 앞에서 본 최문한의 예를 통해서도 수긍할 만하다.

4. 고대의 북한산

1) 백제

삼각산(신)을 숭배하고 그 행위로서 나타나는 제사 (삼각)산신제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마을 단위의 치성(致誠)—제사나 굿—이 있을 것이며, 유교 예법에 따라 왕 또는 지방관원이 진설하는 정기적 공식 제사가 있다. 사료가 비교적 잘 남아 있는 고려사회를 보더라도, 공적(公的) 제의(祭儀)는 영험 있는 존재를 나라에서 신으로 삼아 이들에 대한 제사를 통해 직접적인 응답을 기대한 것이었다.[87] 삼각산의 신앙·민속·제의에 대한 개별적 검토는 여타 집필자가 다룰 것이다. 이 절에서는 그 시원이 되는 고대 삼각산의 제사행위에 한정하여 서술한다. 이른 시기일수록 나라 차원의 공식기록만 남게 마련이므로 개인의 산신 예배나 그 관념 같은 것에 대해서는 달리 언급하기 어렵다.

삼각산을 포함하여 한강유역은 처음에 백제의 영토였다.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보면 이 산에서 자주 사냥을 하거나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아래 표).

---

84) 장정룡, 1993, 「강원지역 산맥이 신앙 고찰」『한국민속학』 25.

85) 장주근, 「火田村의 산멕이기」, 앞의 책. 김진순, 2000, 「산메기 현지연구 – 강원도 삼척지역을 중심으로」『역사민속학』 10.

86) 依田千百子, 앞 책, 427쪽.

87) 강은경, 2005, 「고려시대의 국가, 지역 차원 제의와 개인적 신앙」『동방학지』 129.

왕대 년(서기)	원문	중요행적
온조왕 1 (전18)	遂至漢山登負兒嶽望可見之地	望祭?
다루왕 4 (31)	九月 王田於橫岳 下連中雙鹿 衆人歎美之	사슴 사냥
기루왕 27 (103)	二十七年 王獵漢山獲神鹿	사슴 사냥
개루왕 4 (131)	夏四月 王獵漢山	사냥
진사왕 7 (391)	八月 王獵橫岳之西	사냥
아신왕 11 (402)	夏大旱禾苗焦枯 王親祭橫岳 乃雨	기우제
비유왕 29 (455)	春三月 王獵於漢山	사냥
동성왕 5 (483)	春 王以獵出 至漢山城 撫問軍民 浹旬乃還	사냥 뒤에 위문

삼각산은 여러 가지로 표기되었지만 아래 사료를 보면 모두 같은 산을 말한 것이다.

○ 삼각산은 (서울) 북쪽 15리에 있다. 백제 때는 부아악이라 불렀는데 횡악이라고도 하였다. 또 거산이라고도 한다. (『대동지지』 한성부 산수)

삼각산을 포함, 한강유역이 6세기 중엽부터 신라 영토가 되자 이전의 백제 산신은 신라인들로부터도 여전히 존숭을 받게 된다. 아래 사료에서 보듯이 고구려와 백제가 이곳을 거점으로 각축한 것을 보면 이 산은 군사적으로도 중요했다.

○ 겨울 10월에 … 왕은 장수 고노(高老)를 보내 말갈과 함께 백제의 한성을 칠 것을 꾀하여 횡악(橫岳) 밑으로 나아가 주둔하였는데, 백제가 군사를 내어 맞아 싸워 물러났다(『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7, 문자명왕 16년, 507CE)

○ 여름 5월에 고목성 남쪽에 두 개의 목책을 세웠고, 또 장령성(長嶺城)을 축조하여 말갈에 대비하였다. 겨울 10월에 고구려 장수 고노가 말갈과 더불어 한성을 공격하고자 꾀하여 횡악 아래에 진군하여

주둔하였다. 왕은 군사를 보내 싸워 이를 물리쳤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제4, 무녕왕 7년, 507CE)

2) 신라

『삼국사기』 권32, 제사지에 신라 국가제사 가운데 小祀 부아악이 있다.

○ 負兒岳 北漢山州

삼각산주는 경덕왕 16년(757)의 지명 개편 이전에는 삼각산군이었다가 한양군으로 바뀌었다. 이곳은 현재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대이다. 부아악에 대해서는 "현재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종로구, 은평구와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시에 걸쳐 있는 삼각산이다. 삼각산은 그중심이 백운대·동장대·남장대의 세 봉우리로 되어 있어 조선시대에는 주로 삼각산이라고 불렀다."[88]라고 대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설명은 1917년에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비롯된 것이다. '삼각'산의 또 다른 이름 '화산(華山)'도 그러하듯이 이들 산 이름은 한자 뜻으로 써놓은 것이 아니라 쇠뿔·불 등의 우리말의 소리를 적은 것이라는 국어학 쪽의 설명이 대두되고 있음에 유의할 일이다.[89] 위의 신라 소사 인용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부아악'이 산 이름이라면 '삼각산'은 한강 북쪽의 지역이름 즉 지정학적 개념이다. 삼각산이라는 산이름이 삼각산의 또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후기부터라고 한다. 그래서 '삼각산제 이름찾기' 운동이 몇 년 전부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신라인들이 삼각산신을 모시고 제사하는 모습은 무엇보다 진흥왕 순수비가 잘 말해준다.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삼각산에 순

88) 정구복 외, 2012,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4, 35~36쪽.

89) 오경후, 2009, 「1910년대 今西龍의 삼각산 명칭해석에 대한 검토」 『한국사상과 문화』 47.

수하여 그곳 산악에 제사 지냈던 것은 그 신이 관장하고 있던 정치세력보다 우위의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제사 터가 바로 삼각산 비봉 근처의 '사모바위'라고 보는데[90] 달리 그만한 장소를 찾지 못하므로 타당성이 있다. 종래의 연구가 순행(巡幸)의 목적이나 과정/절차만을 중시했으나 정작 빗돌이 세워진 위치 즉 산신제사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던 것을 반성시킨 연구다.

진흥왕 척경(拓境) 창녕비(561)에도 '한성군주(漢城君主)'가 나온다. 신라본기에 의하면 진흥왕 29년(568)에 북한산주를 폐하고 남천주를 다시 설치하였다. 그렇다면 이 한성은 북한산성을 가리킨다.[91]

실은 아래 사료에서 보듯이, 신라 또한 산신에 대한 제사는 해오던 터였으나[92] 왕이 제사터에 직접 행차하여 제사 지내고 기념물을 세웠다는 차이가 있다.

○ 3년 3월. 우두주에 이르러 태백산을 보고 망제를 지냈다.(『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 기림이사금. 300CE)

○ 16년 10월. 왕이 삼각산(北漢山)에 순행하여 강역을 획정하였다.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제4 진흥왕. 555CE)

○ 16년 11월. 왕이 삼각산에서 돌아왔다. 왕이 갔다 온 주군(州郡)에 교(敎)를 내려 1년의 세납을 면제하고 해당 지방 죄인을 특별히 사면하여 교형(絞刑)과 참형(斬刑)을 제외하고 다 풀어 주게 하였다.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제4, 진흥왕. 555CE)

○ 6년 10월. 왕이 조정에 앉아계실 때 당에 청병한 회보가 없으므로 근심하는 빛이 겉으로 나타나자, 홀연히 왕 앞에 선신(先臣) 장춘(長春)과 파랑(罷郞) 같은 이가 나타나 말하였다. "신(臣)이 비록 땅에

90) 임평섭, 2014,「신라의 산천제사와 진흥왕순수비 입석 목적의 연관성: 북한산비를 중심으로 살펴본 巡狩 행적에서의 祀」『신라문화』 43.

91) 전덕재, 2008,「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지배방식」『향토서울』 73, 114쪽.

92) 신라 초기의 산악숭배에 대해서는 나희라, 2016,「신라초기 천신신앙과 산악숭배」『한국고대사연구』 82,에 자세하다.

> 묻힌 지 오래되었으나, 오히려 보국할 생각이 있어 어제 당에 갔더니 당의 황제가 대장군 소정방(蘇定方) 등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내년 5월에 백제를 치기로 한 것을 알았습니다. 대왕께서 하도 골똘히 바라보고 생각하시므로 여기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치자 없어져 버렸다. 왕이 크게 놀라고 이상히 여겨 장춘·파랑 양가의 자손을 후히 상주고 관리에게 명하여 한산주(漢山州)의 장의사(莊義寺)를 개창하여 그들의 명복을 빌게 하였다.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제5, 태종왕. 659CE)

○ 처음 백제군과 황산(黃山)에서 싸울 때 (신라의) 장춘랑(長春郞)과 파랑(罷郞)이 진중(陣中)에서 죽었다. 뒤에 백제를 칠 때에 태종무열왕의 꿈에 나타나 가로되 "신(臣) 등은 예전에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고 심지어 백골이 되었어도 나라를 완벽하게 지키고자 하여 종군(從軍)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장(唐將) 소정방(蘇定方)의 위세에 눌려 남의 뒤만 쫓으니, 원컨대 왕은 우리에게 적은 군세라도 주십시오." 하였다. 대왕이 놀라고 괴이하다고 여겨 두 혼(魂)을 위하여 하루 동안 모산정(牟山亭)에서 불경을 설(說)하고 또 한산주(漢山州)에 장의사(壯義寺)를 세워 그의 명복을 빌어 주는 터전으로 삼았다. (『삼국유사』 기이, 장춘랑·파랑)

장의사는 오늘날 서울 구기터널 앞 세거리에 있는 세검초등학교 자리에 있던 절이다.[93] 주위는 경관이 좋아서 '한양십영(漢陽十詠)'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었다. 조선시대 문인들 중에는 장의사를 노래한 시를 남겨놓은 이가 적지 않다.[94]

북한산성에 대한 사료는 무열왕 8년(661) 기사에 나온다.

> ○ 5월 9일에 고구려 장군 뇌음신이 말갈장군 생해와 함께 군사를 합쳐가지고 와서 술천성을 공격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옮겨서 북한산성을 쳤다. 적병은 포차를 벌여놓아 날아오는 돌에 맞는대로 성가

93) 민경길, 2004, 『북한산』 3, 132~134쪽, 집문당.

94) 김윤우 편저, 1995, 『북한산 역사지리』 50쪽. 민경길, 2004, 위와 같음.

> 퀴와 집이 무너지므로 성주 대사(大舍) 동타천(冬陀川)이 사람을 시켜 마름쇠를 성밖에 던져 깔아서 사람과 말이 다닐 수 없게 하였다.(『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북한산성이 당시 전략상 중요한 지역임은 668년에 문무왕이 김인문 등 군관들과 20만 명의 부대를 거느리고 북한산성에서 무물렀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95] 이들 북한산성은 아차산성으로 비정되기도 한다.[96]

5. 산신 연구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1) 산신의 성(性)

일찍이 손진태는 산신의 성에 대하여, 산신은 원래 여성이었는데 점차 남성으로 바뀌어갔다고 하였다. 그 까닭은 "중국 전래의 부권본위(父權本位) 사상에 의하여 혹은 그 필연적 사회사상에 의하여 점차로 산신을 남성으로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라고[97] 보았다. 그가 내세우는 근거는 이러하다. 문헌에 보이는 산 이름이 어머니나 할머니를 뜻하는 한자말로 되어 있는데, 요즈음의 산신은 호랑이 탄 남성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정설화되어 지금까지 내려오며,[98] 모권에서 부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설정한 단편적인 글[99]

---

95) 『삼국사기』권44, 열전4, 김인문.

96) 서영일, 2009,「신라의 국가형성과 발전단계에 따른 방어체계 연구」『신라문화』34, 22쪽.

97) 손진태, 1934,「조선 고대 산신의 性에 就하여」『진단학보』1; 1948,『조선민족문화의 연구』, 270쪽, 을유문화사.

98) 김영수(1939,「智異山 聖母祠에 대하여」『진단학보』11,: 1984,『包光全集 한국불교사상논고』, 486쪽, 원광대학교 출판부)의 표현을 들어보겠다. "그 神들은 다 純女權時代에서 起源된 것이므로 그 神像도 婦人像으로 지었고 그 神名도 … ". 아래 책에서도 손진태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홍순창, 앞글, 57~61쪽: 윤열수, 1998,『산신도』, 84~86쪽.

정도가 있다. 그렇지만 여성산신에서 남성산신으로 변화해갔다는 설의 근거 자료나 이론에는 문제가 있어 몇 가지 지적해두고자 한다.

첫째, 인류 역사가 모권사회로부터 부권사회로 이행하였다는 이론은 오늘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100] 둘째, 산신도는 모두 남자신상이라고 단언하였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101] 무엇보다 단군신화에서 환인과 그 아들 환웅, 그다음 세대의 단군을 상기해보자. 이들 천신 내지 산신을 여성이라 할 수는 없다.[102] 앞에서 보았듯이 토함산신 탈해, 웅천(熊川)의 천산(千山) 산령 등은 모두 남자신으로서,[103] 이들을 예외적이라 할 수는 없다.[104]

모계사회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은 외삼촌에게 있으며, 남성

---

99) 이경복, 1974,「산신의 변천과정 – 性을 중심으로」『명지어문학』 6.
조지훈은 夫婦神像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넘어가는 중간 형태라고 보았다. 앞의「누석단·신수·당집 신앙 연구」, 64쪽.

100) C. Levi-Strauss. 1972, *Structural Anthropology (trans. by Claire Jacobson and Brooke G. Schoepf)*, p.8·32, Penguin Books.

101) 당시의 조사나 자료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을지도 모른다. 女山神에 대하여는 윤열수, 1999,「산신도의 유형과 여성산신도」『古文化』 53을 볼 것. 이 밖에도 김태곤,『한국무신도』 88쪽, 열화당, 1989에 여자 산신 그림이 실려 있다. 공주민속극박물관에도 여산신도가 전시되어 있으며, 2002년 '계룡산 산신제' 팸플릿 등을 보면 계룡산 中嶽壇의 산신 그림도 원래는 여성이었다고 한다.

102) 다음과 같이 말하는 이도 있다. "태백산신 환웅천왕과 아사달신 단군이 남신인 것은 다 여신의 변형이다." 문경현, 1991,「신라인의 산악숭배와 산신」『新羅思想의 재조명 –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2』 31쪽, 경주시.

103) 이 산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단하기도 한다. "眞慈師에 산령이 노인으로 변하여 맞이했다는 山靈(神)은 의당 老媼이어야 하는 것이 후대에 男性化한 것이다." 문경현, 1991,「신라인의 산악숭배와 산신」,『新羅思想의 재조명 –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 논문집 12』 30쪽, 경주시.

104) 손진태는 "산신을 … 남성이라고 한 기록은 하나도 찾아지지 않는다."라 한 뒤, 積城縣紺岳祠의 산신이 薛仁貴라(『신증동국여지승람』 11) 하는 것은 "아마 이 지방에서 전해지는 후세에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이라 하였다. 2002,「산천신의 神性과 그 기원」『조선상고문화의 연구』 121쪽, 고려대학교박물관.
이경복은 앞 논문 144쪽에서 단군과 탈해왕을 "예외의 두 가지"라 하였다. 이 밖에도 오종근은 나주의 錦城山神이 남성이므로 처녀를 간택하여 산신당에 재우는 풍속 등의 기록이 조선시대 기록에 보인다 하였다. 2000,『錦城堂과 城隍祠』, 53~54쪽, 동신대학교 박물관. 그는 이것을 두고, 고려시대의 전쟁을 통하여 여성산신이 남성신으로 바뀌었다고 논평하였다(58쪽).

부모를 인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완전한 모계사회로부터 부계사회로의 변화가 실제 역사상에 없었듯이, 산신의 성도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한다. 배서낭[船神]에는 여신이 많다고 하지만,[105] 경우에 따라서는 배주인의 꿈이나 그들이 모시는 당신(堂神)의 性에 따라 남·여신 어느 경우든 가능하다.[106] 산신도 그 산과 관련된 역사나 설화에 따라 남신·여신이 처음부터 공존했다고 필자는 본다. 이미 소개한 바 있듯이 평나산신은 과부=호랑이였는데 호경설화로 말미암아 남성신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인식이 바뀌기에는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고, 그것조차 고려 지배층 쪽의 이야기로 보아야하지 않을까? 현재 남아 있는 조각이나 그림 가운데 여산신으로 표현되어 있거나 또는 남녀 산신이 함께 있는 것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107] 이와 같이 산신의 성이란 이야기꾼의 이해관계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소지가 다분히 있다. 참고로 해신의 예를 들어보자. 서해신이 남성이니까 심청 같은 처녀를 바쳤고, 동해신은 여성이므로 남근을 깎아 바친다고 한다.[108] 그렇지만 강화도에서도 남근을 신당에 깎아 다는 풍속이 있는[109] 것을 보면 서해신을 남신 일변도로만 보기는 어렵다.

참고로 일본의 산신도 여성이어서 그녀에게는 긴타로(金太郎)—전설상의 사내아이로서 산속에서 태어나 동물들과 함께 자라 힘이 세다—와 같은 아들이 있다고 한다.[110]

---

105) 장주근, 1975,「배서낭과 도깨비」『한국의 향토신앙』, 105~106쪽, 을유문화사.

106) 박계홍, 1980,「한국 漁撈民俗의 一考察」『한국민속학』, 12, 70~72쪽, 민속학회.

107) 데이비드 메이슨, 앞 책, 39쪽.

108) 임동권, 1983,「山神考」『한국민속문화론』328쪽, 집문당.

109) 교동 부군당의 예.

110) 여성 산신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사냥꾼들은 이때 독신자가 되어서 숲 속 동물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수렵민의 철학에 의하면 동물이 사는 숲의 세계는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대한 여성적인 세계였습니다. 생명을 낳아주는 어머니이기도 한 셈이죠. 일본에서 '산의 신'에 여성의 이미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수렵행위라는 것은 독신자가 자연이라는 거대한 여성의 체내로 들어가는 거라는 해석이 가능해지지요. 이

2) 산신과 천신·토지신

환웅은 보기에 따라 천신이라 할 수도 있고 산신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 아들 단군은 산신이 되었다. 그렇지만 단군의 할아버지 환인은 천신이니, 천신과 산신은 혈통상 동일 가계이다. 산상왕이 아들을 얻고자 산(천)에 기도드렸드니, 천신이 근심 말라고 응답하였으며, 포산(包山)과 가야산의 신은 모두 천왕이다.

신라 6부의 시조는 모두 산에서 내려왔다. 이를 두고 『삼국유사』 지은이는 "6부의 시조는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고 말하였다. 곧 산신을 천신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발상을 본다. 이 구도는 위로 단군신화에서부터 오늘날의 골맥이 서낭까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단군이 돌아가시어 백악산 아사달의 산신이 되었듯이 후대의 저명한 인물도 돌아간 뒤 산신으로 좌정하곤 한다. 견훤의 사위 박영규는 죽어서 해룡산신이 되었고, 박난봉(朴蘭鳳)은 죽어 인제산신(麟蹄山神)이 되었다.[111]

김영수는 "산신의 정체는 결국 말하자면 '재천(在天)에 천왕이오, 하산(下山)에 산왕'이라"하였다.[112]

요다치호코(依田千百子)는 두 신의 관계에 대하여, 생산 및 인간사 모두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천신을 산신으로서 제사 지내는 것은 한국 동제의 특징이라고 하였다.[113] 조지훈도 누석단·신수(神樹)·당집 신앙의 모티브는 천신숭배요, 이것이 산신·부락신·가신(家神)으로 발

때 사냥꾼에게는 무척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행동규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나카가와 신이치 외, 2004, 『불교가 좋다』, 74·199쪽, 동아시아.

11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0, 순천도호부 인물조.

112) 앞 논문, 466쪽. 비슷한 견해로서 문경현은 "산신은 천신의 分身 내지는 化身이었다. 산신의 본체는 천신으로 二位一體의 신격이었다."라 하였다. 앞 논문, 21쪽. 이필영은 "천신과 산신은 본질상 동일 선상에 있고, 구태여 구별하자면 산신은 천신의 소우주화된 신격이다." 라 하였다. 『마을 신앙의 사회사』 31쪽.

113) 依田千百子, 앞 책, 416쪽.

전된 것이라 하였다.[114]

산은 위로 하늘과 맞닿아 있다고 하겠지만, 땅과는 붙어 있는 존재이다. 앞의 마명산 예에서도 보았듯이 산신 제문에 '토지지신'이 등장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유홍렬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축문의 내용으로 보면 토지신을 제사 지내는 것 같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부락민들이 한가지로 '산신제'니 '도당제'라 하니 산신과 토지신이 혼합되어 있는 듯하다."[115] 이렇게 보면 산신은 토지신과 하나이면서 둘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사료에 자주 보이는 '산천신'이란 바로 이러한 경우를 두고 일컫는 용어라고 생각된다. 허흥식도 "산천은 지령신앙(地靈信仰)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여, "산천은 대표적인 지신이다."라 하였다.[116]

우리는 그동안 천신과 산신의 관계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았나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산신을 천신과 일체로 볼 것이냐, 지신과 일체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관념상의 문제이다. 다만 조선시대의 산천제 자료에 천신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예법상 제왕의 제사에 저촉되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추측해본다.

3) 산신과 성황신

김영수는 산신과 성황은 '같은 신, 다른 이름[一神異名]', 산왕당(山王堂)이 소리가 변하여 선왕당이 된 것을 한자로 바꾸어 성황당이 되었다 하였다.[117] 조지훈은 "성황당이란 것이 신앙 대상은 종래의 천

114) 조지훈, 「누석단·신수·당집 신앙 연구」, 앞 책, 51쪽.

115) 유홍렬, 1937, 「조선의 山土神 숭배에 대한 小考」『新興』 9, 601쪽, 신흥사.

116) 허흥식, 2002, 「世宗朝 山川壇廟의 분포와 祭儀의 변화」『청계사학』 16·17합, 797~798쪽.

117) 김영수, 앞 글, 464~466쪽. 아래 논문에서도 김영수의 설에 따르고 있다. 김태곤, 1970, 「서낭당 연구」『한파 이상옥 기념논문집』, 263~267쪽, 교문사. 문경현, 앞 글, 21쪽. 한편 하효길은 '上王'이 서낭의 어원이라 하였다. 1980, 「뱃고사의 서낭기에 대하여」『한국민속학』 12, 237쪽.

신·산신이면서 표면의 이름만 '성황'이라고 바꾸어지게 되었다."고[118] 하였다. 유동식도 같은 주장을 하여 "산신을 우리말로 '서낭'이라고 부른 듯하다. … 중국의 성황신앙이 소개되자 이와 비슷한 발음과 기능을 가진 서낭신앙을 한문으로 성황(城隍)이라 표기"하였다고[119] 결론지었다. 윤열수는 "조선후기에 들어서 성황사와 산신사가 각기 다른 신앙의 대상처럼 나타나지만 산을 모체로 한다는 점에서 같은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120] 하였다. '천왕'에서 '서낭'으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적지 않다.[121] 이들은 모두 서낭(성황)의 고유신앙설이라 하겠다.

한편 손진태는 선왕당은 성황당의 잘못된 발음으로서 이 둘이 종교적 성질에 있어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22] 이들 어원에 대해서는 선학들도 마찬가지로 고심하였다. 이덕무가 "선왕당은 성황사(城隍祠)의 와전"이라 하였고,[123] 이규경은 "선왕당은 성황이 잘못된 것"이라 하였다.[124] 같은 관점에서 근래 김갑동은 더욱 치밀한 연구를 하여 "성황신앙은 그 기능이나 성격면에서 재래의 산악신앙과는 별개의 것으로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라 하였다.[125] 이들은 말하자면 성황신앙의 외래설(外來說)이다.

성황신의 유래나 산신과의 관계는 복잡·미묘하다. 그 갈래를 잡기 위해서는 민간·민속의 성황[서낭]과 관공서 성황당을 구분해서 보아

---

118) 조지훈, 「누석단·신수·당집 신앙 연구」16쪽.

119) 유동식, 1978, 『한국 무교의 역사와 구조』 180쪽, 연세대학교.

120) 윤열수, 1998, 『산신도』17쪽, 대원사.

121) 변덕진, 1969, 「昌寧一帶의 서낭대에 대하여 - 특히 蓮花旗를 중심으로 하여」『효대논문집』 11~15쪽: 하효길, 1982, 「한국 해안지방 뱃告祀의 형태와 의의」『난사 석주선 고희기념 민속학논총 Ⅱ』 300쪽: 임재해, 「한국인의 산 숭배 전통과 산신신앙의 전승」, 앞 책, 29쪽.

122) 손진태, 1948, 「조선의 누석단과 몽고의 鄂博에 就하여」『조선민족문화의 연구』 167~169쪽.

123) 이덕무, 1981, 『국역 청장관전서』 X, 210쪽, 민족문화추진회.

124)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 43, 華東淫祀辨證說.

125) 김갑동, 1991, 「고려시대의 성황신앙과 지방통치」『한국사연구』 74, 10쪽.

야[126] 어느 정도 공동의 마당에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중국 성황신앙의 영향을 받아 고려 초기부터 전국에 설치되기 시작한 성황당은 말할 것도 없이 외래신앙이다. 처음에 지방세력에 의해 수용되어 지방관이 제사·관리하고, 작위도 올리는 등 중국의 그것과 꼭 같을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설된 성황당이 종래의 산신제사와 연속선상에 있는가 어떤가를 보아야 한다.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보자.

첫째, 성 안에 국가나 고을을 방어하는 수호신적 사당은 중국 성황신앙이 들어오기 전에도 있었다. 고구려의 요동성이 이세적과 당 태종의 공격으로 사태가 급박해졌을 때, 외적을 물리치고자 부녀신(婦女神)을 만들어 성 안의 주몽사당에 넣어주었다. 주몽신을 기쁘게하기 위한 것이라 하는데, 이 사당에는 갑옷과 창이 있었다.[127] 이러한 사당은 산신의 '지역 수호신' 권능을 상기한다면 적어도 지방마다 있었을 것이고, 산성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지형상 성 안, 즉 산 위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둘째, 산신이 그대로 성황신이 된 예이다. 현풍 비슬산(포산)의 성황신 정성대왕은 산신 정성천왕과 같은 신으로서 성황사가 들어서자 새로이 이곳의 주인이 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27, 현풍현 성곽조를 보면 이곳의 산성으로는 '서산성(西山城. 현의 서쪽 4리에 있다 - 원주)' 한 곳만 보인다. 비슬산은 현의 동쪽 15리에 있다. 이것 또한 현풍의 성황사가 성곽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증명한다. 이와 같이 성황신을 '○○대왕'이라 부르는 예는 그 신이 유서 깊은 경우에 한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함경도 안변(安邊)의 성황사는 학성산에 있는데 '선위대왕지신(宣威大王之神)'이라고 속칭한다.[128] 그런데 이 신은 신

126) 서영대, 1998, 「한국·중국의 성황신앙사와 순창의 성황대신사적」 『성황당과 성황제』, 445쪽, 민속원.

127) 『삼국사기』 21, 고구려본기 9, 보장왕 4년 5월.

128) 『신증동국여지승람』 49, 안변도호부, 사묘.

라 중사의 4진(鎭) 가운데 북쪽의 웅곡악(熊谷岳)의 산신이었다.[129]

셋째, 성황신으로 역사상의 인물을 받드는 것은 산신으로 조상신을 모시는 전통과 다르지 않다.

넷째, 이미 김영수·변동명이[130] 보여준 자료이지만, 아래와 같이 산신과 성황신은 구별 없이 쓰이고 있다.

> ○ 무등산신사. 현의 동쪽 14리에 있다. 신라 때는 소사였고, 고려 때는 나라제사를 올렸다. 김주정(金周鼎)이 各官의 성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신들의 이름을 차례로 불러 그 신이함을 알아보았다. 州의 성황은 깃발과 방울이 세 번 울렸다. 김주정이 조정에 보고하여 봉작을 주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35, 광산현, 사묘)

무등산신을 성황(신)이라 불렀다. 이 때문에 성황사에 제사 지냈다고 볼지도 모르겠으나 성황사는 현의 남쪽 5리에 따로 있다.[131]

> ○ (공민왕) 8년(1359) 12월 병자일에 반란군이 일어나서 안팎 산천의 신묘에 제사 지내어 도와달라고 빌었다. 9년 3월 갑오일에 각 도·주·군 성황의 신묘에 전승의 감사제를 지냈다. (『고려사』 63, 예지5)

이처럼 산천신은 곧 성황신이다. 앞에서 소개한 최문한도 '같은 신위, 다른 신이름으로 모셔지고 있다.

다섯째, 성황제사의 실제나 그 관념을 보면, 기존의 산신을 시대의 추이에 따라 '성황'이란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순창의 성황대신사적기는, 순창 성황신이 원래 산신으로서 이미 고려말에 세 차례의 봉작을 받은 바 있다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사적기를 분석해보면 산신

---

129) 신종원, 「단군신화에 보이는 곰[熊]의 실체」, 앞 책, 18~19쪽.

130) 변동명, 「무등산신앙과 광주」, 앞 책, 160쪽.

131) 城隍祠 在縣南五里 (『신증동국여지승람』 35, 光山縣, 祠廟)

은 다시 산성신이 되고, 이윽고 성황신 누구라는 인물신으로 발전해 감을 확인할 수 있다.[132]

여섯째, '성황'은 산신을 가리키는 말일 뿐 아니라 여타의 신도 일컫는 용어이다. 그렇다면 '성황당'·'성황사'도 기존의 신을 새로운 이름으로 부른 것일 수 있다.

『시용향악보』에 실린 고려가요에 성황반(城隍飯)·대왕반(大王飯)이 있다. '성황반'은 사천왕 즉 사방신(四方神)을 노래한 것이고, '대왕반'의 가사에는 '팔위성황 여덟위(位)런 놀오쉬오'가 있다. 제목이나 가사 어디에도 성황신을 의미하는 것은 없다.[133] 오히려 '대왕'이란 '성황'이기도하여 민속에서 신을 일컫는 말이다. 한편 배신[船神] '서낭'도 '성황지신'·'성주지신(成主之神)'·'선왕지신(船王之神)'이라[134] 쓰는 것을 보면 '서낭'은 해신이기도 하다. 그리고 신간(神竿)만을 그냥 '서낭'이라 부르기도 한다.[135]

'서낭'의 어원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까지 본 바로는 '서낭'을 '성황'으로 썼고, 그것은 각종 '신'의 뜻임을 확인하였다. 성황당을 개설하던 사정이 어떠하였건 간에 그것은 이러한 성황=신이라는 동격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성황제가 법도에 맞지 않는다는 조선시대의 의논도 식자들이 읽어서 아는 중국의 성황당과 우리나라의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결국 중국 성황신앙을 받아들여 그것이 나중에 산신신앙과 혼동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애초 산신신앙이 그 이름만 바꿔졌기 때문에 그러한 혼동의 소지는 처음부터 있었다고 하겠다.

---

132) 신종원, 「성황대신사적기와 대왕신앙」, 앞 책.

133) 이들 가요에 대해서는 다음을 볼 것. 김동욱, 1961, 「시용향악보의 배경적 연구」『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박병채, 1994, 『새로 고친 고려가요의 어석 연구』, 국학자료원.

134) 하효길, 1982, 「한국 해안지방 뱃告祀의 형태와 의의」『蘭斯 석주선 박사 고희기념 민속학논총』 299쪽.

135) 조지훈, 1966, 「서낭竿攷」『신라가야문화』 1, 청구대학. 변덕진, 1969, 「昌寧一帶의 서낭대에 대하여 – 특히 蓮花旗를 중심으로 하여」『효대논문집』.

6. 맺음말

우리 겨레가 산에 제사 지낸 것은『삼국지』예조에도 나와 있듯이 오래 된 풍습이었다. 그들이 모시는 산신은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산중의 왕인 호랑이였다. 단군신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지지만 곰과 호랑이는 모두 신적(神的) 존재였다.

고구려·백제·신라 및 가야의 사료를 보면 각기 산신을 섬김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산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져서, 자신들의 시조가 산에서 나왔고, 혹은 돌아가신 뒤 산신이 되었다고 한다. 산신은 때로 전달자(傳達者)가 되어, 까마귀나 노인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 어려운 고비를 넘겨준다.

신라의 나라제사 가운데 가장 큰 제사 대사(大祀)는 3산을 모시는 것이며, 중사에서도 오악이 맨 앞자리를 차지한다. 이렇게 산신제사는 국가적으로 제도화되어갔다.

고려시대의 산악숭배는 기존의 전통을 계승한 위에 새로운 요소가 가미되어, 그 내용이 풍부하고 외형도 화려하였다. 건국 즈음부터 보면, 태조 왕건의 선조 호경은 평나산신이라고 하며, 왕건 자신은 통일과업에서 산령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팔관회를 열어 산신 섬기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고려의 산신제사는 잡사(雜祀)에 편제되어 유교의 길례상으로는 등외(等外)에 위치하는 독특한 형태를 유지하였다.

이즈음 중국의 성황신앙이 들어와서, 지역의 힘 있는 사람을 성황신으로 배향하는 사례가 종종 보인다. 그런데 성황당의 위치가 대개는 산에 있으며, 자신들의 조상을 산신으로 모시는 전통은 고조선 이래의 것이다. 따라서 용어나 형식면에서 변화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 본질은 외래의 것이라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산신신앙에 도교적 요소가 가미되는 것이 고려시대 산신신앙의 외래적 요소로서 특기할 만하다.

산신의 영험에 힘입어 국난을 타개했다는 의논이 받아들여지면, 그 산신에 작호(爵號)를 올리며, 이에 따라 고을의 격(格)이 올라가게 된다. 이 때문에 인접 지역간에 미묘한 갈등이 생기곤하였다.

성리학을 그 지배이념으로 취한 조선왕조에 들어와, 사대부들의 산신관은 불교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금압적(禁壓的)이었다. 산신제사는 국가제사의 소사(小祀)에 편제되었으며, 일체의 신상이나 봉작을 없애는 조치를 하였다. 그렇지만 이 법령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산신신앙은 성황신앙과 함께 지역사회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해나갔다.

산신신앙은 불교 사찰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난다. 경내에 산신의 신위를 새겨놓고 예배하다가, 18세기에 들어서면 별도의 건물을 마련하고, 여기에 더하여 산신도를 그려 모셨다.

이렇게 산신신앙을 종합·고찰해 보면 산신의 유형은 대략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산에 서식하는 동·식물이나 그 생산물을 관장하는, 가장 자연적인 모습을 '산림의 주인'이라 명명해보았다. 둘째, 마을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구성원을 보호하고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지역 수호신'이다. 셋째는 인간과 더 가까운 관계를 설정해놓은 것으로서, 마을의 입향시조로부터 개국시조에 이르는 인물을 '조상신(祖上神)'으로 섬기는 산신이다.

산신의 성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옮겨갔다는 주장은, 당시 유행했던 인류학적 이론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며, 실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산신은 위로 천신과 동일체이기도 하지만, 토지신과도 연결된다. 근래의 산신 제문은 오히려 후자의 경우가 더 많다. 이와 같이 산신의 모습은 그야말로 복잡하고 때로는 애매한 면이 있다.

위와 같은 큰 흐름에서 고대의 삼각산 사료를 살펴본 결과를 요약해보겠다. 부아악·횡악 등으로도 불리었던 삼각산은 이미 백제 건국 시절부터 신령한 산의 자취를 남기고 있다. 왕들은 이곳에서 망제를

지내거나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을 위무하였다. 한때는 고구려가 차지하기도 했던 한강하류의 이 지역은 6세기 중엽 이후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진흥왕은 이곳에 행차하여 영역을 확인하고 인민을 위무하는 순수(巡狩) 행위를 하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긴장과 경건을 요하는 일은 이곳에 와서 올렸을 산신제다. 비봉, 승가사 등은 그 중요한 유적이며, 근래의 연구에서는 제사터로서 사모바위의 넓은 터가 주목되고 있다. 이윽고 신라는 부아악을 나라의 적은 제사 즉 소사(小祀)에 편입시켜 항시적이고 제도적으로 산신을 위하였다.

오늘날의 서울, 삼각산 일대가 군사적으로도 삼국의 각축장이 되었던 것은 장의사(莊義寺)의 창건연기가 잘 말해준다. 장의사 일대가 경치로서도 손꼽히는 곳임은 조선시대의 시문(詩文)을 보아도 알 만하다. 오늘날 삼각산 일대에 절이 많고, 무속 또한 성행함은 삼국시대 나아가 선사시대 이래 이곳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었던 유풍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은경, 2005,「고려시대의 국가, 지역 차원 제의와 개인적 신앙」『동방학지』129.

김갑동, 1991,「고려시대의 성황신앙과 지방통치」『한국사연구』74.

_____, 1993,「고려시대의 산신신앙」『진산 한기두 기념 한국종교사상의 재조명』.

김강산, 1988,『虎食葬』, 태백문화원.

김동욱, 1961,「시용향악보의 배경적 연구」『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김영수, 1939,「智異山 聖母祠에 대하여」『진단학보』1.

_____, 1984,「지리산 성모사에 대하여」『포광 김영수 전집 한국불교사상논고』, 원광대학교.

김윤우 편저, 1995,『북한산 역사지리』.

김정배, 1972,「濊貊과 濊와 貊」·「한국에 있어서의 南方文化論」『한국민족문화의 기원』, 고려대학교 출판부.

김진순, 2000,「산메기 현지연구 - 강원도 삼척지역을 중심으로」『역사민속학』10.

김철웅, 2001,『고려시대「雜祀」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02,「고려 국가제사의 체제와 그 특징」『한국사연구』118.

김태곤, 1970,「서낭당 연구」『한파 이상옥 기념논문집』, 교문사.

김택규 편, 1982,『한국민속연구논문선』1, 일조각.

김형우, 1996,『한국사찰의 산신신앙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나카가와 신이치 외, 2004,『불교가 좋다』, 동아시아.

나희라, 2016,「신라초기 천신신앙과 산악숭배」『한국고대사연구』82.

_____, 2003,『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목포대학교, 1992,『南岳祠址地表調査報告書』, 구례군.

문경현, 1991,「신라인의 산악숭배와 산신」『신라사상의 재조명 -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2』.

민경길, 2004,『북한산』3, 집문당.

박계홍, 1980,「한국 漁撈民俗의 一考察」『한국민속학』12, 민속학회.

박병채, 1994,『새로 고친 고려가요의 어석 연구』, 국학자료원.

박영완, 1992,「강릉 임영지 연구」『강원민속학』9.

박호원, 1995,「고려의 산신신앙」『민속학연구』2, 국립민속박물관.

변덕진, 1969,「昌寧一帶의 서낭대에 대하여 - 특히 蓮花旗를 중심으로 하여」『효대논문집』.

변동명, 2000,「고려후기의 무등산신앙과 광주」『동아연구』38, 서강대학교

_____, 2001,「고려 후기의 금성산신과 무등산신」『남도문화연구』7.

_____, 2001,「高麗時期의 羅州 錦城山信仰」『전남사학』16.

三品彰英, 1943,『新羅花郎の研究』.

서영대, 1992,「동예 사회의 虎神崇拜에 대하여」『역사민속학』2, 이론과 실천사.

_____, 1998,「한국·중국의 성황신앙사와 순창의 성황대신사적」『성황당과 성황제』, 민속원.

손진대, 1948,『조선민족문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_____, 1934,「조선 고대 산신의 性에 就하여」『진단학보』1 .

_____, 1948,「조선의 누석단과 몽고의 鄂博에 就하여」『조선민족문화의 연구』.

신종원, 1982,「삼국유사 욱면비염불서승조에 대한 일고찰」『사총』26.

_____, 1992,「신라 祀典의 성립과 의의」『신라초기불교사 연구』.

_____, 1994,「치악산 石南寺址의 推定과 현존민속」『정신문화연구』17-1 (통권 제54).

_____, 1995,「강원도 북부 남북한 접경지역의 향토문화 조사」『강원민속학』11.

_____, 1996,「삼국유사 선덕왕지기삼사조의 몇 가지 문제」『신라와 낭산 -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7』. 1998.

_____, 1998,「성황대신사적기와 대왕신앙」『성황당과 성황제』, 민속원.

_____, 2001,「襄陽郡 현남면 웃달내 마을 大王祭 參觀記」『강원지역문화연구』1.

_____, 2002,「단군신화에 보이는 곰(熊)의 실체」『한국사연구』118.

_____, 2002,「대왕신앙으로 본 단종 숭배의 민속」『영월지방 민속신앙과 서낭당 조사』, 영월문화원.

_____, 2004,「단군신화에 보이는 나무신앙 및 역사인식」『삼국유사 새로 읽기(1)』, 일지사.

안지원, 1999,「고려시대 국가 불교의례 연구 - 연등·팔관회와 제석도량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양보경, 2002,「우리 민족의 전통적 山地觀과 백두대간」『백두대간의 자연과 인간』, 산악문화.

오경후, 2009,「1910년대 今西龍의 삼각산 명칭해석에 대한 검토」『한국사상과 문화』47.

오종근, 2000,『錦城堂과 城隍祠』, 동신대학교 박물관.

유동식, 1978,『한국 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학교.

유원재, 1994,「사비시대의 三山 숭배」『백제의 종교와 사상』, 충청남도.

유홍렬, 1937,「조선의 山土神 숭배에 대한 小考」『新興』9, 신흥사.

윤열수, 1998,『산신도』, 대원사.

_____, 1999,「산신도의 유형과 여성산신도」『古文化』53.

윤용진, 1992,「義城 花田洞 造山遺蹟」『고문화』40·41, 한국박물관협회.

依田千百子, 1985,「朝鮮の山神信仰」『朝鮮民族文化の研究』, 琉璃書房.

이경복, 1974,「산신의 변천과정 - 性을 중심으로」『명지어문학』6.

이기백, 1974,「신라 오악의 성립과 그 의의」『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이병도, 1980,『고려시대의 연구』(개정판), 아세아문화사.

이　욱, 1998,「조선 전기 유교국가의 성립과 국가제사의 변화」『한국사연구』118.

_____, 2002,「조선 전기의 산천제」『종교학연구』17,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소.

이재범, 1989,「최씨정권의 성립과 산천비보도감」,『成大史林』5.

이청규, 2002,「한국의 원시·고대 남방문화론에 대하여」『강좌 한국고대사』9, 가락국사적개발원.

이필영, 1994,『마을 신앙의 사회사』, 웅진출판.

임동권, 1983,「山神考」『한국민속문화론』, 집문당.

임재해, 2002,「한국인의 산 숭배 전통과 산신신앙의 전승」『산과 우리문화』, 숲과 문화 총서 10, 수문출판사.

임평섭, 2014,「신라의 산천제사와 진흥왕순수비 입석 목적의 연관성: 북한산비를 중심으로 살펴본 巡狩 행적에서의 祀」『신라문화』43.

장정룡, 1993,「강원지역 산맥이 신앙 고찰」『한국민속학』25.

장주근, 1975,「배서낭과 도깨비」『한국의 향토신앙』, 을유문화사.

_____, 1979,「영남의 골맥이 동제당」『한국의 향토신앙』, 을유문고.

정재서, 2001,「한국도교의 기원론에 대한 검토」『한국종교연구』3.

조지훈, 1963,「累石壇·神樹·堂집 신앙연구 - 서낭考」『문리논집 문학부편』 7, 고려대학교.

_____, 1963,「累石壇·神樹·堂집 신앙연구 - 서낭考」『文理論集 文學部篇』 7, 고려대학교.

_____, 1966,「서낭竿攷」『신라가야문화』1, 청구대학.

채미하, 2008,『신라의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최래옥, 1978,「한국산신의 성격변화 - 智異山 산신과 이성계 설화를 중심으로」『향토문화연구』1, 원광대학교.

하효길, 1980,「뱃고사의 서낭기에 대하여」『한국민속학』12.

_____, 1982,「한국 해안지방 뱃告祀의 형태와 의의」『난사 석주선 고희기념 민속학논총 Ⅱ』.

한상복, 1965,「한국 산촌주민의 의식과 신앙」『한국사회학』2.

허흥식, 2002,「고려사 지리지에 실린 名所와 山川壇廟와의 관계」『한국사연구』117.

_____, 2002,「世宗時 山川壇廟의 分布와 祭儀의 변화」『청계사학』16·17.

홍순창, 1983,「신라 삼산·오악에 대하여」『신라 민속의 신연구 -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4』, 경주시.

황재연, 2001,『조선후기의 佛事와 그 배경 - 건봉사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문헌에 나타난 삼각산의 산신과 기우제

채미하*

1. 머리말 • 181

2. 산천제사의 정비와 삼각산 • 182

3. 삼각산 산신과 산천신 • 191

4. 기우제와 삼각산 • 202

5. 맺음말 • 213

참고문헌 • 215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1. 머리말

金正浩의『대동지지』권1 漢城府 山水條에는 "三角山 距府北十五里 百濟稱負兒岳 又云橫岳 又云華山"이라고 하였다. 이로 볼 때 삼각산은 백제시기에 부아악이라고 불렸으며 또는 횡악, 화산이라고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삼각산이라는 명칭은 고려 이후부터 사용되었는데, 도읍인 개경에서 볼 때 백운대·인수봉·만경대(국망봉) 3봉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삼각산은 조선에 숙종 때 북한산성이 축조된 뒤에는 북한산과 삼각산이 혼용되어, 山城을 가리킬 때에는 북한산으로 부르고, 名山大川의 하나로 국가제사의 대상이 될 때에는 삼각산으로 불렸다.[1)]

이와 같이 삼각산이라는 명칭은 국가제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백제시기부터 삼각산에 기우제를 지냈으며 통일 이후 신라에서는 삼각산을 국가제사의 하나인 소사에 편제하였고 고려를 거쳐 조선에서는 삼각산을 중사에 편제시켰다. 이처럼 삼각산은 국가의 중요한 산천제사의 하나였다. 지금까지 한국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국가제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왔고 산천제사에 대한 연구 역시 마찬가지였다.[2)] 이 중 산천제사와 관련해서 각 시기의 산천제사와 그것의 정비 및 그 의미에 대해서는 고찰하였지만, 삼각산만을 단독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각 시대의 산천제사에서 삼각산이 정비되어가는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각 산천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삼각산의 산신에 대한 제사의 형태를 살펴보고 삼각산신의 역

---

1) 삼각산의 명칭과 관련해서
今西龍, 1917,「京畿道高陽郡北漢山遺蹟調査報告書」, 朝鮮總督府 및 오경후, 2009,「1910년대 今西龍의 삼각산 명칭해석에 대한 검토」,『한국사상과문화』47 참고.

2) 이 중 단행본으로 간행된 저서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최광식, 1994,『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채미하, 2008,『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김철웅, 2007,『한국중세의 길례와 잡사』, 경인문화사; 한형주, 2002,『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 일조각 등이 있다.

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산천신의 기능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산천제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우제이다. 특히 조선시대 기우제는 여러 차례 정비되는데, 이 과정에서 삼각산에서 행한 기우제의 특징을 검토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韓國史像에서 삼각산이 국가제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산천제사의 정비와 삼각산

조선 태조 2년(1393) 삼각산을 비롯한 전국의 명산대천과 성황, 해도의 신에게 봉작을 내렸는데, 삼각산은 護國伯에 봉해졌다.[3] 분봉의 사상적 기원은 『書經』 舜典에 "封十有二山"에서 알 수 있으며, 『예기』 왕제편의 "天子祭天下名山大川 五嶽視三公 四瀆視諸侯"라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당 측천무후는 洛水神을 顯聖侯로, 嵩山神을 嶽天中王으로 봉하고 있다.[4] 이로 보면 산천에 대한 분봉은 당 측천무후로부터였다.[5] 그리고 先天 2년(713)과 開元 13년(725)에 華岳神을 金天王으로 泰山神을 天齊王으로 봉하고, 天寶 5년(746)과 10년에는 오악과 사해의 신을 모두 王으로 봉하였고 사진·사독은 公으로 봉하였다.[6]

---

3) 이조에서 境內의 名山·大川, 城隍·海島의 神을 封하기를 청하니, 松岳의 성황은 鎭國公이라 하고, 和寧·安邊·完山의 성황은 啓國伯이라 하고, 智異山·無等山·錦城山·鷄龍山·紺嶽山·삼각산·白嶽의 여러 산과 晉州의 성황은 護國伯이라 하고, 그 나머지는 호국의 신이라 하였으니, 대개 大司成 劉敬이 진술한 말에 따라서 예조에 명하여 상정한 것이었다. (『태조실록』 권3, 태조 2년 1월 21일(丁卯)).

4) (則天)武后垂拱四年 封洛水神爲顯聖侯 享齊於四瀆 封嵩山爲神嶽天中王(하략) (『文獻通考』 83, 郊社考16, 祀山川).

5) 김태영, 1973, 「조선초기 사전의 성립에 대하여」, 『역사학보』 58, 註39) 참고.

6) 先天二年 封華岳神爲金天王 開元十三年 封泰山神爲天齊王 天寶五載 封中岳神爲中天王 南岳神爲司天王 北岳神爲安天王 六載 河瀆封爲靈源公 濟瀆封爲淸源公 江瀆封爲廣源公 淮瀆封爲長源公 會稽山爲永興公 岳山爲成德公 霍山爲應聖公 醫無閭山爲廣寧公 八載閏六月 封太白山爲神應公 其九州鎭山 除入諸岳外 並宜封公 十載正月 以東海爲廣德王 南海爲廣利王 西海爲廣潤王 北海爲廣澤王 分命卿監詣岳瀆及山 取三月十七日 一時備禮 兼冊祭 儀具開元禮(『通典』 예6, 연혁6, 길례5, 산천).『文苑英華』 879(『韓昌黎集』 31, 南海神廟碑)도 참고.

신라의 대왕 봉작은 산신을 모시는 사당의 설치[7]와 함께 오악이 성립할 때 있었다.[8] 그리고 다음도 주목된다.

1) ① 재위 23년 建初 4년 己卯에 죽었다. 疏川丘 속에 장사지냈다. 후에 신의 명령이 있어 "내 뼈를 조심히 묻으라"고 하였다. (…) 뼈를 부숴 塑像을 만들어 대궐 안에 두었다.
② 신이 또 말하기를 "내 뼈를 東岳에 안치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곳에 모셨다(혹은 왕이 죽은 뒤 27대 문무왕 때인 調露 2년 庚辰 3월 15일 辛酉 밤에 太宗의 꿈에 몹시 사나운 노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탈해이다. 내 뼈를 소천구에서 파내 소상을 만들어 토함산에 안치하라'고 하였다. 왕을 그 말을 따랐다. 때문에 지금까지 [至今] 國祀가 끊이지 않았으니, 동악신이라고 한다). (『삼국유사』 1, 기이1, 제4탈해왕)

2) ① 왕이 죽었다. 未召疏井丘 안에 水葬하였다. ② 塑骨을 동악에 두었는데, 지금의[今] 동악대왕이다. (『삼국유사』 1, 왕력1, 제4탈해이질금)

---

7) 이기백, 1974,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209쪽. 오악에는 각기 산신이 있었고, 이 산신들을 彫像하여 모시는 사당이 있었다. 산신을 모시는 聖母祠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적어도 신라의 오악이 성립할 때는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기백, 1974, 위의 책, 208~209쪽). 신라의 山川神祠로 仙桃山 神母祠(中國 帝室王女 婆蘇), 雲悌山 聖母祠(南解王妃 雲悌夫人), 伽倻山 聖母祠(伽倻國王妃 正見王后), 地理山 聖母祠(高麗 太祖 太祖母), 雉述嶺 神母祠(朴堤上 妻), 東岳 神祠(脫解王), 胎靈山 神祠(金庾信)가 있는데, 산신이 인격신일 때 신사를 세웠다고 한다(김영진, 1985, 『한국자연신앙연구』, 민속원, 68~69쪽). 한편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祠廟에서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것은 北魏 시대 이후로 추정하고 있고, 당대에 국가제사 차원에서 사묘에서 드리는 산천제사가 처음으로 채택되는 것은 무측천정권의 성립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김상범, 2005, 『당대 국가권력과 민간신앙』, 신서원, 46쪽 및 48쪽). 그리고『위서』 예지의 기록에 의하면 泰常 3년(418)에 수도 부근의 祭地에 5악4진을 제사하는 廟宇가 국가주도로 건립되었고 지방에도 현지 자연신을 제사 드리는 324개소의 묘우가 지정되었다. 또한 太延 원년(435)에 이르면 국가의 명의로 恒嶽·華嶽·嵩嶽 등 5악신의 소재지에도 사묘가 세워졌다고 한다(『魏書』 108, 禮志1).

8) 문경현, 1992, 「신라의 산악숭배와 산신」, 『신라사상의 재조명』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 논문집 12), 35쪽. 한편 서술신모에게 대왕의 봉작을 한 사실도 있다. 第五十四代景明王好使鷹 嘗登此放鷹而失之 禱於神母曰 若得鷹 當封爵 俄而鷹飛來止机上 因封爵大王焉 (『삼국유사』 권5, 감통 7, 선도성모수희불사) 곧 경명왕은 西述神母의 영험으로 잃었던 매를 찾자, 서술신모에게 대왕의 봉작을 올리고 있다.

위의 사료에서 탈해의 소상이 토함산에 안치되어 동악신이라 불리었다고 한다(1). 또 그것이 '동악대왕'이라 불리기도 하였다(2). 사료의 '至今', '今'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대왕'을 칭했을 가능성이 있다. 신라의 남악 지리산과 중악 공산의 산신도 고려시대 대왕으로 호칭되고 있다.[9]

고려의 경우 비록 명산대천이 잡사에 편제되어 있지만, 각 명산대천에 대해 봉호를 내리고 있다. 加號는 목종 즉위년(997) 국내 신들에게 勳號를 사여한 이래[10] 성종대 유교의례의 정비를 거친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경내 신들에게 가호한 것은 성종대 유교적 통치이념의 정비와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전국토가 왕의 領地에 속한다고 하는 왕토의식의 관념과도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11] 그리고 고려 후기 예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명산대천에 대한 봉작이 이루어졌고,[12] 조선 초기까지 계속되었다.[13]

하지만 조선 초에 행해진 명산대천·성황·해도에 행해진 봉작은 오래지 않아 사라졌는데, 이것은 유교적 사전 체계 정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은 산천제사의 정비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 **예조에서 산천의 祀典제도를 올렸다. "삼가 당『예악지』를 보니, 嶽·鎭·海·瀆은 중사로 하였고, 산림천택은 소사로 하였고,『문헌통고』의 宋나라 제도에서도 악·진·해·독은 중사로 하였습니다. 본조에서는**

---

9) 고려시대 이규보가 지은『동국이상국집』권38, 道場齋醮祭文에 智異山大王前願文·祭公山大王文·獻馬公山大王文·公山大王謝祭文이 실려 있다.

10) 목종은 즉위년 12월에 "國內神祇 皆加勳號", 7년 11월에 "加方嶽州鎭神祇勳號"하였다. 그리고 목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현종은 즉위년 4월에 "群望神祇 加勳號"하였다.

11) 박호원, 1995,「고려의 산신신앙」,『민속학연구』2, 191쪽.

12) 김철웅, 2000,「고려시대 잡사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6~147쪽: 2007, 앞의 책.

13) 이와 관련해서
채미하, 2007,「신라의 명산대천의 사전 편제 이유와 특징」,『민속학연구』20 및 2008,「신라의 사해와 사독」,『역사민속학』26 참고.

> 前朝의 제도를 이어받아 산천의 제사는 等第를 나누지 않았는데, 경내의 명산대천과 여러 산천을 빌건대 古制에 의하여 등제를 나누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악·해·독은 중사로 삼고, 여러 산천은 소사로 삼았다. 경성 삼각산의 신·한강의 신, 경기의 송악산·덕진, 충청도의 웅진, 경기도의 가야진, 전라도의 지리산·남해, 강원도의 동해, 풍해도의 서해, 영길도의 비백산, 평안도의 압록강·평양강은 모두 중사이고, 경성의 목멱, 경기의 오관산·감악산·양진, 충청도의 계룡산·죽령산·양진명소, 경상도의 울불신·주흘산, 전라도의 전주 성황·금성산, 강원도의 치악산·의관령·덕진명소, 풍해도의 우이산·장산곶이[長山串]·아사진·송곶이[松串], 영길도의 영흥성황·함흥성황·비류수, 평안도의 청천강·구진닉수는 모두 소사이니, 전에는 所在官에서 행하던 것이다. 경기의 용호산·화악, 경상도의 진주성황, 영길도의 현덕진·백두산, 이것들은 모두 옛날 그대로 소재관에서 스스로 행하게 하고, 영안성·정주목감·구룡산·인달암은 모두 革去하였다. 또 아뢰었다. "개성의 대정·우봉의 박연은 이미 명산대천이 아니니, 빌건대, 화악산·용호산의 예에 의하여 소재관에서 제사를 행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8월 21일(辛酉))

위의 사료를 보면 태종 14년(1414) 8월 예조에서는 산천의 등제를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태종은 악·해·독을 중사로 삼았고 여러 산천을 소사로 정하였다. 이때 경성 삼각산의 신·한강의 신 등이 중사였고 경성의 목멱 등이 소사였다.

전근대 동아시아 국가제사는 대·중·소사에 편제되었다. 이 중 산천제사가 국가제사에 편입되어 상례화된 것은 漢 神爵 원년(서기전 61)으로, 태산과 황하의 제사는 매년 5차례, 江水는 매년 4차례, 그 밖의 것은 3차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규정되었다.[14] 그리고 隋代에는 四望이 중사에,[15] 諸山川이 소사에, 당대에는 五嶽·四鎭·四海·四瀆에 대한 제사가 중사에 山林川澤이 소사에 편제되었다.[16] 신라의 경

14) 『漢書』 郊祀志(下). 김상범, 2005, 앞의 책, 44쪽도 참고.

15) 『隋書』 禮儀志.

우에는 대·중·소사가 모두 산천으로 편제되었고[17] 고려의 경우 산천 제사는 雜祀에 편제되었으며[18] 조선시대에는 嶽·海·瀆과 山川이 중사에, 名山大川이 소사에 편제하였다.[19]

삼각산은 백제의 부아악으로,[20] 백제는 도읍을 한산 부아악에 정하였다고 한다.[21] 그리고 백제 진사왕은 왕 5년(389)에 횡악에서 田獵을 하였으며[22] 아신왕 11년(402)에는 기우제를 지냈다.[23] 여기의 횡악은 삼각산으로 비정된다.[24] 이로 볼 때 삼각산은 백제 한성시대부터 신성한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이 지역은 신라 진흥왕이 왕 14년(553)에 新州를 설치하였고[25] 동왕 16년에 북한산을 순행하면서 신라 영토로 확정지었다.[26] 이후 부아악은 신라의 국가제사에 편제되었는데, 『삼국사기』 제사지 신라조를 보면 소사에 편제되어 있다. 고려 왕의 삼각산 행차와 관련해서는 다음이 주목된다.

---

16) 당 개원령 7년조와 25년조.

17) 『삼국사기』 권32, 잡지 1, 제사.

18) 『고려사』 권63, 지 17, 예 5 길례 소사 잡사.

19) 『國朝五禮序例』 권1, 吉禮 辨祀.

20) 부아악은 북한산의 제일봉인 인수봉의 옛날 이름으로 그 뒤편에 또 하나의 바위가 붙어 마치 아이를 업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어 그러한 이름을 얻었다(정약용, 『아방강역고』 3; 이병도, 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491~497쪽).

21) (…)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와서 태자가 되자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烏干·馬黎 등 열 명의 신하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따라오는 백성들이 많았다. 드디어 漢山에 이르러 負兒嶽에 올라가 살 만한 곳을 바라보았다. 비류는 해변에 살기를 원하였으나 열 명의 신하가 간하기를 "생각건대 이 河南의 땅은 북쪽은 漢水를 띠고, 동쪽은 높은 산이 있고 남쪽은 비옥한 토지가 펼쳐졌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와 닿아 있어 天險의 地勢는 얻기 어려우니 이곳에 都邑을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비류는 듣지 않고 그 백성을 나누어 彌鄒忽(인천)로 가서 살았다. 온조는 河南慰禮城에 도읍을 정하고 열 신하의 도움을 받아 國號를 十濟라 하였다고 한다.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1, 시조 온조왕 즉위년조).『삼국유사』 권1, 기이1, 南扶餘 前百濟 北扶餘조도 참고.

22)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 3 진사왕 5년. 다루왕 4년(31) 9월 및 기루왕 17년(93)도 참고.

23)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 3 아신왕 11년.

24) 한국학중앙연구원, 1997, 『역주 삼국사기』 3 주석편(상), 519쪽 및 615쪽.

25) 秋七月 取百濟東北鄙 置新州 以阿湌武力爲軍主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4, 진흥왕 14년); 秋七月 新羅取東北鄙 置新州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 4, 성왕 31년).

26) 冬十月 王巡幸北漢山 拓定封疆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4, 진흥왕 16년).

왕성의 모든 문은 초창기에 만든 문이다. 宣義門은 使者가 출입하는 곳이고, 北昌門은 사자가 回程(돌아가는 길)하거나 祠廟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매우 엄숙하게 꾸며졌는데, 다른 문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북창문은 三角山으로 통한다(…)"[27] (『선화봉사고려동도경』 4, 궁궐문 외문)

위의 사료에 따르면 북창문은 고려에 온 사자가 돌아갈 때 지니는 문 내지는 사묘에 대한 제사를 행하는 지나가는 문으로 다른 문보다는 엄숙하게 꾸며졌으며, 삼각산으로 통한다고 하였다. 고려 왕들은 삼각산에 행차하였는데,[28] 북창문을 통해 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삼각산은 고려의 국가제사인 잡사에 편제되어 제사지냈을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이 참고된다.

1) 詔書를 내려 말하기를, "기묘년(1099)에 삼각산에 행차하면서 거쳐 간 곳의 명산대천 神號에 각각 仁聖 두 글자를 더하고, 소재하는 주현에서는 이것을 알리는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고려사』 권11, 세가 11, 숙종 6년(1101) 3월 29일(庚寅))

---

27) 王城諸門 大率草創 唯宣義門 以使者出入之所 北昌門 爲使者回程祠廟之路 故極加嚴飾 他不逮也 (…) 北昌門通三角山 (…).

28) (왕이) 삼각산에 행차하였다. (『고려사』 권6, 세가 6, 정종 2년(1036) 3월 9일(戊子); 왕이 삼각산에 행차하였다. (『고려사』 권6, 세가 7, 문종 5년(1051) 10월 12일(庚寅); 왕이 태후를 모시고 삼각산에 행차하였다. (『고려사』 권10, 세가 10, 선종 7년(1090) 10월 15일(丙午)): 겨울 10월 왕이 태후를 모시고 삼각산에 행차하였는데, 길 가운데에서 나이가 100세인 사람 및 80세인 사람 3인을 보고는 각기 물품을 하사한 뒤 위문하였다. (『고려사절요』 권6, 선종 7년); (왕이) 삼각산에서 돌아와 사면령을 내렸다. (『고려사』 권10, 세가 10, 선종 7년(1090) 11월 1일(辛酉)): 11월 삼각산에서 돌아와 사면령을 내렸다. (『고려사절요』 권6, 선종 7년); 왕이 왕비, 元子, 兩府의 여러 관료 및 祐世僧統을 데리고 삼각산에 행차하였다. (『고려사』 권11, 세가 11, 숙종 4년(1099) 9월 28일(丁卯)): 왕이 왕비·원자와 더불어 三角山에 행차하였다. (『고려사절요』 권6, 숙종 4년 9월 28일(정묘)); (왕이) 삼각산 藏義寺에 행차하고, 나아가 僧伽窟까지 행차하였다. (『고려사』 권13, 세가 13, 예종 5년(1110) 윤8월 25일(辛酉): 왕이 태후를 모시고 南京에 행차하였는데, 마침내 삼각산 장의사 및 승가굴에 행차하였다. (『고려사절요』 권7, 예종 5년 윤8월 7일(癸卯)); (왕이) 삼각산 승가사·文殊寺·장의사 등의 절에 행차하였다. (『고려사』 권18, 세가 18, 의종 21년(1167) 9월 5일(己巳)): 삼각산 승가사·문수사·장의사 등에 행차하였다. (『고려사절요』 권11, 의종 21년 9월).

2) 숙종이 4월 무신 기묘년(1099)에 삼각산으로 행차하였을 때 지나갔던 명산대천의 신들을 합하여 개성 및 양주에서 제사 지냈다. (『고려사』 63, 지 17, 예 5 길례 소사 잡사)

위의 내용을 보면 고려 숙종이 삼각산에 행차하면서 지나간 명산대천의 신들에게 신호를 더 하고 제사 지냈다고 한다. 이처럼 고려 왕의 삼각산 행차에서 주변 명산대천에 대한 신호를 내리고 제사 지낸 것은 삼각산이 고려의 산천제사에서 지니는 위상을 알 수 있는 것이다.[29] 이와 같은 삼각산은 나라의 중심이 개경에서 한성으로 바뀌면서 조선시대 최고 위상을 가진 산악이 되었다. 따라서 도읍의 진산인 삼각산은 조선의 국가제사에서 중사로 편제되었다.

조선은 건국 이후 삼각산 등 산천제사에 대한 여러 제도를 정비하였는데, 태종 14년(1414) 9월에 예조에서 산천에 관한 祭祀儀註도 올렸다.[30] 다음 해 4월에는 春秋 仲月에 산천제를 지내도록 하였다.[31] 태종 16년 9월에는 예조에 악·해·독과 산천에 대한 제사를 행하는 관원을 정하도록 하였는데, 畿內는 朝官을 보내고 畿外는 소재지의 감사와 각 고을의 수령이 때에 맞추어 제사하고 보도하도록 하였다.[32] 세종 때에는 山川壇廟巡審別監이 전국 산천의 제장을 조사하는 등[33] 산

29) 한편 "(의종) 6년(1151) 9월 계사(2)에 삼각산 負兒峰의 바위가 무너졌다." (『고려사』 권55, 지9 오행 3(토))고 하였다.

30) 예조에서 諸祀儀를 올렸다. 단군·기자·고려 시조에게 제사하는 儀註와 영성·마조·사한·산천에 제사하는 의주와 오랫동안 비가 와서 國門에 禜祭하는 의주를 상정하여서 아뢰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1414) 9월 8일(戊寅)).

31) 예조에서 산천의 제례를 아뢰었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이 앞서는 春秋의 仲月을 당할 때마다 제사를 행하였었는데, 갑오년부터 月令에 의하여 5월에 이르러 또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빌건대, 舊制에 의하여 춘추의 중월에만 제사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권29, 태종 15년(1415) 4월 1일(戊辰)).

32) 禮曹에서 嶽瀆·山川에 제사를 행하는 식을 올리기를, "畿內는 朝官을 差遣하고 畿外는 소재지의 감사와 각 고을의 수령이 때로 제사하여 고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권32, 태종 16년(1416) 9월 3일(辛卯)).

33) 『세종실록』 권49, 세종 12년 8월 6일(甲戌); 『세종실록』 권76, 세종 19년 3월 13일(癸卯). 산천단묘순심별감의 활동과 관련해서 허흥식, 2002, 「세종시 산천단묘의 분포와 제의의 변화」, 『청계사학』17·18 참고.

천제를 정비하였다.

이와 같은 산천제 정비는 세종대의 『세종실록오례의』를 거쳐 성종대 국조오례의에서 완결되었다. 조선시대의 악·해·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中祀 (…) 嶽海瀆(智異山全羅道南原南 三角山漢城府中 松嶽山開城府西 鼻白山永吉道定平北 東海江原道襄州東 南海全羅道羅州南 西海豊海道豊川西 熊津忠淸道燕岐 伽倻津慶尙道梁山 已上南 漢江漢城府中 德津京畿臨津 平壤江平安道平壤府 鴨綠江平安道義州 已上西 豆滿江咸吉道慶源) (…) 小祀 (…) 名山大川 (…) (『세종실록』 권128, 오례, 길례서례(변사))

위의 사료에 따르면 중사에 편제된 악, 해, 독은 4악, 3해, 7독체제로 되어있으며 소사에 명산대천을 편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산천제사가 국가제사에 편제된 모습은 『국조오례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세종실록오례의」와 『국조오례의」의 산천관련의례를 〈표 1〉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세종실록오례의」와 『국조오례의」의 산천관련의례

『五禮儀』	『國朝五禮儀』
祀風雲雷雨山川城隍儀	祀風雲雷雨儀(山川城隍附)
風雲雷雨壇祈雨儀	風雲雷雨壇祈雨儀(報祀同)
祭嶽海瀆儀	祭嶽海瀆儀
祭三角山儀(漢江儀附)	祭三角山儀(白岳山附)
	祭漢江儀
祭木覓儀	祭木覓儀
	諸州縣名山大川
時旱北郊望祈嶽海瀆及諸山川儀	時旱北郊望祈嶽海瀆及諸山川儀(報祀同)
	時旱就祈嶽海瀆及諸山川儀(報祀同)
時旱祝祈儀	
諸山川儀	
久雨禜祭國門儀	久雨禜祭國門儀(報祀同)
	久雨州縣禜祭國門儀(報祀同)

그리고 『세종실록오례의』와 『국조오례의』에서는 嶽의 제향의식과 절차를 정하였는데, 제향일과 재계, 진설, 희생의 준비를 비롯하여 행례 절차로 전폐, 작헌, 송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34]

이상과 같은 산천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삼각산에 대한 제사 역시 정비되었다. 산천제사가 정비되면서 삼각산은 중사에 편제되었고 이것은 『세종실록오례의』와 『국조의례의』 단계에서 악 제사 중 4악의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이후 여기에 변화가 생긴다. 세조 2년(1456)에 양성지가 삼각산을 中岳으로 삼을 것을 청하는데,[35]『국조오례의』(1474)에는 이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권3 漢城府 祠廟條에 白嶽神祠가 白嶽의 산마루에 있어서 조선조의 中岳인 三角山의 제사를 여기서 지낸다고 하였다. 백악의 위치는 현재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의 북악산이다.[36] 그리고 고종 33년(1896)에 궁내부에서 대사·중사·소사에 관한 별단을 올렸는데, 삼각산 제사는 소사에 편제되었다.[37] 이후 고종 40년(1903) 장례원에서 올린 별단에는 오악·오진·사해·사독이 다시 중사로 편제되었고, 삼각산은 오악 중 중악에 자리 잡았다.[38]

---

34) 한형주, 2002, 앞의 책, 239~240쪽.

35) 집현전 직제학 梁誠之가 상소하기를 (…) "1. 嶽鎭海瀆입니다. 대개 一代의 흥함에는 반드시 一代의 제도가 있었으며, 本朝의 嶽鎭海瀆·名山大川의 제사는 모두 삼국과 전조의 구제를 의방해서 한 것이므로 의논할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빌건대 禮官에게 명하여 考定을 상세히 더하게 하고, 삼각산을 中岳으로 삼고, (…) 白岳山을 中鎭으로 삼고, (…) 한강을 南瀆으로 삼고 (…) 또 목멱산(…)을 名山으로 삼고, (…) 일대의 祀典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祀典에 실린 산천은 고금으로 모두 34인데, 옛것을 따른 것이 17, 移祭한 것이 4, 새로 오른 것이 13, 영구히 고칠 만한 것도 또한 13입니다. (…) (『세조실록』 권3, 세조 2년 3월 28일(丁酉)).

36) 한국학중앙연구원, 1997,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30~31쪽.

37) 궁내부 대신 이재순이 아뢰기를 "삼가 명령 내용을 받들고 종묘와 殿宮, 각 陵園의 祭享은 일체 옛 규정을 따르고, 圜丘壇, 社稷壇, 여러 산천, 여러 廟의 제향은 岳이 掌禮院卿과 함께 참작하여 바로잡았습니다. 別單에 開錄하여 上奏합니다." 하였다. 대사·중사·소사에 관한 별단 (…) 삼각산·목멱산·한강[모두 봄과 가을의 가운데 달이다] (…) 이상은 소사(小祀)이다. (…) (『고종실록』 권34, 고종 33년 8월 14일(陽曆)」.

38) 掌禮院卿 金世基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詔勅을 받들어 보니 '天子만 천하의 名山과 大川에

3. 삼각산 산신과 산천신

산천신에게 봉작을 내리고 산천신의 신상을 만들어 형상화하는 것은 산천신을 인격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산천신에게 봉작을 내리고 신상을 받드는 것을 고려시대에도 비판하였다.[39] 특히 고려 후기 산천신에 대한 제사를 통해 고려의 지배권을 주장하고자 했던 명 태조는 기존의 산천신에 대한 봉작을 금지하였다.[40] 하지만 공민왕은 祀典에 올려진 국내 명산대천의 덕호를 더하고 정결한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였다.[41]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명분의식과 함께 고려 말에 본격적인 비판이 이루어졌고 조선 태조 1년(1392) 8월에는 조박이 사전의 개혁을 제기하면서 여러 신묘와 성황의 이름에서 봉호를 제거할 것을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五嶽·五鎭·四海·四瀆을 아직까지도 미처 봉하지 못하여 祀典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장례원에게 널리 상고하여 제사 지낼 곳을 정함으로써 朕이 禮로 신을 섬기려는 뜻에 부응하게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오악·오진·사해·사독으로 봉해야 할 산천을 참작해서 마련하여 별도로 開錄해서 들이나, 사전과 관련된 소중한 일이어서 本院에서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의정부에서 稟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別單: 오악 중 中嶽은 삼각산[경기] (…) 오진 중 中鎭은 백악산[京城] (…) 사독 중 (…) 南瀆은 한강[경성] (…) 이다. (『고종실록』 권43, 고종 40년 3월 19일(陽曆)).

39) 이욱, 1998, 「조선전기의 산천제」, 『종교학연구』 17, 100~101쪽.

40) 황제가 祕書監直長 夏祥鳳을 파견하여 詔書)를 내렸는데, 그 조서에 이르기를, (…) 여러 祀典을 상고하여 보니, 오악·오진·사해·사독을 책봉하는 것은 堯임금이 다스릴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숭상하는 아름다운 칭호를 역대 왕조가 더하여 주었다. (그러나) 짐이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대체로 오악·오진·사해·사독은 모두 높은 산이나 넓은 물이므로, 天地가 개벽한 뒤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英靈한 기운들이 모여 신령한 존재가 된 것이다. 필시 모두 上帝로부터 천명을 받아 그 심오함을 헤아릴 수 없는데, 어찌 국가가 封號를 더할 수 있겠는가? (…) 지금 옛 제도에 의하여 제도를 정하라고 명령하였으니, 무릇 오악·오진·사해·사독은 모두 전대에 봉하였던 명호를 제거하고 단지 산과 물의 본래 칭호로써 그 신을 부르도록 한다. 郡縣의 城隍神의 칭호도 모두 봉호를 고치며, 역대의 충신과 열사도 또한 처음 봉해질 당시의 칭호에 따라 실제 칭호로 삼으며 뒷시대에 붙여진 정도를 뛰어넘는 美稱은 모두 제거한다.(…) 라고 하였다. (『고려사』 권42, 세가 42, 공민왕 19년(1379) 7월 16일(壬寅)) .

41) (왕이) 교서를 내려 이르기를, 국내 명산대천으로 祀典에 등재되어 있으면 모두 德號를 더해 주고 제사를 정결히 지내라. (…) 라고 하였다. (『고려사』 권43, 세가 42, 공민왕 20년(1371) 12월 20일(己亥))).

주장하였다.[42] 태종 13년(1413)에는 예조에서 산천에 봉작하는 음사를 행함을 비판하고 신상의 설치와 처첩 등의 설치도 비판하였으며 성황, 산천 해도의 신은 주신 1위만 남기고 나무로 만든 신패를 쓰고 신상을 모두 철거하여 사전을 바르게 할 것을 건의하자 시행되었다.[43] 그리고 세종 6년(1424)에는 신판을 두어서 다만 '某山之神'이라고 쓰라고 하였으며,[44] 세종 12년과 19년 두 차례에 걸쳐 山川壇廟巡審別監이 전국의 산천을 조사하여 규제에 나서면서,[45] 산천신에 대한 봉작이 폐지되고 신상이 철거되었다.[46]

이처럼 산천신을 형상화한 산천신의 신상은 조선에 들어 와 봉작의 폐지와 함께 철거되었고 신판을 두었다. 이것은 삼각산신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리고 삼각산 산신의 신위는 태종 14년(1414) 7월 25

---

42) 禮曹典書 趙璞 등이 上書하였다. 신 등이 삼가 歷代의 祀典을 보옵건대, (…) 봄·가을에 藏經百高座의 法席과 7所의 친히 행차하는 道場과 여러 道殿, 神祠, 醮祭 등의 일을 고려의 君王이 각기 일신상의 소원으로써 때에 따라 설치한 것을, 후세의 자손들이 舊習에 따라 혁파하지 못하였으니, 지금 天命을 받아 새로 建國함에 어찌 前弊를 그대로 따라 하며 떳떳한 법으로 삼겠습니까? 모두 폐지해 버리기를 청합니다. (…)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1392) 8월 11일(庚申).

43) 祀典을 개정하여 예조에서 아뢰었다. "삼가 『文獻通考』를 살펴보건대, 山川에 爵을 봉해준 것은 武后로부터 시작하였고, 송나라 眞宗 때에 이르러 五岳을 모두 봉하여 帝로 삼았으며, 또 각기 后로 봉했습니다. 陳武가 말하기를, '帝는 단지 하나의 上帝가 있을 뿐인데, 어찌 山을 帝라 이를 수 있겠는가? 또 后殿을 그 뒤에다 세운다 하니 알지 못하겠지만, 어느 산이 그 짝으로서 부부가 되겠는가?' 하였습니다. 『洪武禮制』에서는 악진해독을 제사하는데, 모두 某岳·某海의 神이라 일컬었고, 아직 爵을 봉한 號는 없었습니다. 前朝에 境內의 산천에 대하여 각기 封爵을 가하고, 혹은 妻妾·자녀·甥姪의 像을 설치하여 모두 제사에 참여했으니 진실로 未便하였습니다. 우리 太祖가 즉위하자 本曹에서 건의하기를, '各官의 城隍之神 작호를 革去하고, 단지 某州의 성황지신이라 부르게 하소서.' 하여, 즉시 兪允을 받아 이미 뚜렷한 법령으로 되었으나, 有司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따라 이를 행하지 않아 爵號와 像說이 아직도 그전대로이어서 淫祀를 행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태조가 이미 내린 교지를 거듭 밝혀 단지 '某州의 城隍之神이라' 부르게 하고, 神主 1位만 남겨두되 그 처첩 등의 신은 모두 다 버리게 하소서. 산천·海島의 신 역시 主神 1위만을 남겨두고 모두 木主에 쓰기를, '某海·某山川之神'이라 하고, 그 像設은 모두 다 철거하여 사전을 바루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1413) 6월 8일(乙卯)).

44) 『세종실록』 권23, 세종 6년 2월 乙巳.

45) 『세종실록』 권49, 세종 12년 8월 6일(甲戌); 『세종실록』 권76, 세종 19년 3월 13일(癸卯)

46) 이상과 관련해서, 이욱, 1998, 앞의 논문, 137~139쪽 및 김아네스, 2010, 「조선시대 산신 숭배와 지리산의 신사」, 『역사학연구』 39, 99~101쪽 참고.

일에 白岳祠에 옮겨 백악산의 산신과 짝지웠는데, 삼각산 산신의 신위는 남쪽으로 향하고 백악산 산신의 신위는 서쪽으로 향하게 하였다고 한다.[47] 『세종실록오례의』에는 "악·해·독은 각각 신위를 설치하되 한가운데에 있게 하고, 남쪽을 향하게 한다"고 하면서 "다만 삼각산과 백악만은 붙여서 동쪽에 있게 하고, 서쪽을 향하게 한다"고 하였다.[48]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 3 漢城府 祠廟條에는 白嶽神祠가 白嶽의 산마루에 있는데, 中岳인 三角山의 제사를 여기서 지낸다고 하였다.[49]

이처럼 삼각산신에 대한 제사는 백악신사에서 행해졌다. 백악산은 태조 2년(1393) 1월 21일에 삼각산과 함께 호국백에 봉해지고[50] 태조 4년 8월 28일에 백악산의 단에 제사를 올렸으며[51] 동년 12월 29일에는 백악을 진국백으로 삼고 남산을 목멱대왕으로 삼아 경대부와 사서인은 제사를 올리지 못하게 하였다.[52] 그리고 태종 6년(1406)에 白嶽의 城隍神에게 祿을 주었는데, 이것은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였기 때문에 이전 松嶽의 성황신에게 녹을 준 것을 옮겨서 준 것이라고 하였다.[53] 백악은 덕적산, 송악산, 목멱산과 함께 고려 4대산의 하나였고, 고려시대에는 이들 산의 산신에게 봄과 가을로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변계량이 백악을 중진으로 삼을 것을 아뢰었으며,[54] 『국조오례의』 삼각산의 제사에 관한 의식에 백악산의 제사를 부기하였다. 이후 고종 40년(1903)에는 백악은 中鎭에 편제되었다.[55]

---

47)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1414) 7월 25일(丙申).

48) 『세종실록오례의』 신위. 『세종실록』 지리지 경성한성부조에는 "도성의 진산인 백악 山頂에 祠宇가 있는데 삼각산의 신을 제사 지내며, 백악을 붙여서 지낸다"고 하였다.

49) 『신증동국여지승람』 3 漢城府 祠廟. 『신증동국여지승람』 3 漢城府 山川 삼각산조도 참고.

50) 『태조실록』 권3, 태조 2년(1393) 1월 21일(丁卯)).

51) 백악산의 壇에 제사를 올렸다. (『태조실록』 권8, 태조 4년(1395) 8월 28일(己丑)).

52) 이조에 명하여 白岳을 鎭國伯으로 삼고 南山을 木覓大王으로 삼아, 卿大夫와 士庶人은 제사를 올릴 수 없게 하였다. (『태조실록』 권8, 태조 4년 12월 29일(戊午)).

53) 給白嶽城隍神祿 前此 給祿於松嶽城隍神 以定都漢陽 故移給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1406) 1월 7일(戊戌).

54) 『세조실록』 권3, 세조 2년(1456) 3월 28일(丁酉).

이와 같이 삼각산신에 대한 제사는 백악산신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삼각산신에 대한 제사 시일 및 폐백 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삼각산신에 대한 제사 날짜 및 신위, 축판, 폐백 등

	『세종실록오례의』 祭三角山儀(漢江儀附)	『국조오례의』 祭三角山儀(白岳山附)
辨祀	중사	중사
時日	중춘과 중추	중춘과 중추
壇유		
神位	밤나무 / 某山之神	밤나무 / 某嶽의 神
祝板	소나무 / 길이는 1척 2촌, 너비는 8촌, 두께는 6푼 / 國王 姓 署名 敢昭告	길이는 1척 2촌, 너비는 8촌, 두께는 6푼 / 維成化某年歲次 某甲某月某朔某日某甲 云云(國王이라 하고 姓과 諱를 쓴다)
幣帛	길이는 1장 8척으로 苧布, 악·해는 방위 빛깔에 따라 사용하는데, 삼각산은 황색을 사용	

위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삼각산은 조선의 국가제사에서 중사에 편제되어 있으며 그 제사 날짜는 중춘과 중추였다. 그리고 신위는 제향의 구체적 대상을 말하는 것으로, 제단 위에는 제향을 받는 신주는 하나만이 아니고 함께 배향되는 신주가 있다. 때문에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신주의 이름과 여러 신주의 위치와 방향, 그리고 등위에 따라 신주를 받치고 있는 자리도 차이가 있다. 삼각산신의 제사에 백악산신을 붙여서 제사하였다.

축판은 제사를 주관하는 주인의 이름을 기명하여 제사의 주제자가 누군가를 밝히는 것이고 『세종실록오례의』와 『국조오례의』에 약간의 변화를 볼 수 있으며 선조 30년(1597)에도 삼각산 등지에 제사 축

55) 『고종실록』 권43, 고종 40년 3월 19일(陽曆).

문을 쓰는 격식에 대해 윤형이 다음과 같이 아뢰기도 하였다.

> 윤형이 아뢰기를 "오늘 삼각산·백악산·한강 등지의 제사 祝文을 입계할 때에 신이 담당 승지를 대신하여 나아가 축문에 쓰인 글자의 高低를 보고 최근에 쓰인 謄錄을 고찰해 보니, 社稷祭 축문 중에 '國王姓謹遣臣敢昭告' 등의 말을 모두 한 줄에다 썼으며, 사직신일 경우 가장 極行을 사용하고 산천제사에는 모두 한 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연유를 따져 물으니 '산천제사의 축문 격식은 전일 李誠中이 禮房承旨로 있을 때 계청하여 결정한 것이 그대로 격식이 되어 내려왔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祀事는 지극히 엄격하니 한 번 정해진 格例는 가벼이 고쳐서는 안 됩니다. 또 사직은 上祀이고 산천은 小祀이기 때문에 그 규례가 아마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입계합니다. 지금 상의 하교를 받들어 예조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예조가 回啓하기를 "여차여차하게 하라는 전교를 내리셨는데, 평상시 축문 안에 謹자와 敢자를 모두 한 자 낮추어서 줄을 달리하여 쓰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 그 뒤에 극항에 나란히 쓰는 이유 역시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大明會典』의 축문례를 보면 謹자와 敢자는 이어서 썼고, 오직 神자만 극항에 썼는데 타당한 듯합니다. 대개 儀式이 散失되어 의거하여 고찰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 글자를 내려서 쓰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으로 저들이 잘못 썼음을 알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권85, 선조 30년(1597) 2월 13일(甲戌))

폐백은 예물을 바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옥과 비단이 폐백인데, 실록의 연대기에는 옥폐에 대한 관한 기사가 없다. 대체로 비단만으로 준행되었으며, 저포의 색에 따라 사용하였는데, 삼각산신은 황색을 사용하였다. 다음은 산각산신을 모신 祠廟과 관련된 내용이다.

> 예조에서 儀禮詳定所와 함께 의논한 奉常判官 朴堧이 上書한 조건을 아뢰었다. "(…) 옛날의 제도를 잘 살펴보면 바다·산·강의 神에게는 모두 사당집이 있어, 明宮·齋廬·神廚·神庫가 갖추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그 정성과 공경함이 극진하였사온데, 神祠는 奉常寺의 관원이 감히 아는 체할 바가 아니오나, 삼각산과 목멱산의 사당은 곧 都城 중의 사당으로서 壇과 낮은 담[壝]은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그 구조의 제도를 본 즉 다만 祭廟 3칸(間)만 세웠사온데, 규모가 좁고 누추하며, 齋廬와 주방[廚]과 곳간[庫]이 전혀 건조되지 않았사오니, 제사 지내는 날에 만약 바람 불고 천둥 치고, 비 오고, 눈 오는 변이 있으면, 祭饌을 감독하여 마련할 적에 가리고 덮은 것이 없고, 향을 받은 大臣과 臺監·享官들이 밤새도록 옷이 젖게 되오니 매우 미편합니다. 또 그 籩·篚·俎·豆와 瓿·鉶·尊·卓子 등의 물건을 짊어지고 오르고 내리면서 제사 때마다 번갈아 돌려쓰게 되니 역시 매우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齋廬와 神廚를 세워서 비에 젖지 않도록 준비하고, 神庫를 세워서 祭器를 각기 따로 간수하여 번갈아 쓰지 못하게 하고, 사당의 안에 面帳·地衣·塗壁 등의 장식은 神이 의지하는 곳이니, 도리상 마땅히 맑고 깨끗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진설한 것이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찢어지고 더러워져서 神을 공경하는 禮에 부끄러움이 있사오니, 지금부터는 그 시일이 오래되고 가까운 것을 참작하여 고치고 바꿔서 새롭게 하도록 하시기 바라오며, 神卓의 설비는 전혀 奠饌하는 데 관계되오니 설만히 할 수도 없으며 더럽게 할 수도 없습니다. 신이 삼각산과 목멱산의 神位·卓子를 보니, 삼각산 것은 거칠게 만든 널빤지상[板子床] 두 개를 맞대어 놓았으며, 목멱산 것은 床을 만들지 않고 널빤지 두 조각으로써 두 쪽 마구리에 굄목을 받쳐 놓았습니다. 이 두 사당의 神卓이 법에 어긋남이 이와 같아서 이미 床의 제도가 틀렸고, 또 칠을 하지 않았으므로 더럽고 때가 끼었으며, 또 陳設하는 데 있어서도 길이와 넓이가 넉넉하지 못하오니 진실로 설만함이 그지 없은 즉, 누가 城中에 나라 제사를 지내는 곳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겠습니까. 신이 이 폐단을 예조에 보고하고 繕工監에 公文을 보낸 지가 이미 해포가 되었습니다마는, 營繕하는 일이 번다하여서 지금까지 고치지 못하였사오니, 속히 고쳐서 일체 陳設이 합당하게 되도록 하옵시고, 모든 기구의 만들고 꾸미기를 정밀히 연구하여서 하며, 홍색과 흑색으로 칠을 하여 이를 神庫에 잘 간수하고 아무 때에나 마구 내 쓰지 못하게 하며, 그 전에 쓰던 床은 그대로 보존하여 상시에 쓰도록 하는 것이 또한 옳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피시어 마땅하다고 여기시면 좇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권47, 세종 12년(1430) 2월 19日(庚寅))

위의 내용을 보면 세종 12년(1430)에 삼각산신을 모신 사당은 나라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城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설이 제사를 지냄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면서 정비할 것을 아뢰자, 그것을 허락하였다고 한다.

한편 삼각산신에 대한 제사는 한강의 신, 그리고 목멱산신과 함께 제사 지내는 것이 관행으로 되었다.[56] 『세종실록오례의』에는 삼각산에 제사하는 의식에 한강에 제사하는 의식을 붙이고 있는데, 조선 초기 한강은 중사에 편제되어[57] 7독의 하나였다가[58] 이후 4독의 하나인 남독으로 자리잡았다.[59] 목멱산은 태조 4년(1395) 12월에 북산인 백악산신을 鎭國伯, 남산의 산신을 목멱대왕으로 봉작하여 국가에서 제사를 받들게 하니 목멱대왕을 봉사하는 사당을 목멱신사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목멱신사는 나라에서 제사 지내는 사당이라 하여 일명 '국사당'이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봄·가을로 하늘에 제사[醮祭]를 올렸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목멱신사가 도성의 남산 꼭대기에 있고 小祀로 제사 지낸다"고 하였고, 조선시대 내내 명산의 하나로 소사에 편제되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산천신의 기능은 무엇일까. 국가제사에서 산천은 인간에게 재물을 제공해 주는 신이자 진호하는 신이며[60] 가뭄뿐

---

56) 사직·雩祀·風雲雷雨와 北郊의 여러 산천과, 목멱·삼각·한강·백악에 비를 빌었다. (『세종실록』 권101, 세종 25년(1443) 7월 9일(壬戌); 풍운뇌우·우사 및 목멱산·삼각산·한강에서 기우제를 행하였다. (『문종실록』 권7, 문종 원년(1451) 5월 13일(庚戌)); 전교하기를 "세 차례나 祈雨를 하였으나 아직도 비가 올 징조가 없으니, 오는 16일에 풍운뇌우·우사·북교에 重臣을 보내고 한강·삼각산·목멱산에 內臣을 보내어 따로 기도하라." 하였다. (『명종실록』 권30, 명종 19년(1564) 4월 12일(癸未)); 삼각산·백악산·목멱산·한강·풍운뇌우단 및 국내의 산천, 성황단, 우사단에 관원을 보내어 기우제를 지냈다. (『현종실록』 권18, 현종 11년(1670) 3월 23일(庚辰)).

57) 『태종실록』 권28, 태종 14年 8月 21日(辛酉).

58) 『세종실록』 권128, 오례, 길례서례(변사).

59) 『고종실록』 권43, 고종 40년 3월 19일(陽曆).

60) 특히 兵亂과 관련해서 고려시대 호국의 목적에서 산천신에 대한 제사가 행해지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김철웅, 2001, 「고려시대의 산천제」, 『한국중세사연구』 11, 134~138쪽 참고.

아니라 홍수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찾아가서 비는 신이다.[61] 『국조오례의』에 실려 있는 산천 관련 기양의례는 기우제와 禜祭이지만, 그 외에 기청제[62]와 기설제[63]에서도 산천은 기도의 대상이 되었으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여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천 역시 기도의 대상이 되었다.[64] 그리고 도성의 수축에 앞서 삼각산에 고유제를 지내기도 하였다.[65] 다음도 주목된다.

1) ① **병조판서 조말생과 이조 판서 허조 등이 임금의 병환이 심하였다는 것을 듣고 걱정하여, 여러 대언과 의논하고 종묘와 산천에 기도하고자 하여, 이조 정랑 김종서를 시켜 영돈녕 유정현·영의정 이직·우의정 유관에게 가서 가부를 물으니, 모두 "기도를 속히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전에도 임금이 병이 있으면 종묘와 산천에만은 기도하였다."고 하고, 지신사 곽존중이 말하기를, "사직은 일국 토신의 으뜸인데, 산천에만 기도하고 사직에는 기도하지**

61) 山川之神 則水旱厲疫之災 於是乎禜之 日月星辰之神 則雪霜風雨之不時 於是乎禜之 (『춘추좌씨전』 소공 1년 12월); 산천에 대한 제사는 한재나 수재 외에도 지진을 위시한 여타 엄중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도 지내고 있다.(開元 22年) 二月壬寅 秦州地震 (…) 命尙書左丞相蕭嵩 往祭山川 (『구당서』 현종본기). 이와 관련해서 김상범, 2005, 앞의 책, 47쪽 참고.

62) 종묘·사직·북교·삼각·백악·목멱·한강 등 여러 곳에서 祈晴하였다. (『명종실록』 권16, 명종 9년(1554) 6월 12일(辛巳)).

63)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처럼 눈이 내리지 않을 적에는 중국에서도 눈 오기를 비는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눈 오기를 빌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으니, 해조에 일러서 살펴 아뢰게 하라." 하니, 예조가 회계하기를 "『大明會典』에 의하면, 嘉靖 8년 봄에는 비를 빌고 겨울에는 눈을 빌었는데 축문은 모두 임금이 지었고 임금이 몸소 南郊에 나아가 皇天과 后土에 제사 지낸 다음 몸소 산천단에서 산천 神祇에게 제사 지내고 다음 날은 사직단에서 제사 지내었는데, 관복은 엷은 색이고 儀仗을 베풀지 않았으며 길에서 벽제를 하지 않고 모두 設配하지 않았으며 奏樂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눈을 비는 것은 근래에 시행한 적이 있는데, 年月과 節目)은 비록 상고할 만한 기록이 없으나 대개 기우제의 예에 의하여 먼저 삼각산·목멱산·한강에서 행하고, 그다음 사직·종묘 및 풍운뇌우와 北郊에서 행하였으니 속히 택일하여 거행하소서." 하였다. (『선조실록』 권58, 선조 27년(1594) 12월 9일(壬子)); 承旨·重臣을 風雲雷雨·山川雩祀·삼각산·목멱산·백악산·한강 등에 나누어 보내어 祈雪祭를 지내게 하였다. (『숙종실록』 권22, 숙종 16년(1690) 12월 15일(辛未)).

64) 송충이의 災害를 비는 제사를 삼각산·백악산·목멱산·송악산 등 여러 산에서 거행하였다. (『숙종실록』 권16, 숙종 11년(1685) 9월 27일(甲申)).

65) 都城의 修築을 시작하기에 앞서 삼각산에 告由祭를 지냈다. (…) (『숙종실록』 권39, 숙종 30년(1704) 3월 25일(甲子)).

않는 것은 의리상 부족한 일인가 합니다." 하니, 대신들이 모두 옳다 하였다. 이에 金縢故事를 본받아서 吉日을 가려, 대신과 近侍가 종묘·사직·昭格殿·삼각산·백악산·木覓山·松岳山·개성 德積島·三聖山·紺岳山·양주 서낭당에 기도하였는데, 그 제문에는 "領議政府事 신 이직 등은 (…)"이라 하였다. 처음에 대신이 부처를 모신 절에도 기도하려고 하였는데, 임금이 이 소문을 듣고 중지시켰다. (『세종실록』 권29, 세종 7년(1425) 윤7월 24일(辛酉))

② 임금의 병환이 낫지 않으므로, 종묘·사직·소격전과 삼각산·백악·목멱산의 신에게 기도하였다. (『문종실록』 권13, 문종 2년(1452) 5월 5일(丁酉))

③ 상이 미령하여 侍藥廳을 설치하였는데, 밤에 병세가 위급하자 중신을 사직·종묘·목멱산·삼각산·소격서·한강·양진·감악·오관·송악 등처에 나누어 보내 각각 기도를 드리도록 하였다. (『선조실록』 권14, 선조 13년(1580) 11월 4일(庚午)

2) 元子의 질병으로 인하여 종묘·사직·소격서와 삼각산·백악산·목멱산 등 諸山에 기도하도록 명하였다. (『성종실록』 권76, 성종 8년(1477) 2월 21일(庚寅)

3) 전교하기를, "慈殿의 증세는 차도가 있다가 없다가 하여 일정하지 않다. 이런 때를 당하여 조종조에서도 종묘·사직·산천에 기도했었는지 임오년 및 및 조종조에서 기도한 전례를 조사하여 아뢰라." 하였다. 정원이 이에 종묘·영녕전·사직·소격서·삼각산·목멱산·백악·한강과 경기의 오관산·감악산·양진·덕진 등처를 써서 아뢰기를, "이곳은 모두가 임오년에 대비께서 미령하셨을 때 성종조의 예에 따라 관원을 보내어 기도한 데입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임오년의 예에 따라 관원을 보내어 제사 지내게 하라." (『중종실록』 권68, 중종 25년(1530) 7월 4일(辛卯))

위의 내용을 보면 임금과 원자, 대비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 산천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천이 국가제사에서 다양한 기양의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직과 종묘가 국가의 수호신적 성격이 있듯이, 산천 또

한 해당 지역에서 다양한 삶에 반응하며 진호하는 수호신적 역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천신에 대한 제사와 관련해서 다음도 주목된다.

1) ① 6월에 크게 가물었다. 왕이 河西州 龍鳴嶽의 居士 理曉을 불러 林泉寺 연못가에서 비를 빌게 하였더니 비가 열흘간이나 내렸다.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8, 성덕왕 14년)

② 여름 6월에 가물어서 또 거사 이효를 불러 기도하였더니 비가 내렸다.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8, 성덕왕 15년).

2) ① 어가가 常慈院에 머물자, 侍御史 崔謂를 보내 御衣와 차와 향을 가지고 三角山 僧伽窟에 가서 비가 오기를 빌게 하였다. (『고려사』 권11, 세가 11, 숙종 9년(1104) 8월 5일(丙午))

② (숙종) 9년(1104) 8월 병오 왕이 南京에 행차하였는데, 어가가 常慈院에 머물 때 侍御史 崔謂에게 御衣와 茶香을 가지고 가서 三角山 僧伽窟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빌게 하였다. (『고려사』 권54, 지 8, 오행 2(금) 가뭄)

3) ① 비를 中外의 여러 神에게 빌었다. 무당을 雩祀壇에 모아서 삼각산·목멱·한강·풍운뇌우·산천·성황의 신에게 비를 빌고 아울러 기도를 행하였다. 또 香祝을 각 도의 嶽·海·瀆·山川의 신에게 나누어 보냈다. 처음에 傳旨하기를, "土龍을 甲乙日에 만드는 것은 옛 제도이다. 지난번에 예조에서 상정하여 갑을일에 토룡을 만들지 않고 바로 갑을일에 제사 지내게 한 것은 실로 古制에 어긋난다. 비록 관직을 옮겼다고 하더라도 모두 추가로 탄핵하여 죄를 논하라."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1416) 5월 19일(庚戌))

② 가뭄으로 인하여 풍운·뇌우·산천·삼각·목멱·한강·太一에 비를 빌고, 각 宗派의 중들로 하여금 興福寺에 빌었으며, 아이들은 푸른 옷차림으로 蜥蜴을 부르며 경복궁 경회루 못가에서 빌게 하고, 무당을 모아 비를 빌게 하기도 하였다. (『세종실록』 권4, 세종 1년(1419) 5월 29일(癸酉))

③ 흥복사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또 바람·우레·비를 맡은 신에게 비를 빌고, 삼각산·목멱산·한강·양화진에도 비를 빌었다. (『세종실록』 권8, 세종 2년(1420) 4월 17일(乙卯))

④ 삼각산과 목멱산에 무당을 보내어 비를 빌었다. (『세종실록』 권36, 세종 9년(1427) 6월 11日(戊辰))

⑤ 雩祀壇과 풍운뇌우단과 삼각산·백악산·목멱산·한강에 비를 빌고, 또 무당과 중들을 모아 석척 기우제를 지냈다. (『세종실록』 권100, 세종 25년(1443) 6월 29일(壬子))

⑥ 사직·雩祀·풍운뇌우·北郊의 여러 산천·삼각·백악·한강·목멱에 비를 빌고, 蜥蜴과 僧徒의 祈雨를 행하고, 또 太一杞憂醮와 중앙 황룡기우제를 행하였다. (『세종실록』 권101, 세종 25년(1443) 7월 15일(戊辰)」

위의 내용을 볼 때 산천신에 대한 제사가 불교, 도교, 무속 및 유교적 요소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삼각산에 대한 제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삼각산 승가굴에서 비를 빌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신증동국여지승람』 3 한성부 불우 승가사조에 최치원의 문집을 인용하여 승가사에 모신 대사에게 기도를 하면 국가의 천지재변과 수재·한재의 재난에 영험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참고된다.[66] 하지만 조선시대 유교적 의례 경건주의적인 태도와 왕의 수신을 강조하는 성리학이 강화되면서 조선후기에는 한국 고대나 고려시대, 조선초기와는 달리 승려나 무당, 맹인이 배제되고 오직 유자로 제관이 일원화되었다.[67]

---

66) 僧伽寺[삼각산에 있다(고려조 李嶷의 중수기에 이런 말이 있다. "崔致遠의 문집을 보면, 옛날 신라 시대의 狼跡寺 중 秀台가 대사의 거룩한 행적을 익히 듣고, 삼각산 남쪽에 좋은 자리를 정하여 바위를 뚫어 굴을 만들고 돌을 쪼아 형상을 그리니 대사의 어진 모습이 더욱 우리나라에 비쳤다. 국가에서 천지의 재변과 수재·한재의 재난이 있으면 기도를 드려 물리치게 하였는데, 언제나 즉석에서 영험이 있었다." 하였다)].

67) 최종성, 1998, 「국행 무당 기우제의 역사적 연구」, 『진단학보』 86, 65~67쪽; 2002, 『조선조 무속 국행의례 연구』, 일지사.

4. 기우제와 삼각산

산천신에 대한 제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우제이다. 국가제사에서 산천신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가뭄 때 비를 부르는 신으로 부각되었다. 산천이 가진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는 임무는 산천의 보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68] 따라서 한국 고대 이래 산천에서는 기우제가 거행되었고 삼각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백제 아신왕 11년(402)에 횡악에서 기우제를 지낸 기록이 보이며,[69] 통일 이후 신라 국가제사에서 소사에 편제된 부아악 역시 다른 명산대천과 함께 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도 삼각산에서 비를 빌었으며 조선시대 역시 삼각산에서 기우제를 행하였다.

하지만 산천에 대한 기우제 외에도 신라에는 하지가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비가 오기를 비는 제사인 기우제가 혜수에서 행해졌으며[70] 수재나 한재 때 기청·기우를 드리던 제사인 사천상제는 犬首, 文熱林, 靑淵, 樸樹에서 행하여졌다.[71] 고려의 경우에는 雩祭와 川上祭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72] 다음은 『국조오례의』 소재 기우의례를 〈표 3〉으로 제시하였다.

---

68) 이욱, 2000, 「조선전기 국가기우제와 산천」, 『Journal Korean Culture』 1, 178쪽.

69)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 3, 아신왕 11년.

70) 정구복 외 4인, 1996, 앞의 책, 37쪽; 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51쪽.

71) 고려시대에 수재나 한재 때 松嶽溪上에서 百神에게 祈晴·祈雨를 드리던 제사를 川上祭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신라 사천상제와 대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동욱, 1983, 「신라의 祭典」, 『신라민속의 신연구』(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 논문집 4), 33쪽).

72) 고려시대의 기우제는 雩祭와 천상제가 있었으며 가장 먼저 기우제가 행해졌던 곳은 악·진·해·독이었다. 기우처로는 태묘, 사직을 비롯해 사원과 악진, 해독 등으로 다양하였다. 특히 송악산, 동신당과 제신묘, 천상, 박연 등 5개소는 가장 중요한 기우처로 여겨졌다(김철웅, 2000, 앞의 논문, 125쪽). 천상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사료가 참고된다. 靖宗元年五月甲辰 祈晴于川上 每水旱 祭百神於松岳溪上 號曰川上祭 (…) 文宗五年十二月戊子 制 大雪之候 雪不盈尺 宜令諏日 祈雪於川上 禮部奏 仲冬以來 雖無盈尺之雪雨 復霈然 況今節近立春 不宜祈雪 從之 (…) 睿宗十一年四月丁卯 遣使祈雨 於上京川上松嶽東神諸神廟朴淵及西京木覓東明祠道哲嵓梯淵(『고려사』 권63, 지17, 예5(잡사)). 한편 고려와 조선의 기우제에 대해서는 서영대, 1994, 「민속종교」, 『한국사』 16, 358~365쪽과 김해영, 1994, 「상정고금례와 고려조의 사전」, 『국사관논총』 55, 144~147쪽도 참고.

〈표 3〉『국조오례의』 소재 기우의례

儀禮	대상신(장소)
祈告社稷儀	社·稷(社稷壇)
祈告宗廟儀	先王(宗廟)
風雲雷雨壇祈雨儀	風·雲·雷·雨神(南壇)
雩祀壇祈雨儀	句芒·祝融·蓐收·玄冥·后土·后稷(雩祀壇)
時旱北郊望祈嶽海瀆及諸山川儀	嶽·海·瀆·鎭, 名山·大川(北郊 望祭)
時旱就祈嶽海瀆及諸山川儀	三角山·木覓山·漢江

위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의 경우도 기우는 산천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행해졌다. 이와 같은 조선시대 국가제사로 행해진 기우제는 유교식의 祈告儀禮 방식이다. 유교의 기고의례는 변고가 발생했을 때 행해진 비정기적인 임시의례로, 정기적인 의례와 행례 절차가 유사하였다. 하지만 초헌관이 복주를 마시는 飮福과 고기의 일부를 받는 受胙의 절차가 생략되었다. 이와 같이 신과 인간의 공감을 확인하는 음복수조의 절차가 생략된 기고의례는 감사와 보은 보다는 구복이 강조되는 기원의례의 성격을 갖는다.

중국 당의 경우를 보면 京師지역에 한여름 이후에 가뭄이 있으면 먼저 北郊에서 악·진·해·독과 제산천에 기우제를 지내고 이어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악독을 시작으로 다시 제사를 드렸고, 가뭄이 사직과 종묘에서 다시 제사를 올렸는데, 7일을 한 주기로 삼았다. 만약 그래도 아주 심할 경우에는 大雩禮를 거행하였다고 한다.[73] 다음은 고

73) 京師孟夏以後旱 則祈雨 審理寃獄 賑恤窮乏 掩骼埋胔 先祈嶽鎭海瀆及諸山川 能出雲雨 皆於北郊望而告之 又祈社稷 又祈宗廟 每七日皆一祈 不雨 還從嶽瀆 旱甚 則大雩 秋分後不雩 (『舊唐書』 권24, 지4, 예의4).『通典』 권120, 예80, 개원례찬류15, 길례12의 '時旱祈嶽鎭以下於北郊', '時旱就祈嶽鎭海瀆' 항목 및 다음도 참고. 後魏明元帝立五岳四瀆廟於桑乾水之陰 春秋遣有司祭 其餘山川諸神三百二十四所 每歲十月 遣祠官詣州鎭編祀 有水旱災厲則牧守各隨其界內而祈謁 王機內諸山川 有水旱則禱之 (『通典』 권46, 예6, 연혁6, 길례5, 산천).

려시대의 내용이다.

> 有司에서 아뢰기를, "(올해는) 봄부터 비가 적게 내리므로, 전례[古典]에 따라 억울한 獄事를 심사하고 궁핍한 사람을 구휼하며 버려진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하여 주십시오. 먼저 북쪽 교외에서 구름과 비를 일으킬 수 있는 명산[岳鎭], 강과 바다[海瀆], 여러 山川에서 기도하고, 다음 7일마다 한 번씩 宗廟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비가 오지 않으면 다시 처음에 했던 것처럼 명산, 강과 바다에 기도하십시오. 가뭄이 심하면 기우제를 지내고 시장을 옮기며 日傘을 사용하지 않고, 도축을 금지하며 관청의 말에게 곡식을 먹이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하자, 왕이 이를 허락하고, 正殿을 피하며 일상 식사의 반찬 수를 줄였다. (『고려사』 권6, 정종 2년 5월)

위의 내용에 따르면 가뭄에 국왕은 먼저 백성을 구휼하고 기우제를 지내는데, 그 순서는 북쪽 교외에서 악·진·해·독과 모든 산천에, 다음으로 종묘에 7일마다 한 번씩 지냈다고 한다. 그래도 비가 오지 않으면 악·진·해·독부터 다시 제사를 지내야 했다. 만약 가뭄이 심하면 雩祭를 행하고, 시장을 옮기며 繖扇을 꺾고 도살을 금하며 관마를 먹이지 않는 것 등을 행하였다. 조선시대와 관련해서는 우선 다음이 관심을 끈다.

> 禮曹에서 가뭄을 근심하는 데 필요한 事宜를 올렸다. "삼가 『文獻通考』와 前朝의 『詳定古今禮』를 살펴보건대, 隋나라와 唐나라의 古制를 본받았습니다. 거기에 이르기를, '무릇 京都에 孟夏 이후에 가뭄이 들면 嶽·鎭·海·瀆에 비를 빌고, 山川으로 능히 구름과 비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 北郊에서 제사하며, 또 사직과 종묘에 빌되, 7일마다 한 번씩 빌며, 그래도 비가 오지 않으면 다시 악·해·독에 기우하기를 처음과 같이 행한다. 그리고 가뭄이 심하면 雩祭를 지내는데, 처음에 빈 뒤 10일이 되어도 비가 안 오면, 저자[市]를 옮기고, 屠殺을 금하며, 傘扇을 끊고 土龍을 만든다.' 하였으며, 또 古典에 말하기를, '가뭄이 있으면 원통한 獄事를 審理하고, 궁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며, 뼈를 덮고

> 썩은 고기를 묻으며, 도랑[溝洫]을 치고 阡陌을 깨끗이 치운다.'고 하였으니, 古典에 따라 시행하심이 옳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권21, 태종 11년 5월 20일(庚辰))

위의 내용에 따르면 조선시대 기우제는 악·진·해·독 → 산천 → 사직·종묘 → 우사의 순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물론 그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성종대까지 대체적인 추세였고 실제로 악·해·독과 관련된 기사는 기우와 報祀의 시행이 대다수였다고 한다.[74]

조선시대 기우제는 비가 올 때까지 수차례의 다양한 기우양식이 동원되었는데, 그 제의 절차나 양식은 여러 차례를 거쳐 숙종대 정비되었다. 우선 태종 16년(1416) 6월 5일에 예조에서 삼각산 등지에 기우제를 지내는 계목을 올렸으며, 태종 16년 윤6월 10일에는 예조에서 삼각산 기우제 시행 등 기우 행사 요건을 아뢰었다.[75] 『국조오례의』 단계의 성종 5년(1474)의 기우제는 유교의 기고의례, 기우제용 방식, 고전적인 기우제 관습이 결합되어 단묘, 산천, 용소 등에서 기우제가 거행되었다.[76]

---

74) 한형주, 2001, 「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6쪽; 2002, 앞의 책.

75) 예조에서 祈雨啓目을 올렸다. "1. 『文獻通考』 안에 '4월 이후에 가물면 사직·산림·천택에 두루 비는데, 연고 있는 곳에 나아가 大雩할 때 舞童 14인이 모두 玄衣를 입고 8列로 서서 각각 羽翳(日傘)를 잡고 列마다 雲漢詩를 노래한다.'고 하였습니다. 本曹에서 일찍이 齋郞으로 하여금 雲漢篇을 외우도록 익히게 하였는데, 이제 雩祀와 圓壇에 이것을 부르도록 청합니다. 또 北郊에 望祈할 때와 풍운뇌우·삼각산·한강·목멱·사직·종묘·雩祀·祈雨祀에 나아갈 때에도 또한 모두 이를 부르게 하소서. 1. 董仲舒의 祈雨하는 방법에 말하기를 '南門을 닫고 北門을 열어 놓는다.'고 하였으니, 대개 陰을 창달하게 하는 뜻입니다. 청컨대 都城의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여는 것이요 어떠하겠습니까? 1. 동중서가 말하기를 '가물면 郡邑으로 하여금 水日에 백성들로 하여금 社稷에 빌게 한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家人은 戶神에 제사한다.'고 하였으니, 또 이 법을 가지고 외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里社에 나아가 빌게 하고, 또한 중외의 家人으로 하여금 戶神에 제사하여 비를 빌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1416) 6월 5일(乙丑)).

76) 禮曹에서 아뢰기를 "각 처의 기우 행사 요건을 후면에 갖추어 기록하오니, 이에 의하여 실행함이 어떠하겠습니까? 1. 종묘·사직·북교·한강·삼각·목멱은 풍운뇌우·雩祀로 기우제를 시행할 것 1. 太一과 雷聲普化天尊은 祈醮를 베풀 것 1. 한강의 楊津에는 沈虎頭(기우제 때 호랑이 머리 모양을 만들어 강에 담그는 것)하게 하고, 또 道流로 하여금 龍王經을 읽게 하며, 朴淵에도 침호두할 것 1. 경성의 각 호구는 문에 분향하고 제사할 것 1. 慕華館의 못가에는

조선후기에는 조선전기의 기고의례와 기우제룡 방식, 외산천 기우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기우제가 의례화되면서 정비되었다. 선조대의 기우제차는 기고의례, 기우제룡, 외산천기우가 종합하여 거행되었으며,[77] 인조 25년(1647)의 4월 6일부터 5월 23일까지의 기우제는 15차로 설행되었는데,[78] 기고의례, 기우제룡, 외산천기우가 반복되었다. 이후 숙종 30년(1703)에 국행기우제의 연차가 정식화되고, 기우제의 순서, 제장, 제관의 위계 등이 결정되었다. 이것은 다음과 같다.

> 기우제의 차례를 개정하기를, "첫 번째로 삼각산·목멱산·한강에 3品官을 보낸다. 두 번째로 龍山江과 楮子島에 宰臣을 보낸다. 세 번째로 풍운뇌우·산천·雩祀에 재신을 보낸다. 네 번째로 北郊에는 재신을 보내고 사직에는 중신을 보낸다. 다섯 번째로 종묘에 중신을 보낸다. 여섯 번째로 삼각산·목멱산, 한강·의 沈虎頭에 近侍를 보낸다. 일곱 번째로 용산강과 저자도에 중신을 보낸다. 여덟 번째로 풍운뇌우·산천·우사에 중신을 보낸다. 아홉 번째로 북교에는 중신을 보내고 慕華館 못가의 蜥蜴童子는 武臣 嘉善大夫를 보내며, 閭閻에는 屛柳한다. 열 번째로 사직에는 대신을 보내고, 경회루 못가의 석척동자는 무신 가선 대부를 보낸다. 열한 번째로 종묘에는 대신을 보내고 春塘臺 못가의 석척동자는 무신 가선대부를 보내며, 南門을 닫고, 北門을 열며 저자[市]를 옮긴다. 열두 번째로 五方土龍祭를 지내고, 楊津·德津·五冠山·紺岳·松岳·冠岳·朴淵·禾積淵·渡迷津·辰巖에는 焚柴하되, 모두 本道로 하여금 설행하게 한다." 하였는데, 예조판서 閔鎭厚가 일찍이 기우제의 차례가 錯亂되었으므로,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개정하라 명한 것이다.[79] (『숙종실록』 권39, 숙종 30년 6월 26일(甲午))

蜥蜴을 써서 기도할 것 1. 동방은 靑龍, 남방은 赤龍, 중앙은 황룡, 서방은 백룡, 북방은 흑룡을 만들어 기우제를 시행할 것 1. 楮子島는 畫龍祭를 시행할 것 1. 北門을 열고 南門은 닫을 것. 1. 북을 치지 말 것." 등을 올렸다. (『성종실록』 권44, 성종 5년(1474) 閏6월 10일(癸巳)).

77) 『선조실록』 참고.

78) 『祈雨祭謄錄』 참고. 『祈雨祭謄錄』은 인조 14년(1636)부터 고종 26년(1889)까지 가뭄이 심할 때 기우제를 지낸 것에 관한 기록을 예조에서 모아 편찬한 책이다.

위의 내용을 보면 국가제사에 포함된 신들을 대상으로 한 기고의례, 용을 대상으로 한 용신제, 한양 주변의 주요 산천제가 상호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12제차의 내용을 보면 1차는 삼각산·목멱산·한강(기고의례), 2차는 용산강과 저자도(기우제룡), 3차는 풍운뇌우·산천·우사(기고의례), 4차는 북교, 사직(기고의례), 5차는 종묘, 6차는 삼각산·목멱산·한강의 沈虎頭(기고의례와 기우제룡), 7차는 용산강과 저자도(기우제룡), 8차는 풍운뇌우·산천·우사(기고의례), 9차는 북교, 모화관, 못가의 석척동자(기고의례와 기우제룡), 10차는 사직, 경회루 못가의 석척동자(기고의례와 기우제룡), 11차는 종묘, 춘당대 못가의 석척동자,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열며 저자[市]를 옮긴다(기고의례와 기우제룡). 12차는 오방토룡제), 양진·덕진·오관산·감악·송악·관악·박연·화적연·도미진·진암에는 분시(焚柴)하였다(기우제룡과 외 산천기우).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기우제는 그 제의 절차와 양식이 여러 차례를 거쳐 숙종 30년에 유교적 기우제로 완결되어 조선후기 사회까지 그대로 지속되었다.[80] 숙종 30년의 12제차는 전반부에 해당하는 기고의례는 신의 위계적 서열에 따라 산천 → 풍운뢰우·우사 → 종묘·사직 순서로 진행되었고, 용신기우제는 침호두 → 화룡제 → 석척기우 → 오방토룡제 순서로 정해졌다. 그리고 산천의 비중이 줄고 단묘의 신들이 심으로 구성되며 용신제가 단묘, 한성의 산천 사이에 들어와 있다.[81] 그렇다면 조선시대 기우제에서 삼각산에서 행해진 기우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조선초기부터 1차 기우제는 삼각산에서 행해졌으며 숙종대 정비된 기우제에서도 삼각산은 목멱산·한강과 함께 1차 기고의례였다. 여기에는 3품 관원이 치제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영조 13년(1737)에 가

80) 최종성, 1998, 앞의 논문, 68~69쪽.

81) 17세기와 18세기의 기우제차의 과정과 관련해서 이욱, 2000, 「조선시대 국가사전과 영험성의 수용 – 기우제차의 정비를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6 참고.

묶이 심해 3품관으로 하여금 목멱산·삼각산·한강에서 기우제를 지내게 하였다고 하였다.[82] 그런데 영조 24년(1748) 윤 7월 7일에 2품관원을 보내어 삼각산·목멱산·한강에 기우제를 지내라고 명하기도 하였다.[83] 이와 같은 삼각산에서의 기우제는 헌관들이 향축을 받을 때 삼각산이 산천 중에서 가장 먼저 받았으며[84] 임금이 친히 풍운뢰우와 삼각산, 백악산 등의 제사에 쓸 향과 축문을 전하기도 하였다.[85] 그리고 삼각산 등의 제사는 중하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날에 형벌을 시행하지 말기를 청하기도 하였다.[86]

이와 같은 1차 기우를 마치고 비가 오면 이후의 제차는 생략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틀마다 다음 제차가 행해진다. 숙종 30년대 이후 삼각산에서의 6차 기우는 기고의례와 기우제룡이 결합한 형태로, 침호두는 한강에 호랑이 머리를 침수시켜 부동의 용을 자극하는 기우의례였다. 이는 용호상박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용의 승천과 강우를 이끌어내려는 주술적인 의례였다. 다음 〈표 4〉는 삼각산에서 행해진 1차 기우제와 6차 기우제의 날짜와 그 내용이다.

---

82) 『영조실록』 권44, 영조 13년(1737) 7월 6일(壬辰).

83) 『영조실록』 권68, 영조 24년(1748) 윤 7월 7일(己未).

84) 申時에 獻官들이 勤政殿의 中階에서 受香하였는데, 香祝을 전한 순서는 사직이 첫째, 영녕전이 둘째, 종묘가 그다음이며, 산천 가운데에서는 삼각산이 가장 먼저였다. (『선조실록』 권7, 선조 6년(1573) 5월 5일(甲申)).

85) 친히 풍운뢰우와 삼각산·백악산·한강·목멱산의 제사에 쓸 香과 祝文을 전하였다. (『단종실록』권10, 단종 2년(1454) 2월 7일(戊子)); 친히 삼각산·목멱산 ·한강의 제사에 쓸 향과 축문을 전하였다. (『세조실록』 11, 세조 4년(1458) 2월 4일(癸巳)).

86) 정원이 아뢰기를 "刑官이 탑전에서 계청한 바, 文宣王 釋采와 사직·풍운뢰우·雩祀·삼각산·한강·선농·선잠 및 종묘·영녕전·南別殿을 修改할 때 먼저 사유를 고하는 것과, 춘추로 각 능을 수개할 때 먼저 사유를 고하는 것 및 이외에 수시로 지내는 別祭의 祝文 가운데 御押을 받는 제사와 기우제에 이르러서는, 사체가 모두 중하니 제사 지내는 날에 형벌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 나머지 목멱산·宣武祠·纛祭·東南關王廟·厲祭·城隍發告·中雷·開氷司寒 등의 節祭는 축문에 御諱를 쓰지 않으니 앞의 제사에 비해 가벼운 제사를 지낸 후 형벌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이상과 같이 경중을 나누어서 정하였습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지금 분간해 나눈 것이 자못 명백한 듯하다. 형벌을 시행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이에 의거하여 거행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외방에서 修改한 곳 등에 지내는 제사에는 비록 受押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다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였다. (『현종개수실록』 권18, 현종 9년(1668) 2월 18일(丁亥)).

〈표 4〉 삼각산에서 행해진 1차 기우제와 6차 기우제의 시일과 그 내용

	1차	6차
숙종 23년(1697)	4월 20일: 重臣과 近侍를 나누어 보내어 풍운뇌우·산천·雩祀·삼각산·목멱산·한강 등지에서 기우하게 하고, 팔도[八路]에 명하여 각각 그 지경 안의 祀典에 기재되어 있는 곳에 제사를 마련하여 기우하도록 하였다.	5월 12일: 중신과 근신을 보내어 우사·삼각산·목멱산·한강에서 기우하게 하였다.
경종 3년(1723)	5월 4일: 오랜 가뭄 때문에 삼각산·목멱산·한강 등지에 기우제를 지내라고 명하였다.	5월 25일: 근시를 보내어 삼각산 등 여러 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영조 8년(1732)	6월 22일: 예조에서 기묘일에 근시를 파견하여 삼각산·목멱산·한강에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영의정이 세상을 떠남으로 인하여 기우제를 정지하는 當否를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으며, 인해서 우선 며칠간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6월 26일: 근시를 파견하여 삼각산·목멱산에서 비를 내리도록 기도하게 하고, 한강에서 沈虎頭 하면서 제사 지내게 하였다.
정조 1년 (1777)	4월 26일: 삼각산·목멱산·한강에 기우제를 지냈다. 5월 24일: 삼각산·목멱산·한강에 다시 기우제를 행하였다.	5월 15일: 삼각산·목멱산·한강에 7차의 기우제를 지냈다.
순조 9년(1809)	5월 14일: 삼각산·목멱산·한강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이날 비가 내렸는데 水深이 1寸 2푼[分]이었다.	6월 2일: 하교하기를, "규벽을 올려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 장차 다섯 번째에 이르게 되었다. 일전에 내린 비가 아직도 두루 흡족하지 않으니, 백성들의 일을 생각하면 참으로 대단히 목마른 듯이 번민하다. 여섯 번째의 기우제는 날짜를 가리지 말고 초3일에 근시를 보내어 침호두 하고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1차	6차
		설행하도록 하라. 淸齋를 삼가지 않는 것은 祭官의 책임일 뿐만이 아니라, 下隷들의 잘못이기도 하다. 이번에는 더욱 惕念하라는 것으로 祭享하기 위해 나아가는 근시에게 알리도록 하라." 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삼각산의 獻官은 우승지를 차임하고 목멱산의 헌관은 좌부승지로, 한강의 헌관은 동부승지로, 執禮·大祝 등 여러 執事는 入直玉堂 上下番과 史官으로 차임하라." 하였다.
		6월 3일: 삼각산·목멱산·한강에 여섯 번째 기우제를 지냈다.
순조 11년(1811)	4월 3일: 기우제를 삼각산·목멱산·한강에서 행하였다.	4월 18일: 여섯 번째 기우제를 삼각산·목멱산·한강에서 지냈다.
순조 14년(1814)	4월 12일: 삼각산·목멱산·한강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4월 27일: 삼각산·목멱산·한강에서 6차 기우제를 지냈다.
순조 25년(1825)	5월 26일: 이때에 가뭄이 심하여 移秧이 늦어지고 있는데, 예조의 계사로 인하여 첫 번째 기우제를 삼각산·목멱산·한강에서 행하였다	6월 11일: 여섯 번째 기우제를 삼각산·목멱산·한강에서 거행하였는데, 비가 내려 수심이 4촌 3푼이었다. 예조에서 기우제를 정지하고 가을을 기다려서 報謝祭을 설행하기를 계청하니, 윤허하고 獻官 이하에게 시상하였다.
순조 32년(1832)	5월 24일: 첫 번째의 기우제를 삼각산과 목멱산 및 한강에서 행하였다.	6월 17일: 여섯 번째의 祈雨祭를 삼각산과 목멱산 및 한강에서 행하였다. 비가 내렸는데, 수심이 4촌 6푼이었다.
고종 1년(1864)	5월 16일: 삼각산과 목멱산에 기우를 지냈다.	6월 1일: 삼각산, 목멱산, 한강에서 여섯 번째 기우제를 지냈다.

	1차	6차
고종 13년(1876)	4월 16일: 첫 번째 기우제를 삼각산, 목멱산, 한강에서 지냈다.	5월 1일: 여섯 번째 기우제를 삼각산과 목멱산에서 지내고 한강에 虎頭를 담그는 의식을 행하였다.
	6월 4일: 첫 번째 기우제를 삼각산, 목멱산, 한강에서 지냈다.	6월 19일: 여섯 번째 기우제를 삼각산과 목멱산에서 지내고, 한강에서 虎頭를 담그는 의식을 행하였다.
고종 19년(1882)	4월 19일: 삼각산과 목멱산, 한강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5월 4일: 삼각산과 목멱산에서 여섯 번째 기우제를 지내고, 한강에 虎頭를 빠뜨렸다.
고종 22년 (1885)	5월 13일: 첫 번째 기우제를 삼각산·목멱산·한강에서 지냈다.	5월 28일: 삼각산·목멱산·한강에서 虎頭를 담그고 여섯 번째 기우제를 지냈다.
고종 24년(1887)	윤4월 24일: 삼각산, 목멱산, 한강에 첫 번째 기우제를 지냈다.	5월 10일: 삼각산, 목멱산, 한강에 여섯 번째 기우제를 지냈다.

위의 〈표 4〉를 보면 숙종 30년 12제차 기우제를 정비하기 이전 숙종 23년에도 삼각산에서의 1차 기우와 6차 기우가 보인다. 그런데 6차 기우에서 숙종 30년 이후와 다른 것은 雩祀가 보인다. 이것은 숙종 30년에 삼각산, 목멱산, 한강의 침호두로 6차 기우가 변화되었음을 있다. 그런데 정조 1년 5월 15일의 기우제가 6차 기우제가 아닌 7차 기우제로 나오기도 한다. 영조 8년의 경우는 영의정이 죽자 1차 기우제가 멈췄고, 이후 6차 기우제를 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조 1년 5월 24일에 삼각산·목멱산·한강에 다시 기우제를 행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12제차를 통해서도 비가 오지 않자 다시 1차 기우제로 행하였음을 알려준다.

고종 13년 4~6월까지 행해진 기우제에도 당시의 가뭄의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순조 9년에는 1차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 왔으나, 이후 계속해서 기우제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볼 때 충분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기우제의 제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순조 23년 6월 11일에 여섯 번째 기우제를 거행하였는데, 비가 내려 수심이 4촌 3푼이었다. 예조에서 기우제를 정지하고 가을을 기다려서 報謝祭을 설행하기를 계청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순조 32년의 6차 기우제를 지낸 이후의 비 역시 수심이 4촌 6푼이었다.

한편 숙종 30년에 정해진 12차 기우인 진암 분시도 주목되는데, 이것은 용암으로 인식된 진암에 불을 피워 불과 열로 용의 처소를 위협하는 용암분시의 일종이었다. 진암 분시는 조선 전기 성종 때 삼각산에서 섶을 태우며 벌인 기우행사로[87] 국가적 기우제차로 정식화되어 선조대에는 3차 기우로,[88] 17세기에는 5차 기우로, 숙종 30년 이

87) 興天寺에서 祈雨祭를 올리고 또 道峯山 辰巖에서 燔柴하였다. (『성종실록』 44권, 성종 5년(1474) 윤6월 21일(甲辰); 전교하기를 "전에 가뭄을 만나면, 삼각산 辰巖에 제사하고 불을 놓으면 혹 비가 내린 적이 있었으니, 지금도 이와 같이 하여 기우하려고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나이가 장성한 처녀로 결혼하지 않은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該司로 하여금 널리 물어서 독려여 결혼하도록 하라."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이제 심한 한재를 당하여 어느 神에게나 다 제사를 지냈으니, 辰巖의 기우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內官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라." 하였다.(『성종실록』 권180, 성종 16년(1485) 6月 23일(壬寅)); 성종조에서는 내관을 시켜 삼각산의 辰巖에 가서 불태우게 했는데, 지금은 禮曹 郎官이 가서 불태우게 하되 섶[柴]은 楊州 고을에서 준비하게 하라. 전교하였다. "어제저녁에는 비가 올 조짐이 있어 매우 기대가 컸었는데 오늘은 살펴보니 도로 맑게 갰다. 이처럼 말라붙은 땅에 잠시 뿌리는 비는 도리어 이슬만도 못하여 더욱 곡식에 해롭다. 지금 상하가 어쩔 줄 몰라 해보지 않은 것이 없는데 맹인과 무당들의 기우제도 이미 끝마쳤다. 지난번 예조가 楊州의 辰巖에서 섶을 태우면서 기우제를 지내는 일은 차차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재가 너무도 절박하니 차례를 헤아릴 수가 없다. 전례에 따라 속히 진암에서 섶을 태우게 하라." (『중종실록』 권93, 중종 35년(1540) 5월 14일(乙巳)); 전교하였다. "요사이 날마다 東風이 불고 햇빛이 내리쬐다가 어제와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끼기에 소나기가 내리려는가 여겼었는데 비 내릴 기미가 전연 없다. 가뭄이 이러하니, 전일 昭格署 및 摩利山 塹城의 醮祭[마리산 참성은 江華府에 있다]와 기우제는 형편을 보아서 하라고 전교한 것을 근일 중에 시급히 거행하고, 辰巖에서 焚薪[진암은 楊州에 있고, 분신은 역시 기우하는 일이다] 할 것도 아울러 해조에 이르라." (『명종실록』 권17, 명종 9년(1554) 7월 18일(丙辰)).

88) 삼각산 辰巖에 제사 지낼 3차 祈雨祭文으로 정원에 전교하기를, "평소 진암에 焚柴하여 기우제를 지낼 적에 제문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겠다. 常祭라면 이 제문이 옳겠지만, 분시를 하면서 제사 지내는데 전연 분시에 관한 뜻이 없으니 곡절을 잘 살펴서 하라." 하니, 정원이

후부터는 각도에서 거행하는 12차 기우로 정례화되었고, 서울에서는 12차 기우로 오방토룡제가 행해졌다.

5. 맺음말

이상에서 본 논문에서는 문헌에 보이는 삼각산이 산천제사로 정비되어가는 과정 및 삼각산신과 산천신의 역할, 그리고 기우제와 삼각산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선 초기에 삼각산은 護國伯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았는데, 산천에 대한 분봉은 당 측천무후로부터였고 신라와 고려에서도 산천에 대한 분봉이 있었다. 하지만 조선 초에 행해진 명산대천·성황·해도에 행해진 봉작은 오래지 않아 사라졌다. 이것은 유교적 국가제사체계 정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전근대 동아시아 국가제사는 대·중·소사에 편제되었는데, 산천제사는 중사와 소사에 대체로 편입되었다. 삼각산은 백제의 부아악으로, 백제시기부터 삼각산은 진산으로 신성시되었고 이것은 통일 이후 신라의 소사에 편제되었다. 고려시기에는 왕이 삼각산에 행차하였는데, 이러한 삼각산은 고려의 잡사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조선은 건국 이후 삼각산 등 산천제사에 대한 여러 제도를 정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삼각산은 한양을 수호하는 진산으로, 중사에 편제되어 四嶽 중 가장 높은 산악으로 자리매김하다가 이후 中嶽으로 편제되었다.

회계하기를, "신들이 예조의 草謄錄을 가져다가 고찰해 보니, 지난 을미년 4월에도 旱災 때문에 焚柴祭를 거행했는데, 3차 기도한 대문에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문의 有無와 香室의 守僕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유년 이상의 제문은 등록이 유실되어 달리 고찰해 볼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조의 초등록에 이미 '京奠物'이라고 쓰여 있으니 제사를 거행하는 절차가 있은 것이 분명합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제문이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번의 이 제문 내용에는 참으로 분시에 관한 뜻이 없기 때문에, 知製敎로 하여금 첨가해 넣도록 하여 다시 付標하여 입계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진암에서의 분시는 그전부터 예조의 낭청이 가서 지냈었는데 별도로 제문이 없었으니, 예조에 물어서 잘 살펴 시행하라."하였다. (『선조실록』 권162, 선조 36년(1603) 5월 18일(癸酉)).

한편 산천신에게 봉작을 내리고 산천신의 신상을 만들어 형상화하는 것은 산천신을 인격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천에 대한 봉작과 신상 설치에 대해 고려시대부터 비판이 있어 왔고, 조선의 산천제사가 유교제사로 정비되면서 산천에 대한 봉작과 신상이 철폐되었는데, 이것은 삼각산 산신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삼각산 산신의 신위는 태종 14년(1414) 7월 25일에 白岳祠에 옮겨 백악산의 산신과 짝지워졌으며, 삼각산신에 대한 제사는 한강의 신, 목멱산신과 함께 제사 지내졌다. 삼각산신을 비롯한 산천신은 가뭄뿐 아니라 홍수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는 신으로 기우제뿐만 아니라 기청제, 기설제와도 관련 있었으며 왕실의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산천신이 수호신적 역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산천신에 대한 제사는 불교, 도교, 무속 및 유교적 요소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는데, 조선후기에는 유교적 요소만을 띄었다고 하였다.

산천신에 대한 제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우제이다. 한국 고대시기부터 삼각산에서 기우제를 행하였다. 하지만 기우제는 산천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장소에서 행한 기우제를 정비하였고, 숙종 30년(1703)에 최종 정리되었다. 기고의례는 산천 → 풍운뢰우·우사 → 종묘·사직 순서로, 용신기우제는 침호두 → 화룡제 → 석척기우 → 오방토룡제 순서로 정해졌다. 조선초기부터 삼각산에서 이루어진 기우제는 1차로 행해지고 있으며, 숙종대 정비된 기우제에서도 삼각산은 목멱산·한강과 함께 1차 기고의례였다. 숙종 30년대 이후 삼각산에서의 6차 기우제는 기고의례와 기우제룡이 결합한 형태로, 침호두는 한강에 호랑이 머리를 침수시켜 부동의 용을 자극하는 기우의례였다. 이는 용호상박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용의 승천과 강우를 이끌어내려는 주술적인 의례였다. 그리고 12차 기우인 진암 분시도 주목되는데, 이것은 삼각산에서 행해졌다. 진암 분시는 용암으로 인식된 진암에 불을 피워 불과 열로 용의 처소를 위협하는 용암분시의 일종이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삼국유사』『통전』『魏書』『구당서』『신당서』『고려사』『고려사절요』『기우제등록』『조선왕조실록』『세종실록오례의』『국조오례의』『신증동국여지승람』『아방강역고』『대동지지』.

김상범, 2005,『당대 국가권력과 민간신앙』, 신서원.

김영진, 1985,『한국자연신앙연구』, 민속원.

김철웅, 2007,『한국중세의 길례와 잡사』, 경인문화사.

나희라, 2003,『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이기백, 1974,『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이병도, 1976,『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7,『역주 삼국사기』3 주석편(상).

_____, 1997,『역주 삼국사기』4 주석편(하).

채미하, 2008,『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최광식, 1994,『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최종성, 2002,『조선조 무속 국행의례 연구』, 일지사.

한형주, 2002,『조선초기 국가제례연구』, 일조각.

今西龍, 1917,「京畿道高陽郡北漢山遺蹟調査報告書」, 朝鮮總督府.

김동욱, 1983,「신라의 祭典」,『신라민속의신연구』(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 논문집 4)

김아네스, 2010,「조선시대 산신 숭배와 지리산의 신사」,『역사학연구』39.

김철웅, 2001,「고려시대의 산천제」,『한국중세사연구』11.

김태영, 1973,「조선초기 사전의 성립에 대하여」,『역사학보』58.

김해영, 1994,「상정고금례와 고려조의 사전」,『국사관논총』55.

문경현, 1992,「신라의 산악숭배와 산신」,『신라사상의 재조명』(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2).

박호원, 1995,「고려의 산신신앙」,『민속학연구』2.

서영대, 1994,「민속종교」,『한국사』16, 국사편찬위원회.

오경후, 2009,「1910년대 今西龍의 삼각산 명칭해석에 대한 검토」,『한국사상과문화』47.

이　욱, 1998,「조선전기의 산천제」,『종교학연구』17.

_____, 2000,「조선시대 국가사전과 영험성의 수용 - 기우제차의 정비를 중심으로」,『종교와 문화』6.

_____, 2000,「조선전기 국가기우제와 산천」,『Journal Korean Culture』1.

채미하, 2007,「신라의 명산대천의 사전 편제 이유와 특징」,『민속학연구』20.

_____, 2008,「신라의 사해와 사독」,『역사민속학』26.

최종성, 1998,「국행 무당 기우제의 역사적 연구」,『진단학보』86.

허흥식, 2002,「세종시 산천단묘의 분포와 제의의 변화」,『청계사학』17·18.

경기도 도당굿과 삼각산 도당굿

김형근*

1. 들어가며 • 219
2. 도당굿의 지역적 분포 • 221
3. 경기도 도당굿의 양상 • 224
4. 삼각산 도당굿의 양상 • 232
5. 삼각산 도당굿의 무형유산적 가치 • 238
참고문헌 • 241

* 동아대학교 융합교양대학

1. 들어가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강북구 일대에 존재하는 북한산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유형 분류상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함께 하는 복합유산이다. 따라서 북한산성의 온전한 가치는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자연유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을 때 파악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1] 이 글은 이중 무형문화유산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글이다.

북한산(또 다른 명칭으로 삼각산)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많은 마을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존재한다. 과거 그 마을들에서는 자연스레 마을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나 차차 마을 공동체의 해체와 맞물려 그 신앙도 전승 단절되어왔다. 오늘날 그 흔적이 남아 있는 북한산성 인접 마을제의로서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도당굿과 서울시 도봉구 일대의 삼각산 도당굿 정도이다. 그러나 북한동 도당굿의 경우는 그 전승이 원활하지 못하며 온전히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삼각산 도당굿이 유일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삼각산 도당굿의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궁극에는 북한산성의 무형문화유산적 가치를 말하고자 한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많은 문제들과 만난다.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집단의 공통 문제까지 수없이 많은 문제와 직면한다. 그러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인이라도, 집단지성의 힘을 빌리더라도 풀 수 없는 삶의 근원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 삶과 죽음, 자연의 재해, 사건과 사고 등등. 자연스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내지는 위안의 욕구는 곧 신과의 만남으로 이어진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 중세보편종교도 그러한 성격이 강하지만 무속(샤머니즘), 민간신앙 등

1)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의 경우에도 숭렬전제향(崇烈殿祭享), 현절사제향(顯節祠祭享), 남한산성 도당굿, 광주산성 소주 등을 무형유산의 관점에서 주목한 바 있다.

원시고대종교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으로서는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solution)은 믿음 또는 종교의 가장 큰 기능이자, 신앙민들의 가장 큰 욕망이다. 그러하기에 종교를 이해하는 것은 곧 사람을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지향한다. 이 연구는 곧 북한산(삼각산)을 삶의 공간으로 삼은 이들의 삶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은 마을 공동의 신앙, 이른바 마을신앙(洞信仰)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오늘날은 마을 공동체가 사라짐에 따라 마을신앙이 사라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신앙의 전통이 남아 있는 곳들이 많다. 문화의 변화 속도가 느린 이른바 '시골'에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도 꽤 여러 곳들이, 비록 일반인들이 잘 모르지만, 현재까지 그 모진 생명력을 유지해오고 있다. 어떤 지역들에서는 단절되었던 자신들의 전통을 다시 잇고자 복원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마을신앙인 마을굿에 대한 관심은 미신이라는 프레임이 아닌 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삶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마을신앙에서 중요시 되는 신앙공간이 '산(山)'이다. 요즘 사람들은 세상을 내려다보기 위해 산을 오르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보기 위하여, 높은 곳의 신과 만나기 위하여 산에 올랐다. 풍수지리의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마을은 산을 배경으로 형성되고, 그 산에는 마을을 보호해준다고 믿어지는 신격이 좌정하는 공간으로 관념한다. 북한산(삼각산)의 여러 마을 또한 북한산을 그 신앙적 공간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 전승은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그나마 전승이 활발히 되고 있는 삼각산 도당굿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당굿(都堂굿)' 하면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국가무형문화재 제98호로 지정된 '경기도 도당굿'이다. 북한산성이 존재하는 공간도 서울·경기 북부이기에 '경기도 도당굿'의 일종으로서 '삼각산 도당굿'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 도당굿과 삼각산 도당굿은 그 연행

집단의 성격이나 연행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뚜렷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둘의 굿 양상을 드러냄으로써 '삼각산 도당굿'의 독자적 성격을 비교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궁극에는 삼각산 도당굿으로 대표되는 북한산성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밝히고자 한다.

2. 도당굿의 지역적 분포

도당굿은 도당(都堂)과 굿의 합성어이다. 도당은 마을 수호신을 모셔놓은 당을 의미하므로 도당굿은 곧 마을 수호신을 위한 무당굿을 의미한다. 마을 수호신을 위한 무당굿은 전국적으로 두루 존재하지만 그 명칭은 차이를 보인다. 강원도에서부터 부산에 이르는 동해안, 그리고 거제와 통영의 남해안에서는 별신굿이라 부른다. 황해도의 해안에서는 대동굿, 전라도에서는 당산굿,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당산굿, 부군당굿 등이라 부르는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도당굿이라는 명칭은 주로 현재의 행정구역상 서울과 경기 여러 곳에 존재하는 명칭이다. 오늘날의 행정 구분으로는 서울과 경기이지만, 결국 과거 전통사회에서 서울이란 사대문 안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도당굿'은 경기도에 두루 사용된 마을굿을 의미하는 셈이다.

서울 지역의 마을굿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칭은 부군당굿과 도당굿이다. 한강 주변 마을에 부군당이 존재하고, 거기서 부군당굿을 올린다. 밤섬부군당, 보광동부군당, 큰한강부군당, 이태원부군당, 산천동부군당, 당산동부군당, 서빙고부군당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부군당이라는 명칭만큼 도당이라는 명칭도 많이 발견된다. 오늘날까지도 존재한다고 조사 보고된 서울의 도당굿은 다음과 같다.[2)]

2) 홍태한, 2008,「서울 마을굿의 전승 현황과 유형 구분」,『중앙민속학』제13호,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159~160쪽.

연번	도당 이름	소재지	당집의 유무	제의 주재자	제의 일자	참고 사항
1	삼각산 도당	강북구 우이동	없음. 신목에 제단	당주무당	음력 3월 3일	
2	역말 도당	강남구 도곡동	없음. 신목에 제단	마을주민	음력 10월 1일	
3	대치동 도당	강남구 대치동	없음. 신목에 제단	마을주민	음력 7월 중 택일	
4	등마루 도당	강서구 등촌동	없음. 신목에 제단	당주무당	음력 10월 1일	
5	증미 도당	강서구 염창동	없음. 제단	당주무당	음력 10월 1일	
6	염창동 도당	강서구 염창동	없음. 신목에 제단	당주무당	음력 10월 1일	
7	후포마을 도당	강서구 마곡동	1평 기와집	마을주민	음력 10월 1일	
8	은행말 도당	노원구 중계동	없음. 제단	마을주민	음력 10월 택일	
9	광석마을 도당	노원구 중계동	없음. 신목	마을주민	음력 10월 택일	
10	공덕골 도당	노원구 공릉동	없음. 신목	당주무당	음력 2월 1일	
11	답십리 도당	동대문구 답십리동	3칸 기와집	마을주민	음력 10월 1일	
12	능내마을 도당	동작구 사당동	없음. 신목에 제단	마을주민	음력 10월 3일	
13	서래마을 도당	서초구 잠원동	없음. 신목에 제단	마을주민	음력 10월 택일	
14	석관동 도당	성북구 석관동	6평 시멘트 건물	마을주민	음력 10월 1일	
15	돈암동 도당	성북구 돈암동	1평 슬레이트 건물	마을주민	음력 10월 1일	산신도 봉안
16	신기리 도당	영등포구 신길동	1칸 기와집	마을주민	음력 10월 3일	
17	양화리 도당	영등포구 양평동	없음. 신목에 제단	마을주민	음력 10월 1일	
18	삼지동 도당	종로구 삼지동	없음. 신목에 제단	마을주민	음력 8월 1일	
19	봉화산 도당	중랑구 신내동	2칸 기와집	당주무당	음력 3월 3일	
20	묵동 도당	중랑구 묵동	없음. 신목	마을주민	음력 2월 1일	

오늘날은 많은 지역에서 무속제의, 이른바 굿이 아닌 유교식 제사 형식으로 바뀌었지만 과거 이 지역들에서도 무속제의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중 아직까지도 삼각산(북한산), 봉화산, 공덕굴(공릉동) 등에서는 무속제의의 도당굿 전통이 남아 있다.

현재의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해당되는 지역 중 도당굿이라는 명칭이 존재하는 지역은 고양의 정발산 도당굿, 구리시의 담터 도당굿, 갈매동 도당굿, 부천의 장말 도당굿, 수원 고색동 도당굿, 평동 도당굿, 화성시 우음도 도당굿 등이다.

도당굿을 포함한 마을굿의 목적은 공통되게 마을과 각 가정의 재수, 평안을 바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어지는 마을신을 위시한 여러 신들을 모셔 대접하는 의미의 의례를 갖는 것이다. 목적은 같지만 각 지역마다 소위 무풍(巫風)이 달라 굿의 방식이 다르다.

굿의 방식이라 함은 대체적으로 무당의 가무악희(歌舞樂戱)가 다르고, 아울러 모셔지는 신들에 대한 차이도 존재한다. 도당굿이라 불리는 서울·경기 지역 또한 지역에 따라 그 방식의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그 굿을 집전하는 무집단의 성격에서 차이가 난다. 즉, 세습무가 진행하는 경기 남부와 강신무가 진행하는 서울 및 경기 북부로 크게 두 유형으로 살필 수 있다.[3] 3장에서 '경기도 도당굿'이 세습무의 경기 남부형이고, 4장의 '삼각산 도당굿'이 강신무의 서울·경기 북부형이다.

---

3) 경기 북부인 갈매동 도당굿의 당주 악사인 허용업은 본인은 화랭이며, 본인 집안 대대로 화랭이 집안이었음을 밝힌다. 그러나 자신들의 굿은 서울굿과 같으며, 경기 남부 화랭이와의 굿과는 다르다고 한다. (필자와의 인터뷰) 한편 김헌선은 경기도 마을굿의 지역유형을 1) 경기도 북부 도당굿, 2) 경기도 남부 도당굿, 3) 곶창굿으로 나누어 살핀 바 있다(김헌선, 2013,「경기도 도당굿의 현지조사 경과, 지역유형, 그리고 비교의 전망」,『한국무속학』제26집, 한국무속학회, 12~14쪽. 본고에서의 구분은 도당굿의 지역 유형이므로, 곶창굿은 제외하고 논의한다.

3. 경기도 도당굿의 양상

경기도 도당굿은 경기도 일대에 '도당굿'이라 명명되는 모든 마을굿을 의미한다. 하지만 무속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남부 산이제(세습무)굿을 의미한다. 이는 1990년 국가무형문화제 제98호로 지정된 것이 〈경기도 도당굿〉이라는 이름으로 지정된 것과 연관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서술하게 되는 경기도 도당굿은 경기도 일원의 도당굿이 아닌 경기 남부 산이제(세습무)들의 도당굿을 의미한다. 이들 집단에서는 굿을 하는 여자 무당을 '미지'라 부르고, 굿의 악사 및 굿에도 참여하는 남자를 '사니(산아)', 또는 '화랭이'라 불렀다. 이들 집단들이 활약했던 지역이 수원, 화성, 오산, 부천, 과천, 안산, 인천, 양평 등이다.

경기도 도당굿의 초대 보유자였던, 마지막 화랭이(이 지역 세습무의 남무를 '화랭이'라 부른다.) 이용우가 12대에 걸쳐 굿을 해왔을 정도로[4], 산이제 굿은 그 가계(家系)의 전통과 그들이 관할하는 당골판이 중요하다. 강신무가 직접 신을 몸에 실어 신의 말인 '공수'를 하고, 그것의 영험함을 보여주는, 이른바 신의 대리인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습무는 가무악희의 종합 예술적인 모습으로 신들을 즐겁게 하는 예능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마을굿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승주체가 필요하다. 굿을 하는 무집단과 굿을 의뢰하는 마을사람들(신앙민)이 바로 그 주체이다. 이중 어느 한 주체가 소거되면 마을굿 유지는 와해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경기도 도당굿은 1960~70년대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전승이 끊겼다. 그러나 1980년대에 그 문화재적 가치를 알고 있는 학자 등의 적극적 역할로 복원되었다. 과거 많은 마을에서 도당굿을 했지만 그중 1980년 부천 장말과 1982년 인천 동막마을에서 과거의 전통을 이어 다시 도당굿을 재개하게 된 것이다. 부천 장말은 오늘날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으나 인천 동막은 남동공단 2단계 조성구역

4) 김헌선, 1994,「경기도 도당굿 화랭이 이용우(1899~1987)의 구비적 개인사」,『구비문학연구』 제1집, 한국구비문학회, 14쪽.

으로 개발되면서 그 전승이 끊겼다.

경기도 도당굿이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상 그 전승은 위기이다. 더 이상 마을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으며, 공동제의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안 된다. 무엇보다 도당굿을 진행할 세습무 전통은 끊기고 있다. 사회적으로 냉대받는 무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부모, 부모의 재주를 물려받겠다는 자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전한 형태의 경기도 도당굿은 이미 1980, 90년대 초반에 그 생명력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 도당굿의 온전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것으로는 불완전하며, 1980년, 1990년대 이전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 이들 자료에 드러나는 경기도 도당굿의 양상은 다음의 표로 정리된다.[5]

이혜구, 1944년 「무악연구」[6]	장주근, 1978년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기편』[7]			황루시, 1983년 『한국의 굿』[8]
청수골 김광채	시흥 이옥순	안산 우정원	수원 이용우	82년 장말, 동막
부정 시루 제석 그루배기 손굿 구눙 산마누라 뒷전	부정 시루돋움 똘똘이 산바라기 공구리 제석굿 군웅굿 손굿 양푼띄기 뒷전 왕당대올리기	부정 시루풀이 시루디딤 똘똘이 터부림 손굿 제석 군웅굿 뒷전	똘똘이 부정 시루거리 제석거리 손굿 군웅굿 서낭굿 뒷전	당주굿 거리부정 안반고수레(잔고시레) 부정굿(앉은부정, 초부정) 도당모셔오기 돌돌이 장문잡기 시루말 제석(청배, 제석굿) 본양굿(도당할머니굿) 터벌림 손굿 군웅 도당모셔다드리기 중굿(신장굿) 뒷전

5) 다음의 표는 김형근, 2016,「무가와 연행 맥락 해석을 통한 경기도 도당굿 '군웅'의 성격」,『실천민속학연구』27호, 실천민속학회, 169~170쪽에서 인용.

6) 이혜구, 1957,「무악연구」,『한국음악연구』, 국민음악연구회.

1983년 『한국민속종합조사 보고서-무의식편』[9]	이두현 외 『무형문화재조사 보고서』[10]	김헌선 1995년 『경기도 도당굿 무가의 현지 연구』[11]	
이용우 인터뷰	90년, 동막	84년, 동막	91년, 장말
당주굿 당맞이(당굿) 돌돌이 작문잡기 시루굿 터벌림 제석 손님 군웅 당할머니굿 뒷전	당주굿 거리부정 부정굿 도당모시기 돌돌이 장문잡기 시루말 제석 본향굿 터벌림(터잽이) 손군 군웅굿 도당보내기 중굿 뒷전	당주굿 거리부정 부정굿 도당모시기 돌돌이 시루말 제석굿 신장굿+손굿+공굿 본양굿 터벌림 군웅굿 도당할머니모시기 중굿 뒷전	당주굿 부정굿 도당모시기 돌돌이 장문잡기 시루말 꽃반세우기 제석굿 터벌림 별상+홍손님굿+대장굿 군웅굿 중굿 도당모시기 뒷전

이들 자료를 종합해서 보면 가장 중심된 제보 인물은 마지막 화랭이였던 이용우, 조한춘이고, 굿의 현장은 부천 장말과 인천 동막이다. 이 두 지역의 굿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장말 도당의 경우 마을 특성상 '꽃반세우기'라는 제차가 마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연행된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이중 이두현 보고의 것이 오늘날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의 전거가 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그 개별 제차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

7) 문화재관리국, 1978,『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 경기편』, 문화재관리국.

8) 황루시, 1988,『한국인의 굿과 무당』, 문음사.

9) 문화재관리국, 1983,「제6장 수원지방 무의식」,『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 무의식편』, 문화재관리국.

10) 문화재관리국, 1998,「第186號 京畿道 도당굿」,『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20집』, 문화재관리국.

11) 김헌선, 1995,『경기도 도당굿 무가의 현지연구』, 집문당.

다. 그 제차 구성은 1) 당주굿, 2) 거리부정, 3) 부정굿, 4) 도당모시기, 5) 돌돌이, 6) 장문잡기, 7) 시루말, 8) 제석, 9) 본향굿, 10) 터벌림(터잽이), 11) 손굿, 12) 군웅굿, 13) 도당보내기, 14) 중굿, 15) 뒷전 등이다. 세부 연행의 내용까지 세세히 설명하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들이[12] 존재하므로 여기서는 간단하게 굿거리의 기능과 의미가 드러내는 정도의 서술만 하도록 한다.

1) 당주굿은 굿의 당주를 위한 굿이다. 도당굿을 하는 마을에서는 마을을 대표할만한 사람을 가려 뽑아 당주로 삼는다. 신께 절을 올릴 때 등 마을을 대표할 때 당주가 나선다. 굿이 있기 전 자신의 집, 또는 합숙소에서 출입을 삼가하며 여러 금기들을 지키고 있다. 1990년 동막 도당굿의 당주굿을 기록한 내용을 잠시 보면 다음과 같다.

> 동막에서는 당주를 3명 뽑는데 금년은 上당주에 송상윤씨(64세), 中당주에 고순섭씨(61세), 下당주에 추선선씨(53세) 등의 3명이 연령순으로 뽑혔다. 당주들은 옛날에는 사흘 전부터는 초막을 짓고 합숙하며 女色을 끊고 목욕재계했다고 한다. 지금도 합숙은 안 하지만 堂山 뒤 우물을 가시고 그 물로 목욕을 하고, 근신하며, 굿에 앞서서는 손발을 깨끗이 씻는 정도의 정성은 기울인다.[13]

본격적인 굿에 앞서 당주굿을 통해 다시 한번 당주에게 있을 부정할 것들을 제하는 성격으로 당주굿을 하며, 이를 통해 당주는 집을 떠나 굿의 공간으로 움직임이 가능하게 된다.

---

12) 경기도 도당굿의 실상을 잘 정리한 대표적인 선행 저작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김수남 외, 1983,『한국의 굿 – 경기도 도당굿』, 열화당.
김헌선, 1995,『경기도 도당굿 무가의 현지 연구』, 집문당.
김헌선, 1997,『한국 화랭이무속의 역사와 원리 1』, 지식산업사.
김헌선, 1999,『경기도 도당굿』, 국립문화재연구소.
하주성, 2000,『경기도 도당굿의 무가』, 경기문화재단.

13) 문화재관리국, 1998, 앞의 책. 765쪽.

2) 거리부정은 굿을 하는 당으로 가면서 길에서 하는 부정굿이다. 신을 만나러 가는 여정, 길(道)에서 벌어질지 모르는 부정을 가셔내고, 예방한다는 의미로 간단하게 한다.

3) 부정굿, 4) 도당모시기, 5) 돌돌이, 6) 장문잡기는 이른바 '도당신 모셔기'라는 세트에 해당되는 제차들이다. 신을 청하기에 앞서 제장을 정화시키는 의미로 부정굿을 하고, 참나무로 대를 만들어 여기에 도당신의 하강을 하는 도구로 이용함으로써 도당모시기를 한다. 지상으로 하강한 도당신이 이제 마을의 여러 곳들을 두루 돌아 축원을 한다. 그리고 다시 굿당으로 돌아와 '장문잡기'라는 독특한 제차를 진행한다. 장문잡기는 굿이기 보다 놀이화되어 있어 독특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굿의 성격은 명확해 보인다. 가장 중심신격인 마을신을 당으로부터 모셔와 굿당에 앉히는 성격이다. 당신을 맞이해오며 굿당에 앉히는 마지막 관문이 곧 장문잡기인 셈이다.[14]

7) 시루말, 8) 제석, 9) 본향굿, 10) 터벌림(터잽이), 11) 손굿, 12) 군웅굿은 본격적으로 여러 무속신들을 차례대로 모시고, 대접을 하는 굿거리들이다. 먼저 7) 시루말은 제차 이름은 (떡)시루에서 비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루말'이라 부르지만, 무가의 중심 신격은 '칠성(七星)'이다. 칠성은 곧 자손의 수명장수를 관장하는 신격이다.[15]

8) 제석은 제석(帝釋)신을 의미한다. 원래 인드라(Indra)라는 인도 신령의 중국 역어(譯語)이고, 불교의 전래 이후 그 명칭이 무속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전국에 보편적으로 '제석굿(거리)'가 존재하는데 이 때는 흰 고깔과 장삼을, 염주를 매고 한다. 그런데 불교의 제석과 무속의 제석은 성격(신의 직능)의 차이가 있다. 아울러 제석굿에서는 제

14) 김형근, 2016, 앞의 글. 172쪽.

15) 선행 연구자들은 이렇게 시루말을 '칠성굿'이라 보았고, 최근 논의에서는 '칠성굿'이 아닌 이 굿거리가 본격적인 굿에 앞서 여러 가신들 내지는 제신(諸神)들께 간단히 비손으로 고하는 전라도굿의 '안당' 내지 '웃머리'와 같은 역할로 본다는 견해도 있다. (김형근, 2016, 앞의 글. 174쪽.)

석본풀이 또는 당금애기본풀이라는 긴 서사무가를 부른다. 경기도 도당굿에서도 이 본풀이를 부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기도 도당굿에서 제석굿은 재복(財福)을 관장하는 신격이다.[16]

9) 본향굿은 본향(本鄕)으로, 조상들이 거주하던 곳 또는 자신의 뿌리를 의미한다. 다른 굿거리에서 신들은 인격화되어 있어 그 형상이 그려진데 반해 본향은 모호하다. 다만 많은 지역에서 본향굿에서는 팔도명산들이 호명되어 있어 태어난 고장의 명산이 본향으로 상징된다.

10) 터벌림(터잽이)는 '터(基)를 벌린다'라는 의미이다. 명확하게 굿거리는 아니다. 굿과 굿 사이에 여흥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과거 굿은 단연 최고의 구경거리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좁은 굿당에 운집하면 점차 무당이 서서 굿을 해야 하는 공간들이 좁아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렇게 좁아진 굿당을 넓히기 위하여 화랭이들이 꽹과리를 들고 무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덤블링을 넘기도 하고, 짚을 던지기도 하면서 공간을 넓힌다. 그래야 경기도 도당굿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굿거리인 손굿과 군웅굿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손굿은 마마신인 손님을 모시는 굿거리이다. 과거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천연두, 마마이기에 어느 지역에서도 손굿은 아주 중요한 신격이다. 그 신들에게 정성을 드림으로 해서 마을에 천연두, 마마마돌지 않게 예방하는 굿이다. 손님 또한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신격이다. 오늘날은 천연두, 마마가 거의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이 굿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천연두, 마마'에 국한하지 않고, 질병 등 병을 낫게 또는 걸리지 않게 보호해주는 신격이라 재해석을 하기도 한다.

12) 군웅굿은 마을을 보호해주는 군신(軍神)으로 형상화된다. 그래서 군웅굿에서는 활과 화살을 무당이 사방으로 쏘는 상징적 행위를

16) 전국에 두루 '제석'이라는 신격이 존재하지만 그 기능이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많은 지역에서는 재복(財福), 생산(生産)신의 기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무조(巫祖), 경상남도의 동해안, 남해안에서는 풍신(風神)을 의미하는 등 그 차이가 존재한다.

통해 마을의 제액들을 소멸한다고 관념한다. 경기도 도당굿에서는 유난히 이 군웅굿을 중요한 굿거리로 관념한다. 마을굿이 마을의 안녕을 소원하는 것이기에 여러 신들의 도움들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군웅의 직능이 더 직결된다는 관념의 소산으로 이해된다.

13) 도당보내기는 굿의 초반에 했던 '도당모시기'에 대응되는 굿거리이다. 참나무로 대를 만들고, 그것을 도당신의 하강하는 신(神)대라 관념한다. 도당신은 이 신대를 통해 인간 세계에 내리고, 오를 수 있는 통로, 내지는 교통편이 되는 것이다. 도당모시기에서는 이 대를 잡아 도당신을 모셨다면, 도당보내기에서는 지금까지의 굿을 잘 받았는지, 그리고 마을의 소원들을 잘 들어줄 것인지를 알아보는 등을 묻고 도당신을 원래의 공간으로 돌려보낸다. 조금 더 그 장면을 실감할 수 있도록 현장 기록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 날이 밝아오니 동네 대잡이 고경식 노인이 신대를 잡고 쌀 그릇에 꽂은 채 전은순 무녀와 마주 앉았다. 전 무녀는 대동정성 잘 받으시고 도와주십사고 축원을 하며 징, 꽹가리, 장고들의 요란한 주악에 따라서 다시 신이 대에 오르기를 빌었다.
>
> 대는 곧 떨리니 3당주들을 소리쳐 불러서 떡시루, 쇠머리, 숭어 등 도당상을 먼저 3당주들이 들고 일동은 비를 맞으며 진 길을 당가리로 갔다. 진 땅바닥에 미쳐 돗자리도 못가져 왔으니 3당주는 제상을 놓고 진 땅바닥에 꿇어 절을 했다. 고 노인은 대를 잡고 떨면서 당가리를 돌다가 대를 당가리에 기대둔 채로 돌아왔다. 전 무녀는 순 서울식 굿으로 주악에 맞추어 도무에 공수로 받들어 도와주마 하고 간단히 끝을 냈다.[17]

14) 중굿은 화랭이가 중의 복색을 하고 마을사람들에게 별비를 받는 연극적인 굿거리이다. 이렇게 하나의 굿놀이가 제의적인 굿거리와 별도로 독립된 것은 특이하다. 그런데 동해안굿의 사례 등으로 보건

17) 문화재관리국, 1998, 앞의 책. 777~778쪽.

데 중의 복색을 하는 이른바 중놀이는 제석굿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이 굿거리에 대한 전승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 밝힐 수 없는 부분이다.

15) 뒷전은 잡귀잡신을 모시는 굿거리이다. 본격적인 굿에서는 위계가 높은 신들을 모시기에 그에 따르는 잡귀잡신은 대접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모든 굿의 정식 절차가 끝나면 이들 잡귀잡신을 위한 굿거리를 갖는다. 경기도 도당굿의 뒷전에서는 짚으로 큰 허재비를 만들고, 화랭이가 이를 퇴치하는 굿놀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5개의 개별 굿거리로 구성된 한 판의 경기도 도당굿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관점이 도움된다. 왜냐하면 개별 굿거리는 의미적으로 독립하기보다 서로 의미적 관계를 맺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하필 그 굿에서 그 굿거리가 존재하는가, 또 그 굿거리들의 순서가 정해지는가는 바로 의미맥락이 있는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이지, 우연히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기도 도당굿은 마을 주신격인 도당신(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을 대접하는 굿이다. 그래서 굿의 중심은 이 도당신을 굿당에 모셔와 음식과 풍류(가무악희)를 대접한 뒤 원래 있었던 공간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한국 무속의 신관념은 유일신이 아닌 여러 신들이 기능 분화를 한다고 관념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웃어른인 도당신을 먼저 모신 뒤에 여러 직능들을 관장하는 신격들을 차례대로 모셔 대접한다. 제석, 본향, 손님, 군웅 등이다. 그래서 경기도 도당굿이 많은 굿거리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도당신을 모시고, 대접한 뒤에 원래의 공간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그 흐름이다. 이때 도당신만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에 필요한 기능을 발휘하는 여러 신격들도 함께 모셔진다.

굿거리 명칭	의미 단락
1) 당주굿	도당신 청신(請神)
2) 거리부정	
3) 부정굿	
4) 도당모시기	
5) 돌돌이	
6) 장문잡기	
7) 시루말	직능신 대우(待遇)
8) 제석	
9) 본향굿	
10) 터벌림(터잽이)	
11) 손굿	
12) 군웅굿	
13) 도당보내기	도당신 송신(送神)
14) 중굿	
15) 뒷전	

경기도 도당굿의 연희적 특징은 세습무에 의해 진행되므로 세습 남무인 화랭이의 역할이 강조된다. 세습무에 의해서 진행되는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는 세습 남무의 경우 악사와 굿놀이를 맡으며 제의적인 역할을 여무가 맡는다. 하지만 경기도 도당굿에서는 중요한 굿거리에서는 남무와 여무가 겹으로 무가를 읊는 등 남무의 제의적 역할이 강조된다. 경기도 도당굿에서 손님굿, 군웅굿, 뒷전은 유난히 화랭이의 역할이 강조되는 굿거리들이다. 그래서 경기도 도당굿을 '산이제 굿' 또는 '화랭이굿'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제대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이, 화랭이가 없어 그 전승 위기에 놓여져 있다.

4. 삼각산 도당굿의 양상

북한산성의 마을들, 즉 북한산(산각산)을 삶의 공간으로 삼은 마을

들은 많았다. 그리고 그 마을들에서는 마을굿을 두루 가지고 있었을 것은 쉽게 추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그 마을굿의 전승이 된다고 전해지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중 삼각산 도당굿(제)라는 이름으로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마을굿이 오늘날도 음력 3월 3일에 열리고 있다.[18] 그리고 2010년 11월에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2호로 지정되었다. 한편 삼각산은 조선시대 국행제례가 행해졌던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국행제와 도당굿은 별개의 것이었으나 문화재 지정 후로는 '삼각산 도당제'라는 명칭으로 이 둘이 겸해서 진행되고 있다.

삼각산 도당굿은 2일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첫날은 굿의 준비격으로 고사와 산신제를 마을사람들 중심의 유교식으로 드린다. 그리고 3일에 무당(만신)을 초청하여 굿을 한다. 도당굿을 위해 마을에서는 제관 1인, 화주 3인을 뽑는다. 제관은 의식의 대표자로 마을사람들을 대표하여 잔을 올리고 절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 화주는 이 제관을 보필하며, 여러 굿에 필요한 잔심부름을 하는 이들을 말한다.

삼각산 도당굿의 사제자들은 서울굿을 하는 강신무들이다. 그래서 앞서 살폈던 경기도 도당굿의 무집단과는 굿의 연행 모습들이 다르다. 강신무들은 신을 직접 몸에 싣는, 신내림을 한다. 각 굿거리에서 신들이 들어와 직접 신의 모습을 또는 음성을 들려준다. 이것이 공수이다. 이에 반해 세습무들은 가무악희라는 예능을 통해 신들을 즐겁게 하고, 그 능력으로 인간의 희망들을 신께 간청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한다.

오늘날의 삼각산 도당굿 순서는 보존회에서 기록한 2001년도 때부터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보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9]

---

18) 과거에는 음력 3월 중에 길일을 가려 뽑아 했고, 1970년대부터 음력 3월 3일로 고정되었다고 전해진다.

19) 김선풍 외, 2006,『(牛耳洞) 三角山 都堂祭』, 보고사. 219~220쪽. 서울굿의 굿거리 분절을 이 책처럼 하면 굿이 이해가 쉽지 않다. 실제 한 만신이 여러 거리를 같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세트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여 본 연구자가 '비고'란에 표시하였다.

번호	2001년	2004·5년		비고
1	부정거리	부정거리·가망청배		부정, 가망
2	산신청배	산맞이 (산본향)	산신청배	산맞이
			산본향	
3	본향(산맞이)거리		산말명 등	
4	천궁맞이(불사거리)	불사거리 (천궁맞이)	불사거리	천궁맞이
			천궁호구	
			천궁창부 등	
5	장군거리	장군거리	성제거리	대안주
6	별상거리		장군거리	
7	신장거리		별상거리	
8	대감거리		신장거리	
			대감거리	
9	제석청배	제석청배		제석
10	작두거리	작두거리		
11	제석거리	제석거리		
12	산신군웅거리	사냥놀이		(산신)군웅
13	사냥놀이	군웅거리		
14	소지	소지(대동소지)		도당내모시기
15	산신배웅	산신배웅(도당모셔다드리기)		
16	성주굿	성주굿		성주, 창부, 계면
17	창부거리(1년운수)	창부거리		
18	계면거리(흰떡거리)	계면거리		
19	뒷전	뒷전	걸립대감	뒷 전
			사냥거리	
			맹인거리 등	

삼각산 도당굿의 굿거리는 보통 서울굿 중 재수굿에 해당되는 굿거리의 절차를 기본으로 한다. 차이가 있다면 산맞이와 천궁맞이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는 점, 개인집의 재수굿에서는 제석굿이 안당제석이라 명하며 간단하게 하는데 이곳에는 '제석청배'라는 것이 있다는 점,

개인집의 재수굿에서는 군웅이 성주와 붙어서 짧게 행해지는데 반해 크게 다루어지며, 사냥놀이라는 굿놀이가 덧보태진다는 점 등이다.

삼각산 도당굿은 1) 부정, 가망, 2) 산맞이, 3) 천궁맞이, 4) 대안주(상산, 별상, 신장, 대감), 5) 제석, 6) 군웅, 7) 산신배웅, 8) 성주, 창부, 계면, 9) 뒷전의 순서로 진행된다.

1) 부정거리는 부정을 가셔내는 굿거리이다. 만신이 앉아 장구를 치며 부정거리 무가를 부른다. 이때 단순히 부정을 가셔내는 목적만 있지 않고, 본굿에 초청되는 모든 신들의 이름이 호명함으로써 굿을 신들께 알리는 의미까지 겸한다. 부정거리 다음에 가망청배 또는 가망거리가 존재한다. 한 무당이 부정거리와 가망거리를 다 하게 된다. 가망이라는 신격은 "한국 무속에서 신령들의 근원(根源)을 관장하여 굿문을 열고 신령과 인간이 만날 수 있게 하는 신령"을 의미한다.[20] 이 굿거리에서 오늘의 제의대상신들이 차례대로 호명되는 것을 통해 여러 신들에게 오늘의 행사를 알리는 기능을 한다.

2) 산맞이는 산거리라고 부르거나, 만신들의 표현대로 '산을 바래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개인집 재수굿에서는 보통 위계가 높다고 여겨지는 천신(天神)들을 모시는 천궁맞이를 먼저 한 뒤에 산맞이를 하는데 반해 삼각산 도당굿에서는 먼저 산을 바랜다. 그 이유는 이 산맞이는 이 굿의 주신격인 도당신을 모시는 제차이기 때문이다. 대잡이를 통해 대를 잡아 도당신의 하강을 시각화하고, 도당신을 모셔 굿당에 좌정시키는 것이 산맞이의 주요한 기능이다.

3) 천궁맞이(불사거리)는 하늘과 바다를 관장하는 불사제석을 모시는 굿거리이다. 서울굿에서는 '-맞이'라 표현되는 굿거리가 있다. 산맞이와 천궁맞이가 그것인데, 이 맞이들은 하나의 독립된 굿이라고 불릴 정도로 복잡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21] 아무튼 천궁맞이의 주요 신격은 불사, 칠성, 제석, 용왕 등이다. 불사거리는 불교와 습합된 양

20) 「가망」,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편』, 국립민속박물관.

21) 서울굿 만신들은 산맞이, 천궁맞이는 각각이 12거리라고 부른다. 12거리라는 것은 딱 12개의 굿거리라는 의미라기 보다는 하나의 굿이 완성되는 상징적인 숫자이다.

상을 보여주어 이 굿거리를 진행하는 만신은 흰고깔과 장삼을 입고 진행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모셔지는 신들은 불교와 관련은 없다. 불사와 칠성은 인간의 근원을 관장하는 신격이고, 제석은 인간의 수명장수, 자손을 관장한다. 용왕은 바다를 관장한다.

4) 상산, 별상, 신장, 대감을 묶어서 서울굿의 만신들은 '대안주' 또는 '댄주 드린다'라고 표현한다. 대안주는 큰 대(大)와 안주(按酒)의 합성어로 짐작하고 있다. 이들 신격에게는 다른 신들과 달리 소갈비나 돼지 등 큰 제물을 받치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굿 무당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격은 상산 최영이므로, 이 대안주는 서울굿의 가장 중심되고 중요한 굿거리로 여겨진다. 산산, 별상, 신장은 군신(軍神)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마을과 인간을 지켜주는 신격으로 숭앙된다. 대감은 인간의 갖은 재수와 관련되는 신격이다. 작두는 이 제차에서 타야 하는데, 삼각산 도당굿에서는 다소 의아하게 제석거리 속에 끼어 있다.[22]

5) 제석은 출산과 자녀의 건강을 관장하는 가신(家神)에 해당되는 신격이다. 삼각산 도당굿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제석거리에서 제석청배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제석청배란 만신이 앉아서 장구를 치며 제석신를 청하는 무가를 의미한다. 이를 '제석말미' 또는 '안당말미'라 불리는데 현재는 이를 굿에서 거의 구연되지 않는 아주 고형의 무가이다.

6) 군웅거리는 마을의 제액들을 막아주는 신격이다. 개인굿에서는 군웅거리는 성주군웅이라는 형식으로 성주굿과 군웅굿을 겹쳐서 짧게 진행되는데 반해 서울의 마을굿에서는 이 군웅거리가 중요한 굿거리중 하나이다. 무엇보다 마을굿의 목적이 마을 안녕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마을굿에서 군웅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23] 당산동 부군당굿처럼 활을 쏘아 제액을 물리는 행위를 한다거나, 한남동 큰한강 부군당굿처럼 밥솥을 입에 붙이고 떼어내는 의례적 행위를 한

22) 언제부터 이렇게 진행해왔는지는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

23) 이에 대한 양상은 권선경, 2013,「서울 지역 마을굿에 나타난 군웅굿의 유형과 의미」,『비교민속학회』제51집, 비교민속학회에서 해명하였다.

다. 삼각산 도당굿에서는 사냥놀이라고 하는 굿놀이를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7) 산신배웅은 앞서 모셔운 도당신을 다시 원래의 공간으로 내모시는 굿거리이다.

8) 성주는 집을 관장하는 가장 으뜸되는 신격이다. 마을굿과 더불어 각 가정의 평안을 기원한다. 예능신 창부가 12달 액을 막는 홍수멕이를 하고, 계면떡을 팔면 굿이 일단 일단락된다.

9) 뒷전은 정식 제차에 초청되지 못한 잡귀잡신을 풀어먹이는 굿거리이다.

앞서 경기도 도당굿과 비교하여 삼각산 도당굿의 구조를 살펴보면 대동소이하다. 즉, 도당신을 모셔와 좌정시키고, 여러 직능신들을 차례대로 모신 뒤, 다시 도당신을 원래의 공간으로 보내드리는 순차적 구조로 이루어졌다. 그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경기도 도당굿	의미 단락	삼각산 도당굿
1) 당주굿	도당신 청신(請神)	부정
2) 거리부정		가망
3) 부정굿		산맞이
4) 도당모시기		
5) 돌돌이		
6) 장문잡기		
7) 시루말	직능신 대우(待遇)	천궁맞이
8) 제석		대안주(상산)
9) 본향굿		대안주(별상)
10) 터벌림(터잽이)		대안주(신장)
11) 손굿		대안주(대감)
12) 군웅굿		제석
		군웅
13) 도당보내기	도당신 송신(送神)	도당내모시기
14) 중굿		성주, 창부, 계면
15) 뒷전		뒷전

굿의 전체적인 구조가 같은 이유는 굿의 목적이 같기 때문이다. 즉, 마을의 신을 대접함으로써 마을 및 개인 가정의 안녕 등을 비는 것이다. 다만 세부적으로 어떤 직능신들이 모셔지는가는 무권역(巫圈域)의 차이에 의해 존재하며, 그 담당 무집단의 성격에 따라 연행의 방식 차이가 있다.

5. 삼각산 도당굿의 무형유산적 가치

무형유산의 가치는 크게 네 가지 각도에서 살필 수 있다. 1) 역사적 가치, 2) 예술적 가치, 3) 학술적 가치, 4) 사회문화적 가치가 그것이다. 따라서 삼각산 도당굿의 무형유산적 가치 또한 이에 준하여 설명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한국 민속에서 그 발생의 연대를 밝힐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민중들의 삶이 기록으로 남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다만 마을신 관념은 마을이 형성되면서부터 자연스레 형성되었으리라 짐작되므로 마을의 역사만큼이나 마을굿의 역사는 오래되었다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24] 삼각산 도당제의 제관 및 보존회장 역할을 해오고 있는 차승현(1934년생)씨의 경우 10대째 우이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집안 대대로 도당굿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으니 차씨 집안의 구전역사로는 200~300년은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이동의 경우는 원주 원씨가 가장 먼저 들어와 터를 잡았다고 하니 그 기원은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마을굿'은 축제의 현장이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 유일하게 먹을거리를 진기하게 차려놓고, 또 더불어 먹을

24) 삼각산이 국가의 중요한 기도 장소였음은『조선왕조실록』등의 기록을 통해 존재하지만, 그것이 곧 오늘날 연행되는 삼각산 도당굿과는 별개이므로 이 둘을 혼용해서 역사적 근거를 대는 것은 무리이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마을굿 때이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문화 예술적 경험 기회는 단연 이런 굿판이었다. 굿을 하면 음악의 연주가 있고, 무당의 춤과 노래가 있다. 이와 아울러 굿놀이라고 하는 연극도 있다. 신앙이기에 성(聖)스러움과 인간의 욕망들을 실현해가는 속(俗)됨의 경계가 허물어져 이른바 신과 인간이 한데 어우러지던 기회였던 것이다.

무업을 하는 무당의 경우 굿을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펄펄이 날뛰며 '물러나라'라고 무섭게 으름장 놓는 굿의 모습은 오랜동안 미디어가 만들어놓은 허상이다. 실제 제대로 된 전통적인 굿은 예술적이다. 특히 삼현육각의 반주를 하는 서울굿은 멋, 풍류를 중요한 개념으로 삼을 정도이다. 그래서 무당들은 '영력(靈力)은 신에게서 받지만 굿에 필요한 기술은 신어머니에게서 배워야만 한다'고 말한다. 상을 차리고 신복을 챙기는 등의 기초부터 출발하여, 굿에 필요한 무가, 장구 장단, 춤, 노래 등 적어도 10년 이상의 무학습을 착실히 받아야 어느 정도 걸음마를 뗀 것으로 인정받는다. 서울굿의 경우는 삼현육각의 반주를 하는 악사 집단을 이른바 '전악'이라 불러 대접하였으며, 이들 또한 전문적인 예능 집단이다. 볼거리 없었던 시절 이들의 가무악희(歌舞樂戱)는 그야말로 종합적인 예술 향연의 장이었던 것이다.

굿은 한국의 원형질이라 일컫는다. 그래서 한국 문화의 원형을 굿에서부터 찾는다. 굿은 상당히 복합적인 관점에서 학술적으로 관심을 받아왔다. 토속신앙이라는 관점에서는 종교학에서, 사회시스템으로서 마을신앙의 기능이라는 관점에서는 사회학, 인류학에서, 무당이 굿에서 부르는 무가는 구비신화이기에 국문학에서, 춤은 무용학에서, 음악은 음악학에서, 굿놀이는 연극학에서 주목받아왔다. 삼각산 도당굿의 경우 다양한 서울 경기 마을굿의 유형을 가르는 중요한 사례에 해당된다. 특히 사냥놀이라는 고형의 굿놀이가 살아있고, 지금은 전승이 안 되고 있는 제석굿에서의 제석청배는 소중한 학술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삼각산 도당굿의 가치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이다. 마을굿이라는 전통문화가 현대에까지 그 전승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가 살아있어야 가능하다. 마을은 해체되고 사람은 없는데 '굿'만 살아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마을굿은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보다는 많이 축소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이동'이라는 삶의 공간, 신들이 거처한다고 믿어지는 '삼각산'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은 여전히 삼각산 도당굿이 사회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종교가 다원해지고, 과학적 사고의 발달로 마을의 공동제의를 통한 믿음의 실현은 옛날보다 줄어들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제의를 통해 마을의 영속성를 확인하고, 자기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 이른 측면에서 삼각산 도당굿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은 더욱더 돈독해지고 있다. 아울러 전통의 문화예술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굿을 보러오는 이들에게는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아쉽게도 북한산(삼각산)을 삶의 공간으로 살아가는 마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바가 없다. 그 말은 여기서 말하는 삼각산 도당굿 이외에도 더 다양한 의례들이 존재했었고, 또 존재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따라서 북한산성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논함에 있어 전제되어야 할 것은 바로 북한산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오고 있는 마을의 민속지적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권선경, 2013,「서울 지역 마을굿에 나타난 군웅굿의 유형과 의미」,『비교민속학회』제51집, 비교민속학회.

김선풍 외, 2006,『(牛耳洞) 三角山 都堂祭』, 보고사.

김수남 외, 1983,『한국의 굿 - 경기도 도당굿』, 열화당.

김헌선, 1994,「경기도 도당굿 화랭이 이용우(1899~1987)의 구비적 개인사」,『구비문학연구』제1집, 한국구비문학회.

_____, 1995,『경기도 도당굿 무가의 현지 연구』, 집문당.

_____, 1997,『한국 화랭이무속의 역사와 원리 1』, 지식산업사.

_____, 2013,「경기도 도당굿의 현지조사 경과, 지역유형, 그리고 비교의 전망」,『한국무속학』제26집, 한국무속학회,

김형근, 2016,「무가와 연행 맥락 해석을 통한 경기도 도당굿 '군웅'의 성격」,『실천민속학연구』제27호, 실천민속학회

문화재관리국, 1978,『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 경기편』, 문화재관리국.

_____, 1983,「제6장 수원지방 무의식」,『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 무의식편』, 문화재관리국.

_____, 1998,「第186號 京畿道 도당굿」,『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20집』, 문화재관리국.

양종승, 2002,「서울 강북지역 벌리도당굿과 북한산도당굿 현지조사」,『한국무속학』제5집, 한국무속학회.

이혜구, 1957,「무악연구」,『한국음악연구』, 국민음악연구회.

하주성, 2000,『경기도도당굿의 무가』, 경기문화재단.

황루시, 1988,『한국인의 굿과 무당』, 문음사.

홍태한, 2008,「서울 마을굿의 전승 현황과 유형 구분」,『중앙민속학』제13호,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北漢山城 연구 논문집 9

북한동의 민속과 산신제

김준기*

1. 머리말 • 245

2. 북한동 생활의 변모 양상 • 246

3. 북한동의 민속 • 250

4. 북한동의 마을제사 • 257

5. 맺음말 • 270

참고문헌 • 272

*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 머리말

북한동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북한산성 내의 마을이다. 현재 북한산성에는 사찰들과 관리시설만이 존재할 뿐 상점이나 주택들은 다 철거되어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의 마을이 되었다. 한때 북한산성 내에는 서문안, 상창·중창·하창마을 등 여러 자연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전국의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며 정비될 때 산성 내의 자연마을들을 통합하여 북한동이라는 법정동을 이루게 된 것이다. 마을 원로들의 증언에 의하면 6.25 전쟁 이전에는 약 100가구에 700여 명이 살고 있었다 한다. 하지만 북한산성 일대가 국립공원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으로 정해지면서 산림 보존법, 일반녹지 보호법 등의 각종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자 북한동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었다. 그 후 2006년 3월부터 추진된 북한산성지구 이주 및 정비 사업으로 서문안과 하창마을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며 잔존하고 있던 55가구마저 철거되어 산성 밖에 있는 이주단지로 옮겨가면서 더 이상 북한동에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게 되었다.

북한동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기리고자 북한동역사관이 산성 내에 건립되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시 소개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만으로 북한동의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조사들에 의하여 북한동의 역사와 문화가 나름대로 조명되었지만, 그동안 조사되지 못했거나 불충분했던 부분들을 최대한 기록해놓는 일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동의 민속과 민간신앙 역시 그러한 부분 중의 하나라는 인식에서 본 조사연구가 진행되었다. 북한산성은 역사의 현장이며 문화재의 보고이므로 역사적 기록의 고증이나 문화유산의 재정비 쪽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북한동은 수백 년 동안 주민들이 삶을 영위하던 거주 공간이었으므로 그 삶의

구체적 모습을 남기는 일 또한 필수적이다. 이러한 작업은 북한동에 실제 거주하던 주민들의 기억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토박이 어른들이 이주지역에서나마 남아 있는 이 순간이 북한동의 민속문화와 민간신앙을 조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진다.

2. 북한동 생활의 변모 양상

북한동 지역에 사람들이 살게 된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양시에서 구석기와 신석기 유적이 다수 발굴된 사례로 보아 북한산 지역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수렵과 채집 생활을 영위하며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적어도 북한산에 성곽이 생기기 시작한 삼국시대부터는 성곽의 유지를 위해 집단 거주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분명하다. 백제가 한강 남쪽에 위례성(慰禮城)을 도성으로 삼았을 때 북한산에 132년(개루왕 5) 방어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보이는 것이다.[1] 이후 북한산은 삼국의 접경지로서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기도 하였지만 국방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고려시대에도 북한산은 전략적으로 중시되던 곳이었다.[2] 최근 북한산성 내에서 고려 때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곽이 발견되어 이러한 사실에 대한 고증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 시기의 산성의 규모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성곽 안팎으로 화전을 일구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연마을을 이루고 살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의 북한동을 구성하였던 자연마을들과 직결되는 집단 거주지가 형성된 시기는 북한산성이 축성되는 조선 숙종 때였다고 보

---

1) 『삼국사기』, 권23, 개루왕 5년조.

2) 고려 현종 때는 거란이 침입하자, 태조의 유해를 모신 재궁(梓宮)을 북한산의 산성으로 옮기고 건물을 증축하였다. 1232년(고종 19)에 고려군은 이곳에서 몽골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1387년(우왕 13)에는 산성을 고쳐 쌓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북한산성.

아진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산성에는 1600여 명이 거주하였는데, 군사와 승려 외에도 산성의 살림을 꾸려나가던 주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북한동에서 대대로 살아온 세대 중 가장 오랜 경우가 15대 정도라 하니[3] 철거 이전에 있던 마을의 성립과 관련된 주민들의 선대가 자리 잡은 시기와 일치한다. 북한산성 내에 있는 선정비들을 통해서도 이때 이후로 유입 인구가 증가하며 북한동에 본격적인 마을이 형성되어 관의 보호와 관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선정비의 대다수가 애민선정비이며, 산성의 수비와 관리를 담당했던 총융사의 선정비라는 사실은 이러한 상황을 방증한다.[4]

그러나 북한산성은 총면적 527만㎡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시 북한산성 내의 마을은 현재 북한동이라는 하나의 법정동으로서가 아니라 여러 자연마을로 나뉘어져 있었다. 현재 마을 원로들의 증언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자연마을은 서문안·상창·중창·하창마을 등이다. 서문안은 북한산성의 대표적 출입문인 대서문 바로 안쪽에 자리잡고 있던 마을이었다. 상창·중창·하창마을은 북한산성에 있던 창고와 관련된 마을이었는데, 상창은 행궁 아래 쪽에, 중창은 중흥사 인근에, 하창은 대서문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중 상창과 중창마을은 화재와 자연재해로 일찍이 없어지고 하창마을로 편입된다.

북한동의 자연마을들은 전형적인 산촌의 삶이 유지되던 마을이었다. 산자락을 끼고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았고, 대대로 화전민들이 생활하였던 곳이라 묵정밭을 일구며 밭농사 위주로 농사를 지었다. 또한 북한산의 특산품으로는 과일을 빼놓을 수 없다. 북한동에는 살구, 자두, 감, 대추 등 다양한 과실이 재배되던 곳이었다. 그중 북한산 살구는 유명하여 살구

3) 북한동에 거주하던 봉족옥 씨 집안이 대표적 예이다.

4) 선정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책자를 참조
경기문화재단, 2014,『북한산성의 역사와 문화유적』, 70~89쪽.

철이 되면 청과상을 하는 업자들이 찾아와 선매를 하였던 가장 재미를 보는 과일이었다.[5] 이 외에 산지의 특성을 살려 숯을 만들거나 땔감을 마련하여 팔기도 했다. 북한동의 땔감은 서대문의 영천 나무시장이 주거래처였다.

전형적인 산촌마을로서의 삶이 급변하게 된 것은 북한산과 북한산성이 유원지로 개발되면서부터이다. 물론 북한산성이 서울 근교의 산놀이 명소로서 각광을 받은 것은 조선시대부터이다. 많은 선비들이 북한산을 기행하고 남긴 기록들이나 산성 내 바위에 각자(刻字)된 자취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동이 본격적인 유원지가 된 것은 해방 이후의 일이다. 북한산성이 등산객과 유흥객으로 붐비게 되자 북한동 주민들도 이들을 상대로 물건이나 음식을 팔며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듯 생계의 주된 수단과 삶의 방식의 전환을 가져왔던 시기는 주민들의 기억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곳 산행을 마치고 돌아가며 땔감을 내다팔며 간고한 삶을 이어가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 이곳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걱정 없이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이후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1955년 신문기사의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 **『북한산성』이 불원 국립 또는 서울시립공원으로 등장하게 되리라 한다. 즉 서울시 당국에서는 앞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산성을 조속히 공원으로 조성하라는 특별유시를 받고 현재 그 주변의 등산『코-스』를 현지답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곧 예산조치를 하여 등산『코-스』의 도로 및 교량의 보수 또는 신설에 착수할 것이라 한다.**
>
> **그런데 방금 서울시 당국에서 예정하고 있는 등산『코-스』로서는 ▲ 우이동에서 들어가는 길 ▲ 화계사에서 들어가는 길 ▲ 정릉리에서 들어가는 길 ▲ 세검정에서 들어가는 길 ▲ 진관사에서 들어가는 길 등 다섯 가지가 계획에 오르고 있으며 이 다섯 가지『코-스』를 따라 각각 차도(찝차) 또는 인도로서 개설과 보수를 할 것이라고 한다.[6]**

---

5) 경기문화재연구원,『북한산성의 역사와 문화유적』, 북한동 마을의 생활사, 264쪽.

현재 북한산의 등산로는 이 계획대로 정비된 것이지만 전통적으로 북한산성에 이르는 가장 보편적인 길은 진관사길로 진관동 ⇒ 효자동 ⇒ 북한동(대서문 ⇒ 중문 ⇒ 행궁)으로 이어지는 길이었고, 조선후기 임금이 북한산성으로 행차하는 길이기도 했다.

북한산성이 유원지가 된 후 북한동 주민들은 대서문 입구부터 중문에 이르는 하창마을에 몰려서 음식점이나 등산도구 판매점을 하였고, 굿당도 몇몇 군데 있어서 무속인들이 굿을 할 때 대여를 해주었다. 음식점은 풍광이 좋은 주변 계곡을 따라 늘어서 있었는데, 자릿세를 받기 위해 불법증축을 하였고, 산림훼손과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하여 이에 대한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더욱이 1983년 북한산성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전후로 주민들은 불법영업행위와 환경오염 문제로 관리공단과 잦은 마찰을 빚어 왔다. 이에 관리공단 측에서는 북한산성 밖에 단지를 조성하여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55가구를 철거시키게 된다. 이들 가구 중 45가구는 집단이주를 하게 되었고, 나머지 10가구는 이주단지가 아닌 외지로 떠나버렸다. 현재 북한동은 명칭만 마을이지 일곱 군데의 사찰과 암자만 남아있고 북한산 계곡 입구부터 상류 2km에 달하는 지역에 모여 살던 주민들은 모두 북한동을 떠난 상태다.

이 점은 남한산성의 산성마을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다. 남한산성의 경우 산성 내에 마을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살면서 가꾸어나가는 관광지역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가 생긴 데에는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의 입지 조건과 관광개발의 방향성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북한동은 문화재가 전시된 커다란 박물관과 같다는 인상이 강하고, 이곳이 실제 주민들이 살았던 마을이라는 사실은 북한동역사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

6) 동아일보, 1955. 5. 21. 절호의 등산 코-스 - 북한산성에 국립공원계획.



[사진 1] 북한동역사관

3. 북한동의 민속

북한동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유래가 오래된 산성마을이므로, 경기 북부 지역의 산촌민속을 조명할 수 있는 매력적인 연구대상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북한동 민속에 대한 조사 자료가 충분치 않은 편이고, 산성 내에 마을이 철거된 후 일정 시간이 경과된 이유인지 현지조사도 어려운 편이다.

하지만 고양시의 일반적인 민속놀이와 가신신앙, 세시풍속 등을 조사한 자료 중 북한동에 대한 사례가 일부 실려 있기 때문에[7] 이 내용을 참고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

7) 고양시사편찬위원회, 2005,『고양시사』, 3권, 마을과 민속편.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민속과 전통.
고양문화원, 2002,『고양시민속대관』, 민간신앙, 고양시.

1) 북한동의 가신신앙

전통사회에서는 집안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가신(家神)이 있다고 믿어서, 가신을 위하는 가정이 많았다. 북한동의 주민들도 성주, 터대감, 불사, 조왕, 문신 등의 가신을 모시고 있었다. 가장의 신인 성주는 대감이라고도 부르며 대청마루에 위치한다고 믿었다. 터대감은 뒤곁 장독대에 위치하는데 항아리에 쌀을 넣고 짚으로 주저리를 씌워서 모셨다. 불사는 조상신으로 안방에 모신다. 안주인의 신인 조왕의 경우 원래 부엌 부뚜막에 모셨지만 주택이 개량되고 나서 아궁이가 없어진 후에는 주방 가스렌지 쪽에 모셨다. 조왕에게는 매일 옥수라고 부르는 정한수를 바쳤는데, 새벽에 집 옆 개울가에서 물을 떠 왔으나 나중에는 수돗물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가신들을 위하는 고사는 음력 정월과 10월에 지냈는데, 10월에 한 번만 지내는 집안이 많았다. 정월 고사는 정월 보름 경 일 년 동안 집안이 평안하고 번성하라는 기원을 담아 지냈다. 10월 고사는 하순경에 말날이나 돼지날 등 좋은 날을 잡아서 지내며, 집안에 궂은일이 생기면 달을 넘겨서 지내기도 했다. 이외에 자손들이 출가할 때 등 정성을 드려야 할 경우에도 고사를 지냈다.

고사에는 시루떡과 백설기, 삼색과일, 삶은 돼지고기, 막걸리, 정한수 등을 제물로 준비했다. 예전에는 성주와 터대감에게는 떡을 시루째 쪄서 올렸으나, 고사의 규모가 점점 축소되어 나중에는 방앗간에서 시루떡을 조금 사와서 접시에 담아 올렸다. 고사 지내는 순서는 먼저 안방에 모신 불사에게 백설기와 삼색과일, 술, 삶은 돼지고기 편육을 올렸다. 다음에는 상을 마루로 옮겨서 성주에게 지내는데, 떡은 시루떡을 시루째 올렸다. 고사의 순서가 성주에서 불사의 순으로 바뀌는 집도 많다. 성주와 불사를 위한 후 건넌방, 바깥채 순으로 돌며 시루떡과 술을 올리고 부엌에 있는 조왕에게 정한수와 시루떡 한 접시를 올린다. 그 후 집 밖으로 나와서 터대감에게 시루떡과 술을 올린다. 마지막으로 문신이 있다는 대문에 지냈는데, 대문을 통해 많은 사람

들이 드나드니까 잡귀가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었다 한다. 북한동 주민들은 철거 이전 대부분의 가구가 장사를 하며 살았으므로 손님이 많이 들라고 가게에 나가 따로 고사를 지내기도 했다. 또한 의상봉과 백운대, 원효봉을 향해 시루떡 한 접시씩과 술을 바치고 삼배를 했는데, 가정을 포함하여 마을 전체를 지켜주는 산신이 있는 곳으로 여겼기 때문이다.[8)]

2) 북한동의 세시풍속

전통사회에서 일 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일생과 마찬가지로 위기와 고비가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사계절이 뚜렷하고 농사를 생업으로 삼았던 시기에는 일 년 동안 자연의 변화에 잘 대처하고 적응하여야 했다. 세시풍속은 일 년이라는 변화무상한 시간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민속적 방법이었다. 북한동 주민들도 다양한 세시풍속을 지키며 산촌마을에서의 고단한 삶을 극복해왔다.[9)]

(1) 정월

정월 초하루 설날에는 집집마다 떡국을 끓여 아침 일찍부터 차례를 모신다. 차례가 끝나면 만두를 빚어 넣은 떡국을 먹고 일가친척들이나 이웃 어른들을 찾아뵙고 세배를 올린다. 북한동에는 전주 이씨, 경주 김씨, 하음 봉씨 등 일가를 이룬 집들이 많아서 오후나 되어서야 세배를 마치곤 했다. 정월 보름이 오기 전에 날을 잡아 대서문 근처의 잘 사는 집에서는 점심때 떡국을 끓여놓고 동네 어른들을 청하여 대

8) 고양시사편찬위원회, 『고양시사』, 3권, 148~150쪽. 당시 제보자: 이선례(여, 68세), 한금남(여, 63세)

9) 위의 책, 당시 제보자: 봉종옥(남, 68세)
경기도박물관, 2000, 『경기민속지-Ⅲ. 세시풍속·놀이·예술편』, 88~91쪽. 북한동의 행정동인 효자동의 세시풍속을 참고.

접을 하는 훈훈한 전통도 있었다.

정초 십이지일은 털 날, 털 없는 날로 나누어 털 날은 길하고 털 없는 날은 불길하다고 여겼다. 호랑이날을 가장 길일로 치는데, 이날에 맞추어 가게를 개업하는 일이 많았다. 호랑이날과 말날 중 하루를 잡아 개인적으로 밥, 과일, 강정, 약과, 사탕, 술, 소고기를 장만하여 노적사나 산신각에 가서 가정의 복을 비는 기도를 올리는 집들도 있었다.

정월 14일에는 콩나물과 갖은 산나물을 준비하고, 찹쌀·콩·수수 등을 넣어 오곡밥을 해먹었다.

정월 보름날 새벽에 우물에 가서 우물물을 뜨는 것을 용알뜨기라고 한다.[10] 이날 부럼도 깨는데, 밤이나 호두를 '딱' 소리가 나게 깨물어 버리면 그해에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 한다. 처음 깨문 부럼은 마당에 버리고 먹지 않는다. 또한 맑은 청주를 귀밝이술이라 하여 마시며, 아이들은 아침부터 친구의 이름을 불러 대답하면 '내 더위 사가라."고 소리치며 더위를 팔았다.

저녁에 대보름날 저녁에는 달집태우기를 하였다. 달이 뜰 무렵 동네 사람들이 짚단을 조금씩 들고 공터로 모여 짚단을 모아놓고, 달이 뜨면 짚단에 불을 붙인 후 두 손을 모아 비손을 하며 소원을 말한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때 짚으로 인형을 만들어 함께 태우기도 한다. 인형에는 동전을 묶기도 하여 대보름 전날 밭에 나가서 버리기도 하는데 이를 제웅이라고 불렀다.

정월 16일은 섣달 그믐날 내려온 귀신이 발동하는 날이라 하여 아무데도 나가지 않았다. 이날은 땔 나무를 마련하러 산에도 가지 않는다.

(2) 이월

음력 이월 초하루에는 정월 초하루부터 매일 숟가락으로 쌀을 떠놓았다가 떡을 해서 먹는다. 송편을 해서 먹는데, 나이떡이라 불렀지

10) 북한동은 우물이 99개나 되었다는 우물의 마을이다. 이 우물들에는 나름의 이름이 있었고, 그중 주민들의 가장 기억을 많이 하는 우물은 '금수물뚱이'였다.

만 꼭 나이 수대로 먹은 것은 아니다. 또 콩을 볶아 먹기도 하는데, 콩을 볶을 때 “새알 볶아라, 쥐알 볶아라. 콩 볶아라.”며 축언하면 새와 쥐가 없어져서 곡식을 축내는 일이 없다고 한다.

(3) 삼월

입춘은 양력 2월 4일경에 드는 절기로 이날부터 새봄이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날 마을 사람들은 인근에 있는 노적사, 상운사 등의 절에 다녀온다.

(4) 사월

한식은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을 말한다. 이날에는 집집마다 과일과 송편 그리고 술을 장만하여 조상의 묘를 찾는다. 간단하게 차례를 지내고 무덤이 헐었으면 잔디를 다시 입힌다. 이 무렵 여자들은 취나물, 더덕, 도라지, 쑥 등을 캐러 다니며, 진달래를 따다 찹쌀가루에 꽃잎을 넣어 떡이나 지짐을 해먹는다. 젊은이와 아이들은 구파발, 일산, 탄현 등지에 있는 논으로 천렵을 하러 다닌다. 논에 물을 퍼내서 물이 빠지면 고기를 잡는데 주로 미꾸라지를 잡아 준비해 간 솥에 즉석으로 추어탕을 해 먹었다.

사월 초파일에는 하루 동안 노적사, 무량사 등의 절에 다녀온다. 등을 사서 달면서 가족의 이름을 써 붙여서 건강과 화목을 기원한다.

(5) 오월

음력 오월 오일 단오에는 여자들이 창포에 머리를 감으면 좋다고 하여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았다.

(6) 칠월

음력 칠월 칠일은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칠석날이다. 이날은 밀가루 부침개를 해먹고 애호박을 부쳐 먹기도 했다.

칠월 보름 백중은 절에서 승려들이 제를 올리며 불공을 드리는 큰 명절이었다. 이날 북한동 주민들은 각자 백중제사를 지내러 절에 다녀온다. 이 무렵 밭곡식인 밀과 보리를 거두므로, 밀을 빻아 밀가루를 만들어 밀전병과 밀개떡을 해 먹는다. 또 수수나 감자로 떡과 부침개를 해먹으며 호박부침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이즈음 복날이 드는데, 삼복날 개를 잡아 개장국을 끓여 먹는 풍속은 없었고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었다. 과거에는 마을에서 개를 기르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개를 기르는 집들이 하나둘 늘었지만 여전히 개고기는 먹지 않았다.

(7) 팔월

팔월 대보름인 추석에는 햅쌀로 송편을 만들어 차례를 지냈다. 추석에는 성묘를 하는데, 이를 앞두고 미리 조상의 묘소를 찾아 잔디를 깎고 잡초를 제거하는 벌초작업을 했다.

(8) 시월

시월은 길하고 풍성한 달로 여겨서 집집마다 상달고사를 지냈다. 제물로는 시루떡과 막걸리를 준비한다. 방, 마루, 화장실, 가게, 차, 대문 등에 술을 붓고 절을 하며 집안의 평안을 기원한다. 고사가 끝난 후 제물로 올려진 술과 떡은 이웃끼리 나누어 먹는다.

(9) 십일월

동지는 양력으로 12월 22일경이니 음력으로는 11월에 든다. 동지에는 원래 집집마다 팥죽을 해먹었지만, 나중에는 절에서 가져오는 팥죽을 먹었다.

(10) 십이월

섣달 그믐날에는 앙괭이[11]라는 귀신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앙괭이는

신발도 신어보고, 지게도 져보고, 숟가락도 만져보기 때문에 신발에 귀신이 붙지 않도록 방안에 들여놓고 자고, 지게와 숟가락을 감추었다.

3) 북한동의 민속놀이

산촌의 생활이 척박하다 해도 주민들이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법이어서 삶의 고단함을 위로해주고 일상의 단조로움에 활력을 주는 놀이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조선의 향토오락』에는 고양지역의 민속놀이가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 정월: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제기차기 (겨울 정월), 돈치기(정월 봄)
> 정초 자일(子日): 쥐불놀이
> 정월 대보름: 달맞이(보름, 추석)
> 겨울: 썰매타기, 눈싸움, 팽이치기 (겨울 정월)
> 봄: 박첨지홍동지놀이, 산놀이, 버들피리, 씨름(봄, 기타)
> 4월 초파일: 절돌기(초파일, 7월 15일)
> 5월 단오: 그네(단오, 추석)
> 여름: 천렵, 농악, 약수놀이, 잠자리잡기(여름, 가을)
> 삼복: 복놀이
> 8월: 호미씻이
> 가을: 참새쫓기, 경로회
> 수시: 활쏘기, 고누, 자치기, 숨바꼭질[12]

북한동에서도 위와 같은 민속놀이가 전승되었음은 물론이다. 이 중 북한동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놀이는 세시풍속과 관련된 널뛰기, 윷놀이, 쥐불놀이, 횃불놀이, 그네타기, 씨름 등이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대서문 근처의 마당이 넓은 집에서는 여자들이 모여 널을 꺼내서 널뛰기를 하고, 청년들은 군데군데 모여 윷놀이를 했다. 정월 대보름에 달집태우기를 할 때 아이들은 깡통에 구멍을

11) 일반적으로 야광귀(夜光鬼)라고 한다.

12) 경기도박물관, 2000, 『경기민속지-Ⅲ. 세시풍속·놀이·예술편』, 259쪽에서 재인용

뚫고 나무를 넣어 돌리며 "귀신아, 물러가라."고 소리치며 쥐불놀이를 한다. 쥐불놀이가 한창 진행되면 15~17세 정도의 동네 아이들이 모여 횃불싸움을 하러 구파발 근처로 가는데 각자 몽둥이를 하나씩 가지고 간다. 인근의 효자리나 진관내동 아이들도 같은 편이 되어 박석고개 근처에서 30~40여 명 정도 패를 지어 깡통을 내던지고 상대편과 싸움이 붙는다. 치열해지면 육박전으로 바뀌어 주먹으로 때리고 뒹굴면서 때론 심한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지만 몸이 지치게 되면 누가 이겼다고 할 것도 없이 싸움은 끝이 나고 각자 자신의 동네로 돌아가곤 했다. 또한『조선의 향토오락』에 의하면 고양지역에서는 마을 대항의 눈싸움도 성행하였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징이나 북소리를 신호로 하여 소년들이 눈싸움을 시작하고 이어서 청장년들이 승부를 겨루게 된다.[13] 고양지역의 이러한 상무적인 놀이들은 과격하기는 하지만 산성 마을다운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모의싸움놀이였다고 하겠다. 오월 단오날에는 마을의 남녀들이 모여 대서문 근처 큰 나무에 줄을 달아 그네를 뛰었다. 씨름은 백중이나 추석에 많이 행해졌다. 일제강점기에는 효자리, 구파발에서 씨름판이 크게 열렸는데, 마을 어른들이 가서 송아지나 쌀을 타오기도 했다.

이 외에도 세시풍속과는 무관하게 아이들이 수시로 즐겨하던 놀이로는 말타기, 비석치기, 술래잡기, 제기차기, 자치기, 숨바꼭질, 구슬치기, 딱지치기 등이 있었다.

4. 북한동의 마을제사

북한산은 한북정맥에 속하는 산으로 북한산 주변의 마을은 크고 작은 산들을 끼고 있다. 이들 마을에서는 전통적으로 산신제에 해당하는 동제를 지내왔다. 북한산을 오르는 대표적 등산로의 입구인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에서 거행되는 삼각산 도당굿은 서울시 중요무형

13) 村山智順, 박전렬 역, 1992,『조선의 향토오락』, 집문당.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도당굿 역시 전통적으로 마을에서 지내왔던 산신제를 재현한 것이다.

북한산성이 위치한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도 대부분의 마을들이 예로부터 산신제를 거행하여 왔다. 1967년도 문교부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마을굿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다.[14] 당시에는 북한리가 고양시 덕양구가 아닌 고양군 신도면에 속해 있을 때이고 새마을운동 이전이어서 대다수의 동제가 유지되던 시기였다. 물론 이 조사에 대한 답신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었으므로 누락된 마을이 상당수 존재하겠지만 신도면에서는 당시 다수의 마을들이 동제를 거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마을명	당 혹은 제명	당 형태	제사일시
신도면 구파발리	도당터	전나무, 참나무	음력 3월 초승 (3년 1회)
신도면 동산리	도당굿	도당산 소나무 2곳	음력 3월 3일 (2년 1회)
신도면 북한리	산신당	석조건물 기와집	?
신도면 용두리 발랑손마을	도당/도당굿	괴목(槐木)	? 연 2회
신도면 지구2리 지정마을	도당/별신굿	소나무	음력 10월 초순
신도면 지구 싸리마을(중고개)	산신당	소나무와 토석제단	음력 10월 1일
신도면 진관내리 못자리마을	산치성	소나무	음력 10월 1일 (연 1회)
신도면 진관내리 탑골마을	산신	소나무, 제단	음력 10월 1일 (연 1회)
신도면 진관외리 마고정동	도당제산	제당, 소나무	음력 10월 1일 (연 1회)
신도면 진관외리 박석마을	도당신	소나무	음력 10월 1일
신도면 진관외리 제촌마을	영감님	소나무, 노관주나무	음력 10월 1일

14) 국립민속박물관, 1995,『한국의 마을제당』제1권 서울·경기도편, 110~120쪽.
당시 구파발과 진관동은 서울시 지역이 아닌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에 속해 있었다.

물론 마을제사는 마을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인근 지역의 동제를 종합해보면 북한산 근방의 전통적인 동제를 재구성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신도면에서는 마을마다 마을의 수호신인 산신 혹은 도당신에게 제사를 거행하였는데, 신체는 당집 혹은 신수의 형태였다. 제사일시는 3월과 10월이 많았는데, 매년 거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2년과 3년돌이로 지내기도 했다.

흥미롭게도 철거되기 이전까지 북한동에서 지냈던 마을제사는 이러한 동제들이 복합된 형태를 보였다. 북한동에서는 매년 8월과 10월에 산제사를 지냈으며, 2년에 한 번씩 도당제를 지냈던 것이다. 여기서 왜 북한동에서는 1년에 두 번에 걸쳐 산신제를 지내고, 2년돌이로 도당제를 또 지냈는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북한동이라는 법정동은 몇 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동의 이러한 종합 형태의 동제들은 자연마을 단위로 각자 거행되었던 것이 후에 통합되었기 때문이란 것을 알 수 있다.[15]

1) 북한동의 산제사

북한동에서는 매년 산제사(혹은 산고사)를 지내왔다. 제일은 음력 8월 초하루와 10월 초하루로 일 년에 두 번이고 대상 신격은 산신이다. 북한동에서 봄, 가을도 아닌 8월과 10월에 매년 두 번씩 산제사를 지내게 되었는지는 두 제사를 올리는 산제터가 별개라는 데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8월 제사의 산제 터는 의상봉(義相峯)에 있다. 당신목이나 당집은 없으나 의상봉에 산신이 좌정해 있다고 믿어 돌로 제단을 만들어 놓았다. 의상봉은 대서문과 중성문 사이에 위치해 있던 고봉으로 하창마을에 인접해있는 곳이므로 원래부터 하창마을에서 지내던 산제사

15) 서울대학교박물관, 1991, 『북한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 성곽과 성 내부』, 132쪽.

로 보아진다.

이에 비해 10월 제사는 노적봉(露積峯)에서 지냈는데 이 역시 당신목이나 당집이 없이 돌로 제단을 만들었다. 노적봉은 북한산성의 서남쪽에 위치한 봉우리로 이 봉우리 아래인 북한동 259번지 일대에 중흥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중흥사는 고려 때부터 존재하던 사찰이라고 하지만 북한산성이 축성될 조선 숙종 당시만 해도 30여 칸 정도의 소규모 사찰이었으나 산성이 완성된 뒤 136칸의 대찰로 증축이 이루어졌다. 북한산성에는 성을 지키기 위한 승군(僧軍)이 주둔하였는데, 중흥사는 승군이 주둔하였던 북한산성 내의 11개 사찰을 관장하는 승대장(팔도도총섭 겸임)이 머물렀던 승영이었으므로 대규모의 사찰이 된 것이다.[16] 1915년에 홍수로 무너진 후 방치되어 있다가 현재 법당과 요사채가 복원된 정도이지만 옛터에 주춧돌과 축대로 미루어 보아 그 규모는 짐작할 만하다. 이 중흥사 인근에는 자연마을인 중창마을이 있었으므로 노적봉에서 거행하던 10월 산제사는 원래 중창마을에서 거행하던 제사였다고 보아진다. 중흥사가 소실되기 이전에는 산신당이 존재했으므로 산신당에서 산신제가 거행되다가 소실된 후로는 노적봉에 돌제단을 쌓아 산제 터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노적봉에서 지내던 산신제는 원래 노적봉이 아니라 대남문 쪽에 있는 행궁터에서 텃고사를 지냈다가 이후에 노적봉으로 옮겨진 것이라 한다. 이렇듯 제사 터를 옮기게 된 이유는 6·25 전쟁 당시 수많은 북한군과 중공군이 행궁터에서 죽는 바람에 부정을 탔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행궁터 근방에는 상창마을이 자리잡고 있었다. 중흥사에 산신각이 있었던 중창마을의 제사를 구태여 행궁터까지 올라가 지낼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억하는 행궁터에서 지내던 텃고사는 원래 상창마을에서 거행하던 별개의 마을제사라고 보아진다. 이 행궁터의 산제사가 노적봉으로 옮겨진 이유도 상창마을이 폐쇄된 후

16)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북한산중흥사지.

에 인근 마을로 집단 이주했던 상창마을주민이 한동안 행궁터에 가서 텃고사를 지내다가 이후 노적봉 제사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1998년부터는 노적봉 역시 거리가 멀다 하여 중성문 문루에서 노적봉을 바라보며 지냈다.



[사진 2] 노적봉 아래 중흥사와 중창마을[17)]

이렇듯 10월 제사가 중성문 문루에서 노적봉을 바라보며 지내게 되었다는 제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산성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는 대서문은 통행량이 가장 많았던 문이다. 이 대서문을 통해 산성에 들어서면 서문안 마을이 나오고, 서문안에서 중성문에 이르는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길가에 있는 마을이 하창마을이며. 이 길을 따라 중흥사를 거쳐 행궁으로 가는 길이 이어진다. 바로 이 코스가

17) 서울역사박물관, 2014, 성 베네딕도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 소장 서울사진, 140쪽.

북한산성의 중심이 되는 간선도로였던 것이다. 북한산성은 이중 성곽이었는데, 안쪽 성곽에 해당하는 입구가 중성문이었다. 대서문에서 중성문에 이르는 구간에 형성되었던 하창마을은 북한동에서 가장 큰 자연마을이었고, 철거되어 집단 이주하기까지 대부분의 북한동 주민들이 거주하던 터전이었다. 북한산성 내의 창고가 소멸되고, 이후 홍수와 화재, 전란 등으로 상창과 하창에 있던 자연마을이 사라지자 이곳에 살던 주민들이 하창마을로 이주하면서 그들이 대대로 거행하였던 10월의 산제사의 관행도 하창마을에 흡수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의상봉에서 거행하던 북한동의 8월 산신제는 하창마을[18]의 산신제였고, 노적봉을 거쳐 중성문에서 거행하던 10월의 산신제는 상창과 중창마을의 산제사였는데, 이곳 주민들이 마을의 폐쇄로 하창마을로 편입되고 이 두 산신제가 종합되면서 현재와 같은 북한동 마을제사의 형태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 3] 북한동 산제사 흔적[19]

18) 하청마을에는 마을의 수호신격으로 신봉되던 산신목이 존재한다. 이 산신목은 수령 350년 이상 된 향나무로 함부로 건드리거나 옮기면 마을에 큰 변고가 난다고들 하여 신성하게 모셔지고 있다.

위의 사진은 노적봉 아래에 위치한 대동사 옆 약수터 주변에서 지냈던 북한동 산제사의 흔적이다. 눈이 쌓인 것으로 보아 음력 10월에 지냈던 제사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돼지머리를 네 개나 올렸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상창마을, 중창마을이 폐쇄되어 하창마을로 흡수된 후에도 여전히 상창마을, 중창마을, 하창마을, 서문안 등 네 개의 자연마을이 통합되어 산제사를 올린다는 의식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해주기 때문이다.

(1) 8월 산제사

음력 8월 초하루에 의상봉에서 행해지며, 만약 마을에 초상이 나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달을 넘기거나 무당에게 다시 날을 받아서 지낸다,

산제사를 지내기 전에 음식을 장만하는 도가집과 제를 올리는 제주 3명을 선정하는데, 통장은 항상 포함된다. 도가집의 자격 조건은 부정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었으므로 이를 선정하는 데 매우 까다로웠으나 나중에는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맡았다. 개고기를 파는 식당을 경영하던 집도 도가를 맡으면 제사기간 동안 일체 개고기를 팔지 못했다.

8월 제사에서는 황소 한 마리를 제물로 잡는데, 일제강점기 도살이 금지되어 있을 때도 허가를 받고 이어졌다고 한다. 황소의 머리, 족, 간, 허파를 올리되 피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반드시 충분히 삶아서 제단에 올렸다. 그 외에는 사과, 배, 감, 대추, 밤과 노구메, 조라술을 올렸다. 조라술은 도가집에서 제를 올리기 전날 오후에 가서 묻어둔다. 생선, 포, 탕은 쓰지 않았다.

산제 당일 오후 4시경에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산에 오르며, 제물을 나르는 짐꾼은 산과 맞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특히 산과 관련 있는 호랑이띠와 뱀띠는 제외되고 짐꾼 수는 홀수여야 한다. 그해에 삼재

19) 동아일보, 1996. 2. 27. 독자 사진.

가 든 사람이면 산에 올라가지 못한다.

5시경에는 주민들이 '마지'라고도 부르는 '노구메'를 지어 진설하고, 대략 5시 반경에 유교식으로 제를 지낸다. 소지를 올린 후 참석자들은 그 자리에서 음복하고 내려온다. 제를 지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이다. 산에서 내려와 대서문에서 또 한 번 제를 지내며, 주민들이 성 밖을 출입할 때 무사하기를 기원한다.

산제 비용은 회원들이 추렴하여 충당하였다. 당시 회원당 3만원 정도였고, 회원 수는 140여 명 정도였다. 효자동과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에 있는 백화사 주변 마을의 주민들이 참여하기도 하였다.[20]

(2) 10월 제사

10월 초하루에는 노적봉에서 산제를 지냈다. 그러나 거리도 멀고 힘이 들어서 1998년부터 중성문의 문루에서 노적봉을 바라보고 지냈는데, 이렇게 제사 장소를 옮길 경우에는 무당이 지정해 준 장소로 옮긴다.

10월 제사의 경우 제육으로는 통돼지 한 마리를 올렸다. 상처가 없는 깨끗한 흰 돼지를 통째로 사용한다. 오래전에는 마을 내에서 직접 잡았으나 후에는 밖에서 잡아왔다. 그 외에도 시루떡, 과일 등이 사용되었고, 순대를 사용한다는 점이 특이했다. 이는 북한산 호랑이가 돼지의 내장을 좋아하므로 내장으로 순대를 만들어 올린 것이라 한다.

산제의 제관으로 정해진 사람은 엄격한 금기를 지켜야 한다. 이레 전부터 성 밖 출입을 삼가는가 하면 숨소리조차 조심했다. 제물은 결혼한 남자만이 지고 갈 수 있는데 다시 내려가거나 도착하기 전에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제사 형식은 유교식 제사로 8월 제사와 동일하지만, 대서문에서 따로 지내지는 않는다. 10월 산제사의 비용은 8월에 사용하고 남은 기금으로 충당했다.[21]

---

20) 『고양시사』, 156~159쪽. 당시 제보자: 이재근(남, 38세), 봉종옥(남, 68세), 이명천(남, 49세).

2) 북한동의 도당굿

북한동에서는 기존 자연마을 단위의 제사가 복합적으로 잔재되어 있는 산제사 외에도 무당굿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 대동제인 도당굿도 격년제로 펼쳐졌다.

언급되었던 1967년도의 마을당제 설문조사자료 중 북한동의 자료를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22]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북한리〉

– 조사기록책임자 성명 ○○○ (신도면 북한산초등학교 근무, 여, 38세)

항목			내용
1	당 이름		산신당
2	당 위치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북한리 부왕사
3	당 형태	당집 외형	석조건물 기와(蓋瓦)집
		당집 내부	탁상으로 되어 있음
			산신족자가 걸려있음
		신목	없음
		돌무더기제단	없음
		전설기타	이조시대부터
4	제신	신격	산신
		효험·전설	제사를 지내면 1년 내내 사고가 없다고 함
5	제관	수효·명칭	1명
		선출방법	각인 각자
		기타참석자	부락민
6	제의절차	祭前	목욕하고 부정한 것 안 봄
		제의 순차	제밥 올리고 삼 재배함
		제후	음식을 나누어 먹음

21) 위의 책, 158~159쪽.

22) 국립민속박물관, 1995,『한국의 마을제당』제1권 서울·경기도편, 112쪽.

항목		내용
7	제일시간	낮
8	제수 상차림	재밥 삼과 삼채
9	제비	부락민 각자가 부담함
10	기타 특기사항 (상기 설명 불충분 부분 외 장승·솟대 들)	

설문조사가 전문 민속학자에 의해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주로 당시 각 마을에 부임해있던 교사들에 의해 작성되어서 부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마을 어른들의 제보나 기존 조사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북한동의 동제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인 것은 분명하다.

이 설문조사에 의해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북한동 동제에 대한 사항은 북한동에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오던 산제사가 거행되었고, 부황사(부왕사)에 석조에 기와를 얻은 산신당이 있었는데, 이 산신당에는 산신탱화가 걸려있고, 탁상모양의 제단이 있었다는 정도이다.

그런데 이 조사설문지의 기록이 북한동에서 당시 행해지던 마을제사에 관한 것은 맞지만 현장조사를 통한 내용이 아니라서 주민들에게 문의했던 사실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오류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오류를 일으킨 가장 주요한 원인은 마을에서 당시 거행되던 산신제와 도당굿을 혼동한 것이다. 제사 장소는 도당굿을 거행하던 부황사 산신각인데, 제사 형식은 유교식 산신제의 형태인 것이다. 설문조사서의 제일과 시간 부분을 보면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낮이라고만 표기되어 있다. 언급했듯이 북한동의 산제사는 저녁 시간에 거행되었고 도당굿은 하루 종일 거행되므로 이는 산제사가 아니라 도당굿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의 제차 부분은 유교식 제사에 대한 것이므로 무당에 의해 진행되는 도당굿이 아니라 산제사에

대한 기술이다. 따라서 조사 당시 북한동에서는 유교식 산신제와 무당의 도당굿이 공존하고 있었고, 이 별개의 제사를 하나로 착각한 보고자에 의해 위와 같은 설문지가 작성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진 4] 부왕사 산신당

현재 산신각은 부황사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도당굿이 거행되던 장소라서 그런지 지금도 도당집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존하는 산신각이 어느 정도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설문지에 나타난 석조 기와집이라는 내용과는 차이를 보인다. 산신각 안에 모셔져 있는 화상도 두 점으로 당 왼쪽에는 호랑이의 등에 탄 산신의 탱화가 모셔져 있고, 당 오른쪽에는 단아한 혼례복 차림의 여인이 모셔져 있다. 이 화상에 그려진 인물들에 대한 제보 내용도 분분하다. 산신의 경우는 부군(府君)이라고도 불리지만 여타 경기 지역에서 마을 수호신으로 숭배하는 남성 신격이 부군이고, 북한동에서는 부군

신이 산신일 터이니 문제시될 것은 없다. 문제는 여신의 경우인데 이 여신의 신격에 대하여 호구아씨, 인현왕후, 박씨부인이라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전해오는 것이다.



[사진 5] 산신당의 무신도

호구아씨의 경우는 경기 지역 굿에서 보편적으로 신앙되는 여신격이다. 이 여신은 전염병인 홍역을 관장하는 신이므로 산촌에서 두려워하던 역병을 막아 주민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모셔졌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화상에 그려진 여신의 모습도 일반적인 무신도에 그려진 호구아씨와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제보에 의하면 이 화상은 1970년대에 다시 그린 것이라고 전하므로 속단을 내리기는 힘들다.[23]

호구아씨가 아니라 박씨부인 혹은 인현왕후라는 제보는 얼핏 들으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듯하지만 우연히 와전된 말만은 아닌 듯하

23) 『고양시사』, 156쪽.

다. 우선 박씨부인의 경우에는 북한산성과 관련되어 민간전승을 통해 생성된 것이 분명하다. 북한산성은 병란 후 수도방어를 강화할 목적으로 축조가 되는데, 고소설 박씨전의 박씨부인은 병란 때 무훈을 세운 수호신적 여인이므로 북한산 여산신으로 민간층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인현왕후 역시 북한산성의 축조가 숙종 때 어명에 의해 시행된 국가적 공사였기 때문에 북한산에서 섬기는 여산신의 후보로 거론이 되었을 수 있다. 현재 부황사의 산신각은 당주라고 불리는 보살님이 관리하고 있고 치성을 드리러 오는 신도들도 끊이지 않는다.

그간의 조사자료나 주민들의 제보에 의한 북한산 도당굿의 개괄은 다음과 같다. 북한동 주민들은 2년에 한 번씩 음력 4월 10일 전에 날을 잡아 도당굿을 거행하였다. 굿당은 부황사(扶皇寺) 맞은편에 있는 산신각에 차린다. 제육으로는 통돼지 한 마리와 소머리, 소족을 사용한다. 제육과 각종 제물, 굿에 쓰일 물품은 굿을 하기 전날 미리 굿당에 옮겨놓고 운반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는다. 산신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굿을 주관하는 당주를 맡고 10여 명의 무당이 굿에 참여한다. 도당굿은 아침 7시에 시작해서 하루 만에 끝나는데, 부정굿으로 시작하여 굿 열두 거리를 한다. 굿거리를 마치면 대서문까지 내려와 제물을 새로 마련해 또 한 번 굿을 한 후 끝낸다.[24] 이때에는 제물을 새로 차리는데, 제육으로는 돼지머리를 사용한다. 굿이 끝나면 음복하고 파한다.

도당굿도 북한동 산신제의 복합성에 일조를 한다고 보아진다. 부황사는 행궁 근처의 상창마을과 중흥사 근처의 중창마을, 그리고 중성문 근처의 하창마을의 세 마을과 비슷한 거리에 위치한다. 이를 통해 도당굿은 북한동의 모든 자연마을들이 합심하여 치러진 마을굿임을 추정해볼 수 있다. 도당굿은 무속인에 의하여 하루 종일 거행되는

24) 위의 책, 157쪽.

무속제사이자 대동 놀이의 형태였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매년 하나의 자연마을에서 거행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터이므로 북한동 내의 모든 자연마을이 추렴하여 2년마다 한 번씩 거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맺음말

현재의 북한동은 주민들이 살지 않는 명목상의 마을이지만, 수백년에 걸쳐 산성 내에서 자연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의 자취가 아로새겨져 있다. 산성의 주요 도로였던 대서문을 통과해서 행궁터에 이르는 곳곳에는 북한동의 자연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내성에 해당하는 중성문을 지나 산영루 맞은편에 있는 수많은 선정비들은 북한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번성했던 산촌마을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만든다.

이 글에서는 북한동의 민속과 산제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통사회의 일반적인 민속인 가신신앙과 세시풍속, 민속놀이가 북한동에서도 행해졌지만 이에 덧보태어 산촌이라는 혹은 산성마을이라는 특성을 가미시킨 민속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그들이 행하는 산신제와 도당굿도 산성마을의 지난했던 삶과 마을의 성쇠를 반영하며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

북한동에 마을이 없어졌다고 해서 북한동의 역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왕에 북한동의 마을들이 철거되어 산성 밖으로 이주된 마당에 이곳에 다시 마을이 들어서기는 힘들 듯하다. 하지만 북한동은 오랫동안 주민들이 거주하며 삶을 영위하던 공간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산성은 원래 수도를 방위하기 위한 군사시설이었을 뿐만 아니라 비상사태시 주민들이 대피하여 생활을 하던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던 곳이었고, 산성의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 산성마을이 존속하였다. 따라서 북한산성의 역사는 이들 주민들의 역사를 포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이곳에 살던 주민들은 아직도 북한산 축제 등을 기획하며 고향으로서의 북한동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05년 북한산성에서는 음력 시월 초하루인 11월 2일에 '북한산 터벌림' 행사를 개최하였다.[25] 북한산 사계절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고 고양문화재단에서 주관했던 이 행사는 북한산이 지닌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린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고,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온 북한산 마을의 산신제를 문화예술축제로 승화시킨 행사였다. 터벌림은 마을의 터를 다져 평안을 빈다는 뜻이었다고 한다. 부디 이러한 축제행사가 부활하여 수백 년의 전통을 잇는 북한동의 무형유산으로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25) '북한산 터벌림' 행사는 2005년 11월 1일 오후 4시에 종래 북한동의 10월 제사가 열리던 중성문 일대에서 거행되었다. 인근 무량사를 비롯한 북한산 내의 5개 사찰의 타종으로 시작한 이 축제는 북한동의 산제를 개막 제사로 거행하고, 소원쪽지를 소원줄에 꽂는 행사, 산신목 앞에서 행하는 소원줄 맞이놀이에 이어 터벌림춤, 사물놀이 대동마당 등 다양한 공연과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연합뉴스, 2005. 11. 3. 문화예술제로 탈바꿈한 산신제 '북한산 터벌림 행사'.

참고문헌

『삼국사기』
『숙종실록』
『북한지』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서울대학교 박물관, 1991,『북한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 성곽과 성 내부』.
村山智順, 박전렬 역, 1992,『조선의 향토오락』, 집문당.
조면구, 1994,『북한산성』, 대원사.
국립민속박물관, 1995,『한국의 마을제당』 제1권 서울·경기도편.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경기도박물관, 2000,『경기민속지-Ⅲ. 세시풍속·놀이·예술편』.
고양문화원, 2002,『고양시민속대관』, 고양시.
고양시사편찬위원회, 2005,『고양시사』, 3권, 마을과 민속편.
경기문화재연구원, 2014,『북한산성의 역사와 문화유적』.

〈참고기사〉

동아일보, 1955. 5. 21. 절호의 등산 코-스 - 북한산성에 국립공원계획
동아일보, 1996. 2. 27. 독자 사진
연합뉴스, 2005. 11. 3. 문화예술제로 탈바꿈한 산신제 '북한산 터벌림 행사'

삼각산의 지리와 풍수

최원석*

1. 지리지로 본 삼각산 • 275

1) 산줄기의 연원과 계통 • 275

2) 삼각산 인식의 시대적 면모 • 279

2. 고지도로 본 삼각산 • 281

3. 풍수도참으로 본 삼각산 • 287

참고문헌 • 297

* 경상대학교 인문한국

1. 지리지로 본 삼각산

1) 산줄기의 연원과 계통

전통적으로 삼각산을 비롯한 산의 지리적 이해는 산줄기의 파악부터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옛사람들은 삼각산 산줄기의 연원과 계통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했을까?

삼각산을 초점으로 조선후기에 체계화된 국토의 산줄기 인식체계를 볼 때, 백두산을 종조산(宗祖山)으로 하여 백두대간을 타고 뻗어 내린 맥이 한북정맥을 타고 줄기차게 오다 삼각산(북한산)에서 수도의 진산(鎭山) 및 주산(主山)을 일으키는 형세로 보았다. 조선후기의 실학자 이중환(1690~1756)이 저술한 『택리지(擇里誌)』에서는 삼각산의 산줄기 연원과 계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 **함경도 안변부(安邊府) 철령(鐵嶺)에서 나온 한 맥이 남쪽으로 5~6백 리를 달리다가 양주(楊州)에 와서는 작은 산이 되고, 다시 동쪽으로 비스듬하게 돌아들면서 갑자기 솟아나서 도봉산의 만장봉이 되었다. 여기에서 동남방을 향해 가면서 조금 끊어진 듯하다 다시 우뚝 솟아 삼각산 백운대가 되었다. 여기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만경대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는 서남쪽으로 갔고, 또 한 가지는 남쪽으로 가서 백악산(白岳山)이 되었다.**[1]

한편으로 조선후기의 산줄기 체계를 정립한 신경준(1712~1781)의 『산수고(山水考)』에서는, "강원도 평강현 분수령(分水嶺)으로부터 첩첩 연봉들이 일어섰다 엎드렸다 연잇다가 서쪽으로 오백여 리에 양주에 이르고 서남으로 도봉산이 되었다. 또 삼각산이 되었으니, 실로 서울의 진산(鎭山)이다."[2]라고 백두대간에서 삼각산의 연원인 강원도

---

1) 이중환 저, 이익성 역, 1993, 『택리지』, 을유문화사, 109~110쪽.

2) 申景濬, 「山水考」 二, 三角山.

분수령을 거론하고, 진산의 위상으로서 삼각산의 의미를 적고 있다. 여기서 삼각산이 연원한 한북정맥이 발원하는 지점인 분수령은 신경준이 지목한 조선 12명산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산수의 경위(經緯)를 고찰한 「산수고」의 첫머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열두 산의 첫째는 삼각산(三角山)이요, 둘은 백두산(白頭山), 셋은 원산(圓山), 넷은 낭림산(狼林山), 다섯은 두류산(頭流山), 여섯은 분수령(分水嶺), 일곱은 금강산(金剛山), 여덟은 오대산(五臺山), 아홉은 태백산(太白山), 열은 속리산(俗離山), 열하나는 육십치(六十峙), 열둘은 지리산(智異山)이라 일컫는다. … 산은 삼각산을 으뜸으로 치니 서울〈京都〉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면 전통적인 산줄기 지식체계의 두 성과로서, 조선후기의 산족보식 저작물인 『산경표』와 지도적 재현물인 『대동여지도』를 통해, 삼각산을 이루는 산줄기 계통을 대조해 살펴보자. 백두대간의 분수령(分水嶺)으로부터 발원하여 천산(泉山)·〈백빙산(白氷山)〉[3]-쌍령(雙嶺)-〈법수현(法水峴)〉-전천산(箭川山)-〈장현(獐峴)〉-수우산(水于山)-여파산(餘破山)-오갑산(五甲山)-충현산(忠峴山)-불정산(佛頂山)-〈마현(馬峴)〉-대성산(大成山)-〈하현(遐峴)〉, 그리고 포천의 백운산(白雲山)으로 이어지고, 백운산에서 다시 망국산(望國山)-운악산(雲岳山)으로 이어진다. 여기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 왼쪽 줄기는 화악산(華岳山)으로 뻗어내려가고 본줄기는 〈적목치(赤木峙)〉, 〈굴치(屈峙)〉를 지나 불정산(佛頂山)-향적산(香積山)-주엽산(注葉山)으로 이어진다. 주엽산에서 다시 두 갈래로 갈래져서[4] 한 갈래는 축석령(祝石嶺)-갈립산(葛立山)-불곡산(佛谷山)-홍복산(弘福山)-도봉산으로 이어지고 북한산으로 솟아올라 백악에 이르러 한양의 정맥(正脈)이 된다.

---

3) 『대동여지도』에는 白氷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본문의 〈 〉표시는 『대동여지도』에 기재된 산임.

4) 『산경표』에는 祝石峴에서 두 갈래로 나뉜다〈分二岐〉고 적고 있으나, 『대동여지도』상으로 볼 때는 주엽산이 분기점이 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면 삼각산이 갖춘 산줄기 형세에 대한 조선시대 지식인의 평가는 어떠했을까?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삼각산은…기세를 도와주는 보필(輔弼)의 산이 없고, 또 골이 적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삼각산이 좌우로 보필하는 산을 갖추고 있지 못한 단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는 풍수적 근거가 있다. 풍수서 용경(龍經)에 이르기를, "진룡(眞龍)은 호위하는 많은 산들이 용신(龍身)을 둘러싸야 하는데 산이 정답게 와서 공손히 절을 하는 듯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객산(客山)과 더불어 본(本) 용신(龍身)에 와서 응하는 산을 두루 칭하여 호룡(護龍)"이라고 적고 있는 것이다. 풍수에서는 호위하는 산이 없음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5]

삼각산까지 면면히 이어온 산줄기는 다시 두 갈래로 나뉘게 된다. 그 하나는 노고산(老姑山)-여산(礪山)-견달산(見達山)-일산의 고봉산(高峰山)-교하의 장명산(長命山)이라는 가지를 이루고, 본 줄기는 문수산(文秀山)으로 이어져서 한양 도성의 주산인 백악(白岳)에 이른다. 백악은 응봉(鷹峰)으로 이어지다가 두 줄기로 나뉘어 인왕산과 타락산(駝駱山)으로 갈라진다. 인왕산은 추모현(追慕峴) 방향과 목멱산(木覓山) 방향으로 다시 나뉜다. 추모현(追慕峴)으로 뻗은 맥은 모악(母岳)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다시 서쪽으로 가서 약현(藥峴)으로 서남쪽으로 가서 계당치(鷄堂峙)-와우산(臥牛山)-잠두봉(蠶頭峰)으로 분기한다. 인왕산에서 목멱산(木覓山)으로 휘돈 맥은 소설마현(小雪馬峴)-대설마현(大雪馬峴)-왕십리현(往十里峴)-차현(車峴)에 이른다. 그리고 타락산(駝駱山)의 맥은 안암(安巖)과 고암(鼓巖)으로 이어진다.[6] 신경준은 삼각산에서 뻗은 한양의 산줄기와 주요 산봉우리를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하였다.

삼각산(북한산)은 서울의 진산(鎭山)이다. 남쪽으로 문수봉에 이르

5) 최창조, 1990,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 서해문집, 223쪽.

6) 『산경표』

> 러 응봉이 되고, 백악산이 되고, 인왕산이 된다. 왕궁이 있는 곳에 낙산은 그 왼쪽에 솟아있고, 모악은 그 우측에 웅거하여 있으며 목멱산은 앞에서 공손히 절하고 있고, 한강은 남쪽에서 흐르고 있다. 낙타산은 응봉에서 동쪽으로 잇달아 이 산이 되었다. 도성은 그 위에 둘러있다. 동쪽으로는 안암과 고암에 이른다. 목멱산은 인왕산으로부터 저평하게 남쪽으로 잇따르다가 동쪽으로 바꾸어 일어선 것이 이 산이다. 도성은 그 위에 둘러있다. 한 가지의 산록이 남쪽으로 잇따른 것이 약현과 만리현이며 용산에 이르고, 한 가지 산록이 서남으로 잇따른 것이 계당치가 되어 와우산, 잠두봉에 이른다. 문수산의 한 산록이 동쪽으로 잇달아 석곶현과 천장산이 되고, 한 산록이 서쪽으로 잇따른 것이 박석현이 되고 앵봉(鶯峰), 효경봉(孝敬峰)이 된다. 노고산은 삼각산으로부터 잇따른 것이 이 산이다. 역현(礫峴)을 경유하여 견달산, 고봉산, 장명산에 이르는데 교하군이 있다.[7]

이상과 같은 전통적인 산줄기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서울의 권역 내에 있는 산의 무리들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계통으로 나눌 수가 있다. 크게 강북의 산과 강남의 산으로 2대분(二大分)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다시 강북의 산은 도봉·북한산 계(系)와 수락산 계(系)로, 강남의 산은 관악산 계(系)와 대모산 계(系), 남한산(南漢山)[8] 계(系), 그리고 양천구·강서구의 수리산(修理山) 계(系)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한 기준은 분기(分岐)되는 맥줄기의 차이점에 있다.

삼각산이 속해 있는 도봉·북한산 계의 산은 한북정맥이 한양으로 들어오는 첫머리에 해당한다. 도봉산은 북한산으로 어깻죽지처럼 이어지고, 북한산에서 불끈 솟은 힘찬 기세는 달음질쳐서 북악의 머리로 집중하니 한양의 주산(主山)이 된다. 북악의 머리에서 오른팔로는 힘껏 인왕산으로 내뻗고, 왼팔로는 낙산으로 가다듬어 안는다. 인왕산의 백호(白虎) 맥은 한 길로는 남산으로 솟아 도성의 남쪽을 받치고,

---

7) 申景濬,「山水考」二, 三角山

8) 남한산성으로 표기되어 있고 청량산(淸凉山)과 검단산(黔丹山)의 봉우리 이름이 나타나나 여기서는 총칭하여 남한산 계로 서술했다.

또 한 용맥은 한 걸음 내 뛰어 모악으로 솟으며 연이어 백련산 혹은 와우산, 혹은 노고산으로, 머리를 솟아 올렸다가 감추었다가 하면서 한강으로 들어가게 된다. 북한산과 도봉산의 권역은 우이천이 가르고 있다.

2) 삼각산 인식의 시대적 면모

옛 지리지를 개관하여 볼 때 삼각산에 대한 지리적, 역사적 인식은 시대적으로 면모가 달리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때에는 부아악(負兒岳)이라고 하였다. 위에 돌 봉우리가 있어 마치 아이를 업은 것처럼 가까이 달라붙었기에 그렇게 불렀다고 했다. 고구려 동명왕 때는 아들 비류·온조가 남쪽으로 나와서,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악에 올라가 살 만한 땅을 찾은 적이 있다.[9] 신라에서는 나라에서 삼각산에 산천제로서 중사(中祀)의 예를 행하였다. 삼각산이라는 이름은 고려 때부터 등장한다.

조선시대에 와서 삼각산 아래에 한양 도읍을 정하고 나서부터 삼각산에 대한 국가적 위상과 인식은 크게 바뀌었다. 조선중기의 관찬 지리지인『신증동국여지승람』「한성부」 산천조에서 삼각산(三角山)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도 그 한 예증이다. 여기에서는 도성 산줄기의 연원 및 이어지는 산봉우리, 진산으로서의 위상과 산이름의 유래, 산이 하천을 만나 머무는 곳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 **평강현(平康縣)의 분수령(分水嶺)에서 잇따른 봉우리와 첩첩한 뫼뿌리가 잇따라 뻗어 와서 서쪽으로 양주(楊州)에 이르러 도봉산이 되고, 또 북산(北山) 혹은 삼각산이 되니, 실로 경성(京城)의 진산(鎭山)이다. 백운(白雲)·만경(萬景) 혹은 국망(國望), 인수(仁壽)의 세 봉우리**

9)『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1』, 254쪽.

> 가 있으므로 그렇게 이름한 것이다. 만경봉이 동쪽으로 굽어 돌아서 석가·보현·문수 등의 여러 봉우리가 되었는데, 보현봉의 곁가지 산발이 곧 도성의 주맥(主脈)이기 때문에 총융청(摠戎廳)에서 보토처(補土處)를 설치하고 주관하여 보축(補築)하였다. 문수봉의 동쪽 가지가 형제의 두 봉이 되고 또 남쪽으로는 구준봉(狗준峰)·백악산(白岳山)이 되며, 문수봉의 서쪽 가지가 칠성봉이 되고, 거기서 두 갈래로 나뉘어 떨어져서 나한·증봉(甑峰)·혈망(穴望)·의상의 여러 봉이 되어 중흥 수구(重興水口)에 이르며, 한 가지가 서쪽으로 달려서 승가사의 비봉과 불암 향림사(佛岩香林寺)의 후봉인 백운봉이 되며, 서쪽으로 돌아서는 영취·원효의 두 봉이 되어 중흥 수구에 와서 멈춘다.[10]

조선후기에 와서 지식인들의 지리적 지식에 대한 관심의 확대와 함께 도성의 삼각산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삼각산 형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삼각산은 도봉산과 연달아 얽힌 산세이다. 돌 봉우리가 한껏 맑고 수려하여, 만 줄기 불꽃이 하늘에 오르는 것 같고, 특별하게 이상한 기운이 있어서 그림으로 나타내기 어렵다."[11] 그리고 김정호는 『대동지지』에서 추가적으로 삼각산의 기운과 형태를 "청수(淸秀)·준극(峻極)·명랑(明朗)·삼엄(森嚴)"이라는 네 단어로 요약하여 적었다. 삼각산의 여러 봉우리 중에서 보현봉을 강조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 부(府)의 북쪽으로 15리 거리에 있다. 백제는 부아악으로 칭하였고 또 횡악(橫岳), 화산(華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청수(淸秀)하고 준극(峻極)하며 명랑(明朗)하고 삼엄(森嚴)하다. 북쪽에 세 봉우리가 있어 궁륭히 하늘에 꽂혔으니, 백운·만경·인수라고 한다. 남쪽에는 두 봉우리가 있어 웅건하게 서려 높고 준걸차니, 문수·보현이라고 한다. 보현은 한양의 정간(正幹)이 되었다. 서쪽에는 비봉이 있는데, 신라 진흥왕 16년에 북쪽으로 순행하여 경계를 정한 비석이다.[12]

---

10)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1』, 380쪽.

11) 이중환 저, 이익성 역, 1993, 『택리지』, 을유문화사, 171쪽.

이상의 지리지에 나타난 삼각산에 대한 묘사에서 드러나듯이, 옛 사람들에게 삼각산은 암석이 돌출된 골기(骨氣)가 성성한 산으로 비친다. 현대 지형학적으로 보아 삼각산은 화강암이 관입하여 풍화된 산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삼각산의 서쪽으로 뻗은 맥은 진관외동에서 보이듯이 삼엄할 정도로 거칠고 야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삼각산에 대한 음양론적인 인식으로는 세 뿔〈三角〉이 솟구친 양(陽)의 형상으로 보았다. 옛 시인들이 삼각산을 노래하기를, "공중에 높이 솟은 세 송이의 푸른 연꽃〈오순(吳洵)〉" "세 송이의 기이한 봉우리 멀리 하늘에 닿았는데, 아득한 대기에 구름 연기 쌓였네. 쳐다보니 날카로운 모습, 장검이 꽂혔는데, 가로 보니 어슷비슷 푸른 연꽃 솟았네〈이존오(李存吾)〉" 운운했으니, 모두 솟아오른 양(陽)의 형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를 걸쳐 삼각산은 수도의 진산이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아도 삼각산은 광역화된 서울을 대표하는 산이라고도 할 만하다. 또한 삼각산은 우리나라의 산 중에서 가장 으뜸 되는 것이라고도 신경준은 말했다. 서울의 공간 규모로 보아도 삼각산은 오늘날 광역화된 서울의 주산(主山)이요 진산(鎭山)으로 규정할 만하다.

2. 고지도로 본 삼각산

조선시대에 들어와 삼각산은 한양의 역사와 지리를 대변하는 상징으로 부상했다.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보자 한강수야~"라고 김상헌(1570~1652)은 병자호란 때 볼모로 잡혀가면서 차마 삼각산을 못 잊어 부르는 까닭은, 삼각산이 한양의 랜드 마크이기도 했지만, 한양 사람들이 삼각산에 대해 심정적으로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

12) 『大東地志』 卷1 京都, 山水(아세아문화사 영인본, 21쪽)

삼각산은 이름 그대로 세 봉우리(인수봉·만경대·백운봉)가 뿔(角)처럼 뚜렷하게 드러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김시습(1435-1493)이 삼각산을 두고, "세 뿔 같은 높은 산봉 하늘을 꿰뚫으니…" 하면서 시작하는 시구(詩句)도 이런 시선의 반영이다. 옛 지도에서도 삼각산의 세 뿔 모습은 산 형상을 대변하는 아이콘처럼 뚜렷하게 표현되었다. 1840년대에 서울을 그린 김정호의 〈수선전도〉와 18세기 중반에 제작된 〈좌해도〉의 경기도 지도 등에는 삼각산의 우뚝한 세 뿔이 실감 나게 그려졌다(지도 1, 지도 2).



[지도 1] 삼각산을 강조해 표현한 김정호의 수선전도 목판본(1840년대). 보물 제853호. 고려대박물관 소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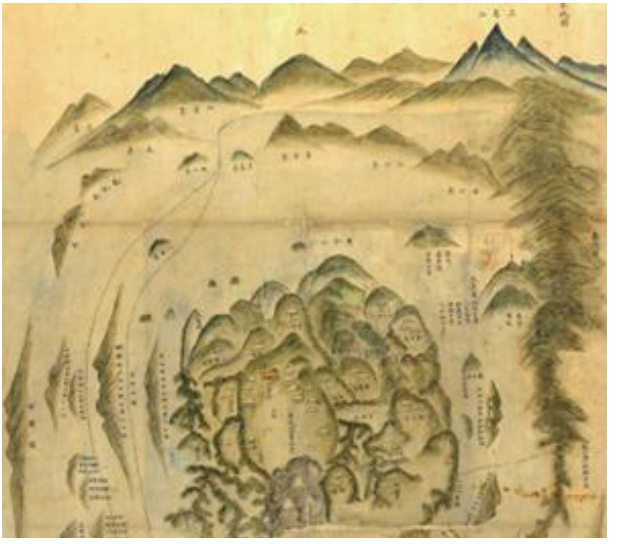


[지도 2] 좌해도, 경기도(18세기 중반)에 표현된 삼각산의 모습. 고려대도서관 소장본)

진영(鎭營) 지도로서, 멀리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대부지도(대부도)에까지 삼각산의 모습은 강조되어 표현되었다(지도 3).

한양의 삼각산은 일명 화산(華山) 혹은 화악(華嶽)이라고도 했다. "공중에 높이 솟은 세 송이 푸른 연꽃, 아득한 구름 안개 몇만 겹인고…". 고려의 오순이 읊은 삼각산의 모습이다. 삼각산의 세 봉우리 모습이 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하늘 높이 솟은 연꽃으로 비쳤다. 화산 명칭은 조선시대부터 생겨난 별칭이다. "화산 남(華山南) 한수 북(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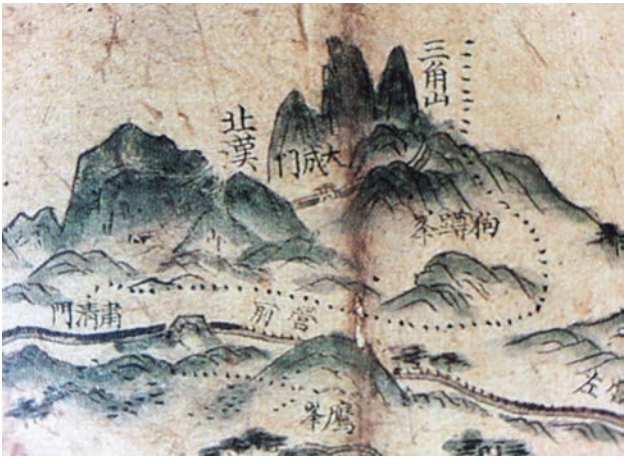
水北) 조선 승지(朝鮮勝地)…”로 시작하며 한양의 도읍지를 기린 변계량(1369~1430)의 〈화산별곡(華山別曲)〉(1425), 그 화산이 북한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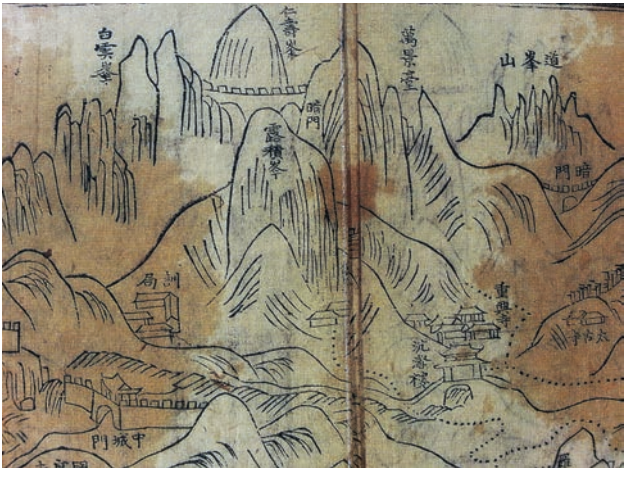
[지도 3] 오른쪽 위의 모서리에 삼각산이 뚜렷하게 표현된 대부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북한산이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원래 북한(北漢)이라는 말은 지리적으로 한강의 북쪽이라는 뜻이었고, 지역적으로 북한산성 일대 혹은 북한산성을 가리키는 약칭으로 쓰였다. 〈도성삼군문분계지도(都城三軍門分界地圖)〉에 삼각산 아래로 ‘북한’(北漢)이라 표현되고 있음이 확인된다(지도 4). 그것이 조선후기에 산 이름에 덧씌워져서 북한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희(1786-1856)는 〈진흥이비고(眞興二碑考)〉에서, “진흥왕 순수비가 지금의 서울 북쪽 20리에 있는 북한산 승가사 곁의 비봉 위에 있다.”고 적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북한산이라는 이름은 삼각산과 함께 쓰이기 시작했다.[13] 조선총독부 자문기관이었던 중추원은 공식적으로 북한산이라는 이름을 써서 『북한산지지초략(北漢山地誌抄略)』이라는

산지(山誌)도 편찬하였다. 이 책은 북한산에 순사주재소가 설치되면서 북한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



[지도 4] 도성삼군문분계지도(1752)의 삼각산 모습.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본



[지도 5]『북한지』(1745)의 북한도(2).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

13) 김윤우 편저(1995)의『북한산 역사지리』33~40쪽에는 관련된 상세한 설명이 있다.

삼각산의 자연경관과 역사경관이 상세하게 그려진 지도로 북한도(北漢圖)가 있다. 이 옛 지도는 『북한지(北漢誌)』에 딸려있는 3장의 그림이다. 『북한지』는 1745년(영조 21)에 성능(性能)이 편찬한 북한산과 북한산성의 지리지이다.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북한산의 자연경관, 문화유적, 역사건축 등이 망라되어 소개되었다. 지도(二)를 보면, 인수봉 가운데로 좌우의 만경대·백운봉이 뚜렷하고, 앞으로 노적봉이 있다. 노적봉이라는 이름은 한국에서 흔한 봉우리 이름인데, 신경준(1712-1781)은 『산수고(山水考)』에서 "(삼각산 노적봉은) 우뚝 솟아 있는 것이 마치 노적가리와 같아서 노적봉이라 이른다."고 했다. 노적봉이라는 이름은 풍요로움을 표상하고 염원하는 상징성이 산봉우리에 투영된 것이다. 노적봉 왼편 아래로는 산성 내 사찰인 중흥사(中興寺)가 그려져 있다. 중흥사는 고려 말에 태고 보우가 중창하고 성능이 팔도도총섭으로 있으면서 크게 중건한 대표적인 사찰이다. 오른편 아래로는 띠처럼 두른 성곽과 함께 중성문(中城門)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지도 5).

서울이 조선의 왕도가 되면서 삼각산은 한양의 진산(鎭山)이자 나라의 으뜸 산이 되었다. 조선중기의 관찬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삼각산은 경성의 진산"이라고 분명히 표기하고 있다. 한양 도성을 지켜주는 산의 표상으로 지정된 것이다. 신경준은 나라의 열 두 명산을 지정한 바 있는데, 그중에서 삼각산을 첫 번째로 쳤다. "삼각산을 (나라) 산의 우두머리로 삼은 것은 서울을 높인 것"이라고 했다. 그에게는 백두산마저도 두 번째의 산이었다. 사실 신라 때만 하더라도 삼각산은 소사(小祀)에 올랐던 그리 중요한 산이 아니었다. 지리적으로도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었다. 그 산이 고려시대에 남경(南京)이 되는 덕에 국가의 손꼽히는 명산의 반열에 들더니, 조선조에 와서는 하루아침에 나라의 진산이요, 으뜸 산이 된 것이다. 삼각산은 조선시대에 와서 나라의 산천 제의로서는 가장 격이 높은 중사(中祀)로 올랐음도 『세종실록지리지』에서 확인된

다. 이런 삼각산은 혹시 무너지거나 변고(?)나 없는지 언제나 관찰의 대상이었다. "1556년(명종 11) 정월 임오에 삼각산 백운봉의 허리 부분에 있는 암석이 무너졌다."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이러한 정황을 잘 보여준다.

삼각산은 한양 도성의 방어를 위해서도 전략적 요충지임이 분명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은 조선 왕실은 북한산성의 전략적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정작 산성의 축성은 조정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지다가, 숙종 37년(1711) 봄에서야 공사가 시작되어 그해 가을에 완성되었다. 숙종은 도성과 가까이에 있는 북한산성이 수비에 있어서의 용이함과 효율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성은 넓고 커서 수비하기가 어렵고, 남한산은 나루를 건너기가 어려우며…오직 북한 지역만은 지극히 가까운 까닭에 백성과 더불어 들어가 수비하려고 하니, 군량을 조치하는 등의 일은 이들 먼 지역과는 달리 어렵지 않을 듯하다."[14]

한성의 진산인 삼각산에 대한 조선왕실의 보전과 관리는 매우 철저하고 엄격했다. 세종 20년(1438)에 삼각산에서 북악으로 이어지는 줄기의 내맥(來脈)을 보토(補土)하도록 한 적이 있다. 세종 27년(1345)에는 삼각산과 청량동 및 중흥동 이북과 도봉산의 벌채를 금해 산지를 보전토록 하였다. 한양 도성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의 보전에 각별한 주의를 한 것이었다. 급기야 세조 9년(1463)에는 백두산에서부터 백두대간의 등줄기를 거쳐 삼각산 보현봉-백악에 이르는 맥을 주맥으로 파악하여 돌 캐는 일을 금하기까지 했다. 서울까지 이르는 산줄기이기 때문이었다. 조선 초기부터 한양의 산줄기 축을 백두산에서 북악산에 이르기까지 거시적으로 파악해 훼손을 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양 도성의 산지관리를 위한 법제적인 장치도 마련했다. 『경국대전』에 "경복궁과 창덕궁의 주산과 내맥의 산등성이와 산기슭에는 경

14) 『숙종실록』 37년 2월 갑자.



[지도 6] 김정호의 대동여지도(1861, 서울역사박물관)에 표현된 서울의 산줄기와 삼각산

작을 금한다."고 적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산 관리의 사상적 저변에는 풍수사상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옛 삼각산이자 오늘날의 북한산은 서울 시민들이 반드시 보전하고 가꾸어야 할 이유가 있다. 생명의 기운은 산에서 생성되고 산의 맥을 통하여 삶터로 흘러들어 사람 생명의 원천이 된다고 풍수는 가르친다. 서울의 생명줄은 백두산에서 비롯되어 백두대간에서 한북정맥의 줄기를 타고 내려와 사패산으로 이어지며 다시 도봉산과 북한산으로 이어져 서울의 터전에 생기(숨)를 불어넣는 형국이다. 산수지도라는 정체성이 뚜렷하게 표현된 〈대동여지도〉를 보아도, 서울의 터전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의 맥이 생생하고도 실감 나게 표현되고 있다(지도 6). 서울의 생태적 환경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축(主脈)이자 네트워크는 한북정맥 줄기요, 특히 서울에 인접한 북한산이다. 그것은 서울이라는 둥지에 터 잡고 사는 사람들과 생태계를 유지하는 태반일 뿐만 아니라 탯줄과도 다름없는 것이다.

3. 풍수도참으로 본 삼각산

한양이라는 도성 공간에서 삼각산과 관련된 풍수도참적 인식의 초기적인 사례는 고려 숙종조(肅宗朝 1096~1105)에 김위제의 상주문(上奏

文)[15]에 나타난다(표 1). 여기에서는 삼각산에 의지하여 새로이 도읍을 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기록 내용은 도선(827~898)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도선기」, 「도선답산가」, 「삼각산명당기」, 「신지비사」 등을 논거로 한다. 그러나 실제 도선이 그러한 풍수도참서를 저술하였는지는 확증할 수 없으며, 고려시대에 와서 도선이 풍수의 시조로 신비화되고 이에 가탁한 흔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 1〉『고려사』 소재 한양 및 삼각산 풍수도참 기록 내용

문헌명	기록 내용
「道詵記」	"고려의 땅에 세 곳의 서울이 있다. 松嶽을 中京으로, 木覓壤을 南京으로, 平壤을 西京으로 하는데 11~2월을 중경에서 지내고 3~6월을 남경에서 지내며 7~10월을 서경에서 지내면 36개국이 와서 조공할 것이다." "건국한 후 1백 60여 년에 목멱벌에 도읍한다."
「道詵踏山歌」	"송도 운수가 다 되면 어느 곳으로 가려는가? 三冬에 해 돋는 그곳에 벌판이 있네! 후대의 어진 사람이 이곳에 도읍하면 한강의 魚龍이 사해로 통할 것이다." "송악산 辰韓과 馬韓의 주인이 되었으니 아아! 어느 시기에 가서 그 운맥이 약해질 것인가? 뿌리가 가늘고 약하며 枝葉도 역시 그러하니, 겨우 백 년 기간 지나면 어찌 시들지 않으랴? 만약 새로운 꽃 다시 한 번 피려거든 서울을 떠나 陽江을 건너 국왕이 왔다 갔다고 하라. 그러면 四海의 魚龍이 모두 한강으로 모여들 것이요. 나라와 백성이 편안하여 태평 세상 이룩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또 답산가에는 '후대에 현명한 사람이 인간의 運氣를 알아낸다면 한강을 건너가지 말아야 그 운수 오래 간다. 만약 그 강을 건너가서 도읍을 정한다면 나라는 두 조각나서 한강으로 국경을 삼으리라!"
「三角山明堂記」	"'눈을 뜨고 머리를 돌려 산세를 두루 살펴보니 북을 등지고 남을 향한 곳 이곳이 바로 명당 대지로다. 음과 양이 서로 맞아 겹겹이 꽃이 피니 자손이 번창하고 국가를 수호하리라. 앞에 놓인 산들은 첩첩이 들어서서 조공 바치듯 하고 뒤로 옆으로 늘어선 산들은 부모 삼촌과 같이 보호해 주며 문 지키는 산 또 대궐문이나 성문 밖에는 개 세 마리씩 있어 주인을

15)『고려사』 권122, 열전35 「김위제」.

문헌명	기록 내용
	위하여 충실히 문을 지키네! 좌측의 청룡과 우측의 백호가 드높다고 시비 말라. 사방의 장사꾼은 저마다 보배를 바치러 올 것이요. 명예를 탐낸 이웃 손님들 자식이 부모 따르듯이 와서 모두 다 한마음으로 나라와 임금을 도우리라. 壬子년에 첫 삽, 괭이를 대면 丁巳년에 성군이 될 왕자가 탄생할 것이다. 삼각산을 의지하여 도읍을 정하면 9년 후에는 사방에서 조공을 바칠 것이다."

조선의 관찬지리서인『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한양에서 차지하는 삼각산의 공간적 위상이 잘 반영되어 풍수적 형세가 표현되었다. "북으로 화산(華山)을 진산(鎭山)으로 삼아, 〈동과 서는〉 용이 서리고 범이 쭈그리고 앉은 형세요, 남쪽은 한강으로써 금대(襟帶)를 삼았으며, 멀리 왼쪽으로는 대관령을 당기고 오른쪽에는 발해를 둘러 그 형세의 훌륭하기는 동방의 으뜸으로서 진실로 하나니 백이(百二)의 땅이다." 고 기록했다.[16] 여기에서 한양의 지형적 입지 조건을 해설하고 있으니, 도성의 주산(진산)인 삼각산을 중심으로 좌청룡(낙산)과 우백호(인왕산)라는 풍수적 공간 인식이 가시적으로 묘사되었다.

조선후기의 실학자들도 한양의 풍수와 관련시켜 삼각산에 대해 다수 지적하고 있다. 이중환이『택리지』에서 논의한 한양의 풍수를 비롯하여 삼각산 및 그 지맥의 계통에 대한 서술 내용은 아래와 같이 대단히 상세한 편이다. 한양을 이루고 있는 삼각산 및 지맥들의 형태 뿐만 아니라 형세의 조건, 살기 유무, 하천 및 수구, 하천 및 토질 조건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 **삼각산은 도봉산과 연달아 얽힌 산세이다. 돌 봉우리가 대단히 맑고 수려하여, 만 줄기 불꽃이 하늘에 오르는 것 같고, 특히 이상한 기운이 있어서 그림으로 나타내기 어렵다. 다만 기세를 도와주는 보필(輔弼)의 산이 없고, 또 골이 적다. 성 안에 있는 백악산과 인왕산은 돌**

16)『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1』, 25쪽.

> 의 형세가 사람을 두렵게 하여 살기 없는 송악산보다 못하다. 미더운 바는 다만 남산 한 가닥이 강을 거슬러서 판국을 만든 것이다. 수구(水口)가 낮고 허하며, 앞쪽에는 관악산이 강을 사이에 두고 있으나, 또한 너무 가깝다. 비록 화성(火星)이 앞을 받치고 있어도 풍수가는 언제나 정남향으로 위치를 잡는 것을 좋지 못하다 한다. 그러나 판국 안이 명랑하고 흙이 깨끗하며 따라서 한양의 인사가 막히지 않고 명랑한 점은 많으나 웅걸(雄傑)한 기상이 없는 것이 유감이다.[17]

동시대의 실학자 성호 이익(李瀷, 1681~1763)도 서울의 산줄기에 대해 자세히 인식한 바 있으며, 특히 산수 국면과 형세에 대하여, "서울 산맥의 내룡(來龍)이 범위가 크고 긴밀한 짜임새가 있으며, 강남의 여러 산맥이 서울로 머리를 숙여 조회하고 있다"고 풍수적 조건을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18]

> 서울의 산맥은 남으로 뻗어 나온 큰 줄기가 철령에서 나뉘고 그 남쪽 가닥이 금강산과 오대산을 거쳐 태백산, 소백산에 이르러 다시 한강 남쪽으로 뻗어 올라가 바닷가에 그치고, 산맥이 또 바다를 건너 강도(江都)의 나성(羅城)[19]이 되었으니, 범위가 크고 장쇄(藏鎖)[20]가 긴밀하여 남은 힘을 아끼지 않았다. 한강 남쪽의 여러 산맥은 속리산에서 뻗어 나와 모두 서울로 머리를 숙여 조회(朝會)한다. 한강은 오대산에서 발원하여 네 고을을 거쳐 역수로 흐르다가 소양강과 두미(斗尾)에서 합수하고 삼각산을 둘러서 서해로 흘러들어 간다.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경도(京都)조에는 한양의 삼각산을 중심으로 풍수도참의 사실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기록했다. 여기에서는 조선왕조가 한양으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삼각산을 끼고 있는 후보

17) 이중환 저, 이익성 역, 1993, 『택리지』, 을유문화사, 171쪽.

18) 『국역 성호사설』, 「한도」, 319쪽.

19) 기지(基地)를 위하여 산이 멀리 둘러 있어 그곳을 옹호하고 감싸 준 형세.

20) 기운이 누설되지 않도록 산세가 꽉 짜임새가 있는 것.

지 및 삼각산과 그 지맥들의 풍수도참적 평가에 대해 기존의 견해를 종합하여 서술하였다.

> 삼각산 서쪽 연서역(延曙驛)들은 땅이 아름답기는 하나, 후에 다시 보니 모든 산이 밖으로 등지고 달아난 형세이고, 백악산〈북악〉 남쪽 목멱산〈남산〉 북쪽이 제왕 만년의 터가 되어 하늘과 더불어 다함이 없는 것만 같지 못하였다. 항간에서 전하는 말에, "송경(松京 개성)은 산곡(山谷)이 둘러싸서 감싸 안은 형세이므로 권신(權臣)의 발호(跋扈)가 많았으며, 한양은 서북쪽이 높고 동남쪽이 낮으므로 장자(長子)가 가볍게 되고, 지자(支子)가 중하게 된다고 한다." 권문해(權文海)의 운옥(韻玉)에 이르기를, "도선의 비기(祕記)에, '서쪽에 공암(孔巖)이 있고 또 단서 석벽(丹書石壁)이 있다' 하였는데, 공암으로 말하면, 〈백악산 남쪽이나 연서역의〉 두 곳이, 모두 서쪽이 되니, 단서(丹書)가 있는 곳을 찾아서야 결정하겠다. 이에 단서를 인왕동 돌 위에서 얻고, 드디어 〈백악산 남쪽에〉 도읍하기로 결정했다." 하였다. 도선의 도참에, "왕을 대신할 이(李)가 있어 한양에 도읍할 것이라."는 말이 있어, 고려 때 오얏〈李〉을 한양에 심고 그 오얏나무가 무성하면 문득 베어버려서 〈지기를〉 눌렀는데, 이때 와서 과연 징험이 되었다.

한편, 조선중후기에 삼각산에 대한 민간의 풍수도참적인 인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정감록』이 있다. 이 책에서 남사고(南師古)의 말로 빗대어서, "한산(漢山)은 뼈가 많고 한수(漢水)는 여울이 많으므로 필시 골육상잔이 많을 것이다."[21]고 했다. 삼각산 지형과 한강의 지리적 특성을 도참적 인식 특유의 길흉화복과 연계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덧붙여 말하기를, "한산(漢山)은 금국(金局)이므로 대궐을 반드시 동향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의 말씀이 막혀 행하지 못하리니 땅을 택하는 자는 인심에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22]는 언급도 있다. 이 글에서는 삼각산을 오행에서 금(金)에 해당

21) 아세아문화사, 1973, 『鄭鑑錄集成』「南師古祕訣」, 780쪽

22) 아세아문화사, 1973, 『鄭鑑錄集成』「鑑訣」, 733쪽

하는 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궁궐 건축물의 배치에 관해서까지 금생수(金生水)라는 상생적 이해에 기초해 논의했다.

19세기에 민간인들의 한양 산수와 삼각산에 대한 인식의 한 단면은 1840년 한산거사(漢山居士)라는 필명으로 전해지는 한양가(漢陽歌)[23]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 천지 개벽(天地 開闢)하니 일월(日月)이 생겼에라.
> 성신(星辰)이 광휘(光輝)하니 오행(五行)이 되었에라.
> 초목(草木) 곤충(昆蟲) 생겨날제 인물(人物)이 번성(繁盛)하다.
> 오악(五岳)이 용발(聳拔)하고 사독(四瀆)[24]이 광활(廣闊)하다.
> 곤륜산(崑崙山) 일(一) 지맥(支脈)이 동해(東海)로 들어올 제,
> 행룡(行龍)[25]은 기만리(幾萬里)며 굽이는 몇 구빈고.
> 백두산(白頭山) 기봉(起峰)하여 함경도(咸鏡道) 넘어서서,
> 강원도(江原道) 내달아서 경기도(京畿道) 돌아들 제,
> 북극(北極)을 받쳤는 듯, 부용(芙蓉)을 깎았는 듯.
> 도봉(道峰)에 머물어서 층층(層層)이 오는 기세(氣勢),
> 군선(群仙)이 모였는 듯, 아홀(牙笏)[26]이 벌였는 듯.
> 삼각산(三角山) 기봉(起峰)할 제, 천년(千年)을 경영(經營)인가,
> 만년(萬年)을 기봉(起峰)인가, 호거용반(虎踞龍盤)[27] 기이(奇異)하다.
> 북악(北岳)이 입수(入首)되고, 종남산(終南山) 안산(案山)이라.
> 청룡(青龍)은 타락(駝駱)뫼요, 백호(白虎)는 길마재[28]라.
> 강원도(江原道) 금강산(金剛山)은 외청룡(外青龍) 되어 있고,
> 황해도(黃海道) 구월산(九月山)은 외백호(外白虎) 되어 있고,
> 제주(濟州)의 한라산(漢拏山)은 외안(外案) 되어 있고,

---

23) 한양의 옛 모습(山水·地理·宮闕·官衙·市廛 등)을 가사체(歌詞體)로 노래한 것이다.

24) 민산(岷山)에서 흐르는 양자강(揚子江), 곤륜산(崑崙山)에서 흐르는 황하(黃河), 동백산(桐柏山)에서 흐르는 회수(淮水), 왕옥산(王屋山)에서 흐르는 제수(濟水).

25) 산맥이 구불구불 오는 것을 행룡이라고 표현.

26) 천자(天子) 이하 공경사대부(公卿士大夫)가 조복(朝服)을 입었을 때 띠에 끼고 다니는 것. 군명(君命)을 받았을 때는 이것에 기록해 둠. 옥(玉), 상아(象牙), 대나무 등으로 만들었음.

27) 호랑이가 걸터앉고, 용이 서린 듯한 형세를 말함.

28) 지금의 안산 혹은 모악이 길마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길마재라고 한다.

> 적성(績城)의 감악산(紺岳山)은 후장(後墻)이 되어 있고,
> 두미월계(斗尾月溪) 내린 물이 용산(龍山) 삼개 한강(漢江)되고
> 그 물줄기 흘러내려 오두(鰲頭)재 합금(合襟)하여,
> 강화(江華)의 마니산(摩尼山)이 도(都) 수구(水口)[29] 되었에라.
> 하늘이 내신 왕도(王都) 해동(海東)의 으뜸이라. (하략)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한양의 산줄기의 연원이 곤륜에서 비롯한다는 생각은 당시의 풍수서나 조선시대의 지리적인 지식으로는 보편적 인식이었다. 백두산에서 함경도와 강원도를 지나 경기도를 돌아들어 한양에 이르는 산맥에 대한 묘사는 백두대간에서 한북정맥으로 가지가 뻗는 형세를 나타낸다. 한북정맥에서 도봉산과 삼각산으로 이어지는 형세도 풍수적인 표현으로 묘사했다. 특이한 점은 외청룡, 외백호, 외안(外案), 후장(後墻)[30] 등의 구체적인 풍수 지형 조건을 말하는 점인데, "금강산이 외청룡이고, 구월산은 외백호이며, 한라산이 외안이고, 감악산이 후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서울의 산천을 중심으로 하여 한반도적인 규모로 사신사(四神沙)의 체계를 잡고 있는 거시적인 인식의 면모를 보여준다. 서울 수(水)의 풍수 조건에 대해서는 산에 비해서 간략히 적었지만, 강화도의 마니산을 서울의 수구(水口)로 본 거시적인 시선은 독특한 점이다.

삼각산에서 이어지면서 한양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산인 북악, 낙산, 인왕산, 모악, 남산의 지리와 풍수 논의를 순서대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정궁인 경복궁의 주산인 북악(北岳)은『신증동국여지승람』「한성부」산천조에는 백악(白嶽)으로 표기되었다. 다른 이름으로 공극산(拱極山), 면악(面嶽)이라고도 했다. 김정호의『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고려시대에는 면악(面岳)이라고 불렀으며, 남쪽에 삼청동 대은암

29) 명당수의 물이 빠져나가는 입구.

30) 주산을 뒷받침하고 있는 세력이 큰 산.

(大隱岩)이 있다."[31]고 적었다. 풍수의 오성론(五星論) 인식으로 북악산을 적용하여 볼 때, 고려의 김위제는 "둥그스름한 모양으로 되었으니 토덕(土德)을 상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32] 대체로는 목성(木星)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중환은『택리지』에서 적기를, "형가(形家)는 하늘을 꿰뚫는 목성(木星)의 형국이며 궁성(宮城)의 주산(主山)이라고 한다. 여러 곳 물이 모두 모이는 그 사이에 백악산이 서리고 얽혀 온 나라 산수의 정기가 모인 곳이라 일컫는다."고 한 것이다.[33] 북악의 맥은 오른팔로는 인왕산, 왼팔로는 낙산으로 뻗는다. 그런데 풍수적으로는 북악에서 인왕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경복궁을 기준으로 볼 때 함몰되고 낮아서 결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초에 윤신달이, "우리나라에서 송경이 가장 좋고 한양은 그 다음인데,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건방(乾方)인 북서쪽이 저하하고 명당수가 말랐다."[34]고 한양의 정도(定都) 논의 과정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 맥은 경복궁을 기준으로 할 때 술법적으로 황천살(黃泉殺)로도 해석될 수 있다.[35]

한성의 좌청룡 낙산(駱山)은『신증동국여지승람』「한성부」산천조에는 타락산(駝酪山)으로 나와 있다.『대동지지』에 "고려시대에는 대봉(大峯)이라 불렀다. 동쪽에 안암동이 있다"[36]고 했다. 응봉 동쪽에서 뻗어 돌아 이 산이 되는데 동쪽으로 안암(安岩)·고암(鼓岩)에 이른다.

한성의 우백호 인왕산(仁旺山)에 관해『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인왕사(仁王寺)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서산(西山)이라고도 하고 혹은 필운산(弼雲山)이라고도 하니 이는 명나라 사신이 고쳐 이름

31)『大東地志』卷1 京都, 山水(아세아문화사 영인본, 21쪽)

32)『고려사』권122, 열전 제35, 김위제

33) 이중환 저, 이익성 역, 1993,『택리지』, 을유문화사, 109쪽.

34)『태조실록』3년 8월 경진.

35) 최창조, 1990,『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 서해문집, 234쪽.

36)『大東地志』卷1 京都, 山水(아세아문화사 영인본, 21쪽)

지은 것이다."[37]고 적었다. 김정호의 『대동지지』에는 "고려 때에는 기봉(岐峯)으로 불렀다. 모두 돌 봉우리가 층애(層崖)를 이루고 있다."[38]고 했다. 그런데 기봉은 모악의 다른 이름으로 보인다. 조선의 이태조가 도읍할 때, 중 무학이 인왕산으로 진산을 삼고, 백악과 남산으로 좌·우의 청룡·백호를 삼으려고 하였는데, 정도전이 반대하여 무학의 말을 좇지 않았다는 야사(野史)도 전해진다.[39] 그 후에 인왕산은 광해군 때에 주목받기도 했다. 인왕산 아래 왕기(王氣)가 있다는 말에 따라 일대의 인가(人家)를 모두 철거하고 경덕·희(慶德·熙)·인경(仁慶)·자수(慈壽)의 3궁을 짓는 공사를 크게 일으킨 사실이 있다.

모악(母岳)은 『신증동국여지승람』「한성부」 산천조에는 무악(毋岳)이라 표기되어 있다. 안현(鞍峴)·안산(鞍山)이라고도 하고 기봉(岐峰)이라 하기도 한다. 『대동지지』에는 "안현(鞍峴)이라고도 한다. 인왕산과 대치(對峙)하여 있다."고 적었다. 인왕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뻗어 추모현(追慕峴)이 되고, 이 산이 된다. 모악에서 한 맥은 남쪽으로 나가 약현(藥峴)·만리현(萬里峴)이 되고 용산(龍山)에 이르며, 또 한 맥은 서남쪽에서 계당치(鷄堂峙)가 되고 와우산(臥牛山)·잠두봉(蠶頭峰)에 이른다. 이수광(1563~1628)은 모악이라는 산이름과 관련된 민간의 인식을 다음과 같이 잘 기록한 바 있다, "부아암(負我岩)이 집을 나가는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산을 모악(母岳)이라고 이름하였으며, 남쪽을 벌아령(伐兒嶺)이라고 하니, 막으려 했지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아'라고 한 것이다. 서쪽을 병시현(餠市峴)이라고 하니 이것은 〈나가려는 아이를〉 떡을 주어 달래어 멈추려 한 것이다. 옛날 이름 지은 것이 모두 깊은 뜻이 있다."[40] 모악 아래는 태조 이성계 때의 천도 후보지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41]

---

37)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1』, 381쪽.

38) 『大東地志』 卷1 京都, 山水(아세아문화사 영인본, 21쪽).

39) 『東國輿地備考』 第一卷 國都.

40)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경도 상, 382쪽.

한성의 안산인 남산(南山)은『신증동국여지승람』「한성부」산천조에는 목멱산(木覓山)으로 표기되었다. 다른 이름으로 인경산(引慶山)·열경산(列慶山)·종남산(終南山)이라고도 부른다.『대동지지』에는 남산의 여러 다른 이름의 유래에 관해서, "인경산은 달리 목멱산이라고 한다. 고구려 때에 평양에 있던 목멱이란 호(號)가 옮겨졌다. 속칭 남산이라고 한다. 남으로는 한강을 둘렀고, 천 길이나 되는 층벽(層壁)이 일어나 잠두산(蠶頭山)이 되었다. 북쪽에는 옛 청학동이 있다."[42] 고 설명하였다. 지형적으로 인왕산에서부터 낮게 평평해지며 남쪽으로 뻗어 오는 산줄기는 동쪽으로 휘어져 일어서는 형세를 했다. 이에 대해『한성지략(漢城識略)』산천조(山川條)에서, "마치 달리던 말이 말안장을 푼 형국과 같다"고 적었다. 한편,『정감록』에는 남산의 모양새를 평하면서, "목멱산은 그 형상이 아이 낳는 여자의 음부와 같으니, 사대부가 허물을 더 하면 온 나라가 무례해질 것이다."[43]라는 인체에 유비(類比)한 독특한 인식도 하고 있다.

---

41) 태조 3년(1394) 2월 18일, 태조는 조준, 권중화 등 11인을 보내어 서운관(書雲官) 관원들을 거느리고 천도할 땅을 모악의 남쪽에서 찾아보게 하였다. 같은 달 23일 권중화와 조준 등이 모악에서 돌아와서 말하기를, 모악의 남쪽 땅은 좁아서 천도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륜 만이 홀로 주장하기를, "모악 명당이 좁은 듯 보이지만 개성의 강안전이나 평양의 장락국에 비하면 다소 넓을 뿐 아니라 전 왕조의 비록(祕錄)이나 당시 유행하던 중국의 지리법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같은 해 8월 11일에 태조는 직접 군신을 거느리고 모악의 지세를 살폈다. 윤신달, 이한우 등이 터가 좋지 못함을 말하였고, 재상들 역시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으니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당이 한 나라의 수도로서는 너무 좁다는 점, 둘째 명당의 상징적인 핵심이 되는 주산이 푹 꺼진 듯이 낮다는 점, 그리고 셋째로 명당을 감싸 도는 물길이 닫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42)『大東地志』卷1 京都, 山水(아세아문화사 영인본, 21쪽).

43) 아세아문화사, 1973,『정감록집성』, 감결, 723쪽.

참고문헌

高麗史
太祖實錄
肅宗實錄
山水考
山經表
大東輿地圖
都城三軍門分界地圖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大東地志
東國輿地備考
北漢誌
北漢山地誌抄略
經國大典
鄭鑑錄集成(아세아문화사 영인본)
漢陽歌(규장각 소장본)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국역 성호사설
이중환 저, 이익성 역, 1993,『택리지』, 을유문화사.
최창조, 1990,『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 서해문집.

북한산성 지명의 분포와 의미

김순배*

1. 서론 • 301

2. 지명의 분포 • 305
   1) 자연 지명 • 312
   2) 인문 지명 • 325

3. 주요 지명의 의미 및 변천 • 339
   1) 북한산 지명의 형성과 변천 • 340
   2) 주요 자연 및 인문 지명의 의미와 변천 • 346

4. 결론 • 349

참고문헌 • 353

*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1. 서론

지명(place names)은 본래의 자기 모습을 보존하려는 존속성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자연 환경과 역사적, 사회·문화적, 언어적 변화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변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지명이 간직한 질긴 존속성과 보수성으로 인해 지난 역사의 흔적을 간파해 낼 수 있고, 지명의 가변성을 통해 그 흔적의 사회적이고 언어적인 변동 폭과 깊이를 과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명의 존속성과 가변성을 아우르는 지명학적인 시선과 함께 지명을 통시적이고 공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적 유연성과 다양성을 고려해야 지명의 참 면모를 밝혀 낼 수 있다(김순배, 2011). 북한산성이 품은 지명의 양과 질 또한 이러한 지명학적 시선을 토대로 가늠될 때 그 분포와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명은 크게 지리적·문화적·언어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개인이나 집단의 문화가 역사적으로 지명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문화유산, 특히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문화유산을 조상으로부터 개인 또는 사회에 전해 내려오는 언어, 습성, 신념, 관습 등을 말한다고 할 때, 지명에 담긴 문화유산적 요소들이 어렵지 않게 추출될 수 있다. 즉 지명을 통해 공동체와 자연 사이에 창조되는 공간적 관계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고, 지명이 보유한 다양한 이야기, 이미지, 기억, 기념 등에서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화 집단의 이동 경로와 상호 작용의 정도를 지명의 형태소 분석을 통해 추적할 수 있으며, 지명 표기의 언어적 특수성을 통해 특정 사회 집단이 당대의 세계를 바라보던 가치관과 태도 등을 읽어낼 수 있다.

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북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목적에 지명의 문화성과 역사성, 그리고 물질

적 공간성이 기초적으로 이해되고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으로서의 북한산성(국가지정 사적 제162호)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북한산성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이들이 터하고 있는 공간적 토대를 이해한다는 것이고, 이는 바로 음성과 문자 형태로 북한산성의 공간, 문화,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지명을 알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북한산성 안에 분포하는 지명들의 지리적 분포와 문화적, 역사적,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고, 나아가 지명 변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을 기초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본 글의 목적이다.

현재 북한산성의 대부분 구역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덕양구 효자동, 동쪽으로는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과 인수동, 남쪽으로는 성북구 정릉동과 종로구 평창동과 구기동, 그리고 서쪽으로는 은평구 진관동과 각각 경계하고 있다. 이곳의 행정구역은 경기도 양주시와 서울시 사이를 비집고 고양시 덕양구의 신도동, 지축동, 효자동, 북한동이 동쪽을 향해 끼어 있는, 즉 조선시대에 볼 수 있었던 견아상입지(犬牙相入地) 형태의 경계선을 보이고 있다.[1] 이 같은 비정상적인 경계선은 19세기 말 20세기에 걸쳐 이 일대에서 일어났던 굴곡진 역사적 경험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흥미롭다.

전통적인 산줄기 체계로 보았을 때 북한산성의 관계적 위치는 대략 남북방향으로 뻗어 있는 한북정맥(漢北正脈)이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

1) 견아상입지는 군현의 경계선이 서로 交入하여 마치 犬牙(개의 치아)가 위아래로 相錯해 있는 모습과 같은 구역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한편 월경지(越境地)는 고려, 조선 시대에 소속 읍과 따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군현의 특수구역으로 고려 현종 대에 주현의 領屬관계가 확립된 이후 종전의 屬縣, 鄕, 所, 部曲 등의 任內가 분리, 독립하거나 혁파, 정리되면서 생성되기 시작하였다. 15세기 이래 행정구역의 개편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그 정비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지방통치체제의 미비, 수취체제의 모순, 군현 토착세력과 주민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어서 끊임없이 생성, 소멸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다가 光武 10년(1906) '地方區域整理件'에 관한 勅令에 따라 완전 정리되었다. 월경지와 견아상입지의 차이점은 전자는 '越在他邑'한 데 반해 후자는 '侵入他境'한데 있으며, 조선초기의 자료에서는 양자가 혼동되는 경우가 있었다(이수건, 1989, 148~150). 본 연구 지역에서는 1711년 북한산성의 축조 이후 일어났던 조선시대 말의 산성 기능의 상실과 관할 문제, 그리고 정치적 격동 및 행정구역 개편 등의 결과, 서울시, 경기도 양주시, 고양시 사이에 현대판 견아상입지가 잔존하고 있다.

명당수인 청계천과 한강을 만나기 전 크게 몸을 일으켜 세운 북한산 정상 부근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북한산성은 산맥의 날줄[經]과 하천의 씨줄[緯]이 직교하는 십자가의 중심 상단에 위치하는 형국을 지니고 있다. 즉 도봉산(740m)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이어진 한북정맥 능선은 소귀고개[牛耳嶺]를 지나 북한산의 인수봉과 백운대(836.5m), 만경대에 다다른다. 산성이 위치한 이곳은 국가적 스케일에서 볼 때, 한반도 서부의 남과 북, 그리고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한강 유역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중요한 결절지(node)이다. 동시에 로컬 스케일에서는 한강 하류 일대에서 가장 높은 위치인 점을 활용해 한강 하류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다양한 지질 구조선들을 조망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북한산성이 지닌 지정학적 중요성은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백제 건국 과정에서 고구려에서 남하한 온조(溫祚) 일행이 새 도읍지를 고르기 위해 올랐다던 '한산(漢山)'의 '부아악(負兒嶽)'을 이곳에 상정하게 하였으며, 이후 5~7세기 사이에는 삼국 간의 치열한 한강 유역 쟁탈전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결국 고려 및 조선시대에 이르러 외적 침입과 내란 방어를 위해 북한산 일대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공간적으로 실천하는 고려의 중흥산성과 남경 설치, 조선의 도성 및 산성 축조 등과 같은 다양한 관방 시설이 이곳에 자리 잡게 하였다.

북한산성의 지리적 위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로부터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백운대(혹은 백운봉) 부근을 북한산 정상으로 통칭해 왔으며, 인수봉, 만경대를 아울러 삼각산으로 부르기도 한다.[2] 북한산성은 북한산 정상을 위시하여 현재의 북한천 중·상류를 감싸고 있는 능선을 따라 자리한 포곡식(包谷式) 산성이다. 즉 백운대에서 서쪽으로는 염초봉, 북문, 원효봉, 서암문, 서암사 앞 북한천 수

2) 한편 북한산국립공원이 지정된 1983년 이후부터는 공원 구역에 포함된 도봉산 일대(도봉 지구) 또한 '북한산'의 지명 영역에 포섭되기에 이른다. 북한산 지명이 생성된 이래, 이 지명이 경험한 지명 영역의 확대와 축소 등의 변화 과정은 추후의 정밀한 연구를 기다리고 있다.

구(水口)로 능선이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용암봉, 용암문, 일출봉, 동장대, 대동문, 보국문, 대성문, 보현봉으로 능선이 연결된다. 보현봉에서 다시 북서쪽으로 이어진 능선을 따라 대남문, 문수봉, 청수동암문, 나월봉, 부왕동암문, 용혈봉, 의상봉이 이어지다 서암사 앞의 북한천 수구로 능선이 이어진다. 북한천을 감싸는 자루 모양의 이 능선을 따라 북한산성 성곽이 축조되었으며, 대체로 북한천의 최상류인 대남문 부근으로부터 북서쪽의 수구로 갈수록 지대가 낮아진다.

요컨대 북한산성이란 문화 공간은 수직적으로 보았을 때, 대체로 앞서 제시한 능선을 따라 축조된 성곽 공간과 북한천이 만든 소규모 산간 곡지로 이해되는 북한천 유역의 내부 공간으로 양분된다. 또한 수평적으로 보았을 때, 북한천 유역 내부에는 분수계로서의 능선과 북한천 본류를 연결하는 여러 계곡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북한천 본류 부근과 지류의 계곡들에 인간의 물리적 거주지 및 각종 인공 시설물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천 상류에 위치한 행궁지를 중심으로 한 '상곡', 중흥사 및 중성문 일원의 '중곡', 그리고 북한천 수구 부근에 위치한 대서문과 서문안 일대의 '하곡'으로 삼분할 수 있다. 필자는 북한산성 문화 공간에 대한 수직적, 수평적 구분을 지명의 분포와 의의를 설명하는 구조적 틀로 활용할 것이다.

한편 조선시대 한성부를 진호해주는 진산(鎭山)으로 중시되었던 북한산(삼각산)은 산 정상인 백운대로부터 남쪽으로 이어져 한양 도성에 이르는 한북정맥의 주맥을 이루고 있다. 즉 백운대, 만경대, 동장대, 보현봉, 형제봉, 북악 및 정릉 터널 위 보토현 고개를 지나 구진봉을 거쳐 마지막으로 용맥을 일으켜 주산(主山)인 북악산(옛 백악산, 342m)이 된다. 이 북악산의 남동쪽 능선이 경복궁 근정전으로 이어지면서 명당판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특히 이 주맥의 풍수 지리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토양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보토(補土)와 삼림 보호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북한산성 지명이 간직한 공간적, 문화적, 역사적 의의에 대한 기본

적인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먼저 북한산성을 포함한 산성 내부의 지명들을 대상으로 자연 지명과 인문 지명으로 구분하여 시대별 고문헌 및 고지도 등에 기재된 지명 표기를 정리하여 지명 변천 도표를 작성하였다. 이 작업에서는 현존하는 지명 자료 중 가장 많은 북한산성 지명을 담고 있는 『북한지(北漢誌)』(1745)를 중심으로 시대별 지명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지명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명 분포 및 유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본 후, '북한산' 등의 주요 지명들을 선정하여 지명의 의미와 그 변천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북한산성 내부, 즉 현재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과 주변 경계 지역 안쪽으로 한정하였고, 지명 의미와 변천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계 밖의 관련 지명을 포함시켰다. 시간적 범위는 북한산성에 분포하는 지명이 수록된 (고)문헌 및 (고)지도의 편찬 연대에 맞춰 삼국시대 이래 현재까지로 제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및 지도 분석의 실내 문헌 조사를 주로 실시하였고, 추후 면담과 관찰 등의 현지 야외 조사가 후속되어야 한다.

2. 지명의 분포

북한산성 지명의 분포와 의미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지명에 대한 분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순배·김영훈(2010)에서 제시된 두 가지의 분류 기준, 즉 명명 대상 (후부 지명소)과 명명 기반 (전부 지명소)에 따른 분류 중 전자에 맞춰 북한산성 지명을 구분하였다.[3] 즉 땅이름이 가리키는 명명의 대상, 예를 들어, 산과

3) '지명 형태소'의 준말인 '지명소'는 '지명을 구성하는 의미 있는 최소 단위'를 뜻하는 용어로, 이는 다시 전부 지명소와 후부 지명소로 구분된다. 가령 2개의 형태소로 구성된 '절골(寺洞)'은 '절(寺)'이 전부 지명소, '골(洞)'이 후부 지명소가 되며, '한절골(大寺洞)'은 '한절(大寺)'이 전부 지명소, '골(洞)'이 후부 지명소가 된다. 그런데 '한절(大寺)'만을 다룰 때는 '한(大)'이 전부 지명소, '절(寺)'이 후부 지명소가 된다.

하천, 마을과 성곽 등과 같은 후부 지명소를 기준으로 지명을 분류하였다(표 1). 또한 이를 하위분류할 경우, 명명 대상을 지칭하는 후부 지명소에 따라 다시 자연 지명(지형지명, 해양지명)과 인문 지명(행정지명, 인공지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형 지명은 후부 지명소의 종류에 따라 산지(산, 봉, 고개 등), 평야(벌, 평 등), 하천(강, 천, 하 등) 등으로 분류되며, 행정 지명은 읍격(邑格)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즉 과거의 주(州), 부(府), 군(郡), 현(縣) 등과 현재 후부 지명소로 활용되는 시(市), 군(郡), 구(區), 읍(邑), 면(面), 동(洞), 리(里) 등을 포함한 지명들을 말한다. 인공 지명의 경우 인공 시설물에 붙은 이름을 뜻하는데, 북한산에 인공적으로 설치된 관방 시설인 북한산성에는 성, 성문, 행궁, 유영, 사찰, 누각, 교량, 창고 등 많은 인공 지명이 분포하였다. 예컨대 '북한산'과 '대서문', 그리고 '서문안'이란 지명은 후부 지명소인 '~산'과 '~문', 그리고 생략된 후부 지명소인 '~마을'을 고려하여 각각 자연 지명의 지형 지명, 인문 지명의 행정 지명과 인공 지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 지명의 유형 분류

분류 기준	분류 유형		
명명 대상 (후부 지명소)	1. 자연 지명	1) 지형 지명	① 산지 지명 ② 평야 지명 ③ 하천 지명
		2) 해양 지명	① 해양 이름 ② 해안 지명 ③ 해저 지명
	2. 인문 지명	1) 행정 지명	① 市郡區邑面洞里의 명칭 ② 촌락 지명
		2) 인공 지명	① 공원명 ② 고적명 ③ 가로명 ④ 각종 시설명
명명 기반 (명명 유연성) (전부 지명소)	1. 자연 지명	1) 지형 지명	* 지형적 성격
		2) 기후 지명	* 기후적 성격
		3) 식생 지명	* 식생적 성격
		4) 토양 지명	* 토양적 성격
		5) 방위 지명	* 방위와 위치

분류 기준	분류 유형		
	2. 인문 지명	1) 사회이념적 지명	① 성씨 지명 ② 군현명 표기 지명 ③ 유교 지명 ④ 불교 지명 ⑤ 풍수 지명 ⑥ 근대적 지명
		2) 역사적 지명	① 역사 및 전설 지명 ② 일본식 지명
		3) 경제적 지명	① 산업 지명 ② 상업 지명
복수 지명 (경합 지명)	하나의 지리적 대상이나 장소가 두 개 이상의 지명으로 지칭될 경우, 하나의 지명 영역 안에서 서로 경합하며 공존하는 지명들		

자료: 김순배·김영훈(2010)의 도표 일부를 수정한 것임.

본 글에서는 지명 분류에 있어서 현존하는 특정 시기의 단일 문헌 및 지도들 중 가장 많은 지명을 수록하고 있는 『북한지(北漢誌)』(1745)를 중심으로 지명들을 정리하였다. 조선 숙종 37년인 1711년에 축조된 북한산성은 축성 당시부터 팔도에서 모집한 승병들과 이들을 관할하는 총섭(總攝)을 두어 산성 축조와 관리를 담당케 하였다. 당시 총섭으로 있던 승려 성능(聖能)이 총섭의 자리를 후임자에게 물려주면서 그동안의 축성 과정과 각종 시설물, 그리고 지리적 특성 등을 14개 항목으로 정리한 지리지를 편찬하였다.

여기에 담긴 자료는 1745년(영조 21년) 이전까지의 자료에 국한되어 있어 그 이후의 변화된 모습은 담겨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책은 그때까지의 북한산성의 실체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경기문화재재단, 2011, 20~21). 한편 책의 앞머리에 실린 6쪽으로 된 〈북한도(北漢圖)〉는 산성과 그 안에 들어선 주요 건물들을 조감도 형식으로 그려 놓고 있어, 이를 통해 구체적인 지명의 (상대적) 위치와 표기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북한지』에 수록된 지명들의 후부 지명소를 중심으로 앞서 제시한 지명 유형에 따라 자연 지명과 인문 지명, 그리고 지형 지명과 행정 및 인공 지명 등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표 2〉 북한산성 소재 지명의 분포

지명 유형			지명			비고
			이전 지명	『북한지』(1745) (총 165개)	이후 지명	
자연 지명 (104)	지형 지명 (104)	산(山)	한산, 북한산, 삼각산(화산) / 북한산군, 북한산주, 남평양	한산, 북한산, 삼각산(화산, 화악, 부아악) (4개)	/ 북한리, 북한동, 북한산로, 북한천, 북한산초등학교,	북한산= 삼각산
		악(嶽)	부아악	화악, 부아악 (2)		
		봉(峯)	백운대, 노적봉 / 노적산	원효봉(원효대), 영취봉(염초봉), 시자봉, 기린봉, 장군봉, 등편봉(등안봉), 구암봉, 상원봉, 휴암봉, 인수봉, 백운봉(백운대), 만경봉(만경대), 노적봉, 용암봉, 일출봉, 월출봉, 기룡봉, 반룡봉, 시단봉, 덕장봉, 복덕봉, 석가봉, 성덕봉, 화룡봉, 잠룡봉, 보현봉, 문수봉, 나한봉, 나월봉, 증취봉(증봉?), 용혈봉(혈망봉?), 용출봉, 의상봉(의상대, 미륵봉?), 승가봉 (38)	국망봉(만경봉), 향림봉	
		현(峴)		석가현 (1)	하루재	
		대(臺)		의상대, 원효대, 태고대, 소요대, 법왕대, 유선대, 곡룡대, 요초대 (8)		
		강(岡)		천룡강, 와룡강, 주마강 (3)		

지명 유형			지명			비고
			이전 지명	『북한지』(1745) (총 165개)	이후 지명	
		암(巖)	민지암	민지암 / 영천굴, 문수굴 (1)	잠수함바위, 곰바위, 족두리바위, 치마바위 / 여우굴, 숨은벽,	
		동(洞)		장춘동, 옥류동, 청계동, 노적동, 영천동, 은선동, 용계동, 규룡동, 잠룡동, 용류동, 백운동, 자하동, 중흥동, 청수동 (14)	큰골	
		담(潭)	/ 향옥탄	여기담, 반룡담, 월인담 (3)		
		폭(瀑)		국녕폭, 상운폭 (2)	개연폭포	
		川(천)		/ 수구문 (0)	중흥천, 중흥수구, 북한천	중흥천> 북한천
인문 지명 (61)	행정 지명 (0)	주·군·면 (州郡面)	북한산군, 북한산주	(0)	신혈면	
		리·동 (里洞)		(0)	북한리, 북한동, 진관동, 평창리, 평창동	
		마을 (村)		(0)	서문안(하골), 양짓말, 음짓말, 상골, 중골, 강남모탱이, 한리, 보국골	2010~2011년에 걸쳐 산성 내 주민들을 성 밖으로 이주시킴

지명 유형			지명			비고
			이전 지명	『북한지』(1745) (총 165개)	이후 지명	
	인공 지명 (61)	성(城)	장한성, 남평양성, 북한산성, 중흥성, 중흥동석성	중흥동고석성 (0)	중흥동중성	
		문(門)		북문, (대)동문(소동문), (대)서문, 대성문, 중성문, 소남문, 수구문 (8)	대남문(소남문), 문수문(대남문), 원각문 / 대서문길	소동문: 대동문과 동일한 문
		암문 (暗門)		서암문, 백운봉암문, 용암봉암문, 동암문, 청수동암문, 부왕동암문, 가사당암문 / 백운동문 (8)	시구문(서암문), 위문(백운봉암문), 용암문(용암봉암문), 보국문(동암문), 국녕문(가사당암문)	
		장대 (將臺)		동장대, 남장대, (북)장대 (3)	남장대지	
		유영 (留營)		훈련도감유영(훈국), 금위영유영(금영), 어영청유영(어영) (3)	/ 훈창, 금창, 어창	
		창(倉)		(경리청)상창, 중창, 하창, 호조창, 평창 (4)	상창마을(상골), 중창마을(중골), 하창마을(하골), 훈창, 금창, 어창 / 평창리, 평창동	

지명 유형			지명			비고
			이전 지명	『북한지』(1745) (총 165개)	이후 지명	
		행궁(行宮)		행궁 (1)	행궁터,	
		사(寺)	민지사, 중흥사, 문수사, 향림사, 석적사, 청량사, 승가사, 삼천사, 진관사(신혈사)	서암사(민지사), 상운사, 용암사, 진국사, 중흥사, 태고사, 보국사, 보광사, 문수사, 부왕사, 원각사, 국녕사, 향림사, 적석사(훈련도감 창고), 청량사, 승가사, 삼천사, 진관사, 신혈사 (20)	노적사(진국사), 부황사(부왕사), 원각사터, 승가사, 삼천사, 진관사(신혈사) / 보리사, 대동사, 무량사, 덕암사, 용학사, 광명사 / 향림봉, 진관동, 보국골	
		암(菴)	도성암	원효암, 봉성암, 도성암 (3)	백운암	
		루(樓)		항해루, 산영루, 세심루 (3)	등운각	
		정(亭)		사정 / 무학당 (1)	/ 활터고개	
		교(橋)		환선교, 언룡교, 강선교, 환선교, 봉황교, 청운교, 백운교 (7)		

주1: '『북한지』' 항목의 밑줄(__) 친 지명은 당시 사라졌거나 고적조에 실린 지명을 가리킴.
주2: '『북한지』' 항목의 음영 처리된 지명은 현재 지명이 사라진 경우이며, 음영과 함께 테두리가 그려진 지명은 현재 전부 지명소가 다른 종류의 지명으로 활용되어 존속되고 있는 경우임.
주3: "이전 지명"과 "이후 지명" 항목에 있는 (/) 다음에 기록된 지명들은 후부 지명소와는 별개로 『북한지』 수록 지명으로부터 전부 지명소가 파생되어 생성된 지명들임.
주4: '비고'란의 'a > b'는 시간의 변화와 함께 지명 표기자가 a에서 b로 바뀌었음을 의미함.
주5: '지명유형' 항목에 있는 괄호 안의 숫자는 『북한지』에 수록된 지명들의 유형별 수량을 나타냄. 항목 내에 있는 물음표(?)는 추정 자료임.

지명은 크게 두 가지의 주된 기능, 즉 지시적 기능과 함축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명명된다. 지시적 기능은 명명자가 특정 공간의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희망할 경우 구체적인 음성 또는 문자 형태의 언어로서 이름을 부여하여 다른 곳과 구별하거나 차별하려는 명명 행위를 통해 실현된다. 나아가 지명의 명명에는 특정한 지명에 명명 주체나 집단의 정체성과 이데올로기를 함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담아 타자에게 전달하려는 함축적 기능을 지니기도 한다.

이에 맞춰 1711년 북한산성을 새롭게 축조한 후 산성 공간 곳곳에 지시적이고 함축적인 기능을 담은, 즉 명명자의 의도와 의지를 담은 차별적이고 함축적인 지명을 명명하려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체로 『북한지』에 수록된 지명들은 자연 지명 중 산지와 하천 지형을 가리키는 지명들과 이와 같은 지리적 환경에 자리 잡고 있는 산성 관련 각종 인공 시설물들, 특히 이 책을 편찬한 승려 성능을 통해 매개된 불교 이데올로기를 담은 많은 불교 관련 지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산성에 분포하는 지명들을 자연 지명과 인문 지명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연 지명

『북한지』에는 약 165개의 지명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중 자연 지명의 지형 지명이 약 104개, 인문 지명의 행정 지명이 0개, 인공 지명이 약 61개를 차지한다. 지형 지명에는 산지 지형들 중 산봉우리를 뜻하는 봉(峯) 지명이 약 38개, 산 정상이나 높은 곳에 위치한 바위를 가리키는 대(臺) 지명이 약 8개, 그리고 하천 지형의 골짜기나 계곡을 뜻하는 동(洞) 지명이 약 14개가 분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지』라는 지리지 편찬의 공간적 대상이 산지 지형에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북한산성의 입지가 계곡을 둘러싼 산봉우리를 따라 축조된 포곡식 산

성임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골짜기를 의미하는 동(洞) 지명으로 장춘동, 옥류동, 청계동 등 14개의 지명을 제시하고 있어 북한천 유역의 산간 곡지에 분포하는 식수원 및 이동 통로, 명승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구체적인 지명으로 적극적으로 명명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골짜기를 따라 상류로 올라갈 경우 대체로 산성 밖의 지역으로 연결되는 고개가 분포하며 이런 지점들을 따라 주요 성문과 암문 등이 설치된 점을 상기한다면 구체적인 골짜기 지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계곡에 고인 연못을 가리키는 3곳의 담(潭) 지명들과 함께, 노적동, 백운동, 중흥동, 청수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골짜기 지명은 현재 상실된 북한산성의 군사적 기능의 운명과 함께 지명이 소멸되거나 구체적인 위치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자연 지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산(山)과 악(嶽)을 포함한 봉(峯) 지명들은 약 44개가 분포하고 있다. 대체로 북한산, 삼각산 등의 산(山) 지명들은 그 지명 영역에 여러 개의 봉우리를 포함하고 있어 봉(峯) 지명보다 지명 영역의 위계가 높은 상위의 명명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봉(峯) 지명의 경우 약 38개가 명명되고 있어 인문 지명의 사찰 지명(약 20개)을 제외한 다른 지명 유형보다 월등하게 많은 수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산성의 성곽 구간이 북한산의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고, 능선 상에 분포하는 봉우리들의 구체적인 명명이 북한산성의 축조 및 관리 과정에서 매우 빈번하고 중요하게 활용되었음을 반증해 준다 하겠다. 그러나 현재 구암봉, 휴암봉, 기룡봉, 반룡봉, 덕장봉, 복덕봉, 석가봉, 성덕봉, 화룡봉, 잠룡봉, 미륵봉 등의 많은 지명들이 소멸된 것으로 보이고 있어, 앞서 제시한 골짜기 지명의 소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성 기능의 쇠퇴 이후 성곽이 경유하는 봉우리들의 지명 또한 자연스럽게 지명 언중들의 일상적인 기억과 사용에서 점차 사라져 갔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산줄기를 가리키는 천룡강, 와룡강, 주마강과 흙이나 돌 따위로 높이 쌓아 올려 사방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곳을 의미하는 대(臺) 지명들 또한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산줄기나 산등성이를 구체적으로 명명한 3개의 강(岡) 지명들에 대해서는 산줄기의 자세한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여기에는 산성 축성과 관리 과정에서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산등성이에 이름을 부여했을 가능성과 함께 지명 표기에서 볼 수 있듯이 산줄기를 역동적인 용과 말로 표현하여 풍수지리적인 의미(간룡법, 형국론)를 부여하려는 명명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지명들 또한 원효대 등을 제외한 모든 지명들이 현재 소멸된 것으로 파악된다. 〈표 3〉은 『북한지』를 중심으로 주요 (고)문헌 및 (고)지도 등에 나타나는 자연 지명들의 시대별 변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4]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명의 의미와 변천에 대한 분석은 다음 장에 제시되었다.

4) 본 글에서 인용하거나 참고한 (고)문헌과 (고)지도 등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三國史記(地理志)』(1145)=『三國』, 『高麗史(地理志)』(1451~54)=『高麗』, 『世宗實錄(地理志)』(1454)=『世宗』, 『新增東國輿地勝覽』(1530)=『新增』, 『東國輿地志』(1656~73)=『東國』, 『北漢誌』(1745)=『北漢』, 《海東地圖》(1750~51)=《海東》, 『輿地圖書』(1757~65)=『輿地』, 《地乘》(1776~86)=《地乘》, 『戶口總數』(1789)=『戶口』, 《靑邱圖》(1834)=《靑丘》, 《東輿圖》(1850~63)=《東輿》, 《大東輿地圖》(1861)=《大圖》, 『大東地志』(1861~66)=『大志』, 《1872년지방지도》=《1872》, 『東國輿地備攷』(19세기)=『東攷』, 《舊韓末 韓半島 地形圖》(1894~1906)=《舊圖》,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2)=『舊韓』,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1917)=『新舊』,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1:50,000)》(1919)=《近圖》, 「京畿道高陽郡郡勢一班」(1930)=「郡勢」, 『韓國地名總覽17(京畿篇)』(1985)=『韓國』, 『高陽市史』(2005)=『高陽』, 《다음 지도》(2016)=《Daum》, 《국토지리정보원 지도검색서비스》(2016)=《국토》.

〈표 3〉 자연 지명의 변천

지명	新增 (1530)	北漢 (1745)	輿地 (1757~1765)	東輿/大圖/大志 (1800년대 중엽)	舊韓/新舊 (1912/1917)	韓國 (1985)	高陽/Daum (2005/2016)	비고
북한산	北漢山, 北漢山郡, 北漢山州(漢城府 建置沿革條) 北漢山, 漢陽, 南平壤, 楊州(한성부 郡名條) *長漢城(한성부 古跡條) 北漢山郡, 南平壤城[『世宗』(京都 漢城府)] 南平壤城, 北漢山城, 北漢山州[『世宗』(楊州都護府)]	**北漢, 北漢山城, 北漢山郡, 南平壤, 南平壤城, 漢山 ***古石城(古蹟條) 北漢山, 南平壤[『東國』(漢城府 郡名條)]	北漢, 北漢山城(楊州牧) 北漢[《海東》(楊州牧)] 北漢[《地乘》(京城)]	北漢(『東輿』) 長漢城[『大志』(楊州牧 城池條) ****北漢山城[『東攷』(한성부 關防條)] 北山[『東攷』(한성부 山川條)] 北漢[《1872》(楊州地圖)]	北漢里[『新舊』(高陽郡 神道面)] 北漢里[「郡勢」(高陽郡 神道面)] 北漢山城[《舊圖》(漢城府 恩平面)] 北漢山, 北漢里[《近圖》(고양군 신도면)]	北漢山(=삼각산)(경기도 산천) 北漢里, 北漢, 北漢山城, 성안(고양군 신도읍)	北漢山, 北漢山城, 북한산로, 북한산초등학교, 北漢洞(고양시 덕양구 법정동명), 北漢川	*漢江 위에 있는데 신라 때 重鎭을 설치함 **山谿條 侍者峯 항목, 事實條 肅廟甲申(1704) ***중흥사 북쪽에 있음 ****경성 북쪽 30리 삼각산의 온조왕 옛터에 쌓음 양주군 신혈면의 고양군 편입(1906)>고양군 神穴面+下道面+경성부 은평면 일부(상곡, 중곡)=고양군 신도면 및 북한리 신설(1914)>신도읍 승격(1973)>고양시 북한동(1992)>고양시 덕양구 북한동(1996)
삼각산	華山(鎭山), 三角山(中嶽), 負兒岳, 漢山(京都 上壇廟條; 한성부 形勝條, 山川條) 三角山(京畿	**三角山, 華山, 華嶽 三角山, 華山[『東國』(漢城府 山川條)(楊州牧 山川條]	***三角山(양주목 山川條) 三角山[《海東》(楊州牧)] 三角山, 負兒岳[《地乘》(京城)]	三角山(《大圖》) 三角山[『東攷』(한성부 關防條)] 三角山[《1872》(楊州地圖)]	三角山[《舊圖》(한성부 은평면)]	三角山(경기도 및 서울시 산천)	三角山, 삼각산로	*정상에 祠宇가 있어서 中祀로 제사 지냄 **산에 인수, 백운, 만경 세 봉우리가 있음 ***삼각산은 지금의 북한산성임(三角山自道峯山來今北漢山城)

지명	新增 (1530)	北漢 (1745)	輿地 (1757~1765)	東輿/大圖/大志 (1800년대 중엽)	舊韓/新舊 (1912/1917)	韓國 (1985)	高陽/Daum (2005/2016)	비고
	楊州牧 山川條) *三角山, 華山, 負兒岳[『世宗』(경도 한성부)] 三角山[『高麗』(世家 권4)]							인수·백운·만경 세 주봉이 삼각형을 이룸; 백운봉 생김새가 삼각형 모양
원효봉 (원효대)		*元曉峯, 元曉庵		元曉峯[『東攷』(한성부 山川條)]	元曉峰[「郡勢」(高陽郡 神道面)] 元曉峰, 元曉庵[《近圖》(고양군 신도면)]		원효봉, 원효암	*水口 위에 있음 수구: 현 북한천의 서암사 부근
염초봉 (영취봉)		*靈鷲峯 **廉峭峯		靈鷲峯[『東攷』(한성부 山川條)]			영취봉, 염초봉	*원효봉 위에 있음 **염초봉: 〈北漢圖3~1〉 北漢山 靈鷲峯 大東寺
시자봉		*侍者峯					시자봉(Daum)	*백운대 아래에 있으며 북한산성의 형세를 모두 살필 수 있음 백운대 북서쪽 86m
기린봉		*麒麟峯					기린봉(Daum)	*노적봉 아래에 있음 노적사 북서쪽 452m
장군봉		*將軍峯 **崔公戰地(古蹟條)					장군봉(Daum)	*중흥사 서쪽에 있음 **속칭 장군봉으로 고려 최영 장군이 전쟁한 곳

지명	新增 (1530)	北漢 (1745)	輿地 (1757~1765)	東輿/大圖/大志 (1800년대 중엽)	舊韓/新舊 (1912/1917)	韓國 (1985)	高陽/Daum (2005/2016)	비고
등편봉 (등안봉)		*登片峯 **登岸峯					등안봉(Daum)	片은 岸의 誤記이거나 取形字로 보임 *장군봉 위 중흥사 뒤에 있음 **등岸봉: 사찰조 중흥사 항목 등편봉 지명은 소멸됨
구암봉		*龜巖峯						*동장대 아래에 있음 지명 소멸됨
상원봉		*上元峯					상원봉	*문수봉 북쪽에 있음 행궁지 남서쪽 451m
휴암봉		*鵂巖峯						*남장대 북쪽에 있음 지명 소멸됨
인수봉		*仁壽峯 漢山(山谿條)	仁壽峯[《海東》 (京都)]	仁壽峯[『東攷』 (한성부 山川條)]	仁壽峰[「郡勢」 (高陽郡 神道面)] 仁壽峰[《近圖》 (고양군 신도면)]		인수봉, 인수동(강북구), 인수봉로	*삼각산의 제일봉임
백운봉 (백운대)	백운봉(白雲峯) [『高麗』(世家 권4)] 白雲臺[「遊三角 山記」(李廷龜, 1603)]	*白雲峯, 白雲臺	白雲峯[《海東》 (京都)]	白雲峯, 白雲臺[『東攷』 (한성부 山川條)]	白雲台[「郡勢」 (高陽郡 神道面)] 白雲臺[《近圖》 (고양군 신도면)]	白雲臺(경기도 및 서울시 산천)	백운봉암문, 白雲臺, 백운대길(강북구 우이동)	*인수봉 서쪽에 있음 *백운대: 事實條 肅廟壬辰(1712) 항목

지명	新增 (1530)	北漢 (1745)	輿地 (1757~1765)	東輿/大圖/大志 (1800년대 중엽)	舊韓/新舊 (1912/1917)	韓國 (1985)	高陽/Daum (2005/2016)	비고
만경봉 (만경대)		*萬景峯 **萬景臺	萬景峯[《海東》 (京都)]	萬景峯, 萬景臺[『東攷』 (한성부 山川條)]	萬景台[「郡勢」 (高陽郡 神道面)] 萬景臺[《近圖》 (고양군 신도면)]	萬境臺(경기도 및 서울시 산천)	만경대	*백운봉 남쪽에 있음 **만경대: 〈北漢圖2~1〉와 사실조 숙묘갑신(1704) 國望峯: 조선시대 한양 천도 시 무학대사와 관련하여 명명된 만경봉의 별칭
노적봉	露積山(한성부 *古跡條 重興洞石城) 露積峯[「遊三角 山記」(李廷龜, 1603)]	**露積峯	露積峯[《海東》 (京都)]	露積峯[『東攷』 (한성부 關防條)]	露積峰[「郡勢」 (高陽郡 神道面)] 露積峰[《近圖》 (고양군 신도면)]	露積峰(고양군 산천)	노적봉	*성안에 노적가리 같은 노적산이 있음 **만경봉 서쪽에 있음, 노적가리 형상과 비슷하며, 中興洞 古石城이 있음(山谿條) 山祭터(산고사): 陰8월 초하루 堂神木에 산제를 드렸던 곳
용암봉		*龍巖峯					용암봉	*만경봉 남쪽에 있음
일출봉		*日出峯					일출봉	*용암봉 앞에 있음
월출봉		*月出峯					월출봉(Daum)	*일출봉과 같은 산에 있음
기룡봉		*起龍峯						*월출봉 앞에 있음 지명 소멸됨

지명	新增 (1530)	北漢 (1745)	輿地 (1757~1765)	東輿/大圖/大志 (1800년대 중엽)	舊韓/新舊 (1912/1917)	韓國 (1985)	高陽/Daum (2005/2016)	비고
반룡봉		*盤龍峯						*기룡봉 옆에 있음 지명 소멸됨
시단봉		*柴丹峯					시단봉	*반룡봉 남쪽에 있음 *그 위에 東將臺가 있고, 그 아래에 御需齋가 있음 *事實條 肅廟壬辰(1712)
덕장봉		*德藏峯						*시단봉 남쪽에 있음 지명 소멸됨
복덕봉		*福德峯						*덕장봉 남쪽에 있음 지명 소멸됨
석가봉		*釋迦峯 **釋迦峴		釋迦峯[『東攷』(한성부 山川條)]				*東門 밖 靑藪洞 위에 있음 **사실조 숙묘갑신(1704) 항목 지명 소멸됨
성덕봉		*聖德峯						*석가봉 서쪽에 있음 지명 소멸됨
화룡봉		*化龍峯						*성덕봉 옆에 있음 지명 소멸됨
잠룡봉		*潛龍峯						*화룡봉 가까운 서쪽에 있음 지명 소멸됨
보현봉		*普賢峯	普賢峯(京兆府志 四山禁標)	普賢峯[『東攷』(한성부 山川條)]	普賢峰[《舊圖》(한성부 은평면)]		보현봉	*大西門 밖에 있음(현재의 대남문 남쪽이 아닌가?)

지명	新增 (1530)	北漢 (1745)	輿地 (1757~1765)	東輿/大圖/大志 (1800년대 중엽)	舊韓/新舊 (1912/1917)	韓國 (1985)	高陽/Daum (2005/2016)	비고
			普賢峯[《海東》(京都)] 普賢峰[《地乘》(京城)]					
문수봉		*文殊峯 文殊窟	文殊峯[《海東》(京都)] 文殊峰[《地乘》(京城)]	文殊峯[『東攷』(한성부 山川條)]			문수봉	*보현봉 서쪽에 있으며, 아래에 문수굴이 있음
나한봉		*羅漢峯		羅漢峯[『東攷』(한성부 山川條)]			나한봉	*나한봉: 〈北漢圖2~1〉와 城池條 남장대 항목, 事實條 肅廟甲申(1704) 항목(山谿條에는 없음)
나월봉		*蘿月峯 **羅月峯					나월봉	*歡喜峯 남쪽에 있음 **羅月峯: 〈北漢圖2~1〉
증취봉		*甑炊峯 **甑峯?		甑峯?[『東攷』(한성부 山川條)]			증취봉	*나월봉 서쪽에 있음 **山谿條 臥龍岡 항목, 사실조 숙묘갑신 (1704) 증봉>증취봉? 증봉 지명은 소멸됨
용혈봉		*龍穴峯 **穴望峯?		穴望峯?[『東攷』(한성부 山川條)]			용혈봉	*증취봉 서쪽에 있음 **사실조 숙묘갑신(1704)
용출봉		*龍出峯					용출봉	*용혈봉 서쪽에 있음

지명	新增 (1530)	北漢 (1745)	輿地 (1757~1765)	東輿/大圖/大志 (1800년대 중엽)	舊韓/新舊 (1912/1917)	韓國 (1985)	高陽/Daum (2005/2016)	비고
미륵봉 (의상봉) (의상대)		*彌勒峯 **義相峯?		義相峯?[『東攷』 (한성부 山川條)]			의상봉	*용출봉 서쪽에 있음 **의상봉: 사찰조 국녕사 항목, 사실조 숙묘갑신(1704) 山祭터(산고사): 陰10월 초하루 堂神木에 산제를 드렸던 곳
천룡강		*天龍岡						*원효봉에서 맥이 내려와 등편봉과 대치하고 있음 지명 소멸됨
와룡강		*臥龍岡, 興龍池						*맥이 증봉에서 시작하여 장군봉과 대치하고 있음 지명 소멸됨
주마강		*走馬岡						*와룡강으로부터 갈라져 노적봉으로 향함 지명 소멸됨
의상대		*義湘臺						*의상봉 아래에 있음 전부 지명소는 잔존함
원효대		*元曉臺					원효대(Daum)	*의상대 북쪽, 수구 위쪽에 있음
태고대		*太古臺						*구암봉 아래에 있음 전부 지명소는 잔존함
소요대		*逍遙臺						*동장대 옆에 있음 지명 소멸됨

지명	新增 (1530)	北漢 (1745)	輿地 (1757~1765)	東輿/大圖/大志 (1800년대 중엽)	舊韓/新舊 (1912/1917)	韓國 (1985)	高陽/Daum (2005/2016)	비고
법왕대		*法王臺						*보국사 남쪽에 있음 지명 소멸됨
유선대		*遊仙臺						*부왕사 앞에 있음 지명 소멸됨
곡룡대		*曲龍臺						*보광사 왼쪽 골짜기에 있음 지명 소멸됨
요초대		*瑤草臺						*원효대 아래에 있음 지명 소멸됨
장춘동		*長春洞						*수구로부터 백운교 아래까지의 계곡 지명 소멸됨
옥류동		*玉流洞						*백운교로부터 만경봉 아래까지의 계곡 지명 소멸됨
청계동		*淸溪洞						*백운교 위로부터 청운교 아래까지의 계곡 지명 소멸됨
노적동		*露積洞					노적사	*노적봉 아래에 있는 계곡 전부 지명소는 잔존함
영천동		*靈泉洞 靈泉窟						*노적봉 아래에 있는 계곡으로, 그 위에는 영천굴이 있고, 아래에는 강선교가 있음 지명 소멸됨

지명	新增 (1530)	北漢 (1745)	輿地 (1757~1765)	東輿/大圖/大志 (1800년대 중엽)	舊韓/新舊 (1912/1917)	韓國 (1985)	高陽/Daum (2005/2016)	비고
은선동		*隱仙洞						*중흥동 위, 만경봉 아래에 있는 계곡 지명 소멸됨
용계동		*龍溪洞						*용암동 입구, 일출봉 아래에 있는 계곡 지명 소멸됨
규룡동		*叫龍洞						*중흥동 입구 위로부터 武學堂 아래까지의 계곡 지명 소멸됨
잠룡동		*潛龍洞						*상원봉 아래에 있는 계곡 지명 소멸됨
용류동		*龍流洞						*증봉 아래에 있음 지명 소멸됨
백운동		*白雲洞 白雲洞門					백운대	*장군봉 아래에 있는 계곡으로 동문에 白雲洞門이 새겨져 있음 전부 지명소는 잔존함
자하동		*紫霞洞						*선유대(유선대?) 아래에 있는 계곡 지명 소멸됨
큰골							큰골	북한산에서 가장 외진 골짜기
여기담		*女妓潭						*환선교 아래, 강선교 위에 있는 연못 지명 소멸됨

지명	新增 (1530)	北漢 (1745)	輿地 (1757~1765)	東輿/大圖/大志 (1800년대 중엽)	舊韓/新舊 (1912/1917)	韓國 (1985)	高陽/Daum (2005/2016)	비고
반룡담		*盤龍潭						*항해루 아래에 있는 연못 지명 소멸됨 響玉灘?[「遊三角山記」(李廷龜, 1603)]
월인담		*月印潭						*수구 위쪽에 있는 연못 지명 소멸됨
국녕폭		*國寧瀑						*용혈봉 골짜기 입구에 있는 폭포 지명 소멸됨
상운폭		*祥雲瀑					상운폭포	*백운봉 아래에 있는 폭포
민지암	閔漬巖[「遊三角山記」(李廷龜, 1603)]	*閔漬巖						고려시대 민지(閔漬)의 遺址가 수구문 안에 있으며, 그 바위를 민지암이라 함(古蹟條) 지명 소멸됨
문수굴		*文殊窟						*보현봉 서쪽에 있으며, 아래에 문수굴이 있음((山鷄條 文殊峯)
영천굴		*靈泉窟						*노적봉 아래에 있는 계곡으로, 그 위에는 영천굴이 있고, 아래에는 강선교가 있음 (山鷄條 靈泉洞) 지명 소멸됨
치마바위						*치마바위		*성안에 있는 바위

주1: '비고'란의 'a > b'는 시간의 변화와 함께 지명 표기자가 a에서 b로 바뀌었음을 의미함.
주2: 항목 내의 물음표(?)는 추정 자료임.

2) 인문 지명

약 165개의 지명이 수록된『북한지』에는 약 104개의 자연 지명과 함께 약 61개의 인문 지명이 분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부 지명소로서 행정구역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 행정 지명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북한지』가 편찬된 1745년경 북한산성이 지닌 특수한 군사적 기능이 행정 기능을 압도하였기 때문이다. 즉 북한산성이란 관방시설 자체가 중앙 정부의 국가적 스케일에 의해 특수한 군사적 위상과 함께 국왕의 행궁 입지를 위한 기능을 부여받았고, 축성이 이루어진 1711년을 전후하여 삼군문, 즉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이라는 지방 행정 차원과는 별개의 군사 기관들에게 축성과 그 이후의 성곽 관리 임무가 주어지면서 기존의 행정 체계와는 별도로 특수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894년 갑오개혁과 정치적 혼란, 1895년의 23부제, 1896년의 13도제 실시, 1897년의 대한제국 선포, 이어 일제의 조선 침탈 과정에서 나타났던 1905년의 을사늑약과 1910년의 일제강점, 그리고 1914년의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북한산성의 군사적 기능 상실과 관리 주체의 변화가 강제적으로 수반되었다.[5] 그 결과 삼군문과 승영 사찰 등에 의해 운영되고 관리되었던 북한산성의 영역은 위에서 제시한 정치적, 행정적 변화에 노출되면서 1906년에는 경성부 은평면에 소속된 일개 촌락 지명들, 즉 '상곡'과 '중곡'만이 공식 문서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후에는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북한리'라는 최하위의 행정지명으로 그 정치적, 군사적 위상이 전락하여 나타나게 된다.

---

5) 산성 내 행궁의 건설이 마무리되던 1712년(숙종 38) 4월 10일에 숙종이 직접 북한산성 시찰을 한 이후 관리 운영상의 부작용으로 원성의 대상이 되었고, 영조 대에 이르러서는 도성 방어 중심으로 국방 정책이 변경되면서 북한산성의 폐지 요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후 북한산성은 고종 말기까지 유지되었으나 갑오개혁 이후 관심에서 멀어져 승군 제도가 폐지되고, 의병 전쟁과 군대 해산, 일제에 의한 강제 합병 등의 변혁기를 맞아 몰락의 길을 맞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네이버지식백과, 북한산성, http://terms.naver.com).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 서울시의 급속한 시역 확장 결과 현재와 같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법정동인 '북한동' 소속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때 국가적 스케일로 중시되었고 중앙 정부에 의해서 후원되었던 중심적 공간이 국가의 폐망과 함께 역사의 격랑 속에 표류하면서 그 공간적 위상이 추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북한산성 공간의 위상 변화는 지도 위의 행정구역 경계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동의 행정구역 경계선을 지도에서 찾아보면 고양시의 중심부에서 동쪽으로 길게 양주시와 서울시 사이의 경계를 비집고 들어선 형상이다. 고대로부터 다양한 세력의 각축장이었던 북한산성 일대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지』에 수록되지 않은 행정 지명은 앞선 시대에 북한산군, 북한산주로 나타나기도 하였고, 『북한지』 이후에는 북한리(1914년), 북한동(1992년)으로 '북한(北漢)'이라는 전부 지명소를 계승하여 존속하고 있다. 또한 사찰 지명에서 유래한 신혈면(신혈사, 신혈면+하도면=신도면, 현재의 고양시 덕양구 신도동)과 진관동(진관사, 서울시 은평구), 그리고 북한산성의 창고 명칭에서 유래한 평창동(평창, 서울시 종로구) 등의 행정 지명이 명명되기도 하였다. 한편 『북한지』에는 행정 지명 중 민간인들의 거주지인 자연 촌락을 가리키는 지명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조선 정조 9년(1785년)에 옛날에 500호에 이르던 민호(民戶)가 200호로 줄어들었다는 기록을 통해(경기문화재단, 2011, 20~21), 18세기 후반까지도 산성 내에 많은 자연 촌락들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한 촌락 지명들, 예컨대 서문안(하곡, 하골, 하창), 양짓말, 음짓말, 상곡(상골), 중곡(중골), 강남모탱이, 한리, 보국골 등을 『북한지』(1745년) 편찬 이후 현재 전하는 문헌 및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6]

---

6) 산성 내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다양한 촌락 지명을 명명하였고 동시에 전래의 고유한 민속 신앙,

그러나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1년 1월 사이에 산성 안에 있던 모든 민가와 상가들이 성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다(연합뉴스, 2010. 6. 24; 고양신문, 2011. 1. 20.). 이로써 북한산성 축성 이후 300여 년간 산성 내의 지명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던 기초적인 명명 주체가 사라지면서 관련 지명들 또한 빠르게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절 북한산성 내의 지명을 명명하고 사용해 오던 두 지명 언중들, 즉 관리자 및 지배자로서의 군인들과 일상생활에서 지명을 기억하고 사용해 오던 주민들이 각각 19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사라지면서, 이제 남은 지명 명명 및 관리 주체는 산성 내 사찰의 승려들만이 있고, 산성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으로서의 관공서 공무원들이 새롭게 추가된 상황이다.

인공 지명의 경우, 인공 시설물인 산성과 관련하여 약 61개의 다양한 지명들이 분포하고 있었다. 이는 『북한지』라는 지리지의 탄생과 편찬자인 승려 성능의 명예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결국 1711년의 북한산성 축조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즉 성곽 축조와 관리 시, 국가에 의한 공식적인 지명 명명 행위가 새롭게 건설된 행궁, 성문, 장대, 유영, 창고, 다리, 누각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여기에 축성 및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승려들, 즉 당시 13개 승영(僧營) 사찰에 소속된 승군들에 의한 불교 지명의 수용과 명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특히 산신 신앙을 전승하면서 일부 민속 지명들을 명명하여 통용해 왔다. 현재 북한동에 남아 있는 민속 지명으로는 북한동 178번지에 있는 부황사 터에 산신각과 함께 '도당(都堂)굿터'가 남아 있다. 또한 음력 8월 초하루(의상봉)와 10월 초하루(노적봉), 1년에 두 번 산제(산고사)를 지내왔으며, 별도의 당신목(堂神木) 또는 당집은 없다. 노적봉에서 지내는 것은 원래 행궁터에서 '텃고사'를 지내던 것을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북한군과 중공군이 이곳에서 죽어 부정을 탔다고 하여 이후 노적봉으로 옮겨 온 것이라 한다. 그 후 1998년부터는 거리가 멀다 하여 중성문 문루에서 노적봉을 바라보며 지낸다고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북한동 산제터, http://terms.naver.com). 이와 관련하여 전국의 마을굿을 조사하여 지도화한 자료에는 현재의 북한동에 '산신당' 1곳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조선시대전자문화지도시스템, http://www.atlaskorea.org). 그러나 지난 2010년 북한동에 거주하던 모든 주민들이 성 밖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현재 도당굿 및 산제, 그리고 관련된 민속 지명이 존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현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인공 지명 중 후부 지명소로서 사(寺)와 암(菴)을 가진 사찰 지명이 여러 유형들 중 가장 많은 약 23개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 보광사, 원각사 등은 사라지고 진국사와 보국사, 부왕사는 각각 노적사, 보국문, 부황사로 이름이 바뀌거나 전부 지명소가 다른 유형의 지명으로 사용되면서 존속하고 있다. 특히 승려에 의해 편찬된 문헌임을 반영하듯 당시 사라진 사찰 지명들, 즉 향림사, 적석사, 청량사, 승가사, 삼천사, 진관사, 신혈사, 도성암까지 자세히 수록하였다. 그중 승가사, 삼천사, 진관사는 후대에 다시 재건되어 현재 남아 있다. 이들 사찰 지명들 이외에도 현재 북한산성 내에는 보리사, 대동사, 무량사, 덕암사, 용학사, 광명사 등의 사찰들이 후대에 새롭게 창건되어 남아 있다.

산성 시설 관련 인공 지명들로는 예전에 있었던 성(城) 이름이 1곳, 암문을 포함한 성문 시설 명칭이 약 16개가 나타나며, 장대(將臺) 3곳, 유영(留營) 3곳, 창고 5곳, 정자 1곳 등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중 '중흥동고석성'이란 고지명은 북한산성의 축성 역사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로까지 소급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북한지』이전의 문헌들에도 현재의 북한산성과 그 위치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삼국시대의 북한산성, 장한성, 남평양성 등의 지명들도 확인할 수 있다. 성문들의 명칭의 경우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대체로 존속하고 있으며, 대성문(成, 城), 소동문(>대동문), 소남문(>대남문), 용암봉암문(>용암문) 등과 같이 일부 한자 표기가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동암문은 후대에 인근에 있던 사찰 보국사의 전부 지명소를 인용하여 현재는 보국문으로 통칭하고 있다. 3곳의 장대 이름은 동장대가 지난 1996년 시단봉 위에 복원되면서 지명이 존속되고 있으며, (북)장대는 지명이 소멸되었고 남장대는 '남장대지'(남장대터)라는 그 유지(遺址)를 가리키는 지명이 남아 있다.

축성을 분담하고 축성 후 관리를 담당했던 삼군문, 즉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의 유영 이름은 〈북한도〉에 각각 훈국, 금영, 어영으로

당시 편하게 사용하던 축약된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후대 기록에는 딸린 창고 명칭을 가리키면서 훈창, 금창, 어창이란 지명들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는 산성의 기능이 소멸되면서 세 곳 모두 지명이 소멸되었으며 다만 「금위영이건기비」가 이전한 곳의 터에 남아 있다. 창고의 경우 호조창이란 명칭은 시설의 파괴와 함께 터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지명은 사라졌으며, 평창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으로, 상창, 중창, 하창은 각각 창고가 위치한 곳에 마을이 들어서면서 촌락 지명으로서의 상창마을(상곡), 중창마을(중곡), 하창마을(하곡)로 남아 최근의 기록에 남아 있다.

이 밖에 누각 명칭인 항해루, 산영루, 세심루 중 지난 2014년에 복원된 산영루를 제외하고 나머지 2개의 이름은 지명 언중의 사용에서 사라졌다. 교량 명칭의 경우 다소 많은 7곳이 기록되었으며 이를 통해 산간 곡지 내에 북한천의 본류와 지류에 설치했던 다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모든 다리 이름이 사라진 상황이다. 또한 산성의 군사적 기능에 걸 맞는 활쏘기 연습 장소가 사정(射亭)이란 지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는 활터고개라는 지명으로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산성의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자 북한산성의 위상을 높여주는 인공 시설로서 행궁이 1곳 있었다. 『북한지』에는 행궁과 함께 내전, 외전 등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 행궁은 터만이 남아 복원을 위한 연구 및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이며, 행궁지 또는 행궁터라는 지명으로 남아 있다(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행궁 또한 조선이란 국가의 폐망과 함께 그 질곡 진 운명을 함께했다. 행궁은 조선의 멸망과 함께 1912년 영국 성공회에 10년간 건물이 대여되기도 하였으며, 결국 1915년의 큰 홍수로 심각한 손상을 입으면서 방치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표 4〉는 『북한지』를 중심으로 인문 지명들의 시대별 변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주요 (고)문헌 및 (고)지도에 수록된 관련 지명들을 찾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명의 의미와 변천에 대한 분석은 다음 장에 제시되었다.

〈표 4〉 인문 지명의 변천

지명	新增 (1530)	北漢 (1745)	舊韓/新舊 (1912/1917)	韓國 (1985)	高陽 (2005)	비고
서문안				*서문안, 하골, 下谷	서문안	*대서문 안쪽에 있는 마을로 북한리에서 맨 아래쪽에 있음 2010~2011년에 걸쳐 산성 내 주민들을 성 밖으로 이주시켜 촌락지명이 현재 모두 소멸된 상황임
활터고개		*射亭			활터고개	*사정: 〈北漢圖1-1〉
양짓말					양짓말	[강남모탱이: 현 법용사 입구 부근(《국토》)]
음짓말					음짓말	
상창		*經理廳上倉 **上倉	上谷[『舊韓』(京城府 恩平面)]	웃골, 상골, 上谷 (신도읍 북한리)	상창마을	*행궁 오른쪽에 있음 **상창: 〈北漢圖1-2〉
중창		*中倉	中谷[『舊韓』(경성부 은평면)] 中谷(チュンコル, 중골)[《近圖》(고양군 신도면)]	**중골, 중곡	중창마을	*중흥사 앞에 있음 **북한리 중앙에 있는 마을, 전에는 큰 마을이었으나 큰 홍수로 떠내려갔음 [한리: 중흥사 부근(《국토》)]
하창		*下倉	下谷(ハコル, 하골)[《近圖》(고양군 신도면)]	하골, 下谷, 서문안	하창마을	*서문 안에 있음 *하창: 〈北漢圖3-1〉

지명	新增 (1530)	北漢 (1745)	舊韓/新舊 (1912/1917)	韓國 (1985)	高陽 (2005)	비고
북문		北門 北門[《海東》(京都)]	北門[《近圖》(고양군 신도면)]	北門	북문	
대동문		大東門 *東門 東門[《海東》(京都)]	大東門[《近圖》(고양군 신도면)]	大東門(신도읍 북한리)	大東門	*동문: 〈北漢圖1-1〉 소동문과 동일한 문으로 현재의 대동문(김성태, p.6) 1993년 문루 복원
대서문		大西門 *西門 西門[《海東》(京都)]	大西門[《近圖》(고양군 신도면)]	大西門(신도읍 북한리)	大西門, 대서문길	*서문: 〈北漢圖3-1〉
대성문		大成門, *大城門 大成門[《海東》(京都)] **大城門[『東攷』(한성부 關防條)]	大成門[《近圖》(고양군 신도면)]	***大成門(신도읍 북한리) ****대성문골	大城門	*대城문: 〈北漢圖1-1〉 **영종 경진년에 大城門 길이 도성 主脈에 방해된다고 하여 폐쇄하고, 大南門으로 출입하게 함 ***1968년 경기도 고적보존위원회에서 복원함 成>城 ****대성문안에 있는 마을
중성문		*中城門 重興洞中城[『東攷』(한성부 關防條)]	中成門[《近圖》(고양군 신도면)]	**中成門	中城門	*원효봉과 의상봉 사이에 있음 **중성문에 있는 마을 山祭(산고사): 1998년 이후 중성문 문루에서 산제를 드려옴
(소동문)		小東門			대동문	대동문과 동일한 문

지명	新增 (1530)	北漢 (1745)	舊韓/新舊 (1912/1917)	韓國 (1985)	高陽 (2005)	비고
(소남문)		小南門 大南門[『東攷』(한성부 關防條)]			대남문	현재의 대남문과 동일한 문으로, 조선후기부터 文殊門으로 별칭됨(김성태, pp.6-7)
서암문		西暗門			서암문, 시구문통제소 (Daum)	조선후기부터 屍軀門으로 별칭됨(김성태, pp.6-7)
백운봉 암문		白雲峯暗門			백운봉암문, 白雲庵	일제강점기부터 '衛門'으로 별칭됨(김성태, p.5)
용암봉 암문		龍巖峯暗門	龍岩門[《近圖》(고양군 신도면)]	龍岩門	龍岩門(Daum)	
동암문		東暗門	輔國門[《近圖》(고양군 신도면)]		보국문	옛 보국사 부근에 있음 조선후기부터 輔國門으로 별칭됨(김성태, p.5)
청수동 암문		靑水洞暗門			청수동암문	
부왕동 암문		扶旺洞暗門			부왕동암문	
가사당 암문		袈裟堂暗門			가사당암문	조선후기부터 國寧門으로 별칭됨(김성태, p.5) 지명 소멸됨
동장대		*東將臺	東將臺[《近圖》(고양군 신도면)]	東將臺(경기도 산천 및 장대 명칭)	東將臺	*봉성암 뒤 봉우리에 있음 시단봉 위에 1996년 복원함

지명	新增 (1530)	北漢 (1745)	舊韓/新舊 (1912/1917)	韓國 (1985)	高陽 (2005)	비고
남장대		*南將臺	南將臺[《近圖》(고양군 신도면)]		남장대터, 남장대지(Daum)	*나한봉 동북쪽에 있음 나한봉 북동쪽 310m
북장대		*北將臺 **將臺				*중성문 서북쪽에 있음 **장대: 〈北漢圖2-2〉 지명 소멸됨
행궁		*行宮, 內殿, 外殿 行宮[《海東》(京都)]	行宮[《舊圖》(한성부 은평면)] 舊行宮[《近圖》(고양군 신도면)]		행궁지, 행궁터	*상원봉 아래에 있으며, 남서서 방향(申)을 등짐(坐), 행궁: 事實條 肅廟壬辰(1712) 항목 북한동 주민들이 행궁터에 텃고사를 지내옴
훈련도감 留營		*訓鍊都監留營 **訓局 訓倉[《海東》(京都)]				*노적봉 아래에 있음 **훈국: 〈北漢圖1-2〉 지명 소멸됨(훈련도감 유영터)
금위영 유영		*禁衛營留營 **禁營 禁倉[《海東》(京都)]		***北漢山禁衛營 移建碑		*보광사 아래에 있음 **금영: 〈北漢圖1-1〉 ***북한리 132번지(대동문 안에 있던 금위영을 지세가 높아 이곳으로 1715년에 옮김, 지방문화재 87호) 지명 소멸됨(금위영이건기비)
어영청 유영		*御營廳留營 **御營 御倉[《海東》(京都)]				*대성문 안에 있음 **어영: 〈北漢圖1-1〉 지명 소멸됨(어영청 유영터)

지명	新增 (1530)	北漢 (1745)	舊韓/新舊 (1912/1917)	韓國 (1985)	高陽 (2005)	비고
經理廳 상창		*經理廳上倉 **上倉 上倉[《海東》(京都)]			상창	*행궁 오른쪽에 청사가 있음 **상창: 〈北漢圖1-2〉 [管城所터]
중창		*中倉			중창	*중흥사 앞에 있음
하창		*下倉 下倉[《海東》(京都)]			하창	*서문 안에 있음 *하창: 〈北漢圖3-1〉
평창		*平倉	平倉里[「郡勢」(高陽郡 恩平面)]		평창동(서울시 종로구)	*탕춘대에 있음
호조창		*戶曹倉 戶倉[《海東》(京都)]			상창?	*행궁 앞에 있음 지명 소멸됨
서암사		*西巖寺 **閔公遺棲, 閔漬巖, 閔漬寺(古蹟條) 重興水口[『東攷』(한성부 山川條)]			서암사	*水口門 안에 있음 **고려시대 민지(閔漬)의 遺址로 지금은 민지사를 서암사라 부름 민지사>서암사 [月臺:「遊三角山記」(李廷龜, 1603)]
상운사		*祥雲寺	祥雲寺[《近圖》(고양군 신도면)]	祥雲寺	상운사	*영취봉 아래에 있음
용암사		*龍巖寺 龍巖寺[『東攷』(한성부 關防條)]			용암사(은평구 진관동)	*일출봉 아래에 있음 지명 소멸됨

지명	新增 (1530)	北漢 (1745)	舊韓/新舊 (1912/1917)	韓國 (1985)	高陽 (2005)	비고
진국사 (노적사)		*鎭國寺			노적사	*노적봉 아래, 중성문 안에 있음 진국사>노적사 진국사 지명은 소멸됨
중흥사	*重興寺(한성부 佛宇條) **重興洞石城(한성부 古跡條) 重興寺[『世宗』(楊州都護府)]	***重興寺 ****中興洞 重興川[《海東》(楊州牧)] 重興寺, 重興洞中城[『東攷』(한성부 關防條)] 重興水口[『東攷』(한성부 山川條)]	重興寺[《舊圖》(한성부 은평면)]	*****重興寺	중흥사	*삼각산에 있음 **중흥사 북쪽에 있음 ***등안봉 아래에 있음 ****中興洞 古石城이 있음(山谿條 露積峯) *****북한산성 도총섭이 이곳에서 축성을 총지휘함, 1915년에 없어짐
태고사		*太古寺		**太古寺터	태고사	*태고대 아래, 중흥사 왼쪽 봉우리에 있음 **고려 공민왕 때 태고국사 보우가 세운 절, 1950년 6.25사변 때 소실됨
보국사		*輔國寺	輔國門[《近圖》(고양군 신도면)]	보국문 **보국골	보국문, 보국사(성북구 정릉동)	*금위영 아래에 있음 **보국문 아래에 있는 마을 지명 소멸됨
보광사		*普光寺			보광사(강북구 우이동)	*대성문 아래에 있음 지명 소멸됨
문수사	*文殊寺(한성부 佛宇條)	**文殊寺	文殊庵[《近圖》(고양군 신도면)]		문수사	*삼각산에 있음 **문수봉 아래에 있음

지명	新增 (1530)	北漢 (1745)	舊韓/新舊 (1912/1917)	韓國 (1985)	高陽 (2005)	비고
부왕사		*扶旺寺	扶皇寺[《近圖》(고양군 신도면)]	**부황사	부황사(북한동 178)	*휴암봉 아래에 있음 **북한산성안에 있는 절터 王>皇 都堂굿터: 부황사 오른쪽에 山神閣이 있음
원각사		*元覺寺 **圓覺寺	圓覺門[《近圖》(고양군 신도면)]	圓覺寺터	원각사(성북구 평창동)	*증봉에서 가까운 동쪽에 있음 *圓각사: 〈北漢圖2-2〉 지명 소멸됨
국녕사		*國寧寺			국녕사	*의상봉 아래에 있음
원효암		*元曉菴	元曉庵[《近圖》(고양군 신도면)]	元曉庵	원효암	*원효봉 아래에 있음
봉성암		*奉聖菴			봉성암	*구암봉 아래에 있음
향림사	*香林寺(한성부 佛宇條)	**香林寺 香林峯[《海東》(京都)]				*삼각산에 있음 **비봉 남쪽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짐, 事實條 肅廟甲申(1704) 지명 소멸됨
적석사	*石積寺(한성부 佛宇條)	**積石寺				*삼각산에 있음 **지금은 훈련도감의 창고가 됨 지명 소멸됨
청량사	*淸涼寺(한성부 佛宇條)	**淸凉寺				*삼각산에 있음 **지금은 없어지고, 遺址도 모름 지명 소멸됨

지명	新增 (1530)	北漢 (1745)	舊韓/新舊 (1912/1917)	韓國 (1985)	高陽 (2005)	비고
승가사	*僧伽寺(한성부 佛宇條) **僧伽寺[『世宗』(楊州都護府)]	***僧伽寺 ****僧迦峯 僧伽寺[『東攷』(한성부 山川條)] 僧伽峯[《海東》(京都)]	僧伽寺[《近圖》(고양군 신도면)]		승가사(종로구 구기동), 승가봉	*삼각산에 있음 **삼각산 남쪽에 있음 ***碑峯 동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짐 ****事實條 肅廟甲申(1704)
삼천사	*三川寺(한성부 佛宇條)	**三千寺			삼천사(은평구 진관동)	*삼각산에 있음 **小南門 밖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짐
진관사	*津寬寺(한성부 佛宇條) **眞觀寺[『世宗』(楊州都護府)]	***津寬寺			진관사(은평구 진관동)	*삼각산 서남쪽에 있음 **삼각산에 있음 ***三千洞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짐 신혈사의 후신으로 津寬大師의 법명을 취함(1011)
도성암	*道成菴(한성부 佛宇條)	**道成菴			도성암(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삼각산 동쪽에 있음 **동문 밖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짐 지명 소멸됨
신혈사	*神穴寺(한성부 古跡條) 神穴寺[『高麗』(世家 권4)]				진관사, 신혈면	*삼각산에 있음 **고려 顯宗(992-1031)이 寓居한 곳 신혈사>진관사(고려 현종 2년, 1011년) 지명 소멸됨
환선교		*喚仙橋				*반룡담 아래 부왕동 입구에 있음 지명 소멸됨
언룡교		*偃龍橋				*항해루 아래에 있음 지명 소멸됨

지명	新增 (1530)	北漢 (1745)	舊韓/新舊 (1912/1917)	韓國 (1985)	高陽 (2005)	비고
강선교		*降仙橋				*中城 폭포 위에 있음 지명 소멸됨
환선교		*喚仙橋				*鶴峴 아래 자하동 입구에 있음 지명 소멸됨
봉황교		*鳳凰橋				*여기담 아래에 있음 지명 소멸됨
청운교		*靑雲橋				*중성문 밖 장춘동에 있음 지명 소멸됨
백운교		*白雲橋				*상운 폭포 아래에 있음
향해루		*沆瀣樓				*중흥사 동구의 언룡교 위에 있는 2층 누각 지명 소멸됨
산영루	山映樓舊址[「遊三角山記」(李廷龜, 1603)]	*山暎樓			산영루	*중흥사 앞 다리 위에 있는 누각 2014년 10월 복원됨(경기도기념물 223호)
세심루		*洗心樓				*서암사 앞 시냇물 위에 있음 지명 소멸됨
등운각				*登雲閣(신도읍 북한리)		*1957년 경기도지사 최헌길이 지은 정자 지명 소멸됨

주1: '비고'란의 'a > b'는 시간의 변화와 함께 지명 표기자가 a에서 b로 바뀌었음을 의미함.
주2: 항목 내의 물음표(?)는 추정 자료임.

3. 주요 지명의 의미 및 변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명은 존속성과 함께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 일정한 장소에 이름을 부여하던 명명 초기, 명명의 대상과 기반이 되어준 명명 유연성(有緣性)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자연적, 역사적, 사회적, 언어적 변동을 경험하게 된다. 그 결과 초기의 지명 의미가 여러 이유로 변하게 되면서 지명의 생성과 존속, 소멸 과정에 휘말리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로 다른 문화와 권력 관계의 점이 지대이자 경계 지대에 위치하면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지명들이 공존하며 경합해 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순수한 우리말로 되어 있는 고유 지명을 비롯하여 일찌감치 이를 음차 표기(音借 表記), 훈음차(訓音借) 표기, 훈차(訓借) 표기, 받쳐적기법 등의 차자 표기를 이용해 만든 많은 한자(漢字) 지명이나 한어(漢語) 지명이 공존하고 있다.[7)]

여기에 시대별로 민속 신앙을 비롯하여 삼국 및 고려 시대 이래의 불교, 조선 시대의 유교 등과 같은 종교적 이념 등을 반영한 다양한 지명들이 명명 혹은 강제로 개정되면서 많은 수의 경합 지명들을 양산하였으며, 지명 경합의 결과 지명이 배타적으로 불리어지는 공간적 범위, 즉 지명 영역이 팽창하거나 수축되는 현상도 발견할 수 있다(김순배,

---

7) 우리말의 고유 명사에 대한 차자 표기법에는 네 가지의 기본법이 있다(도수희, 1999, 72~73; 김순배, 2012, 33~34). ① 음차법: 고유 명사를 유사한 한자음으로 음차 표기하는 방법(多樂洞: 다락골), ② 훈차법: 고유 명사를 한자의 훈(새김)을 빌어 적는 방법(直洞: 고든골), ③ 훈음차법: 한자의 본뜻은 버리고 훈의 음만 빌어 적는 방법(花田: 꽃밧), ④ 음·훈 병차법: 음·훈을 아울러 쓰는 혼합 표기 방법(五丘山: 오구미). 이와는 달리 음가자(音假字), 음독자(音讀字), 훈가자(訓假字), 훈독자(訓讀字)로 차자표기법을 구분한 연구(남풍현, 1981)도 있다. 이 외에 '받쳐적기법', 즉 '훈주음종법(訓主音從法)'이 있다. 이 받쳐적기법은 '훈+음'의 순서로 표기하는 방법이 보편적인데 그 첫째 자는 뜻을 나타내며 둘째 자는 음을 나타내어 발음하면 첫째 자의 훈독음(訓讀音)이 실현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즉 첫째 자의 훈독어형(고유어형)의 말음절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赫居(혁거)', '世里(셰리)' 등에서 '居(거)', '里(리)'가 그것이다. 이 받쳐적기법은 '혁거', '셰리'로 발음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로 끝음절을 받쳐 적어 '볼거', '누리'와 같이 바르게 발음하도록 유도한 차자 표기 방법이다.

2011; 2013a; 2014). 북한산성에 분포하는 지명들의 경우에도 고유 지명, 민속 지명, 불교 지명, 유교 지명 등이 혼재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체로 불교를 국교로 삼은 고려 시대를 경유하여, 1711년 이후 산성 축조와 관리의 일부를 담당하면서 현재까지 지명 명명과 통용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승려 집단에 의한 불교식 지명들이 상당수 존속되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북한산성 지명들을 수록하고 있는『북한지』의 편찬이 승려에 의해 주도되면서 많은 불교 지명이 기록에 남아 전승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북한산을 비롯한 주요 자연 및 인문 지명을 선정하여 명명 유연성을 비롯한 지명 의미, 그리고 시대별 변천 양상을 전부 지명소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1) 북한산 지명의 형성과 변천

북한산성이란 지명의 명명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는 북한산(北漢山)은 지명의 형성과 의미에 있어 시대별로 몇 가지 층위를 가지고 있다. 이를 지명소에 따라 분석해 보면 두 가지의 형태소 분석이 가능하다. 즉 ① 북+한산(북쪽에 있는 한산)과 ② 북한+산(북한 지역에 있는 산)이다. 첫째, '북쪽에 있는 한산'으로 분석할 경우 '한산(漢山)'이란 지명이 먼저 생기고 그 후 '북한산'과 이어 '남한산'이란 지명의 순차적인 명명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북한 지역에 있는 산'으로 분석할 경우, '북한'과 '남한'을 구분하는 지리적 기준으로 '한강(漢江)'의 명명이 먼저 이루어진 후, 강을 기준으로 북한과 남한의 지역 구분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본다. 필자는 그중 첫 번째의 형태소 분석에 근거하여 북한산 지명의 형성 과정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북한산 지명의 별칭이자 경합 지명으로 사용되어온 삼각산(三角山)이란 지명에 주목하였다. 삼각산(三角山)은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고려사』(권4 世家 제권4 顯宗 총서)에 '백운봉(白雲峯)'과 함께 "穆宗九年 移寓三角山神穴寺"(1006년)라는 기록으

로 처음 공식 문서에 등장한다. 그 지명 유래에는 화강암 암봉으로 이루어진 인수봉, 백운대, 만경대의 봉우리가 마치 삼각형처럼 생겼다는 설과 이 세 봉우리를 연결하면 삼각형 모양이 되어 명명되었다는 설이 있다. 삼각산 지명이 고려시대 이후 (고려 태조 2년, 919년에 철원에서 송악으로 천도한 이후), 즉 고려의 수도인 개경 쪽에서 남동쪽으로 바라보이는 산의 형상이 공식적인 지명 기록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 실제 삼각산을 북한의 개성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서 바라볼 경우 세 개의 봉우리가 무리지어 봉긋 솟아있는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풍수지리에서 삼각산을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모습의 '화성(火星)'으로 표현하고 있어, 이 형상에서 자연스럽게 꽃봉오리를 연상시킬 수 있어 '화산(華山)'(본래 '花山'의 취음 표기) 혹은 '화악(華嶽)'이라는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다.[8] 또한 삼각산의 한 봉우리인 인수봉이 아이를 업고 있는 형상이라 하여 '부아악(負兒岳)'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다.[9]

그런데 동일한 명명 대상을 가리키는 경합 지명인 북한산과 삼각산은 시대별로 사용 빈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북한산은 원래 『삼국사기』, 『고려사』, 『세종왕조실록』의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등에서 (한산), 삼각산, 화산, 부아악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삼국시대를 대상으로 한 문헌 중 대표적인 정사인 『삼국사

8) 삼각산의 동쪽 사면에는 산의 형상을 '소의 귀' 혹은 '세 개의 귀'처럼 솟아 있다하여 '쇠귀산' 즉 이를 훈차 표기한 '우이산(牛耳山)'으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현재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이라는 행정지명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특히 하나의 산을 사이로 다른 사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서로 다른 산 모양을 관찰하면서 서로 다른 지명을 생산하기도 하며, 때로는 유사한 지명소를 공유하는 '지명의 화동성(和同性)'도 발견된다(지헌영, 2001). 요컨대 지명의 화동성이란 소리와 뜻이 유사한 지명들이 서로 인접하여 근거리에 집단적으로 분포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9)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아악의 전부 지명소인 '부아(負兒)'를 '아이를 업고 있는'이라는 뜻을 가진 훈차 표기로 해석한 것과는 달리, 도수희(2003, 49, 174-174)는 이 지명소가 '삼각산(三角山)' (일명 쇠귀 = 牛耳)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위례', '미추'와 같은 시기에 소나무[松]를 뜻하는 백제 초기 지명어, 즉 '*부사(*pusa)'의 음차 표기였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기』에는 북한산성이 약 10회 출현하며, 북한산이 약 50회 나타난다. 반면 삼각산은 발견할 수 없고, 다만 별칭인 부아악이 1회 나타나고 있다.[10] 한편 고려시대를 대상으로 한 문헌 중 대표적인 『고려사』를 검색하면 반대로 삼각산이 약 40회, 그리고 북한산 및 북한산성에 대한 검색 결과는 없고 다만 '북한(北漢)' 지명이 약 2회 나타나고 있다.[11] 이를 통해 삼국시대에 적극적으로 이용되던 북한산이란 지명은 고려시대 수도가 개경으로 결정되면서 더 이상 '한산의 북쪽에 있는 산'이란 의미보다는 개경 쪽에서 바라다보이는 산의 형상을 표현한, 즉 삼각산이란 지명이 활발하게 통용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수도가 한양으로 이전되면서(조선 태조 3년, 1394년에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 상황이 달라진다. 〈표 3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양 도성의 북쪽에 위치한 이 산은 다시금 '북한산', '북산', '북성'이란 지명으로 적극적으로 이용되어 표기되기에 이른다. 특히 1711년 남한산 및 남한산성(조선 인조 2년, 1624년에 축조)과 상대를 이루는 북한산성이 축조되면서 북한산이란 지명 사용이 공식화되고 더 활발하게 통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삼각산은 전국 명산대천에 제사를 지내는 사전(祀典) 제도 하에서, 그리고 기우제를 지내는 장소나 지식인들의 문학 작품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면서 북한산의 경합 지명으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

10) 『삼국사기』 (권32 雜志 제1 祭祀)의 산천 제사 항목에서 소사(小祀)로 지내는 지역으로 "負兒岳 北漢山州"가 나타나고 있다.

11) 특히 『삼국사기』에서 북한산성이 기록된 최초의 기록과 최후의 기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 (132년 음 2월) "五年, 春二月, 築北漢山城" (권23 百濟本紀 제1 蓋婁王); (825년 음 1월) "十七年, 春正月, 憲昌子梵文與高達山賊壽神等百餘人, 同謀叛, 欲立都於平壤, 攻北漢山州, 都督聰明率兵, 捕殺之 平壤今楊州也. 太祖製庄義寺齋文, 有"高麗舊壤平壤名山" (권10 新羅本紀 제10 憲德王). 한편 『고려사』에 기록된 삼각산의 최고 기록과 최후 기록은 다음과 같다: (1036년 음 3월 9일) "戊子 幸三角山" (世家 권6); (1388년 음 6월 30일) "白州守洪順, 上書曰, "南京鎭三角山, 火山也, 木性之國, 不宜爲都." 禑不聽" (志 권9).

〈표 5〉 북한산(성)의 지명 변천 (삼국~조선시대)

지명	三國 (고구려) (백제) (신라)	統一新羅 경덕왕 16(757)	高麗 태조 23(940)	朝鮮前期 태종 13(1413)	朝鮮後期 및 大韓帝國	비고
북한산 북한산성	河南慰禮城(백제 溫祚王 BC.18) 慰禮城(온조왕 BC.11/6/2) 慰禮城(온조왕 AD.23) 慰禮城(責稽王 AD.286) 漢城(漢山 下)(온조왕 BC.5) 北漢山城(개루왕 AD.132) 漢山郡(고구려 長壽王 AD.475) 新州(신라 眞興王 553) 新興州, 新州停(진흥왕, 『大志』) 北漢山州(진흥왕 557) 北漢(아차산성 발굴 기와명문) 南川州(진흥왕 568) 北漢山城(진평왕 603) 北漢山州(진평왕 604/618) 漢山停(진평왕, 『大志』) 漢山州(文武王 664/668/672/680)	漢山州(聖德王 718) 漢陽郡[『世宗』(景德王 14년, 755)] 漢州, 漢州都督府(『大志』)	北漢山郡(南平壤城), 北漢山城, 北漢山州[『高麗』(南京留守官楊州沿革條)] 漢陽府[『世宗』(忠烈王 34년, 1308)] 楊州 楊州左神策軍[『世宗』(成宗 14년, 995)] 知楊州事[『世宗』(顯宗 3년, 1012)] 南京留守官[『世宗』(肅宗 9년, 1104)]	漢陽府＞漢城府(太祖 4년, 1395) 知楊州事[『世宗』(太祖 3년, 1394)] 見州＞楊州郡(太祖 4년, 1395) 楊州都護府[『世宗』(太宗 13년, 1413)] 重興城(文宗 1년, 1451) 中興洞(三角山下)(宣祖 29년, 1596)	北漢山, 南平壤[『東國』(漢城府 郡名條)] 北城(肅宗 29년, 1703년) 北漢, 北漢山城, 北漢山郡, 南平壤, 南平壤城, 漢山(『北漢』, 1745) 古石城[『北漢』(古蹟條), 1745] 漢北重興寺大雄寶殿(중흥사 사진, 1902년경)	북한산 관련 지명의 형성 과정: BC.18년 한산의 등장 > BC.5년 한성백제의 도읍지로서 남쪽 한산의 성장 > AD.132년 한강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한북 지역의 위상 강화와 북한산의 등장 > 475년 한성백제의 멸망과 2개의 대등한 지명도를 가지는 북한산과 남한산의 분화 및 통용 > 919년 고려 왕도의 개경 입지와 한산 지명의 쇠퇴 > 1394년 조선의 한양 천도에 의한 북한산의 재등장 > 조선후기 남한산성(1624년)과

지명	三國 (고구려) (백제) (신라)	統一新羅 경덕왕 16(757)	高麗 태조 23(940)	朝鮮前期 태종 13(1413)	朝鮮後期 및 大韓帝國	비고
	北漢山郡, 南平壤城[『世宗』(京都漢城府)] 南平壤城, 北漢山城, 北漢山州[『世宗』(楊州都護府)] 北漢山, 北漢山郡, 北漢山州[『新增』(漢城府 建置沿革條)] 北漢山, 漢陽, 南平壤, 楊州[『新增』(한성부 郡名條)] 長漢城[『新增』(한성부 古跡條)] 南漢山, 南漢城(『世宗』) 南漢山城(『新增』, 『東國』) 南漢山州(『世宗』, 『新增』, 『東國』, 『輿地』)		重興城(漢陽)(禑王 14년, 1388)		北漢山, 北漢山城	북한산성(1711년)의 축조에 의한 북한산 및 남한산 지명의 위상 강화와 대칭적 인식의 확대

주1: '비고'란의 'a > b'는 시간의 변화와 함께 지명 표기자가 a에서 b로 바뀌었음을 의미함.
주2: 항목 내의 물음표(?)는 추정 자료임.

다시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 삼국시대, 특히 한성 백제(漢城 百濟, BC.18~AD.475) 시기에 북한산이라는 지명이 한산, 그리고 남한산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변화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필자는 하북위례성(河北慰禮城)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과 한성(漢城)의 위치를 각각 현재의 남한산성(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과 고골[古邑](경기도 하남시 춘궁동)로 비정한다는 전제하에, 북한산 관련 지명의 형성과정을 '한산 ⇒ 북한산 ⇒ 남한산' 순서로 추정한다. 즉 필자는 고구려에서 남하한 온조(溫祚) 일행이 '한산(漢山)'의 '負兒嶽'(현 북한산 인수봉 혹은 남한산)에 올라 헤아렸던 '십제(十濟)'의 첫 도읍지를 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의 남한산성으로 비정할 경우, 한성백제의 왕도 이동을 '河南慰禮城'(漢山)(온조 1년, BC.18년)(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南漢山城) ⇒ '漢城'(漢山 下)(온조 13년, AD.6년)(현 하남시 춘궁동) ⇒ '漢山'(近肖古王 26년, 371년)(현 남한산성)으로 파악하였다(김순배, 2011).

자료의 신뢰성과 위치의 동일성에 관해 많은 이견이 있으나, 온조왕과 근초고왕 사이의 시기인 132년에 개루왕(蓋婁王)이 "북한산성을 쌓았다(築北漢山城)"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북쪽에서 남으로 향하는 고구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한강 남쪽에 있는 한성 백제의 도읍지, 즉 한산 내지는 한성에 대칭되는 한강 북쪽의 산(현재의 북한산 혹은 아차산)에 산성을 축조하고, 그 이름을 한산의 북쪽에 있다 하여 '북한산(성)'으로 명명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산성 축조 후, 한강 북쪽에 있는 한북 지역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북한산(성)'이라는 지명이 일반 지명언중들에게 자연스럽게 통용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도읍이 있던 한산 및 한성을 '남한산'으로 부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현재 많은 인구와 강력한 기능을 가진 서울시의 남쪽에 '남서울시'라는 신도시가 생겼다 하더라도, 새로 생긴 남서울시의 인구나 기능이 서울시와 필적할 만큼 대등하게 성장하

지 않는 한 서울시는 그대로 서울시로 부르지 '북서울시'로 불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산 및 한성의 경우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침입에 의해 왕도가 함락되고 백제의 수도는 현재의 충남 공주시인 웅진(熊津)으로 옮기게 된다. 필자는 이 시기 이후에 한산 및 한성의 기능이나 위상이 급격히 하락하여 당시의 북한산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것으로 본다. 이로 인해 외부인들이 이 지역을 호칭할 때 한강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북한산, 그리고 남쪽에는 남한산이라는 지명으로 대등하게 불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 후 고려시대에는 수도가 개경으로 입지하면서 북한산과 남한산을 포함한 한산이란 지명의 사용 빈도가 약화되다가, 다시 조선의 건국과 한양으로의 천도로 인해 한산이란 지명과 함께 한강을 기준으로 한 북한산과 남한산 지역을 구분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지명 언중들에게 활발해졌을 것으로 본다. 조선후기에는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이 축조되고 두 지명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산과 남한산 지명을 도읍을 남과 북에서 진호해주는 대칭적인 요새지로 인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2) 주요 자연 및 인문 지명의 의미와 변천

북한산성에 분포하는 주요 자연 지명 및 인문 지명의 의미와 변천을 〈표 3과 4〉에 제시된 지명들의 표기자 분석, 즉 전부 지명소의 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산성에 분포하는 지명 중에는 전부 및 후부 지명소를 모두 고려할 경우 고유 지명, 민속 지명, 불교 지명, 유교 지명, 도교 지명, 풍수 지명 등이 혼재 되어 나타난다. 고유 지명으로는 노적가리를 쌓아놓은 듯하여 명명된 노적봉과 활터고개, 양짓말, 음짓말, 큰골 등이 있으며, 민속 지명으로는 도당굿터, 산제터 등이 있다. 도교 지명은 주로 전부 지명소에 신선 사상을 암시하는 한자가 있는 경우들로서 환선교, 강

선교, 청운교, 백운교, 등운각 등의 인공 지명과 백운봉(백운대), 소요대, 유선대, 은선동, 장춘동, 옥류동, 자하동 등의 자연 지명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다. 한편 풍수 지명은 형국론을 비롯하여 산줄기를 유기체적인 용(龍) 등으로 인식하면서 생기가 이동하는 통로로 이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린봉, 기룡봉, 반룡봉, 잠룡봉, 화룡봉, 용혈봉, 천룡강, 와룡강, 주마강, 곡룡대, 용계동, 규룡동, 잠룡동, 용류동, 반룡담 등의 자연 지명과 언룡교, 봉황교 등의 인공 지명들이 풍수적인 명명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충효열의 삼강(三綱)과 인의예지신의 오상(五常)을 재현하는 유교적인 지명들은 조선이 유교를 국교로 한 왕조임을 감안할 때, 예상 밖으로 많지 않은 수가 분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수봉, 덕장봉, 복덕봉, 성덕봉, 산영루, 세심루 등이 유교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12] 또한 제왕이나 선현, 그리고 조상의 성명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유교적인 피휘(避諱) 관념이 반영된 지명도 1건 발견되고 있다. 즉 『북한지』 고적조에 보이는 사찰 이름인 민지사와 바위 이름인 민지암은 고려시대 문인인 민지(閔漬, 1248~1326)가 은거한 곳에서 유래한 고지명들이다. 그러나 후대에 피휘 관념이 작용하면서 민지사을 서암사로 개명하였다.

한편 조선시대전자문화지도시스템(http://www.atlaskorea.org)에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북한산을 대상으로 유람한 10여 편의 산수유기(山水遊記)나 유산기(游山記)의 유람 경로(- 진관사 - / - 대서문 - 서암사 - 중성문 - 진국사(현 노적사) - 용암사 - 동장대 - 대동문루 - 보국사 - (중흥사) - 청하동 - 부왕사 - / - 승가사 -)가 지도화되어 있다. 이와 함께 경기문화재단(2011)에도 북한산과 관련된 유학자들의 유산기나 관련 문학 작품들을 발췌하여 수록하고 있어, 추후 이들 유학자들에 의한 유교적 지명 표기 관행과 불교 지명에 대한 유교적 개

12) 이 중 인수봉(仁壽峯)은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論語』 雍也篇)에서 유래한 유교 지명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명 등의 사례를 분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북한산성 지명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불교 지명의 경우, 이들의 지명 의미를 해석한 선행 연구(김성태, 2013; 2016)가 있어 이를 토대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효봉과 의상봉은 현재 북한산성의 정문인 대서문 양쪽에 우뚝 서 있다. 한국불교의 개조(開祖)라 할 수 있는 원효와 의상을 북한산성 초입에 배치하여, 원융의 무애와 화엄의 장엄함으로 출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수봉과 보현봉은 산성의 출구인 대남문의 좌우에 협시하고 있다. 문수와 보현은 석가여래를 좌우에서 협시하는 보살로 각각 문수는 지혜를, 보현은 보시를 상징하며, 지혜와 보시로 성불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취봉은 현재 염초봉으로 음차 표기되어 별칭되고 있다. 영취산은 본래 석가여래가 여기에서 《법화경(法華經)》과 《무량수경(無量壽經)》을 강론(講論)하였다고 전하는 지명이다. 나한봉의 전부 지명소를 이루고 있는 '나한'은 불제자 중에서 번뇌를 끊어서 인간과 하늘 중생들로부터 공양을 받을 만한 덕을 갖춘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불제자이기에 부처로 상징되는 영취봉을 마주하는 듯이 배치되어 있다.

불교 사찰 지명인 중흥사 및 태고사와 관련하여, 태고는 원증국사 보우(普愚, 1301~1382)의 법호로서 조계종의 중시조로 숭앙받는 인물이다. 북한산성의 초입과 출구 사이의 중간지점에 중흥사와 태고사를 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밖에 불교 지명과는 관련이 없으나, 중요한 관방시설로서의 북한산성을 떠올리게 하는 노적봉이 있다. 노적봉은 봉우리 모양이 논에 볏단을 쌓아 올린 '노적가리'처럼 생겼다하여 명명된 지명이다. 장기 항전에 긴요한 군량이 노적처럼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붙인 이름인 듯하다.[13]

---

13) 이 중 노적봉이란 지명과 관련하여 한글학회(1985)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명 유연성을 제시하고 있다: 노적봉(727m)은 노적가리처럼 생겼으며, 임진왜란 때 조명연합군이 북한산성에 진을 치고 이엉으로 이 봉우리를 가리어서 곡식더미처럼 속여 왜적이 물러갔다고 한다. 이 밖에 만경봉의 지명 유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하고 있다: 조선 건국 시 무학대사가 이곳에서 한양을 조망하고 국도를 정했다는 데서 유래하여 일명 국망봉(國望峯)이라 불린

한편 지명 표기자의 변화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 지명의 영취봉은 염초봉으로 취음(取音) 내지는 음차 표기되어 별칭이 존속하고 있으며, 등편봉의 '편(片)'은 본래 지명인 등안봉의 '안(岸)'을 전사하거나 판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기 혹은 취형자(取形字)로 판단된다. 한편 백운봉, 만경봉, 원효봉, 의상봉은 각각 백운대, 만경대, 원효대, 의상대로 후부 지명소가 터쓰이고 있으며, 중흥사가 입지하고 있는 중흥동 계곡은 한때 표기자 '중'이 '중(重)'과 '중(中)'으로 자유롭게 음차 표기되기도 하였다. 인문 지명의 경우, 동일한 성문을 가리키는 소동문과 대동문은『북한지』에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후대에 소동문이란 지명은 사라지고 대동문으로 불리게 되었다. 대성문의 경우 표기자 '성'이 '성(成)'과 '성(城)'으로 자유롭게 음차 표기되다 현재는 대성문(大城門)으로 불리고 있다. 중성문의 '성' 또한 대성문과 동일한 표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지』에서 동일한 성문을 가리키던 소남문과 대남문은 후대에 소남문이란 지명은 사라지고 대남문으로 존속하고 있다. 서암문의 경우 산성 안의 시신을 성 밖으로 내보내는 구실을 하여 '시구문(屍軀門)'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동암문은 현재 보국사의 사찰 지명에서 유래한 보국문으로 개명되어 불리고 있다. 사찰 명칭의 경우 진국사가 노적사로 개명되었으며, 부왕사는 부황사로 '왕(旺)'이 '황(皇)'으로 음차 표기되어 불리기도 한다. 진관사는 신혈사의 후신으로 고려 현종 때(1011) 진관대사의 법명을 취하여 이름이 바뀐 사례이다.

4. 결론

『북한지』를 편찬한 성능(聖能)은 발문(跋文)에서 사라져 가는 것들 혹은 잊혀져 가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표현하였다.[14] 그는 결국 문자

다(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언어와 지명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가 평생 가꾸어 온 업적, 그리고 그 이름과 명예를 남기고 싶어 했다. 그 결과물이 결국 300여 년 후 본 글의 연구대상으로 남아 생전의 그의 인생과 공훈을 기념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인간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형상과 빛깔, 그리고 형상과 색(色)으로서의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불가의 '색즉시공(色卽是空)'의 생각에 일면 부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가 남긴 풍부한 지명 기록을 통해 북한산성은 '영원히' 살게 되었으며, 북한산성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노력에 뚜렷한 형상과 빛깔을 제공해 주고 있다.

성능의『북한지』편찬 의도를 헤아려, 본 글은 북한산성 안에 분포하는 지명들의 지리적 분포와 문화적, 역사적,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고, 나아가 지명 변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을 기초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북한산성을 포함한 산성 내부의 지명들을 대상으로 자연 지명과 인문 지명으로 구분하여 시대별 고문헌 및 고지도 등에 기재된 지명 표기를 정리하여 지명 변천 도표를 작성하였다. 이 작업에서 현존하는 지명 자료 중 가장 많은 북한산성 지명을 담고 있는『북한지』(1745)를 중심으로 시대별 지명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지명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명 분포 및 유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본 후, '북한산' 등의 주요 지명들을 선정하여 지명의 의미와 그 변천 양상을 전부 지명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연구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체로『북한지』에 수록된 지명들은 자연 지명 중 산지와 하천 지형을 가리키는 지명들과 이러한 지리적 환경에 자리 잡고 있는 산성

14) "而旣築之後議論多端 近年以來則便置之度外 無復如當時 諸相公之極意規畫 亦安知前功之不歸於盡棄耶 (축성한 이후에는 논의가 분분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곧 아무도 이를 거론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 당시 여러 재상들처럼 전심전력을 다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즉 지난날의 공훈도 모두 헛되이 사라지지 않으리라고 어찌 알 수 있을 것인가?)" (경기문화재단, 2011, 717의 번역을 필자가 일부 수정함).

관련 각종 인공 시설물들, 특히 이 책을 편찬한 승려 성능을 통해 매개된 불교 이데올로기를 담은 많은 불교 관련 지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즉『북한지』에는 약 165개의 지명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중 자연 지명의 지형 지명이 약 104개, 인문 지명의 행정 지명이 0개, 인공 지명이 약 61개가 나타나고 있다. 지형 지명에는 산지 지형들 중 산봉우리를 뜻하는 봉(峯) 지명이 약 38개, 산 정상이나 높은 곳에 위치한 바위를 가리키는 대(臺) 지명이 약 8개, 그리고 하천 지형의 골짜기나 계곡을 뜻하는 동(洞) 지명이 약 14개가 분포하고 있어,『북한지』라는 지리지 편찬의 공간적 대상이 산지 지형에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북한산성의 입지가 계곡을 둘러싼 산봉우리를 따라 축조된 포곡식 산성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인문 지명의 경우, 약 61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후부 지명소로서 행정구역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 행정 지명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북한산성이란 관방시설 자체가 중앙정부의 국가적 스케일에 의해 특수한 군사적 위상과 함께 국왕의 행궁 입지를 위한 기능을 부여받았고, 축성이 이루어진 1711년을 전후하여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이라는 지방 행정 차원과는 별개의 군사 기관들에게 축성과 그 이후의 성곽 관리 임무가 주어지면서 기존의 행정 체계와는 별도로 특수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지』에 수록되지 않은 행정 지명은 앞선 시대에 북한산군, 북한산주로 나타나기도 하였고,『북한지』이후에는 북한리(1914년), 북한동(1992년)으로 '북한(北漢)'이라는 전부 지명소를 계승하여 존속하고 있다. 한편『북한지』에는 행정 지명 중 민간인들의 거주지인 자연 촌락을 가리키는 지명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18세기 후반까지도 산성 내에 많은 자연 촌락들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반영한 촌락 지명들, 예컨대 서문안(하곡, 하골, 하창), 양짓말, 음짓말, 상곡(상골), 중곡(중골), 강남모탱이, 보국골 등을『북한지』이후에 기록된 문헌 및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공 지명의 경우, 인공 시설물인 산성과 관련하여 약 61개의 다양한 지명들이 분포하고 있었다. 즉 성곽 축조와 관리 시, 국가에 의한 공식적인 지명 명명 행위가 새롭게 건설된 행궁, 성문, 장대, 유영, 창고, 다리, 누각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여기에 축성 및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승려들에 의한 불교 관련 지명의 수용과 명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인공 지명 중 후부 지명소로서 사(寺)와 암(菴)을 가진 사찰 지명이 여러 유형들 중 가장 많은 약 23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성 시설 관련 인공 지명들로는 예전에 있었던 성(城) 이름이 1곳, 암문을 포함한 성문 시설 명칭이 약 16개가 나타나며, 장대 3곳, 유영 3곳, 창고 5곳, 정자 1곳 등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산성의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자 북한산성의 위상을 높여주는 인공 시설로서 행궁이 1곳 있었으며, 현재는 행궁지 또는 행궁터라는 지명으로 남아 있다.

북한산성에 분포하는 지명들의 의미와 변천 양상을 주요 지명들의 전부 지명소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삼국시대에 적극적으로 이용되던 북한산이란 지명은 고려시대 수도가 개경으로 결정되면서 개경 쪽에서 바라다보이는 산의 형상을 표현한 지명, 즉 삼각산으로 활발하게 통용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수도가 한양으로 이전되면서 다시금 '북한산', '북산'이란 지명으로 적극적으로 이용되어 표기되기에 이른다. 특히 1711년 남한산 및 남한산성과 상대를 이루는 북한산성이 축조되면서 북한산이란 지명 사용이 공식화되고 더 활발하게 통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삼각산은 전국 명산대천에 제사를 지내는 사전 제도 하에서, 그리고 기우제를 지내는 장소나 지식인들의 문학 작품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면서 북한산의 경합 지명으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한편 북한산 관련 지명의 형성 과정을 지명의 역사적 명명 과정과 지리적 인식, 그리고 지명 텍스트의 맥락을 고려한 결과 '한산 ⇒ 북한산 ⇒ 남한산' 순서로 추정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산성에 분포하는 지명들 중에는 전부 및 후부 지명소를 모두 고려할 경우 고유 지명, 민속 지명, 불교 지명, 유교 지명, 도교 지명, 풍수 지명 등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산성 축성 이후 현재까지 이 일대의 중요한 지명 언중 역할을 해온 승려들에 의해 많은 불교 관련 지명들이 명명 및 통용되었고, 동시에 불교 이데올로기와 정체성에 의한 강력한 지명 동일시 현상과 의미 부여가 이루어져 왔다.

참고문헌

〈사료〉

『三國史記』(김부식, 1145); 『高麗史(地理志)』(김종서·정인지, 1451~1454); 『朝鮮王朝實錄』(1413~1865); 『世宗實錄地理志』(정인지, 1454); 『新增東國輿地勝覽』(이행, 1530); 『東國輿地志』(유형원, 1656~1673); 『北漢誌』(聖能, 1745,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輿地圖書』(1757~1765,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73); 『戶口總數』(1789,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東國輿地備攷』(작자미상, 19세기, 서울대규장각소장);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조선총독부, 1912);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越智唯七, 1917); 「京畿道高陽郡郡勢一班」(경기도 고양군, 1930, 종로도서관 소장); 《海東地圖》(1750~1751, 서울대규장각소장, 古大4709-41); 《地乘》(1776~1786, 서울대 규장각 소장, 奎 15423); 《1872년 지방지도》(1872, 서울대규장각 영인, 2004); 《舊韓末韓半島 地形圖(1~4)(1:50,000)》(일본육군참모본부, 1894~1906, 남영우 편, 성지문화사 영인, 1996);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1:50,000, 京城)(조선총독부, 1919); 《현대 1:5만지형도》(서울, 성동)(국토지리정보원, 2010~2012년 측량 및 촬영, 2013~2014년 발행 및 인쇄).

〈저서 및 논문〉

경기문화재단, 2011, 『북한산 조사연구자료집』,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북한산성 행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고양시·경기문화재단.

고양시사편찬위원회, 2005,『高陽市史』, 고양군.

국토지리정보원, 2008,『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김성태, 2013,「고양시 북한산성 이야기」,『고양시의 고고학 이야기』(시민강좌교재, 유인물), 겨레문화재연구원.

_____, 2016,「북한산성의 지명과 불교의 가르침」, 경인일보(2016년 3월 29일자 17면).

김순배, 2011,「하남 지역의 지명 변천」, 지명학, 17, 61~104.

_____, 2012,『지명과 권력: 한국 지명의 문화정치적 변천』, 경인문화사.

_____, 2013a,「동해 지명의 의미'들'과 영역'들'의 변화」, 문화역사지리, 25(3), 99~131.

_____, 2013b,「필사본『朝鮮地誌資料』충청북도편 지명 자료의 시론적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1), 31~44.

_____, 2014,「설악산권 자연지명의 의미와 지명 영역의 변화: '설악'과 '한계'를 중심으로」, 지명학, 21, 37~78.

_____, 2015,「백두대간 고개지명의 분포와 변천: 설악산과 오대산 일대를 중심으로」, 지명학, 23, 5~74.

김순배·김영훈, 2010,「지명의 유형 분류와 관리 방안」, 대한지리학회지, 45(2), pp.201~220.

남풍현, 1981,『차자 표기법 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도수희, 1999,『한국 지명 연구』, 이회.

_____, 2003,『한국의 지명』, 아카넷.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서울지명사전』, 서울시.

이수건, 1989,『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이은만, 1991,『고양군 지명유래집』, 고양문화원.

지헌영, 2001,『한국 지명의 제문제』, 경인문화사.

한글학회, 1985,『한국 지명 총람 17(경기편: 상)』, 한글학회.

_____, 1991,『한국 땅이름 큰사전(상·하)』, 한글학회.

〈인터넷 자료〉

경기문화재연구원 북한산성문화사업팀 기획 및 제작 (“다시 보는 북한산성”) (https://www.youtube.com/watch?v=m5Vomi11Muk)

고양신문(“300년 역사 북한동 마을 사라져: 공원관리사업소 남은 5가구 철거”, 2011년 1월 20일)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 idxno=26797)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istory.go.kr).

국토지리정보원 지도검색서비스(1:50,000, 1:25,000, 1:5,000 지형도 검색) (http://sd.ngii.go.kr)

네이버 지식백과(문화원형백과: 한국의 산성, 2004,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

농지공간포털 지도서비스 (http://njy.mafra.go.kr/jsp/map/PortalMap.jsp)

다음지도 (http://map.daum.net/)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서울지명사전 (http://culture.seoul.go.kr/sggDic/sggDic.do)

연합뉴스(“300년 역사 북한동 마을 전설 속으로: 연말까지 55가구 이주하고 사찰만 남아”, 2010년 6월 24일) (http://www.yonhapnews.co.kr)

조선시대전자문화지도시스템 (http://www.atlaskorea.org)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

北漢山城
연구 논문집
12

북한산성의 불교문화재

임남수*

1. 머리말 • 359
2. 불상 • 360
3. 석탑과 부도 • 375
4. 공예 • 385
5. 맺음말 • 387
참고문헌 • 389

* 영남대학교 미술학부

1. 머리말

북한산은 서울의 진산(鎭山)으로 삼국시대에는 부아악(負兒嶽), 횡악(橫岳)으로 불렸고, 고려시대 이후에는 삼각산(三角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북한지』 등의 지리지와 『조선왕조실록』은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삼각산은 북한산의 별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북한산은 백제 건국의 발상지이었고, 신라 때에는 진흥왕이 비봉(碑峰)에 순수비를 건립한 곳이었으며, 조선시대에는 무학대사가 조선왕조의 도읍지를 살피기 위해 오른 장소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로부터 북한산은 군사적·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이곳에 북한산성이 최초로 지어진 시기는 백제 개루왕 5년(132)이며 말갈 등 북방의 적으로부터 도성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것으로 『삼국사기』에 전해진다.[1] 신라가 이 지역을 확보한 이후에는 문무왕이 당군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할 때 전략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2] 고려 우왕 때에는 중흥산성을 수축하고 최영을 주둔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도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숙종 37년(1711)에 북한산성을 축성하였으며, 고종 30년(1893)에 중수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북한산과 불교와의 연관은 백제가 한성을 수도로 정하고 불교를 수용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신라 경덕왕 때에는 승가봉 남쪽에 승가사(僧伽寺)가 창건되었으며, 경문왕 2년(862)에는 도선국사가 도선사(道詵寺)를 지었다고 전한다. 고려시대에 들어서 서울은 남경(南京)

---

1) 五年。春二月。築北漢山城 (『삼국사기(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1 蓋婁王)

2) 文武大王與仁問出兵二十萬。行至北漢山城。王住此。先遣仁問等。領兵會唐兵擊平壤。月餘。執王臧。(『삼국사기』 卷44 列傳4 金仁問)

으로 중시되었고, 남경의 수비를 위하여 북한산 지역에 중흥산성이 축성되었다. 산성이 축성된 후 산성 내에 중흥사(重興寺)와 태고사(太古寺)가 세워졌고, 산성 밖에 있던 신혈사(神穴寺), 향림사(香林寺), 문수사(文殊寺), 진관사(津寬寺) 등의 사찰도 그 기능이 중시되면서 많은 불교유산을 남겼다. 특히 조선후기에 성능(聖能)대사에 의해 북한산성이 축성되면서 산성 내에 11개의 사찰이 중창되거나 새로 지어졌고, 사찰에 승병들이 상주하면서 북한산성은 수도 방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처럼 북한산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었으나, 대한제국 말기에서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을 겪으며 피폐해지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산성 내에 현존하는 불교문화재를 불상과 석탑을 중심으로 개관하고, 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역사적 미술사적 의의를 고찰하여 북한산성 내의 불교문화재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삼고자 한다.

2. 불상

1) 상운사 천불전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상운사 천불전에 봉안된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사진 1)은 경기도 유형문화제 제190호로 지정되어 있다. 본존과 좌협시보살은 대좌에 적힌 묵서에 의하여 1713년에 조각승 진열(進悅)이 조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성 당시의 좌협시이었던 관음보살상은 대좌만 남기고 분실된 상태이며, 우협시이었던 대세지보살을 본존의 왼쪽으로 옮기고, 오른쪽에는 조선후기에 조성된 별개의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안치하고 있다.

본존과 좌협시를 개관하면, 본존의 높이는 57cm, 좌협시는 54cm

이며, 재질은 목재이고 표면에 금칠을 하였다. 보존 상태는 개금한 이후 크게 파손된 흔적이 없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본존과 좌협시상은 불상의 높이에 비하여 머리가 약간 크며, 상반신은 길고 좁은 편이다. 본존의 머리는 육계와의 구분이 없고, 그 경계에는 반원형의 중간계주, 정수리에는 원통형의 정상계주를 나타내었다. 한편, 좌협시는 보계를 틀어 올리고 화염문 등으로 장식된 보관을 썼다. 얼굴은 본존과 좌협시 모두 방형에 가깝고, 이마는 좁고 편평하며, 양 볼이 넓적하고 턱이 다소 짧아 밋밋한 인상을 준다.



[사진 1] 상운사 천불전 아미타삼존불

본존은 오른손의 팔꿈치를 굽혀 무릎 위에서 살짝 들어 손바닥을 아래로 하여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고 있으며, 왼손 역시 오른손과 같은 위치에서 손바닥을 위로 하여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손은 별도로 만들어 끼워 넣었으며, 손가락은 가늘고 길다. 좌협시는 왼손을 들어 올려서 연꽃가지를 들고 있다. 하체는 오른쪽 발을 왼쪽 다리 위에 얹고 결가부좌를 하였으며, 오른쪽 발은 길고 크며 볼륨감이 없으며 넓적하고, 발가락은 옷자락에 덮여있다.

착의법은 상체에 대의(大衣)를 걸치고 하체에 군의(裙衣)를 입었으며 대의가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는 우견편단의 복제를 취하였다. 오

른쪽 어깨에 걸쳐진 대의 자락의 일부는 긴 물방울 모양으로 가슴 부근까지 내려와 있고, 본존은 대의자락이 배 앞에서 대칭으로 접혀 있는데 비하여 좌협시에서는 그러한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 오른쪽 발목에서 흘러내리는 옷자락은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펼쳐지며, 끝자락은 물결모양으로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흘러내린다. 왼쪽 다리 위에 표현된 옷자락은 S자형으로 자잘하고 불규칙적이며 다소 복잡하다.

대좌는 목재이며, 앙련과 복련의 2단으로 구성된 비교적 간단한 형식의 연화좌이다. 연잎은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진 형태이며, 연잎에는 바깥부터 흰색, 적색, 흰색, 녹색 순으로 채색하였다.

이 상의 대좌에 기록된 묵서명에 의하면, 강희 52년(1713)에 진열을 수화승으로 하는 조각승 그룹이 아미타삼존상을 조성하여 노적사 극락보전에 봉안하였으며, 옹정 8년(1730)에 개금하여 삼각산 상운사에 안치하였다고 한다[3].

진열은 경북 상주 북장사(北長寺) 목조지장보살좌상(1688년)의 발원문에 수화승으로 등장하며, 전남 곡성 서산사(西山寺) 목조관음보살좌상(사진 2, 1706년)과 부산 범어사(梵魚寺) 관음보살좌상(사진 3, 1722년) 등을 조성한 조각승이다. 그렇다면, 상운사 아미타상은 진열의 작품 속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을까?

서산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얼굴의 인상, 보관의 형태, 신체 비율, 착의법과 옷주름 등의 표현이 상운사 목조아미타불상과 유사하다. 즉, 두 상 모두 얼굴이 조금 크고 상반신이 길며, 방형의 얼굴, 크고 볼록한 백호, 一자를 그리는 눈꺼풀, 보관의 좌우에 달린 관대 등에 공통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크고 화려한 화염문과 어깨 위로 둥글게 꼬여서 내려오는 수발 등도 서로 같다.

그리고, 서산사 상의 어깨와 무릎이 둥근 점, 옷주름을 선각으로

3) 康熙五十二年癸巳自七月初五日始役於至八月人初六日畢大成功也奉安于」露積寺極樂寶殿主補陀蓮薩處臺也于造成處則北寺別室也」緣化秩 證明 天機比丘 持殿 宗辨比丘」畵員 進悅比丘 靈熙比丘 太元比丘 處林比丘 淸徽比丘」供養主 知日比丘 太淸比丘」別座 三彦比丘·化主 智□時任主□斗□比丘」時任首僧 祐世僧摠領察事都摠大將嘉善大夫」□玉比丘」



[사진 2] 서산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사진 3] 범어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새겨서 양감이 없고 옷자락이 얇게 보이며, 가슴을 크게 열고 오른편 어깨에서 U자를 그리며 가슴으로 길게 내려오는 옷자락의 표현도 상운사와 동일하다. 또 무릎을 덮은 옷자락이 발목을 거쳐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점과 왼쪽 다리 위에서 내려오는 안자락이 불규칙하고 자잘한 S자형으로 형식적인 점도 서산사 상과 공통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서산사 상의 양팔은 상운사 상에 비하여 살집이 약간 있으며 무릎 폭이 조금 더 넓어 비교적 건장한 체구이며, 옷주름의 양감이 없어 납작하고 군의의 상단이 대각선으로 표현된 점은 상운사 상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에 비해서 1722년에 조성된 범어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얼굴의 인상, 신체의 비율 등에서 상운사 상과 동일한 반면, 옷주름의 표현이 화려하고 번잡하며 보다 형식적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인다. 즉, 범어사 상은 얼굴이 크고 방형이며 양볼에는 살집이 없고 콧대가 높으며 뾰족하고, 인중이 넓적하며 입술이 얇아서 상운사 상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신체는 상운사 상과 마찬가지로 어깨가 좁고 둥글며 가슴을 크게 열었다. 옷주름의 표현은 양감이 없이 선으로 표현하여 옷의 두께가 얇고 옷주름이 대칭으로 늘어져 있어서 진열의 작품이 지니는 특징에

서 벗어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운사 상에 비하여 백호가 작아지고, 눈꺼풀이 一자에서 위로 조금 올라갔으며 시선의 처리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다. 옷주름은 선이 많아지고 장식적인 요소가 추가되었으며, 하반신의 옷자락은 역 오메가형(Ω)으로 표현되어 상운사 상보다 화려해졌으나 번잡하고 형식적이다.

이처럼 상운사의 목조아미타불좌상은 1706년에 조성된 서산사 상의 모습과 흡사한 반면, 1722년에 제작된 범어사 상에서는 상운사 상에서 볼 수 없었던 장식적인 요소가 추가되었으며 옷주름 선의 표현이 더 많아지고 상운사 상에서 어색했던 눈의 시선 처리가 자연스럽게 바뀐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상운사 상은 서산사 상에서 범어사 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한편, 우협시보살상은 크기와 세부 양식의 차이로 보아 본존 및 좌협시와 한 세트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높이는 42cm이며, 재질은 목재이고 표면에 금칠을 하였다. 보존 상태는 파손된 흔적이 없고 대체적으로 양호하며, 좌협시보살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에 개금을 하면서 연꽃가지를 새로 만들었다.

좌협시보살상의 특징은 얼굴이 크며, 이마의 가로 폭이 넓적하고 턱이 둥근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목이 매우 짧으며 우협시보살상에 비해서 팔에 살집이 있고, 무릎의 너비가 좁고 상체가 짧은 점이 주의할 만하며, 옷주름은 형식적지만 양감이 있어 볼록하고, 왼쪽 무릎 위의 옷자락이 V자형으로 늘어지는 점 등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불전의 아미타불좌상과 좌협시보살상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조각승 진열의 활동범위가 서울까지 이르렀던 사실을 알려주며, 또 그 조성시기가 숙종 때의 북한산성 축성과 맞물려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축성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승려들이 동원되고 사찰이 정비되면서 진열과 그의 그룹이 서울지역까지 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사진 4]는 아미타삼존상의 좌협시의 모습을 좌우로 바꾸어 조성 당시의 삼존의

모습을 복원한 것이다.



[사진 4] 상운사 목조아미타삼존불 복원도

2) 상운사 약사전 석조여래좌상

약사전 석조여래좌상(사진 5)은 전체 높이가 134.6cm, 왼손에는 보주를 들고 있어서 약사여래로 인식되고 있다. 보존 상태를 보면, 단절된 불두(佛頭)와 불신(佛身)이 접합되어 있으며,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왼손의 일부, 보주 역시 보수된 흔적이 확인되고, 얼굴 등의 표면이 마모되기도 하였지만, 불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얼굴은 계란형에 가까우며 몸에 비해 다소 크다. 머리에는 육계와 계주가 있으며, 머리카락은 마치 가르마처럼 중앙에서 좌우로 나뉘어 있다. 얼굴이 길고 턱이 커서 이목구비는 전체적으로 중앙으로 몰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볼은 살집이 있고 넓으며, 턱은 둥글며 큼직하다. 이마는 넓고 편평하며 미간 사이가 좁아 보인다. 눈은 위 눈꺼풀이 넓고 짧으며 두툼하게 조각하였고, 코는 콧등 부분이 납작하고 코끝이 뭉툭하며, 콧망울은 선명하지 않지만 음각으로 간략하게 표현한 듯 보인다. 인중은 좁은 선각으로 새겼으며, 입은 얼굴에 비하여 작으나 윤곽선을 또렷하게 표현하였다. 양 귀는 얼굴의 길이에 비해 긴 편이며, 목은 짧고, 접합한 흔적으로 인해서 삼도의 표현은 확인할 수 없다.



[사진 5] 약사전 석조여래좌상

상체는 곧게 세우고 있으며 어깨가 처져있고, 가슴은 편평하며 넓고, 몸에 비하여 팔꿈치에서 팔목까지의 길이가 짧아서 어색한 느낌이다. 양팔에는 양다리로 흘러내리는 옷자락을 선각으로 간략하게 나타내었는데, 팔의 윤곽이 거의 드러나지 않지만 양팔의 폭이 넓어 건장해 보인다. 손은 손가락만 단순하게 만들었으며, 몸에 비하여 매우 작다. 오른손은 오른쪽 다리 위에 내리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하여 복부 앞에서 둥글고 큰 보주를 올려놓고 약사여래라고 부르고 있으나, 보주가 후보인 점과 수인의 형식을 고려한다면 항마촉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체는 무릎의 높이가 매우 높으며, 무릎 사이의 너비가 어깨에 비하여 좁기 때문에 안정감을 상실하고 있다. 자세는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얹어 발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결가부좌한 모습이며, 드러나 있는 오른발은 매우 작고 입체감이 부족하며 도식적으로 표현하였다.

착의법은 양쪽 어깨를 덮은 내의 위에 대의를 우견편단으로 입고 있으며, 대의 안쪽에는 가슴 아래에 군의자락이 보이며, 매듭이 아래로 길게 드리워져 있다. 옷주름은 전체적으로 직선적이고 간략한 선각으로 새겨 형식적이며 도식적으로 표현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상은 상호가 매우 이질적이며, 상반신과 하반신의 불안정성, 평면적이고 도식화된 옷자락 처리, 손과 발의

고졸한 표현 등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 상의 바닥에는 묵서명이 있다고 전하며, 그에 의하면 이 상은 1497년에 조성된 것이라고 하므로, 제작 시기는 조선시대 전기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의 작품으로 충남 보령 금강암(金剛庵) 석조미륵좌상(1412년)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석조지장보살좌상(1515년)을 들 수 있다.



[사진 6] 금강암 석조미륵좌상

금강암 상(사진 6)은 머리에는 갓을 쓰고 있으며 얼굴은 갸름하고 뺨은 살집이 올라와 있다. 이 상은 눈이 완만하며 一자형이지만 비교적 큰 반면, 코는 낮고 편평하게 표현하였다. 입은 양감이 도드라지며 굳게 다물고 있어서 얼굴의 둥근 모습과 함께 엄숙한 인상을 자아내고 있다. 상체는 곧게 세우고 있으며 옷주름은 도식적으로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고 신체의 윤곽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석조지장보살좌상(사진 7)은 대좌 뒷면에 불상의 조성 배경 및 시주자와 제작자, 제작연대를 밝혀주는 조성기가 새겨져 있다.[4] 머리에는 두건을 쓰고 있으며 얼굴은 방형이고, 이마는 넓고 편평하며 양쪽 눈썹 사이에는 작은 백호가 있다. 눈은 반개하고 있으며 눈꼬리는 살짝 위로 올라가 있다. 코는 길이가 짧고 끝이 둥그스름하며 입은 작고 자연스럽게 다물고 있다. 머리는 약간 앞으로 숙이고 있으며 목은 짧게 표현되어 있다. 상체는 바르게 서 있으며 어깨는 부드럽게 내려온다. 왼손에는 보주를 들고 있으며 머리와 몸에 비하여 양손은 작게 표현되었다. 하체는 무릎의 높이가 낮지만 양쪽 무릎 사이의 너비가 어깨의 폭에 비해서 조금 넓어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다.

---

4) 正德十年乙亥三月造成」



[사진 7] 석조 지장보살 좌상

상운사 약사전 석조여래좌상은 불신과 불두의 부조화, 단순하고 도식적인 옷주름 표현 등에서는 금강암 상이나 국립중앙박물관 상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만, 고졸한 상호나 머리의 표현은 조선시대 전기의 다른 불상과도 유사성을 거론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상은 정통적인 교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민간신앙적인 바탕 위에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조선시대 전기에 불교의 억압이 심화되는 가운데 불교와 민간신앙이 습합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이 상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3) 덕암사 대웅전 좌우협시보살상

덕암사 대웅전에 안치되어 있는 보살상 2구는 한국전쟁 이전에 강원도 철원 심원사에서 이안해 온 것이며, 석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1구씩 배치되어 있다. 좌우협시보살상(사진 8)은 본래 아미타여래의 좌우협시보살로 제작된 것이며, 현재의 본존인 석가불은 최근에 조성된 것이다. 조성 당시의 본존인 아미타불좌상은 현재 서울 홍제동 환희사(歡喜寺)에 안치되어 있는데, 이 삼존상이 어떠한 이유에서 따로 옮겨져 안치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본존은 2006년에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17호, 덕암사의 목조보살좌상은 2010년에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46호로 각각 지정되었다.

두 보살상은 세부적인 표현방법에 조금 차이가 보이지만, 재질은 목재이며, 보관을 쓰고 연꽃가지를 들며 결가부좌한 자세 등은 유사하다. 보존상태도 후보인 보관을 제외하면 양호한 편이다.

먼저, 좌협시보살상은 전체 높이가 72cm이며, 얼굴은 방형에 가깝고 몸에 비해 다소 큰 편이며, 상체를 약간 숙이고 있는 자세로 비교

적 안정적인 모습으로 앉아 있다. 턱은 뾰족하며 볼은 살집이 없어 밋밋하며, 이마는 넓고 편평하다. 미간 사이에는 백호가 있으며 얼굴에 비해서 비교적 작다. 눈은 길게 치켜 올라가 있으며, 윗눈꺼풀은 살짝 양감이 나타나는 반면 아래 눈꺼풀은 一자에 가깝게 반개하여 시선이 자연스레 아래로 향하고 있다.



[사진 8] 덕암사 대웅전 좌우협시보살상

코는 콧등 부분이 넓으면서 납작하고 콧망울과 콧구멍은 간략한 음각선으로 살짝 새겼다. 인중은 짧으며 낮게 파여 있고, 입은 얼굴에 비해 작으며 양감을 거의 표현하지 않은 입술은 납작하다. 목은 커다란 머리에 비해 다소 짧아 보이며, 삼도는 목 아랫부분에 음각으로 두 줄을 새겨 넣었다. 양 귀를 가로질러 흘러내리는 수발은 얼굴선을 따라 귓불 부분에서 살짝 뒤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어깨 위로 드리웠다. 어깨에 표현된 수발은 긴 타원형으로 말려있으며 머리카락의 결이 드러나도록 섬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상체는 어깨가 좁고 부드럽게 처져있으며, 가슴 부분은 편평하다. 손은 별도로 제작하여 끼워 넣었으며, 오른손은 무릎에서 살짝 들어

손바닥을 위로 향하도록 하여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약지도 중지와 비슷하게 구부리고 있다. 왼손은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리고,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약지를 구부리고 있다. 두 손에는 연꽃 가지를 대각선으로 받쳐 들고 있다.

하체는 무릎 사이의 너비가 넓고 오른발은 발바닥을 위로 보이도록 하여 왼쪽 다리 위에 얹은 결가부좌의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발바닥은 납작하고 편평하다. 허벅지는 밋밋하여 신체의 굴곡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양다리에 표현된 옷주름은 굵으면서도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발목에서 흘러내리는 옷자락은 매우 두꺼우며 두 가닥으로 부채꼴을 이루면서 펼쳐지고 있다. 바닥면의 중앙에는 사각형의 복장공이 뚫려 있는데, 내부에 봉안되어 있던 복장물은 현재 그 행방을 확인하기 어렵다.

착의는 대의가 양쪽 어깨를 덮고 있으며 U자형을 그리며 흘러내리다가 배 안으로 옷자락이 접혀 들어 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의에는 몇 가닥의 양각으로 형식적이고 간략하게 옷주름을 만들었으며, 신체의 양감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아래에 입은 군의는 가슴 아래까지 올라와 있다.



[사진 9] 심곡사 목조세지보살 좌상

우협시보살상은 좌협시보살상에 비하여 약간 크기가 작고, 연꽃가지를 든 손의 방향이 반대일 뿐 모습과 특징은 좌협시보살과 거의 같다.

이와 같은 덕암사 좌우협시보살좌상의 특징들은 18세기 전반에 제작된 강원도 양구 심곡사(深谷寺) 목조세지보살좌상(사진 9, 1716년), 충북 제천 신륵사(神勒寺) 목조관음보살좌상(1730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얼굴은 방형이고 살집이 없는 볼에 턱을 도드

라지게 표현한 점, 가슴 부분이 넓고 편평하며 가슴 주위로 영락장식이 나타나지 않는 점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하체는 一자이며 상체에 비해서 다소 너비가 좁아서 상체가 길어 보이는 점, 양다리의 옷주름이 도식적이고 간략하게 나타낸 점 등도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덕암사 목조보살좌상은 18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4) 노적사 석사자상

노적사(露積寺)는 1712년에 북한산성이 축성된 후 성능이 창건한 진국사(鎭國寺)이었다.[5] 노적사의 석사자상(사진 10)은 절 아래쪽의 군부대 막사 근처에 있던 것을 옮겨놓은 것이라고 한다.



[사진 10] 노적사 석사자

석사자상은 전체 높이 64.5cm이며, 재질은 화강암이다. 석사자상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으로 등에는 깔개를 덮고 그

5) 在露積峰下中城門之內。八十五間。僧聖能所刱。(朝鮮古書刊行會, 1910,『八域誌. 四郡志. 北漢誌. 郡縣 沿革表. 京都 雜誌. 東京雜記』, p.402)

위에 대좌를 얹었으며, 네 발로 땅을 디디고 앞으로 나아갈 듯이 서있다. 보존 상태는 얼굴의 귀와 입, 그리고 생동감 있는 표정 등은 비교적 잘 남아 있으나, 코와 네 발은 마멸이 심하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다. 등에 대좌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아 위에 무엇인가를 올려놓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머리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고 있고, 얼굴은 신체에 비하여 크고, 과장된 이목구비의 표현으로 조금 어색해 보이지만 표정이 웃음을 자아낸다. 머리에 뚜렷하게 새겨진 귀는 둥글고 귓바퀴는 양감이 느껴진다. 눈썹은 짧으며 一자형으로 올라가 있고 볼록한 미간과 큼직한 코는 서로 이어져 있다. 두꺼운 눈꺼풀로 덮여있는 눈은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으며, 상당히 크고 앞으로 튀어나올 듯 부리부리하다. 코는 콧등과 콧방울에 마멸이 심해서 알아보기가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뭉툭하고 큼직하다. 코 양옆에는 콧수염을 짧은 직선으로 3가닥 표현하였다. 옆으로 찢어진 입은 크게 벌리고 있으며, 안쪽에는 이를 선각으로 새기면서 양쪽에 긴 송곳니를 만들어 용맹스러운 인상을 더해주고 있다. 머리의 뒷부분에서부터 턱 아래에는 둥글게 뭉쳐진 갈기가 이어져 있는데, 파상형(波狀形)으로 크고 간략하게 나타내고 있다. 목은 큰 얼굴에 비해 짧고, 곡선을 그리면서 볼록하게 만들어 얼굴과 연결되었다.

사자의 등에는 크고 넓적한 장방형의 깔개가 발아래까지 덮고 있으며, 그 둘레를 따라 돋을새김으로 한 단을 높게 새겼다. 사자 등 위에 마련된 편평한 대좌는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크고 넓어서 대좌의 기능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몸 부분은 전체적으로 장방형에 가까우며 엉덩이의 풍부한 양감과 움직임이 돋보인다. 오른쪽 엉덩이는 살짝 위로 튀어나오면서 치켜올라와 있어 사자의 동작에 한층 생동감이 느껴지며, 살집 있는 엉덩이 사이에는 꼬리가 말려있다. 엉덩이와 뒤쪽 다리를 연결하는 사이에 공간을 뚫어 사자의 움직임을 자연스러우면서도 입체적으로 표현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양쪽 앞다리는 다소 경직되어 있는 모습이며 발목 아래부터는 파손되어 네 발 모두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다.

이 상은 전체적으로 큰 얼굴에 익살스럽고 과장된 표정을 가지며, 눈은 크고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다. 신체는 장방형의 공간 내에서 부자연스럽지만 사자의 운동감 있는 모습을 표현하려 하였다. 이러한 해학적이고 과장된 모습들은 조선시대 민화 속에 나타나는 사자의 모습과 공통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이 상의 제작 시기는 조선시대 후기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석사장은 얼굴의 표현수법과 깔개 및 대좌의 형태 등 조선시대 법고대의 형식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호암미술관 소장의 목조법고대(사진 11)의 사자 얼굴은 몸에 비하여 크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양감 있게 조각된 귀와 튀어나올 듯 큼직한 눈, 뭉툭한 코, 크게 벌린 입안에 표현된 날카로운 이 등 노적사 사자상과 거의 흡사하다. 특히 사자의 등에서 발아래까지 깔개가 덮여있으며, 그 위에 대좌를 올려놓은 점으로 미루어 법고대로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호암미술관 소장 목조법고대는 목재인 만큼 섬세하고 정교한 표현이 가능하지만, 노적사 석사자상은 재료의 특성상 정교한 표현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북한산성은 당초에는 토성으로 계획되었으나 주위에 돌이 풍부하여 석성으로 축성되었다.[6] 이러한 것을 볼 때 노적사 석사자상은 승장들에 의해서 북한산성 내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을 이용하여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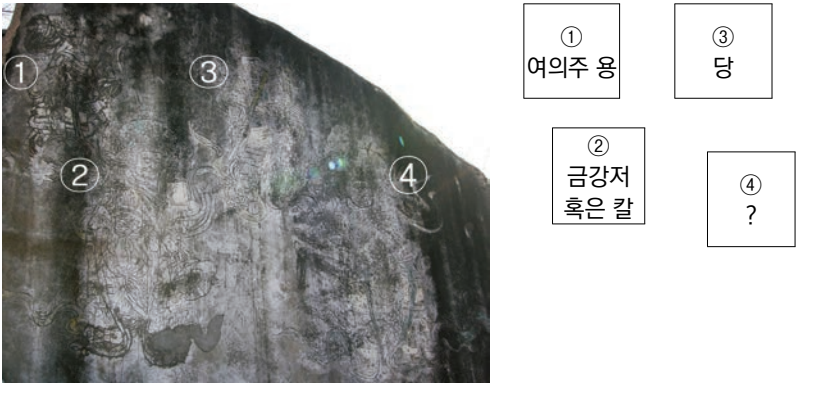
[사진 11] 목조법고대

6) 박언곤, 1996,「북한산성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대한건축학회지』206, 대한건축학회, p.26.

이 상의 대좌에 올려놓았던 것으로 생각되는 법고는 현재 남아 있지 않아 아쉽지만 이 사자상의 과장되고 해학적인 얼굴과 장방형의 몸과 부자연스러운 움직임 등은 조선후기의 민화적인 요소와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조선후기의 중요한 석조법고대 유물이라고 생각된다.

5) 용학사 사천왕상

용학사 내의 화강암 바위에는 4구의 사천왕이 선각되어 있다(사진 12).『北漢山의 佛教遺蹟: 북한산 불교유적 지표조사보고서』에 의하면[7] 1960년대에 들어서 고려시대의 마애선각신장상 위에 시멘트를 덧씌우고 이 사천왕상을 새겼다고 하는데, 현재는 이 시멘트 층 때문에 본래의 사천왕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바위에 사천왕을 조성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불교문화재로서의 의의는 주목할 만하다.



[사진 12] 용학사 암각 사천왕상 및 지물

7) 불교문화재발굴조사단, 1999,『北漢山의 佛教遺蹟: 북한산 불교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일탈기획, p.58~59.

3. 석탑과 부도

1) 태고사 원증국사 탑

태고사는 14세기 후반 원증국사 보우(圓證國師 普愚, 1301~1382)가 창건한 사찰이다. 『북한지』에 의하면, "태고대 아래, 즉 중흥사의 왼쪽 봉우리에 있다. 고려시대 승려 보우가 이곳에 거주하면서 태고라고 이름하였다.… 북한산성 축성 후에 총섭인 성능이 보우의 옛터에 사찰을 지었는데, 무릇 131칸에 이른다."[8]라고 기록되어 있다.

태고사는 능선을 따라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입구에서 2단의 중층 축대를 쌓고 넓은 석계를 마련했다. 이 계단을 오르면 승려가 거주하는 요사가 남향으로 있고, 요사 뒤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대웅전이 서향으로 서 있다. 그 옆에는 고려 말기의 승려인 원증국사 보우의 탑비와 비각이 있으며, 산신각의 왼쪽으로 올라가면 원증국사 탑(보물 제749호, 사진 13)이 있다.



[사진 13] 원증국사 탑



[사진 14] 복원 전 모습

8) 在太古臺下。卽重興寺左峰.高麗僧普愚住此。扁以太古。…… 築城後。總攝僧聖能。卽普愚遺址經紀刱寺。凡一百三十間。(주5 책, p.401)

원증국사 탑은 원증국사 보우의 사리탑이다. 이 탑은 종형의 탑신석과 팔각형 옥개석이 탑신부를 이루고, 보개와 보륜, 복발, 보주가 상륜부를 구성하고 있다. 기단부는 넓은 지대석 위에 방형의 하대석과 팔각형의 중, 상대석으로 이루어졌다. 탑신부의 옥개석과 상륜부의 보개는 일부 파손되어 있지만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현재의 모습은 1980년에 복원된 것으로, 일제강점기의 『조선고적조사보고(朝鮮古蹟調査報告)』에 게재된 사진(사진 14)에는 상대석이 없고 상륜부는 원형의 부재로 이루어져 있어서 현재와는 차이가 있다.

탑신석은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종형으로 표면에 어떤 문양도 새겨 넣지 않았다. 옥개석은 팔각형으로 밑면 중심부에 탑신석과 같은 크기의 낮은 원형 괴임부를 두고, 그 주변에 16엽의 연화문을 돌아가며 배치하고 있다. 옥개석 지붕은 경사가 완만한 편이며, 기왓등이 높고 모서리와 추녀의 처리도 두꺼워 옥개석 전체가 육중하게 느껴진다. 추녀의 끝 부분에는 귀꽃문이 새겨져 있는데, 문양의 두께가 다소 두꺼워 투박하게 보인다. 암막새 부분에는 가늘고 긴 연화문 3엽을 나란히 새겨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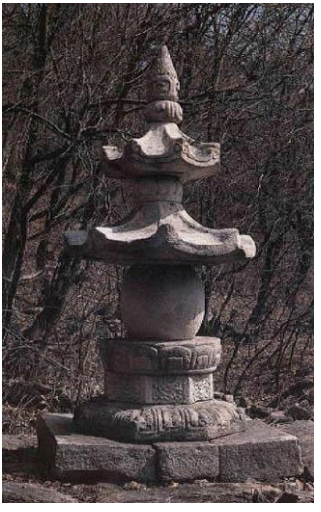
상륜부는 보륜, 보개, 그리고 보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개와 보주 사이에는 받침돌이 있다. 보륜은 고복형(鼓腹形)으로 탑신석과 마찬가지로 표면에 장식문양이 없다. 보개는 크기만 작을 뿐 형태와 문양이 옥개석과 동일하다. 보개의 밑면에는 보륜과 맞닿아 있는 원형 돌출부가 있으나, 보륜의 크기에 비해 작아 불안정하다. 보개 위에는 두 줄의 띠와 4엽의 연화문이 장식된 둥근 받침돌이 있다. 이 부재는 복발로 추정되는데 조각된 문양의 수법이 탑의 다른 부분과 달리 매우 단순하게 다듬어져 있고, 석재의 색도 차이가 난다. 복발 위에는 방형의 기둥이 있고 그 꼭대기에 보주를 올렸다. 기둥의 아랫부분에는 두 줄로 새긴 4엽의 연화문이 조각되어 있고, 보주는 마치 네 개의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화염형 보주의 단순화된 형태로 보인다.

지대석은 사방 각 면에 2매씩, 총 8매의 대석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 크고 작은 균열이 발생한 상태이다. 하대석 측면에는 면마다 우주와 탱주가 모각되었고, 하대석 윗면에는 8엽의 복련 받침을 양각으로 새겨놓았다. 복련 받침의 중심에는 한 단의 괴임을 두어 중대석을 받치고 있다. 중대석은 팔각기둥형으로 모서리마다 둥근 기둥을 세워 각 면의 구획을 분명히 하였고, 구획된 면의 중심부에는 십자형의 큼직한 꽃 문양을 도드라지게 새겼다. 중대석 윗면에는 팔각의 괴임을 두어 상대석을 받치고 있다. 상대석의 모서리 부분에는 2엽의 연화문을 마주 보게 새겨 넣은 다음 그 안을 다시 고사리무늬로 장식하였다. 상대석 윗면의 중심부에는 원형 괴임을 선각으로 새기고 탑신석을 올려놓았다.

원증국사 탑의 탑신석은 종형이지만, 중, 상대석과 옥개석은 팔각형을 취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 부도의 구성을 따르고 있다. 탑의 전반적인 평면이 팔각이며 탑신부가 구형(球形)의 승탑으로는 〈정토사 홍법국사 실상탑(淨土寺弘法國師實相塔), 국보 제102호, 1017년〉, 〈송광사 보조국사 감로탑(松廣寺普照國師甘露塔), 1213년〉, 〈연탄 심원사 부도(燕灘心源寺浮屠), 고려 말기〉가 있다. 하지만 정토사 탑의 경우 탑신부에 십자형의 장식 문양이 보이고 탑신석의 모양도 완전한 구형이기 때문에 종형인 원증국사 탑과는 다르다. 송광사 탑 역시 탑신부가 완전한 구형이며 기단부 전체가 방형으로 구성되어 원증국사 탑과는 차이를 보인다.

반면 심원사 부도(사진 15)는 기단부와 옥개석이 모두 팔각형이며, 탑신도 종형으로 원증국사탑과 구성이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두 탑의 탑신석에 장식 문양이 없다는 공통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고려시대에 조성된 팔각원당형 부도의 탑신석에 문비나 조익형(鳥翼形) 장식, 신장상 또는 보살상 등이 장식되어 있던 점을 고려한다면 탑신석에 장식문양이 없는 것은 오히려 특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원증국사 탑은 보륜의 크기가 탑신에 비해 지나치게 크고 문양이



[사진 15] 심원사 부도

없이 단순한데, 이것은 심원사 부도와 상반된다. 심원사 부도의 보륜은 옥개석 및 보개의 괴임부와 그 크기가 일치하고 있고, 탑 전반에 장식된 연화장식과 유사한 문양이 보륜을 감싸고 있다. 하지만 원증국사 탑의 경우 보륜의 크기가 옥개석과 보개의 괴임부 뿐만 아니라 탑 전체 규모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현재 탑에 삽입되어 있는 보륜이 처음부터 이 탑의 석재로 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원증국사 탑에서 복발석으로 추정되는 보주 받침돌은 조각 수법과 석재의 재질에서 다른 부재들과 차이가 나타난다. 복발석에 조각된 연화 장식은 이 탑의 다른 부재에서 볼 수 있는 문양새김의 방식과는 달리 얕은 선각으로 입체감 없이 조각되어 있고, 석재의 색 역시 다른 석재들과 다르다. 이러한 점은 후대에 간단하게 복원해 삽입했거나 혹은 다른 조형물의 부재가 잘못 삽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증국사 탑은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한 팔각원당형 승탑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고려시대 후반의 투박하고 단순한 조형미를 지니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으며, 그 제작시기는 태고사 원증국사탑비(보물 제611호)가 건립된 고려 우왕 11년(1385)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태고사 원증국사 탑비

대웅전 왼쪽에는 1979년에 세운 목조 비각이 있고, 이 비각 내에 원증국사 탑비(보물 제611호, 1385년)가 안치되어 있다. 탑비에는

원증국사의 출생에서부터 입적에 이르는 내력이 적혀 있는데, 이색(李穡)이 비문을 지었으며 권주(權鑄)가 그 내용을 새겼다.

원증국사 탑비(사진 16)는 전체 높이 3.4m, 비신 높이 2.25m, 너비 1.05m로 규모가 큰 편이며, 장방형의 지대석 위에 귀부(龜趺)를 놓고 비신을 세웠으며, 그 위에는 이수를 얹었다. 이러한 형식의 탑비는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서면서 중국 당나라 석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는데 한국 석비 양식의 전형을 이루면서 후대로 계승되었다.



[사진 16] 원증국사 탑비

귀부에는 6각의 귀갑무늬가 얕은 음각선으로 새겨져 있다. 통일신라시대 전기에는 직육각형에 가까운 귀갑문을 여러 겹으로 중첩시켜 표현하였으나 점차 5각형, 6각형, 중곽 6각형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심지어 6각의 귀갑문 내에 화문을 배치하여 장식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고려시대 탑비에서 귀갑문 내부를 화문(花紋), 왕자문(王子紋), 만자문(卍字紋) 등을 추가하여 장식하는 경향으로 계승되었다. 그러나 고려시대 말기에 조성된 원증국사 탑비에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고, 귀갑문마저도 형식화되어 표현되어 있다.

원증국사 탑비의 귀두(龜頭)는 직립한 용두형(龍頭形)으로 동그랗게 튀어나온 두 눈과 눈의 뒤쪽으로 귀가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살짝 벌린 입술 사이로 사각형의 앞니가 노출되어 있고 측면에는 아래위 하나씩 송곳니가 표현되어 있다. 코는 훼손되어 남아 있지 않다. 귀두의 용두화는 통일신라시대 후기에 나타난다. 이 시기에 귀두도

목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앙형(仰形)에서 직립한 형태로 변하며, 시선도 정면을 응시한다. 또한 입안에 여의주를 물거나 뿔과 운문, 조익형(鳥翼形)의 큰 귀 등 장식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어 고려시대까지 계승된다. 하지만 원증국사 탑비에서 귀두의 이목구비는 형식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장식적인 문양도 나타나지 않는다.

귀부의 중심부에는 직사각형의 두터운 비좌를 마련하여 비신을 세웠으며, 비신의 상단에는 이수가 올려져 있고, 이수 밑면에 있는 한 단의 돌출부에 비신이 끼워져 있다. 이수 하단에는 앙련무늬가 규칙적으로 돌려져 있으며, 측면은 운룡문(雲龍文)을 조각하여 꾸미고 있다. 통일신라시대 후기의 탑비에서는 비좌를 높게 마련하고 운문과 연화문을 중심으로 당초문이나 화문 등을 표현하여 장식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원증국사 탑비의 비좌는 문양이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 높이도 낮다. 또한 통일신라시대 이후 화려하고 볼륨감 있게 조성되었던 이수의 운룡문도 원증국사 탑비에서는 매우 형식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탑비는 통일신라시대 후기의 양식을 답습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형식적이고 퇴화된 조각수법이 나타난다. 고려 말기가 되면 귀부와 이수의 형식이 단순화되고, 높은 대석을 가진 비좌와 지붕형 이수를 갖는 탑비 형식이 등장한다. 그 사례로서 경기 수원 〈창성사 진각국사 탑비(彰聖寺眞覺國師塔碑), 보물 제14호, 1386년〉, 경북 칠곡〈선봉사 대각국사비(僊鳳寺大覺國師碑), 보물 제251호, 고려 말기〉, 개성시 개풍군 해선리 〈광통 보제선사비(廣通普濟禪師碑), 북한 국보 제152호, 1377년〉를 들 수 있다. 이 탑비들과 원증국사 탑비를 비교해 보면, 장식문양이 형식화되었다는 유사점은 있으나 원증국사 탑비에서는 여전히 귀부 위에 비신과 이수가 올려진 형식인 반면, 다른 탑비들은 귀부를 대석으로 교체하였다. 이수의 형식도 원증국사 비의 경우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이수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나머지 세 탑비들은 목조건물의 지붕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원증국사 탑비는 통

일신라시대 양식이 퇴화된 고려시대 말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3) 봉성암 전 성능대사부도

봉성암(奉聖庵)은 『북한지』에 "봉성암은 구암봉 아래에 위치하고, 25칸이며, 승려 성능이 창건하였다"라고 소개되어 있다.[9] 숙종 때 북한산성 축성 당시 산성의 수호를 위한 승군을 거주시키기 위하여 창건한 11개 절 중의 하나였다. 철종 11년(1860)의 중수 때에 보담(寶曇)이 쓴 상량문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승려들이 머물렀으며, 많은 수의 신도를 가지고 있었던 절임을 알 수 있다.



[사진 17] 봉성암 전 성능대사 부도(측면)

봉성암의 부도는 대웅전 좌측 언덕 위에 위치하는데, 북한산성을 축성한 성능의 묘탑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탑(사진 17)은 팔각형의

9) 左龜巖峰下。二十五間。僧性能所刱。(주5 책, p.402)

탑신석과 옥개석이 탑신부를 이루고, 원기둥 모양의 석재가 상륜부를 구성하고 있다. 탑의 가장 아랫부분인 기단부는 방형의 지대석과 하대석, 원형 중대석, 그리고 팔각형의 상대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옥개석의 일부가 파손되어 있으나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정면에는 예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방형의 석재가 놓여있다.

탑신부를 구성하고 있는 탑신석과 옥개석은 모두 팔각형이며, 탑신석에는 문양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옥개석 하부는 낮게 경사져 있으며 중심부에 3단의 낮은 옥개받침을 마련하였다. 옥개석 지붕의 곡선은 완만하며, 모서리와 추녀는 두껍게 처리하였다. 추녀 끝부분에는 귀꽃문으로 장식하였으나 단순화된 선으로 매우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다.

상륜부는 하나의 석재로 이루어져 구성이 단순하며, 문양이 거의 없다. 옥개석 중앙부에서 보륜으로 보이는 고복형(鼓腹形)의 석재가 두 단으로 새겨져 있으며, 두 석재 중 아래에 있는 보륜의 크기가 조금 더 크다. 그 위에는 낮은 음각선으로 새긴 앙련장식을 두른 보주석이 있다.

지대석은 탑의 정면부가 가장 길고, 다음으로 양 측면이 동일하며 탑의 후면부의 길이가 가장 짧다. 기단부의 상, 중, 하대석은 각각 방형, 원형, 팔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양이 새겨져 있지 않다. 하대석의 윗면에는 폭이 두꺼운 원형의 단이 있고, 중심부에 괴임을 만들어 중대석을 올려놓았다. 하대석 측면 상단에는 한 줄의 음각선이 둘려져 있고, 그 선을 기준으로 모서리의 윗부분을 모줄임하였다. 상대석 하부는 낮은 경사로 기울어져 있으며 중앙부에서 두 단의 받침을 형성하고 있다. 상대석의 측면 하단에는 하대석과 마찬가지로 한 줄의 선이 새겨져 있다.

이 부도의 지대석과 하대석은 방형인 반면 상대석과 탑신부는 팔각형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팔각원당형 부도의 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부도 중 이와 유사한 형식

을 보이고 있는 사례로서 태조 7년(1398)에 조성된 〈용문사 정지국사 부도(龍門寺正智國師浮屠), 사진 18, 보물 제231호, 1398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용문사 부도의 경우 전 성능대사 부도와는 달리 상대석과 하대석이 연꽃문양으로 장식되어 있고, 비록 한 면뿐이지만 탑신석에 문비가 조각되어 있는 등 이전 시기의 부도들이 보여준 장식적인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



[사진 18] 용문사 정지국사 부도

조선시대 전기에 조성된 부도들은 고려시대의 양식과 수법을 그대로 계승하지만, 15세기 후반에 이르면 점차적으로 각 부분에서 장식적인 요소들이 생략되는 경향을 보인다. 조성시기가 18세기 후반으로 추측되고 있는 성능대사 부도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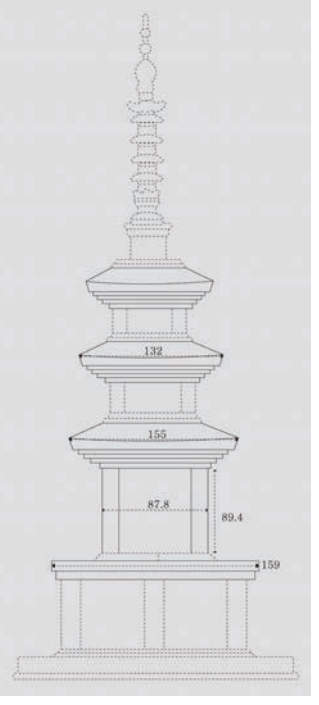
4) 용암사지 석탑

중흥사지 왼쪽의 등산로를 따라 20여 분 오르면 북한산장과 공터가 있는데 그곳이 용암사지이다. 현재 사찰의 흔적은 전혀 남아 있지

않고, 그 자리에 등산객을 위한 대피소와 쉼터가 설치되어 있다.

『북한지』에 의하면, "용암사는 일출봉(日出峰) 아래에 있는데 87칸이다. 북한산성을 축성한 후에 창건하였다."[10]라고 전한다. 용암사는 용암문 수비를 위한 목적으로 창건되어 승병들의 훈련장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승병을 강제 해산한 갑오개혁(1894) 때에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대피소 동쪽 울타리 안에 석탑의 기단석 1개와 옥개석 2개, 탑신석 1개가 남아 있으며, 산장 밑의 야영장에도 옥개석 1개가 남아 있다.

대피소 동쪽 울타리 안에 있는 탑신석의 크기는 높이 89.4cm이며, 변의 길이는 87.8×85.4cm이다. 네 모서리에는 사각의 기둥이 모각되어 있고 윗면의 중앙부에는 지름 21.1cm의 사리공이 있다. 기단석은 한 변의 길이가 159cm에 이르는 정사각형의 판석으로 윗면에 두 단의 탑신괴임이 마련되어 있다. 갑석 아래에는 옥개석 1개가 깔려있는데 한쪽 모서리 부분이 부서져 있다. 이 옥개석의 한 변의 길이는 155.1cm이고 4단의 옥개받침이 있으며 상단에는 두 단으로 된 탑신괴임이 있다. 작은 크기의 다른 옥개석은 한 변이 132cm이며, 그 하단에는 4단의 옥개받침이 있다. 또 소형 옥개석은 한 변이 57cm로 두께가 두껍고 낙수면의 경사가 심한 편이다. 이 옥개석의 두께로 미루어 보아 별개의 석탑 부재



〈그림 1〉 용암사지 탑 복원도

10) 在日出峯下。八十七間。以下並築城後所刱。(주5 책, p.400)

로 추정된다.

남아 있는 부재들의 특징을 보면 용암사지 탑은 옥개석에 4단의 받침이 있고, 갑석은 1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경주 남산 용장골 삼층석탑(茸長谷三層石塔), 보물 제186호〉이나 전남 해남 〈대흥사 응진전 앞 삼층석탑(大興寺應眞殿前三層石塔, 보물 제320호)〉, 〈창녕 퇴천삼층석탑(兎川三層石塔), 경남 유형문화재 제10호〉 등 9세기경의 통일신라시대 석탑과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용암사지 탑은 9세기 양식을 모범으로 하여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근거로 〈그림 1〉의 복원안을 마련하였다.

4. 공예

1) 중흥사 반자

중흥사는 북한산성 내 장군봉과 구암봉 사이에 위치하였던 사찰이다. 중흥사의 금고(金鼓, 1103년)와 향완(香垸, 1344년)이 남아 있고, 원증국사 탑비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사는 12세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창건시기는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다. 『북한지』에 의하면, 중흥사는 본래 30칸 규모의 작은 사찰이었지만, 북한산성이 완성된 1715년에 증축하여 136칸이 되었다고 전하므로[11] 조선시대 후기에는 상당한 세력을 지니고 있던 것으로 추측된다.

중흥사 반자(重興寺 鈑子)(사진 19)는 현재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명문에 의하면 고려 숙종 8년(1103)에 승려 승윤(承鈗)이 발원하고 노진(盧珍)이 만들었다고 한다. 크기는 지름 35.7cm, 너비 8cm, 글자 크기 1.5cm이며, 일반적인 형태의 청동 금고(靑銅金鼓)이다.

---

11) 在登岸峰下。古寺只有三十餘間。及築城後。增建爲一百三十六間。(주5 책, p.400)



[사진 19] 중흥사 반자

표면에는 중앙에 연꽃 모양의 자방이 있으며, 그 주위에 8엽의 연화를 장식하고, 그 바깥은 굵고 도드라진 선으로 구획하여 내구와 외구를 나누었다. 내구는 문양이 없으며, 외구에는 와운문(渦雲文)을 3곳에 양각으로 주출하였다. 측면에는 명문이 해서체로 1행 새겨져 있다.[12]

2) 중흥사 향로



[사진 20] 중흥사 향로

중흥사 향로(사진 20, 보물 제321호)는 봉은사(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장이며, 현재 동국대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다. 명문에 의하면 고려 충혜왕 복위 5년(1344년, 至正 4년)에 채하중(蔡河中) 등이 발원하여 향로를 만들어 삼각산 중흥사 대전에 봉헌하였다고 한다. 크기는 높이 34.2cm, 윗지름 48.5cm, 밑지름 22.7cm이다.

12) 三角山重興寺鈑子入重十五棟梁僧承鈗」乾統三年癸未二月日造大匠盧玠謹記」

명문에는 향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구연이 밖으로 벌어지면서 넓은 전이 달린 몸체와 아래로 가면서 나팔형으로 벌어진 받침을 갖고 있는 고배(高杯) 형식은 향완(香垸)이라고 구분하여 사용한다.

몸체와 다리 부분을 따로 주조하여 결합시켜 만들었으며, 몸체에는 폭이 넓은 구연을 달았고, 아랫부분에는 1단의 받침을 마련하여, 전체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자아낸다. 몸체의 중앙에는 원으로 구획을 마련하여 그 안에 범자(梵字)를 새겼으며, 그 주위에는 연꽃무늬를 비롯한 각종 무늬 등을 은입사(銀入絲) 기법을 이용하여 장식하였다. 몸체의 아랫부분과 받침의 윗부분에는 연꽃을 큼직하게 표현하여 섬세한 식물문양과 대비되도록 하였다. 명문은 구연부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103자가 해서체로 새겨져 있다.[13]

5. 맺음말

북한산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었지만, 대한제국 말기에서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피폐해진 결과 현존하는 불교문화재는 많지 않다. 본고에서는 북한산성 내에 현존하는 불교문화재를 불상과 석탑을 중심으로 개관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그 역사적 미술사적 의의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불상의 경우, 상운사 천불전의 아미타불좌상과 좌협시보살상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조각승 진열의 활동범위가 서울까지 이르렀던 사실을 알려주며, 또 그 조성시기가 숙종 때의 북한산성 축성과 맞물려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축성과 관련하여 전국

13) 至正四年五月日敬造靑銅縷銀香爐一座奉獻于三角山重」興寺大殿佛前將此功德用祝皇帝萬歲國王千秋天下太平」同願僉議政承蔡河中午山郡夫人梁氏徹明勸善比丘悟如」眞悟戒瑚縷手中郎將金卿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群生皆共成佛道」

에서 승려들이 동원되면서 진열과 그의 그룹이 서울지역까지 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어서 탑은 태고사의 원증국사 탑과 탑비가 고려시대 후기 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만하며, 봉성암 전 성능대사 부도는 통일신라시대 이후 유행하였던 팔각원당형 부도가 조선시대 후기까지 계승되어온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용암사 석탑은 비록 단편만 남아 있지만, 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복원안을 마련하였으며, 통일신라시대의 북한산성 지역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로써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흥사의 반자와 향로는 현재 타 기관과 사찰에 소장되어 있으나, 고려시대의 발달하였던 북한산성의 불교미술을 여실히 보여주는 바, 반자는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써, 향로는 완형을 잘 보존하는 작품으로써 그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산성 내의 불교문화재는 사라지고 없어져서 현존하는 것은 비록 많지 않지만 통일신라에서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기까지 시대적으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고려시대의 미술품은 예술성과 조형성이 우수하여 고려시대 미술의 귀족적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전략적 요충지를 지키는 승군들의 민간신앙적 성격을 포함하는 미술품도 제작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약 1,000년에 걸친 한반도 중부권의 불교미술과 신앙의 역사를 깊고 험한 산성 안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산성 내의 불교문화재가 지니는 가치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참고문헌

〈단행본〉

國立文化財硏究所, 1997,『北韓文化財解說集Ⅰ, 石造物篇』.
김윤우, 1995,『북한산 역사지리: 增補譯註 北漢誌』, 범우사.
김태곤, 2003,『한국무신도』, 열화당.
문명대, 2003,『삼매와 평담미』, 예경.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06,『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광주광역시·전라남도』Ⅰ, Ⅱ, Ⅲ, 크레파스.
_____, 2008,『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경상북도Ⅱ』, 일탈기획.
_____, 2009,『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경상남도Ⅰ』, 일탈기획.
_____, 2012,『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인천광역시/경기도 1』, (주)조계종출판사.
박경식, 2008,『한국의 탑』, 학연문화사.
박찬수, 1995,『불교 목공예』, 대원사.
불교문화재발굴조사단, 1999,『北漢山의 佛教遺蹟: 북한산 불교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일탈기획.
불교문화재연구소, 2010,『韓國의 寺址: 사지(폐사지)현황조사보고서』, 문화재청.
서울大學校博物館, 1991,『北漢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城郭과 城內部』.
聖寶文化財硏究院, 2000,『韓國의 佛畵』21.
엄기표, 2003,『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이대암, 2005,『사천왕』, 한길아트.
이병두, 2010,『북한산성과 팔도사찰』, 대한불교진흥원.
이지관, 2000,『韓國高僧碑文總集』, 伽山佛教文化硏究院.
정영호, 1995,『부도』, 대원사.
_____, 1995,『석탑』, 대원사.
_____, 1998,『한국의 석조미술: 한국의 탐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朝鮮古書刊行會, 1910,『八域誌. 四郡志. 北漢誌. 郡縣 沿革表. 京都雜誌. 東京雜記』.
최선일, 2009,『17세기 彫刻僧과 佛像 硏究』, 한국연구원, 2009.
홍태한, 박우택, 2008,『한국의 무신도』, 민속원.

〈논문〉

김춘실, 2009,「충청북도 제천·단양 지역의 朝鮮 後期 木造佛像」,『미술사연구』23, 미술사연구회.
노미경, 2005,「고려후기 승탑 연구(高麗後期 僧塔 硏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명신, 1994,「朝鮮後期 四天王像에 대한 考察」,『美術史學硏究』202, 한국미술사학회.
문명대, 2011,「조선전반기 불상 조각의 도상해석학적 연구」,『강좌 미술사』36, 한국미술사연구소.
문현순, 2002,「朝鮮初期 菩薩像의 寶冠 硏究」,『미술사연구』16, 미술사연구회.
박상준, 2007,「新羅下代 塔碑 硏究」,『강좌 미술사』29, 한국미술사연구소.
박언곤, 1996,「북한산성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대한건축학회지』206, 대한건축학회.
박은경, 한정호, 2010,「사천왕상 배치형식의 변화 원리와 조선시대 사천왕 명칭」,『미술사논단』30, 한국미술연구소.
송영아, 천득염, 2005,「통일신라 후기 석탑의 비례체계 연구 - 금둔사지 3층 석탑을 중심으로」,『건축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발표대회 논문집』25, 건축학회.
송은석, 2007,「17세기 朝鮮王朝의 彫刻僧과 佛像」,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08,「조선 17세기 彫刻僧 유파의 합동작업」,『美術史學』22, 한국미술사교육학회.
엄기표, 2000,「新羅塔碑의 樣式과 造型的 意義」,『문화사학』14, 한국문화사학회.
이현희, 2000,「偏衫 着衣法 硏究」,『문물연구』4, 동아시아문물연구재단.
이호관, 2002,「한국 석비 양식의 변천,『국학연구』1, 한국국학진흥원.
임영애, 2010,「조선시대 사천왕상 존명의 변화」,『美術史學硏究』265, 한국미술사학회.
최선일, 2004,「高陽 祥雲寺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과 彫刻僧 進悅」,『美術史學硏究』244, 미술사연구회.
_____, 2009,「朝鮮 後期 彫刻僧과 佛像樣式의 변천」,『美術史學硏究』261, 한국미술사학회.

北漢山城
연구 논문집
13

선정비 아래의 그늘

조선후기 사회와 북한산성

조윤민*

1. 선정(善政)과 악정(惡政) • 393
2. 북한산성 군량미, 환곡, 국가의 고리대 • 395
3. 주관부처와 고위관료의 축재 • 400
4. 의승(義僧)과 총섭(總攝)의 폐단 • 403
5. 성곽관리의 문란과 군사훈련 부실 • 409
6. 선비의 풍류, 백성의 눈물 • 412
참고문헌 • 414

* 다큐멘터리 작가
『성과 왕국 – 북한산성이 전하는 스물여섯 가지 한국사 이야기』, 『두 얼굴의 조선사』 저자

1. 선정(善政)과 악정(惡政)

북한산성 가운데 지역에 자리한 산영루와 그 주변은 북한산에서 가장 운치 있는 절경 중 한 곳으로 꼽힌다. 1779년 초여름, 북한산성 유람에 나선 문인관료 이엽(李燁, 1729~1788)과 유광천(柳匡天, 1732~1799)은 산영루 계곡의 풍광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다.

> 맑은 여울이 돌아 흐르는 곳에 우뚝 선 붉은 누각은 바로 산영루였다. 아로새긴 난간이 시내에 잠겨 석양에 붉은 물결 일렁이고, 숲에 이내가 자욱하여 푸른빛이 성긴 창으로 떨어진다.
>
> — 유광천, 「유삼각산기遊三角山記」『귀락와집歸樂窩集』

> 폭포 가운데 다가가니, 맑은 여울물이 누각 주춧돌에 부딪쳐 쏟아져 날리는 물줄기와 흩뿌리는 물방물이 마치 옥이 부서져 날리는 듯하고 거문고 소리가 울리는 듯했다.
>
> — 이엽, 「북한도봉산유기北漢道峯山遊記『농은집農隱集』

한때 조선 선비의 풍류를 품었던 이 산영루 계곡의 경사지에는 수십 기의 비석이 남아 전한다. 백성을 어질게 다스린 벼슬아치를 기리기 위해 세운 선정비(善政碑)로 북한산성 관리책임자의 치세를 전하는 28기의 비석들이다. 이들의 치적이 어질고 공평무사했다고 후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찾는 산영루 계곡이 최적의 공간이었으리라.

선정비는 모두 19세기에 세운 비석으로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애민선정비(愛民善政碑),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란 유사한 성격의 이름을 달고 있다. 하지만 선정비 당사자의 이력을 보면 그 면면이 상당히 다양하다.

세도정치기를 주름 잡았던 고위 관직자들이 우선 눈에 띈다. 철종(哲宗, 재위 1849~1863) 대에 안동 김씨 세도정치를 이끌었던 김병기(金炳冀)는 1855년에 북한산성 최고 책임자인 총융사 직임을 맡았

다.[1] 철종의 장인으로 세도정치의 일익을 담당한 김문근(金汶根)은 이듬해인 1856년에 총융사로 발탁됐다. 민씨 세도기를 이끈 민겸호(閔謙鎬)는 1879년에 당시 북한산성 관리를 맡은 무위소의 도통사를 제수받았다. 신식군대인 별기군 창설의 주역이기도 한 그는 하급 군인들이 일으킨 임오군란의 와중에 피살되는 운명을 맞는다. 선정비의 또 다른 주인공인 민영준(閔泳駿)은 1891년에 북한산성 책임자로 임명돼 성곽을 보수한 공로로 승진했는데, 동학농민전쟁 시에는 청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는 주역이었다. 황현(黃玹)이 지은 『매천야록』에는 민영준을 "정권을 훔쳐 농간을 부리며 임금을 속이고 백성을 못살게 굴었다"고 평가해 놓았다. 변신을 거듭한 민영준은 뒷날 친일파의 앞잡이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다섯 번에 걸쳐 북한산성 최고 관리자를 역임한 특이한 이력의 선정비 당사자도 눈길을 끈다. 19세기 전반에 활동한 이유수(李惟秀)는 1829년에 북한산성 최고 관리자인 총융사에 임명되지만 이듬해 업무태만으로 파면당한다. 그런데도 이후 네 번이나 더 총융사를 맡는다. 그러다 1847년에 금위영의 재물 관리를 소홀히 한 죄로 다시 파면당한다.[2]

물론 선정비에 어울리는 이력을 가진 책임자가 없지는 않다. 1866년에 총융사 직임을 맡은 신명순(申命淳)은 1826년에 함흥부사가 된 이후 빈민을 구제하고 엄정한 행정을 펼쳐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 이규원(李奎遠)은 1881년 울릉도검찰사로 섬을 시찰한 후 울릉도의 중요성을 임금에게 알린 인물이다. 1883년엔 총융사에 임명됐다. 황현은『매천야록』에서 이규원을 재주 있는 청렴결백한 관리라 평해 놓았다. "벼슬을 마치고 돌아온 날은 으레 저녁부터 꾸어 먹었고, 정해진 집이 없어 가는 곳마다 세 들어 살며 옮겨 다녔다"고 했다.

---

1) 북한산성선정비에 대한 사실 자료는 다음을 참고했다; 김성태 외, 2014,「북한산성 내 관영건물지와 금석문」『북한산성의 역사와 문화유적』, 경기문화재연구원, 70~92쪽.

2) 『헌종실록』 권14, 헌종 13년(1847) 7월 5일 기사 참고.

북한산성 최고 관료라는 직임과 성격을 달리하는 비석도 한 기가 전해온다. 도총섭성능영세불망비(都摠攝性能永世不忘碑)라 새긴 암벽 비석이 그것으로 북한산성 축성에 기여하고, 성곽 수비를 맡은 승군(僧軍)을 통솔한 승려 성능(性能)의 공적을 기리고 있다. 성능은 과연 공덕을 널리 베푼 승려로만 역사에 남아 있을까?

선정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조선시대 당시부터, 명예를 위해 거짓으로 비를 세우거나 아랫사람에게 뇌물을 주어 비를 세우게 한다는 비난에 가까운 평가가 있어 왔다.[3] 선정비 자체가 가렴주구의 수단이 된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그렇다 해도 선정비는 없어지지 않았고, 일정 부분 사실을 담보하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북한산성의 관리를 맡은 책임자들은 정책과 제도를 정하고 집행한 핵심 관료이자 권신이었다. 백성을 통치한 지배세력의 중추이자 조선후기 사회의 명암(明暗)을 엮어간 세력가였다. 이들의 행적에 공과(功過)가 있듯이 이들이 관리한 북한산성의 역사에서도 시비(是非)를 찾을 수 있다. 북한산성의 역사에서 찾아낸 이 시비로 지배층이 만들어낸 조선후기 사회의 명암의 한 단면을 깊게 응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명과 공과 시에 대해서는 이미 조명이 있었던 터, 이제 선정비 너머나 그 아래에 묻힌, 북한산성이 전하는 어두운 그늘에 대해서도 시선을 던져보자.

2. 북한산성 군량미, 환곡, 국가의 고리대

북한산성의 군향(軍餉) 폐단이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경종(景宗) 2년인 1722년 10월,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지난 4월에 이

3) 선정비에 대한 조선시대의 비판적 시각은 다음 자료에서 재인용; 임용한, 2007,「조선후기 수령 선정비의 분석」『한국사학보』 제26호, 고려사학회, 172쪽.

어 다시 북한산성의 군향 관리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산성 창고에 보관하는 군량미를 인근 고을에 환곡으로 대여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폐해가 심했다.

>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아뢰었다. (…) "빌린 곡식을 운반해 납부할 경우, 환곡 관리를 주관하는 하인배들이 정해진 수량보다 더 많이 받아들이는 비리를 일삼으니, 1곡(斛)을 납부하는 데 반 곡(半斛)의 쌀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4] 이전에 거두어들여 보관한 쌀은 군향이라는 핑계로 여러 해를 그대로 넘기니 부패한 쌀이 반이 넘습니다. 군향의 양 또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 —『경종실록』 권10, 경종 2년(1722년) 10월 10일

북한산성의 군량미는 산성 내에 있는 일곱 곳의 창고와 산성 아래쪽 세검정 지역에 설치한 평창(平倉)에 나누어 보관했다. 이 곡식을 매년 봄에 인근 경기 지역 주민에게 대여했다가 가을에 햇곡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군향을 관리했다. 10만 석을 비축 기준으로 삼았지만 실제 보관된 양은 그에 못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매년 2만 석을 고을에 나누어주어 5년에 한 번씩 새 군량미로 바꾼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가을에 곡물을 거둬들일 때는 규정에 따라 10%의 이자를 곡식으로 덧붙여 받았다.

민폐를 일으키는 고리가 바로 이 이자곡에 있었으니, 이를 챙기기 위해 비리와 부정부패가 자행됐다. 군향을 직접 다루는 하급 관리뿐 아니라 이들을 감독해야 할 현장의 관리책임자인 관성장(管城將)도 예외가 아니었다.

> 사헌부에서 아뢰었다. (…) "북한산성 관성장인 윤정주(尹廷舟)는 요물·천류로서 권흉을 섬겨 이 직임에 임명될 수 있었는데, 임용 뒤

4) 『조선왕조실록』에서 인용한 문장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번역본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문맥 이해를 위해 일부 단어와 어구를 수정했다. 이하 『비변사등록』도 이와 동일하다.

10년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곡을 받아들일 때 가혹하게 거두며 함부로 곤장을 쳐서 약한 백성에게 해악을 끼치니 백성을 위해 이 인물을 시급히 제거해야 합니다."

—『경종실록』 권7, 경종 2년(1722년) 4월 23일

북한산성 최고 책임자인 총융사도 군향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조(正祖) 1년인 1777년에 총융사를 지낸 이주국(李柱國)은 규정량에 모자라는 군향을 9개월 동안이나 방치해 파직당한다.[5] 이주국은 4년 뒤 다시 총융사 직임을 맡는데, 이번에도 향곡을 축내 삭탈관직에 처해진다.[6] 그는 10여 년 뒤에도 북한산성 환곡 관리를 소홀히 해 관직에서 물러난다.

임금이 전교했다. (…) "이주국은 허위 문서를 꾸며 횡령한 환곡의 수량이 신해년(1791년)과 임자년(1792년)의 두 해에 가장 많았으니 살피지 못한 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정조실록』 권39, 정조 18년(1794년) 1월 9일

조선시대 관리에게는 녹봉이 충분히 지급되지 않거나 아예 없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시기에 관리가 저지르는 비리는 그 정도가 심하고 지속적이었다. 폐단 또한 심각했다. 북한산성에서는 군량미를 둘러싸고 고위 관리에서 하급 관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관직자가 이익을 챙겼다. 그 과정에서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가 동원됐다.

총융사 정민시(鄭民始)가 아뢰었다. "북한산성의 환곡 폐단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합니다. 대여한 환곡을 가을에 거둬들이지 않고 해마다 그에 대한 이자만을 받아들이는 일[와환臥還], 환곡을 빼내어 유용하고 허위 문서를 꾸미는 일[반질反秩], 사사로이 나눠주는 일[사분私分],

5) 『정조실록』 권3, 정조 1년(1777년) 6월 1일 기사 참고.

6) 『정조실록』 권13, 정조 6년(1782년) 1월 19일 기사 참고.

> 따로 나누지 않고 한데 합쳐서 받아가는 일[도수都受], 남의 환곡을 대신 바치고 그 대가를 불려 받는 일[방납防納],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 주는 일[이시移施], 남을 시켜 대신 받는 일[대점代點], 허위 장부를 꾸며 횡령하는 일[허포虛逋] 등 모든 폐단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
> —『정조실록』 권39, 정조 18년(1794년) 1월 9일

군향 비리는 북한산성만의 폐단이 아니었다. 군량미를 비축해야 하는 남한산성에서도 북한산성과 유사한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었다. 영조(英祖) 1년인 1725년 9월, 당시 좌의정 민진원(閔鎭遠)은 어전회의에서 남한산성의 군향이 본래 13만 석이었는데 지금은 겨우 3만 석만 남았다고 개탄한다.[7] 해마다 받아들이는 환곡미가 수만 석이 되어야 하는데, 거짓으로 꾸며 문서로만 규정량이라 기록할 뿐 실제 군향 비축량은 극히 적다는 것이다.

환곡 폐해는 군영만이 아니라 호조와 상평청, 진휼청 등 일반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곡에서도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관료의 비리가 마치 정상적인 행정조치이자 부세수취 행위로 여겨질 정도였다.

> 호남 이정사(釐正使) 이성중(李成中)이 문서로 보고했다. (…) "동복 고을과 옥과 고을은 민호(民戶)가 겨우 1, 2천인데 환곡은 2만 석이 넘으니 한 집에서 받아 낸 것이 거의 수십 석에 달합니다. 고을 사람들이 이 때문에 시름하고 원망하여 고향을 떠나 흩어집니다."
>
> —『영조실록』 권81, 영조 30년(1754년) 4월 29일

환곡제도는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민생정책으로 출발했지만 점차 지배층의 수탈제도로 변해갔다. 덧붙여 받는 곡식인 모곡(耗穀)을 국가재정으로 활용하면서 환곡은 구휼 기능보다 이 모곡을 늘리는 대부 기능에 치중하게 된다. 18세기에는 거의 모든 관아에서 높은 이자

---

7) 『비변사등록』 78책, 영조 1년(1725년) 9월 7일 기사 참고.

를 붙여 곡식을 대여했는데, 심할 경우엔 이자가 빌린 곡식의 두 배가 되기도 했다. 환곡은 국가에서 공공연히 행하는 고리대나 다름없었다. 북한산성의 군향 관리 실상은 이런 조선사회의 비참한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거기에 북한산성의 군향은 운반의 고통까지 더했다. 빌려 쓴 환곡을 갚기 위해 산성 내에 위치한 창고까지 곡물을 옮겨 날라야 했는데, 길이 험하고 멀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북한산성 향곡 이송은 다른 향곡에 비해 두세 배의 노고가 든다고 보았다. 중앙의 관료들도 북한산성 운영 초기부터 이런 폐단을 인정하고 있던 터였다.

> **지평(持平) 황규하(黃奎河)가 상소했다. (…) "군량을 환곡으로 주고 거두어들이는 데 있어 백성이 도로에서 너무 많은 힘을 허비합니다. 본래의 조곡 이외에도 모곡까지 운반해야 하기에, 환곡을 받고 싶어 하는 백성이 없고 원망하는 소리만 길에 가득합니다."**
>
> **—『숙종실록』 권56, 숙종 41년(1715년) 7월 15일**

북한산성 인근의 지방관은 곡식 운반의 어려움을 들어 북한산성 군향을 지역 자체에 유치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며, 실제로 인근 읍인 양주, 고양 등의 관아 창고에 군향을 보관해 활용하기도 했다. 군향을 번번이 지역 고을에 보관하기를 청하고 갚지 않아 산성 비축분이 크게 줄어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8)]

북한산성 군향은 19세기에 들어서도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이 시기는 세도정치로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사회 혼란이 더해갔으며 백성의 삶은 한층 피폐해지던 때였다. 전정·군정·환곡의 삼정 문란으로 대표되는 지배층의 극악한 수탈과 함께 북한산성의 군향 관리도 폐해를 더해갔다. 군향 보관은 부실했고 관리들은 온갖 부정으로 군량미를 빼돌렸다. 철종 9년인 1858년 가을에 북한산성을 찾은 문인 양의

8) 『비변사등록』 78책, 영조 1년(1725년) 9월 27일 기사 참고; 『영조실록』 권49, 영조 15년(1739년) 3월 3일 기사 참고.

영(梁宜永, 1816~1870)은 산성 내 창고 실태를 이렇게 전한다.

> 부지런히 북한산성을 지켜왔는데, 근래에는 창고 곡식을 관리가 포흠해 남아 있는 곡식이 겨우 백분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
> — 양의영, 「유북한기遊北漢記」『죽파유집竹坡遺集』

>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 "경기감사(京畿監司) 유치선(兪致善)의 보고를 보니, '북한산성의 군량미로 고양에 보관한 2,000석(石) 가운데 유랑민 출신의 주민이 포흠한 곡식이 138석이며, 관아의 서리 조봉엽이 몰래 빼낸 곡식이 771석입니다. 이 909석은 여러 방책을 동원했지만 거둬들일 길이 없습니다. 포흠한 아전은 법에 따라 처리하고 두 해에 걸친 포흠에 대해서는 따로 조처하도록 특별히 허락해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 —『고종실록』 권3, 고종 3년(1866년) 8월 19일

19세기 중후반기엔 세도정치를 휘두른 고위 관료가 북한산성 최고 책임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매관매직과 비리를 일삼았던 이들 세력가들이 북한산성이라고 예외를 두지는 않았을 것이니, 북한산성의 군향은 고위 관직자에서 하급 관리에 이르는 탐욕에 찬 이들 군상의 먹잇감에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3. 주관부처와 고위관료의 축재

경리청(經理廳)을 혁파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다. 경종 2년(1722년) 1월,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가 자리한 어전회의에서 우의정 최석항(崔錫恒)이 북한산성 주관부처인 경리청을 없애자는 안을 내놓았다.

> "경리청은 북한산성 운영과 관리를 위해 설치한 기관인데 재물을 소모하고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폐단이 매우 심합니다. 그러니 그 이

름을 없애고 폐단을 금하며, 비변사의 유사당상(有司堂上) 1인으로 하여금 북한산성의 업무를 겸하여 관장하게 함이 마땅합니다."

—『경종실록』 권6, 경종 2년(1722년) 1월 10일

경리청 혁파 주장은 3년 전인 숙종(肅宗) 45년(1719년)에 처음 제기됐지만 당시엔 유지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 무렵을 전후해 경리청 운영에 따른 여러 폐단이 언급되고 관계자에 대한 비판이 강도를 더해갔다. 경리청에서는 군향을 활용한 환곡뿐 아니라 상행위를 통한 취리(取利)에도 열을 올리고 있었다.

사헌부에서 아뢰었다. "경리청에서 화폐를 총괄하고 이익을 독점해 그 해독이 백성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차인(差人) 최수징과 김우태는 팔도를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대동미를 방납하기도 하고 조곡을 사들여 이익을 취하지만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폐단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니 백성은 생활을 지탱하기조차 힘듭니다."

—『경종실록』 권15, 경종 4년(1724년) 7월 16일

경리청에서는 곡물거래 외에도 물자유통업에도 뛰어들어 이득을 취했던 것으로 파악된다.[9)]

정언(正言) 유복명(柳復明)이 상서했다. (…) "연분구등법과 호적에 쓰이는 종이의 값과 전세(田稅)·대동(大同)의 선운가(船運價)는 얼마나 잗단 일입니까. 그런데도, 당당해야 할 국가기관에서 평민의 작은 이익을 빼앗기 위해 그들과 다투고 있습니다."

—『숙종실록』 권62, 숙종 44년(1718년) 윤8월 3일

경리청은 상당한 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전권까지 확보해 직접 화폐를 주조하기도 했다. 이렇게 확보한 화폐로 곡물거래업과

9) 경리청에서는 곡물 운송사업 과정에서 유통과 관련된 창고를 마련하기도 했다. 지금으로 보면 일종의 창고업에 해당한다. 『경종실록』 권15, 경종 4년(1724년) 7월 16일 기사 참고.

물자유통업에 뛰어들었고, 때로는 고리대로 이자를 취하기도 했다.[10] 물론 이러한 식리가 경리청만이 행하는 이익사업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백성에게 미친 폐해는 명백해 보인다. "이익을 취하지만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라는 사헌부 관료의 책망은 경리청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취한 공적 이득이 경리청 관리의 사적 이익으로 전용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 준다.

당시 경리청 최고 책임자였던 이유(李濡, 1645~1721)의 행적과 그에 대한 당대의 평가를 고려하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이유는 북한산성 축성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성곽 축조를 주동한 인물이다. 창고 조성과 경리청 신설을 주도했으며, 북한산성과 도성 사이에 위치한 탕춘대성 축조를 밀어붙이기도 했다.

> 사신(史臣)은 논한다. (…) 이유는 경리청 일을 관장한 여러 해 동안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했으며, 나이가 많아 쇠모(衰耗)해서 사려가 천박하고 부족했다.
>
> —『숙종실록』 권62, 숙종 44년(1718년) 윤8월 5일

> 이유는 충성스러운 마음은 있었으나 지혜가 어둡고 재주가 모자라 북한산성의 모든 일을 맡아보면서 오로지 거래와 수익사업을 일삼았다. 그래서 거간꾼 무리가 크게 모여들었고 전국으로 나가 이익을 도모하므로 뇌물을 바치는 길이 크게 열리니, 백성이 그 폐해를 입었다.
>
> —『경종실록』 권3, 경종 1년(1721년) 4월 30일

북한산성은 방위시설이지만 조정 고위관료에게 부정축재의 금맥을 제공했다. 북한산성 축성 뒤에 병조판서와 경리청당상을 지낸 조태채(趙泰采, 1660~1722)의 행적에서 이러한 점을 살필 수 있다.

---

10) 경리청의 주전과 고리대 이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했다; 이현수, 1991,「18세기 북한산성의 축조와 경리청」,『청계사학』 8, 청계사학회;『비변사등록』 71책, 숙종 44년(1718년) 8월 24일 기사;『비변사등록』 116책, 영조22년(1746년) 8월 7일 기사.

> 지평(持平) 박필몽이 상소했다. (…) "전 판서 조태채는 외람되고 교활한 성격을 지닌 이로 총애가 융숭함을 믿고 오랫동안 권세 있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 북한산성 수리에 쓸 재목을 싼값으로 팔았으며, 금위영에 소속된 장인에게 관의 무명으로 급료를 지급하고 사사로이 일을 시켜 장교가 그 작업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나라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여기고 관 소속 장인을 제 종처럼 부렸습니다."
>
> —『숙종실록』 권58, 숙종 42년(1716년) 7월 1일

권세에 기대어 횡령을 자행하고 공물(公物)을 사익을 위해 거리낌 없이 사용하던 조선시대 관료의 고질적인 병폐가 북한산성이라는 공공재를 두고도 되풀이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북한산성을 축조하고 경리청을 설치해 운영한 목적이 국가 방위와 안전보다 축재와 사익 추구에 더 가까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리기 힘들다.

창설 초기부터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북한산성 주관부처로서의 경리청은 이후에도 수십 년 더 지속된다. 영조 23년(1747년)에야 경리청이 혁파돼 총융청에 이속되고, 총융사가 북한산성 최고 책임자가 된다. 고종(高宗) 16년(1879년)엔 북한산성 관리가 궁궐 수비를 담당하는 무위소로 이관된다. 하지만 주관부처가 바뀌었다고 해서 북한산성을 놓고 벌어진 비리와 부정부패, 사욕 채우기, 그 이전투구의 난장이 사라지지는 않았으니, 이름만 없어지고 바뀌었을 뿐 비리와 부정부패를 양산하는 제도의 구조와 운용 시스템은 그대로 이어졌던 것이다.

4. 의승(義僧)과 총섭(總攝)의 폐단

1882년 봄, 문인 박문호(朴文鎬, 1846~1918)는 동료와 함께 북한산 유람에 나섰다. 동행한 이들은 훗날 당대 최고의 문인이자 학자로 평가받는 황현(黃玹)과 김택영(金澤榮)이었다. 2박 3일 여정으로

북한산성 내의 절경과 사찰을 둘러보고 북한산 최고봉인 백운대에 오를 예정이었다. 이들은 대남문을 거쳐 산성 중앙부로 향하는 여정을 잡았다.

> 마침내 시내를 따라 내려와 중흥사에 이르니, 절은 비었고 승려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물으니, "북한산에 승대장(僧大將)이 있어 팔도의 승병을 총섭(摠攝)하였으니 여기가 그 치소이다. 이 일은 북한산성 내의 승려가 맡아왔는데, 지금은 산성 밖의 세력 있는 승려에게 열세 곳의 사찰을 빼앗겼다. 그래서 이곳의 승려 모두가 절을 비우고 쏟아져 나와 다투었다."라고 했다.
>
> — 박문호, 「유백운대기遊白雲臺記」『호산집壺山集』

북한산성에 소속된 사찰 관리를 총괄하는 승대장인 총섭[11] 자리를 두고 북한산성 승려와 외부의 승려 세력이 한바탕 충돌을 벌인 모양이다. 축성 이후 북한산성 총섭은 북한산성 사찰의 승려가 맡아왔지만 1790년대부터는 지금의 화성에 위치한 용주사(龍珠寺)의 승려와 번갈아가며 맡도록 했다.[12] 정조(正祖)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원찰(願刹)로 거듭난 용주사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총섭임명제도는 순조롭게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산성 사찰 측에서는 총섭을 외부 승려로 임명하면서 승도가 떠나고 승영이 위축되는 폐단을 지적하고, 총섭 선출의 공정함을 요구하며 비밀투표에 의한 선출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13] 그런데도 총섭 임명을 둘러싼 불화는 쉽게 근절되지 않았고, 박문호 일행이

---

11) 여기서의 '총섭'은 '도총섭'을 포함한다. 인용문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총섭'으로 표기했다.

12) 1797년 당시 용주사를 관할하던 수원 유수(留守)가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의 총섭을 용주사 승려와 윤번으로 임명하자는 안을 올린다. 이에 대해서는『비변사등록』185책, 정조 21년(1797년) 6월 22일 기사 참고. 이에 앞서 1793년에 용주사 출신의 승려가 북한산성 총섭 겸 팔도 도총섭을 맡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옥(李鈺)이 지은「중흥유기重興遊記」참고.

13) 이에 대해서는「북한승도절목北漢僧徒節目」을 참고. 1855년에 북한산성 사찰 측에서 북한산성 선정비가 있는 비석거리의 암반에「북한승도절목」을 새겨놓았다.

북한산성을 찾았을 때도 이런 갈등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이란 직함을 겸한 북한산성 총섭은 당시 의승에게 최고의 지위이자 선망의 자리였다.

조선시대에는 산성의 수비와 관리 일부를 승려에게 맡기는 의승군(義僧軍) 제도를 운영했다. 북한산성의 경우 성곽 축조와 승영사찰 조성에 참가한 승려를 중심으로 승영을 조직하고, 성곽 수비와 관리를 위해 전국에서 350여 명의 승려를 뽑아 올려 산성 내 열세 곳의 승영사찰에 배치했다. 매년 여섯 차례로 나누어 두 달씩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지역의 소속 사찰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이 의승입번제(義僧立番制)로 인해 전국 사찰에서는 의무적으로 승군을 보내야 하는 책무를 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북한산성 총섭은 전국 사찰에 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위상을 갖게 된다. 한 예로, 북한산성에 소속된 지역 각 사찰의 주지와 승장은 총섭 아래에 있는 장교승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14] 북한산성 총섭은 이 같은 인사권과 차출 의승에 대한 감독권을 바탕으로 전국 사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비리가 저질러졌다.

> 장령(掌令) 이기헌(李箕獻)이 상소했다. (…) "북한산성 안의 모든 일이 총섭인 성능(聖能)이란 자에게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 성능이란 자는 본디 간사한 승려로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 직임을 전적으로 관장해오고 있어 간사하고 참람함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팔도 의승의 번전(番錢)과 가자공명첩(加資空名帖)을 팔아 받아들인 돈이 수만금인데 공사(公事)에 보태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이롭게 했으며, 다른 폐단도 한둘이 아닙니다."
>
> —『비변사등록』 90책, 영조 7년(1731년) 9월 22일

지역 사찰에서 의승을 올려보내는 대신에 돈(번전)을 납부하면 이 돈으로 승영에 상주할 의승을 고용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착복

14)『영조실록』 권24, 영조 5년(1729년) 10월 26일 기사 참고.

이 이뤄졌던 것이다. 번전은 큰 사찰은 50냥가량, 작은 사찰은 20~30냥 정도였다고 한다. 이 외에도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으며, 시설 관리나 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라고 내린 공명첩을 사사로이 사용하기도 했다.

성능은 1711년 북한산성 축조 당시부터 의승을 통솔한 승려였다. 승려 인력을 축성에 동원하고 승영사찰의 보수와 건립을 주도했다. 축성 뒤에는 북한산성 승대장이자 팔도도총섭이 되어 30여 년 동안 성곽 수비와 관리를 지휘했다. 북한산성의 지리와 축조 경위, 시설물과 관리인력 현황 등을 담은 『북한지北漢誌』를 저술해 남기기도 했다. 이러한 행적이 영세불망비를 세우게 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총섭 재임 초반기부터 번전 착복으로 조정 대신의 탄핵을 받았으며,[15] 이후에도 군향과 잡물 관리를 소홀히 한 인물로 비난을 받아왔다.

> **비변사에서 아뢰었다. (…) "승영 창고의 환곡 역시 군향에서 덜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사대부들에게 대여한 양곡은 거둬들이지 않았고, 총섭이 관리하는 잡물도 온전히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으로 기록된 것만도 쌀과 콩을 합해 1백 석이 넘습니다. 그러니 우선 성능을 구금하게 하옵소서."**
>
> **—『비변사등록』 105책, 영조 15년(1739년) 3월 3일**

총섭을 비롯한 의승제도의 폐단을 들어 승영을 혁파하자는 주장이 이미 북한산성 운영 초기부터 제기된 터였다. 경종 때인 1723년 가을에 조정에서는 의승제도 폐지를 두고 한동안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16] 하지만 현실은 의승을 필요로 했다. 의승제도 자체가 방위정책 추진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군역을 충당하기 위한 전략적 방책이었

15) 『비변사등록』 74책, 경종 3년(1723년) 8월 4일 기사 참고.

16) 『비변사등록』 74책, 경종 3년(1723년) 8월 4일, 8월 10일, 9월 11일 기사 참고.

다. 이런 요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의승제도 혁파는 요원한 일이었다. 조선 지배층의 승려 인력 활용은 오히려 강화되어 간 측면이 강했다.

의승제도 실시 이후 지역의 사찰은 의승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물론 근무할 때 드는 잡비까지 부담해야 해 사찰 운영 자체가 어려운 곳이 있을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승려는 성곽수리나 관아에서 행하는 건축공사에도 동원됐다. 능묘조성과 제방공사, 종이제조 등 여러 국역까지 맡고 있었다. 일부 사찰에서는 산지 작물이나 제조품을 관청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까지 져야했다. 불교계에서는 불교 억압을 완화시키고 교단의 존속을 위해서도 이런 요구에 응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불교계 일반에서는 가혹한 부세에 시달렸지만 한편으로 의승은 군제에 편제되면서 갖게 된 권한을 남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사욕을 채우기도 했다. 이러한 폐단은 의승제도 시행 초기에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사간원에서 북한산성 승려의 비리를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할 정도였다.

> 정언(正言) 유복명이 상서했다. (…) "공물을 싼값으로 미리 사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중간에서 강제로 빼앗으니 그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빚으로 주는 재물도 곱으로 이자를 매겨 서울과 지방에 두루 지급했다가 징수를 독촉할 때는 토지문서를 빼앗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도의 의승이 많은 경우에는 350여 명에 이르는데, 번(番)을 면제해주는 대신 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누암별장(樓巖別將)은 명목 없는 선세(船稅)를 바치게 하였고, 황해도와 평안도, 교동(喬桐)에서는 강제로 종이를 방납하도록 정했습니다."
>
> —『숙종실록』 권62, 숙종 44년(1718년) 윤8월 3일

산성 수비와 관리에서 벗어난 거래행위와 사업활동에 있어서 의승은 승려라기보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군인이자 관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도, 비록 미관말직이지만 부여된 권한을 힘없는 백성에게 가혹하게 휘두르는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비리 관리로서 말이다. 하지만

의승의 폭압적인 영향력과 남용 가능한 권한은 조선의 지배층인 사족 관료가 허용한 한도에서 가능했으며, 그것 또한 지배층의 통제 아래 있었다. 의승은 사족관료의 수족에 지나지 않았으니, 의승의 폐단 또한 조선 지배층의 통치와 지배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구도와 배경을 발판삼아 사리사욕을 채운 의승이 있었다는 사실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의승제도 운영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산성 내의 사찰은 승영에 소속돼 지휘를 받았지만 기본적으론 현지 운영을 총괄하는 관성소와 삼군문 유영의 통제를 받았다. 승영조직 편제도 군제를 따랐으며 운영의 권한과 결정권도 관성소에 있었다. 조정과 사족관료, 넓게는 조선 지배층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산성 사찰은 종교시설이 아니라 국방정책에 따른 군사시설이자 국가기관이었다. 의승 또한 승려라기보다 군사시설을 지키는 하급군인이란 인상이 짙었다. 이런 배경에서 사대부나 사족관료가 북한산 유람을 나서면 으레 사찰에 묵으며 승려를 수족처럼 부렸다.

1793년 가을에 성균관 유생으로 출사를 준비하던 이옥(李鈺, 1760~1815)은 동료 세 명과 함께 북한산을 유람했다. 북한산성 내에서 2박 3일의 일정을 잡아놓고 산성 내 사찰에서 숙식을 해결했으며 승려로부터 길 안내도 받았다.

> 절마다 길을 안내하는 승려를 보내주었다. 연총(潍聰)은 태고사에서 용암사까지, 내정(乃淨)은 용암사에서 상운사까지, 처한(處閑)은 상운사에서 서암사까지 길을 안내했다. 서암사의 승려 최엽(最燁)은 부왕사까지, 부왕상의 승려 도항(道恒)은 진국사까지, 진국사의 맹선(孟繕)은 보국사에 이르기까지 안내했다.
>
> — 이옥, 「중흥유기重興遊記」『담정총서潭庭叢書』

1779년에 북한산을 찾은 이엽과 유광천도 북한산성 사찰에 묵으며 숙식을 해결했으며, 1858년에 북한산 유람에 나선 양의영 또한 사

찰과 승려의 도움을 받았다. 북한산성을 찾은 사족이나 관료에게는 일시적인 신세이자 신분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수고에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부림을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만만치 않은 짐이었을 것이다. 산수 유람에 승려를 동원하는 일은 북한산에서만 일어나는 작태가 아니었다. 조선시대 사족과 관료는 산행에 나서면 으레 사찰에 부담을 지우고 승려를 길잡이로 앞세웠다. 심할 경우엔 승려를 가마꾼으로 부리기도 했다.

조선은 유학을 국가이념으로 내세우고 불교를 물리쳤지만 한편으론 국가 운영을 위해 불교계를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후기 들어 체계적으로 진행된 의승제도는 불교억압정책의 직접적인 산물이라기보다 사회 실상과 제도 변화에 따른 선택적 정책에 더 가까웠다. 일정한 선을 두고 불교계와 타협이 이뤄졌으며 승군 운영은 그 한 결과였다. 하지만 조선 지배층과 불교계의 만남은 동등한 입장에 서 있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한쪽으로 힘이 기울어진 매우 불공평하고 종속적인 성격을 가진 타협이었다.

5. 성곽관리의 문란과 군사훈련 부실

이양선이 근해에 자주 출몰하고 세도정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1858년, 북한산성 유람에 나섰던 양의영은 당시의 성곽시설과 관리 실태를 이렇게 전한다.

> 성첩은 세월이 오래되어 무너졌는데 수리하지 않고, 활과 쇠뇌는 모두 아교가 풀어져 쓸 수가 없다. 승려들은 주색에 빠져 기예를 익히지 않는다. 누가 이를 능히 집정자에게 고하여 성을 완전하게 하고 창고를 채우며, 병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쌓는다면 이 어찌 위급할 때 믿을 수 있는 곳이 되지 않겠는가.
>
> — 양의영, 「유북한기遊北漢記」『죽파유집竹坡遺集』

이 무렵에 기록된 '북한산성 시설물을 수리한다'는 사서의 기사를 감안하면 양의영이 목격한 북한산성의 피폐한 실상은 실로 믿기지 않는다. 1851년(철종 2년)에 북한산성 행궁과 창고, 승영사찰 개수를 위해 공명첩 4백 장을 내린다는 어명이 있었으며[17], 1854년에도 북한산성 시설물을 수리하라고 윤허한다.[18] 이로 미루어 볼 때, 수리 계획은 세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시설물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관리자의 횡령과 현장실무자의 업무 태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무기 관리도 부실하고, 군사훈련은 거의 행해지지 않은 채 병영의 기강은 해이해져 있는 상태였다. 성곽관리와 군사훈련 전반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북한산성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은 이미 18세기 후반 정조(正祖, 재위 1776~1800) 시기에도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정조는 즉위 초에 군향 관리를 소홀히 한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어 북한산성 관리자의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1785년엔 북한산성에 안찰어사 신기(申耆)를 파견해 산성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그 보고에 따르면 산성관리는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군량미 유용(流用)은 고질적인 병폐가 되었고, 소금과 장류도 상당량이 허위로 유치되고 있었다. 무기와 군기(軍器) 관리가 허술해 일부는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었다. 성곽과 시설물도 보수가 필요한 상태였다. 무엇보다 군사들의 근무태만과 군사훈련 부족이 큰 문제였다.

> 신기가 서계(書啓)를 올렸다. (…) "신(臣)이 군기를 검열할 때 하급 장교들에게 포를 쏘는 방식과 절차에 대해 질문하고 화약과 탄환의 무게가 얼마인지 물었으나 모두 자세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갓 기구만 가지고 있을 뿐 제대로 사용할 줄은 모르는 형편이었습니다."
>
> —『정조실록』 권20, 정조 9년(1785년) 6월 17일

17) 『비변사등록』 238책, 철종 2년(1851년) 1월 22일 기사 참고.

18) 『승정원일기』 123책, 철종 5년(1854년) 4월 26일 기사 참고.

정조는 곧바로 책무에 태만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관리 대책을 지시하지만 이후에도 북한산성 관리가 철저하게 시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조 17년인 1793년에 북한산성 수리에 사용할 공명첩 관리를 잘못한 총융사를 파직한 것으로 미루어 이런 부실 관리의 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19]

북한산성의 관리 부실은 세도정치기인 19세기에는 더욱 심각한 상태에 이른다. 만연한 부정부패는 재정 악화를 가져왔고, 이는 당연히 국방비 감소로 이어졌다. 여기에 군문의 기강해이와 비리까지 더해져 국방력 약화를 가속화시켰다. 양의영이 북한산성을 찾았던 1858년 당시의 부실한 성곽 관리와 부패한 운영 실태는 조선 사회의 혼란과 국방정책의 취약, 관료의 비리와 부정부패 실상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산성 수리를 위한 비용을 요구하는 대신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대체로 대신들이 수리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공명첩 발급을 요청하면 임금이 이를 허락하는 형태를 취한다. 기록과 재정 측면에서는 수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관리가 뒷받침되고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무엇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조정에서는 북한산성을 수리한 공로로 관리들에게 상을 내리거나 품계를 올려주었다.[20] 외침이 노골화되고 외세의 지배 야욕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조선 지배층은 허상의 기록에 의지해 풍성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산성에서 일어난 비리와 부정부패, 기구 관리의 부실, 정책과 제도 운영의 파행,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가져온 결과와 폐해에 대한 무감각과 무반성… 북한산성의 문란과 쇠락은 500년 조선의 혼란과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

19) 『정조실록』 권37, 정조 17년(1793년) 6월 13일 기사 참고.

20) 『순조실록』 권33, 순조 33년(1833년) 4월 10일 기사 참고; 『고종실록』 권30, 고종 30년(1893년) 5월 23일, 12월 14일 기사 참고.

6. 선비의 풍류, 백성의 눈물

18세기 후반 북한산성을 찾은 이엽과 유광천은 산성 마을의 풍경을 이렇게 노래했다.

> 성 안에는 여염집이 잇달아 있었다. 소나무 울타리를 한 띳집이 은은히 숲 속에 비치고 돌 틈으로 흐르는 시냇물과 솟아오르는 샘물이 좌우로 어울려 흐르는데, 또렷하여 마치 그림 같았다. 바위 아래, 두 갈래 쪽진 머리를 한 계집종이 돌샘에서 길어 올린 물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가는데 그 얼굴빛이 참 아름다웠다. 산골의 질박함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생각도 못했다. 비유하자면 바위틈에 핀 떨기 꽃이 푸르고 굳센 가운데 여전히 울긋불긋함을 간직한 것과 같으니, 점철된 오묘함이 대개 이와 같지 않겠는가.
>
> — 이엽, 「북한도봉산유기北漢道峯山遊記」『농은집農隱集』

> 누각을 내려와 말을 치달려 중성(重城)으로 돌아드니, 산은 더욱 빼어나면서 험준하고 물은 더욱 맑으면서 세찼으며 바위는 더욱 고우면서 기이했다. 아름다운 나무가 우거져 그윽한 새가 서로 지저귀었다. 절탑이 구름 사이에 솟아있고, 소나무 울타리를 한 띳집에서 좁은 길을 끼고 밥을 짓고 있었다.
>
> — 유광천, 「유삼각산기遊三角山記」『귀락와집歸樂窩集』

맑은 바람 푸른 물에 시심(詩心)의 가슴 담그고 산수에 몸과 마음을 풀어놓는다. 운치 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 이들의 유람은 말 그대로 풍류였다. 산수와 풍경의 정취에 매료된 이들 사족관료의 가슴에는 움막 같은 띳집도 계집종의 힘겨운 물긷기도 그림처럼 그윽하고 질박하게 아름다울 뿐이다. 밥 짓는 풍경을 자연의 조화 속에 그려낼 뿐 당장 한 끼를 해결해야 하는 굶주림의 공포는 그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사족관료의 또 다른 시선은 북한산성 마을의 현실을 참담한 어조로 이렇게 전한다.

신기가 서계를 올렸다. (…) "성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르기를 '이 성은 곡물이 생산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안의 군량이 감축되면서 살기가 더욱 어려워져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집이 많습니다. 그 전에는 500호나 되었는데 지금은 200호에도 차지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정조실록』 권20, 정조 9년(1785년) 6월 17일

총융상 이방일(李邦一) 아뢰었다. (…) "이번에 성곽 수리를 하면서 민정을 살펴보니 승려와 주민이 거의 모두 굶주리고 있어 유망해 이산할 염려가 있습니다. (…)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쌀 3승, 돈 1전이니 이는 불과 역부 한 사람의 하루치 양식일 뿐입니다. 이들의 식솔은 처음부터 연명할 길이 없습니다. (…) 환곡도 다 나눠주어 분급할 곡식이 없으니 끼니조차 마련하기 어렵고 농사마저 그만두어야 할 실정이니 참으로 가엽고 염려됩니다."

—『비변사등록』 181책, 정조 17년(1793년) 4월 15일

북한산성 관리의 부정부패와 운영 비리는 곧 인근 백성과 산성마을 주민의 고통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당연히 주어져야 했던 것에 대한 박탈이었다. 기아와 헐벗음이라는 무자비한 현실이자 생존 자체에 대한 위협이기도 했다. 사실 그들의 마을에는 진정 '아름다운 얼굴빛'도 질박하게 '아름다운 풍경'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풍류의 시선이 만들어낸 허상, 자만과 때로는 동정의 정취가 엮어낸 거짓 풍경일 뿐이었다. 그것은 힘써 농작물을 기르고,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고, 거래와 교환을 이어주는, 바로 이 땅 백성의 땀이 있어 가능했던 위선의 교양이기도 했다.

지배층의 탐욕과 부패로 선비의 풍류가 떠받쳐지고, 그 근엄한 양반문화의 이면, 아니면 빛나는 저 선정비 아래에는 지금도 민(民)의 울음소리가 눈물 되어 흐르고 있다. 그리고 다시 북한산성의 200년 어두운 그늘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의 탐욕과 부패, 정취와 풍류, 땀과 눈물의 의미를 진지하게 묻고 있다.

참고문헌

경기문화재단, 2011,『북한산 조사 연구 자료집』경기문화재단.

김성태 외, 2014,『북한산성의 역사와 문화유적』경기문화재연구원.

조윤민, 2013,『성城과 왕국』주류성.

_____, 2016,『두 얼굴의 조선사』글항아리.

황현, 허경진 옮김, 2006,『매천야록』서해문집.

여은경, 1987,「조선후기 산성의 승군총섭」『대구사학』32, 대구사학회.

이태진, 1991,「숙종대 북한산성의 축조와 그 의의」『북한산성지표조사보고서』, 서울대박물관.

이현수, 1991,「18세기 북한산성의 축조와 경리청」『청계사학』8, 청계사학회.

임용한, 2007,「조선후기 수령 선정비의 분석」『한국사학보』26, 고려사학회.

『三國史記』의 北漢山城에 대한 역사고고학적 고찰

김성태*

1. 머리말 • 417
2. 백제본기의 북한성, 북한산성 등 검토 • 418
3. 신라본기와 고구려본기의 북한산성 전투 • 427
4. 하북위례성과 북한성의 비정 • 430
5. 맺음말 • 439
참고문헌 • 441

* 경기학연구센터 수석연구원

1. 머리말

한산성에 대한 종합인문지리지라 할 수 있는 聖能의 『北漢誌』(1745년 간행)에서는 "(북한산성은) 백제 溫祚王과 蓋婁王 때 축성하고, 近肖古王 때 이곳으로 도읍을 옮겼으며, 조선 숙종 대에 이르러 온조가 쌓은 옛 성터에 산성을 수축했다."라고 기록하였다. 이런 견해는 조선후기의 정사와 문집에서 확인되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편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북한산성' 항목에서도 사적 제162호로 지정된 지금의 북한산성을 『三國史記』 백제본기 속의 북한산성으로 비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여, 근초고왕이 북진책의 일환으로 옮긴 수도가 개루왕 5년(132)에 축성한 북한산성으로 보는 견해를 피력한 학자도 있다[1]. 심지어는 마한 54개국 중에서 伯濟가 가장 북쪽에 위치했고 그 主城이 북한산성이라는 언급을 한 학자도 있다.[2] 이렇듯 '北漢山城 百濟初築說'은 여전히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상황은 아직까지도 북한산성을 소개하는 각종 책자와 미디어에서 반복되고 있다.

한편, 위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북한산성' 항목에서는 『三國史記』에 기록된 603년과 661년에 있었던 고구려와 신라의 '북한산성 전투'의 무대 또한 현재의 북한산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두산백과』, 『문화콘텐츠닷컴』 등 사전류에서 거의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고고학적 성과는 현재의 북한산성이 『三國史記』에 언급된 北漢城 또는 北漢山城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종택은 서울 아차산성의 발굴에서 '北…', '…漢…', '北漢…', '…漢山○…' 등의 명문기와가 출토된 사실 등을

1) 李道學, 1992, 「百濟漢城時期의 都城制에 관한 檢討」 『韓國上古史學報』 9, 한국상고사학회, 31~32쪽.

2) 金廷鶴, 1981, 「서울近郊의 百濟遺蹟」 『鄕土서울』 39,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7쪽.

들어 『三國史記』 신라본기의 북한산성을 峨嵯山城으로 비정하는 견해를 제시하였고,[3] 그의 주장은 정설이 되어가고 있고,[4] 최근 발굴에서 '北漢山城' 명문이 출토됨으로써[5] 아차산성이 신라본기의 북한산성임이 거의 확실하게 되었다. 이렇듯 고고학적 증거는 현재의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이 『三國史記』 기록 속의 '北漢城' 또는 '北漢山城'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역사학자와 대부분의 교양도서에서는 603년과 663년에 있었던 '북한산성 전투'의 장소도 지금의 북한산성으로 서술하고 있다.

본고는 위와 같은 오류를 고고학적 자료를 근거로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위하여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북한산성' 관련 기사를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아울러 『三國史記』 기록 속에 등장하는 북한성의 위치를 역사고고학적 방법으로 비정하여, 현재의 파주 六溪土城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더 나아가 육계토성이 河北慰禮城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2. 백제본기의 북한성, 북한산성 등 검토

먼저, 백제본기 중에서 북한산성 관련 기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475년 한성백제 멸망 이후에 등장하는 漢山城과 漢城에 대해서는, 한성백제의 함락 이후 한강이북은 고구려의 영토였다는 주장을[6] 받아들여 한강 이북의 북한산성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루지 않기로 한다. 그럼 북한산성의 존재를 처음으로 기록한 사료 a에 대해 검토해 보자.

---

3) 서울대학교 박물관, 2000, 『아차산성 – 시발굴조사보고서』, 205~207쪽 및 212쪽.

4) 최종택, 2014, 아차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성과와 과제」『史叢』 81, 고려대 역사연구소.
장창은, 2014, 「아차산성을 둘러싼 삼국의 영역 변천」『史叢』 81, 고려대 역사연구소.
황보 경, 2015, 「603년 北漢山城 전투 고찰」『韓國史學報』 58, 고려사학회.

5) 동아일보 2016년 9월 8일자 기사 참조.

6) 노중국, 2004, 「漢城百濟의 沒落과 首都 移轉」『鄕土 서울』 64, 서울시사편찬위원회, 65~72쪽.

사료 a: 蓋婁王 5년(132) 2월에 북한산성을 축조하다.[7]

여기서의 '북한산성'은 지금의 북한산성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성백제의 도성으로 인정되는 풍납토성의 경우, 청동기시대의 環壕를 갖춘 木柵에서 版築土城으로의 이행이 기원후 2세기 무렵에 이루어지고 완성형의 토축 성벽이 축조된 것은 3세기 전후라는 견해를 들 수 있다.[8] 이 견해는 우리나라 학계에서 풍납토성의 초축 연대를 상대적으로 일찍 보는 견해인데[9], 이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2세기 전반에 암산인 지금의 북한산에 성벽을 쌓았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둘째로, 북한산은 여러 산봉이 하나의 거대한 암괴를 이루고 있는 巖山이므로, 산성을 쌓았다면 石築 성벽이었을 것이 뻔한데, 백제의 석성축조의 시점이 4세기대라는 견해를[10] 참고할 때, 2세기 전반에 북한산의 기반암인 화강암을[11] 다듬어서 북한산성을 축조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셋째로, 北漢山城은 漢山城에 대응하는 개념인데 '漢山城'은 195년이 지난 사료 g의 아신왕 4년(395)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한산성의 존재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에 대응하는 북한산성의 등장은 어색하다.

한편, 이도학은『三國史記』에 나오는 '漢山' 관련 기사를 정리한 다음, 백제본기 문헌 속의 漢山을 지금의 北漢山으로 비정하면서, 상기 기사의 북한산성을 현재 북한산 내에 있었던 '中興洞古城'으로 파악하

---

7) "(蓋婁王) 五年, 春二月, 築北漢山城"(『三國史記』卷23「百濟本紀」제1 蓋婁王)

8) 申熙權, 2002,「風納土城 발굴조사를 통한 河南慰禮城 고찰」『鄕土서울』,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06~108쪽.

9) 참고로 박순발은 토성 이전에 축조된 환호에서 출토된 타날문토기·장란형토기 등의 연대를 들어 토성의 상한연대가 3세기 전반까지 소급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朴淳發, 2001,『漢城百濟의 誕生』, 서경문화사.

10) 金虎俊, 2002,「설성산성 발굴조사 개보」『한국성곽연구회 창립학술회의』, 한국성곽연구회.

11) 서울경기지역의 6세기 후반에 축성된 신라산성의 사례를 보아도, 성돌은 가공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마암을 이용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할 때, 2세기 전반에 북한산의 화강암을 다듬어 성벽을 쌓았을 개연성은 매우 낮다.

였다. 그런데 여기서의 한산이 지금의 북한산일 개연성은 낮다. 왜냐하면 온조왕 1년의 "드디어 漢山에 이르러 負兒嶽에 올라가 살 만한 곳을 바라보았다."[12]라는 기사에서 漢山은 광의의 개념이고, 負兒嶽은 지금의 북한산성이 자리한 고려시대의 삼각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즉 '한강 유역에 도착한 후 부아악에 올라 도읍지가 될 만한 곳을 찾았다.'라고 풀이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廣州 大雙嶺里 통일신라시대 고분군에서 출토된 청동제 방울에 새겨진 '南漢山助舍'라는 명문이 주목되는데, 여기서 '南漢山'은 지명, '助舍'는 관직명을 가르키는 것으로[13]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하남 이성산성의 저수지에서 발굴된 목간의 '南漢城'이라는 명칭과 연결할 때[14], 한국고대사회에서 '○○山'은 광의의 지명을 나타내고, '○○城'은 성곽이라는 시설물이 들어서 있는 특정 지점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漢山을 중흥동고성으로 볼 수 있다는 이도학의 견해는 수긍하기 곤란하다. 어쨌든 이상의 개루왕 5년(132)에 북한산성을 축조했다는 기사는, 현재의 북한산성에 성곽을 축조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다음은 내신좌평 優福이 북한성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기사를 한강 이북에 제2의 도성이 존재했다는 가정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료 b: 비류왕 24년(327) 9월에 내신좌평 優福이 北漢城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군사를 출동시켜 토벌하였다.[15]

---

12) "百姓從之者多. 遂至漢山, 登負兒嶽, 望可居之地"(『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 第1 溫祚王 1年)

13) 皇甫 慶, 2009,「광주 대쌍령리 고분 출토 '南漢山助舍' 銘 청동제 방울 고찰」『文化史學』 32, 문화사학회, 85~108쪽.

14) 심광주, 2015,「이성산성과 하남시 고대유적의 성격」『고대동아시아의 왕성과 풍납토성』(학술세미나 발표문), 한국고고학회 등, 89쪽.

15) "九月, 內臣佐平優福, 據北漢城叛. 王發兵討之"(『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 第2 比流王 24년)

여기서 北漢城은 漢城에 짝하는 개념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三國史記』 백제본기의 漢城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포함한 도읍에 凡稱이라는 것이 통설인 사실을[16] 감안할 때, 한성에 짝하는 북한성은 한강 이북에 축성된 土築의 平地城일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 현재의 북한산성이 자리한 북한산은 산 전체가 바윗덩어리로 이루어진 巖山으로, 흙을 재료로 한 土城을 축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 언급된 북한성은 전술했듯이 현재의 북한산성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한편,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자료에 의거할 때 한강 이북에서 풍납토성과 짝할 수 있는 한성백제시기의 토성은 임진강 유역의 六溪土城이 유일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여기서의 북한성을 육계토성으로 비정하고 더 나아가 하북위례성이 자리했던 곳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거가 필요하므로 4장에서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다음은 백제 도성의 연구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인 근초고왕대에 도읍을 옮겼다는 기사, 즉 '移都漢山' 관련 기사와 그에 대한 검토이다.

> 사료 c: 근초고왕 26년(371)에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 오므로, 왕이 듣고 浿河 강변에 군사를 매복시켰다가 급히 공격하니 고구려병이 패배하였다. 겨울에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 병사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침입하여 平壤城을 공격하였다. 고구려왕 斯由가 역전하여 막다가 流矢에 맞아 죽으니, 왕이 군사를 이끌고 물러왔다. 서울을 漢山으로 옮겼다.[17]

> 사료 d: 『古典記』를 살펴보면 이러하다. 東明王의 셋째 아들 온조는 전한 홍가 3년 계유(서기전 18년)에 졸본부여로부터 慰禮城에 이르러 도읍을 세우고 왕이라고 칭하였다. 14년 丙辰에 도읍을 漢山(今廣州)으로 옮겨 389년을 지냈으며, 13대 近肖古王 때인 咸安 원년

16) 金起燮, 2002, 「慰禮城에서 漢城으로」 『鄕土서울』 62, 서울시사편찬위원회, 57~65쪽. 申熙權, 2002, 앞의 논문, 82~88쪽.

17) "…移都漢山"(『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 第2 近肖古王)

(371년)에 이르러 고구려의 南平壤을 빼앗아 도읍을 北漢城(今 楊州)으로 옮겨 105년을 지냈다.[18]

사료 e: 辛未年에 북한산으로 도읍을 옮겼다.[19]

사료 f: 百濟始祖 溫祚王이 漢나라 成帝 鴻嘉 3년(기원전 18) 癸卯에 國都를 慰禮城에 세웠다가, 13년 을묘에 이르러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내가 보매, 漢水 남쪽의 땅이 기름지니, 마땅히 여기에 도읍을 세워서 장구한 계교를 도모하고자 하노라."하고, 드디어 漢山 아래에 나아가 木柵을 세우고, 위례성의 民戶를 옮기며, 궁궐을 짓고, 14년 병진 정월에 도읍을 옮기고 南漢城이라 하다가, 3백 76년을 지나 近肖古王 24년 辛未에 도읍을 南平壤에 옮기고 北漢城이라 하였다.[20]

다음은 사료 c와 그와 관련한 사료 d, e, f에 대한 검토이다. 이 사료 c의 『삼국사기』에서는 移都地가 漢山이라 기록되어 있으나 사료 d의 『三國遺事』 紀異에서는 '북한성'이라 기록했고, 『三國遺事』 王歷에서는 '북한산'으로 명기했다. 이런 까닭에 『三國遺事』의 기록에 근거할 때 근초고왕대의 이도지를 '북한산'과 '북한성'을 결합하여 '북한산성'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데 사료 c는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케 한 다음, 고구려의 보복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읍을 옮겼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서 도읍의 이전이 고구려의 대대적인 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정황상 알 수 있다. 이런 판단은 고구려 산상왕이 魏의 침공에 대비하여 국내성의 배후에 있는 환도산성을 축조하여 나중에 그곳에서 항전했다는 기록으로[21] 뒷받침된다. 특히 고국원왕대에 前燕의 침략을 예상하고 丸都山城으로 移都하였던 사실은 위의 판단을

18) 『三國遺事』 卷2 紀異 第2 南扶餘, 前百濟, 北扶餘

19) 『三國遺事』 卷1 王歷 백제 제13대 근초고왕.

20) 『世宗實錄』 地理誌 京畿 廣州牧.

21) "二年(198) 春二月, 築丸都城."(『三國史記』 卷16 高句麗本紀 第6 山上王 2년조)

보강해 준다.[22]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고구려의 대대적인 공격에 대비한 移都地는 거대한 垓字 구실을 하는 한강 이남이어야 하고, 또 왕성인 풍납토성의 배후에 있는 산성이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고구려의 침공에 대비한 移都地가 한강 이북에 자리한 지금의 북한산성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와 함께 조선후기, 북한산성의 축성 논의 과정에서 북한산성의 내부가 狹窄하므로 도성민을 수용하여 장기전을 펼치는데 필요한 곡식을 저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서[23] 축성을 반대한 사실도 근초고왕 대의 이도지가 북한산성이 아닐 가능성을 높여준다. 왜냐하면 이 기사는 현재의 북한산성이 왕도를 옮겨서 주거공간으로 이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은 조선후기 북한산성이 운영되는 동안, 성내의 최대 민호가 500여 호에 불과했다는 기록[24]으로도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사료 c의 漢山은 결코 지금의 북한산성이 될 수 없다.

한편, 이도지를 북한성 혹은 북한산으로 비정한 『三國遺事』의 기록을 주관적인 가필로 파악하면서, 근초고왕 대에 移都한 곳을 한성의 배후에 자리한 한산성 즉 남한산성으로 파악한 견해가 있는데,[25] 이 견해 역시 지금의 북한산성은 근초고대왕의 이도지가 아니라는 본고의 결론을 옹호해 주고 있다.

다음은 백제본기의 패수, 한수, 청목령, 쌍현성 등과 같은 구체적

---

22) "十二年(342) 春二月, 修葺丸都城, 又築國內城."(『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第6 故國原王 12년조)

23) 이는 김창집이 "성 안이 지극히 좁아서 공가(公家)와 사가(私家)를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장차 백성을 모집하여 입거(入居)시키면, 살아가기가 매우 고생스러울 것이며, 장차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아 두려면 옮겨 운반하기가 진실로 어려워서 조적(糶糴)이 불편할 것이니…" 라고 말한 것으로 증명될 수 있다. (『肅宗實錄』 卷49, 肅宗 36年 12月 28日)

24) 이와 관련해서는 "…성 안의 군량(軍糧)이 감축되면서부터 살기가 더욱 어려워져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 가서 그전의 5백 호가 지금은 2백 호에도 차지 못합니다."라는 기사로 알 수 있다. (『正祖實錄』 卷20, 正祖 9年 6月 17日)

25) 車勇杰, 2016, 「慰禮城과 漢城에 대하여」 『한국축성사 연구』, 진인진, 256~260쪽. (『鄕土서울』 39에 실린 동일 제목의 논문을 재수록하였다.)

인 지명이 적시되어, 사료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료 g와 사료 h에 대한 검토이다. 한산성과 북한산성의 위치 비정, 그리고 두 성의 관계가 논점이 되겠다.

> 사료 g: 아신왕 4년(395) 11월에 왕이 패수의 패전을 보복하고자 친히 군사 7,000명을 거느리고 漢水를 건너 靑木嶺 밑에 이르렀으나, 큰 눈이 내려 많은 사졸이 凍死하므로 廻軍하여 漢山城에 이르러서 군사를 위로하였다.[26]

> 사료 h: 개로왕 15년(469) 겨울 10월에 쌍현성을 수축하고, 청목령에 큰 목책을 설치하고, 北漢山城의 병졸들을 나누어 그곳을 수비하게 하였다.[27]

사료 g에서의 漢山城은 근초고왕대에 임시도읍으로 축조한 산성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료 h에서의 북한산성은 한강 이남의 한산성에 짝하는 한강 이북에 자리한 '한수 이북의 한산성' 즉 '北漢山城'일 개연성이 있다. 그렇다고 이 '북한산성'이 지금의 북한산성일 가능성은 낮다. 이것이 본고의 결론이다. 이런 결론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료 g의 漢山城은 「백제본기」에서 漢城과 분명히 구별하여 부르고 있다. 그리고 한성은 평지성이자 궁성으로서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말하여, 한산성은 이들 평지성 배후에 자리한 왕실 보장처로서의 산성일 개연성이 있다. 이런 추측은 고구려의 경우 평지성인 국내성과 산성인 환도산성이 짝을 이루고 있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이런 입장에서, 폭설로 회군한 병력들을 위로한 장소가 한성이 아니라 한산성이란 사실이 이해된다. 여기서 문헌 속의 한산성은 풍납토성의 배후에 있는 이성산성이나 남한산성으로 비정될 수 있겠으나,

---

26) "…廻軍至漢山城 勞軍士"(『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 第3 阿莘王)

27) "冬十月, 葺雙峴城, 設大柵於靑木嶺, 分北漢山城士卒戍之"(『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 第3 蓋鹵王 15년)

이성산성에서는 현재까지 백제산성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谷間이 없어서 임시도읍이 자리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남한산성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한산성의 비정은 본고의 주제가 아니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어쨌든 백제의 왕성인 漢城, 즉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한강 이남에 입지하고 있는 사실에 기초할 때, 그 배후 피난성으로서의 한산성은 결코 한강 이북의 북한산성이 될 수 없다.

사료 h의 북한산성은 한강 이북에 축성한 군사거점이자 산성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북한산성이 북한산에 위치한 지금의 북한산성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에서 피난을 대비한 입보용의 험지산성이 축성되는 시점이 빨라야 고려 중기 이후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발 400~800m의 고지에 험한 산세를 이용하여 축성한 양평 함왕산성, 용인 보개산성, 양양 권금성, 충주 보련산성, 동해 두타산성 등이 축성된 시점이 고려후기 몽고침략기라는 연구 결과는[28] 현재의 북한산성에 백제시기의 성곽이 축조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둘째로, 삼국시대 산성은 대부분 교통로의 요지에 입지하고 있는데[29] 지금의 북한산성은 水運이 가능한 수계에서 떨어져 있고, 삼국시대의 교통로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한성시대 북한산성이 존재했다면 한강 이북의 거점성으로서의 입지를 갖춘 곳이어야 마땅하겠고, 이런 입지에 지금의 북한산성은 자리하고 있지 않다. 셋째로, 지금까지 북한산성의 발굴에서 백제 관련 유물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북한산성의 경우 건물지가 밀집할 수 있는 위치로는 중흥사지 권역과 행궁권역뿐인데, 현재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발굴에서 백제 관련 유구는 물론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30], 기타 성벽과 성랑지에 대한 발굴에서도 백제관련 고고자료는

---

28) 백종오, 2003,「고려성곽」『경기도의 城郭』, 경기문화재단, 274~275쪽.

29) 徐榮一, 1998,『新羅 陸上交通路 硏究』,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0) 韓國建築文化硏究所, 1997,『北漢山重興寺址發掘調査報告書』.

출토된 바 없다[31]. 이는 대표적인 신라산성인 포천 반월산성, 이천 설봉산성과 설성산성에서 다량의 백제토기가 출토되고[32] 여주 파사성 등에서 백제유물이 소량이나마 확인되는 점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따라서 고고학적 사실에 의거해서도 현재의 북한산성은 사료 h의 북한산성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한성백제기의 산성은 석축성이 아니라 토루에 부분적으로 담장모양의 석축구조물 정도였을 것[33]이라는 주장과, 경기지역에서 석축산성이 등장하는 시점은 최소한 신라가 한강유역을 장악하는 6세기 중엽 이후라는 견해를 [34] 적극 수용할 때, 현재의 북한산성에 백제성이 축성되었을 개연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참고로 사료 h의 북한산성은 칠중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전방에는 백제토성인 육계토성을 두고 배후에는 감악산을 입보처로 삼을 수 있어 풍납토성-이성산성-남한산으로 이어지는 도읍의 그것과 유사한 점, 638년 칠중성 전투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의 침공로로서 군사적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는 점, 임진강 이북으로 비정되는 쌍현성과 청목령과 가까운 위치에 자리하여 배후 據點城으로 최적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런데 이런 판단은 칠중성에 대한 시굴조사에서 백제산성임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에[35] 단정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성백제기 칠중하와 공목달 등 적성과 연천 일원에 목책이나 토성 위주의 성을 쌓았던 사실을 근거로 소규모의 보루나 목책 등이 구축되었을 가능성

경기문화재연구원, 2014,『고양 북한행궁지 1차 발굴조사 중간보고서』.
경기문화재연구원, 2015(a),『고양 북한행궁지 2차 발굴조사 중간보고서』.

31) 경기문화재연구원, 2015(b),『북한산성 성랑지 및 성벽 학술조사 보고서』.

32) 심광주, 2003,「신라성곽」『경기도의 城郭』, 경기문화재단, 220쪽.

33) 심광주, 2002,「서울·경기지역의 삼국시대 연구 현황과 과제」『고고학』1-1, 서울경기고고학회, 96쪽.

34) 심광주, 2003, 앞의 책, 221~223쪽.

35)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1,『파주 칠중성 지표조사 보고서』, 단국대학교 출판부.

이 있다는 견해가 있어[36], 사료 h의 북한산성을 현재의 칠중성 자리로 비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따라서 현재 사료 h의 북한산성의 위치로 확실히 비정될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전쟁사에서 칠중성이 차지하는 군사 요충지로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사료 h의 '북한산성'은 현재의 칠중성으로 일단 비정해 두고자 한다.

3. 신라본기와 고구려본기의 북한산성 전투

『三國史記』에 기록되어 있는 고구려와 신라 사이의 '북한산성 전투'의 배경은, 전술했듯이 서울 광진구의 아차산성일 가능성이 높다. 달리 말하자면 지금의 북한산성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부터 관련 기사를 통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보강해 보고자 한다.

> 사료 i: 영양왕 14년(603) 추8월, 왕이 장군 高勝을 보내어 신라의 북한산성을 공격하니, 신라왕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漢水를 건너오므로, 성 안에서 북을 치고 떠들며 相應하니 고승은 신라의 무리가 많고 아군이 적으므로 이기지 못할까 하여 물러났다.[37]

> 사료 j: 진평왕 25년(603) 추8월,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침범하므로 왕이 몸소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가서 막았다.[38]

> 사료 k: 태종왕 8년(661)…5월 9일에 고구려 장군 惱音信이 靺鞨 장군 生偕의 군과 연합하여 述川城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옮기어 북한산성을 공격하여 抛車를 벌여놓고 돌을 날리니, 그것에 맞은 陴屋은 곧 무너졌다. 城主인 大舍 冬陁川이 사람을 시켜 鐵蒺藜를 성 밖에 던져 펴 놓으니, 人馬가 다니지 못하였고, 또 安養寺의 창고를 헐

36) 심광주, 2009,「삼국의 쟁투지 칠중성」『파주시지』 2(파주역사), 파주문화원, 66~69쪽.
37)『三國史記』卷20「高句麗本紀」第8 嬰陽王
38)『三國史記』卷4「新羅本紀」第4 眞平王

어 그 재목을 실어다가 성의 무너진 곳마다 樓櫓을 만들어 굵은 줄로 망을 얽고 우마의 가죽이나 솜옷 등속을 걸어 매고 그 안에다 弩砲를 준비하여 지켰다.39)

사료 l: 고구려와 靺鞨은 신라의 정예병이 모두 백제에 가 있어 국내가 비었으니 공략할 만하다 하여, 군사를 일으켜 수륙 양면으로 함께 와서 북한산성을 포위하였다. 고구려는 서쪽에 진 치고 말갈은 동쪽에 진을 치고 공격한 것이 열흘에 이르니, 성내에서는 위태로움과 두려움에 싸였다. 40)

사료 m: 여름 5월에 왕이 장군 惱音信을 보내 말갈의 무리를 거느리고 신라의 북한산성을 포위하여 열흘이나 풀어주지 않았으므로, 신라는 식량 길이 끊겨 성 안에서 매우 위태롭게 여겼다. 41)

사료 i에서 한수 즉 한강을 건너오는 군사에 대하여 북한산성에서 항전하던 신라군이 북을 치면서 호응한다. 한강변에 자리한 아차산성의 입지와는 상응하지만, 수계와 멀리 떨어진 삼각산 내의 깊숙한 곳에 자리한 지금의 북한산성의 입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이는 661년의 북한산성 전투를 기록한 사료 l에서, 수륙 양면으로 고구려와 말갈이 공격을 가했다는 기사로도 더욱 뒷받침되는데, 지금의 북한산성은 수륙 공격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상의 결론은 고구려군이 여주 파사성으로 추정되는 남한강의 술천성을42) 공격하다가 승산이 없자, 북한산성을 공격하게 되었다는 사료 k로도 방증되는데, 파사성과 아차산성은 모두 신라산성으로 한강 수로를 통할 경우 至近 거리에 자

39)『三國史記』卷5 新羅本紀 第5 太宗王

40)『三國史記』卷42 列傳 第2 金庾信 中

41)『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 第10 寶藏王

42)『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고려시대 여주에 있었던 川寧縣에 대하여 본래는 高句麗 述川郡이라 하면서, 지금의 梨浦나루가 천녕현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여주 婆娑城이 지금의 이포나루 배후 산성으로 자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남한강안에 자리한 신라산성으로는 여주 파사성이 유일한 사실을 참고할 때,『三國史記』의 술천성은 파사성으로 보아도 무방하겠다.

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신라의 개개 산성들은 일정한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방어의 효율성을 위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지적은[43] 참고할 만하다. 이 견해에 입각할 때, 아차산성은 여주 파사성, 하남 이성산성, 파주 오두산성 등과 수계로 연결되어 있지만, 북한산성은 내륙 산간 험지에 자리하여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

다음으로 전투상황을 기록한 사료 k와 사료 l를 통해서도 위와 같은 결론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사료 l에서 고구려군은 서쪽에 진을 치고 말갈군은 동쪽에 진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의 북한산성의 지형을 고려할 때 연합군이 전혀 상호 호응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병을 주축으로 하였을 말갈병이 동쪽으로부터 북한산성을 공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서울의 정릉동·수유동·우이동에서 북한산성의 성벽에 도달하려면 도보로 걸어도 최소 2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료 m에서 북한산성을 포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북한산성이 자리한 옛 삼각산 지역의 범위가 12km 이상에 달하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전면 포위가 불가능하다. 이렇듯 『三國史記』가 전하는 북한산성 전투의 양상으로 보아서도, 현재의 북한산성보다는 아차산성이 기록과 아주 잘 부합한다.

이런 판단은 고고학적 증거로도 간접적으로 방증할 수 있다. 기록 k에서 안양사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북한산성 내에서 이루어진 발굴조사에서 신라시대의 기와가 한 점도 발견된 적이 없다. 구체적으로 북한산성 내에서 비교적 평탄한 지역에 해당되는 북한산성 행궁과[44] 중흥사지에[45] 대한 발굴에서 신라기와가 수습되어

43) 심광주, 2010, 「남한지역의 고구려성곽과 고구려 방어체계」『韓國城郭研究의 새로운 觀點』, 韓國城郭協會, 252쪽.

44) 경기문화재연구원, 2014, 앞의 책.
경기문화재연구원, 2015(a), 앞의 책.

보고된 적이 없다. 이런 사실은 다량의 신라기와가 발굴조사된 아차산성과[46] 파사성과는[47] 매우 대조적인 현상으로, 현재의 북한산성이 『三國史記』 북한산성 전투의 무대가 아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 나아가 경기지역 신라의 산성들은 행정치소를 겸한 郡縣城으로, 그 입지는 일반적으로 교통로와 강가에 분포하고, 배후에 일정수준의 경작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성곽이 위치하는 산의 높이가 생활면에서 100~200m 정도의 범위라는 연구 결과도[48] 지금의 북한산성이 북한산주의 치소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또 신라산성과 인접하여 고분군이 짝하여 분포한다는 일반적인 특징에서 북한산성이 벗어나 있다는 점도 위의 결론을 더욱 뒷받침해 준다.

4. 하북위례성과 북한성의 비정

일찍이 文安植에 의하여 파주의 육계토성과 연천의 삼곶리적석총을 연결하여 임진강 유역을 백제 초기의 일시적 중심지로 본 견해가 제기되었다.[49] 그러나 그 이후의 발굴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논의가 없었기에, 본고에서는 육계토성을 『삼국사기』의 북한성으로 비정하고, 더 나아가 북한성이 하북위례성의 後名일 가능성을 제시코자 한다.[50]

---

45) 韓國建築文化硏究所, 1997, 앞의 책.

46) 서울대학교 박물관, 2000, 앞의 책.

47) 경기문화재연구원, 2014, 『여주 파사성Ⅱ - 2~4차 발굴조사 보고서』.

48) 朴省炫, 2002, 「6~8세기 新羅 漢州 '郡縣城'과 그 성격」 『한국사론』 4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49) 文安植, 1995, 『百濟 聯盟王國 形成期의 對中國 郡縣關係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6쪽.

50) 여기서는 하북위례성의 존재 여부, 『삼국사기』 초기기사의 취신 문제, 백제의 영역 등과 같은 복잡한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 다만, 연천 학곡리적석총의 초축연대가 기원후 2세기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전제로 했다. 또 육계토성을 중심으로 하는 적성일대에 임진강 유역을 대표하는 정치체가 존재했고 그 정치체는 백제왕실과 정치적·혈연적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염

앞에서의 비류왕 24년(327) '내신좌평 優福이 북한성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료 b의 기사와 함께 주목되는 바는 優福이 왕의 庶弟로 6년 전에 내신좌평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이다.[51] 이 기사는 하남위례성으로 천도한 이후, 한강 이북에 하북위례성의 후신이 존재했고, 그 後名이 본 사료 b의 '북한성'일 가능성을[52] 제시한다. 이런 가능성은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도 압록강 유역의 집안지역에 평양지역에 결코 뒤지지 않는 왕릉급 무덤, 예컨대 장군총과 오회분 4·5호분 등이 축조되고 있는 사실로도 입증된다.[53]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북방의 한성 즉 한강 이북에 제2의 도성이 있었고, 그곳을 왕족이 다스렸던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 또한 優福이 優台(仇台)를 이은 沸流系 왕족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54], 비류계가 북한성을 거점으로 일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적성 일대를 흐르는 임진강 구역이 '神智江'으로 고문헌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도[55] 육계토성 일대가 지방세력인 渠帥 중에서도 큰 권력을 지닌 臣智가 다스렸던 지역임을 암시해 주고 있어, 위의 결론을 뒷받침한다. 한편, 감악산 정상에 북한산순수비와 유사한 형식과 비슷한 크기의 석비, 이른바 無字碑가 세워져 있고, 감악산이

두에 두었다. 아울러 하북위례성이 존재하였다는 가정하에서 그 위치가 육계토성일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51) 『三國史記』 권24 百濟本紀 제2 比流王) 18년

52) 아래의 논문에서 그 가능성이 적극적으로 제시되었는데, 필자는 온조왕 14년 천도 이후에 왕의 庶弟가 한강의 북방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온조왕 17년·온조왕 41년·책계왕 즉위년 등의 기사에서 한강 이북에 또 다른 왕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차용걸, 2016, 앞의 책, 266쪽.
참고로 이 기사의 북한성이 위례성의 後名일 것이라는 견해는 다음의 글에서도 제시되었다.
李丙燾·金載元, 1965, 『韓國史』 古代篇, 진단학회, 354~356쪽.

53) 김성태, 2010, 「태왕릉의 피장자에 관한 고고학적 검토」 『韓國古墳의 編年硏究』, 서경문화사, 99~100쪽.

54) 權兌遠, 1995, 「4. 사회구조」 『(신편) 한국사』 6(삼국의 정치와 사회Ⅱ), 국사편찬위원회, 228쪽.

55) "神智江…三國時以此稱七重河"(『大東地志』 권3, 京畿道 13邑 積城條)

북한산과 더불어 신라가 소사小祀를 지냈던 영산이라는 점도[56]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육계토성이 위치한 적성일대가 한국고대사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위상을 가늠케 해 주고, 이는 임진강유역이 한강유역에 버금가는 정치적·군사적·종교적 위상을 지녔음을 시사해 주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할 때, 한강 이북에 한성에 準하는 제2의 왕성, 즉 副都가 있었고 그곳을 백제왕족이 다스렸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優福이 반란을 일으킨 북한성은 앞에서 주장했듯이 파주 육계토성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성으로 보는 데에 별 이론이 없는 풍납토성과, 한강 이북에 쌓은 또 다른 한성인 육계토성을 유사점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자.[57]

구분	풍납토성	육계토성
수계	한강본류	임진강 본류
입지	하안충적대지, 남안	하안충적대지, 남안
배후산성	이성산성	칠중성
대안(對岸) 성곽	호로고루	아차산성
고분	석촌동고분군	학곡리적석총
피난처	남한산	감악산
자연해자	하중동	하중도
지류	중랑천	사미천
도하	광나루	두지나루, 술탄
성격	거주성	거주성

56) 李龍範,「紺岳山 古碑에 대하여」『佛教美術』7, 동국대박물관, 1983.

57) 육계토성에 대한 조사보고서와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박물관, 2006,『파주 육계토성』.
백종오, 2006,「百濟 漢城期 六溪土城에 대하여」『國立公州博物館紀要』5, 국립공주박물관.
김기섭 외, 2007,「파주 六溪土城 조사연구보고서」,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풍납토성과 육계토성 모두 지형적으로 대하천의 남안에 형성된 충적대지에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곽 외부를 따라 물길이 나 있어 자연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舌狀臺地의 끝부분, 곧 자연제방이 자리했을 곳에 입지하고 있다. 아울러 강 건너 전방에는 한강과 임진강으로 합류하는 1차 지류하천인 中浪川과 沙彌川이 각각 마주하고 있으며 배후에는 고위도의 남한산과 감악산이 위치하고 그 중간에는 주변일대를 鳥瞰할 수 있는 이성산과 중성산이 자리한다. 또한 도하를 위한 최적의 나루를 끼고 있는데, 풍납토성의 광나루와 육계토성의 두지나루가 그것이다.

우선, 양 토성은 수운과 육상교통로의 길목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풍납토성 주변이 조선시대에 봉화로의 길목에 자리했던 사실과,[58] 육계토성 일대가 파주·장단·마전·연천·삭녕 등을 잇는 군사적 요충지에 위치하여 신라군과 고구려군의 주된 侵攻路였던 사실이 잘 설명해 준다. 결국 삼국시대 대군이 한강 본류를 도하하려면 광나루를 통해야 했고, 또 임진강 본류를 건너고자 한다면 豆只나루나 戊灘을 건너야 했는데, 그 도하지점에 풍납토성과 육계토성이 위치했던 것이다.

두 토성 모두 주변에 고분군을 끼고 있는 점도 유사한데, 풍납토성의 주변에는 석촌동고분군이 자리하고 육계토성의 대안에는 대략 8개의 무덤방을 연결한 連接式의 연천 학곡리적석총을 비롯하여[59] 연천 동이리·우정리·삼곶리 등이[60] 위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적석총과 백제토성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경우는 풍납토성과 육계토성뿐으로, 이 역시 육계토성이 副都일 가능성을 보강해 준다.

아울러 풍납토성의 배후에 이성산성이 있듯이, 육계토성의 배후에

---

58) 김정호의 『大東地志』에서는 奉化路 전곶교-송파진-광주-이천-음죽-단양-풍기-영천-봉화를 잇는 幹線道路로 기록되어 있다.

59) 기전문화재연구원, 2004, 『연천 학곡리 적석총』.

60) 김성범, 1992, 「군사보호구역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 경기도 연천군 편」 『문화재』 25, 문화재관리국,

칠중성이 있는 점도 일치한다. 이성산성은 한산주의 치소로 비정되는 산성이고 칠중성은 임진강 유역의 신라산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했던 군사적 요충지였다.[61] 둘 다 현재까지 발굴자료에 의거할 때, 백제산성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한성백제기에 관방의 기능을 가졌을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7세기대 이성산성의 대안에는 고구려의 아차산 보루와 신라의 아차산성이 자리했고, 칠중성의 대안에는 고구려의 호로고루성이 자리했던 점도 유사하다.

이상으로 육계토성은 '리틀little 풍납토성'이라 할 정도로, 풍납토성을 빼닮고 있어 임진강 유역에 자리한 副都로 볼 만하다. 이런 판단은 현재까지 풍납토성과 유사한 한성백제기의 토성이 육계토성뿐이라는 사실로도 입증된다. 이런 판단은 그동안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輿地圖書』의 기록으로도 뒷받침된다.

> **사료 n: 육계토성의 현치소로부터 7리에 있고 둘레는 7,692척이다. 성내에 礎石이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옛날 궁궐터가 있었던 자리라고 지적하는데 고려의 離宮이 아닌가 생각된다.**[62]

이 기록에서 육계토성에 조선후기까지 초석이 남아 있었고, 그것을 고려 이전의 궁궐터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고려의 이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현재까지 舌狀의 하안충적지에 세워진 離宮이 알려진 바 없고, 離宮이라 하면 行宮일 수 있는데 일반적인 행궁의 입지에도 맞지 않다. 이런 제반 사실을 감안하고 육계토성 내부에서 3~5세기로 비정되는 한성백제시기의 주거유적이 확인된 사실과 연결할 때, 기록 속의 육계토성을 백제시기의 것으로

61) 심광주, 2003, 앞의 글.

62) "六溪土城在縣西七里周七千六百九十二尺內有石礎邑人至今指爲古闕基豈或麗朝離宮歟" (『輿地圖書』 補遺篇(京畿道) 積城縣誌目錄 古蹟)

추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이상에서 육계토성을 북한성으로 비정하고, 漢城에 버금가는 제2의 도성으로 보았는데, 이럴 경우 육계토성 일대가 396년 광개토대왕의 남정시 정벌한 58성 중에서 포함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58성에는 북한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북한성의 또 다른 이름 즉 異名을 탐색해 봄도 필요할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광개토대왕이 점령한 58개 성 중에서 臼模盧城, 各模盧城, 幹氐利城 등이 임진강 유역에 있었다고 견해가 주목되는데, 63), 기본적으로 58성을 기록함에 있어서 평양에서 가까운 곳부터 시작했다고 가정할 때 설득력이 충분하다. 따라서 육계토성이 위치한 적성 일대는 상기 셋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구모로성과 각모로성이 서술상 2번째와 3번째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模盧城 앞에 각각 臼(구)와 各(각)이라는 接頭語가 붙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더 나아가 이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마한 54개국을 서술하면서 小石索國, 大石索國을 4번째와 5번째로 연결하여 배치한 점과 상통한다. 이를 우연의 일치로 보지 않을 때, 모로성과 석색국은 동일한 지역일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석색국에 대한 비정이 이루어지면, 모로성에 대한 비정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석색국을 비정해 보자.

마한 54국의 서술이 중국 군현에서 가까운 쪽에서부터 이루어졌던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8번째에 한강중류의 伯濟國이 나오고 14번째에 금강유역의 目支國이 나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현대중국어에서 외래어의 표기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고유지명을 유사한 중국발음으로 옮겼거나 아니면 특정지역의 특기할 만한 요소를 택하여 그 의미를 한어로 표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64) 상기 두 사실을 염두에 둘 때, 臣濆沽國(chen/fen/gu)

63) 임기환, 2005,「廣開土王碑에 보이는 百濟 관련 記事의 檢討」『漢城百濟 史料硏究』, 경기문화재단, 148쪽.

64) 前者는 코카콜라를 可口可樂으로 표기한 것이 한 예이며, 후자는 나폴레옹을 法國大將軍이라

이 『三國史記』에서 交河로 비정한 고구려의 泉井口縣의 '泉井口'와 그 발음이 절묘하게 일치되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백제국 바로 앞에 나오는 臣濆沽國을 지금의 한강 하류로 보아도 무방하고, 그에 앞서 있는 小石索國, 大石索國, 優休牟涿國을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의 소국으로 비정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임진강 하류부터 올라가면서 優休牟涿國은 파주, 大石索國은 적성, 小石索國은 연천일대로 비정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비정은 임진강 적성과 연천 일대에 현무암 단애가 발달해 있는 지형적 특징으로도 뒷받침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적성일대의 현무암 단애는 '임진강 적벽'으로 불릴 정도로 다른 단애에 비하여 빼어난 절경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사실은 적성일대가 소색색국보다는 대석색국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 지금의 육계토성이 있는 적성일대가 3세기 무렵에는 대석색국으로 불렸다고 일단 볼 수 있다.

이처럼 마한 54개국의 大石索國을 적성일대로 비정할 때, 구모로성과 각모로성 둘 중 하나가 적성일대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적성일대는 구모로성이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억지스럽지만 '臼'가 '各보다는 우리말 '큰'과 음이 더 잘 통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육계토성이 자리한 적성지역이 백제 초기부터 임진강 유역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군사적 거점이었을 가능성을 타진했고, 『삼국지』의 大石索國과 광개토대왕비문의 臼模盧城이 적성일대일 개연성을 밝혔다. 이에 제2의 도읍 즉 副都가 적성일대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副都의 치소가 육계토성일 개연성이 높으며, 이 부도가 『三國史記』에 기록된 북한성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런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河北慰禮城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겠다.

선학들은 漢城은 하남위례성의 또 따른 이름이라고 보아왔다. 이런 정설을 따를 경우, 북한성=하북위례성=육계토성이라는 등식이 성립

부르는 것이 한 예이다.

된다. 이런 판단에 입각해서 『三國史記』 백제본기의 위례성 관련 기사를 일단 살펴보면, 하북위례성을 임진강유역으로 보는 본고의 견해가 '하북위례성 중랑천설'보다는[65] 더 설득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료 o: 온조 8년(기원전 11년) 봄 2월에 말갈군 3천 명이 침입하여 위례성을 포위했다. 왕은 성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 열흘이 지나자 적은 군량이 떨어져 돌아갔다. 왕은 정예군을 선발하여 大斧縣까지 추격하여 싸워 이겼는데, 적병 5백여 명을 죽이고 사로잡았다.[66]

사료 p: 온조 13년(기원전 6년) 여름 5월에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동쪽에는 낙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다. 그들이 변경을 침공하여 편안한 날이 없다.… 반드시 도읍을 옮겨야겠다. 내가 어제 순행하는 중에 漢水의 남쪽을 보니, 토양이 비옥하였다. 따라서 그곳으로 도읍을 옮겨 영원히 평안할 계획을 세워야겠다."[67]

사료 q: 온조왕 17년(기원전 2년) 낙랑이 침입하여 위례성을 불태우다.[68]

사료 r: 온조왕 18년(기원전 1년) 겨울 10월에 말갈이 습격해왔다.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七重河에서 그들과 싸웠다. 추장 素牟를 생포하여 마한에 보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생매장하였다.[69]

사료 o에서의 大斧縣은 강원도 平康으로 비정되고 있는데[70] 평강의 고구려시대 이름이 斧壤縣이었고, 한탄강의 발원지인 사실을 감안

65) 아래의 논문에 '중랑천 유역설'을 비롯한 하북위례성에 대한 연구사가 잘 정리되어 있다. 申熙權, 2002, 앞의 글, 77~82쪽.

66) 『三國史記』 卷第23 百濟本紀 第1 溫祚王 8年

67) 『三國史記』 卷第23 百濟本紀 第1 溫祚王 13年

68) 『三國史記』 卷第23 百濟本紀 第1 溫祚王 17年

69) 『三國史記』 卷第23 百濟本紀 第1 溫祚王 18年

70) 李丙燾 譯註, 『三國史記』(下), 乙酉文化史, 1983, 8쪽.

할 때 무리 없는 비정이라 생각된다. 이런 정황에 근거할 때, 하북위례성의 위치를 한강 수계에 속하는 중랑천 일대보다는 임진강 수계에 속하는 적성지역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사료 p는 말갈과 낙랑의 침공에 시달리던 온조가 한강 이남으로 천도할 것을 계획한 내용이다. 이 기사를 근거로 할 때, 낙랑과 말갈과 근접한 임진강 수계에서의 천도는 쉽게 납득이 가지만, 한강의 제1지류이면서 반나절 거리도 되지 않는 중랑천유역에서 하남위례성으로 비정되는 풍납토성으로의 천도는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요컨대 낙랑과 말갈의 침공이 천도의 결정적인 이유였다면, '하북위례성 중랑천 유역설'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사료 q와 사료 r은 온조가 하남위례성으로 천도한 다음의 사건으로, 사료 q에서의 위례성을 초도지인 하북위례성으로 보아야 사료 r의 七重河라는 지명과 부합된다. 즉 낙랑이 북변에 자리한 하북위례성을 침입하여 노략질을 하자, 다음 해에 온조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하북위례성 근처에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기서 낙랑과 말갈이 각각 침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사료 r은 사료 q에 대한 보복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침략의 주체는 낙랑과 말갈일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해석이 허용될 때, 하남위례성으로 천도한 이후, 칠중하에 자리했던 초도지가 계속 존속·유지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추측을 왕의 서제 優福이 북한성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료 b와 연결해 볼 때, 더욱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즉 온조는 한강 이남으로 새로운 도읍을 정하여 천도했지만, 임진강 유역을 통치하고 낙랑과 말갈의 침임으로부터 북경을 수비하기 위하여 초도지에 王弟를 두어 통치케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하북위례성을 칠중하 근처로 보는 데에 무리가 없다면, 하북위례성이 자리했던 곳을 육계토성으로 보아도 무방하겠다. 이런 판단은 백제가 말갈과 충돌한 지역이 靑木山(개성), 馬首城(포천), 高木

城(연천), 沙道城(포천), 牛谷(금천) 등과 같은 백제의 北境 혹은 北鄙인 사실로도 방증된다. 또 육계토성이 자리한 칠중하가 백제의 입장에서 볼 때 한성으로 통하는 육상교통로의 咽喉에 해당되는 점으로 방증된다. 아울러 이런 결론은 육계토성 일대가 당시 임진강 수계를 통하여 관서지역으로 통하는 교통로의 要地이자 낙랑이나 고구려가 백제로 침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사로의 길목에[71] 자리하고 있는 점으로도 뒷받침된다.

5. 맺음말

사적 162호 북한산성이 자리하고 있는 현재의 북한산은 조선전기까지 부아악, 횡악, 삼각산으로 불렸고, 본격적으로 북한산으로 지칭하기 시작한 것은 숙종대 북한산성에 대한 축성 논의가 시작할 무렵부터이다. 따라서『三國史記』『三國遺事』등의 기록에 전하는 북한산성, 북한성, 북한산, 한산, 한산성 등은 결코 지금의 북한산성일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런 결론을 삼국시대까지 성곽은 주요 교통로상에 입지하고 있는 점, 행정치소로서의 기능을 겸하고 있었던 사실, 삼국시대까지는 북한산과 같은 험지에 순수 피난용의 성곽을 축조하지 않은 점, 한성기까지 백제는 석축산성을 축조하지 않았고 설령 축조했다고 해도 그 시점은 4세기 이후인 점, 현재의 북한산성 내에 백제관련 유구나 유물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을 들어 입증했다.

---

71) 현재 육계토성이 자리하고 있는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의 좌우로는 현무암 단애가 발달해 있다. 또 개가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옅은 개울, 곧 戍灘이 육계토성의 상류에 자리하고 있어, 임진강 본류로 합류는 사미천을 통해 남하하는 낙랑 혹은 고구려군은 술탄, 곧 칠중하를 도하지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신라의 삼국통일전쟁, 임진왜란, 한국전쟁에서 이 일대가 최고의 전적지가 되었던 것은 당연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글에 잘 정리되어 있다.
심광주, 2009, 앞의 글, 65~79쪽.
황찬익, 2012,「파주 감악산, 신화와 전쟁, 분단의 증인」『민족』21, 민족 21, 145~151쪽.

위와 같은 입장에서 본고는『三國史記』백제본기에 기록된 북한성의 위치와 관련하여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육계토성으로 비정했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육계토성을 풍납토성과 비교할 때 '리틀 풍납토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입지가 유사한 점, 고고학적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는 점, 인문학적 조건이 흡사한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이런 견해를『여지도서』에서 육계토성 내에 옛 궁궐의 것으로 추정되는 주초석이 있었다는 문헌기록을 새롭게 찾아내어 뒷받침했다. 더 나아가 본고에서는 북한성이 하북위례성일 개연성을 타진하고, 그 근거로써 제2 도성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백제본기 온조왕 8년·13년·23년·24년 조의 기록들을 분석하여, 하북위례성의 위치가 중랑천보다는 임진강 유역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거론하였다. 그런 다음 현재 임진강 유역에서 풍납토성에 준하는 백제토성으로는 육계토성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논거로 삼았다.

물론, 육계토성을 하북위례성이 자리했던 곳으로 비정하면서『삼국사기』의 북한성으로 비정한 본고의 견해는, 육계토성에 대한 제대로 된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설득력이 약하고,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또 관련 문헌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삼국사기』의 북한산성 혹은 북한성이 현재의 북한산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하북위례성'이나 '북한성'이 한강 이북에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현시점에서, 북한성이 존재했다면 현재까지의 자료에 근거할 때, 육계토성이 제1 후보지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입장에서 고고학적 자료에 의한 논증이 부족하지만, 역사고고학적 정황판단에 근거하여 가설적·추론적 견해를 제시해 보았다.

한편, 603년과 661년에 있었던 고구려와 신라와의 '북한산성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 서울 광진구의 아차산성이라는 기존의 정설을 인정한 다음, 관련 문헌의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북한산성이 신라본기 속의 북한산성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런 결론의

근거로 당시 고구려가 수륙양면으로 북한산성을 공격하였다는 기록에 현재 북한산성이 지형이 맞지 않는 점, 말갈과 동서로 진을 치고 북한산성을 공격했다고 했는데 이런 협공이 현재의 북한산의 지형에는 불가한 점 등을 들어 방증했다. 그런 한편으로 신라산성에서는 다량의 신라기와가 출토되는 데에 현재까지 북한산성에 대한 발굴에서 신라기와가 전혀 출토되지 않는 점과, 신라의 산성은 군현성으로 북한산과 같은 험지에 축성된 경우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들어 상기 결론을 보강했다.

참고문헌

『國朝寶鑑』, 『大東地志』, 『備邊司謄錄』, 『三國遺事』, 『世宗實錄』,『肅宗實錄』, 『輿地圖書』,『正祖實錄』, 『三國史記』

경기도박물관, 2006, 『파주 육계토성』.

경기문화재연구원, 2014, 『고양 북한행궁지 1차 발굴조사 중간보고서』.

경기문화재연구원, 2015, 『고양 북한행궁지 2차 발굴조사 중간보고서』.

경기문화재연구원, 2015, 『북한산성 성랑지 및 성벽 학술조사 보고서』.

경기문화재연구원, 2014, 『여주 파사성Ⅱ - 2~4차 발굴조사 보고서』.

權兌遠, 1995, 「4. 사회구조」『(신편) 한국사』 6(삼국의 정치와 사회Ⅱ), 국사편찬위원회.

金起燮, 2002, 「慰禮城에서 漢城으로」『鄕土서울』 62, 서울시사편찬위원회.

김기섭 외, 2007, 「파주 六溪土城 조사연구보고서」, 백제문화개발연구원.

김성범, 1992, 「군사보호구역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 경기도 연천군 편」『문화재』 25, 문화재관리국.

김성태, 2010, 「태왕릉의 피장자에 관한 고고학적 검토」『韓國古墳의 編年硏究』, 서경문화사.

金廷鶴, 1981,「서울近郊의 百濟遺蹟」『鄕土서울』39, 서울시사편찬위원회.

金虎俊, 2002,「설성산성 발굴조사 개보」『한국성곽연구회 창립학술회의』, 한국성곽연구회.

노중국, 2004,「漢城百濟의 沒落과 首都 移轉」『鄕土 서울』64, 서울시사편찬위원회.

文安植, 1995,『百濟 聯盟王國 形成期의 對中國 郡縣關係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朴省炫, 2002,「6~8세기 新羅 漢州 '郡縣城'과 그 성격」『한국사론』4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朴淳發, 2001,『漢城百濟의 誕生』, 서경문화사.

백종오, 2003,「고려성곽」,『경기도의 城郭』, 경기문화재단.

백종오, 2006,「百濟 漢城期 六溪土城에 대하여」『國立公州博物館紀要』5, 국립공주박물관.

徐榮一, 1998,『新羅 陸上交通路 硏究』,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박물관, 2000,『아차산성 - 시발굴조사보고서』.

申熙權, 2002,「風納土城 발굴조사를 통한 河南慰禮城 고찰」『鄕土서울』,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심광주, 2010,「남한지역의 고구려성곽과 고구려 방어체계」『韓國城郭硏究의 새로운 觀點』, 韓國城郭協會.

심광주, 2009,「삼국의 쟁투지 칠중성」『파주시지』2(파주역사), 파주문화원.

심광주, 2002,「서울·경기지역의 삼국시대 연구 현황과 과제」『고고학』1-1, 서울경기고고학회.

심광주, 2003,「신라성곽」『경기도의 城郭』, 경기문화재단.

심광주, 2015,「이성산성과 하남시 고대유적의 성격」『고대동아시아의 왕성과 풍납토성』(학술세미나 발표문), 한국고고학회 등.

李道學, 1992,「百濟漢城時期의 都城制에 관한 檢討」『韓國上古史學報』9, 한국상고사학회.

李丙燾 譯註, 1983,『三國史記』(下), 乙酉文化社.

李丙燾·金載元, 1965,『韓國史』(古代篇), 진단학회.

李龍範, 1983,「紺岳山 古碑에 대하여」『佛教美術』7, 동국대박물관.

임기환, 2005,「廣開土王碑에 보이는 百濟 관련 記事의 檢討」『漢城百濟 史料 硏究』, 경기문화재단.

장창은, 2014,「아차산성을 둘러싼 삼국의 영역 변천」『史叢』81, 고려대 역사연구소.

車勇杰, 2016,「慰禮城과 漢城에 대하여」『한국축성사 연구』, 진인진.

최종택, 2014,「아차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성과와 과제」『史叢』81, 고려대 역사연구소.

韓國建築文化硏究所, 1997,『北漢山重興寺址發掘調査報告書』.

황보 경, 2015,「603년 北漢山城 전투 고찰」『韓國史學報』58, 고려사학회.

황찬익, 2012,「파주 감악산, 신화와 전쟁, 분단의 증인」『민족』21, 민족 21.

皇甫 慶, 2009,「광주 대쌍령리 고분 출토 '南漢山助舍' 銘 청동제 방울 고찰」『文化史學』32, 문화사학회.

북한산성 관련 참고문헌

▌사료 • 447
▌보고서 • 447
▌저서 및 학술발표 논문집 • 449
▌논문 • 450

| 부 록 |

북한산성 관련 참고문헌

사료

『고려사(高麗史)』
『동문선(東文選)』
『동사강목(東史綱目)』
『만기요람(萬機要覽)』
『북한지(北漢誌)』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임하필기(林下筆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보고서

• 경기문화재단, 『북한산 조사연구자료집』, 2011.
• 경기문화재단, 『북한산성 –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성벽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2014.
• 경기문화재연구원, 『고양 북한행궁지 1차 발굴조사 중간보고서』, 2014.

- 경기문화재연구원, 『고양 북한행궁지 2차 발굴조사보고서』, 2015.
- 경기문화재연구원, 『북한산성 성랑지 및 성벽 학술 발굴조사 보고서』, 2015.
- 경기문화재연구원, 『북한산성 행궁지 종합정비기본계획』, 2009.
- 경기문화재연구원, 『북한산성의 역사와 문화유적 – 북한산성 문화유적 학술조사』, 2014.
- 고양시·고려문화재연구원, 『문화유적분포지도-고양시』, 2006.
- 고양시·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 今西龍, 『京畿道高陽郡北漢山遺蹟調査報告書』 大正5年度古蹟調査, 朝鮮總督府, 1917.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고양 북한산성 행궁지 지표조사보고서』, 1999
-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北漢山 重興寺址 發掘調査 報告書』, 1997.
- 불교문화재발굴조사단, 『北漢山의 佛教遺蹟: 북한산 불교유적 지표조사보고서』, 1999.
- 서울대학교박물관, 『북한산성지표조사보고서』, 1991.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北漢山城 3단계 6차 복원·정비공사: 수리보고서』, 2010.
- 서울역사박물관, 『북한산 삼천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1(발굴조사편), 2011.
- 서울역사박물관, 『북한산 삼천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2(보존과학편), 2011.
- 한울문화재연구원, 『북한산성 행궁지 시굴조사 약보고서』, 2011.

저서 및 학술발표 논문집

- 겨레문화유산연구원, 『북한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정립』(심포지엄 자료집), 2014.
-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아시아 주요산성의 세계유산 등재과정과 고양 북한산성의 추진전략 제안』(심포지엄 자료집), 2014.
- 경기도, 『경기도의 옛 지도』, 2005.
- 경기문화재단,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타당성 및 추진전략』(학술심포지엄 발표집), 2016.
- 경기문화재단, 『북한산성 축성 30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1.
- 경기문화재단, 『북한산성연구논문집』, 2016.
- 金侖禹, 『북한산 역사지리』, 범우사, 1995.
- 민경길, 『북한산』 1(역사지리잡고), 집문당, 2003
- 민경길, 『북한산』 2(북한실록), 집문당, 2004.
- 민경길, 『북한산』 3(시문집), 집문당, 2004.
- 박인식 글, 안승일 사진, 『북한산』, 대원사, 2003.
- 북한산중흥사복원추진위원회, 『북한산성과 호국도량 북한산 중흥사』(학술발표집), 불광문화원, 2012.
- 서울역사박물관, 『삼천사지, 발굴에서 전시까지』(특별전도록), 2008.
- 이병두, 『북한산성과 팔도사찰』, 대한불교진흥원, 2010.
- 조면구, 『북한산성』, 대원사, 1994.
- 조윤민, 『성과 왕국』, 주류성, 2013.
- 청계천문화관, 『북한산과 북한산성』, 청계천문화관, 2010.

논문

- 강혜선, 「삼각산 일대의 사찰과 한시」『한국한시연구』 5, 한국한시학회, 1997.
- 권경록, 「18세기 삼각산의 문화지형과 공간의 재발견」『민족문화논총』 4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1.
- 기호철, 「북한산성 관련 주요 인물」『북한산성의 역사와 문화유적 - 북한산성 문화유적 학술조사』, 경기문화재연구원, 2014.
- 기호철, 「북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북한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정립』(심포지엄 자료집),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4.
- 金甲周, 「南北漢山城 義僧番錢의 綜合的 考察」, 『불교학보』 25,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88.
- 金甲周, 「正祖代 南北漢山城 義僧防番錢의 半減」, 『素軒 南都泳 博士華甲紀念論叢』, 1984.
- 金甲周, 「朝鮮後期 寺院經濟의 動向: 南北漢山城義僧防番錢을 中心으로」, 『韓國近代社會經濟史硏究』, 정음문화사, 1985.
- 김대성, 『조선 숙종대 북한산성 축성법에 관한 연구 - 체성과 여장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 金烈圭, 「露積峰 傳承考 - 口述傳承과 信仰傳承의 相關性을 中心으로」, 『文化人類學』 3, 韓國文化人類學會, 1970.
- 金龍國, 「肅宗朝 北漢築城考」, 『향토서울』 8,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60.
- 김상영, 「한국불교사에서 중흥사의 위상과 역할」『북한산성과 호국도량 북한산 중흥사』, 불광연구원, 2012.
- 김선희, 「유산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삼각산 여행의 시공간적 특성」『문화역사지리』 21, 문화역사지리학회, 2009.

- 김성태,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의 비교연구」『북한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정립』(심포지엄 자료집),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4.
- 김순배, 「북한산성 지명의 분포와 의미」, 『북한산성 연구논문집』, 경기학연구센터, 2016.
- 김영상 편저, 「Ⅳ. 北漢山城의 사적」『북한산』,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54.
- 김은하, 『정축약조로 본 현종~숙종대 조청관계 - 안추원 사건과 북한산성 수축 논의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김준기, 「북한동의 민속과 산신제」, 『북한산성 연구논문집』, 경기학연구센터, 2016.
- 김형근, 「경기도 도당굿과 삼각산 도당굿」, 『북한산성 연구논문집』, 경기학연구센터, 2016.
- 나신균, 『인조~숙종대 행궁의 배치와 공간이용에 관한 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2001.
- 라경준, 『조선 숙종대 관방시설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李根浩, 「18세기 전반의 首都方位論」, 『軍史』 37, 국방군사연구소, 1998.
- 李丙燾, 「北漢山州 置廢 問題」, 『향토서울』 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59.
- 李崇寧, 「北漢山의 地誌的 考察」, 『人文科學硏究所論文集』 1, 仁荷大學校, 1975.
- 李在崑, 「北漢山 都堂굿에 대한 考察」, 『향토서울』 3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9.
- 閔德植, 「北漢山城을 쌓게 된 경위에 관한 考察: 성곽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45, 白山學會, 1995.

- 박언곤, 「북한산성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대한건축학회지』 206, 대한건축학회, 1996.
- 박재광, 「조선후기 국토방위전략과 북한산성」『북한산성과 호국도량 북한산 중흥사』, 불광연구원, 2012.
- 박정해, 「북한산성과 행궁입지의 역사적 전개와 풍수논리」『향토서울』 90,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15.
- 백종오, 「조선후기 북한산성의 축성」, 『북한산성 행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고양시·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 백종오, 「조선후기 북한산성의 축성과 운영체계」『한국사학보 50』, 고려사학회, 2013.
- 신익철, 「증흥유기의 글쓰기 방식과 18세기 북한산 산행의 모습」『문헌과 해석』 11, 문헌과 해석사, 2000.
- 신종원, 「한국의 산악숭배와 고대의 삼각산」, 『북한산성 연구논문집』, 경기학연구센터, 2016.
- 심광주, 「북한산성의 축조기법」『북한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정립』(심포지엄 자료집),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4.
- 심광주, 「북한산성의 현황과 축성방법」『북한산성 축성 300주년 기념 심포지엄』, 경기문화재단, 2011.
- 심광주, 「중흥산성의 입지와 축성기법」『(문화예술잡지) 경기나루』 36, 경기문화재단, 2014.
- 심준용, 「북한동 마을의 생활사」『북한산성의 역사와 문화유적 - 북한산성 문화유적 학술조사』, 경기문화재연구원, 2014.
- 오경후, 「1910년대 今西龍의 三角山 名稱解釋에 대한 檢討」,『韓國思想과 文化』 47, 한국사상문화연구원, 2009.
- 禹貞相, 「南北漢山城 義僧防番錢에 對하여」, 『불교학보』 1,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963.

- 우정상, 『南北漢山城義僧防番錢에 對하여』,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63.
- 윤기엽, 「북한산성의 승영사찰」 『국학연구』 25, 한국국학진흥원, 2014.
- 윤해근, 『조선시대 행궁의 풍수입지 연구 - 남한행궁과 북한행궁을 중심으로』,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경미, 「승영사찰 중흥사의 가람 배치와 복원방향」 『북한산성과 호국도량 북한산 중흥사』, 불광연구원, 2012.
- 이근호, 「북한산성 관리 체계의 추이」, 『북한산성 연구논문집』, 경기학연구센터, 2016.
- 이근호, 「숙종대 중앙군영의 변화와 수도방위체제의 성립」,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8.
- 이근호, 「조선후기 사회와 북한산성의 운영」 『북한산성의 역사와 문화유적-북한산성 문화유적 학술조사』, 경기문화재연구원, 2014
- 이기석 외, 「북한산성의 자연 및 지리환경」 『북한산성지표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 1991.
- 이숭녕, 「북한산성 연구 - 위용을 갖춘 서울의 진산」 『월간 산』, 1984년 1월호.
- 이숭녕, 「북한산의 지리적 고찰」 『산이 좋아 산을 타니』, 박영사, 1982.
- 이왕무, 「『북한지(北漢誌)』의 문헌적 검토」, 『북한산성 연구논문집』, 경기학연구센터, 2016.
- 이재범, 「북한산성의 역사성」, 『북한산성 축성 30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2011, 경기문화재단.
- 이태진, 「숙종대 북한산성의 축조와 그 의의」 『북한산성지표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1991.

- 이현수,「18세기 北漢山城의 축조와 經理廳」,『청계사학』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이현수,「北漢山城 築造와 經理廳의 置廢」,『陸士論文集』31, 육군사관학교, 1986.
- 이현수,『朝鮮後期 經理廳 硏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임남수,「북한산성의 불교문화재」,『북한산성 연구논문집』, 경기학연구센터, 2016.
- 임남수,「북한산성 내 사찰과 불교문화재」『북한산성의 역사와 문화유적 - 북한산성 문화유적 학술조사』, 경기문화재연구원, 2014.
- 임석규,「북한산성 내 문화유적 현황 및 특징」『북한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정립』(심포지엄 자료집),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4.
- 임성수,「조선후기 북한산성의 창고와 운영」,『북한산성 연구논문집』, 경기학연구센터, 2016.
- 임성준,「북한산성 내 건축물의 배치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임성준·박언곤,『북한산성 내 양주행궁의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19권 제1호, 1999.
- 임춘화,『肅宗代 北漢山城 築城과 그 政論』,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1993.
- 정병삼,「북한산의 불교 문화사적 의의」『北漢山의 佛敎遺蹟: 북한산 불교유적 지표조사보고서』, 불교문화재발굴조사단, 1999.
- 정치영,「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유람 중의 활동」『역사민속학』42, 2013.
- 조명제,「조선후기 승군의 북한산성 축성과 중흥사의 산성 관리」『북한산성과 호국도량 북한산 중흥사』, 불광연구원, 2012.

- 조윤민, 「선정비 아래의 그늘」, 『북한산성 연구논문집』, 경기학연구센터, 2016.
- 채미하, 「문헌에 나타난 삼각산의 산신과 기우제」, 『북한산성 연구논문집』, 경기학연구센터, 2016.
- 최경환, 『태고 보우의 인맥과 공민왕대초 정치활동』,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최병헌, 「태고 보우의 불교사적 위치」 『한국문화』 7,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硏究所, 1986.
- 최선일, 「高陽 祥雲寺 木造阿彌陀三尊佛座像과 彫刻僧 進悅」, 『美術史學硏究』 244, 한국미술사학회, 2004.
- 崔淳雨, 「三角山 三川寺 大智國師碑」, 『美術資料』 10, 국립박물관, 1965.
- 최원석, 「삼각산의 지리와 풍수」, 『북한산성 연구논문집』, 경기학연구센터, 2016.
- 황인규, 「조선후기 의승군과 북한산성의 승영사찰」, 『북한산성 연구논문집』, 경기학연구센터, 2016.
- 황인규, 「북한산(삼각산)의 사찰과 불교의 전개」 『북한산성과 호국도량 북한산 중흥사』 불광연구원, 2012.

- 북한산성 관리 체계 – 총융청 관리 체제를 중심으로
  이근호 | 명지대학교
- 조선후기 북한산성의 창고와 운영
  임성수 | 고려대학교
- 『북한지(北漢誌)』의 문헌적 검토
  이왕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조선후기 의승군과 북한산성 승영사찰
  황인규 |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 태고 보우와 북한산 중흥사의 불교사적 위상
  김상영 | 중앙승가대학교
- 한국의 산악숭배와 고대의 북한산
  신종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 문헌에 나타난 삼각산의 산신과 기우제
  채미하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 경기도 도당굿과 삼각산 도당굿
  김형근 | 동아대학교 융합교양대학
- 북한동의 민속과 산신제
  김준기 |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 삼각산의 지리와 풍수
  최원석 | 경상대학교 인문한국
- 북한산성 지명의 분포와 의미
  김순배 | 한국교원대학교
- 북한산성의 불교문화재
  임남수 | 영남대학교 미술학부
- 선정비 아래의 그늘 – 조선후기 사회와 북한산성
  조윤민 | 다큐멘터리 작가
- 『三國史記』의 北漢山城에 대한 역사고고학적 고찰
  김성태 | 경기학연구센터
- 부록 | 북한산성 관련 참고문헌

03000
9 791185 593159
ISBN 979-11-85593-15-9